

## 차례

이 주석 시리즈에서 사용한 전문적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 . . . . .	i
석의에 영향을 주는 히브리어 문법 형태에 대한 간략한 정의 . . . . .	iii
이 주석 시리즈에서 사용한 약어 . . . . .	ix
역사로서의 구약 . . . . .	xi
근동 문화와의 비교하여 본 구약의 역사기록 . . . . .	xv
장르와 해석: 구약의 이야기체 . . . . .	xvi
저자의 말: 본 주석이 어떻게 독자를 도울 것인가 . . . . .	xviii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안내: 검증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한 개인적인 연구 . . . . .	xx
창세기 11:24-12:20 에 대한 서론 . . . . .	1
창세기 12 장 . . . . .	4
창세기 13 장 . . . . .	23
창세기 14 장 . . . . .	31
창세기 15 장 . . . . .	44
창세기 16 장 . . . . .	66
창세기 17 장 . . . . .	73
창세기 18 장 . . . . .	83
창세기 19 장 . . . . .	95
창세기 20 장 . . . . .	105
창세기 21 장 . . . . .	119
창세기 22 장 . . . . .	126
창세기 23 장 . . . . .	135
창세기 24 장 . . . . .	139
창세기 25 장 . . . . .	150
창세기 26 장 . . . . .	159
창세기 27 장 . . . . .	168
창세기 28 장 . . . . .	179
창세기 29 장 . . . . .	185
창세기 30 장 . . . . .	191
창세기 31 장 . . . . .	198

창세기 32 장 . . . . .	208
창세기 33 장 . . . . .	216
창세기 34 장 . . . . .	221
창세기 35 장 . . . . .	229
창세기 36 장 . . . . .	238
창세기 37 장 . . . . .	246
창세기 38 장 . . . . .	256
창세기 39 장 . . . . .	264
창세기 40 장 . . . . .	269
창세기 41 장 . . . . .	275
창세기 42 장 . . . . .	286
창세기 43 장 . . . . .	294
창세기 44 장 . . . . .	301
창세기 45 장 . . . . .	309
창세기 46 장 . . . . .	321
창세기 47 장 . . . . .	328
창세기 48 장 . . . . .	338
창세기 49 장 . . . . .	347
창세기 50 장 . . . . .	364
부록 1: 구약의 연대표 . . . . .	374
부록 2: 교리적 선언 . . . . .	377

## 특별주제 목차

하나님의 이름들, 12:1 .....	5
밥의 복음적 편향, 12:3 .....	11
메시아, 12:3 .....	12
달을 섬김, 12:4 .....	13
이스라엘 이전에 팔레스타인에 거주한 자들, 12:6 .....	14
주의 천사, 12:7 .....	17
야웨의 “이름,” 12:8 .....	18
창세기에서 메시아적 계보(즉, 창 3:15)를 위협하기 위한 사탄의 시도, 12:12 .....	20
언약, 13:15 .....	26
영원히, 13:15 .....	27
키 큰/힘센 전사 혹은 그러한 민족 그룹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들, 14:5 .....	33
고대 근동에서의 다산의 신 숭배, 14:5 .....	34
술에 대한 성경적 입장, 14:18 .....	38
모세의 율법에 있는 십일조, 14:20 .....	41
십일조, 14:20 .....	41
구약에서의 믿다, 신뢰하다, 믿음, 신실함, 15:6 .....	49
의, 15:6 .....	53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 15:15 .....	59
평화(shalom), 15:15 .....	62
불, 15:17 .....	63
죽장에게 주신 언약적 약속, 15:18 .....	64
흠없음, 무흠함, 죄없음, 책망할 것 없음, 17:1 .....	76
인간으로 묘사된 하나님(신인동형적 언어), 18:1 .....	85
고대 근동의 도량형, 18:6 .....	87
알다, 18:19 .....	91
동성애, 19:4 .....	98
인자한 사랑(hesed), 19:19 .....	101
인간의 성적 행위, 20:4 .....	108

구약의 예언, 10:7 . . . . .	111
삼위일체, 20:13 . . . . .	115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신다, 22:1 . . . . .	127
숫자 열둘, 25:16 . . . . .	153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용어들, 26:5 . . . . .	162
에돔과 이스마엘, 27:40 . . . . .	176
드라빔, 31:19 . . . . .	202
이스라엘, 32:28 . . . . .	214
슬픔의 의식, 37:29 . . . . .	254
선택/예정과 그 신학적 균형의 필요성, 41:33 . . . . .	280
중보기도, 44:16 . . . . .	304
남은 자(세 가지 의미), 45:7 . . . . .	312
예정(칼빈주의) 대 인간의 자유의지(알미니안 주의), 45:8 . . . . .	313
영광, 45:13 . . . . .	317
구약에서의 믿다, 신뢰하다, 믿음, 충성됨(아멘), 47:29 . . . . .	334
손을 얹음, 48:14 . . . . .	341
속량하다/구속하다, 48:16 . . . . .	343
구원, 49:18 . . . . .	357
모퉁이 돌, 49:23-25 . . . . .	360
화장, 50:2 . . . . .	365
장례 관습, 50:2 . . . . .	366
성경에서의 상징적 수, 50:3 . . . . .	367

# 이 구약 주석 시리즈에서 사용한 전문적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

## I. 사전

고대 히브리어 연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사전으로서 여러 종류가 있다.

- 가. 프란시스 브라운, S. R. 드라이버, 찰스 A. 브릭스가 공저한 *히브리어 영어 구약사전*. 이것은 윌리엄 게제니우스의 독어판 사전에 기초한다. 이 책은 약어로 BDB 로 알려져 있다.
- 나. 루드빅 켈러와 발커 바움가트너가 저술하였고 M. E. J. 리차드슨이 영어로 번역한 *히브리어 아람어 구약사전*. 이 책은 약어로 KB 로 알려져 있다.
- 다. 윌리엄 L. 할러데이가 저술한 *간이 히브리어 아람어 구약사전*이 있는데 이 책은 독일어로 쓰여진 위의 사전(가 항)에 기초한다.
- 라. 윌렘 A. 반 게머른이 편저한 다섯 권으로 된 *새 국제 구약 신학과 석의 사전*. 이 책은 NIDOTTE 로 표시된다.

유의할 만하게 사전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곳에서, 나는 여러 영어 번역본(NASB, NKJV, NRSV, TEV, NJB)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번역본들은 “축역적”인 것으로부터 “역동적 등가번역”을 따른 것까지 다양하다(참조,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텐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28-44 쪽).

## II. 문법

문법적인 내용은 요한 요셉 오웬의 4 권으로 된 *구약의 분석적 열쇄*에 일반적으로 의존한다. 이 책은 벤자민 데이빗슨의 *분석적 히브리어 갈대아어 구약사전*으로 뒷받침된다.

“당신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시리즈의 구약주석에서 많이 사용하는 또 다른 문법적 구문적 자료는 국제성서공회의 “번역가들을 돕기 위한 시리즈”이다. 그 책들은 “\_\_\_\_\_의 핸드북”이란 이름을 가진다.

## III. 본문

나는 자음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본문(맞소라 모음부호와 각주가 아니라)이 영감으로 되었다고 믿는다. 전체가 손으로 직접 쓰여져 전해져 왔고, 고대의 본문이기에, 약간의 논란이 있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다음의 이유에 기인한다:

- 가. *하팩스 레고메논*(히브리어 구약성경에서 단 한 번만 쓰인 단어)
- 나. 관용적 용어(문자적 의미를 적용할 수 없는 단어나 구)
- 다. 역사적 불확실성(고대 세계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
- 라. 히브리어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어휘가 셈어의 다중적인 의미를 가짐
- 마. 고대 히브리어 본문을 후기의 서기관들이 손으로 베끼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
- 바. 이집트에서 훈련받은 히브리 서기관들은 그들이 필사하는 본문이 자신들에게 완전하게 이해가 되게 본문을 자유롭게 고치는 경향을 가짐(NIDOTTE 제 1 권 52-54 쪽)

맞소라본문 전통 이외에 히브리어 단어와 본문에 대한 여러 자료가 있다.

- 1. 사마리아 오경
- 2. 사해사본
- 3. 몇 가지 후기의 동전, 편지, 도편 자료(불에 굽지않은 도자기 조각 위에 쓴 글)

그러나 구약은 많은 경우 헬라어 신약 사본의 경우와 달리 사본적 계보가 없다. 맛소라 본문(주후 900년 경)에 대한 본문적 신뢰성에 대하여는 NIDOTTE 제 1권 51-67쪽에 있는 브루스 K. 왈트키의 “구약 성경 본문의 신뢰성”을 참고하라.

히브리어 본문은 독일성서공회에서 1997년에 발행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BHS)인데 이 본문은 레닌그라드 사본(주후 1009년에 기초한다. 간혹 히브리어 본문이 명료하지 않거나 분명하게 혼동이 있을 경우에는 고대 사본들(헬라어 70인역, 아람어 탈굼, 시리아어 페쉬타, 라틴 별게이트)을 참조하였다.

# 석의에 영향을 주는 히브리어 문법 형태에 대한 간략한 정의

## I. 히브리어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간략한 고찰

히브리어는 서남 아시아의 셈족(셈어)어군에 속한다. 이 이름(현대 학자들에 의해 불리)은 노아의 아들인 셈(참조, 창 5:32; 6:10)에서 유래한다. 셈의 후예는 창 10:21-31 에서 아랍인, 히브리인, 시리아인, 아람인, 앗시리아인들이다. 사실상 어떤 셈어는 함의 계열(참조, 창 10:6-14)에 속하는 민족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가나안어, 페니키아어, 이디오피아어가 여기에 속한다.

히브리어는 이 셈어의 북서쪽 지류에 속한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이 고대 언어 그룹에 속하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가. 아모리어(주전 18 세기에 아카디아어로 쓰여진 *마리 서판*)
- 나. 가나안어(주전 15 세기에 유가릿어로 쓰여진 *라스 샤프라 서판*)
- 다. 가나안어(주전 14 세기에 가나안 아카디아어로 쓰여진 *아마르나 편지*)
- 라. 페니키아어(히브리어는 페니키아 알파벳을 사용한다)
- 마. 모압어(주전 840 년의 메사 비문)
- 바. 아람어(페르시아 제국의 공식적 언어로서 창 31:47[2 단어]; 램 10:11; 단 2:4-6; 7:28; 스 4:8-6:18; 7:12-26 에 사용되었고 팔레스타인에서 1 세기에 유대인들이 말했던 언어이다)

히브리어는 사 19:18 에서 “가나안의 입”으로 불린다. 이것은 주전 180 년경 쓰여진 지혜서(벤 시라의 지혜)서론에서 처음으로 “히브리어”로 불린다(그리고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속하는 다른 몇 곳에서, 참조, *앵커 바이블 사전*, 제 4 권, 205 쪽 이하). 이 언어는 모압어 및 유가릿에서 사용된 언어와 아주 밀접한 언어이다. 성경 이외의 곳에서 고대 히브리어가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 1. 게제르 달력, 주전 925 년(한 남학생의 글씨연습)
- 2. 실로암 명각, 주전 705 년(터널벽에 쓴 글)
- 3. 사마리아 도편, 주전 770 년(부서진 도자기 위에 기록한 세금 내역)
- 4. 라기스편지, 주전 587 년(전쟁과 관련한 통신 내용)
- 5. 마카비 시대의 동전과 인장들
- 6. 사해사본 본문들
- 7. 많은 종류의 비문들(참조, “언어[히브리어],” ABD 4:203 쪽 이하)

히브리어는 다른 모든 셈어와 마찬가지로 세 개의 자음(세 자음 어근)으로 단어가 형성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어형변화가 있는 언어이다. 세 자음으로 된 어근은 고유의 뜻을 가진다. 또한 전접어 후접어 혹은 단어 안에 추가되는 어소(후에는 모음, 참조, 수그린, *성서 히브리어의 언어적 분석*, 46-49 쪽)에 의해 구문적인 기능을 나타낸다.

히브리어는 산문과 시에서 단어가 구분되어 사용된다. 단어의 뜻은 전승적 어원(언어적 기원이 아닌)을 따른다. 단어와 소리(유사음어 쓰기)에 기초한 언어유희가 매우 일반적이다.

## II. 술부에 대한 동사의 상

### 가. 동사

문장의 일반적인 순서는 동사, 인칭대명사, 주어(수식 어구와 함께), 목적어(수식 어구와 함께) 이다. 기본적으로 아무 표시가 없는 동사는 칼, 완료, 남성, 단수이다. 히브리어 사전과 아람어 사전은 이 형태를 따라 형성되어 있다.

동사의 어형변화는 다음을 보여 준다

1. 수—단수, 복수, 쌍수
2. 성—남성과 여성(중성은 없음)
3. 태—직설법, 가정법, 명령법(행동과 사실과의 관계)
4. 시제(동사의 상)

- ㄱ. 완료, 이것은 어떤 행동이 시작, 계속, 종결의 의미에서 마쳐짐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이 동사 형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행동을 나타낸다. J. 와쉬 왓쓰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구문 개관*에서 말하기를  
“완료형이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한 가지 점은 어떤 일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미완료형은 어떤 상태가 가능하거나 그것을 바라고 있거나 혹은 그것을 기대함을 뜻할 수 있지만, 완료형은 그 일이 사실이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것이 분명함을 나타낸다”(36 쪽).
- S. R. 드라이버는 *히브리어에서 시제의 사용에 대한 논문*에서 이 점을 설명하기를,  
“완료형은 실제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것이 바뀔 수 없는 의지적 결심에 의해 이미 성취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결심, 약속,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언은 완료형으로 말해진다”(17 쪽, 예, 예언적 완료형).

로버트 B. 치숨은 *석의에서 강해까지*에서 이 동사형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 동사형태는) 어떤 사건 전체를 외부에서 조망한다. 이것은 어떤 행동이나 상태(일이나 마음의 상태를 포함하여)와 관련하여 단순히 사실을 나타낸다. 어떤 행동에 대하여 말하는 경우에는 종종 화자나 해설가의 수사적 관점에서 완료된 것임을 보여준다(실제로 그것이 일어났는지 또는 안 일어났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완료형은 과거, 현재, 혹은 미래에 일어난(날) 행동/상태에 관계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영어처럼 시간적 개념을 갖고 있는 언어로 완료형의 시제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는 반드시 문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86 쪽).

- ㄴ. 미완료, 이것은 어떤 행동이 진행중(완료되지 않고, 반복적, 계속적, 혹은 불확실한)임을 뜻하며, 종종 목표를 향해 가는 움직임을 나타낸다. 대개 이 동사 형태는 현재와 미래에 속하는 행동을 말한다.
- J. 와쉬 왓쓰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구문 개관*에서 말하기를  
“모든 미완료형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다. 이 상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나 발전해 가고 있는 것 혹은 불확실한 것이다. 이 모든 경우에 이 동사 형태는 어떤 의미(곧, 불완전하다는 의미)에서 부분적이다.

로버트 B. 치숨은 *석의에서 강해까지*에서 말하기를

“미완료형은 상과 태를 함께 나타내기에 이것의 본질을 한 가지 개념으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어떤 때는 미완료형이 직설법적 의미로서 객관적인 진술에 사용된다. 다른 경우에는 이 동사형태는 어떤 행동을 보다 더 주관적으로 나타내는데 가정적인 것, 조건적인 것, 가능한 것 등이 쓰인다”(89 쪽).

- ㄷ. 첨가되는 *와우*, 이것은 동사를 그 앞에 나오는 동사(들)의 행동에 연결시킨다.
- ㄹ. 명령형, 이것은 화자의 의지와 청자가 할 여지를 반영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 ㅁ. 고대 히브리어에서 오직 큰 문맥이 저자가 의도한 시간적 측면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짓게 한다.

나. 일곱가지 주요 어형변화 형태와 그 기본적 의미. 실제로는 이 동사형태가 문맥에서 서로 연결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떼어내서 이해하면 안된다.



1. *칼* 동사, 가장 많이 사용된 동사형태이면서 모든 동사형태의 기본이 된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어떤 원인이나 특별한 면을 말하지 않는다.
2. *니팔* 동사, 두 번째로 자주 쓰인다. 대개 수동형이지만, 이 동사형태는 또한 상호작용이나 재귀적 기능을 갖는다. 이 동사도 어떤 원인이나 특별한 면을 말하지 않는다.
3. *피엘* 동사, 이 동사는 능동형이고 어떤 행동이 어떤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것을 나타낸다. *칼*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가 발전되거나 어떤 상태로 확장되고 있다.
4. *푸알* 동사, 이것은 *피엘* 동사와 대응하는 수동형이다. 종종 분사로 사용된다.
5. *히트파엘* 동사, 이것은 재귀적 혹은 상호작용적 의미를 갖는 동사형태이다. 이것은 반복적 혹은 영속적으로 일어나는 *피엘*형의 행동을 나타낸다.
6. *히필* 동사, 이것은 *피엘* 동사와 대조되며 원인을 나타낸다. 이 동사형태는 허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어떤 일의 원인을 드러낸다. 독일인 히브리어 문법학자인 에른스트 엔니는 *피엘* 동사가 일이 어떤 상태로 되는 것을 나타내고 *히필* 동사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인다고 믿었다.
7. *호팔* 동사, 이것은 *히필*의 수동형이다. 마지막 두 동사형태는 7 가지 동사 형태 가운데 가장 적게 사용된다.

위 사항의 대부분은 브루스 K. 왈트키 와 M. 오카너가 공저한 *히브리어 성경 구문개론* 343-452 쪽을 참조했다.

작용자와 원인자 도표. 히브리어의 동사체계를 이해하는 한 가지 열쇠는 이것을 태와의 관계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어떤 동사형태는 다른 동사형태와 대조를 이룬다(예, *칼-니팔*; *피엘-히필*)

다음의 도표는 원인과 관련하여 동사형태의 기본적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태 또는 주어	이차 원인자가 없음	능동적 이차 원인자	수동적 이차 원인자
능동태	<i>칼</i>	<i>히필</i>	<i>피엘</i>
중간태 수동태	<i>니팔</i>	<i>호팔</i>	<i>푸알</i>
재귀/상호관계적	<i>니팔</i>	<i>히필</i>	<i>히트파엘</i>

이 도표는 최근의 아카디아어 연구결과에 힘입어 이루어진 동사체계에 대한 좋은 자료에서 왔다(참조, 브루스 K. 왈트키, M. 오카너, *히브리어 성경 구문개론*, 354-359 쪽).

R. H. 케넷은 *히브리어 시제에 대한 짧은 논의*에서 필요한 경고를 제시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히브리어의 동사를 가르치면서 각 동사형태가 히브리인의 마음에 의미하고 있는 뜻을 파악하는데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다시말하면 각 히브리어 시제마다 이에 상응하는 여러 라틴어나 영어의 동사형태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각 시제를 확일적으로 번역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은 각 히브리어 동사형태가 구약성경의 언어에 생명력과 힘을 공급하는 분명한 뜻을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따르는 어려움은 히브리인들이 행위로 보는 것에 대해 우리의 것과 완전히 다른 관점의 차이에 전적으로 기인한다; 우리가 ‘시제’라고 표현함에 있어서 보듯이 가장 커다란 관심을 두고 있는 시간적 요소는

그들에게는 이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라틴어나 영어의 동사 형태에 크게 의존하여 각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를 해석하려 하지 않고, 그것이 히브리인의 마음에 제시하고 있는대로 각 행위의 상을 이해하려는 것은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분명하게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시제’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동사에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낳게 한다. 소위 히브리어의 ‘시제’는 *시간*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행위의 *상태*만을 표현한다. ‘상태’라는 용어를 명사와 동사 모두에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혼동만 아니라면, 실제로는 ‘상태들’이라는 표현이 ‘시제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 어떤 히브리어 동사를 영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히브리어에는 전혀 없는 요소(시간적)를 추가시키는 부작용없이 해내는 것은 불가능함을 항상 명심해야만 한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어떤 행동을 말함에 있어서 그것을 결코 과거, 현재, 또는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았고 단지 *완료형*, 즉 이루어진 일, 또는 *미완료형*, 즉 발전하고 있는 과정의 일로서 생각했다. 우리가 어떤 히브리어 시제가 영어의 과거, 과거완료, 또는 미래와 상응하다고 말함에 있어서, 히브리인들이 그것을 과거, 과거완료, 미래로 생각했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영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음을 뜻한다. 히브리인들은 어떠한 동사형태도 행동이 일어난 *시간*을 말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서론과 1 쪽).

다음으로 유익한 경고로서는 슈 그룹, *성서 히브리어의 언어적 분석*,이 말하기를, “고대에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언어를 대상으로 현대의 학자가 재구성한 어원적 세계와 지각적 관계성이 단순히 학자들의 통찰력을 반영하는 것인지, 혹은 학자들 자신의 언어를 반영하는 것인지, 혹은 학자들이 주장하는대로 그러한 어원적 관계성이 고전 히브리어에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128 쪽).

#### 다. 법

1. 그 일이 일어났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직설법)를 표현하기 위해서 완료시제나 분사(모든 분사는 직설법이다)를 사용한다.
2.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수 있었다(가정법)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 ㄱ. 특별한 의미를 더 내포하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한다
    - (1) 청유법(자음 *ㅎ* 이 추가됨), 이것은 1 인칭 미완료형으로서 소원, 청원, 혹은 자기 격려(즉, 화자가 소원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 (2) 지시법(내적 변화), 이것은 3 인칭 미완료형으로서(부정문의 경우 2 인칭에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원, 허가, 충고, 혹은 권면을 나타낸다
  - ㄴ. 완료 시제를 *루* 또는 *루라*와 함께 사용한다  
이 구조는 코이네 헬라어에서 제 2 유형의 조건절과 유사한 구문이다. 거짓 진술(조건절)이 거짓 결론(조건문의 귀결절)으로 결과를 맺는다.
  - ㄷ. 미완료 시제를 *루*와 함께 사용한다  
문맥과 *루*는 미래적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와 더불어 이러한 가정법적 용법을 가진다. J. 와쉬 왓쓰의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구문 개요*에 나오는 몇 가지 예는 창 13:16; 신 1:12; 왕상 13:8; 시 24:3; 사 1:18(참조, 76-77 쪽).

라. *와우*-전환/연속/접속. 히브리어(가나안어)가 갖는 이 독특한 구문적 특성은 오랫동안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이 용법은 장르마다 종종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혼란이 생긴 이유는 초기의 학자들이 유럽인들이었고 그들이 자신의 모국어에 비추어 히브리어를 이해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어려움을 가져오자, 그들은

히브리어가 고대의 고풍스럽게 “보여지는” 언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탓으로 핑계를 댔다. 유럽의 언어들은 시제(시간)에 기초한 동사형태를 갖는 언어이다. 완료형이나 미완료형의 동사 어간에 자음 와우가 추가됨으로서 어떤 종류의 다양한 설명과 문법적인 의미가 특별히 가능하게 된다. 이 용법은 행동이 다르게 보이게 한다.

1. 역사적 이야기체에서는 동사들이 일정한 형태를 따라 서로 연결되어 사용된다.
2. 앞에 붙는 와우로 시작되는 동사는 그 이전에 사용된 동사(들)과 특별한 관계를 나타낸다.
3. 항상 큰 문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일련의 동사들의 용법을 파악하기 위한 열쇄가 된다. 샘족어의 동사들을 문맥에서 따로 떼어내어 분석해서는 안된다.

J. 와쉬 왓쓰는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구문 개요*에서 완료형과 미완료형 앞에 쓰이는 히브리어 와우용법의 특성을 말하고 있다(52-53 쪽). 완료형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나타내지만, 와우가 추가됨으로서 완료형의 동사는 종종 미래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는 미완료형에 있어서도 일어난다. 즉 와우가 추가된 미완료형의 동사는 과거를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시제 자체가 변하여 된 것이 아니라, 와우가 추가됨으로서 그 동사가 나타내는 시간이 특별히 바뀌는 것에 기인한다. 와우 완료형은 예언에서 잘 사용되는 형태이며, 와우 미완료형은 이야기체에서 잘 사용된다(54, 68 쪽).

왓쓰는 계속해서 정의하기를

“와우 접속법과 와우 연속법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해석에서 나타난다:

1. 와우 접속법은 항상 병행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2. 와우 연속법은 항상 연속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와우가 연속적인 미완료형과 사용되는 유일한 경우이다. 와우 연속법으로 연결되는 미완료형의 관계는 시간적 연속, 논리적 연속, 논리적 원인, 또는 논리적 대조를 나타낸다. 이 모든 경우에 하나의 연속성이 있다”(103 쪽).

마. 부정사 - 두 종류의 부정사가 있다

1. 부정사 절대형, 이것은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강하고 독립적이고, 뚜렷한 구문이다. . . 주어로써 사용될 때 종종 쓰여진 동사없이 나타난다. 부정사 절대형이 홀로 극적으로 나타나는데, 생략된 동사는 “~이다”라는 동사로 이해된다”

J. 와쉬 왓쓰,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구문 개요*(92 쪽).

2. 부정사 연계형, 이것은 “전치사, 소유 대명사, 연계 관계에 의해 문법적으로 문장에 연결된다”(91 쪽).

J. 와인그린은 *고전 히브리어의 실제적 문법*에서 연계상태에 대해 설명하기를

“두 개(혹은 그 이상)의 단어가 서로 밀접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를 합성할 경우에, 의존적인 단어(혹은 단어들)가 연계상태에 있다고 말한다”(44 쪽).

바. 의문법

1. 이것은 항상 문장의 처음에 나타난다.
2. 해석적인 중요성
  - ㄱ. *하* -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 ㄴ. *할로'* - 저자가 “네”라는 답을 기대한다

부정

1. 이것은 항상 부정하려고 하는 단어 앞에 나타난다.
2. 부정을 나타내는 가장 흔한 단어는 *로'*이다.
3. '*알*이라는 단어는 부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청유형과 지시형과 함께 사용된다.

4. *르빌티* 이라는 용어는 “~하지 않기 위해서”를 나타내며 부정사와 함께 사용된다.
5. *'엔* 이라는 용어는 분사와 함께 사용된다.

사. 조건절

1. 4 종류의 조건절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코이네 헬라어의 경우와 평행을 이룬다.
  - ㄱ.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거나 성취된 것으로 여기는 생각의 경우(헬라어의 제 1 유형)
  - ㄴ. 사실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성취가 불가능한 경우(헬라어의 제 2 유형)
  - ㄷ.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아마 일어날지도 모르는 경우(헬라어의 제 3 유형)
  - ㄹ. 일어날 가능성이 보다 적어서 그 성취가 의심이 되는 경우(헬라어의 제 4 유형)
2. 문법적인 표시
  - ㄱ. 사실이나 실제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 항상 직설법 완료형 혹은 분사를 사용하는데 대개의 경우 조건절은 다음의 말로 시작한다
    - (1) *임*
    - (2) *키*(혹은 *아췌르*)
    - (3) *힌* 혹은 *힌네*
  - ㄴ. 사실에 반대되는 조건절은 항상 완료 시상 동사나 분사를 사용하는데 불변화사인 *루* 혹은 *룰레*로 시작한다
  - ㄷ.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조건절은 항상 미완료형 동사나 분사가 조건절에 사용되는데, 대개는 불변화사인 *임* 혹은 *키*로 시작한다.
  - ㄹ.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조건절은 미완료형 가정법이 조건절에 나오고 항상 불변화사 *임*으로 시작한다.

## 이 주석에서 사용한 약어

AB	<i>앵커 바이블 주석</i> , 윌리엄 폭스웰 올브라이트, 데이빗 노엘 프리드먼 편저
ABD	<i>앵커 바이블 사전</i> (6 권), 데이빗 노엘 프리드먼 편저
AKOT	<i>구약의 분석 열쇄</i> , 존 조셉 오웬스
ANE	고대 근동
ANET	<i>고대 근동 본문</i> , 제임스 B. 프릿처드
BDB	<i>히브리어 영어 구약사전</i> , 프란시스 브라운, S. R. 드라이버, C. A. 브릭스 공저
IDB	<i>인터프리터스 성경사전</i> (4 권), 조지 A. 버트립
ISBE	<i>국제 표준 성경 백과사전</i> (5 권), 제임스 오르
JB	예루살렘 성경
JPSOA	<i>맛소라 본문에 따른 성경: 새 번역</i> (미국 유대인 출판협회)
KB	<i>히브리어 아람어 구약사전</i> , 루드빅 켈러, 왈커 바움가르트너
LAM	<i>성경의 고대 동방 사본</i> (페쉬타), 조지 M. 램사
LXX	칠십인역 (헬라어-영어), 존더반 출판사, 1970
MOF	제임스 모팻의 <i>새 번역 성경</i>
MT	맛소라 히브리어 본문
NAB	새 미국 성경 본문
NASB	새 미국 표준 성경
NEB	새 영어 성경
NET	NEB 성경: 새 영어역, 제 2 베타역
NASB	새 개정 표준 성경
NIDOTTE	<i>새 국제 구약 신학과 석의 사전</i> (5 권), 윌렘 A. 반게머른 편저

NIV	새 국제역
NJB	새 예루살렘 성경
OTPG	구약성경 분해 가이드, 토드 S. 빌, 윌리엄 A. 뱅크스, 콜린 스미스
REB	개정 영어 성경
RSV	개정 표준역
SEPT	칠십인역 (헬라어-영어), 존더반, 1970
TEV	세계성서공회의 오늘의 영어역
YLT	영의 문자적 번역 성경, 로버트 영
ZPBE	존더반 그림 성경 백과사전 (5 권), 메릴 C. 텐니 편저

## 역사로서의 구약

기독교와 유대교는 역사에 기초한 믿음을 가진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역사적 사건들(그것에 대한 해석과 병행하여)에 기초하고 있다. 무엇이 “역사”이며 “역사적 연구”인가를 정의하거나 설명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오늘날의 신학적 해석에 나타나는 대다수의 문제는 오늘날의 문학적 이해나 역사적 가정을 고대 근동의 배경을 가진 성경의 글에 투사시키는 데서 나타난다. 시대적 차이나 문화적 차이 뿐 아니라 문학적 차이가 있어 적절한 이해를 막는다. 현대의 서구적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는 고대 근동의 글에서 사용하는 장르와 문학적 기교를 이해하기 어렵기에 그것을 서구인의 문학적 장르에 비추어 해석하고 있다.

19 세기에 성경 연구를 함에 있어서 사용한 방법은 구약의 책들을 쪼개어 그것이 지닌 역사적인 자료로서의 가치 및 통일된 자료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러한 역사적 회의론은 구약의 해석학 및 역사적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정경적 해석학”(브레바드 차일드스)의 경향은 구약 본문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강조점을 갖도록 도움을 주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19 세기의 독일의 고등 비평으로 생긴 심연을 건너도록 돕는 유용한 다리이다. 우리는 반드시 정경적 본문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지만 영감된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구약의 역사성을 전제로 하는 방향으로 되돌아 오고 있다. 이 말은 구약이 후기에 속하는 유대인 서기관들에 의해 편집되었고 개정된 것을 부정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유효한 역사이며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기록(또한 그 사건들의 신학적 해석)이라는 쪽으로 기본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말이다.

*엑스포시터스* 성경 주석 제 1 권에 있는 R. K. 해리슨의 글 “구약의 역사 비평과 문학 비평”에서 인용한 내용이 유용하다:

“역사적 연구의 비교 연구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기록이 히타이트 사람들의 기록과 더불어 매우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근동의 역사에 대한 믿을 수 있는 기록이었음을 나타낸다. 창세기나 신명기와 같은 책에 대한 양식비평적 연구는 마리, 누지, 보가즈코이를 포함하는 지역에서 나온 특별한 종류의 서판에 비추어 볼 때 성경의 자료가 근동의 어떤 문화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비문학적인 어떤 자료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원래 역사적인 의도를 가진 히브리인들의 초기 전통에 대해 새로운 정도의 확신과 존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232 쪽).

나는 R. K. 해리슨의 글을 인해 특별히 감사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구약 성경을 당시의 사건과 문화와 장르에 비추어 이해하는 일이 우선순위를 갖게 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가르치는 초기의 유대 문학(창세기-신명기 및 여호수아)에서 나는 고대 근동의 문학 및 자료와의 믿을 수 있는 고리를 제시하려고 시도했다:

가. 창세기의 문학은 고대 근동의 것과 평행을 이룬다

1. 창세기 1-11 장의 문화적 배경과 평행을 이루는 가장 초기에 속하는 알려진 자료는 에블라 췌기문자 서판으로서 주전 2500 년 경의 시리아 북부에 속하며 아카디아어로 기록되었다.

2. 창조

- 가. 창조의 내용을 가장 비슷하게 다룬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인 *에누마 엘리쉬*는 주전 1900-1700 년경에 속하는데 니느웨에 있는 아수르바니팔의 도서관과 다른 여러 곳에서 발굴되었다. 췌기문자 서판이 일곱 개가 있는데 아카디아어로 기록되었으며 마르둑에 의한 창조에 대해 설명한다.

- 1) 신들 곧 *앞수*(민물의 남신)과 *티아맛*(잔물의 여신)에게 다루기 힘들고 시끄러운 자녀들이 있었다. 이 두 신은 어린 신들을 조용하게 만들려고 애썼다.
  - 2) 그 신의 한 자녀인 *마르투*가 *티아맛*이 쾌하도록 도왔다. 그는 그녀의 몸을 가지고 땅을 만들었다.
  - 3) *마르투*는 쾌한 또 다른 신인 *킹우*로써 인간을 만들었다. *킹우*는 *앞수*가 죽은 후에 *티아맛*의 남자 배우자가 된 신이었다. 인간은 *킹우*의 피에서 나왔다.
  - 4) *마르투*는 바벨론 만신전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 ㄴ. “창조의 문장(seal)”은 썬기 서판에 있는 그림으로서 벌거벗은 남자와 여자가 열매있는 나무 옆에 있는데, 그 나무 기둥을 한 뱀이 휘감고 있으면서 여자에게 말하는 모습으로 여인의 어깨 위에 있는 그림이다.
3. 창조와 홍수—*아트라하시스 서사시*는 낮은 계급의 신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낮은 신들은 그들이 해야 할 과다한 일 및 일곱 쌍의 인간을 창조함으로 인해 이들 낮은 신들이 감당할 의무를 인해 반란을 일으켰다. (1) 인구의 증가와 (2) 소음을 인해 *엔릴*이 계획한 두 번의 기근과 최종적인 홍수의 재앙으로써 사람들의 수가 줄었다. 이러한 주요 사건들은 창 1-8 장에 있는 것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다. 이 썬기 작품은 *에누마 엘리쉬* 및 *길가메쉬 서사시*와 같은 시기인 주전 1900-1700 년 경의 것이다. 모두 아카디아어로 기록되었다.
  4. 노아의 홍수
    - ㄱ. *닐푸르*에서 발굴된 수메르의 한 서판은 에리두의 창세기로 불리는데 주전 1600 년 경에 속한다. 이것은 *지브수드라* 및 임할 홍수에 대해 말한다.
      - 1) 물의 신인 *엔카*가 올 홍수에 대해 경고했다
      - 2) *지브수드라*라는 왕-제사장은 커다란 배 안에서 구조되었다
      - 3) 홍수가 7 일 동안 계속되었다
      - 4) *지브수드라*가 배의 창을 열었고 여러 종류의 새를 놓아 보내 마른 땅이 나타났는지의 여부를 알려고 했다
      - 5) 그는 또한 배에서 나온 후에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
    - ㄴ. 바벨론의 홍수 기록은 *길가메쉬 서사시*로 알려진 4 개의 수메르 이야기에 나오는데 이것은 원래 주전 2500-2400 년 경에 속하는 것이다. 비록 이것이 아카디아 썬기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훨씬 후에 속한다. 이것은 홍수에서 살아 남은 *우나피스팀*이 *우룩*의 왕인 *길가메쉬*에게 자신이 대홍수에서 어떻게 살아 남았고 또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는지를 말한다.
      - 1) 물의 신인 *에아*가 올 홍수에 대해 경고하며 *우나피스팀*(바벨론의 *지브수드라*)에게 배를 만들라고 말한다
      - 2) *우나피스팀*과 그의 가족이 몇 가지 약초와 더불어 홍수에서 살아 남았다
      - 3) 홍수가 7 일 동안 계속되었다
      - 4) 배가 페르시아의 북동쪽에 있는 니실 산에 와 멈추었다
      - 5) 그가 세 종류의 새를 내 보내어 마른 땅이 드러났는지를 알려고 했다
  5. 고대의 홍수에 대한 메소포타미아의 문학작품은 같은 자료에서 왔다. 이 이름은 종종 다르지만 그 구성은 같다. 한 가지 예는 *지브수드라*, *아트라하시스*, *우나피스팀*이 모두 인간 왕이라는 점이다.
  6. 창세기의 나오는 초기의 사건들과 평행을 이루는 역사적 내용은 인간이 흠어지기 이전(창 10-11 장)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비추어 설명된다. 참된 역사적 핵심을 이루는 이러한 기억은 전세계에 걸쳐 현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홍수



이야기로 꾸며지고 신화화되었다. 다음의 것에 대해 같은 내용을 말할 수 있다:  
창조(창세기 1-2 장) 및 인간과 천사의 결합(창세기 6 장).

7. 족장들의 시대(청동기 중엽)
  - ㄱ. 마리 서판 - 주전 1700 년 경에 아카디아어로 기록된 썰기문자 본문으로서 법(암몬 사람들의 문화)과 개인에 관련된 내용임
  - ㄴ. 누지 서판 - 주전 1500-1300 년 경에 속하는 썰기문자 고문서로서 니느웨에서 남동쪽으로 160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굴된 자료로서 아카디아어로 기록된 어떤 가족의 문서(호리족 혹은 후르족의 문화). 이것은 가족과 사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특별한 예들에 대하여는 왈톤의 책 52-58 쪽을 보라.
  - ㄷ. 알랄락 서판 - 주전 2000 년 경에 속하는 썰기문자 문서로서 시리아 북쪽에서 발굴됨
  - ㄹ.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이름과 지명이 마리 서판에 나온다: 스투, 벨렉, 테라, 나홀. 성경의 다른 이름도 흔하게 나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라반, 요셉.
8. “역사적 연구의 비교 연구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기록이 히타이트 사람들의 기록과 더불어 매우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근동의 역사에 대한 믿을 수 있는 기록이었음을 나타낸다.” R. K. 해리슨이 쓴 *성경적 비평*, 5 쪽.
9. 고고학은 성경의 역사성을 확립함에 있어서 아주 유용함을 입증했다. 한편 한 마디의 주의 사항이 요구된다. 고고학은 다음의 이유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안내가 되지 못한다:
  - ㄱ. 초기에 행해진 좋지 않은 기술
  - ㄴ. 발굴된 자료에 대해 다양하면서도 매우 주관적인 해석들
  - ㄷ. 고대 근동의 연대기에 대해 일치한 연대가 없는 점(비록 하나가 나무의 나이테에서 개발되었지만)
- 나. 이집트의 창조 기록은 요한 W. 왈톤의 책 *고대 이스라엘의 문학과 그 문화적 문맥*, 그랜드 래피즈, 존더반 출판사, 1990(23-34, 32-34 쪽).
  1. 이집트의 창조 문학은 구조를 갖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태고의 물과 더불어 시작한다. 창조는 혼란스러운 물에서 발전된 구조로 나타난다.
  2. 멤피스에서 발굴된 이집트의 문학에서 창조는 프타가 한 말에 의해 이루어졌다.
- 다. 여호수아서의 문학은 고대 근동의 것과 평행을 이룬다
  1. 고고학은 가나안의 성벽이 있는 커다란 성이 대부분 파괴되어 주전 1250 년 경에 급히 재건되었음을 보여준다
    - ㄱ. 하솔
    - ㄴ. 라기스
    - ㄷ. 벨엘
    - ㄹ. 드빌(이전에는 그리웃 세벨로 불림, 15:15)
  2. 고고학은 여러고의 멸망에 대한 성경의 기록(참조, 수 6 장)을 확증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의 내용으로 인해 그 장소가 좋은 상태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 ㄱ. 기후/위치
    - ㄴ. 나중에 옛 물건을 사용하여 이전의 자리에 재건축을 함
    - ㄷ. 각 층의 연대에 대한 불확실성
  3. 고고학은 예발 산에서 제단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아마도 수 8:30-31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신명기 27:2-9). 이것은 미쉬나(탈무드)에 있는 기록과 매우 비슷하다.
  4. 라스 샴라 본문이 우가랏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주전 1400 년 대에 속한 가나안인의 생활 모습과 종교를 나타낸다:

- ㄱ. 다신교적 성격을 가진 예배(다산의 의식)
  - ㄴ. 엘이 주요한 신임
  - ㄷ. 엘의 배우자는 아세라였다(후에 그녀는 바알의 배우자가 됨). 후자는 “생명의 나무”를 상징하는 조각한 나무나 살아 있는 나무의 형태로서 숭배됨
  - ㄹ. 그들의 아들은 폭풍의 신인 바알(햇달)임
  - ㅁ.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의 만신전에서 “높은 신”이 되었다. 아낫이 그의 태우자였다
  - ㅂ. 이집트의 이시스와 오시리스와 같은 예식이 행해짐
  - ㅅ. 바알 숭배는 각 지역에 있는 “산당” 혹은 “돌로 된 판(의식상의 성매매)에 초점이 있었다
  - ㅇ. 세운 돌기둥이 바알을 상징했다(남근의 상징)
5. 고대 도시의 정확한 목록은 후기의 편집자(들)가 아닌 당시의 저자에게서 나온 것이다:
- ㄱ. 예루살렘이 여부스로 불림, 수 15:8; 18:16,28
  - ㄴ. 헤브론이 기리앗 아르바로 불림, 수 14:15; 15:13,54; 20:7; 21:11
  - ㄷ. 기리앗 여아림이 바알랏으로 불림, 수 15:9,10
  - ㄹ. 두로가 아니라 시돈이 페니키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로서 언급됨, 수 11:8; 13:6; 19:28. 후에는 두로가 수도가 됨

## 당시의 근동 문화와 비교하여 본 구약의 역사적 기록

### 메소포타미아의 자료

1. 대부분의 고대 문학과 같이 주제가 대개 왕 혹은 어떤 국가적 영웅을 되어 있다.
2. 사건들이 종종 선전용으로 각색되었다.
3. 대개는 부정적인 내용이 없다.
4. 그 목적이 현재의 정부를 지지하거나 혹은 새로운 정부의 출발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5. 역사적 왜곡이 수반되었다
  - ㄱ. 커다란 승리를 주장하기 위한 각색
  - ㄴ. 이전에 일어난 일(성취)을 현재의 것으로 돌림
  - ㄷ. 전적으로 긍정적인 면만 기록함
6. 선전을 위해서 뿐 아니라 가르침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서 문학이 사용되었다.

### 이집트의 자료

1. 이 자료는 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의 정적인 면을 매우 강조한다
2. 왕과 그의 가족이 이 문학에서 주된 대상이 된다.
3. 이들의 자료는 메소포타미아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선전을 위한 것이다.
  - ㄱ. 부정적이 부분이 빠져 있고
  - ㄴ. 각색된 모습을 제시함

### 랍비들의 자료(후기)

1. 성경이 미드라쉬와 관련이 있도록 시도한다. 미드라쉬는 해석자의 믿음에서 본문으로 강조점을 옮기며, 저자의 의도나 본문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 초점을 두지 않는다
  - ㄱ. 할랄카는 삶과 관련이 있는 진리나 규칙을 다룬다
  - ㄴ. 학가다는 삶에 대한 적용점과 삶에 격려를 주는 내용을 다룬다
2. 페체르 - 사해 사본에 있는 후기에 발전된 내용.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예언의 성취를 현재의 상황을 보게 하는 모형론적 접근을 사용했다. 현재의 상황은 예언된 종말(오는 새 시대).

고대 근동의 장르 및 후기에 속하는 유대 문학이 구약 성경과 분명히 다르다. 구약의 장르가 당시의 문학이 갖는 일부 특징을 종종 가짐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여러 면에서 독특한데 특히 역사적 사건을 기술함에 있어서 그러하다. 히브리인의 역사기록과 가장 비슷한 것은 히타이트 문학이다.

고대의 역사 기록이 오늘날의 서구적 역사기록과 어떻게 다른 지를 인식하여야만 한다. 여기에 해석의 문제가 놓여 있다. 오늘날의 역사기록은 객관적(그것이 가능하다면, 선전을 하지 않는)인 접근을 시도하며 연대적으로 “정말로 일어난” 일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고 자료를 제시하려고 한다. 이것은 상세한 내용으로 특징되어 진다!

근동의 역사가 오늘날의 역사와 같지 않다는 점은 그것이 잘못되었고 열등하며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서구의 현대 역사는 그것을 쓴 사람의 편향(전제들)을 반영한다. 성경의 역사는 그 본질(영감)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 성경의 역사가 영감을 받은 저자의 믿음의 눈을 통해 신학적 목적을 위해 기록된 것이지만 이것은 여전히 유효한 역사적 기록이다.

이러한 구약의 역사성이 나에게 중요한데 이는 나의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 제창할 수 있게 한다. 만일 성경이 역사적인 것이라면 성경이 하는 믿음의 주장은 더욱 강력하게 불신자들의 관심을 끈다. 나의 믿음은 고고학이나 인류학의 역사적 확인에 기초하지 않지만, 이러한 종류의 자료는 성경의 말씀을 소개하고 그것의 신빙성을 더하게 돕는다.

요약하자면 성경의 역사성은 영감의 영역에서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과 복음전도에 있어서 기여한다.

## 장르와 해석: 구약의 이야기체

### I. 들어가는 말

가. 구약과 사건의 연대를 나타내는 다른 방법의 비교

1. 다른 고대 근동의 문학은 신화적이다
  - ㄱ. 다신론적임(대개 인간성을 가진 신들이 자연의 능력을 나타내면서도 비인간적 갈등의 국면을 갖고 있다)
  - ㄴ. 자연의 순환에 기초함(신들이 죽고 다시 살아남)

2. 헬라-로마의 문학은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기 보다 흥미와 격려를 주기 위함이었다(호머는 여러 면에서 메소포타미아의 주제를 반영한다)

나. 역사의 종류나 정의의 차이점을 제시함에 있어서 세 독일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1. "Historie," 사건의 기록(단순한 요소들)
2. "Geschichte," 사건의 해석으로서 그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중요성을 나타냄
3. "Heilsgeschichte" 는 역사의 진행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과 활동을 특별히 가리킴

다. 구약과 신약의 내용은 "Geschichte"로서 구속사적 이해를 돕는다.

그 내용은 신학적 관점에 기초한 역사적 사건들을 다룬다

1. 선택된 사건만 다룬다
2. 연대적 순서보다도 신학적 의미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 진다
3. 사건들은 진리를 함께 제시한다

라. 이야기체는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장르이다. 이것은 구약의 40%를 차지하는 분량이다. 따라서 이 장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성품을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내심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일은 명제적 제시(신약의 서신서에서와 같이)가 아닌 함축, 요약, 혹은 선택된 대화/독백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왜 이것이 기록되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만 한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무엇이 이 기록의 신학적 목적인가?

### II. 성경의 이야기체

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세계에서 활동적으로 일하신다. 영감을 받은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 어떤 사건들을 선택했다. 하나님은 구약의 주인공이다.

나.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다:

1.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세계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2. 하나님께서 개인과 나라를 다루심을 통하여 인간이 누구인가를 드러낸다
3. 한 예로서 여호수아가 거둔 군사적 승리는 언약의 실행과 관련이 있음을 특별히 주목하라(참조, 1:7-8; 8:30-35).

다. 이야기체는 종종 함께 묶여 하나의 커다란 문학적 단락을 이루어 한 가지의 신학적 질리를 드러낸다.

### III. 구약의 이야기체를 해석함의 원리들

가. 구약의 이야기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잘 된 논의는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읽을 것인가이다(83-84 쪽).

1. 일반적으로 구약의 한 이야기체 본문은 직접적으로 어떤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2. 구약의 한 이야기체 본문은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명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어떤 교리나 교리들을 예시한다

3. 이야기체는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다—일어났어야 하는 일 혹은 언제라도 일어날 것을 말함이 아니다. 따라서 인식할 수 있는 개인의 도덕성을 모든 이야기체 본문이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4. 사람들이 이야기체 본문에서 행하는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종종 그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5. 구약의 이야기체 본문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며 그들이 하는 행동도 그러하다.
  6. 한 이야기체 본문에서 그것이 좋은 결과이든 나쁜 결과이든 그 종말을 항상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 및 성경의 다른 곳에서 명확히 제시되는 내용에 기초하여 우리가 판단을 내리게 된다.
  7. 모든 이야기체 본문은 선정된 내용이며 불완전한 것이다. 그와 관련된 자세한 모든 내용이 항상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참조, 요 21:25). 이야기체 본문은 영감을 받은 저자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8. 이야기체 본문은 우리가 가진 모든 신학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록된 것은 아니다. 각 본문이 특별하면서 특정하게 제한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주제를 다루며, 그 외의 문제들은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다루게 내버려 둔다.
  9. 이야기체 본문은 직접적으로(어떤 것을 명확히 언급함으로써) 혹은 암시적으로(실제로 어떤 것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에 대해 명확히 암시적으로 말함으로써) 가르친다.
  10.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체 본문에서 주인공이시다.
- 나. 이야기체 본문을 해석함에 관한 또 다른 좋은 논의는 왈터 카이저의 *석의적 신학에 대하여*이다:

“성경의 이야기체 본문이 갖는 독특한 모습은 저자가 제시하려고 하는 핵심을 자신의 이야기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제시하는 점이다. 따라서 보다 직접적으로 진술으로써 교리나 가르침을 나타내는 성경 본문과는 달리, 이야기체 본문의 저자는 눈에 띄지 않는 뒤쪽에 위치하여 자신이 말하려는 직접적인 가르침이나 평가적인 진술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그 이야기가 속한 더 큰 문맥을 파악하는 일과 왜 저자가 이러한 특별한 사건을 선택하여 사용하며 왜 이 순서를 따르고 있는가를 묻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무척 많은 양의 대화, 인물, 사건들 가운데서 선택한 내용 및 일어난 일을 제시하는 순서는 이제 본문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쌍둥이적 힌트가 될 것이다. 또한 저자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그룹의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된 사건의 절정에서 나타내게 하는 반응으로부터 종종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및 이 사람들과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파악하게 된다—곧, 일어난 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저자가 자기 자신(이 경우는 하나님의)의 생각을 제시하려고 이야기의 흐름을 끊지 않는다면 그러하다”(205 쪽).

- 다. 이야기체에 있어서 어떤 세세한 내용을 통해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학적 단락을 통해 제시한다. 구약의 이야기체 본문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 하거나 혹은 당신의 삶을 위한 선례로 삼지 않도록 주의하라.

#### IV. 두 단계의 해석

- 가. 아브라함의 씨를 위한 야웨의 구속적이며 계시적 행위
- 나. 모든 신자들의 삶을 향한 야웨의 뜻(모든 세대에서)
- 다. 처음 것은 “하나님을 앎”(구원)에 초점을 두며, 두번째 것은 하나님을 섬김에 둔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 참조, 롬 15:4; 고전 10:6,11)

## 저자의 말: 본 주석이 어떻게 독자를 도울 것인가?

성경적인 해석은 고대의 감동받은 저자를 이해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깨닫고 이를 현대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이성적이고 영적인 과정이다.

해석의 영적인 과정은 중대하지만 한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굴복과 기대를 포함한다. 거기에는 반드시 (1) 그를 위한 (2) 그를 알기 위한 (3) 그를 섬기기 위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과정은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와 죄의 고백과 순종하려는 자세가 포함된다. 해석의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중대하다. 그럼에도 진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신비스럽다.

해석의 이성적인 과정은 설명하기에 좀 더 쉽다. 우리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정당하게 본문을 다루어야 하며 우리의 개인적이고 교파적인 편견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역사적 흐름의 영향을 받는다. 아무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해석가가 될 수 없다. 이 주석은 우리의 편견을 뛰어 넘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구조화된 세 해석원리를 포함한 조심스럽고도 이성적인 과정을 제공한다.

### 제 1 원리

첫 번째 원리는 성경책이 쓰인 역사적 배경과 저자와 연관된 특별한 역사적 사건에 주목한다. 원저자는 전달하려는 내용과 목적을 가졌다. 본문은 고대의 감동받은 원저자가 결코 의미하지 않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의미할 수 없다. 그의 의도는 우리의 역사적, 감정적, 문화적, 개인적, 또는 교파적인 필요가 아니라는 것이 열쇠이다. 적용은 해석의 총체적인 동반자이지만 적절한 해석은 반드시 적용에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성경본문은 오직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이 의미는 원래 성경저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시대에 전달하고자 했던 것을 의미한다. 이 하나의 의미는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반드시 원저자의 중심 진리에 상응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안내주석은 성경의 각 책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 제 2 원리

두 번째 원리는 문학적 단위를 확정짓는 것이다. 성경의 각 책은 각각 통일적인 문서이다. 해석자들은 진리의 한 면을 위해 다른 면들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문학적 단락을 해석하기 전에 반드시 전체의 목적을 이해하려고 애써야만 한다. 각 장, 단락, 절은 전체 성경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없다. 해석은 반드시 전체에 대한 연역적인 접근으로 시작하여 각 부분에 대한 귀납적 방법으로 가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안내주석은 독자가 문단으로 이루어진 각 문학적 단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장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단락구분도 감동되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구분들은 우리에게 단락의 범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 문장, 절, 구나 단어 수준이 아닌 문단 수준에서의 해석은 성경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따르는 열쇠이다. 문단들은 자주 주제나 중심 문장으로 불리는 하나의 통일된 논제를 가지고 있다. 문단속의 각 단어, 구, 절과 문장은 어찌되었건 이 통일된 주제와 관련이 있다. 그들은 이 주제를 한정하고 확장하고 설명하고 질문한다. 적절한 해석을 위한 실제적인 열쇠는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각 문학적 단위 안에서 각 문단을 기초로 한 원저자의 생각을 따르는데 있다. 본 연구안내주석은 독자가 현대 영어 번역판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번역판들은 그들이 다른 번역이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1. 뉴킹제임스역(NKJV)은 공인 본문으로 알려져 있는 헬라어 원문 전통을 기초로 축적으로 번역되었다. 이 책의 단락 구분은 다른 번역판 보다 길게 되었다. 이렇게 긴 단락들은 학생들이 통일된 논제를 보는데 도움을 준다.

2. 신개정표준역(NRSV)은 수정된 축어역이다. 이것은 다음에 열거된 두 현대번역본의 중간 지점에 있다. 이것의 단락 구분은 주제들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3. 현대영어성경(TEV)은 미국성서공회에서 출판한 등가 번역본이다. 이것은 현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헬라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도했다. 신국제역(NIV)에서와 같이, 복음서 안에서 특별히 자주 주제보다는 화자를 중심으로 문단을 나누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해석자의 목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신약 헬라어 본문(UBS<sup>4</sup>) 과 현대영어성경(TEV)을 같은 출판사에서 출판하였지만 그들의 단락 구분이 다르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4. 신예루살렘성경(NJB)은 프랑스 천주교역을 기초로 한 등가 번역본이다. 이것은 유럽인의 시각으로 단락 짓는 것을 비교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5. 본 주석에서 사용한 본문은 1995 년에 개정된 신미국표준역(NASB)으로서 축어적인 번역본이다. 각 절의 주석은 이 번역본의 구분을 따르고 있다(본 주석에서 역자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신미국표준역 개정판 본문을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으로 대신하였다).

### 제 3 원리

세 번째 원리는 성경의 단어나 구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의 의미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헬라어의 단어나 구절들은 자주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는 것은 헬라어 본문에 나타난 상이점들을 이해하고 가능한 해석들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작업은 교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입은 저자의 원문대로 이해하도록 독자를 도와준다.

### 제 4 원리

네 번째 원리는 문학적 장르를 확인하는 것이다. 영감받은 원저자들은 자신들의 메시지를 다른 양식을 사용하여 기록했다(예를 들면 역사적 이야기체, 역사적 드라마, 시, 예언, 복음서[비유], 서신, 묵시). 이러한 서로 다른 양식은 해석을 위한 특별한 열쇠를 제공한다(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D 브렌트 샌디와 로날드 L. 기즈의 *구약코드해독*, 또는 로버트 스타인의 *규칙에 따른 놀이*를 보라).

본 주석은 독자가 자신의 해석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확정된 답을 주기보다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뜻이다. 다른 가능한 해석들은 우리가 편협하고 독단적이며 교과 중심으로 빠지지 않도록 종종 도와준다. 해석가들은 옛문서의 해석이 얼마나 애매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폭넓은 해석의 범주를 가져야 한다. 성경을 진리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거의 동의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위의 원리들은 옛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역사적인 제한들을 극복하도록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본 주석을 읽는 모든 독자들도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한다.

밥 어틀리  
 동텍사스침례대학  
 1996 년 6 월 27 일

##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안내 검증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한 개인적인 연구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그것에 궁극적인 권위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삶에 의미를 주는가?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모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계속 되었다(전 1:13-18; 3:9-11).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씨름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릴 때 몇몇 식구들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 몸이 성장하는 만큼 나 자신과 내 주위의 세계에 대한 질문도 커졌다. 익숙한 문화와 진부한 종교생활은 내가 읽거나 경험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했다. 그때에 나는 답답하고 둔감한 나만의 세계 속에서 혼동과 좌절, 기다림, 그리고 자주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들의 대답은 (1) 개인적인 철학 (2) 고대의 신비 (3) 개인적인 경험이나 (4) 심리적 투영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세상을 보는 나의 눈과, 내게 왜 사는지에 대해 일관성 있게 답할 수 있는 검증이 가능하고 증거가 충분할 뿐 아니라 이성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나는 이 대답을 개인적인 성경공부를 통해 발견했다. 나는 증거들을 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고 내가 발견한 믿을 만한 증거들은 (1) 고고학으로 확실하게 증명되는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 (2) 구약성경의 예언들의 정확성 (3)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1,600 년이 넘도록 일관성이 있는 성경의 메시지와 (4)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간증들이다. 믿음의 일관된 체계인 기독교는 인류의 복잡한 질문을 답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는 이성적인 면뿐 아니라 성경을 신뢰하게 되는 데서 오는 경험적인 면을 통해 나에게 감정적인 기쁨과 안정을 주었다.

나는 성경을 통해 내 삶의 중심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은 강렬하면서도 내적 자유를 맛보는 경험이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의 매우 다른 해석들이 주장되어지고 때로는 같은 교회나 학교에서조차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놀라움을 기억한다. 성경의 영감과 신뢰하는 확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난해한 구절들에 대하여 성경의 권위와 옳음을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반되는 해석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거나 거부할 것인가?

이 일은 내 인생의 목표와 믿음의 여정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에게 무한한 평화와 기쁨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마음은 (1) 포스트 모던시대의 상대주의; (2) 모순된 종교 체제들의 독단주의(세계 종교들); 그리고 (3) 교파적인 우월감 안에서 무엇인가 절대적인 것을 바랐다. 고문서의 바른 해석을 위한 연구를 하면서 나 자신이 역사적, 문화적, 교파적, 경험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놀랐다. 나의 견해를 견지하기 위해 종종 성경을 읽었다. 나는 나 자신의 불안함과 부당함을 발견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비록 나는 철저히 객관적일 수 없었지만 성경을 좀 더 바르게 읽게 되었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함으로써 그 영향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편견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편견이 나에게 있어서 약점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었다. 바른 성경읽기를 함에 있어서 번역가 자신이 종종 가장 커다란 장애가 된다!



성경연구를 위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점검할 전제들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다:

## I. 전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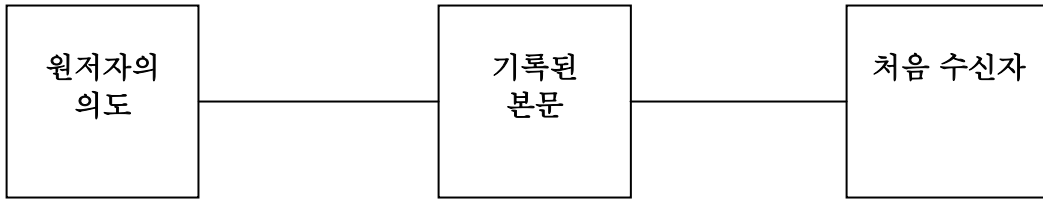
- 가.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유일한 계시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 저자의 역사적 상황과 원저자인 성령의 의도하심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 나. 나는 성경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쓰인 것임을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를 역사적, 문화적 상황 안에서 우리에게 맞추신다. 하나님은 진리를 감추시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은 반드시 우리시대의 관점이 아닌 성경시대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은 처음 그 말씀을 읽고 들은 사람에게 의미하지 않았던 내용을 현재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한다.
- 다. 나는 성경이 통일된 메시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 성경에 어렵고 역설적인 구절들이 있지만 그 구절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장 좋은 해석가는 성경 바로 그 자체다.
- 라. 나는 모든 말씀(예언을 제외하고)이 감동된 원저자의 의도에서 오로지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 우리는 원저자의 의도를 완전하게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해하도록 돕는 여러 가지의 지침들이 있다:
  - 1.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 장르(문학의 유형)
  - 2.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나 특별한 사건
  - 3. 각 단락 및 전체 책의 문학적 배경
  - 4. 전체 메시지와의 연관성에서의 문학적 단락의 개요
  - 5.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특별한 문법적인 요소
  - 6.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 선택된 용어들
  - 7. 대구(평행) 구절들

이와 같은 영역의 연구는 성경구절을 연구하는 우리의 목표다.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나의 방법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해석상 지나친 다양성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부적절한 방법을 말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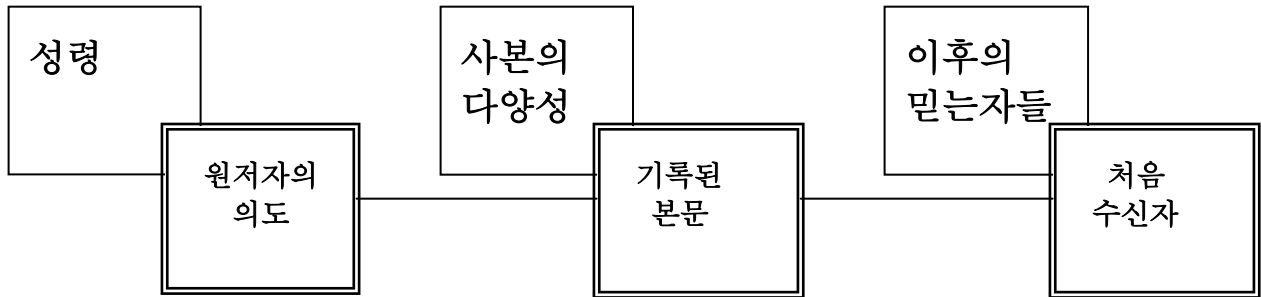
## II. 부적절한 방법들

- 가. 성경의 책들의 문학적 상황을 무시하고 모든 문장, 구, 심지어 각각의 단어들을 저자의 의도나 전체 상황과 관계없이 진리의 진술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종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본문사용”(proof-texting)으로 불린다.
- 나. 본문이 거의 또는 전혀 지지하지 않는 상상적인 역사적 상황을 대용하여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 다.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고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조건 신문정도로 생각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다.
- 라. 성경을 처음의 청취자와 원저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철학적, 신학적 메시지로 우화화하여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 마. 원저자의 목적과 그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신학적 체계, 선호하는 교리나 현대 논쟁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원래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을 다룰 때 설교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종종 행해진다. 이것은 “독자 중심”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 하는가”)해석이라고 종종 불려진다.

인간의 글을 통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최소한의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다른 독서법들이 세 요소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성경의 독특한 감동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정된 아래의 도표가 좀 더 적절하다:



실제로 세 가지 요소 모두가 해석하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검증은 위해 나의 해석은 첫 두 요소에 중점을 두었다: 원저자의 의도와 본문. 이제까지 잘못 사용되어 온 것으로서 (1) 우화화나 영해하는 본문과 (2) “독자 중심” 해석(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 하는가)에 대해 나는 반대한다. 이러한 잘못은 모든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동기, 편견, 방법, 적용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해석의 범주나 한계 그리고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저자의 의도와 본문의 구조는 바른 해석의 범주를 갖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부적절한 독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일관성 있는 바른 성경읽기나 해석이 되도록 돕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겠는가?

### III. 바른 성경읽기를 위해 가능한 방법들

지금 나는 특별한 문학 형태에 대한 독특한 해석 기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원리가 모든 형태의 성경본문에 적용된다는 것을 논하고자 한다.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성서유니온)는 특별한 문학형태에 따라 접근하기에 좋은 책이다. 나의 방법은 네 가지 개인적인 읽는 단계를 통해 성령께서 성경을 조명하시도록 우선적으로 독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 본문, 그리고 독자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주석가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 받을 수 있는 독자를 보호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성경은 주석가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 준다.” 이것은 연구를 돕는 주해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적절한 때에 사용하라는 뜻이다.

본문 자체가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해야 한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최소한의 다섯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원저자의
  - ㄱ. 역사적 배경
  - ㄴ. 문학적 배경

2. 원저자가 선택한
  - ㄱ. 문법적 구조(구문법)
  - ㄴ. 당시의 용법
  - ㄷ. 문학적 형태
3. 우리의 적절한 이해
  - ㄱ. 관계된 대구(평행)구절
  - ㄴ. 교리 사이의 관계(역설)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적용을 위한 유일한 원천이다. 슬프게도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것에 관하여 자주 의견이 맞지 않는다. 믿는 자들이 성경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서로 동의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다!

네 가지 읽는 단계는 아래의 해석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가. 독서의 첫 번째 단계

1. 단번에 그 책을 읽으라. 다른 번역을 읽되 가능하면 다른 번역이론에 속한 번역본을 읽으라.
  - ㄱ. 축어적 역본(뉴킹제임스역, 신미국표준역, 신개정표준역)
  - ㄴ. 등가적 역본(현대영어성경, 예루살렘역)
  - ㄷ. 풀어쓴 역본(리빙 바이블, 확대번역성경)
2. 전체본문의 중심목적을 찾아라. 주제를 찾아라
3. (가능하면)문학적 단위, 장, 문단, 혹은 중심목적이나 주제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문장을 파악하라.
4. 뚜렷한 문학적 유형을 파악하라.
  - ㄱ. 구약
    - 1) 이야기체
    - 2) 시(지혜문학, 시편)
    - 3) 예언서(산문, 시)
    - 4) 법률
  - ㄴ. 신약
    - 1) 이야기체(복음서, 사도행전)
    - 2) 예화(복음서)
    - 3) 편지/서신서
    - 4) 계시 문학

나. 독서의 두 번째 단계

1. 책 전체를 다시 읽고 중요한 논제나 주제를 찾으라.
2. 중요한 논제를 말하고 간단하게 그 내용을 진술하라.
3. 목적 진술문을 점검하고,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용하여 개요를 넓혀라.

다. 독서의 세 번째 단계

1. 책 전체를 다시 읽고 성경에서 역사적인 상황과 특별한 사건을 확인하라.
2. 성경에 언급된 역사적인 내용들을 열거하라.
  - ㄱ. 저자
  - ㄴ. 날짜
  - ㄷ. 수신자

- ㄹ. 글을 쓴 특별한 이유
- ㅁ. 저술의 목적과 관련된 문화적 배경의 요소
- ㅂ.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언급
- 3. 해석할 성경본문의 단락별 개요를 만들라. 문학의 단위에 항상 유념하라. 문학적 단위는 여러 장이나 문단에 걸쳐 있을 수 있다. 이과정은 원저자의 논리와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 4.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역사적 배경을 점검하라.
- 라. 독서의 네 번째 단계
  - 1. 본문의 특별한 문학적 단위를 여러 번역본을 사용하여 다시 읽으라.
    - ㄱ. 축어적 역본(뉴킹제임스역, 신미국표준역, 신개정표준역)
    - ㄴ. 등가적 역본(현대영어성경, 예루살렘역)
    - ㄷ. 풀어 쓴 역본(리빙 바이블, 확대번역성경)
  - 2. 문학적 또는 문법적 구조를 확인하라.
    - ㄱ. 반복적인 표현, 엡 1:6, 12, 13
    - ㄴ. 반복되는 문법적 구조, 롬 8:31
    - ㄷ. 대조되는 개념들
  - 3. 다음의 항목들을 파악하라.
    - ㄱ. 중요 용어
    - ㄴ. 자주 사용되지 않는 용어
    - ㄷ. 문법적으로 중요한 구조
    - ㄹ. 어려운 단어, 절, 문장
  - 4. 평행되는 구절들을 확인하라.
    - ㄱ. 해당되는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을 찾아라
      - 1) “조직신학”책
      - 2) 참조성경
      - 3) 성구사전
    - ㄴ. 당신의 주제에서 역설적인 짝을 이루는 것을 찾아라. 성경의 여러 가지 진리는 서로 대립적인 짝으로 나타난다; 많은 교파적 대립은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반쪽 본문사용에 기인한다. 모든 성경은 영감에 의해 쓰였다. 우리의 해석은 성경의 취지에 입각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성경의 완전한 메시지를 찾아내야만 한다.
    - ㄷ. 같은 책, 같은 저자, 같은 문학형태 안에서 평행되는 구절들을 찾아라;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 한분이시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 5. 역사적 배경과 사건에 대한 당신의 연구를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사용하라
    - ㄱ. 해설이 있는 성경
    - ㄴ. 성경백과사전, 성경핸드북, 성경사전
    - ㄷ. 성경개론서
    - ㄹ. 성경주석(고금을 막론하고 개인 성경연구를 바르게 도울 수 있는 주석을 사용하라.)

#### IV. 성경해석의 적용

이제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당신은 지금까지 성경의 원래의 상황 안에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당신의 삶과 문화에 적용하여야 한다. 나는 성경의 권위를 “원저자가 그의 시대에 말하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우리시대에 적용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

적용은 반드시 원저자가 시간과 논리 안에서 의도한 바를 따라야 한다. 성경이 그 시대에 말하고자 한 것을 알기 전에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다! 성경 본문은 그것이 의미하지 않았던 것을 결코 의미할 수 없다!

당신의 세분화된 단락 수준 (독서의 세 번째 단계)의 개요는 당신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적용은 단어 수준에서가 아니라 단락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어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구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문장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해석의 과정에서 영감 받은 사람은 오직 원저자뿐이다. 우리는 단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원저자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조명은 영감이 아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원저자의 의도안에 머물러야만 한다. 적용은 전체 글, 각 문학적 단위, 문단에 나타난 일반적인 의도에 특별하게 연결되어야만 한다.

오늘날의 쟁점이 성경을 해석하게 말고; 성경이 말하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는 성경본문으로 부터 원리를 이끌어 내야 한다. 만약 본문이 원리를 뒷받침한다면 그것은 타당하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원리들은 자주 본문의 원리가 아닌 “우리의” 것이 되고 있다.

성경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본문(예언은 제외)에는 단지 하나의 의미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의미는 그 시대의 위기나 필요에 대해 말하고 있는 원저자의 의도와 연관이 있다. 하나의 의미에서 다양한 적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수신자의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원저자가 의미했던 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 V. 해석의 영적인 면

지금까지 나는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본문중심의 과정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해석의 영적인 면을 간단하게 논하고자 한다. 다음은 나에게 도움을 준 점검목록이다:

- 가.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라(참조 고전 1:26-2:16).
- 나. 개인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한 용서와 깨끗이 해주심을 위해 기도하라(참조 요일 1:9).
- 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갈망하도록 기도하라(참조 시 19:1-14; 42:1 이하; 119:1 이하).
- 라. 허락하신 새로운 깨달음을 당신의 삶에 즉각 적용하라.
- 마. 겸손함과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유지하라.

성령의 영적인 인도와 논리적인 방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음에 인용된 내용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갖도록 내게 도움을 주었다:

가. 제임스 W. 사이어, 왜곡된 성경(*Scripture Twisting*), 17-18 쪽에서:

“성령의 감동은 영적 엘리트에게만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다.

성경적인 기독교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위한 전문적 강의도, 그것을 터득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또한 모든 타당한 해석이 자신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성령께서 지혜, 지식, 영적분별의 특별한 은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이런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성경을 권위있게 해석하도록 하지는 않으셨다.

성경은 최종권위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신 사람들에게도 권위를 갖는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배우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책임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다.

결론적으로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참된 계시라는 것이라는 점과, 또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성경이 궁극적인 권위라는 점과, 성경은 결코 신비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의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 키에르케가드의 글, 버나드 램, *성경해석학*, 75 쪽에서:

키에르케가드에 의하면, 성경의 문법적, 사전적, 역사적 연구는 필요할 뿐 아니라 바른 성경읽기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사람의 입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열망하며 진심으로 읽어야 한다. 부주의하게 무의식적으로 또는 학적이나 직업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사랑의 편지(love letter)로 읽을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 라울리, *성경의 계시*, 19 쪽에서:

“성경의 단순한 지적인 이해는 그것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모든 보화를 소유하지 못한다. 단순한 지적이해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이해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지적 이해가 영적 이해(영적 보화)에 이르러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영적인 이해를 위해 지적인 깨달음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시키려는 열정과 영적수용성을 가져야 한다. 그 결과 그는 과학적 연구방법을 뛰어 넘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성경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 VI. 본 주석의 체계

본 *연구안내주석*은 당신의 해석과정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가. 각 책의 간단한 역사적 개요를 소개한다. 독서의 세 번째 단계를 실시한 후 이 안내를 보라.

나. 각 장의 처음 부분에 문맥적 통찰력 난을 넣었다. 이것은 문학적 단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다. 각 장 혹은 주요 문학적 단위가 시작될 때마다 여러 가지 현대 번역본의 문단분할과 그 제목을 제시했다:

1. 신미국표준역, 1995 개정판(NASB)
2. 뉴킹제임스역(NKJV)
3. 신개정표준역(NRSV)
4. 현대영어성경(TEV)
5. 새예루살렘역(NJB)

문단의 구분은 영감 되지 않았다. 그것은 문맥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다른 번역이론과 다른 신학적인 관점을 가진 여러 현대어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원저자가 가졌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각각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주제 문장” 또는 “본문의 중심 생각” 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통일된 생각이 역사적, 문법적으로 적절한 해석의 열쇠이다. 문단보다 작은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거나 설교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 또한 각 문단은 앞뒤의 문단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책 전체의 문단 개요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반드시 영감 된 원저자가 주장하는 주제의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야 한다.

라. 밥(Bob)의 설명은 한 절씩 해석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원저자의 생각을 따르도록 도와준다. 그의 설명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1. 문학적 상황
2. 역사적, 문화적 통찰력
3. 문법적 지식
4. 단어 연구
5. 관계된 대구(평행)구절

- 마. 때에 따라 신미국표준역, 1995 개정판 대신에 다른 여러 현대 번역본도 보충적으로 사용되었다:
1. “공인본문”으로 알려진 뉴킹제임스역
  2. 개정표준역 전국교회협의회 축어적 개정판인 신개정표준역
  3. 미국성서공회의 등가번역본인 현대영어성경
  4. 프랑스 천주교의 등가 번역본에 기초한 영어역인 예루살렘역
- 바. 헬라어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여러 영어번역본을 비교하는 것이 본문의 문제점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1. 사본의 다양성
  2. 대체할 수 있는 단어의 뜻
  3. 문법적으로 어려운 본문이나 구조
  4. 애매한 본문
- 영어번역본이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좀 더 깊고 철저한 연구가 되도록 도와준다.
- 사.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장의 중요한 해석상의 문제들에 대한 생각할 질문들을 제시했다.

# 창세기 11:24-13:18 에 대한 서론

- 가. 창세기에서 이 단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메시아의 계보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 나. 창세기의 모든(50 장) 내용은 창조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구속에 대한 것이다. 모든 이를 부르시기 위해 한 사람을 부르신 것에 초점이 모인다.
- 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연약한 사람으로 보여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속적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선택과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를 부르셨다.
- 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이는 세상을 택하시기 위함이었다(참조, 12:3c; 출 19:4-6; 벧후 2:5,9; 계 1:6).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참조, 창 3:15; 겔 18:23,32; 딤후 2:4; 벧후 3:9).
- 마. *탈무드*는 부르심에 따른 일곱 가지 축복을 말하고 있다.
  1. 아브람이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2. 그는 평생 동안 축복을 받을 것이다.
  3. 그의 이름이 유명하게 될 것이다.
  4.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5. 그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6. 그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7. 그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11:24-25

<sup>24</sup>나홀은 이십구 세에 데라를 낳았고 <sup>25</sup>데라를 낳은 후에 백십구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1:24 “데라” “데라”(BDB 1076)는 “체재하는,” “늦어지는,” 혹은 “이주하는”을 의미한다. 수 24:2 에서 볼 때 그와 그의 가족은 다신교도였음이 분명하다. 그 가족의 이름은 그들이 달신인 신(12:4 의 특별주체를 보라)을 주로 섬겼음을 암시한다. 우르, 테마, 하란 사람들이 달신을 섬겼다. 한편 창 31:53 은 그가 야웨를 알았음을 보여준다.

### 개역개정 11:26

<sup>26</sup>데라는 칠십 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11:26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이 이름의 순서는 나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중요성에 따른 순서일 것이다. 아브람의 이름(BDB 4)은 (1) “높임을 받은 아버지” (2) “아버지를 높이는 자” (3)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을 가졌을 것이다. 나홀이라는 이름은 “혈떡거리는” 혹은 앓시리아의 지명을 뜻하며 하란은 “산족”을 뜻한다.

**개역개정 11:27-30**

<sup>27</sup>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sup>28</sup>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sup>29</sup>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래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sup>30</sup>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11:27 25:12,19; 36:1,9; 37:2 의 설명을 보라.

11:28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 죽었더라” 이것은 하란이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음을 말하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다.

▣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갈대아의 문화는 잘 발달된 문화였는데(즉, 수메르의 문화가 가진 장점 위에 형성되었음) 아브람이 살았던 시대 이후에 전성기를 이루었다.

11:29 “또 이스가의” 이 사람(BDB 414)이 누구인지 또 왜 이 절에 그녀의 이름이 나타나는지를 알 수 없다. 랍비들(또한 요세푸스, 제롬, 어거스틴)은 이 사람이 사래였다고 말하지만, 성경의 본문은 서로 다른 아버지가 그들을 낳은 것으로 말한다.

11:30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사래, 라헬, 리브가가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점은 야웨의 능력과 및 인간의 역사와 계보를 야웨께서 주관하심을 나타내는 방법이였다. 메시아의 계보에 있어서 인간의 성적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계보는 그 핵심을 이루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신학적 관점이 드러나고 있다. 즉 장자가 결코 가계의 우두머리(즉, 메시아의 계보에 있어서)가 아닌 경우가 있다. 문화적으로 볼 때 장자는 부족의 우두머리였는데, 야웨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른 일이었다!

**개역개정 11:31-32**

<sup>31</sup>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sup>32</sup> 데라는 나이가 이백오 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1:31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데라가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간 것인지 아니면 아브람이 가족을 데리고 간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하나님께서 데라를 부르셨지만 그가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라고 어떤 이는 추측하기도 한다. 이 단락 전체가 아브람에 대한 것이지 데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르를 떠남으로서 아브람은 자신의 모든 가족 뿐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국가의 우상들도 떠난 것이였다. 아브람은 자신에게 수수께끼 같은 형태로 말씀하신 새로운 신인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버렸다.

11:32 “데라는 나이가 이백오 세가 되어” 만일 우리가 11:26 에 있는 년 수에 12:4 의 년 수를 더한다면 145 년이 되는데 이 숫자를 205 년에서 빼면 아브람이 하란을 떠난 후에 데라가 60 년을 더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은 행 7:4 에 나오는 스테반의 설교와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테반이 언급한 것 가운데 몇 가지 역사적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와 일치하지 않는다. 아마도 그가 랍비들의 해석을 사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11:26 에서 아브람의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오지만 그가 훨씬 이후에 태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스테반의 언급을 정확한 것으로 이해한다.

# 창세기 12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아브람이 이집트로 여행하다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심	아브람을 부르심
12:1-3	12:1-3	12:1-3	12:1-2	12:1-3
(1-3)	(1-3)		(1-2)	(1-3)
			(3)	
12:4-9	12:4-9	12:4-9	12:4-5a	12:4-5
			12:5b-9	
				12:6-9
	이집트에 있는 아브람	위험에 처한 사라 (12:10-13:1)	이집트에 있는 아브람	이집트에 있는 아브람
12:10-16	12:10-16	12:10-16	12:10-16	12:10-20
	12:14-20			
12:17-20		12:17-13:1	12:17-20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2:1-3

<sup>1</sup>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sup>2</sup>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sup>3</sup>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12:1-3 히브리의 시와 “고상한(elevated)” 산문을 구별하여 말하기가 종종 어렵다. 영어 번역본에서 이 부분의 장르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보라.

	NASB/NKJV	JPSOA	NRSV	TEV/NJB/REB/NIV
시	1b-3	1		3
산문	1a	2-3	1-3	1-2

본문에서는 이 내용이 정확히 어떤 장르에 속하는지를 나타내는 표시가 없다. 이러한 제시는 각 번역 위원회의 견해일 뿐이다.

이 세 절의 내용은 계속되는 일부 장에서 약간 변형되고 설명이 제시되는 형태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한편 바울은 로마서 4 장에서 이 문맥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커다란 약속에 대한 것으로서 사용한다(즉, 창 15:6). 야웨께서는 아브람과 그의/하나님의 씨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언약(13:15의 특별주제를 보라)은 성경에서 중심 진리를 이룬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며 이 일의 진행을 주관하신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적합하게 또 계속해서 응답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12:1 “이르시되” 영어 번역본에는 “지금(Now)”과 “이르시되”라는 두 단어가 이 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우르에서 이전에 부르실 때에 이 단락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번역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다(참조, 창 15:7; 느 9:7; 행 7:2).

▣ “여호와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야웨이다(참조, 출 3:14). 이 부르심이 아브람의 훌륭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기인함을 주목하라(참조, 10 절 이하).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도권을 갖고 일하신다(참조, 요 6:44,65; 엡 2:8-9).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

가. 엘 (BDB 42, KB 48)

1. 비록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을 일컫는 용어가 아카디아어의 “강하다” 또는 “능하다”라는 어원에서 왔다고 말하지만, 신을 일컫는 이 고대 용어의 고유한 의미는 불확실하다(참조, 창 17:1; 민 23:19; 신 7:21; 시 50:1).
2. 가나안 만신전에서 높은 신은 엘이다(라스 샴라 본문)

3. 성경에서 **엘**은 일반적으로 다른 용어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이 단어가 들어있는 합성어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낸다.
    - ㄱ. **엘-엘론** (“아주 높으신 하나님,” BDB 42 & 751 II), 창 14:18-22; 신 32:8; 사 14:14
    - ㄴ.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 또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BDB 42 & 909), 창 16:13
    - ㄷ.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또는 “공홀이 많으신 하나님” 또는 “산의 하나님,” BDB 42 & 994), 창 17:1; 35:11; 43:14; 49:25; 출 6:3
    - ㄹ.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BDB 42 & 761), 창 21:33. 이 용어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이 있다. 삼하 7:13,16
    - ㅁ. **엘-베릿** (“언약의 하나님,” BDB 42 & 136), 삿 9:46
  4. **엘**은 다음과 동격을 이룬다
    - ㄱ. 야웨, 시 85:8; 사 42:5
    - ㄴ. **엘로힘**, 창 46:3; 욥 5:8, “나는 **엘**이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엘로힘**)이다”
    - ㄷ. **샤다이**, 창 49:25
    - ㄹ. “시기,” 출 34:14; 신 4:24; 5:9; 6:15
    - ㅁ. “자비,” 신 4:31; 느 9:31
    - ㅂ. “신실하신,” 신 7:9; 32:4
    - ㅅ. “크고 두려우신,” 신 7:21; 10:17; 느 1:5; 9:32; 단 9:4
    - ㅇ. “지식,” 삼상 2:3
    - ㅈ. “나의 견고한 피난처,” 삼하 22:33
    - ㅊ. “나의 신원자,” 삼하 22:48
    - ㅋ. “거룩하신 분,” 사 5:16
    - ㅌ. “힘,” 사 10:21
    - ㅍ. “나의 구원,” 사 12:2
    - ㅎ. “크고 능하신,” 렘 32:18
    - ㄱ. “값으심,” 렘 51:56
  5. 수 22:22 에는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함께 나온다(**엘**, **엘로힘**, **야웨**가 반복됨)
- 나. **엘론** (BDB 751, KB 832)
1. 이 이름의 기본적인 뜻은 “높은,” “존귀하신,” 또는 “높이 들리신”이다(참조, 창 40:17; 왕상 9:8; 왕하 18:17; 느 3:25; 렘 20:2; 36:10; 시 18:13).
  2. 이 이름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칭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 ㄱ. **엘로힘** - 시 47:1-2; 73:11; 107:11
    - ㄴ. **야웨** - 창 14:22; 삼하 22:14
    - ㄷ. **엘 샤다이** - 시 91:1,9
    - ㄹ. **엘** - 민 24:16
    - ㅁ. **엘라** - 다니엘 2-6 장, 에스라 4-7 장에서 많이 사용됨; 단 3:26; 4:2; 5:18,21 에서는 **일라이르**(아람어로 “높으신 하나님”)와 연결됨
  3. 이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 위해 종종 사용하였다.
    - ㄱ. 벨기세텍, 창 14:18-22
    - ㄴ. 발람, 민 24:16

- ㄷ. 모세, 신 32:8 에서 나라들에 대해 말함
- ㄹ.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신약의 누가복음은 헬라어로 이와 같은 뜻을 지닌 **ἑλωθε**를 사용(참조, 1:32,35,76; 6:35; 8:28; 행 7:48; 16:17)

다. **엘로힘(복수형)** 및 시에서 주로 사용된 **엘로아(단수형)** (BDB 43, KB 52)

1. 이 이름은 구약 이외의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2. 이 용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혹은 이방의 신들을 가리킨다(참조, 출 12:12; 20:3). 아브라함의 가족은 다신교적 신앙을 가졌다(참조, 수 24:2).
3. 이것은 이스라엘의 재판장을 의미할 수 있다(참조, 출 21:6; 시 82:6).
4. **엘로힘**은 다른 영적 존재들(천사, 악령)에게도 사용되었다, 신 32:8(LXX); 시 8:5; 욥 1:6; 38:7.
5. 이것은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이름이다(참조, 창 1:1). 이 이름은 이 이름과 야웨가 함께 사용된 창 2:4 이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이름은 기본적(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이 행성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창조주, 보존자, 공급자로 나타낸다(참조, 시 104 편).  
이 이름은 **엘**의 동의어이다(참조, 신 32:15-19). 하나님의 이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시 14 편(**엘로힘**)이 시 53 편(야웨)과 정확하게 평행을 이루듯이, 이 이름은 야웨와 평행을 이룬다.
6. 비록 **복수형**이 이방신들에게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 호칭은 종종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칭한다. 따라서 이 이름은 **단수형 동사**를 가져 유일신적 의미를 나타낸다.
7. 이 용어는 이스라엘인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사용된다.
  - ㄱ. 멜기세덱, 창 14:18-22
  - ㄴ. 발람, 민 24:2
  - ㄷ. 모세가 이방 나라들에 대해 말할 때, 신 32:8
8. 이스라엘의 유일신인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점은 특이하다! 비록 아주 분명하지만 않지만, 여기에는 여러 이론이 있다:
  - ㄱ. 히브리어에는 많은 **복수형**이 있는데 이것은 종종 강조를 나타낸다. 이것은 **복수형**이 어떤 개념을 극대화하는 후기의 히브리어 문법적 특징으로서 “위엄을 나타내는 복수형”의 개념을 가진다.
  - ㄴ. 이것은 천사들의 모임을 일컬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참조, 왕상 22:19-23; 욥 1:6; 시 82:1; 89:5,7).
  - ㄷ. 이것은 신약의 계시에서 삼위이신 한 하나님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창 1:1 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창 1:2 에서는 성령의 행하심을 말한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에 있어서 성부의 대행자였다 (참조, 요 1:3,10; 롬 11:36; 고전 8:6; 골 1:15; 히 1:2; 2:10).

라. 야웨 (BDB 217, KB 394)

1. 이것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하나님은 구원자요 구속자이시다! 인간은 언약을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씀, 약속,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신다(참조, 시 103 편).  
이 이름은 창 2:4 에서 **엘로힘**과 함께 나타난다. 창 1-2 장은 창조에 대한 두 개의 기록이 아니라 두 강조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1) 하나님은 우주(물질적)의 창조자이시고 (2) 인류의 특별한 창조자이시다. 창 2:4 은 인간의

특권적인 지위와 창조 목적에 대한 특별한 계시로 시작하며, 또한 죄의 문제와 인간의 독특한 지위와 관련된 반역을 다룬다.

2. 창 4:26 에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야웨)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한다. 한편 출 6:3 은 초기에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족장들과 그들의 가족)은 하나님을 오직 *엘 샤다이*로 알았음을 암시한다. 하나님의 이름 야웨는 오직 한 번 출 3:13-16 (특히 14 절)에서 설명된다. 그러나 모세의 글은 종종 어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참조, 창 17:5; 27:36; 29:13-35) 언어유희에 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이름의 뜻에 대하여 여러가지 이론이 있다(IDB 제 2 권 409-11 쪽에서 취함):
  - ㄱ. 아라비아 어원, “뜨거운 사랑을 보임”
  - ㄴ. 아라비아 어원, “불어냄”(폭풍의 신으로서 야웨)
  - ㄷ. 우가릿어(가나안어) 어원, “말하다”
  - ㄹ. 페니키아어 비문에서 **원인을 말하는 분사**, “유지시키는 자” 또는 “세우는 자”
  - ㅁ. 히브리어 *칼* 형, “계신 분” 또는 “존재하시는 분”(미래적 의미로는 “앞으로 계실 분”)
  - ㅂ. 히브리어 *히필* 형, “있게 하시는 분”
  - ㅅ. 히브리어 어원인 “살다”(예, 창 3:20)로 “항상 계시며 홀로 살아계신 분”
  - ㅇ. 출 3:13-16 의 문맥에서 **미완료형이 완료형의 의미로 쓰인 것**, “나는 내가 그래왔듯이 계속해서 그러할 것이다” 또는 “나는 내가 항상 있었듯이 계속 있을 것이다”(참조, 와쉬 왓쓰의 *구약 문맥 개설* 67 쪽). 야웨란 이름은 종종 축약적으로 혹은 원래의 형태로서
    - (1) *야*(예, 할렐루-야, BDB 219, 참조, 출 15:2; 17:16; 시 89:9; 104:35)
    - (2) *야후*(이름의 끝자인 “야,” 예, 이사야)
    - (3) *요*(이름의 첫 자인 “요,” 예, 여호수아 혹은 요엘)
3. 후기 유대교에서는 이 언약적 이름을 매우 거룩하게 여겼다(4 자음으로 된 하나님의 이름). 따라서 유대인들은 출 20:7; 신 5:11; 6:13 의 계명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신에 히브리어로 “주인,” 남편,” “주”-*아돈* 혹은 *아도나이*(나의 주)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들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야웨가 나올 때마다 “주”로 발음했다. 이것이 왜 야웨를 주(LORD)라고 영어 성경에서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4. *엘* 처럼 야웨는 종종 다른 용어와 함께 사용되어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성을 강조한다. 가능한 조합의 여러 경우 가운데 그 일부를 여기에 제시했다.
  - ㄱ. *야웨-이레*(야웨께서 공급하신다, BDB 217 & 906), 창 22:14
  - ㄴ. *야웨-로페카*(야웨는 너의 치료자이시다, BDB 217 & 950, *칼 분사*), 출 15:26
  - ㄷ. *야웨-니시*(야웨는 나의 깃발, BDB 217 & 651), 출 17:15
  - ㄹ. *야웨-메카디스킵*(야웨는 너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BDB 217 & 872, *피엘 분사*), 출 31:13
  - ㅁ. *야웨-살롬*(야웨는 평화이시다, BDB 217 & 1022), 삿 6:24

- ㅂ. *야웨-쓰바웃* (만군의 야웨, BDB 217 & 878), 삼상 1:3,11; 4:4; 15:2; 종종 예언서에 쓰임
- ㅅ. *야웨-로이* (야웨는 나의 목자, BDB 217 & 944, *칼 분사*), 시 23:1
- ㅇ. *야웨-치드케누* (야웨는 우리의 의이시다, BDB 217 & 841), 램 23:6
- ㅈ. *야웨-삼마* (야웨께서 거기 계시다, BDB 217 & 1027), 겔 48:35

▣ “**여호와께서 . . . 이르시되**” 이것은 꿈이나 환상을 통한 것이 아니라(비록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언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뜻한다. 7 절은 3:8-12; 4:9-15; 6:13-22; 8:15-19; 9:1-7,8-17 에서와 같이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심을 뜻한다.

▣ “**아브람에게**” 이 이름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하여는 11:26 의 설명을 보라.

아브람은 특별한 사람으로 묘사되지 않고 있다. 그의 가족은 다신교를 믿었는데 아마도 달신(달의 여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을 것이다. 사실상 아브람은 다음의 내용에 있어서 불순종했다

1. 그의 가족을 떠나는 일
2.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간 일
3.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자기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게 한 일(두 번)
4.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거짓말 한 일

22:15-18 에 가서야 비로소 그의 믿음이 빛을 발한다(15:6 에서는 그의 믿음에 대해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 “**너는 너의 고향과 . . . 떠나**” 이 동사(BDB 229, KB 246, *칼 명령*)는 “가다”를 의미한다.

NASB 의 각주는 이 단어가 “네 자신을 위해 가라”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1b,c,d 절에 있는 세 문장에 다 관련을 가진다. 이 말씀은 우르와 하란 가운데 어느 나라를 의미하는가? 11:31 에서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우르를 떠났으나 하란에 정착하였음을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우르와 하란은 둘 다 달신을 섬기는 중심지였고 데라와 그의 가족에게도 중요한 도시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의 이름이 가진 뜻이 달신/여신인 *신*, *나나*와 관계있음(참조, 수 24:2)을 볼 때 알 수 있다(한편 이 가족의 성이 나타내는 의미는 불확실하다).

아브람이 자기 가족과 출생지를 떠나는 일은 그가 자신이 받을 모든 유산을 공개적으로 포기한다는 선언이었을 것이다. 자신의 가족과의 단절은 자기 가족이 섬기던 우상들과의 단절도 의미했을 것이다. 이것이 그와 동행한 롯과 데라가 함께 가기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바로 그 이유이다. 따라서 이 사실은 매우 놀랍다. 이것은 야웨의 부르심에 대한 불순종이었던가 아니면 그 당시에 가족들이 기대하는 바를 행한 것(즉, 부모를 돌보는 일)으로서 야웨께 순종한 일이었는가? “역사적 이야기체”의 장르(관련이 있는 부록의 여러 내용을 보라)는 대개 이러한 종류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야기 전체를 고려해야 하며 또한 “점들을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한다.

▣ “**친척과**” 야웨의 부르심은 아브람의 응답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되는 조건적인 내용이었다. 아브람은 자신의 역할(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일)을 즉각적으로 행하지 않았다. 순종이 매우 중요하다(참조, 18:19; 22:18).

▣ “**아버지의 집을 떠나**” 행 7:4 은 아브람이 떠나기 전에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11:26 과 12:4 을 결합시키고 이절을 11:32 과 결부시킬 때 아브람이 떠난 후에 데라가 60 년을 더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11:26 이 열쇠이다. 아브람의 이름이 앞에 언급된 것은 그가 장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갖는 중요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람에게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었던 내용은 그 사회에서 그가 가족에게 행할 의무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11:31 에서 우리는 이 땅이 가나안을 뜻함을 알게 된다. 가나안은 다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다

1. 아브라함 - 창 12:1; 15:18-21
2. 이삭 - 창 26:3-5
3. 야곱 - 창 28:13-15; 35:9-12
4. 이스라엘 - 창 15:16; 출 6:4,8; 신 4:38,40; 5:31; 19:10; 20:16; 21:23; 수 1:2,3,6,11,13,15; 2:9,24; 18:3; 21:43; 24:13

아브람의 믿음에 대하여는 히 11:8 에서 그 특징을 말하고 있다. 이 특별한 땅에 대한 약속은 구약에서 핵심을 이룬다(즉, 야웨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다).

12: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이라는 단어(BDB 156)는 고국을 뜻한다. 이것은 많은 후손도 의미한다(즉, 22:17). 이것은 창 10 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바 새 민족을 뜻한다.

2 절에는 세 개의 **청유형**을 사용하여 야웨께서 하시는 약속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1.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 BDB 793, KB 889, **칼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됨
2.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 BDB 138, KB 159, **피엘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됨
3.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 BDB 152, KB 178, **피엘청유형**

“씨”에 대한 이 약속은 하나의 특별한 씨/후손이신 메시아에 초점이 맞추어진 소망을 말한다.

메시아는 모든 민족들을 야웨께서 이끄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구속의 전체 장에서 한 가지 역할을 할 뿐이다!

지으심을 받은 최초의 피조세계는 성장의 축복을 받았으나 죄가 야웨의 바렘에 영향을 미친 일은 신학적으로 중요하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한 사람, 한 가정, 한 민족과 더불어 다시 시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속적 민족이 되게 하신다(이것은 바벨탑 사건의 역이다; 그들 역시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기 원했다, 11:4). 이 본문의 내용은 약속하신 축복이며 동시에 조건적인 축복이다. 한편 이 내용의 초점은 야웨께서 합당치 않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혜로운 일, 15:7-21; 28:13-15)에 있다. 이것은 순종(이것의 가장 좋은 예는 창 22 장이다)과 믿음(창 15:5)에 기초하는 조건적(참조, 1 절) 축복이며 약속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범이 되었다(참조, 롬 4 장; 갈 3 장).

▣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랍비들은 이것이 그의 이름을 사용하여 축복을 나타낸다는 의미로 말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게 되며 또 그를 존경하게 됨을 뜻한다.

▣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청유형**의 한 가운데 있는 **칼미완료형**이다. “복이 될지라”는 아브람 쪽의 행동을 의미한다. 야웨의 축복은 아브람으로 하여금 축복이 되게 하였고, 또 3 절에서는 전세계에 대하여 축복이 되게 했다.

12: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야웨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해 미치게 된다. 야웨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행동하시기를 선택하신다.

3 절에서는 **동사들이** 한 형태를 이룬다.

1. 야웨께서 축복하신다 - BDB 138, KB 159, **피엘청유형**
2. 아브람을 축복하는 자들을 - BDB 138, KB 159, **피엘분사**
3. 아브람을 저주하는 자들을 - BDB886, KB 1103, **피엘분사**
4. 야웨께서 그들을 저주하신다 - BDB, KB, **칼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됨

▣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곳에는 “저주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두 가지 사용되었다. 처음 단어는 “나쁘게 말하다”(BDB 886, KB 1103, 참조, 8:21; 16:4,5; 출 21:17; 22:28; 레 19:14; 20:9[2 회]; 24:11,14,15,23; 신 23:4)이고 두 번째 단어는 야웨께서 재판석에서 하시는 저주이다(BDB 76, KB 91, 참조, 3:14,17; 4:11; 5:29; 9:25; 27:29[2 회]; 49:7; 출 22:28; 민 5:18,19,22,24[2 회],27; 22:6[2 회],12; 23:7; 24:9[2 회]; 신 27:15-26; 28:16-19). 아브라함을 욕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를 야웨로부터 끊어버리며 따라서 저주를 받는다. 야웨께서는 전적으로 아브람과 그의 가족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멜기세덱, 욥, 이드로의 경우를 참고하라).

▣

NASB, NKJV,

NRSV, 페쉬타

NRSV 각주, JPSOA

TEV

TEV 각주

“그리고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자신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내가 모든 민족을 축복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내가 너를 축복한 것 같이 자기들을 축복해 달라고 나에게 요청할 것이다”

NJB

70 인역

REB

REB 각주

“그리고 땅의 모든 무리가 너로 인해 자기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네 안에서 땅의 모든 부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축복받은 것처럼 축복받기를 원할 것이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니팔 완료형*(BDB 138, KB 159)의 어근은 대개 *수동태*로 사용되지만(70 인역, NASB, “축복을 받다,” 참조, 18:18; 28:14), 22:18 과 26:4 에서는 *재귀형*(“자신을 축복하다”)인 *히트파엘 완료형*으로 사용되었다. *히트파엘*은 시간을 통해 계속되는 행동을 의미할 수 있다. 창 11 장에서 전세계가 반역을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이 모든 민족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모든 인류를 택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참조, 시 22:27; 66:4; 86:9; 사 66:23; 49:6; 행 3:25; 갈 3:8)! 또한 22:18 의 설명을 보라.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본문이다. 이 본문은 아브람을 사용하사 온 세계에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드러낸다. 비록 노아의 후손들의 계획적인 반역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즉, 창 11 장) 창 3:15 에 기록된 전 인류에 대한 약속이 시행되고 있다. 이 일은 아브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람의 씨(즉 메시아, 참조, 갈 3:16)에 대해 호의를 가진 사람들도 위한 것이다. 예언으로 말씀하신 구속을 그의 후손 가운데 특별한 “한 분”을 통해 이루시려고 야웨께서 한 사람을 택하신 일에는 우주적인 계획이 있었고 또 우주적인 계획이 있다. 큰 그림에서 볼 때 이 본문은 유대인들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약속된 분”으로 오시는 그 유대인에게 믿음으로 응답할 것을 말하고 있다.

**특별주제: 밥의 복음적 편향**

나는 독자인 당신에게 내가 이 점에 있어서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나의 조직신학은 칼빈주의나 세대주의의 것(즉, 마 28:18-20; 눅 24:46-47; 행 1:8)이 아니라 대위임에 기초한 복음주의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예, 창 3:15; 12:3; 출 19:5-6; 렘 31:31-34; 겔 18 장; 36:22-39; 행 2:23; 3:18; 4:28; 13:29; 롬 3:9-18,19-20,21-31), 즉 그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모든 이 (참조, 창 1:26-27)를 위한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믿는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된다(참조, 갈 3:28-29; 골 3:11). 예수님은 감추어져 계셨지만 지금은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이시다(참조, 엡 2:11-3:13)! 성경의 열쇠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약의 복음이다.

이러한 사전 이해는 내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갖고 있는 색채이다(즉, 요나). 나는 이것을 가지고 모든 본문을 읽는다. 이것은 정말 어떤 편향을 나타낸다(모든 해석자는 편향을 가진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 사실에 기초한 전제조건이다.

### 특별주제: 메시아

이것은 다니엘 9:6 에 대해 내가 쓴 주석에서 가져 온 내용이다. 이 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갖는 어려움은 메시아 혹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BDB 603)라는 용어가 갖는 여러 의미를 인함이다.

1. 유대인의 왕들에 대해 사용됨(예, 삼상 2:10; 12:3)
2. 유대인의 제사장들에 대해 사용됨(예, 레 4:3,5)
3. 고레스에 대해 사용됨(참조, 사 45:1)
4. 시 110 편과 슥 4 장에서는 1 항과 2 항이 결합되어 나타남
5.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오는 다윗 계보의 왕이 의의 새 시대를 가지고 오를 나타냄
  - ㄱ. 유다 지파에서(참조, 창 49:10)
  - ㄴ. 이새의 가정에서(참조, 삼하 7 장)
  - ㄷ. 전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서(참조, 시 2 편; 사 9:6; 11:1-5; 미 5:1-4 이하)

나는 개인적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나사렛 예수이심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1. 단 2 장에서 네 번째 제국인 영원한 왕국을 제시하기 때문이고
2. 단 7:13 에서 “인자”에게 영원한 왕국을 주심을 말하기 때문이고
3. 단 9:24 에 있는 구속에 대한 구절이 범죄한 세계 역사의 귀결점을 가리키기 때문이고
4.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다니엘서를 사용하시기 때문이다(참조, 마 24:15; 막 13:14)

### 개역개정 12:4-9

<sup>4</sup>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sup>5</sup>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sup>6</sup>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sup>7</sup>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sup>8</sup>거기서 벧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벧엘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sup>9</sup>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12:4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요세푸스(*유대 고대사*, 1.8.1)는 아브람이 떠난 이유가 그가 전한 유일신 신앙의 계시적 메시지를 그의 가족들이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고대 근동에서 유일신 신앙은 독특한 것이었다.

▣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요세푸스(*유대 고대사*, 1.8.1)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기에 롯을 입양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 일은 후손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룸에 있어서 아브람이 인위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도우려 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실례일 것이다(참조, 16 장). 그가 롯을 데리고 간 일(또한 그의 부친인 테라와 함께 간 일, 참조 11:31)은 야웨께서 그에게 12:1c 에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위반한 행위로 보인다.

▣ “칠십오 세였더라” 창세기에서 일찌기 언급된 사람들(4-9 장)은 매우 긴 수명을 가졌다. 그 이유는 불확실하다.

1. 죄가 땅을 손상시키지 않았다
2. 일년을 지금과 다른 방법으로 계산했을 수 있다
3. 문자적인 상징이다(홍수 이전에 살았던 수메르 왕들의 경우처럼)

어떤 이유에서이든 아브람은 아직 “젊은”이었다.

우리가 이 절을 행 7:4 및 창 11:32 과 비교하여 볼 때 60 년의 차이가 생김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브람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나이를 인함이 아니라 중요성을 인함일 수 있다(참조, 성경의 어려운 말, 49 쪽). 오늘날의 해석가들은 종종 고대 히브리어 본문이나 문화가 마치 우리 시대에 속하는 것처럼 다룬다. 그들이 말하는 “정확한” 역사와 우리가 말하는 “정확한” 역사는 같지 않다. 어느 하나가 다른 것 보다 더 좋다는 말이 아니라 단지 그것들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다.

▣ “하란” 창 11:26 에서 “하란”(BDB 248)은 데라의 아들로써 우르에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이 이름은 북서쪽에 있는 한 도시를 뜻한다(BDB 357). 우르와 하란은 둘 다 달신/여신인 신을 섬기는 중심지였다. 이 이름은 수메르어로 “도로”(BDB 357)를 뜻한다. 따라서 이곳은 주요한 무역로(갈게미스의 니느웨에서부터 다메섹까지)에 위치했을 것이다. 창 48:7 에서 야곱은 자신이 “빛단”(BDB 804)에서 왔다고 말하는데 그 장소의 이름도 “도로”로서 아마도 아람 혹은 시리아에 속한 하란을 뜻하는 표현일 것이다(참조, 신 26:5). 이것은 또한 이삭이 라반의 누이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데려온 “나홀의 성읍”(참조, 창 24:10)일 것이다.

### 특별주제: 달 숭배

달을 숭배하는 일은 고대 근동에서 수메르(최초의 문명으로 알려진)의 신화에서 시작하는데 이것은 아주 널리 퍼졌다. 신화에는 남신과 여신이 다 나온다. 원래 달신은 하늘의 신인 *엔릴*이 곡식의 여신인 *닌릴*을 강간함으로써 태어났다. *엔릴*은 만신전에서 추방을 당했고 그가 한 일에 대해 정죄받아 지하세계로 처해졌다. 그런데 *닌릴*이 자신이 아기를 갖게 된 것을 알고 나서는 그와 한 편이 되었다. 그 자식인 *신*(혹은 *진*)은 밤마다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달신의 숭배는 달의 주기마다 행해졌다.

1. 새 달 - *아심밧발*
2. 초승달 - *신*
3. 보름달 - *나나이*(수메르어로 “지혜의 신”인 *엔수*가 “빛을 비춤”)

이러한 이름은 갈대아의 우르에서 섬겼던 “지혜로운 주”(즉, *수엔*) 혹은 “빛을 비춤”(나나이)을 기본적으로 뜻한다. 도시 자체가 종종 난날의 도시로 불렸다. 도시에 세워진 지구랏(위가 평평한 커다란 피라미드)에서는 짝으로 된 풍요의 신들을 섬겼다. 태양신(*샤마스*)은 이 부부의 장자이며 그 다음은 *에레스키갈*(지하세계의 여왕)과 *난나*(하늘/공중의 여왕)이다.

이 종교는 모든 고대 근동 세계에 전파되었지만, 이 종교의 주된 예배장소는 다음과 같았다

1. 우르
2. 하란
3. 테마
4. 가나안
5. 맥카

다산의 신을 섬기는 일과 결합된 이 신화는 기본적으로 별신들을 섬기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다.

구약은 별신을 섬기는 것(참조, 신 4:19; 17:3; 왕하 21:3,5; 23:5; 렘 8:2; 19:13; 슥 1:5)과 다산의 신을 섬기는 것(즉, *바알*과 *아세라*, 우가릿의 시)을 거부한다. 원래 유목민인 히브리인들은 달신 섬기는 것을 거부하기를 매우 조심스러워 했다. 그 이유는 농경문화에 속한 자들은 일반적으로 태양신을 섬긴 반면에 밤에 이동하는 유목민들은 달을 숭배하였기 때문이다. 유목민이 마침내 정착하여 살게 되었는데, 그 때에는 별신을 섬기는 일이 문제로 부각 되었다.

12:5 “아브람” 이 이름(BDB 4)은 “높으신 아버지,” “아버지를 높이는 자” 혹은 “나의 아버지는 높임을 받는 분이시다”를 뜻한다. 11:26의 설명을 보라.

▣ “사래”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의 형태가 갖는 뜻은 불확실하다(BDB 979, KB 1354). 이 이름의 새 형태는 17:15에서 나타나며 “귀부인” 혹은 “공주”(BDB 979 II, KB 1354 II, 참조, 사 5:29; 왕상 11:3; 사 49:23)을 의미한다.

▣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얻은”은 “만든”(BDB 793)을 의미한다. 유대 신비문학(*카발라*)에서는 아브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마술을 써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랍비들은 이들이 아브람의 설교를 통해 개종한 자들이었다고 말하지만, 문맥상 이들은 돈을 주고 산 종과 노예 및 그들의 자녀들을 가리킨다.

▣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BDB 488)이라는 용어는 원래 함의 아들을 가리킨다(함은 노아의 아들이었다, 참조, 창 9:18,22,25,27; 10:15). 그의 후손이 차지한 땅의 일부는 이 이름으로 불렸다. 이 명칭은 “높은 땅”(낮은 구릉지대)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낮은 지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지역은 이집트에서 페니키아에 속한 시돈에 이르는 해안 평야 지대를 가리킨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이 이집트 국경 바로 북쪽에 있는 남서쪽 해안에 정착한 이후에는 이 명칭이 블레셋의 북쪽 해안 지대를 뜻하게 되었다.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듯이 히브리 사람들이 침략해 들어온 이후에는 이 명칭이 요단 강의 양안에 있는 땅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가나안 땅은 한 쪽이 대략 160 km에 달하는 해안 지대로서 가장 긴 쪽의 길이는 대략 290 km 이고 폭은 30 km에서 190 km에 이른다.

▣ “세겜” 이 지명(BDB 1014)은 “견갑골”을 뜻한다. 이 도시는 에발 산과 그리심 산 사이에 위치했다. 이 장소는 여러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다: (1)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함(참조, 신 11:29-30; 수 8:30-35) (2) 언약을 갱신함(참조, 수 24 장) (3) 르호보암(솔로몬의 아들)과 여로보암(북쪽의 노동자 대표)이 솔로몬의 사후에 만났던 장소였다. 그 일 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다(주전 922년).

▣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모레는 선생을 뜻한다(BDB 435). 썸족은 나무를 신성시했다. 이것은 가나안인들이 사용한 제단 혹은 신탁의 장소였을 것이다(참조, 창 35:4; 신 11:30; 삿 9:37). 이 나무는 테레빈 나무(BDB 18, “큰 나무”)나 상수리나무였을 것이다(참조, 70 인역). 성경에서 언급된 식물과 동물에 대한 좋은 자료로는 UBS에서 발행한 *성경의 동식물*(제 2 판)을 보라.

▣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내용을 대부분의 주석가들(심지도 이븐 에스라도)이 후기의 삽입으로 본다. 하지만 창 9장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가나안의 후손이 그 땅에 살았음을 암시하는 구절이다.

**특별주제: 이스라엘 이전에 팔레스틴에 거주하던 사람들**

가. 여러 민족들의 목록이 나타나고 있다.

1. 창 15:19-21(10)

- |        |        |         |        |
|--------|--------|---------|--------|
| ㄱ. 겐   | ㄷ. 헷   | ㅅ. 아모리  | ㅈ. 여부스 |
| ㄴ. 그니스 | ㄹ. 브리스 | ㅇ. 가나안  |        |
| ㄷ. 갓몬  | ㅂ. 르바  | ㅈ. 기르가스 |        |

2. 출 3:17(6)  
 ㄱ. 가나안                    ㄴ. 브리스  
 ㄴ. 헷                            ㄷ. 히위  
 ㄷ. 아모리                    ㄹ. 여부스
3. 출 23:28(3)  
 ㄱ. 히위  
 ㄴ. 가나안  
 ㄷ. 헷
4. 신 7:1(7)  
 ㄱ. 헷                            ㄴ. 가나안                    ㄷ. 여부스  
 ㄴ. 기르가스                    ㄷ. 브리스  
 ㄷ. 아모리                    ㄹ. 히위
5. 수 24:11(7)  
 ㄱ. 아모리                    ㄴ. 헷                            ㄷ. 여부스  
 ㄴ. 브리스                    ㄹ. 기르가스  
 ㄷ. 가나안                    ㄹ. 히위

나. 이름의 기원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부족하기에 미심쩍다. 창 10:15-19 은 여러 민족을 함의 아들인 가나안 족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언급한다.

다. 창 15:19-21 의 긴 목록에 나와 있는 족속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

1. 겐                    - BDB 884  
 - 이스라엘 족속이 아님  
 - “벼리는 자” 혹은 “장색”과 관련된 이름으로서 금속과 관련된 일이나 음악과 관련이 있었을 것임(참조, 창 4:19-22)  
 - 헤브론 가까이 시내광야 북쪽에 거주  
 -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와 관련(참조, 사 1:16; 4:11)
2. 그니스                - BDB 889  
 - 유대인과 친척 관계  
 - 에돔의 부족(참조, 창 15:19)  
 - 네겔에 거주  
 - 유다에 흡수되었을 것임(참조, 민 32:12; 수 14:6,14)
3. 갓몬                 - BDB 870 II  
 - 이스라엘 족속이 아님, 아마도 이스마엘의 후손(참조, 창 25:15)  
 - “동쪽 사람”이란 이름  
 - 네겔에 거주  
 - “동쪽의 사람들”에 관련되었을 것임(참조, 욥 1:3)
4. 헷                    - BDB 366  
 - 이스라엘 족속이 아님  
 - 헷의 후손  
 - 아나톨리아 왕국에서 옴(소아시아, 터키)  
 - 가나안에 일찍부터 거주함(참조, 창 23 장; 수 11:3)

5. 브리스 - BDB 827  
 - 이스라엘 족속이 아님, 아마도 후리 족속  
 - 유다의 산림지역에 거주(참조, 창 34:30; 삿 1:4; 16:10)
6. 르바임 - BDB 952  
 - 이스라엘 족속이 아님, 아마도 거인들(참조, 창 14:5; 민 33:33; 신 2:10-11,20)  
 - 요단 강의 동쪽에 거주(참조, 창 15:20; 수 12:4; 13:12; 신 2:8-11,20; 3:13) 혹은 요단 강 서안(참조, 수 15:8; 17:15; 삼하 5:18,22; 23:13; 대상 20:4)  
 - 전사들/영웅들의 계보
7. 아모리 - BDB 57  
 - 함으로부터 기인한 셈족의 북서쪽 종족(참조, 창 10:16)  
 -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일반적 명칭이 됨(참조, 창 15:16; 신 1:7; 수 10:5; 24:15; 삼하 21:2)  
 - 이 이름은 “서쪽”을 의미함  
 - ISBE 제 1 권 119 쪽은 이 용어에 대해 말하기를  
 가. 일반적으로 팔레스틴 거주자  
 나. 해안가 평야 지대에 반대되는 지역인 산지에 거한 사람들  
 다. 특별하게 자기들의 왕을 가진 족속
8. 가나안 - BDB 489  
 - 함의 후손(참조, 창 10:15)  
 - 일반적으로 요단 강 서쪽에 살던 모든 족속들  
 - 가나안의 뜻은 불확실하다. 아마도 “상인” 또는 “붉은 자주 염색”을 의미  
 - 해안가 평야를 따라 살던 민족(참조, 민 13:29)
9. 기르가스 - BDB 173  
 - 함의 후손(참조, 창 10:16), 또는 적어도 “가나안[지경]의 사람으로부터,” ISBE 제 2 권 1232 쪽)
10. 여부스 - BDB 101  
 - 함의 후손(참조, 창 10:16)  
 - 여부스/살렘/예루살렘에 거주함(참조, 수 15:63; 삿 19:10)  
 - 겔 16:3,45 은 이들을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 사이의 혼혈로 봄
11. 히위 - BDB 295  
 - 함의 후손(참조, 창 10:17)  
 - 70 인역은 호리 족속으로 번역함(참조, 창 34:2; 36:20-30; 수 9:7)  
 - 히브리어의 “동굴”에서 유래했을 것이고, 동굴 거주자임  
 - 그들은 레바논의 고원지대에 살았다(참조, 수 11:3; 수 3:3).  
 삼하 24:7 에서 그들은 두로와 시돈 근방에 살았던 것으로 언급된다.

12: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것은 “보다”라는 일반적 의미를 가진 동사(BDB 906)가 특별한 의미(즉,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심, 참조, 12:7[2 회]; 17:1; 18:1; 26:2,24; 35:1,9; 48:3)로 사용된 경우이다. 1 절에서는 야웨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는 야웨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야웨께서는 종종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다.

**특별주제: 주의 천사**

하나님은 구약에서 자기 자신을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내신 것이 분명하다. 삼위일체에 관한 질문은 삼위일체의 어느 위격이 이 역할을 감당하시는가에 대한 것이다. 어느 때에도 성부(야웨)와 성령은 육체를 가지신 위격이 아니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내신 위격은 성육신 이전의 메시아였다는 제안이 가능성있게 보인다.

다음에 나오는 목록은 천사와의 만남에서 신의 현현을 구별하려고 노력할 때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나타내는 실례이다.

1. 천사로서의 주의 천사

- ㄱ. 창 24:7,40
- ㄴ. 출 23:20-23; 32:34
- ㄷ. 민 22:22
- ㄹ. 사 5:23
- ㅁ. 삼하 24:16
- ㅂ. 대상 21:15-30
- ㅅ. 슥 1:12-13

2. 신의 현현으로서의 주의 천사

- ㄱ. 창 16:7-13; 18:1-19:1; 22:11-15; 31:11,13; 48:15-16
- ㄴ. 출 3:2,4; 14:19(13:21)
- ㄷ. 사 2:15; 6:22-24; 13:3-23
- ㄹ. 호 12:3-4
- ㅁ. 슥 3:1-5

▣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문자적으로는 “씨,” 참조, 13:15; 15:18)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인데, 바울은 단수형인 “씨”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참조, 갈 3:16).

▣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제단들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현현을 기념하기 위한 방법이였다(즉, 8:20; 13:18; 22:9; 26:25; 33:20; 35:7; 출 17:15; 24:4; 수 8:30; 사 6:24; 21:4; 삼상 7:17; 14:35; 삼하 24:25). 제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개인이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방법이였다. 눈에 보이는 제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연기로 바뀌어져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12:8 “벤엘” 이것은 “하나님의 집”(BDB 110)을 의미한다. 28:19 에서 우리는 이 도시의 원래 이름이 루스였는데 야곱의 시대까지 그 이름으로 불린 것을 알게 된다. 후기에 속하는 이 이름과 6 절 후반부에서 암시하는 바는 이 기록이 후기에 속하는 것임을 나타내며 이것이 구전으로 어느 기간 동안 전해졌음을 뜻할 수 있다. 구약의 책이 정확히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형성이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창세기 제 1 권의 서론에서 가항 및 라항의 1 번 내용을 참고하라.



▣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더니” 우리가 이 절과 4:26의 내용을 출 6:7과 비교할 때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는 이 이름이 본래 갖고 있는 언약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이 구는 예배/의식의 배경을 나타낸다(참조, 4:26; 12:8; 13:4; 21:33; 26:25).

**특별주제: 야웨라는 “이름”**

야웨 자신을 나타내는 “이 이름”의 사용은 출 23:20-33과 평행을 이룬다. 그 본문에서는 이 이름이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라고 불리는 “천사”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대치는 “그의 영광”(예, 요 1:14; 17:22)이라는 표현에서도 보여진다. 이 모든 경우는 야웨의 직접적이고 신인동형적 임재하심을 부드럽게 나타내기 위한 시도이다(참조, 3:13-16; 6:3). 분명히 야웨께서 인간의 말로 말씀하셨지만, 야웨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계심을 그의 창조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다(참조, 왕상 8:27; 시 139:7-16; 렘 23:24; 행 7:49은 사 66:1을 인용함).

“이 이름”이 야웨의 신적 본질과 그의 인격적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예가 있다:

1. 신 12:5; 삼하 7:13; 왕상 9:3; 11:36
2. 신 28:58
3. 시 5:11; 7:17; 9:10; 33:21; 68:4; 91:14; 103:1; 105:3; 145:21
4. 사 48:9; 56:6
5. 겔 20:44; 36:21; 39:7
6. 암 2:7
7. 요 17:6,11,26

야웨의 이름을 “부르는”(즉, 예배하는) 개념은 이른 시기에 속하는 창세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1. 4:26, 셋의 가계
2. 12:8, 아브라함
3. 13:4, 아브라함
4. 16:13, 하갈
5. 21:33, 아브라함
6. 26:25, 이삭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1. 5:23, 당신의 이름으로 말하다
2. 9:16, 온 땅에 나의 이름을 나타내라(참조, 롬 9:17)
3. 20:7,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참조, 레 19:12; 신 5:11; 6:13; 10:20)
4. 20:24,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참조, 신 12:5; 26:2)
5. 23:20-21, 천사(“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6. 34:5-7, 모세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다(또는 “소리쳐 부르다”). 이것은 야웨의 성품을 묘사하는 여러 본문 가운데 하나이다(참조, 느 9:17; 시 103:8; 율 2:13).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은 친밀함을 나타낸다(참조, 출 33:12). 모세는 여호와와 이름을 알았고, 33:17에서 볼 때 여호와는 모세의 이름을 아셨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문맥(참조, 18 절)이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과 평행을 이루는(19 절) “자신의 선하심”을 보도록 허락하신다(19 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신의 “이름”을 파괴해야 하고(참조, 신 12:3)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특별한 장소(참조, 출 20:24; 신 12:5,11,21; 14:23,24; 16:2,6,11; 26:2)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한다(참조, 신 6:13; 10:20; 26:2).

야웨는 자신의 이름과 관련하여 우주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1. 창 12:3
2. 출 9:16
3. 출 19: 5-6
4. 신 28:10,58
5. 미 4:1-5

▣ “아이” 이 단어는 “돌 무더기”(BDB 743)를 뜻하였다. 이것은 도시의 이름으로서 벨엘 가까이 있는 파괴된 도시를 가리킬 것이다.

12:9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천막의 말뚝”을 뽑다”(BDB 652, KB 704, 칼미완료형)라는 의미이다. 이 단어는 8 절에 있는 “그의 천막을 쳤다”라는 표현과 더불어 아브람이 유목민의 삶을 살았음을 반영한다.

▣ “남방” 이것은 “남쪽”(BDB 616, 참조, 13:1,3)을 뜻한다. 이 장소는 사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의 어떤 시기에 건조한 목초지가 되는 지역을 뜻한다.

#### 개역개정 12:10-16

<sup>10</sup>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sup>11</sup>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래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sup>12</sup>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sup>13</sup>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도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도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sup>14</sup>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sup>15</sup>바로와 그의 관료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이니라 <sup>16</sup>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12:10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비어 있는 위”(BDB 944)를 가리킨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그는 실패했다(참조, 12-13 절)! 성경은 사람의 나쁜 점까지 모두 드러낸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야웨께서는 특별하신 분이시다!

12:11 족장들의 부인은 아름다웠지만(참조, 12:11; 24:16; 26:7)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다. 야웨께서는 그들이 자손을 낳 수 있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임재하심과 목적을 나타내셨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생식이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였다.

12:12 “애굽 사람이 ... 나는 죽이고” 하나님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아브람은 여기서 자기 아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려 들고 있다. 20 장에서 그는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여 행하였으며, 26 장에서는 그의 아들이 똑같은 일을 행하였다.

**특별주제: 메시아의 계보를 좌절시키려는 사탄의 시도**

- 가. 가인의 반역, 창 4 장
- 나. 인간과 천사의 계보를 섞음, 창 6 장
- 다. 바벨탑을 통한 반역, 창 11 장
- 라. 아브람이 사래를 바로에게 줌, 창 12 장
- 마. 하갈(사라의 여종)이 이스마엘을 낳음, 창 16 장
- 바. 아브람이 사래를 아비멜렉에게 줌, 창 20 장
- 사. 이삭의 희생, 창 22 장
- 아. 에서와 야곱의 적대감, 창 25 장, 32 장
- 자. 이삭이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줌, 창 26 장
- 차. 라반의 책략과 적대적 행위, 창 29-31 장
- 카. 야곱이 세겔과 동화됨, 창 34 장
- 타. 야곱의 자녀들 안에 있는 적대감, 창 37 장
- 파. 신실치 못하게 다말과 가진 유다의 외도, 창 38 장

12:13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 내용은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인다. 하지만 (1) 그들은 이복 형제와 누이(즉, 아버지가 같음, 참조, 20:12)였고 (2) 누지 서판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가족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결혼은 후리 족속의 상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진 일이었음을 알 수 있고 (3) 이집트 및 아가서 4:9,10,12; 5:1,2 에서도 단순히 부인을 “누이”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일이었다.

12:15 “바로” 이 호칭(BDB 829)은 이집트의 제 18 왕조 이후부터 왕에게 사용한 호칭이었다. 이 이집트 단어의 어원은 “큰 집”을 가리킨다.

12:16 “얻었더라” 아브람의 모든 부가 바로에게서 온 것은 아니었다(참조, 12:5b).

▣ 양과 소 및 나귀는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기르던 가축이었고 또 재산을 이루었다(즉, 아브람은 사래에 대한 결혼 지참금을 받았다). 하지만 낙타는 후기에 이르러서야 광범위하게 가축화 되었다(즉, 주전 두 번째 천년의 말엽). 메소포타미아에서 주전 두 번째 천년의 초기에 낙타가 가축화 되었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가 일부 있는데 그것은 상류 사회에서만 일어난 일이었다(R. K. 해리슨의 *구약 개론* 311 쪽을 보라).

이 절에서 종과 노예들이 재산 목록으로서 언급되고 있음을 또한 주목하라(참조, 20:14; 26:14; 30:43; 32:5)!

**개역개정 12:17-20**

<sup>17</sup>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sup>18</sup>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sup>19</sup>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sup>20</sup>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2:17 “큰 재앙을” 이 재앙들은 분명히 사례를 보호하기 위한 일이었다. 창 20:18 에서 이 재앙은 아비멜렉의 부인들의 “태를 닫은” 일을 가리킨다. “치다”라는 동사(BDB 619, KB 668, *피엘 미완료형*)는 “역병”(BDB 619)과 같은 어근을 가진 말로서, 이러한 구문은 재앙의 심각성을 문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사례의 일로” 이것은 “~의 말로써”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다. 라쉬는 그녀가 자신을 보호해주도록 천사에게 명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바로에게 상황을 알렸음이 분명하다(참조, 18 절).

12:18 이 재앙은 분명히 사례를 신체적/성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제는 바로가 어떻게 재앙의 원인을 알았는가 하는 점이다.

1. 야웨께서 그에게 계시를 통해 알려주심으로써
2. 이집트의 현인들을 통해서(참조, 출 7:11,22; 8:7)?
3. 사례 자신을 통해서

이 사건은 단 4 장 혹은 신약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경우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 자신의 목적을 계시하신 또 하나의 경우일 것이다.

12:19-20 아브람이 이집트를 떠난 것은 요청을 받아서가 아니라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1. “데리고” - BDB 542, KB 534, *칼 명령*
2. “가라” - BDB 229, KB 246, *칼 명령*
3. “바로가 그의 사람들에게 명하여” - BDB 845, KB 1010, *피엘 명령*
4. “그를 호위하여 보내라” - BDB 1018, KB 1511, *피엘 명령*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이 언약은 왜 그렇게도 중요한가? 이 언약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가? 이 용어들을 정의하여 보라.
2. 아브람은 자기 자신의 역할을 즉시 감당했는가?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3. 아브람이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는가?
4. 이 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람을 시험하셨는가? 그는 그 시험을 통과했는가?

# 창세기 13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 MT를 따름)
아브람과 롯	아브람이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다	아브라함과 롯	아브람과 롯이 갈라서다	아브람과 롯이 갈라서다
13:1	13:1-4		13:1-4	13:1-4
13:2-7		13:2-7		
	13:5-13		13:5-7	13:5-9
13:8-13		13:8-13	13:8-9	
			13:10-13	13:10-13
			아브람이 헤브론으로 이주하다	
13:14-18	13:14-18	13:14-18	13:14-18	13:14-17
				13:18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3:1

<sup>1</sup>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13:1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네게브로 돌아왔다. 네게브는 가나안의 남쪽에 있는 건조한 지역을 가리킨다. 그는 이전에 이곳으로 이주해 왔었고(참조, 12:9), 앞으로 20:1 에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곳은 이삭이 살았던 장소이기도 하다(참조, 24:62).

**개역개정 13:2-7**

<sup>2</sup>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sup>3</sup>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벨엘에 이르며 벨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sup>4</sup>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sup>5</sup>아브람의 일행 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sup>6</sup>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sup>7</sup>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13:2 아브라함은 부유한 사람이었다. 창세기는 그의 부가 두 가지에 기인한 것임을 말한다.

1. 그가 우르에서 가지고 온 소유, 12:5
2. 그가 이집트에서 형성한 것, 12:16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재산을 축적했다.

1. 귀금속
2. 보석
3. 옷
4. 음식
5. 가축

13:4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구는 예배의 한 가지 특별한 형태를 암시하고 있는데 아마도 동물로써 희생제사를 드린 형태였을 것이다(참조, 출 20:24). 이 표현은 창 4:26 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12:8; 13:4; 21:33; 26:25 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12:8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구절과 평행을 이루는 대상 16:8; 시 105:1; 116:17; 사 12:4 을 고려하여 볼 때, 야웨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야웨를 “찬송하고” 야웨께 “감사드리”는 일과도 관련을 가진다.

“이름”(BDB 1027)은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임재하심을 나타낸다. 이 일의 중요성은 출 3:13-16 에 이르러서야 온전히 알려지게 되었다. 엘로힘이란 이름이 “창조주”를 나타내듯이, 야웨란 이름은 셋 및 셈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주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12:1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아브람은 가나안에서 그가 처음에 제단을 세웠던 장소로 돌아왔다(참조, 12:8).

13:6 가나안 남쪽에 있는 땅은 연중 강우량이 적어 풀이 무성하게 자라지 않았다. 따라서 한 떼의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을 필요로 했다. 4 월부터 9 월까지는 풀이 자랄 수 있도록 습기가 충분했지만 10 월부터 3 월까지는 가축의 떼를 더 높은 지역에 있는 풀밭으로 이동시켜야만 했다.

13:7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가나안 사람”이라는 용어는 “아모리 사람들”이라는 표현처럼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사람들 모두 가리키는 집합명사이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이름을 다음의 내용에 기초하여 서로 구분짓는다: (1) 브리스 사람은 “마을 사람”을 의미할 수 있는 반면에 (2) 가나안 사람은 성벽이 있는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 절은 팔레스타인의 거주민으로서 이 두 그룹의 사람들만 언급한 유일한 경우이다. 12:6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가나안 사람”에 대하여는 12:6 의 설명을 보라.

개역개정 13:8-13

<sup>8</sup>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sup>9</sup>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sup>10</sup>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sup>11</sup>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sup>12</sup>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sup>13</sup>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13:8-9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대화에 일련의 문법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1. 서로 다투게(BDB 937) 하지 말자 - BDB 224, KB 243, *칼지시형*, 8 절
2. 나를 떠나가라 - BDB 825, KB 962, *니팔 명령*, 9 절
3. 나는 우하고 - BDB 412, KB 415, *히필 청유형*
4. 나는 좌하리라 (BDB 970, KB 1332, *히필 청유형*)

가나안은 야웨께서 아브람에게 특별히 선물로 주신 땅인데, 아브람(더 나이가 많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 점은 놀랍다. 야웨께서는 롯이 탐욕을 인해 요단 동편을 택하게 하셨다.

롯이 떠나가고 아브람은 가나안에 머문 때에야 비로소 야웨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13:8 “한 친족이라” 여기서 이 단어(BDB 26)는 친척의 의미로 사용되었다(참조, 14:14,16; 29:12,15).

13:10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롯은 개인적인 이익에 근거하여 선택했다. 그는 자기가 선택하려는 땅의 사악함(참조, 13 절)에 대해 개의치 않았다.

▣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것은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 편집자가 언급하고 있는 절의 하나이다. 정확히 누가 또 언제 이 기록을 처음으로 기록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은 모세의 서기관 및 그의 전기를 기록한 자(즉,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였고[신 34 장] 또 그에 대하여 민 12:3 에서와 같은 언급을 한 사람)로 섬겼던 제사장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것이다.

▣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쉬(중세의 랍비)는 그 땅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가 있었고 이집트에 있었던 채소가 있었다고 말한다. 에덴이 심판의 장소였듯이 요단 계곡도 그러한 점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 “소알까지” 소알(BDB 858)은 사해 남단에 위치한 한 성읍으로서 요단 계곡에 있었다(참조, 10 절). 이 지명은 창 19:20-22 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작은”(BDB 859 I)과 관련된 언어유희로 제시된다. 이곳에 오아시스가 있었다(참조,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 4.8.4).

이 지역에는 여러 도시가 있었다: (1) 소돔 (2) 고모라 (3) 아드마 (4) 스보임 (5) 소알/벨라. 이 도시들을 집합적으로 일컬어 “평지에 있는 성읍들”로 표현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들 가운데 소알을 제외한 모든 성읍을 멸망시키셨다(참조, 신 29:23).



13:13 소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부정적 특성을 가진 자들로 묘사되었다.

1. 악했다 - BDB 948, 참조, 2:9; 3:22; 6:5; 8:21; 37:33; 38:7
2. 죄인이었다 - BDB 308, 참조, 민 16:38; 32:14
3. 하나님께 잘못하였다
4. 매우 사악했다

한편 이 본문은 그 내용을 정확히 꼬집어 말하지 않고 있다. 창 19 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그들의 악함을 보여주는 창문이다.

민수기 1 장과 2 장은 같은 내용을 말하는 두 개의 표현으로서 종종 “악한 죄인들”이라는 형태로 합성되어 번역되고 있다.

#### 개역개정 13:14-18

<sup>14</sup>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sup>15</sup>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sup>16</sup>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sup>17</sup>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sup>18</sup>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3:14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아마도 이 사건은 12:1 의 조건을 충족시켰을 것이다. 아브람은 계시에 따라서 행동했고(“너는 눈을 들어,” BDB 669, KB 724, 칼 명령; “바라보라,” BDB 906, KB 1157, 칼 명령; 롯은 개인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했다(참조, 10 절).

13:15 “보이는 땅을 . . . 영원히 이르리라” 이 진술을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1)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인간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조건부의 성격을 가진다(즉, 신 11:31-32; 28:36,63-68; 30:19-20)는 것과 (2) “영원히”(ולד)라는 히브리 단어는 반드시 문맥에 의해 그 의미가 결정되어야 한다(NIDOTTE 제 4 권 1252-1253 쪽을 보라)는 점이다. 이 단어가 오늘날 이 영어 단어가 나타내는 “영원히”(forever)라는 의미를 항상 갖는 것은 아니다. 다음 특별주제인 언약에 이어 나오는 특별주제: 영원히를 보라.

이것은 오늘날 유대인이 성경에 근거하여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을 다룸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나는 다음의 두 책에서 감명을 많이 받았다

1. 윌리엄 헨드릭슨의 *예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2. 콜린 채프먼의 *누구의 약속의 땅인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계속되는 위기*

#### 특별주제: 언약

언약을 뜻하는 구약 용어인 *ברית*(BDB 136)은 정의하기에 쉬운 용어가 아니다. 히브리어에는 이것에 해당하는 동사가 없다. 이 단어를 어원적으로 정의하려는 모든 시도는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이 개념의 중요성은 학자들로 하여금 이 단어가 갖는 기능적인 의미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 단어의 용법을 연구하도록 이끌었다.

언약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이다. 성경의 계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언약, 계약, 혹은 동의함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은 언약의 개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떤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성과 행동에 기초하고 있다:

1. 창조 자체(참조, 창세기 1-2 장)
2. 아브라함을 부르심(참조, 창세기 12 장)

3. 아브라함과의 언약(참조, 창세기 15 장)
  4. 노아를 보전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심(참조, 창세기 6-9 장)
- 그러나 언약은 그 특성상 응답을 요구한다
1. 아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에덴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야 했다
  2.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의 가족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야 했고 장차 후손을 갖게 될 것을 믿어야 했다
  3. 노아는 믿음으로 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커다란 배를 건축하여야 했고 또 동물들을 모아 들여야 했다
  4.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었고, 축복 및 저주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 종교 및 사회 생활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을 받았다(참조, 신명기 27-28 장)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관련된 이같은 긴장은 “새 언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긴장 관계는 겔 18 장과 겔 36:27-37 을 비교하여 볼 때 분명히 드러난다.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동에 기초하는가 혹은 요구된 인간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는가? 이 질문은 옛 언약과 새 언약과 관련하여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다. 두 언약은 같은 목적을 갖는다: (1) 창 3 장에서 상실한 교제의 회복 (2)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의로운 백성을 형성하는 일.

렘 31:31-34 에 있는 새 언약은 인간의 행위가 언약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 되는 것을 배제시킴으로써 그 긴장을 해결한다. 하나님의 법이 외적인 행위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내적인 갈망에 대한 것으로 바뀌었다. 경건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는 그 목적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이를 이루는 방법은 바뀌었다. 범죄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에 부적절함을 입증했다. 언약에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됨과 약함에 문제가 있었다(참조, 로마서 7 장; 갈라디아서 3 장).

구약의 무조건적 언약과 조건적 언약 사이에 있는 긴장이 신약에서도 여전히 계속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역 안에서 구원을 온전히 거저 주시지만, 구원을 위해 회개와 믿음(최초의 또한 계속적인)을 요구하신다. 이것은 법적 선언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의 부르심이다. 이것은 받아 주심에 대한 직설적 진술이며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이다! 신자들은 자신의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다(참조, 엡 2:8-10). 경건한 삶은 받은 바 구원의 증거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긴장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다.

### 특별주제: 영원히(올람)

히브리 용어인 올람(BDB 761, KB 798)의 어원은 분명치 않다(NIDOTTE 제 3 권 345 쪽). 이것은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보통 문맥에 의해 의미가 결정된다). 다음은 단지 몇 가지 예이다.

1. 고대의 것
  - ㄱ. 사람, 창 6:4; 삼상 27:8; 렘 5:15; 28:8
  - ㄴ. 장소, 사 58:12; 61:4
  - ㄷ. 하나님, 시 93:2; 잠 8:23; 사 63:16
  - ㄹ. 물건, 창 49:26; 욥 22:15; 시 24:7,9; 사 46:9
  - ㅁ. 시간, 신 32:7; 사 51:9; 63:9,11
2. 미래의 시간
  - ㄱ. 사람의 생명, 출 21:6; 신 15:17; 삼상 1:22; 27:12
  - ㄴ. 왕에 대한 과장, 왕상 1:31; 시 61:7; 느 2:3

- ㄷ. 계속 존재하는 것
  - (1) 지구, 시 78:69; 104:5; 전 1:4
  - (2) 하늘, 시 148:6
- ㄹ. 하나님께서 존재하심
  - (1) 창 21:33
  - (2) 출 15:18
  - (3) 신 32:40
  - (4) 시 93:2
  - (5) 사 40:28
  - (6) 렘 10:10
  - (7) 단 12:7
- ㅁ. 언약
  - (1) 창 9:12,16; 17:7,13,19
  - (2) 출 31:16
  - (3) 레 24:8
  - (4) 민 18:19
  - (5) 삼하 23:5
  - (6) 시 105:10
  - (7) 사 24:5; 55:3; 61:8
  - (8) 렘 32:40; 50:5
- ㅂ. 다윗과 하신 특별한 약속
  - (1) 삼하 7:13,16,25,29; 22:51; 23:5
  - (2) 왕상 2:33,45; 9:5
  - (3) 대하 13:5
  - (4) 시 18:50; 89:4,28,36,37
  - (5) 사 9:7; 16:5; 37:35; 55:3
- ㅅ. 하나님의 메시아
  - (1) 시 45:2; 72:17; 89:35-36; 110:4
  - (2) 사 9:6
- ㅇ. 하나님의 법
  - (1) 출 29:28; 30:21
  - (2) 레 6:18,22; 7:34; 10:15; 24:9
  - (3) 민 18:8,11,19
  - (4) 시 119:89,160
  - (5) 사 59:21
- ㅈ. 하나님의 약속
  - (1) 삼하 7:13,16,25; 22:51
  - (2) 왕상 9:5
  - (3) 시 18:50
  - (4) 사 40:8

- 츠. 아브라함의 후손과 약속의 땅
  - (1) 창 13:15; 17:18; 48:4
  - (2) 출 32:13
  - (3) 대상 16:17
- ㅋ. 언약에 따른 절기
  - (1) 출 12:14,17,24
  - (2) 레 23:14,21,41
  - (3) 민 10:8
- ㅌ. 영원히 계속되는 영원
  - (1) 왕상 8:13
  - (2) 시 61:7-8; 77:8; 90:2; 103:17; 145:13
  - (3) 사 26:4; 45:17
  - (4) 단 9:24
- ㅍ. 시편에서 믿는 자들이 영원히 할 것으로 말하는 내용
  - (1) 감사하라, 시 30:12; 79:13
  - (2)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 시 41:12; 61:4,7
  - (3)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라, 시 52:8
  - (4)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 52:9
  - (5) 찬양하라, 시 61:7; 89:1
  - (6)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라, 시 75:9
  - (7)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 시 86:12; 145:2
  - (8)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시 145:1
- 3. 시간 이전과 이후(“영원부터 영원까지”)에 있는 것
  - ㄱ. 시 41:13(하나님을 송축함)
  - ㄴ. 시 90:2(하나님 자신)
  - ㄷ. 시 103:17(여호와의 인자하심)

문맥이 이 용어의 의미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영원한 언약과 약속은 조건적인 내용이다(즉, 램 7 장). 이렇듯 매우 유동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인데 시간에 대해 당신이 갖고 있는 현대적인 관점이나 당신의 신약적 조직 신학을 사용하여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를 다루려는 태도에 주의하라. 신약은 구약의 약속을 보편화한다.

**13:16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여기에서 아들, 가족, 부족, 큰 민족(야웨께서는 이스마엘을 축복하실 것도 약속하고 계신다. 참조, 16:10; 17:20)을 나타내는 은유적 약속이 또 다시 사용되었다(참조, 15:5; 22:17; 26:4; 28:14; 출 32:13; 민 23:10). 이 약속은 뜻을 통하여 이루어질 내용이 아니었다; 그는 가버렸다! 아브람은 이 약속을 믿었다(참조, 창 15:6). 바울은 롬 4:3 과 갈 3:6 에서 그가 가르치는 바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의롭게 됨의 근거를 이 본문에 두고 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야웨로부터 많은 약속을 받았다.

1. 땅 - 12:1-2; 13:14-15; 15:7,18; 17:8
2. 씨/자손 - 12:2; 13:16; 15:5,18; 17:2,4-7,16,19; 22:17
3. 언약 - 17:7,19,21
4.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됨 - 12:3; 18:18; 22:18; 26:4; 28:14

한편 이 약속들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가 순종하고 행하여야 할 행동에 대한 강조가 나타난다(12:1; 13:17; 17:1,23; 18:1; 22:16-18; 26:4-5. 성경의 이미지 사전 3 쪽을 보라).

아브람이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이 약속의 내용에 대해 반드시 적절하게 응답하여야만 했다!

**13:17** 야웨께서는 아브람에게 그의 새 선물을 확인해보라고 명령하신다.

1. “일어나” 혹은 “가라” - BDB 877, KB 1086, **칼 명령**(관용적 표현임, 아래의 설명을 보라)
2. “다녀 보라” - BDB 229, KB 246, **히트파엘 명령**(아마도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임)

UBS 에서 출판한 **창세기 핸드북**은 “일어나”라는 이 단어가 다른 명령과 함께 사용되는 것에 대해 좋은 설명을 하고 있다.

“아브람이 걸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말씀하신 일어나라는 단어는 그가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었다. 히브리어에서 이 용어가 다른 명령어와 더불어 사용될 때 이것은 수사적인 역할을 한다. 즉 받은 바 명령이 중요함을 나타내며 또한 그가 명령을 받은 일을 즉시 수행하여야 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용법의 예를 창세기 19:15; 21:18; 28:2”에서 찾아볼 수 있다” (304 쪽).

▣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15 절의 설명을 보라.

**13:18 “마프레 상수리”** 신성한 나무(들)(BDB 18)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서 자주 나타나는 주제이다(맛소라 본문에서는 **복수형**으로 70 인역과 페쉬타역에서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다).

1. 모레에 있는 큰 나무 - 12:6; 신 11:30
2. 마프레에 있는 큰 나무 - 13:18; 14:13; 18:1(참조,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1.10.4)
3. 모레에 있는 큰 나무 - 35:4; 삿 9:6
4. 모레에 있는 큰 나무 - 수 19:33; 삿 4:11
5. 모레에 있는 큰 나무 - 삿 6:11,19
6. 모레에 있는 큰 나무 - 삼상 10:3(제단에 대한 언급이 없음)
7. BDB 18 은 창 18:1,4,8 에서 BDB 781 과 동등한 내용이다. BDB 781 은 창세기 2-3 장에 나오는 특별한 나무(들)를 일컫는 이름이었다(참조, 2:9,16,17; 3:1,2,3,6,8,11,12,17,22, 24)

▣ “**헤브론**” 그 당시에 이 도시는 기랏아르바로 불렸다(참조, 23:2; 35:27). 이 점은 이 땅에 이스라엘이 침략하여 이 지명이 바뀐 후기에 이 사건이 기록된 것임을 보여준다.

▣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새 제단(이곳에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예배 장소로서 이전에 종종 사용하였음)은 아브람이 가나안을 방랑하는 시기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주제이다(참조, 12:7; 13:18; 22:9). 이 제단들은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배는 야웨께 드리는 예배의 특징을 이루었다.

- |                          |                     |
|--------------------------|---------------------|
| 1. 아벨 - 4:4              | 4. 이삭 - 26:25       |
| 2. 노아 - 8:20             | 5. 야곱 - 33:20; 35:7 |
| 3. 아브람 - 13:18; 15:12-21 | 6. 율 - 율 1:5        |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일은 출애굽기에서도(참조, 출 12 장) 계속되며 모세의 언약에서 발전되었다(레위기 1-7 장, 16 장).

# 창세기 14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왕들의 전쟁 14:1-12	롯의 사로잡힘과 구출 14:1-4 14:5-12	동방의 네 왕의 연맹 14:1-12	아브람이 롯을 구출하다 14:1-7 14:8-12	네 왕의 전쟁 14:1-12
14:13-16	14:13-16	14:13-16	14:13-16	14:13-16
아브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14:17-24	14:17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14:18-20	14:17-24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하다 14:17-20	멜기세덱 14:17-19 (19)
(19-20)	(19-20)	(19-20)		14:20
	14:21-24		14:21	14:21-24
			14:22-24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개역개정 14:1-12

<sup>1</sup>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sup>2</sup>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sup>3</sup>이들이 다 싯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sup>4</sup>이들이 십이 년 동안  
 그들라오멜을 섬기다가 제십삼년에 배반한지라 <sup>5</sup>제십사년에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sup>6</sup>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sup>7</sup>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sup>8</sup>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싯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sup>9</sup>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sup>10</sup>싯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sup>11</sup>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sup>12</sup>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14:1-12 여기에 기록된 사건은 그 왕들의 이름과 더불어 당시의 역사에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다. 이들의 이름에 대하여 커다란 이견이 있었다. 췌기형 문자로 되어 있는 본문으로서 대영박물관이 구입한 “그들라오멜 본문”으로 불리는 것에 네 왕 가운데 세 사람의 이름이 비슷하게 나와 있어 창세기 14 장과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 역시 확실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1. 요단 강 저편, 네게브, 시나이 지역에 있던 잘 발달된 형태의 문명(청동기 중엽 I 기)이 갑자기 무너진 것을 나타내는 고고학적 증거가 있다” (ZPEB 제 1 권 785 쪽). 이 전쟁은 그러한 상황에 적합하게 들어 맞는다.
2. 이 시기(즉, 주전의 두 번째 천년기)에는 군대가 먼 거리를 이동하여 약탈을 했고 여러 지역을 지배했다.

이 사건을 전후하여 당시의 혼란스런 모습을 보여주는 실례로서 “엘라살의 아리옥 왕”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이름은 다음의 내용을 가리킨다.

1. 바벨론 혹은 앗시리아의 중부에 있던 랄사라는 도시의 왕인 에리-아쿠(아카디아 사람)
2. 알메니아의 총독(엘라살은 알메니아를 뜻하는 알메니아어였다)
3. 갑바도기아(사해 사본의 창세기 외경에서)
4. 칼케미스와 하란 사이에 있던 도시(마리 본문에서)

혼동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이 이름들은 남겨진 기록의 어떤 자료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름의 철자가 언어에 따라서 바뀌었다. 우리는 그 당시의 시대와 지역에 대한 더욱 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발굴되기까지 판단을 멈추고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왕들이 아브람이 살았던 시기의 사람들임이 분명하다(주전 19 세기나 18 세기). 또한 나는 이 왕들의 이름이 그 지역(그들과 관련이 있는 지역, 데렉 키드너, 창세기 30 쪽)과 관련이 있음을 간단히 밝히고자 한다.

1. 아브라벨 - 셈 사람이었을 것임
2. 아리옥 - 후르 사람이었을 것임

3. 그돌라오멜 - 엘람 사람이었을 것임
4. 디달 - 히타이트 사람이었을 것임

14:2 언급된 이 도시들(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소알)은 오늘날 사해의 남단에 위치한 지역인 아라바 남쪽에 위치한 성읍이었다.

▣ “베라... 비르사” 유대인의 연구 성경은 이 두 이름이 “악”(BDB 948)과 “사악함”(BDB 957, 또한 데렉 키드너의 *창세기* 130 쪽을 보라)을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BDB는 이러한 설명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설명은 이 기록이 역사에 대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일 따름이다. 이 왕들의 이름은 역사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14:3 “깃딤 골짜기” 이 지명은 이 장의 3 절과 8 절에서만 나온다. 고대 역본들에서는 가까이 있는 문맥(10 절)에서 이것이 요단 계곡의 단층애 지역에 속한다고 번역했다. 이 단층애 지역에는 표면에 화석화된 석유 산물이 드러나 있다. 이것은 아마도 오늘날 사해의 남쪽 지역이 텅고 있는 지역일 것이다.

14:4 이 절은 “평지에 있는 도시들”이 메소포타미아의 지배자들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BDB 597, KB 632, *칼 완료형*)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에 대응하여 그돌라오멜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있는 여러 왕들을 자기에게로 소집하여 보복을 하였다.

14:5-7 데렉 키드너(*창세기*, *턴델 구약 주석*, 131 쪽)는 5-7 절 또는 1-11 절을 “평지의 왕들” 및 그들과 연맹을 맺은 자들이 패배한 것을 말하는 역사적 자료(왕이 행한 전투에 대한 공식적 기록)로 본다. 나는 그의 의견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이 부분은 주위의 장에 있는 내용과 “다르다.”

14:5 “르바 족속을... 수스 족속을... 엠 족속을”

**특별주제: 키 큰/강한 전사들이나 종족을 일컫기 위해 사용한 용어들**

몸이 크고/키 크고/강한 이들 민족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진다:

1. *네페림* (BDB 658) - 창 6:4; 민 13:33
2. *르파임* (BDB 952 혹은 BDB 952 II) - 창 14:5; 신 2:11,20; 3:11,13; 수 12:4; 13:12; 삼하 21:16,20,22; 대상 20:4,6,8
3. *삼숨뎨* (BDB 273), *숨뎨* (BDB 265) - 창 14:5; 신 2:20
4. *에뎨* (BDB 34) - 창 14:5; 신 2:10-11
5. *아나킴* (*아낙의 자손*, BDB 778 I) - 민 13:33; 신 1:28; 2:10-11,21; 9:2; 수 11:21-22; 14:12,15

▣ “아스드룻” 이 단어(BDB 800)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여신 가운데 하나로서 *바알*과 관련이 있다.



## 특별주제: 고대 근동에서의 다산 숭배

### I. 섬기는 까닭

- 가. 고대인들이 사냥을 하고 양식을 수집하는 삶에서 유목생활을 거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곡식과 짐승의 떼에 대한 필요를 가지게 되었다.
- 나. 고대 근동의 주민들은 자연의 힘 앞에 무력했다.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들은 계절의 규칙적인 질서에 의존하게 되었다.
- 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의 힘은 신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탄원하고 또 이를 조종하려 했다.

### II. 어디서 왜

- 가. 다산의 신을 숭배하는 일은 다음의 장소에서 발전되었다
  - 1. 이집트(나일 강)
  - 2. 메소포타미아(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 3. 가나안(요단 강)
- 나. 고대 근동의 다산 숭배 예식에는 공통적인 부분이 나타난다.
- 다. 계절과 기후의 조건이 예측하지 못하게 변화하는 현상은 신화의 발전을 가져왔다. 신화는 영적 세계와 지상에서의 삶을 배경으로 인간과 신의 조화를 다룬다.

### III. 누가 어떻게

- 가. 누가(남신들과 여신들)
  - 1. 이집트
    - ㄱ. 이시스(여신)
    - ㄴ. 오시리스(남신)
  - 2. 메소포타미아
    - ㄱ. 이스탈/이난나(여신)
    - ㄴ. 탐무스/두무시(남신)
  - 3. 가나안
    - ㄱ. 바알(남신)
    - ㄴ. 아세라, 아스탈테, 아낫(여신)
- 나. 각 쌍의 신들이 비슷한 방법으로 신화화되었다
  - 1. 하나가 죽는다
  - 2. 다른 하나가 회복된다
  - 3. 신들이 죽고 또 일어남은 해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흉내내는 형태였다
- 다. 곡식과 가축과 사람의 번성을 확실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인간의 성적 결합(즉, 신들의 결혼)을 여기는 마술적 모방이 행해졌다.

### IV. 이스라엘 사람들

- 가. 다산 숭배적 종교(특히 가나안의)를 피하라고 야웨의 백성이 경고를 받았다(즉 레위기와 신명기).
- 나. 이러한 종교는 인간의 존재를 대신하며 성적 행위에 강조점을 두었기에 매우 널리 대중화 되었다.
- 다. 우상숭배는 야웨께 대한 인격적인 믿음과 신뢰 대신에 어떤 종교적 혹은 의식적 방법으로 생명의 축복을 구하려는 시도이다

V. 추천 도서

- 가. W. F. 올브라이트, *고고학과 이스라엘의 종교*
- 나. J. H. 브레스넛, *고대 이집트에서의 종교와 사상의 발전*
- 다. 제임스 G. 프렛저
  - 1. *아도니스, 앳티스, 오시리스*
  - 2. *구약의 전승*
  - 3. *자연 숭배*
- 라. C. H. 고든, *성경 앞에서*
- 마. S. N. 크래머, *고대 세계의 신화학(Mythologies)*

14:6 “호리 족속을” 12:6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엘바란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적 이름(즉, 엘)이 전접된 경우가 아니다. 이것은 “테레빈”(참조, 70 인역, 즉, 큰 나무)을 뜻한다.

14:7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엔”(BDB 745)이라는 용어는 “샘”을 뜻하는 단어로서 구약에는 이 단어가 들어간 많은 지명이 나온다. “미스밧”(BDB 1048)은 “재판,” 정의,” “결정”을 의미하는 말로서 민수기 13 장에 있는 사건을 암시한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이 이름이 사용된 유일한 경우이다. 가데스라는 설명은 이 장소가 광야 방랑 시기 동안에 아주 잘 알려진 장소로서 시내 광야 북쪽에 위치한 오아시스를 가리킨다(참조, 민 13:26; 20 장). 가데스는 창 16:14; 20:1,14; 민 13:26; 20:1,14 에서도 언급되고 있으며 후기에는 “가데스 바네아”로 불렸다(참조, 민 32:8). 이 구절은 분명히 편집자나 서기관이 다음의 사항을 본문에 삽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1) 후기에 속하는 내용 혹은 (2) 당시 현존하는 본문이나 구전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취하여 넣음(참조, 2,8,17 절).

▣ “아말렉 족속의” 이 족속은 에서의 후손일 것이다(참조, 창 36:15-16).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이주할 때에 뒤쪽에 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하여 약탈하였기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악의 상징으로 여겼다(참조, 출 17:8-16; 신 25:17-19).

▣ “아모리 족속을” 12:6 의 특별주제를 보라.

▣ “하사손다말에 사는” 대하 20:2 에 의하면 이곳은 엔게디를 가리킨다. 이곳은 사해의 서쪽 지역에서 민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개역개정 14:13-16

<sup>13</sup>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sup>14</sup>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sup>15</sup>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원편 호바까지 쫓아가 <sup>16</sup>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14:13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히브리 사람”(BDB 720)이라는 단어는 다음의 배경에서 온 용어일 것이다

1. 에베르 - 셈(참조, 10:21)과 셀라(참조, 10:24)의 후손. 이 이름의 뜻은 “건너편”(참조, 70 인역) 혹은 “지역을 가로지르다”(BDB 719)를 뜻한다. 만일 이 용어가 어떤 민족을 가리키는 경우라면(참조, 39:14), 이것은 시대착오적 예로서 후기에 속하는 편집자나 서기관이 본문을 갱신하였음을 나타내는 예가 될 것이다.
2. 하비루 - 주전의 두 번째 천년에 이주한 셈족의 이름; 아카디아어로 히브리(ABD 제 3 권 6 쪽)를 가리키는 단어임; 이 이름 자체는 “망명자들”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외국인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키기 위해 종종 사용되었다. 14 장은 아브람의 생애에 일어난 독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1. “히브리 사람”(BDB 720 I)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2. 예루살렘 성과 관련이 있음(살렘)
3.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호칭을 사용함(참조, 14:18,19,20,22)

**14:14** 318 사람(이에 동맹군을 더하여)으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4 왕이 이끄는 연합군을 이긴 사실은 놀랍다(이것은 믿음으로 믿어야 할 기적이다). 이 승리는 야웨께서 자신의 임재와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셨음을 의미한다(17-24 절과 15:1 은 이 점을 분명히 밝힌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사건이 기록되었다! 아브람과 “멜기세덱”의 만남은 아브람에게 주신 언약 밖의 사람들도 야웨의 일하심을 인식했음을 나타낸다. 다른 사람들(즉, 읍, 엘리후)도 야웨를 알았으며 예배했지만 다른 이름으로 행했다(즉, 엘 엘론). 아브람을 부르심은 다른 민족을 배제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야웨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

▣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이것이 비록 군사적 문맥 가운데 나타나지만 이 용어(BDB 335)는 가정이나 목축의 필요에서 행한 훈련을 뜻한다.

군사적 측면은 “그가 거느리고 나가” 라는 동사(BDB 937, KB 1227, *히필 미완료형*)에 드러난다. 이 단어는 아카디아어의 어근에서 “군대를 소집하다”를 가리키며 이러한 해석은 사마리아 오경과 70 인역에 나타난다.

▣ **“단까지”** 이것은 후기의 지명이 사용된 경우이다. 단(도시)은 단 지파가 블레셋 지역에서 아주 북쪽으로 이주한 일을 가리키는데 이 내용은 수 19:40-48 과 사 18 장에 나온다. 후기의 편집자나 서기관이 이 본문을 갱신하여 놓았음이 분명하다!

**14:15** USB 의 창세기 핸드북은 이 부분에 대해 좋은 설명을 한다.

“14:15 은 아브람이 밤에 단을 습격하여 롯을 되찾아 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후에 호바에서 그렇게 한 것임을 보여준다” (319 쪽).

“호바”(BDB 295)라는 도시/지역은 다메섹 북쪽에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이곳에서만 언급되었다. 침략해 온 왕들 및 아브람과 그의 동맹자 모두 먼 거리를 이동했다.

**개역개정 14:17-24**

<sup>17</sup>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sup>18</sup>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sup>19</sup>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sup>20</sup>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sup>21</sup>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sup>22</sup>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sup>23</sup> 네 딸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들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sup>24</sup>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14:17 “소돔 왕이” “소돔 왕”이 살렘 왕과 정확히 어떤 관계에 있는가는 알 수 없다. (17 절은 21-24 절에서 전리품을 나누는 일로 이어진다). 그(즉, 세메벨, 2 절)의 이름이 언급되는 점이 나에게서 놀랍게 여겨진다. (1) 살렘 왕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 소돔 왕의 고문이었거나 (2) 이 기록은 두 개의 분리된 사건이 하나로 축약되어 나타난 문맥일 것임이 분명하다. 살렘은 침략을 받은 평지의 성이 아니었다(참조, 1-2 절).

23 절에 비추어 볼 때, 아브람은 자신의 승리가 전적으로 야웨께서 주신 일임을 알리고자 했고(참조, 20 절 하반기) 또 소돔 왕을 완전히 신뢰하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사웨”(BDB 1001)라는 용어는 “부드럽게 되다”(BDB 1001)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평지를 가리킨다.

“왕의 골짜기”는 삼하 18:18 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살렘 가까이 있는 계곡으로 말해진다. 이 지명의 위치는 불확실하다(비록 어떤 이들이 이 골짜기를 기드론 계곡으로 보고 있지만). 이 장에 나오는 인명과 지명에 대하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14:18 “멜기세덱” 이 이름은 “의의 왕” 혹은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BDB 575, 수 10:1 과 비슷하다; 세덱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별신인 세텍을 가리킬 것이다)라는 이름이다. 이 이름(멜기세덱)은 구약에서는 이곳과 시 110:4 에서만 나온다. 시 110 편은 사해사본과 관련이 있는 공동체로 하여금 두 메시아를 기대하게 했다.

1.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왕

2.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제사장

신약의 히브리서(즉, 7 장)는 이 가나안 제사장/왕을 뛰어난 한 제사장의 형태로 나타낸다.

1. 그의 족보가 알려지지 않았다

2. 아브람이 십일조를 그에게 드렸다(20 절, 그의 뛰어난함을 인정하는 표시임)

3. 그는 후에 예루살렘으로 알려진 도시의 지도자였다

4.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엘 엘론, 참조, 19,20 절)의 제사장이었다(당시에는 아버지가 가족의 제사장 역할을 행했기에[참조, 31:54; 욕 1 장], 그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 속한 일이 아니었다).

랍비들의 해석 방법을 따라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론/레위 보다 더 나은 제사장 제도의 형태/상징으로서 그를 말하고 있다.

▣ “살렘” 아웨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이 특별한 도시는 구약에서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1. 살렘 - 초기의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한 이름
2. 여부스 -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한 이름
3. 예루살렘 - 다윗 시대에 사용한 이름(시 76:2 에 나타난 평행법을 보라)

▣ “떡과 포도주를” 이것은 아브람 및 다른 모든 이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었다. 이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뜻하는 표현이었다(참조, 시 104:15). 이 물건은 종교적 중요성(즉, 언약에 따른 화목제물)을 가진 것이었지만 이 문맥에서 그러한 의미를 가졌는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이것은 주의 만찬에 대한 예표가 아니다. 영감받은 신약의 저자들이 드러내지 않은 모형을 주장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 “포도주”

**특별주제: 술과 술취함에 대한 성경적 입장**

I. 성경에서의 용어

가. 구약

1. *야인* - 이것은 포도주를 가리키는 일반적 용어(BDB 406)로서 141 번 사용되었다. 이 어근이 히브리어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의 어원은 불확실하다. 이것은 항상 과일(주로 포도)의 즙을 발효시킨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가 사용된 특별한 구절들은 창 9:21; 출 29:40; 민 15:5,10 이다.
2. *티로쉬* - 이것은 “새 포도주”(BDB 440)이다. 왜냐하면 근동의 날씨에서 발효는 즙을 짜낸 후 6 시간이 되었을 때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용어는 발효 중에 있는 포도주를 말한다. 다음의 특징적인 구절을 보라, 신 12:17; 18:4; 사 62:8-9; 호 4:11.
3. *아시스* - 이것은 분명히 알코올 음료를 말한다(“달콤한 술,” BDB 779, 예, 율 1:5; 사 49:26).
4. *세카* - 이것은 “독주”(BDB 1016)를 말한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어근은 “술 취한” 또는 “주정뱅이”를 가리킨다. 이것은 좀 더 취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것을 첨가한 것을 말했다. 이것은 *야인*과 평행을 이룬다(참조, 잠 20:1; 31:6; 사 28:7).

나. 신약

1. *오니스* - 이것은 *야인*과 같은 뜻의 헬라어이다.
2. *네오스 오이노스*(새 포도주) - *티로쉬*와 같은 뜻의 헬라어이다(참조, 막 2:22).
3. *글레우코스 비노스*(달콤한 포도주, *아시스*) - 발효의 이른 시기에 있는 포도주(참조, 행 2:13)이다.

II. 성경에서의 사용

가. 구약

1.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창 27:28; 시 104:14-15; 전 9:7; 호 2:8-9; 율 2:19,24; 암 9:13; 숙 10:7).
2. 포도주는 희생 제사의 일부분이었다(출 29:40; 레 23:13; 민 15:7,10; 28:14; 신 14:26; 사 9:13).
3. 포도주는 약으로 사용되었다(삼하 16:2; 잠 31:6-7).
4. 포도주는 실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노아 - 창 9:21; 롯 - 창 19:33,35; 삼손 - 사 16:19; 나발 - 삼상 25:36; 우리아 - 삼하 11:13; 암몬 - 삼하 13:28; 엘라-왕상 16:9; 벤하닷 - 왕상 20:12; 지도자들 - 암 6:6; 부녀자들 - 암 4장).

5. 포도주는 남용될 수 있다(잠 20:1; 23:29-35; 31:4-5; 사 5:11,22; 19:14; 28:7-8; 호 4:11).
6. 포도주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었다(임무를 수행중인 제사장, 레 10:9; 겔 44:21; 나실인, 민 6 장; 지도자들, 잠 31:4-5; 사 56:11-12; 호 7:5).
7. 포도주는 종말론적인 배경을 나타내었다(암 9:13; 율 3:18; 숙 9:17).

나. 신구약 중간시대

1. 포도주를 적당하게 사용하면 매우 유용하다(집회서 31:27-30).
2. 랍비들은 “포도주는 모든 약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서 포도주가 없을 때 약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BB 58b).

다. 신약

1. 예수님은 많은 양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요 2:1-11).
2.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셨다(마 11:18-19; 눅 7:33-34; 22:17 이하).
3. 오순절 때 베드로는 “새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 되었다(행 2:13).
4. 포도주는 약으로서 사용되었다(막 15:23; 눅 10:34; 딤펢전 5:23).
5. 지도자들이 술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완전히 금욕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딤펢전 3:3,8; 딤펢 1:7; 2:3; 뵤전 4:3).
6. 포도주는 종말론적 배경에서 사용되었다(마 22:1 이하; 계 19:9).
7. 술 취함을 깊이 뉘우쳐야 한다(마 24:49; 눅 12:45; 21:34; 고전 5:11-13; 6:10; 갈 5:21; 뵤전 4:3; 롬 13:13-14).

III. 신학적인 통찰

가. 변증법적 긴장

1.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2. 술 취함은 중요한 문제이다.
3. 어떤 문화에서는 신자는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자기들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마 15:1-20; 막 7:1-23; 고전 8-10장; 롬 14 장).

나. 주어진 한계를 넘는 경향성

1.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다.
2.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넘음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남용해왔다.

- 다. 남용의 여부는 물질 자체가 아니라 사용자인 우리에게 달려 있다. 물질의 창조에 있어서 악한 것은 없다(참조, 막 7:18-23; 롬 14:14,20; 고전 10:25-26; 딤펢전 4:4; 딤펢 1:15).

IV. 1 세기의 유대 문화와 발효

- 가. 발효는 포도가 으깨어진 후 6 시간 정도 후부터 바로 시작된다.

- 나. 표면에 거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발효의 표시) 그것이 포도주를 십일조로 드리기에 적당하다(마 아세로쓰 1:7)고 유대의 전통은 말했다. 그것은 “새 술” 또는 “달콤한 술”이라 불렀다.

- 다. 첫 번째 격렬한 발효는 1 주일 후에 이루어진다.

- 라. 두 번째 발효는 40 일이 걸린다. 이 상태를 “숙성된 포도주”라고 간주하며 제단에 제사드릴 수 있다고 보았다(엘후요쓰 6:1).

- 마. 포도주의 양금(오래된 포도주) 위에 있었던 포도주를 상품으로 여겼지만, 사용하기 전에 잘 걸러야 했다.

바. 보통 1 년 동안 발효된 포도주를 적당하게 숙성된 것으로 생각했다. 3 년은 포도주가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이었다. 이와 같은 포도주를 “오래된 포도주라 불렀고 반드시 물로 묽게 해야만 했다.

사. 최근 100 년 동안에서야 평균적 환경과 화학적 첨가제의 사용으로 발효기간이 길어졌다. 고대에는 발효의 자연적 진행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V. 맺음말

가. 당신의 경험, 신학, 성경적인 해석이 예수님, 1 세기의 유대인, 그리고 혹은 기독교 문화를 깎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들은 분명히 완전한 금욕주의자들은 아니었다.

나. 나는 알코올의 사회적인 사용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그리고 문화적/교과적 편견을 가지고 보다 나은 의를 주장해 왔다.

다. 로마서 14장과 고린도 전서 8-10 장 말씀은 나에게 통찰력을 주었고 안내서가 되었다. 이 안내서는 개인적인 자유나 판단하는 비평적 자세가 아니라, 모든 문화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동료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했다. 만약 오직 성경만이 믿음과 실행의 근원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라. 만약 우리가 완전한 금욕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 이를 강요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또한 포도주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대 문화(예 - 유럽, 이스라엘, 아르헨티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14:19-20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은 이 부분을 시로써 나타낸다.

14:19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동사(BDB 138, KB 159)는 창 12:3 에서 세 번이나 사용되었다. 이 단어의 기본적 의미는 “무릎을 꿇다” 혹은 “축복하다”이다.

▣ “지극히 높으신” 아브람, 멜기세덱, 읍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알았다.

1. 아브람 - 야웨
2. 멜기세덱 - 엘 엘론
3. 읍 - 엘로힘, 엘

12:1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천지의 주재이시요” 이 동사(BDB 888, KB 1111, 칼 분사, 참조, 22 절)는 “소유하다” 혹은 “만들다”를 뜻한다(아마도 자음이 비슷한 두 개의 단어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이 신학적 용어는 근동의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한 표현이었다(즉, 가나안과 우가릿의 시); 이것은 높은 신을 일컫는 방법이었다(시 115:15; 121:2; 124:8; 134:3; 146:6 에서는 이 용어를 야웨께 사용하고 있다).

14:20 “십분의 일을” 이것은 레위기에서 십일조로 발전된 내용이 수적 개념으로써 처음 언급된 본문이다(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아브람의 이 행위는 아브람이 거둔 승리를 인해 야웨께 감사드리는 방법이었고 또한 야웨께서 승리자이심을 그가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다!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줌을 통해서 아브람은 자신을 우르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을 그가 참으로 알고 있었으며 또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음을 아브람 자신이 알고 있었음을 나타낸다(참조, 22 절).

**특별주제: 모세의 율법에서 말하는 십일조**

가. 성경에서의 언급

제사장들과 중앙 성소를  
위해 드린 십일조

지역의 레위인을 위해 드린  
십일조

지역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드린 십일조

1. 레 27:30-32

2. 신 12:6-7,11,17

3. 신 14:22-26

4.

5. 민 18:21-24

신 12:12

신 14:27

신 14:28-29

신 26:12-15

민 18:25-29(레위인들은  
반드시 중앙성소를 위해  
자신의 십일조를 드려야했다)

6. 느 12:44

느 10:37,38

7. 말 3:8,10

나. 모세의 율법 이전에 나오는 십일조의 예

1. 창 14:20, 아브라함이 벨기세텍에게 드림(히 7:2-9)

2. 창 28:22, 야곱이 야웨께 드림

다. 이스라엘이 드린 십일조는 중앙의 성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매 삼년마다 전국에서 드린 십일조는 전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구약에서의 “십일조”가 중앙 성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믿고 있다. 나는 이것이 신약의 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믿는 이방인들이 헌금을 드림에 대한 유일한 경우이면서도 가장 좋은 예는 고린도후서 8-9 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이방인 교회들이 단회적으로 한 헌금에 대해 말한다.

**특별주제: 십일조**

이것은 신약에 유일하게 있는 십일조의 언급이다. 이 본문의 전체 배경이 자잘한 일까지 흠을 잡는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자기의 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신약이 십일조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일반적인 드림(어떤 것이든지)에 대한 신약의 지침은 십일조를 훨씬 능가하는 내용으로서 고린도후서 8 장과 9 장에 있다고 나는 믿는다! 만일 단지 구약의 지식만 가진 유대인이 10-30 퍼센트를 드리도록 명령을 받았다면(구약에는 십일조에 대한 둘 혹은 세 가지의 명령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드려야 하고 시간을 들여 십일조에 대하여 논할 필요조차도 없다!

신약의 신자들은 기독교가 새로운 율법의 준행을 요구하는 것(기독교 탈무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했음이 틀림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한 지침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신약에서 재확인하지 않은(참조, 행 15 장) 옛 언약의 규칙을 이끌어 내어 특별히 재앙이 일어난다거나 변영을 약속한다(참조, 말 3 장)고 주장(현대 설교자들에 의해)하는 내용으로 교리적인 기준으로 만드는 것은 신학적으로 위험하다!

다음은 프랭크 스태그가 이것에 대해 한 말이다, *신약 신학* 292-293 쪽.

“신약은 십일조를 드리는 것을 드림의 은혜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는다. 신약에서 십일조를 오직 세 번 언급한다: (1) 심지어 정원의 소출에 대한 십일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것에도 신경을 쓰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한다는 비평에서(마 23:23; 눅 11:42) (2) 자기는 매주 2 번씩 금식했고 자신의 모든 소유의 십일조를 드렸다고 ‘자신에게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교만을 폭로하는 본문에서(눅 18:12) (3) 멜기세덱의 높음을, 그러므로 레위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높음을 주장하는 본문에서(히 7:6-9)이다.

“예수께서 성전 체계의 일부분으로 십일조 하는 것을 인정하셨음이 분명하다. 예수께서는 또한 원리와 행함을 위한 성전과 회당의 일반적인 관습을 지지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 따르는 자들에게 성전 예식의 어떤 부분을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셨다는 지적은 없다. 십일조는 대부분 농산물이었다. 먼저 십일조를 한 사람이 성전에서 먹었고 나중에 제사장들이 먹었다. 구약에서 진술된 십일조는 동물 희생의 체계 위에 세워진 종교적 제도에서만 실행될 수 있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일조가 드림을 위한 적절하고 실행할 수 있는 내용임을 발견한다. 그것이 강제적이거나 율법적 체제로 만들어지지 않는 한 그것은 행복한 내용이 될 것이다. 어쨌든 신약에서 십일조 드리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근거있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이 지켜야 할 의식으로 인식된 것이지(마 23:23; 눅 11:42) 그리스도인에게 강요된 것은 아니다. 사실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구약의 관점에서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 오늘날의 십일조는 유대인의 희생체계에 속한 고대의 의식적 관습과 희미하게 닮았을 뿐이다.”

폴 스테그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십일조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행할 의무로써 다른 사람에게 이를 확일적으로 강요함에서가 아니라 각 신자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이는 신자가 구약의 관습을 좇아 행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십일조가 구약의 관습과 관계가 있다면 이는 기껏해야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성전과 제사장 조직 및 사회적 종교적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으로 부과되었던 것과 매우 희미한 유사성을 가질 뿐이다. 주후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유대교에서 의무조항으로 부과했던 십일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속박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십일조와 신약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오늘날 매우 빈번히 십일조를 특징짓는 강제성, 율법주의, 돈 벌이의 동기, 거래의 이유에서 행해지는 십일조는 신약이 지지하고 있지 않다. 자원함으로 드리는 체계에서는 많은 부분을 십일조를 드린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십일조는 반드시 은혜를 따라 구속받은 것이어야만 할 것이다. ‘십일조는 드리는 것이 효과있다’라는 주장은 단지 세상의 실용적인 생각이 주는 유혹을 받아들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과 관계없는 많은 것들이 “효과있다”라고 말해진다. 만일 신약 신학의 맥락에서 십일조를 드리고자 한다면, 십일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초한 것이어야만 할 것이다.”

14:21 20 절에 나오는 “십분의 일”이 21 절에 나오는 전리품의 일부분이었는데에 대해 논란이 있다. 문맥상 논란이 야기된다.

1. 17,21-24 절은 소돔 왕과 전리품에 대한 내용이며
2. 18-20 절은 살렘 왕에게 전리품의 십일조를 드린 내용이다.

14:22 아브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동일시하고 있는지를 보라.

1. 야웨
2. 엘 엘론

따라서 두 이름이 한 분 곧 같은 하나님을 일컫고 있다.

14:23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들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과장적인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물물교환시 사용한(참조, 창 23 장) 언어로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다(참조, NIDOTTE 제 3 권 120 쪽). 이 말은 “아무 것도 가지지 않겠다”는 것을 뜻하는 관용어였다. 의류는 전리품 가운데 하나였다. 아브람은 자신이 소돔 왕과 더불어 어떤 언약적 관계를 가지려 하지도 않았고 또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음을 매우 명백하게 나타내기를 원했다.

14:24 이 절은 아브람의 이웃들로서 전투에 참가하여 그를 도왔고 따라서 자신의 전리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다.

# 창세기 15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아브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아브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아브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아브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아브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15:1-11	15:1-11	15:1-6	15:1	15:1
(1)				(1)
			15:2-3	15:2-6
			15:4-5	
			15:6	
		15:7-11	15:7	15:7-11
			15:8	
			15:9-11	
15:12-16	15:12-16	15:12-16	15:12-16	15:12-16
15:17-21	15:17-21	15:17-21	15:17-21	15:17-21
(18)	(18)			(18)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배경

- 가. 창 15 장은 하나님께서 12 장에서부터 22 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일련의 시험과 조건 가운데 하나이다(참조, 12:1-3; 14:12-14; 15:1-18; 17:1-5; 22:16-18).  
창 15 장은 14 장에서 야웨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설명한다. 야웨는 아브람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셨다. 아브람의 소망은 야웨의 약속에 있다. 그것은 12 장에서 처음 언급되었는데 여러 번 반복되어 언급되었다(참조, 12 장, 15 장, 17 장, 18 장, 22 장)
- 나. 12 장과 17 장에서 주신 언약에는 조건이 들어있지만 15 장과 22 장에서는 외적으로 드러난 조건이 없다는 점이 흥미롭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심에 있어서 항상 자신의 변함없는 긍휼하심에 기초하여 사랑으로 시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회개, 믿음, 순종, 인내로써 응답하기만을 또한 기대하신다. 이러한 요구조건은 창세기에서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 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줄곧 대하심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나 행위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행하시고 계심이 거듭 거듭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 주제는 창세기에서 핵심적 주제를 이룬다. 한편 이 부르심은 근본적으로 아브람에게 믿음과 교제를 요구하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참조, 22:16,18)!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대하심에 있어서 사용하시는 전형으로 본다(참조, 롬 4 장과 갈 3 장). 이것은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맞아주시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고/행하시기 원하시는 바는 충격적으로 놀랍다!
- 라. 창세기의 앞쪽에 있는 이 장들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해하고 우리의 영적 필요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하다. 창 1-3 장은 인간의 처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무대를 제시한다.
1. 교제를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심을 받았다(1:26-27)
  2. 하나님의 주권에 거스려 반역했다(3:1-7)
  3. 인간의 반역에 따른 결과가 아주 멀리까지 미치게 되었다(3:8-20)
  4. 하나님께서 구속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3:15)
- 사실상 창세기 3 장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20 장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내용이 아담과 하와의 죄에 따른 결과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내용이다. 천국은 계 21-22 장에서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서 묘사된다. 창세기의 앞쪽에 있는 장들은 모든 인류에 대한 내용이다.
1. 아담
  2. 노아
  3. 아브람(참조, 12:3; 행 3:25; 갈 3:8)
-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택하시려고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은 약속(즉, 무조건적 언약)과 응답(즉, 조건적인 언약)을 수반한다. 아브람의 삶은 죄의 영향과 은혜의 영향을 나타낸다. 그는 순종과 믿음으로 씨를했다. 이러한 갈들을 통하여 모든 이가 부르심을 받고 있다(아브람은 믿음/의심/죄/신뢰의 전형이다, 참조, 롬 4 장; 갈 3 장).

마. 6 절은 신약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 절은 아브람의 이야기를 쓴 사람이 하는 설명이거나 결론으로 보인다. 이것은 모세의 말인가 족장이 후에 내린 결론인가(즉, 야곱)? 아주 중요한 사항은 성경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가 아니면 인간의 추측인가라는 점이다. 이 절은 저자에 대한 가정(즉, 영감)을 하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죄인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발견한 후에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해 더 자세히 발견한다. 성경의 기록은 우리처럼 결코 그 일을 묵도하지 않은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믿음을 가져다 주기 위한 이해의 기반이요 자료이다. 아브람의 삶은 모든 신자들(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위한 전형이다. 역사적 내용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계속해서 해야 할 질문은 “왜 이 내용을 기록하셨는가?”이다 (피와 스투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보라).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15:1

<sup>1</sup>이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sup>2</sup>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sup>3</sup>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sup>4</sup>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sup>5</sup>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sup>6</sup>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sup>7</sup>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sup>8</sup>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sup>9</sup>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sup>10</sup>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sup>11</sup>술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15:1 어떤 본문을 언제 산문이나 시로 번역할 것인지를 알기는 쉽지 않다. 본문에 있는 유일한 표식은 “운율”(즉 강세가 있는 구)인데 이것은 후기에 발달된 것이다. 1 절은 NASB, JPSOA, NJB, NIV 에서는 시로 번역되었고 NKJV, NRSV, TEV, REB 에서는 산문으로 번역되었다. 이와 같은 애매함이 14:19-20 에도 나타난다.

“이 후에”라는 표현은 애매하면서도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다(참조, 22:1; 22:20; 39:7; 40:1; 48:1). 창세기에 있는 각 사건에 대한 내용은 동양의 역사적 틀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서구적인 일련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구성된 것이 아니다. 이 책 전체에 대한 서론의 xv 쪽에 있는 글: 구약의 역사 기록과 당시의 근동 문화에서의 역사 기록의 비교를 보라.

이것은 예언서 전체에 걸쳐 아주 자주 사용된 구(즉, “여호와와 말씀이 …에게 임하여,” 참조, 4 절)가 창세기의 앞 부분에서 사용된 두(1 절과 4 절) 경우이다. 이 표현은 야웨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되 아주 독특하면서도 귀로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신 것임을 강조한다(BDB 55). 이 경우에 있어서 이 일은 밤의 환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음에 있는 15:1c 의 설명을 보라.

아브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 묘사된다. 서두의 형태는 후기 예언서에서는 일반적인 것이지만 그 이전에는 매우 드물게 사용된 표현이었다. 아브람은 20:7 에서 “선지자”(BDB 611)로도

불린다. 선지자들은 성경을 기록했다. 나는 모세가 창세기의 전반부를 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료를 사용한 편집자/편찬자였다고 주장한다. 창 1-2 장에 대한 묘사는 이집트인의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것이었다. 요셉의 생애를 다루기 이전에는 이집트에서 온 외래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나는 모세가 아브람의 시대(즉, 족장시대)로 거슬러 감에 있어서 구전 혹은 글로 기록된 전통을 사용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러한 초기 역사의 대부분을 다름에 있어서 편찬자였고 편집자였다. 인간 저자들이 자신의 문화와 용어를 사용했지만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즉, 영감).

▣ **“여호와”** 야웨(여호와)는 “있다”라는 히브리 동사의 한 형태이다(참조, 출 3:14).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계시며,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야웨로서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엘로힘으로서 말씀하실 때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랍비들은 말한다. 나는 이것이 18 세기~20 세기에 유행했던 자료비평의 “JEDP”가설보다도 훨씬 더 나은 이론이라고 본다. 12:1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 **“환상 중에”** 이것은 5 절과 더불어 이 일이 밤에 일어난 것임을 뜻한다. 15 장 전체(특히 12 절)의 내용에서 볼 때 이 일이 한 밤에 있는 것인지 혹은 두 밤에 걸쳐 있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즉, 두 개의 환상, 1-6,7-21 절). 이곳에 있는 “환상”(BDB 303)이라는 용어는 12:7 에 나오는 “나타나”(BDB 906)와 다른 단어이다. 여기서 사용된 용어는 드물게 사용된 용어로서 성경에서는 3 장에서만 사용되었다(창 15:1; 민 24:4,16; 겔 13:7).

NIDOTTE 제 4 권 354 쪽에는 야웨께서 자신을 어떻게 창세기에서 계시하시는가를 흥미롭게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1. 말씀으로(BDB 55) - 12:1-3; 13:14-17; 21:12-13; 22:1-2
2. 환상으로 - 15:1-6(BDB303); 46:2-4(BDB 909 I)
3. 꿈으로 - 20:3-7(BDB 538); 28:12-15(BDB 321); 31:10-13(BDB 321), 24(BDB 538)
4. 현현하심으로(문자적으로, “나타나” BDB 9096) - 12:7; 17:1; 18:1; 26:2,24; 35:1,9; 48:3
5. 야웨의 천사를 통하여(12:7 의 특별주제를 보라) - 16:7-13; 21:17-19; 22:11-12,15-18; 31:11

그 방법은 다양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일은 계시를 받은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야웨의 구속적 계획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동사(BDB 431, KB 432,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는 창세기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참조, 15:1; 21:17; 26:24; 46:3). 야웨께서는 죄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함을 아셨다(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삶을 두려워하며, 우리 자신을 두려워 함).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음을 말하는 창 3:10 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랍비들은 이 두려움이 14 장 특히 (1) 전쟁의 두려움 (2) 그가 죽인 왕들의 나라에서 보복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한편 12 장에서 15 장에 이르는 문맥에서 볼 때 이 두려움은 아브람이 계속해서 자식을 갖지 못한 것과 관련된다.

▣ **“나는 네 방패요”** “방패”(BDB 171)라는 용어는 군대 용어로서 “보호자”나 “공급자”를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시 3:3; 28:7; 33:20; 84:9; 91:4). “방패”는 어원적으로 “나뉘다”(BDB 171, 참조, 14:20)와 관련이 있다. “방패”에 대한 좋은 설명은 신 33:29 에 있다. 루터가 “방패”와 “상”을 하나님 자신으로 번역했다는 점에서 나는 NASB(새미국표준역)역 보다 루터역을 더 좋아한다—“나는 너희 방패요 상급이다”(참조, NKJV). 이 문장에는 동사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은 13:8-13 과 14:21-24 에서 부와 전리품에 대한 욕망에 대한 시험을 받았지만 이러한 물질적 기회를 그는 거부했다. 하나님은 12 장에서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 한편 이렇듯 자신의 약속을 계속해서 확증함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아브람에게 있어 커다란 소유임을 나타내신다(하나님은 후에 레위족에 대해서도 그러하셨다, 참조, 민 18:20; 신 10:9).

**15:2 “주 여호와여”**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두 이름이 함께 사용된 처음 경우이다. 이 이름은 창세기에서는 이곳과 8 절에서만 나타난다. 문자적으로 이것은 “*아도나이 야웨*”이다. 우리는 이 이름이 신 10:17 에서 함께 나타남을 본다. *아도나이*라는 단어(문자적으로는 “나의 주,” 이 호칭은 가나안 문학에는 나타나지만 셈족어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신약의 *키리오스*에 해당하는 단어로 여겨진다. 후자는 “선생,” “남편,” “주인,” 혹은 “주님”을 뜻한다. 12:1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합성되어 사용되었지만 다음의 두 경우는 특별하다

1. 야웨 엘로힘 - 창 2:4
2. 아도나이 야웨 - 창 15:2

이 이름이 보통 영어 번역본에서 구별되지 않고 있지만 의미와 강조점에 있어서 구별되는 이름이다.

▣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브라함이 염려하는 바의 핵심은 그에게 자식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의 염려는 하나님께서 12:1-3 에서 처음 주신 약속에 기초한다. 고대인들은 자식이 없음을 하나님의 저주로 보았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된다고 확증하셨다. 아브람은 약속받은 은혜가 육신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했다.

▣ **“자식이 없다”(BDB 792)**는 용어는 드물게 사용된 단어이다. 이것은 단 4 번만 사용되었다.

1. 아브람의(사래가 아닌) - 창 15:2
2. 근친상간에 대한 형벌로서 - 레 20:20,21
3. 은유적으로 여호아김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왕위에 오르지 못함을 뜻함 - 렘 22:30.

▣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히브리어에서는 “소유”나 “획득”(BDB 606, NIDOTTE 제 2 권 971 쪽)을 뜻하는 “상속자”(메섹)와 “다메섹”(BDB 199) 사이에 언어유희가 있다. 히브리어에서 이 두 단어의 발음이 비슷하다. 어떤 이는 이것이 주전 두 번째 천년 시기에 속하는 누지 서판에서 볼 수 있는 바 후리족의 입양관습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에셀”(BDB 451)이 24:2 에서 언급하는 종이라고 본다.

“상속자”(BDB 606)라는 용어는 드물게 사용된 용어이다. “상속자”를 뜻하는 일반적 동사(BDB 439, KB 441)는 4,5(2 회),7,8 절에 나온다. 두 단어 모두 “소유하다”를 뜻한다. 이 표현에 대하여는 3 절에서 설명하였다.

**15:3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아브람은 이 내용을 반복하여 말함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걱정의 정도를 드러낸다. 아브람은 믿음과 의심을 함께 가진 사람이었다.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어떤 부분에 대해 그가 아무런 의아심이 없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신실한 질문자를 무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일련의 시험과 시련을 사용하셔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 아브람에게 커다란 유업이 되심을 알도록 하실 것이다(특히 22 장).

**15:4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 일이 아직도 25 년 후에 일어날 것임을 기억해야만 한다. 이 내용은 아기가 사래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을 통해서 옴을 특별히 확증하고 있다. 이것은 16 장에 나타난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네 몸에서 날”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너의 몸 속의 장기”를 가리킨다. 이 단어(BDB 588)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다.

1. 아래 쪽 내장 - 삼하 20:10; 대하 21:15
2. 위 - 욥 20:14; 겔 3:3; 7:19; 욥 1:17; 2:1; 삼하 7:12; 16:11
3. 성적 기관
  - ㄱ. 남성 - 창 15:4
  - ㄴ. 여성 - 사 49:1
4. 인간의 감성이 위치한 곳 - 아 5:4,14; 사 16:11; 63:15; 렘 4:19; 31:20; 애 2:11

**15:5 “하늘을 우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다.

1. 보라 - BDB 613, KB 661, **칼 명령**
2. 세어라 - BDB 707, KB 765, **칼 명령**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하고 분명할 것이다(참조, 12:2; 17:2).

하나님은 아브람이 잘 알고 있는 여러 항목을 사용하여 그의 자손이 많을 것을 말씀하셨다.

1. 띠끌(참조, 창 13:16; 28:14; 민 23:10)
2. 별(참조, 창 15:5; 22:17; 26:4)
3. 모래(참조, 22:17; 32:12)

12:3의 약속과 “제사장 나라”(참조, 출 19:5-6)라는 개념 및 이사야의 우주적 예언(참조, 42:6; 49:6; 51:4)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그 누가 꿈꾸었던 것보다도 더 위대하게 됨을 말한다. 이 일은 믿는 이방인들도 포함할 것이다(참조, 눅 2:32; 행 13:47; 26:23; 롬 2:28-29; 4; 갈 3:7-9,29).

**15: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표현은 아브람이 우르를 떠났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가 되돌아가 12장의 내용을 믿었음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여기서의 “믿다”(BDB 52, KB 63, **히 팔 완료형**)은 단지 어떤 한 가지 행동이 아니라 신뢰하는 삶을 가리키는 **아민**이라는 어근에서 온 단어이다. 여기서 “아멘”이 유래하였다. 이 어근은 “강하다” 혹은 “~에 의지하다”를 뜻한다.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했다. 이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은 일이었다(참조, 22:16,18; 히 11:1). 아브람은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요구함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롬 4장과 갈 3장에 나오는 바 믿음을 통해 은혜로 누리는 칭의에 대한 바울의 논증에 있어서 그 기초를 이루기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또한 합 2:4을 롬 1:17; 갈 3:11에서 바울이 사용하며 히브리서의 저자도 10:38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야웨께 의존했다”는 점에 있다. 구원을 위해 요구된 것은 인간적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랑이었음을 창세기의 이 단락 전체가 거듭 거듭 강조하고 있다. “믿었다”라는 용어는 영어에서 세 가지 방법으로 번역될 수 있다: 믿다, 신뢰하다, 믿음(참조, 출 4:5,31; 신 1:32; 대하 20:20; 사 43:10, 사 28:16에서는 메시아와 관련하여서 또 민 14:11 20:12; 신 9:23; 왕하 17:14; 시 78:22에서는 불신앙과 관련하여서). 구약에서 이 용어의 핵심은 자기 자신에 초점을 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에 초점을 둔 “신뢰하다” 혹은 “신실함”이다.

아브람이 다음의 내용을 믿었음을 주목하라

1. 주님(인격적 관계)
2. 하나님의 말씀(명제적 계시)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본다

1. 하나님께 둔 신뢰(야웨/그리스도)
2.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신뢰함(성경)
3.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는 삶(구약에서의 순종/그리스도를 닮아 감)

이 세 가지 모두 선택적인 항목이 아니라 필수적인 내용이다!



**특별주제: 계약에서의 믿다, 신뢰하다, 믿음, 충성됨(아멘)**

I. 들어가는 말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이 신학적 개념이 계약에서는 명쾌하게 정의되지 않고 사용됨을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계약에 이 개념이 분명히 있지만 몇 핵심 귀절과 사람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계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섞여있다

1. 개인과 공동체
2. 개인적 경험과 언약에의 순종

믿음은 개인적 경험이고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양식이다! 이것을 사전적 형태(즉, 단어 연구)보다는 사람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이 더 쉽다. 이러한 개인적 측면은 다음의 경우에서 잘 드러난다

1. 아브라함과 그의 씨
2. 다윗과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남/경험함으로 그들의 삶이 철저히 바뀌었다(완벽한 삶이 아니라 계속적인 믿음의 면에서).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그들의 믿음이 가진 약점과 강점을 시험이 드러내지만 믿음으로 시작된 관계는 생애를 거쳐 지속된다! 시험을 통해 믿음이 정화되지만 그들의 헌신과 삶의 양식은 계속해서 믿음을 입증한다.

II. 사용한 주요 어근

가. **아만**(BDB 52)

1. 동사

ㄱ. **칼** 형 - 지지하다, 공급하다(즉, 왕하 10:1,5; 예 2:7, 신학적 용어가 아님)

ㄴ. **니팔** 형 - 분명히 하다 또는 확실히 하다, 달성하다, 확인하다, 신실하다 또는 충성스럽다

(1) 사람, 사 8:2; 53:1; 렘 40:14

(2) 물건, 사 22:23

(3) 하나님, 신 7:9,12; 사 49:7; 렘 42:5

ㄷ. **히필** 형 - 굳게 서다, 믿다, 신뢰하다

(1)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다, 창 15:6

(2)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다, 출 4:31; 14:31(신 1:32 에서 반대의 내용이 사용됨)

(3) 야웨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다, 출 19:9; 시 106:12,24

(4)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사 7:9

(5) 누구든지 그것/그를 믿는 자는, 사 28:16

(6)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믿다, 사 43:10-12

2. 명사(남성형) - 신실함(즉, 신 32:20; 사 25:1; 26:2)

3. 부사 - 진실로, 참으로, 내가 동의하여, 그렇게 되기를(참조, 출 27:15-26; 왕상 1:36; 대상 16:36; 사 65:16; 렘 11:5; 28:6). 이것은 계약과 신약에서 “아멘”이라는 단어의 의식적 용법이다.

나. **에펠**(BDB 54) **여성형 명사**, 단단함, 신실함, 진리

1. 사람, 사 10:20; 42:3; 48:1

2. 하나님, 출 34:6; 시 117:2; 사 38:18,19; 61:8

3. 진리, 신 32:4; 왕상 22:16; 시 33:4; 98:3; 100:5; 119:30; 렘 9:4; 숙 8:16

다. **에무나**(BDB 53), 굳음, 견실함, 충성됨

1. 손, 출 17:12

2. 시간, 사 33:6

3. 인간, 렘 5:3; 7:28; 9:2
  4. 하나님, 시 40:11; 88:12; 89:2,3,6,9; 119:138
- III. 바울이 사용한 구약의 이 개념
- 가.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일에 야웨와 구약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이해의 기초를 두고 있다.
  - 나. 그는 *아빰*이라는 어근이 있는 구약의 두 핵심 본문에 기초하여 자신이 말하려는 새로운 의미를 설명한다.
    1. 창 15:6 - 아브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인데(창 12 장)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가져 왔다(창 12-22 장). 바울은 로마서 4 장과 갈라디아서 3 장에서 이 점을 암시한다.
    2. 사 28:16 - 믿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결코 보지 않는다
      - ㄱ. 롬 9:33, “부끄러움을 당한다” 또는 “실망치 않는다”
      - ㄴ. 롬 10:11, 위의 내용과 같음
    3. 합 2:4 -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렘 7:28). 바울은 이 본문을 롬 1:17 과 갈 3:11 에서 사용한다(또한 히 10:38 의 설명을 보라).
- IV. 베드로가 사용한 구약의 개념
- 가. 베드로는 단어를 합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1. 사 8:14 - 뱀전 2:8(걸려 넘어지는 돌)
    2. 사 28:16 - 뱀전 2:6(모퉁이돌)
    3. 시 111:22 - 뱀전 2:7(건축가들이 버린 돌)
  - 나. 그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독특한 표현인 “선택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을 다음에서 취하였다
    1. 신 10:15; 사 43:21
    2. 사 61:6; 66:21
    3. 출 19:6; 신 7:6
 또한 이것을 그리스도께 대한 교회의 믿음을 나타내는데 사용한다
- V. 요한이 사용한 구약의 개념
- 가. 이 단어의 어원
 

“믿다”라는 용어는 헬라어(πιστευω)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믿다,” “믿음,” 혹은 “신뢰하다”로 번역된다. 예를 들면, **명사형**은 요한복음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동사형**은 자주 사용된다. 요 2:23-25 에서 군중들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서 진실되게 고백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믿다”라는 용어가 피상적으로 사용되는 또 다른 예는 요 8:31-59 과 행 8:13, 18-24 에 있다. 성경적인 바른 믿음은 초기에 나타내는 반응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제자도의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참조, 마 13:20-22,31-32).
  - 마. 전치사와 함께 사용된 용법
    1. *에이스*는 “안으로”를 뜻한다. 이것은 믿는 자가 그들의 신뢰/믿음을 예수님 안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는 독특한 구문이다
      - ㄱ. 그의 이름 안에(요 1:12; 2:23; 3:18; 요일 5:13)
      - ㄴ. 그 안에(요 2:11; 3:15,18; 4:39; 6:40; 7:5,31,39,48; 8:30; 9:36; 10:42; 11:45,48; 17:37,42; 마 18:6; 행 10:43; 빌 1:29; 뱀전 1:8)
      - ㄷ. 내 안에(요 6:35; 7:38; 11:25,26; 12:44,46; 14:1,12; 16:9; 17:20)
      - ㄹ. 아들 안에(요 3:36; 9:35; 요일 5:10)

- ㄱ. 예수 안에(요 12:11; 행 19:4; 갈 2:16)
- ㄴ. 빛 안에(요 12:36)
- ㄷ. 하나님 안에(요 14:1)
- 2. **안**은 “안”을 뜻한다, 요 3:15; 막 1:15; 행 5:14
- 3. **엠펜**은 “안” 또는 “위”를 뜻한다, 마 27:42; 행 9:42; 11:17; 16:31; 22:19; 롬 4:5,24; 9:33; 10:11; 딤펜전 1:16; 뵐전 2:6
- 4. **전치사 없이 쓰인 여격**, 갈 3:6; 행 18:8; 27:25; 요일 3:23; 5:10
- 5. **호티**는 “믿다”를 뜻하는데, 무엇을 믿는 것인지를 밝힌다
  - ㄱ.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다(요 6:69)
  - ㄴ.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요 8:24)
  - ㄷ.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그 안에 계신다(요 10:38)
  - ㄹ. 예수님은 메시아다(요 11:27; 20:31)
  - 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요 11:27; 20:31)
  - ㅂ.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요 11:42; 17:8,21)
  - ㅅ.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다(요 14:10-11)
  - ㅇ.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왔다(요 16:27,30)
  - ㅈ.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의 언약적 이름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동일시 하였다(요 8:24; 13:19)
  - ㅊ. 우리는 그와 함께 살 것이다(롬 6:8)
  - ㅋ.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살전 4:14)

## VI. 결론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약속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 일을 먼저 시작하신다(즉, 요 6:44,65). 한편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화는 다음과 같은 인간의 응답을 필요로 하고 있다.

1. 신뢰
2. 언약적 순종

성경적인 믿음은 다음을 뜻한다

1. 개인적 관계(최초의 믿음)
2. 성경의 진리를 확인함(하나님의 계시를 믿음)
3. 그 진리에 대한 적합한 순종(매일의 믿음)

성경적인 믿음은 천국행 표나 천국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 점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인간(참조, 창 1:26-27)과 창조에 대한 목적이다. “친밀함”이 핵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학적 입장이 아니라 교제를 바라신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자녀들이 “가족”의 특성을 나타내기를 요구한다(즉, 거룩함, 참조, 레 19:2; 마 5:48; 뵐전 1:15-16). 타락(참조, 창세기 3 장)은 우리가 적합하게 응답할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다(참조, 겔 36:27-38). 새 마음과 새 영은 우리가 믿음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한다!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 세 가지를 모두 갖고 있어야만 한다. 하나님을 알고(히브리어와 헬라어적 의미에서) 또 우리의 삶에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다. 믿음의 목적은 앞으로 언젠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인간의 신실함은 그 결과이지(신약) 그 기초가 아니다 (구약):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인간의 믿음; 인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이다. 구원에 대한 신약적 관점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해 제시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해 인간이 처음 한 번만 아니라 계속해서 응답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보내셨고 공급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과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한다(참조, 엡 2:8-9,10)!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과 또 믿지 않던 자들이 각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 “여호와께서 이를 . . . 여기시고” “여기다”라는 용어(BDB 362, KB 359, 칼미완료형)는 “계산하다” 혹은 “간주하다”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종종 제사장과 희생제물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참조, 레 7:18; 17:4; 민 18:27). 어떤 사람이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은 그 사람 자신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간주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써 아브람을 간주하셨다. 따라서 그를 완전히 다 받아주시고 계신 것이었다.

▣ “그의 의로” 이 용어(BDB 842)는 원래 “측량하는 갈대”를 뜻한다. 따라서 이 단어는 어떤 길이의 표준이 되는 것을 일컫는 용어가 되었다. 하나님 자신이 이러한 측량의 표준이시다. 따라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죄”를 뜻하는 단어들은 대부분 하나님 자신의 의의 표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그 의미가 다음과 같이 발전되었다.

1. 이 용어는 8 세기의 예언서에서 명확히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나타낸다
2. 이 용어는 아무도 도울 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뜻한다(참조, 시 10:16-18; 72:12). 이 개념은 예수님 당시 구제로 발전되었다(참조, 마 6:1)
3. “의”라는 이 용어는 마지막으로 영적 구원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었다. 이것은 특별히 사 40-55 장과 신약에 있는 바울의 용법에 나타난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의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랑과 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응답에 기초한다고 롬 4:3 과 갈 3:6 에서 말한다
4. 우리는 이 용어가 약 2:14-16 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음을 본다.

여기서 이 단어는 “죄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과 신뢰의/신실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문을 열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것은 아브람이 야웨를 처음(혹은 마지막)으로 신뢰한 경우가 아니다. 아브람은 야웨께서 처음에 주신 약속에 응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계속 발전해 나가고 깊어지는 관계를 시작할 수 있었다.

### 특별주제: 의

“의”는 성경학도가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공평” 또는 “의”(BDB 841)로 설명된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단어는 강가에서 자라는 갈대에서 유래하였는데, 이것은 벽과 울타리가 수평적으로 곧은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축도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용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평가하는 곧은 날(자)이시다. 이 개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재판할 권리가 있음을 나타낸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참조, 창 1:26-27; 5:1,3; 9:6).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 창조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무대요 배경이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에 있어서 절정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다! 인간의 충성된 여부를

시험하셨으나(참조, 창 3 장), 최초의 부부는 이것에 실패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는 결과를 낳았다(참조, 창 3 장; 롬 5:12-21).

하나님은 망가진 교제를 고쳐 회복하실 것을 약속으로 주셨다(참조, 창 3:15).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 인간은 이 단절을 회복시킴에 있어 무력하다(참조, 롬 1:18-3:20).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 행하신 첫 번째 일은 언약의 개념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와 인간이 회개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반응에 기초한다. 타락을 인하여 인간이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참조, 롬 3:21-31; 갈 3 장). 언약을 깨트린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일하셔야만 했다. 하나님은 주도권을 갖고 다음의 일을 하셨다

1.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심(즉, 법적인 의).
2.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에게 의를 거저 주심(즉, 전가된 의).
3. 의(즉, 그리스도를 닮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를 이루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사람들에게 제공하심.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따른 반응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선언하시고(즉, 거저 주시고) 공급하시지만, 인간은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1. 회개
2. 믿음
3. 삶에서 나타나는 순종
4. 인내

따라서 의는 하나님과 그의 창조의 결작 사이의 언약적이고 상호 관계적인 행동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힘주심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또한 계속해서 적합하게 응답해야 한다. 이 개념은 “믿음에 의한 칭의”로 불린다. 이 개념은 복음서에 나타나지만 이 용어로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 개념은 주로 바울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그는 헬라어 단어인 “의”를 여러 형태로 100 번 이상 사용하였다.

바울은 잘 교육받은 랍비로서 히브리적 개념인 *세덱*을 나타내기 위해 헬라 문학적 용례에서 단어를 택하지 않고 70 인역에서 사용한 *디카이오쉬네*를 사용했다. 헬라 저작에서 이 용어는 신과 상류사회의 기대에 들어 맞는 사람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히브리어적 개념에서 이 용어는 항상 언약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야웨는 공평하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의 성품을 닮기 원하셨다. 구속받은 인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새로움은 경건함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다(로마 카톨릭은 칭의에 초점을 맞춘다). 이스라엘은 신성국가로서 세속적인 것(사회적 규범)과 신성한 것(하나님의 뜻) 사이에 뚜렷한 구별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구분은 “정의”(사회와 관련됨)와 “의”(종교와 관련됨)의 경우처럼 히브리어나 헬라어 용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나타난다.

예수님의 복음(좋은 소식)이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를 통하여, 성자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하여, 성령의 간청과 복음으로 이끄심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칭의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졌지만, 반드시 경건함으로 나타나야만 한다(어거스틴의 입장은 종교개혁가들의 강조점인 거저주시는 복음과 로마 카톨릭의 강조점인 사랑과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변화된 삶 둘 다였다).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의 의”를 목적적 소유격으로 이해했다(즉,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시는 행위[지위적인 성화])인 반면, 카톨릭은 주격 소유격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 닮는 과정(경험적이고 점진적인 성화)이다. 사실상 두 가지 다 사실이다!!

내 생각에는 창세기 4 장부터 계시록 20 장까지 이르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에덴에서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에 대한 기록이다. 성경은 지상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배경으로 시작하고(참조, 창 1-2 장) 같은 배경으로 마친다(참조, 계 21-22 장). 하나님의 형상과 목적은 회복될 것이다!

위의 논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에 제시되는 헬라어 단어 그룹을 예시하는 신약성경의 구절들을 보라:

1. 하나님은 의로우시다(종종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제시된다)
  - ㄱ. 로마서 3:26
  - ㄴ. 데살로니가 후서 1:5-6
  - ㄷ. 디모데 후서 4:8
  - ㄹ. 요한계시록 16:5
2. 예수님은 의로우시다
  - ㄱ. 사도행전 3:14; 7:52; 22:14(메시아의 칭호)
  - ㄴ. 마태복음 27:19
  - ㄷ. 요한일서 2:1,29; 3:7
3.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의이다
  - ㄱ. 레위기 19:2
  - ㄴ. 마태복음 5:48(참조, 5:17-20)
4. 의를 제공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 ㄱ. 로마서 3:21-31
  - ㄴ. 로마서 4 장
  - ㄷ. 로마서 5:6-11
  - ㄹ. 갈라디아서 3:6-14
  - ㅁ. 하나님께서 주심
    - 1) 로마서 3:24; 6:23
    - 2) 고린도 전서 1:30
    - 3) 에베소서 2:8-9
  - ㅂ. 믿음으로 받음
    - 1) 로마서 1:17; 3:22,26; 4:3,5,13; 9:30; 10:4,6,10
    - 2) 고린도 전서 5:21
  - ㅅ. 아들의 사역을 통하여
    - 1) 로마서 5:21-31
    - 2) 고린도 후서 5:21
    - 3) 빌립보서 2:6-11
5. 하나님의 뜻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 ㄱ. 마태복음 5:3-48; 7:24-27
  - ㄴ. 로마서 2:13; 5:1-5; 6:1-23
  - ㄷ. 디모데 전서 6:11
  - ㄹ. 디모데 후서 2:22; 3:16

ㄱ. 요한일서 3:7

ㄴ. 베드로 전서 2:24

6. 하나님은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ㄱ. 사도행전 17:31

ㄴ. 디모데 후서 4:8

의는 하나님의 특성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범죄한 인간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이것은

1. 하나님의 선언이고

2. 하나님의 선물이며

3.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러나 거룩하게 됨의 과정은 활발하면서도 견실하게 추구해야하는 일로서 재림의 때에 하루에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구원을 받음으로 회복되지만 삶을 사는 동안 계속 진행되어 우리가 죽는 날 혹은 **주님이 임하실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만남이 될 것이다!

여기에 이러한 논의에 대한 결론으로서 인용할 좋은 내용이 있다. 이것은 IVP 에서 출판한 *바울과 바울서신 사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의가 관계에 미치는 면에 대하여 루터가 했던 것 보다도 더 강조했다. 루터가 이해한 하나님의 의는 면제의 측면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칼빈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갖는 놀라운 특징 혹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을 강조했다” (834 쪽).

나에게 있어서 신자가 하나님과 갖는 관계는 세 가지 측면을 갖는다:

1. 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동방 교회와 칼빈의 강조점)

2. 복음은 진리다(어거스틴과 루터의 강조점)

3. 복음은 변화된 삶이다(로마 카톨릭의 강조점)

위의 것은 모두 진실되며 건강하고, 바르며, 성경적인 기독교에 있어서 함께 있어야만 하는 내용이다. 어느 것이든 하나만을 더 강조하거나 어느 한 쪽을 빠뜨리면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추구해야 한다!

15:7 “나는 ... 여호와니라” 야웨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적 이름이다. 12:1의 특별주제를 보라.

▣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장소에 대하여 약간의 부조화가 있다. 이 일은 우르 혹은 하란에서 일어났다. 창 11:31-12:1 을 느 9:7 및 행 7:2 과 비교하라.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아버지인 데라에게는 우르에서 말씀하셨고 아브람에게는 하란에서 말씀하셨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은 부적절한 설명이라고 본다. 계시가 우르와 하란 양쪽에서 주어졌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나는 또한 이 자리에서 창세기와 신명기가 얼마나 정확하게 주전 이전의 두 번째 천년의 문화 특별히 히타이트의 공신조약 내용에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이 역사적 자료들은 누지 서판 및 마리 서판과 더불어 우리에게 2 절과 17 절 및 16:2의 내용이 그 당시의 문화에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를 보여준다. 족장들의 역사성은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창세기의 앞 쪽에 있는 이 여러 장에서 여러 번 볼 수 있듯이 후기에 속하는 도시나 나라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음을 본다. 갈대아라는 이름은 주전 6 세기 이전에는 메소포타미아(즉, 바벨론 남쪽)에 살던 사람들을 일컫기 위해 사용되지 않았었다. 이집트에서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복사하고 있는 본문을 개정함에 있어서 자유를 느꼈다(메소포타미아의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다).

**15:8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람의 믿음이 6 절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데 이제 그는 이 일에 대한 확증을 필요로 했다(참조, 2-3 절). 이것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받으셨지만 그것은 그의 완전한 믿음을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인함이었다. 그가 의심을 잔뜩 품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셨고 또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신다(참조, 요 20:24-29). 아브람은 커다란 신학적 목적을 위해 사용받았고 또 그렇게 사용받고 있다(즉, 구속의 모형).

**15:9** 아브람은 여러 종류의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릴 것을 명령받았다(BDB 542, KB 534, **칼 명령**).

1. 삼 년 된 암소
2. 삼 년 된 암염소
3. 삼 년 된 숫양
4. 산비둘기
5. 집비둘기 새끼

이러한 특별한 종류의 짐승을 지시하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이 동물들은 후기에 모세 율법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 짐승들은 아마도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는 어떤 문화적 중요성을 가졌을 것이다. 10 절에서 그 짐승들은 새를 빼고는 모두 중간을 쪼개어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도록 놓았다. 이것은 언약을 “뺏음”을 나타내는 문화적 방법이였다(13:14의 특별주제를 보라, 참조, 렘 34:18). 어떤 이들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언약의 당사자에게 주는 경고로써 만일 그들이 언약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 일어날 일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불확실하다.

**15:1 “술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주석가들 사이에 왜 11 절이 기록되었는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그 설명은 이러하다:

1. 그 새들은 아브람의 의심을 상징한다
2. 그 새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상징한다(참조, 겔 17:3,7,12)
3.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심에 있어서 여러 시간이 걸린 것을 나타내며 따라서 이 일은 단순히 이 기록의 역사성을 드러낸다(즉, 동물의 사체는 육식을 하는 새들이 나타나게 하였다)

나로서는 신약에서 특별히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화적 모형론적 해석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 따라서 3 항의 설명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리지 아니하였음을 주목하라. 이것은 언약을 기념하는 행위였지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다.

▣ **“아브람이 쫓았더라”** “불어서 쫓아내다”라는 히브리 동사(BDB 674, KB 728, **히필 미완료형**)가 여기에 사용된 사실이 매우 이상스럽다. 이 은유는 종종 하나님께 대해 사용되었다(참조, 시 147:18; 사 40:7). 그런데 어떻게 이 단어가 아브라함의 행동과 관련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개역개정 15:12-16

<sup>12</sup>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sup>13</sup>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sup>14</sup>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sup>15</sup>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यो <sup>16</sup>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5:12 “해 질 때에” 이것은 새 날이 시작됨을 뜻한다(참조, 창 1:5). 이 이상이 정확히 얼마 동안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두 밤시간과 한 낮에 걸쳐서 일어났을 것이다(1c 절의 설명을 보라).

▣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기 위해 아담으로 하여금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신 일을 말하기 위해 사용한 것(참조, 창 2:21)과 같은 단어이다(BDB 922). 이 동사는 계시를 나타내기 위한 준비로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게 하셨음을 나타낸다(참조, 욥 4:13; 33:15).

▣

NASB	“두려움과 큰 흑암이”
NKJV	“공포와 큰 흑암이”
NRSV	“깊고 무서운 흑암이”
TEV	“무서움과 두려움이”
NJB	“깊고 어두운 두려움이”

“두려움”(BDB 33, KB 41)이라는 용어는 무서움, 공포, 두려움, 지독하게 무서움을 뜻한다. 이 단어는 종종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나타내는 시적 표현에서 나타난다.

1. 적들에게 - 출 15:16; 23:27
2. 욥에게 - 9:34; 13:21
3. 이스라엘에게 - 신 32:25; 시 88:16

“어두움”(호췘, BDB 365, KB 362 와 호췘과 관련이 있는 어근)은 다음과 관련이 있다

1. 우주적인 어두움 - 창 1:2
2. 출애굽시 일어난 재앙의 한 가지 - 출 10:21
3. 죽음/지하세계 - 시 139:7-12
4. 재앙 - 욥 15:22-30; 20:26; 사 8:22; 50:10
5.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계심 - 시 18:11
6. 계시가 없음 - 미 3:6

다시 한 번 이 구에 대하여 여러 해석이 제시되었다.

1. 하나님의 약속이 놀라운 것이긴 하지만 이것의 성취는 길고 험난한 길을 통해 이루어 질 것이다
2. 인간은 항상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후에 신체적으로 지쳐있었다; 이 점은 다니엘 및 여러 선지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이다
3.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심은 항상 두려움을 일으키는 일이었다(참조, 욥 4:12-21)

15:13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너는 반드시 알라”라는 표현은 “알다”(BDB 393, KB 390)라는 한 단어가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 동사로서 함께 사용되어 나타내는 의미이다. 이러한 용법은 문법적으로 강조점을 나타낸다. 야웨께서는 8 절에서 아브람이

하는 질문에 대해 답하신다. 아브람에게 여전히 믿음/의심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 이 일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지 않았다!

이집트 땅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라. “나그네”는 “떠도는 자”를 가리키거나 (BDB 158) 혹은 한 국가의 정식 시민이 아닌 자들로써 제한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뜻한다. 야웨께서는 이집트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믿음은 편한 생활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늦추어지고 또 종종 오해되었지만 믿음은 계속 남아 있다.

▣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절 및 행 7:6 에서 스테반이 행한 연설과 출 12:40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 12 장에서는 430 년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내용을 갈 3:17 에서 인용하였다. 70 인역과 사마리아 오경은 이 430 년이 족장들이 가나안과 이집트에서 유랑한 기간으로 말하고 있다. 400 년이 단순히 대략적으로 말한 연도를 가리킬 가능성이 있다. 랍비들은 이 기간이 이삭의 출생으로부터 출애굽 사건까지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16 절에서 언급하는 바 네 세대를 반드시 고려에 넣어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산은 400 년이 그들이 정확히 섬길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15:14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은 출 3:22 과 12:35-56 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 재물은 금, 은, 동, 보석을 말하는 것으로써 성막과 그 가구를 건축하고 장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참고, 출 25-40 장).

믿음이 항상 부를 가져온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본문으로서 이 본문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부요함은 초기에 민족들을 야웨께로 이끌기 위한 방법이 되었다. 한편 그 초점은 물질적 번영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고 오히려 믿음으로 누리는 관계에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주석가 가운데 한 명인 고든 피는 “건강, 부요함, 번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용하는 본문으로서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의 소책자는 깊은 통찰력을 나타내고 있다(즉, *건강과 부요함을 전하는 복음의 질병*).

15:15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평안”(BDB 1022)이라는 히브리 용어는 삶과 하나님께 대한 만족을 나타낸다(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완숙한 노년의 삶을 살 것이며 평안한 죽음을 갖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 한편 “조상에게로 돌아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질문이 생길 것이다. 이것은 스올(참조 신 32:50)을 가리키는 표현임이 분명하다. 어떤 이는 이 말이 스올에 가족이 함께 있다는 말을 가리키는 것에 대해 궁금해 할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이 본문에서 너무 많은 것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브람의 조상들은 야웨를 믿는 자들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하데스* 혹은 스올의 다른 편에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사후의 세계 및 성경에서 말하는 스올, *하데스*, *게헨나*에 대해 잘 모르며 또한 이 장소들이 각각 중간상태와 어떻게 관련을 정확히 가지는지에 대하여도 잘 모른다.

### 특별주제: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

#### I. 구약

가. 모든 인간은 스올(어원이 불확실함, BDB 1066)에 간다. 지혜서와 이사야서에서 이것은 대부분 죽음 또는 무덤을 가리킨다. 구약은 이곳이 그늘진 곳이고 의식을 갖고 있는 곳이지만 기쁨이 있는 상태는 아닌 곳으로 말한다(참조, 욥 10:21-22; 38:17; 시 107:10,14).

나. 스올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가 있다(불), 신 32:22
2. 심판의 날 이전에 있는 형벌과도 관계가 있다, 시 18:4-5
3.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빌돈*(멸망)과 관계가 있다, 욥 26:6; 시 139:8; 암 9:2

4. “구덩이”(무덤)와 관계가 있다, 시 16:10; 사 14:15; 겔 31:15-17
5. 악한 자는 산 채로 스올에 내려간다, 민 16:30,33; 시 55:15
6. 종종 큰 입을 가진 동물로서 의인화 된다, 민 16:30; 사 5:14; 14:9; 합 2:5
7. *르파임*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는 곳, 사 14:9-11

## II. 신약

가. 히브리어의 스올은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번역된다(보이지 않는 세상)

나. *하데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죽음을 가리킨다, 마 16:18
2. 죽음과 관련이 있다, 계 1:18; 6:8; 20:13-14
3. 종종 영원한 형벌의 장소(*게헨나*)로 표현된다, 마 11:23(구약의 인용); 눅 10:15; 16:23-24
4. 종종 무덤으로 표현된다, 눅 16:23

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랍비들)

1. 낙원으로 불리는 의로운 부분(실제적으로 천국에 대한 또 다른 이름, 고후 12:4; 계 2:7), 눅 23:43
2. *타타루스*라고 불리는 악한 부분, 벤후 2:4, 악한 천사들을 가두어 두는 곳(참조, 창 6 장; 에녹 I 서)

라. *게헨나*

1. 구약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예루살렘의 남쪽)를 나타낸다. 이곳은 페니키아의 불의 신인 *몰렉*(BDB 574)에게 어린이를 희생제물로 드린(참조, 왕하 16:3; 21:6; 대하 28:3; 33:6) 장소이다. 이것은 레 18:21; 20:2-5 에서 금지되었다.
2. 예레미야는 이것을 이방인의 예배장소에서 야웨의 심판 장소로 바꾸었다(참조, 렘 7:32; 19:6-7). 에녹 I 서 90:26-27 과 Sib. 1:103 에서 그곳은 영원한 불 심판의 장소가 되었다.
3.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어린이를 희생제물로 드린 이방 숭배에 참여한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곳을 예루살렘의 쓰레기 하치장으로 바꾸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은유의 많은 부분은 이 쓰레기 하치장에서 왔다(불, 연기, 벌레, 악취. 참조, 막 9:44, 46). 오직 예수님만 *게헨나*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다(약 3:6 을 제외하고).
4. 예수께서 사용하신 용어인 *게헨나*
  - ㄱ. 불, 마 5:22; 18:9; 막 9:43
  - ㄴ. 영구적인, 막 9:48(마 25:46)
  - ㄷ. 멸망의 장소(영과 육 모두), 마 10:28
  - ㄹ. 스올과 평행된, 마 5:29-30; 18:9
  - ㅁ. 악한 자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특징짓는, 마 23:15
  - ㅂ. 사법적 판결의 결과, 마 23:33; 눅 12:5
  - ㅅ. *게헨나*의 개념은 두 번째 죽음(참조, 계 2:11; 20:6,14) 또는 불의 못(참조, 마 13:42, 50; 계 19:20; 20:10,14-15; 21:8)과 평행을 이룬다. 불의 못을 인간(스올에서)과 악한 천사(*타타루스*에서, 벤후 2:4; 유 6 절 또는 지옥, 참조, 눅 8:31; 계 9:1-10; 20:1,3)가 영원히 거할 장소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 ㅇ. 이것은 사람을 위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사탄이나 그의 천사들을 위한 것이다, 마 25:41

- 마. 스올, *하데스*, *게헨나*의 의미가 중복되므로 다음 설명이 가능하다
1. 원래 모든 인간은 스올/*하데스*에 갔다
  2. 심판의 날 이후에 그곳에서 갖는 그들의 경험(좋고/나쁜)은 심화될 것이지만, 악한 자의 장소는 그대로 남을 것이다(KJV 역이 *하데스*(무덤)를 *게헨나*(지옥)로 번역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3. 심판 전에 받는 고통에 대해 언급한 신약 본문은 오직 눅 16:19-31의 비유이다(나사로와 부자). 스올은 또한 현재의 형벌 장소로서 묘사된다(참조, 신 32:22; 시 18:1-5). 그러나 비유에 근거하여 교리를 세울 수는 없다.

### III. 죽음과 부활의 중간 상태

- 가. 신약은 죽음 이후에 대한 여러 고대 관점 중의 하나인 “영혼의 불멸”을 가르치지 않는다.
1. 인간의 영혼이 그들의 육체적 생명이 있기 전에 존재한다
  2. 인간의 영혼은 육체적 죽음 이전과 이후에 영원하다
  3. 종종 육체적 몸은 감옥으로, 죽음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 가는 것으로 말해진다
- 나. 신약은 죽음과 부활 사이를 육체가 분리된 상태로 암시한다.
1.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나누어 말씀하신다, 마 10:28
  2. 아브라함은 지금 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막 12:26-27; 눅 16:23
  3.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산상에서 육체적 몸을 가지고 있다, 마 17장
  4. 재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영혼들이 그들의 새 몸을 먼저 갖게 된다고 바울은 주장한다, 살전 4:13-18
  5. 부활의 날 믿는 자들이 새로운 영적 몸을 가진다고 바울은 주장한다, 고전 15:23,52
  6. 믿는 자들은 *하데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주장한다, 고후 5:6,8; 빌 1:23.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고, 의로운 자를 하늘로 취하셔서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신다, 벰전 3:18-22.

### IV. 천국

- 가. 이 용어는 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1. 지구 위의 대기, 창 1:1,8; 사 42:5; 45:18
  2. 하늘의 별, 창 1:14; 신 10:14; 시 148:4; 히 4:14; 7:26
  3. 하나님 보좌의 자리, 신 10:14; 왕상 8:27; 시 148:4; 엡 4:10; 히 9:24(삼층천, 고후 12:2)
- 나.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많은 것을 나타내지 않았다. 아마 타락한 인간이 그것을 이해할 방법도 능력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참조, 고전 2:9).
- 다. 천국은 장소일 뿐 아니라 주님과 의 인격적 교제를 말한다(참조, 고후 5:6,8). 천국은 회복된 에덴동산일 수 있다(창 1-2장; 계 21-22장). 땅은 정결하여지고 회복될 것이다(참조, 행 3:21; 롬 8:21; 벰후 3:10). 하나님의 형상(창 1:26-27)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것이다. 지금 에덴동산의 친밀한 교제는 다시 가능하다.
-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이 아니라 은유적일 것이다(계 21:9-27의 크고 네모 반듯한 도시로서의 천국). 고전 15장은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다름을 성장한 식물의 씨로서 묘사한다. 고전 2:9(사 64:6과 65:17에서의 인용)은 참으로 위대한 약속이며 희망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과 같을 것임을 나는 안다(참조, 요일 3:2).

### V. 도움이 되는 자료

- 가. 윌리엄 핸드릭슨,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성경말씀*
- 나. 모리스 롤링스, *죽음의 문 너머*

**특별주제: 평화(shalom)**

이 히브리 용어(BDB 1022, KB 1532)는 셈족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 가. 아카디아어
  - 1. 무사한 것
  - 2. 잘 있다
  - 3. 좋은 상태에 있는 것
- 나. 우가릿어(가나안어)
  - 1. 무사한 것
  - 2. 건강한
- 다. 아라비아어
  - 1. 건강하게 있는 것
  - 2.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
- 마. 아람어
  - 1. 완전하게 된 것
  - 2. 끝/완성에 이른 것
  - 3. 평화로 끝맺다
  - 4. 무사하게 머무르다
- 바. 히브리어의 함축적 의미
  - 1. 완성
  - 2. 건실
  - 3. 번영
  - 4. 평화

오늘날 **shalom**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의 첫 인사와 끝 인사이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악의 부재와 선(즉, 만족한 삶)의 현존을 나타낸다. 이것은 안전과 만족에 대한 정신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15:16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자신계로 계속해서 이끄심을 보여준다. 멜기세덱은 가나안 사람이었다. 적절한 기회와 때가 이르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었다. 이것은 유대인에 대한 호의를 나타내는 내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행했을 때에 그들도 그 땅에서 몰아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즉, 앗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한 유배).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은 둘 다 가나안에 사는 족속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된 말이다. 이편 면에서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함으로써 발생할 갈등을 미리 나타낸다. 이스라엘 자신은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우상숭배에 의해 정복을 당했다. 이러한 예시는 창 9:20-27(특히 25 절)의 내용과 비슷하다. 범죄한 사람은 함이었는데 저주를 받은 자는 그의 아들인 가나안이었다.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문제가 있었다. 모세 오경에 있는 대다수(혹은 전부)의 규정은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예배와 관련이 있다. 이스라엘은 구별되어야만 했다! 이스라엘은 야웨를 드러내야만 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창세기의 본문과 관계가 있는가는 다음 둘 중의 한 가지 설명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 1.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래에 있을 사건을 위해 준비하고 계심
- 2. 후기에 속하는 서기관이 자신이 사는 그 시기를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설명을 추가시킴

방금 설명하였듯이 후기의 서기관이나 편집자가 이것을 추가했을 것이라고 내가 언급한 것은 “영감”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 나는 성령께서 모든 저자와 서기관들과 편찬자들을 인도하셨음을 받아들인다! 성경의 참 저자는 하나님이다. 그 역사적 과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언제 또 누구에 의해 이루어 졌는지는 알 수 없다(역사에서 잃어버려진 내용이다).

**개역개정 15:17-21**

<sup>17</sup>해가 저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sup>18</sup>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sup>19</sup>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sup>20</sup>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sup>21</sup>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15:17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야웨께서 아브람에서 나타나시되 그가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연기 나는 화로는 다음의 내용을 뜻할 것이다

1. 야웨의 임재하심을 가리기 위함(즉, 출애굽 때에 나타난 영광의 구름인 *쉐키나*)
2. 아카디아인의 저주 서판에 기록된 바 보호를 제공하는 신의 상징
3. 심판과 보호 양쪽을 가리키는 상징(참조, 슄 12:6)
4.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상징은 신적 정화를 의미했다.

화로의 안에는 불이 있었다. 하나님은 종종 불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기록에서만 아니라 조로아스터교에서도 그렇다. 맺은 언약을 인준하는 방법으로서 언약에 따른 식사가 있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화로가 바로 그러한 식사를 상징한다고 믿고 있다. 또한 짐승을 두 쪽으로 쪼개놓은 사이를 아브람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하신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절은 언약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한 것임을 나타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행하신 언약이었다(참조, 삼하 7:8-16; 시 89:20-37).

**특별주제: 불 (BDB 77)**

성경에서 불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가. 긍정적 의미

1. 따뜻하게 함(참조, 사 44:15; 요 18:18)
2. 빛을 비춤 (참조, 사 50:11; 마 25:1-13)
3. 음식을 익힘(참조, 출 12:8; 사 44:15-16; 요 21:9)
4. 정화함(참조, 민 31:22-23; 잠 17:3; 사 1:25; 6:6-8; 렘 6:29; 말 3:2-3)
5. 거룩함(참조, 창 15:17; 출 3:2; 19:18; 겔 1:27; 히 12:29)
6. 하나님의 인도하심(참조, 출 13:21; 민 14:14; 왕상 18:24)
7.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심(참조, 행 2:3)
8. 보호하심(참조, 슄 2:5)

나. 부정적 의미

1. 태움(참조, 수 6:24; 8:8; 11:11; 마 22:7)
2. 멸망시킴(참조, 창 19:24; 레 10:1-2)
3. 화냄(참조, 민 21:28; 사 10:16; 습 12:6)
4. 벌함(참조, 창 38:24; 레 20:14; 21:9; 수 7:15)
5. 거짓된 종말론적 표식(참조, 계 13:13)

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은유로써 나타난다

1. 그의 진노가 불타고 있다(참조, 호 8:5; 습 3:8)
2. 그가 불을 쏟고 있다(참조, 나 1:6)
3. 영원한 불(참조, 램 15:14; 17:4)
4. 종말론적 심판(참조, 마 3:10; 13:40; 요 15:6; 살후 1:7; 벴후 3:7-10; 계 8:7; 13:13; 16:8)

라. 성경의 여러 은유적 표현과 같이(즉, 누룩, 사자) 불은 문맥에 따라서 축복 혹은 저주를 나타낸다.

15: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세우다”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자르다”(BDB 503, KB 500, 칼 완료형)이다. 깎는다라는 이 용어는 어원적으로 10 절에 있는 단어(BDB 144, KB 167)와 관련이 있지 않지만 이것은 “언약을 세우다”를 뜻하는 표준적인 성경의 표현으로 사용된다.

**특별주제: 족장들에게 주신 언약적 약속**

특별한 언약적 관계에 대한 이 최초의 약속을 다음의 족장들에게 주셨다

1. 아브라함, 창 12:1-3
  - ㄱ. 땅, 창 12:7; 13:4-15; 15:18-21
  - ㄴ. 백성, 창 13:16; 15:4-5; 17:2-6; 22:18
  - ㄷ. 세상에 대한 축복, 창 18:18; 22:18
2. 이삭, 창 26:2-4
  - ㄱ. 땅
  - ㄴ. 백성
  - ㄷ. 세상에 대한 축복
3. 야곱, 창 2-4,13; 35:9-12; 48:3-4
  - ㄱ. 땅
  - ㄴ. 백성
4. 이스라엘 국가(땅), 출 3:8,17; 6:8; 13:5; 33:1-3; 신 1:7-8,35; 4:31; 9:3; 11:25; 31:7; 수 1:6

▣ “언약” “언약”(BDB 136)은 성경의 글에서 중심적인 주제를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당사자 간의 약속과 의무를 담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독특하게 조건적인 측면과 무조건적인 측면 양자를 갖고 있다. 언약이 조건적인 것인가 아니면 무조건적인 것인가? 다 맞는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인간이 믿음과 회개로 응답함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15:6; 롬 4 장; 막 1:15; 행 3:16,19; 20:21).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에 대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다. 13:14 의 특별주제: 언약을 보라.

▣ “**애굽 강에서부터**” 이 구는 일반적으로 나일 강을 가리키지만, 약속의 땅의 경계에 대한 성경의 약속의 문맥에서는 “엘-아리스 강”을 가리킴이 분명하다(참조, 민 34:5; 수 15:4). 약속하신 땅에 대한 부분은 다윗의 시대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나 솔로몬 시대에 더욱 완전하게 성취되었다(참조, 왕상 4:21).

**15:19-21** 우리는 가나안 족속을 구성하는 10 족속의 명단을 여기서 본다. 때때로 이 족속들의 숫자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1) 수 24:11에서는 7 족속으로 말하며 (2) 출 3:17에서는 6 족속으로 말하고 (3) 출 23:28에서는 3 족속의 이름을 말한다. 정확한 족속의 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아모리 족속”이라는 용어는 “고지대에 사는 자들”을 뜻하고 “가나안 족속”이라는 용어는 “저지대에 사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이 두 이름이 그곳에 사는 모든 족속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집합적 용어로 사용된 점은 분명히 알 수 있다. 12:6의 특별주제: 이스라엘 이전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자들을 보라.

**15:20 “헷 족속과”** 창 10:15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민족이 헷에서 나온 사람들임을 알게 된다(BDB 366). 그들은 터키 중앙에서 커다란 제국을 형성했다.

▣ “**르바 족속과**” 이들은 아마도 아낙 자손(참조, 신 2:11; 3:11)과 네피림(참조, 창 6장; 민 13:33)처럼 키가 매우 컸던 사람들로 여겨진다(BDB 952, 참조, 수 12:4; 17:15; 대상 20:4). 14:5의 특별주제를 보라.

**15:21 “여부스 족속의”**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자들로서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복을 당했다(BDB 101, 참조, 삿 1:21; 19:11; 삼하 5:6 이하).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창 15:6에서 사용된 중요한 단어들을 당신 자신의 말로 설명하고 정의하라. 이 내용을 롬 4장과 갈 3장과 연결시켜 보라.
2. 왜 많은 이들이 창 15:11의 내용을 우회적으로 해석하는가?
3. 하나님께서 연기 나는 화로와 횃불로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일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창 15:17)?
4. 왜 가나안 족속이 다르게 열거되고 있는가(참조, 15:19-21)?



# 창세기 16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사래와 하갈	하갈과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출생	하갈과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출생
16:1-6	16:1-6	16:1-6	16:1-4	16:1-2 16:3-6
	16:4-6		16:5 16:6	
16:7-14	16:7-14	16:7-14	16:7-8a 16:8b 16:9-12	16:7-14
(11-12)	(11-12)	(11-12)	(11-12) 16:13-14	(11-12) 16:13-14
16:15-16	16:15-16	16:15-16	16:15-16	16:15-16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개역개정 16:1-6

<sup>1</sup>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sup>2</sup>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sup>3</sup>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 후였더라 <sup>4</sup>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sup>5</sup>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sup>6</sup>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16:1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의 이름은 “도망치다”(BDB 212)를 의미한다. 이 일은 그녀의 삶을 특징지었다(참조, 6,8 절). 그녀는 이집트 여자였는데 아마도 그들이 이집트에 있는 동안 사래가 그녀를 샀을 것이다(참조, 창 12:10-20).

16:2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부부가 야웨의 계시에 대해서 또한 그 약속이 늦어짐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도울 수 있을까”를 궁리하기 시작했음이 분명하다!

“허락하지 않다”라는 동사(BDB 783, KB 870, **칼 완료형**)는 완료된 행위를 나타낸다. 사래는 자신이 영원토록 아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래는 자신이 계속해서 불임인 것에 대해 야웨를 원망했을 것이다(참조, 20:18). 이 일이 지연됨은 그들로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성숙하게 하고 또 후세에 하나님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의 일부였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일이 일어나는 시기에 대해 씩씩하다.

▣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 동사(BDB 97, KB 112)는 **칼 명령**으로서 요청의 의미로 사용되었다(참조, 30:3). 이 동사는 종종 성적인 관계를 뜻하는 완곡어법적 용례를 갖는다(참조, 창 6:4; 16:2; 19:34; 30:3; 38:8,9; 39:14; 신 22:13; 25:5; 삼하 11:4; 12:24; 16:21-22; 20:3; 잠 6:29).

▣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것은 주전 두 번째 천년의 기간에 속하는 후리족의 문화에 대한 기록인 누지 서판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 하갈의 자녀는 법적으로 사래의 자녀 및 아브람의 상속자가 되었다.

▣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이것은 창세기 3 장(특히 17 절)에 나타난 문제점과 거의 평행을 이룬다. 아브람은 자신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을 어떤 일을 하도록 유혹을 받았다. 이 동사는 문자적으로 “듣다”(BDB 1033, KB 1570)를 뜻하는 **미완료 시제**로서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낸다. 일부일처제는 원래의 창조에 나타난 이상적인 결혼형태였는데 이것이 상실되었다. 놀랍게도 이 일은 하나님을 “도와 드리려는” 시도에서 행해졌다!

16:3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 후였더라” 하나님께서 창 15 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지 적어도 10 년이 지났음을 유의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였음에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도와 드릴 방법을 생각하려고 시도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금 특별히 나타낸다. 바울은 갈 4:21-31 에서 이 단락을 하나의 우화로써 사용한다.

▣ “**첩으로 준**” 하갈은 더 적절히 말하면 그의 첩이었다. 비록 이곳에 “아내”라는 히브리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그녀는 분명히 아내가 아니라 첩이었다(즉, 제한된 권리를 갖는 여성인 성 상대자).

16:4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동사(BDB 886, KB 1103, **칼미완료형**)는 다음의 내용을 뜻할 수 있다

1. 가볍다
2. 신속하다
3. 중요하지 않다(참조, 삼상 2:30; 욥 40:4)

이 단어의 *히필형*은 무시함을 나타낸다(참조, 삼하 19:43; 사 23:9; 겔 22:7). 히브리인의 생각에 의하면 존경하는 것 혹은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

16:5 대인 관계의 신비함이 잘 드러나고 있다. 사래가 이 제안을 내었었는데 이제 그녀가 그 결과를 인해 힘들어 한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건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자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세세한 모든 배경과 그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 말해지지 않고 있다. 아브람은 아마도 초기에 더 깊이 관여했을 것이다. 역사적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독자는 “왜 이것을 기록하였는가?”를 반드시 자신에게 질문해야만 한다. 아브람과 사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행동이 열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과 인내가 열쇠임을 반드시 배워야 했다!

이 절에 기록된 내용이 법적 관용어이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사래는 노예가 거만한 자세로 행하는 경우에 대해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즉, 함무라비 법전과 누지 서판). 그녀가 취한 모든 행동이 문화적/법적으로 받아들일 만 하였지만 하갈의 태도는 그렇지 못했다. 아브람은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했다.

▣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동사(BDB 1047, KB 1622)는 **칼미완료형**으로서 **지시형**의 의미를 갖는다. 야웨께서 정확히 무엇을 하시기를 그녀가 원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분명한 것은 사래는 하갈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거부하는 마음 혹은 하려는 계획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한 것이었다. 한편 이 문장은 아브람과 사래 사이에 커져가는 갈등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

16:6 이 일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잔인하게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우리의 기준에 맞추어 평가해서는 안되며 당시의 기준에 비추어 평가해야 한다. 이 일은 누지 서판 및 함무라비 법전에서 첩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말하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 내용은 창 3:11-13 에 나오는 내용과 어떤 면에서 평행을 이룬다. 아브람은 가장으로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을 사래에게 넘겨버렸다. 인간은 책임을 회피하고 핑계를 대려는 경향이 있다!

▣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이 동사(BDB 776 III, KB 853)는 *피엘*로서 비천하게 함 혹은 학대함을 뜻한다(참조, 31:50; 출 22:21,22[강화된 형태로 두 번 사용됨]; 욥 30:11). 하갈의 태도와 행동은 사래가 한 행동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 죄악된 인간은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이다. 성숙한 신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하갈이 임신한 후에 사래가 그녀를 종의 위치로 복귀시키고 또 그녀를 아브람의 성적 상대자에서 배제시켰을 것이 분명하다.

▣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종이 도망치는 일은 법적으로 심각한 일로서 이에 대한 중대한 결과가 따랐을 것이다. 이 일은 창 21:8-21 에 기록된 사건과 매우 비슷하다. 다음 절들은 첩이었던 하갈과 그녀의 자식에게 까지 나타내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드러낸다. 야웨의 사랑은 아브람의 가족에게로만 제한된 것은 아니었다(즉, 멜기세덱, 욥).

**개역개정 16:7-14**

<sup>7</sup>여호와와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sup>8</sup>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sup>9</sup>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sup>10</sup>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sup>11</sup>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sup>12</sup>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sup>13</sup>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와 이름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sup>14</sup>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16:7 “여호와와 사자가” 이 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사 임재하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2:7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지리적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모르지만 이 곳은 이집트로 가는 길 위에 있던 브엘세바의 남쪽에 위치했을 것이다. 하갈은 고향으로 가는 중이었다.

16:8 이 절에서와 같이(즉, 3:9,11; 4:9,10)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질문을 하는 내용이 기록된 절은 신학적으로 “열린 신론”(open theism)으로 불리는 본문을 이룬다. 이러한 질문을 글자대로 취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음의 내용을 모르시는 것을 신학적 전제로 갖게 된다

1. 미래를 모르심
2. 사람의 역사적 행위를 모르심

나는 헬라 철학(즉, 하나님의 속성을 철학적으로 발전 시킨 것)을 지지하지도 않고 창세기 기록의 역사성을 부인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나는 창세기의 기록이 은유적 표현을 사용한 문학적 자료임 (인간의 모든 의사소통이 이러하듯이)을 주장한다. 문제의 핵심은 성경에 나오는 질문의 목적이 무엇인가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잘 알지 못하심을 말하거나 인간을 잘 알아가기 위해 하시는 일인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시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시고 계심을 주장하는 매우 많은 본문이 있기에, 나는 열린 신론이 A. N. 노스(North)의 신학(즉, 과정 신학)을 재구성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본다.

16:9 천사가 그녀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한다.

1. 돌아가라 - BDB 996, KB 1427, **칼 명령**
2. 복종하라 - BDB 776 III, KB 853, **히트파엘 명령**

이 메시지는 하갈의 아이가 아브람의 영향 밑에서 성장하는 것(즉, 야웨를 앎)이 야웨의 뜻임을 암시한다.

▣ “복종하라” 이것은 6 절에서 “학대하다(BDB 776 III, KB 853)로 번역된 동사 및 11 절에서 “고통”(BDB 777)으로 번역된 명사와 같은 단어이다. 야웨께서는 사래와의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약속을 하시지 않고 그 사내 아이(즉, 이스마엘)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다.

16:10-12 여호와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15:5 에서 아브람에게 하신 말씀과 매우 비슷하다. 그 아이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더불어 어떤 커다란 약속을 주셨다. 하갈은 야웨께서 자신을 돌보실 것을 인해 압도되었다.

16:10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약속은 17:20 에서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으로서 아브람에게 반복되어 나타난다.

같은 어근(BDB 915, KB 1176, 둘 다 *히* *꺄*)의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 동사가 함께 사용되어 강조를 나타낸다. 야웨를 뵈고 알며 그의 말씀을 신뢰함은 축복을 가져온다! 어떤 면에서 볼 때 하갈은 아브람이 했던 것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반응했다. 심지어 그녀는 아브람이 했던 것과 달리(기록된 것으로만 본다면) 질문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일은 아이에 대한 축복의 약속과 더불어 어려운 시기가 있을 것임에 대한 계시였다. 창 15:6 은 아브람에게 있어 구원의 시작점이었다. 하갈도 분명히 같은 자세로 응답했을 것이다! 영원한 구속 계획을 바라보는 편향을 가진 나로서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받아주신 일이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한 놀라운 증거가 된다고 믿는다(12:3의 특별주제를 보라). 어떤 면에서 이 일은 “열방”이 아브람과 같은 모습으로 환영받음을 나타내는 예이다—순종을 가져오는 믿음으로써. 구약의 여러 곳에서 대위임에 대한 단서/암시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심장은 잃어버려진 세상 및 만드신 회복되어야 할 깨어진 관계를 인해 고통치고 있다! 이사야가 세계에 대해 본 이상, 요나의 이야기 및 신약은 이러한 진리를 말해준다.

16:11-12 NASB 는 11-12 절을 시로써 제시한다(참조, 12:1-3; 14:19-20; 15:1,18; 17:1-2,4-5). 12 절은 그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일 것인가에 대해 설명한다.

16:11 “네가 임신하였은즉” 이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참조, 4 절). 그 아이가 사내아이라는 점이 새로운 사실이다.

▣ “이스마엘” 이 이름의 뜻은 “엘이 들으시다” 혹은 “엘께서 들으시기를 원한다”(BDB 1035, KB 447)이다. 같은 절에서 천사가 말하기를 “야웨께서 들으셨으니”라고 말하는데 이는 문자적으로 “들었다”(BDB 1033)이다.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짓고 계심을 주목하라(참조, 마 1:21,25; 눅 1:31,35; 2:21).

16:12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이 단어의 어근(BDB 825)은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닌다

1. 아카디아어 - 노새
2. 앗시리아어 - 들 노새
3. 아랍어 - 들 나귀
4. 히브리어 - 들 나귀나 말(앵커 성경 주석의 창세기, 118 쪽)

이 명칭이 고대 근동에서 알잡아 보는 말이 아님을 주목하라. 이 짐승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제사를 위해 사용한 동물이었다. 이들은 매우 값이 있었고 또 귀히 여김을 받았다. 이 절은 이스마엘의 격리된 경향(즉, 유목적인 목자)을 뜻한다. 이스마엘은 자신의 자유를 즐기고 또 유목적인 생활을 할 것이다. 다음의 두 시행은 이러한 유목적 삶을 설명한다(독립적이고,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어떤 동맹관계도 맺지 않는 삶).



NASB “그가 모든 형제의 동쪽에서 살리라”  
 NKJV “그리고 그가 모든 형제의 앞에서 거하리라”  
 NRSV “그리고 그가 그의 모든 친지와 다투며 살리라”  
 TEV “그가 모든 친척에게서 떨어져 나와 살리라”  
 NJB “그의 모든 친지에게 반항하며 사는 삶을 살면서”

“동방”이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 가능한 어원적 배경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1) 동쪽에 (문자적으로는 “~의 앞 쪽에,” BDB 815) (2) “에 저항하여.” 이 문맥에서는 두 어원이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정확히 중동의 베두인 부족에 대한 설명이다.

16:13-14 “살피시는 하나님(엘)”이라는 표현은 14 절에 나오는 샘을 일컫는 이름과 관련이 있다. 창세기의 앞 부분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다. 이 이름을 다 살펴볼 때 우리는 범죄한 인류(또한 여기서는 이집트 출신의 여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된다.

16:13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알려졌다(참조, 창 32:30; 출 33:20). 하갈은 하나님(즉, 하나님의 천사)께서 자신을 찾아 오셔서 하나님을 보게 된 일과 또 자신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인해 놀랐다.

이 문맥에서 그녀가 놀란 것이 무엇을 인함이었는지 알기 어렵다

1. 그녀는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봄을 인해 놀랐다(즉, 내가 하나님을 뵈었다)
2.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시고 오사 그토록 격려가 되는 말씀과 돌보심에 대해 말씀하심을 인해 놀랐다(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

나는 2 항이 이 문맥 및 14 절에 나오는 우물의 이름에 비추어 볼 때 더 적합한 이유라고 본다. *앵커 바이블* 주석의 창세기는 맞소라 본문에 나와 있는 이름이 일상적이지 않은 형태로서 두 견해를 다 지지한다고 설명한다(110 쪽).

이것은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유일한 본문이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합성적인 형태로 계시하신다(즉, *엘*에 다른 단어를 더한 형태, *야웨*에 다른 단어를 더한 형태, *엘로힘*에 다른 단어를 더한 형태). 또한 이 독특한 형태의 이름이 꺾박받는 이집트 여종에 의해 지어졌음을 주목하라. 야웨께서는 그녀를 찾아내었고 또 그녀를 대면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다!

**개역개정 16:15-16**

<sup>15</sup>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sup>16</sup>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팔십육 세였더라

16:15-16 모세가 독자들에게 아브람의 나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알려주어 우리는 아브람의 생애에 대한 약간의 연대적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래를 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특별한 아들을 노년기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점에서 중요하다.

16:15 성경은 하갈이 야웨의 약속에 대해 어떤 질문이나 머뭇거림을 가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데, 이 점은 아브람이 행했던 모습과 같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15장과 16장에서 제시하는 주된 신학적 진리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2.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디에서 언약을 맺고 계신지를 모두 말하라. 그 약속들은 조건적인 것인가 아니면 무조건적인 것인가?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3. 여호와의 천사는 누구인가? 왜 그러한가?
4. 하나님께서 하갈과 그녀의 아이를 찾으신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 창 17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	언약의 표	영원한 언약	할례, 언약의 표	언약과 할례
17:1-8  (1-5)	17:1-8	17:1-8	17:1-6  17:7-8	17:1-3a  17:3b-8
17:9-14	17:9-14	17:9-14	17:9-14	17:9-14
17:15-22	17:15-22	17:15-22	17:15-16  17:17-18  17:19-22	17:15-22
17:23-27	17:23-27	17:23-27	17:23-27	17:23-27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창세기 17 장은 창 12 장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셨고 창 15 장에서 세운 언약을 재확인하고 있다.



나. 창 15 장에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신 이래 13 년이 지났다. 창 17 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자신의 계획을 사래를 통해 이루시는 장을 제공한다.

다. 이 장은 개인의 이름과 관련된 언어유희가 연속해서 나타난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즉, 16:11-12). 삶의 중요한 시기에 그들은 이름을 바꾸어 자신의 삶에 일어난 독특한 일을 종종 나타내려고 했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17:1-8

<sup>1</sup>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sup>2</sup>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sup>3</sup>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sup>4</sup>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sup>5</sup>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sup>6</sup>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sup>7</sup>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sup>8</sup>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7:1-5 NASB 는 이 부분을 두 개의 시(1b-2 절, 4-5 절)로 나누지만, NKJV, NRSV, TEV, NJB, JPSOA 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17:1 “구십구 세 때에”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나이를 여러 차례 기록하여 그가 믿음으로 간 순례의 길에 대한 연대기를 제공한다.

1. 75 세, 12:4 - 야웨께서 처음으로 그에게 나타나심
2. 86 세, 16:16 - 이스마엘의 출생
3. 99 세, 17:1 - 야웨께서 세 번째 그에게 나타나심
4. 100 세(대략적인 숫자), 17:17 - 17 장에서의 나이임
5. 99 세, 17:24 - 할례를 행한 시기
6. 100 세, 21:5 - 이삭의 출생
7. 그의 나이를 정확히 말하지 않음, 24:1 -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임”
8. 175 세, 25:7 - 사망시의 나이

▣ “여호와께서” 야웨는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으로서 출 3:14 에서 사용된 이름이다. 이 이름이 이 장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이 이름은 일찌기 셋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사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겨진다(참조, 4:26; 또한 족장들이 자주 사용한 이름이다). 한편 출 6:3 에서 볼 때 우리는

족장들이 하나님을 야웨가 아니라 *엘 샤다이*로 불렀음을 본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을 야웨로 일컬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그들이 이 이름이 갖는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12:1의 특별주제를 보라.

▣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다(즉, 12:7; 18:1). 하지만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것으로 기록된 일이 13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나셨다. 분명히 야웨께서는 아브람의 믿음의 걸음을 시험하시고 계셨다.

▣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는 *엘 샤다이*이다. 이 용어(BDB 994)의 어원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 랍비들은 이 이름이 “스스로 충족함”을 뜻한다고 말했다. 70 인역과 별게이트역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여 이 단어를 “전능하신 하나님(*엘*)”으로 번역했다. 분명히 이 이름은 족장들이 하나님께 대해 사용한 이름이었다(참조, 출 6:3). 이 이름은 창세기에서 6번 사용되었으며 욥기에서는 31번 사용되었다. 올브라이트는 이 용어가 아카디아어 어근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산이나 바위를 뜻한다고 주장했다(참조, 시 18:1,2). 만일 이 용어가 “산의 하나님”을 정말로 의미하는 용어라면 이 이름은 가나안 사람들의 신화(참조, 사 14:13; 겔 28:2)나 바벨론의 종교(즉, 지구랫이 사람들이 건축한 산 위에 세워져 있었음, 참조, 창 11장)에서 자기들의 신들을 산에서 섬기던 일을 반영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 기원이 어떠한 간에, 출 19-20장에서와 같이 아주 이른 시기부터 그 초점이 시내 산에 계신 하나님으로 바뀌었다(참조, 사 5:5). 12:1의 특별주제를 보라.

▣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이것은 야웨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처음 두 명령이다.

1. 걷다 - BDB 229, KB 246, *히트파엘 명령*
2. 흠없이 행하다 - BDB 224, KB 243, *칼 명령*

야웨께서는 아담, 에녹, 노아와 교제하셨듯이 아브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내 앞에서 행하여”란 표현은 친밀감 곧 개인적 관계에서 나타나며 믿음과 삶으로 구별되어지는 친밀감을 나타낸다! 이 표현은 믿음으로 인한 삶의 관계에 강조점을 두는 것으로서 15:6에서 나타난 바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되는 일과 균형을 갖는다. 신약에서 바울과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 쌍둥이 강조점을 하나로 묶어 놓았다(참조, 롬 4장과 약 2장). 생활 양식이 언약의 조건이 됨을 주목하라(참조, 9절). 구약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는 무조건적이고 인간이 응답해야 하는 면에서는 조건적이다. 똑 같은 단어(BDB 229, KB 246)인 걷다가 에녹(참조, 창 5:24)과 노아(참조, 창 6:9)의 믿음의 삶을 나타내는 용어였다.

▣ “**완전하라**” 이 히브리 단어의 어근(*동사*, BDB 1070, 명사 1070, 두 개의 형용사, 1070과 1071)은 “전심,” “완전함,” “온전함,” “신실함,” “무흠함”을 뜻한다. 이 단어는 다음의 사람들에게 대해 사용되었다

1. 노아 - 창 5:9
2. 아브람 - 창 17:1(명령으로서)
3. 아비멜렉 - 창 20:5-6
4. 야곱 - 창 25:27(일반적으로 “조용한” 또는 “온화한”으로 번역됨)
5. 욥 - 욥 1:1,8; 2:3
6. 이스라엘 - 신 18:13
7. 다윗 - 삼하 22:24; 시 18:23,25,32
8. 야웨 - 신 32:4; 삼하 22:31; 시 18:30

이 단어는 또한 정결한 짐승 곧 한 품종을 온전히 대표하는 짐승으로서 제물로 드리기에 적합함을 가리켰다(즉, 출 12:5; 29:1; 레 1:3,10; 3:1,6; 4:3,23,28,32).

**특별주제: 흠없는, 무죄한, 죄없는, 책망받을 것 없는**

가. 들어가는 말

1. 이 개념은 신학적으로 인간의 처음 상태(즉, 창 1 장, 에덴 동산)를 말한다.
2. 죄와 반역은 이 완전한 교제의 조건을 대폭 파괴했다(즉, 창 3 장)
3. 인간(남자와 여자)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사모했다(즉, 창 1:26-27).
4.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과 여러 면으로 관계하신다
  - ㄱ. 경건한 지도자들(즉,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 ㄴ. 희생 제도(즉, 레 1-7 장)
  - ㄷ. 경건한 삶의 본(즉, 노아, 욥)
5.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메시아를 예비하셨다
  - ㄱ. 자신의 완전한 계시로서
  - ㄴ.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으로서
6. 그리스도인들은 흠없이 지음을 받았다
  - ㄱ. 법적으로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 ㄴ. 점진적인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 ㄷ. 기독교인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다(참조, 롬 8:28-29; 엡 1:4). 사실상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시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7. 천국은 에덴동산의 완전한 교회의 회복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정화된 땅으로(참조, 벧후 3:10)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다(참조, 계 21:2). 성경은 같은 주제로 시작하고 같은 주제로 끝 맺는다.
  - ㄱ.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 교제
  - ㄴ. 동산의 배경에서(창 1-2 장과 계 21-22 장)
  - ㄷ. 동물이 함께 있고 동반하여 나타나는 것에 대한 예언적 진술에 의해(참조, 사 11:6-9)

나. 구약

1. 히브리어의 많은 단어들인 완전함, 흠없음, 죄없음의 개념을 말하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모두 다루고 그 복잡한 관계를 모두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완전함, 죄없음, 혹은 무죄함의 개념을 뜻하는 주요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로버트 B. 거들스톤, *구약의 동의어*, 94-99 쪽):
  - ㄱ. 샬롬 (BDB 1022)
  - ㄴ. 타맘 (BDB 1070)
  - ㄷ. 칼라 (BDB 478)
3. 70 인역(즉, 초대교회의 성경)은 많은 경우 이 개념들을 신약에서 사용한 코이네 헬라어의 용어로 번역했다.
4. 기본 개념은 제사제도와 관련이 있다.
  - ㄱ. 아모모스(참조, 출 29:1; 레 1:3,10; 3:1,6; 민 6:14)
  - ㄴ. 아미안토스와 아스피루스도 제사적 의미를 갖는다

다. 신약

1. 법적 개념
  - ㄱ. 히브리어의 법적 제의적 의미는 아모모스로 번역되었다(참조, 엡 5:27; 빌 2:15; 벧전 1:19)
  - ㄴ. 헬라어의 법적 의미(참조, 고전 1:8; 골 1:22)

2. 그리스도는 죄없고 흠없으며 무죄한 분이시다(*아모모스*) (참조, 히 9:14; 뵤전 1:19)
  3.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그를 본받아야 한다(*아모모스*) (참조, 엡 1:4; 5:27; 빌 2:15; 골 1:22; 뵤후 3:14; 유 24 절; 계 14:5)
  4. 이 개념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 ㄱ. *아벡클레토스*, “비난할 것이 없는”(참조, 뤁전 3:10; 뤁 1:6-7)
    - ㄴ. *아네펠토스*, “비난이 미치지 않는” 또는 “꾸짖음 받을 거리가 없는” (참조, 뤁전 3:2; 5:7; 6:14; 뤁 2:8)
  5. “더럽혀지지 않은”(아미안토스)의 개념은 다음 경우에 사용되었다
    - ㄱ. 그리스도 자신(참조, 히 7:26)
    - ㄴ. 그리스도인의 유업(참조, 뵤전 1:4)
  6. “전체” 혹은 “전부”의 개념(*홀로크레리아*) (참조, 행 3:16; 살전 5:23; 약 1:4)
  7. “흠없는” 죄없는 무죄함의 개념을 *아뻬토스*로 나타내었다(참조, 눅 1:6; 빌 2:15; 3:6; 살전 2:10; 3:13; 5:23)
  8. “비난받을 여지가 없는”의 개념을 *아모뻬토스*로 나타내었다(참조, 뵤전 3:14)
  9. “점없는” “흠없는”의 개념은 위의 여러 용어 가운데 하나를 사용하는 본문에서 종종 나타난다(참조, 뤁전 6:14; 약 1:27; 뵤전 1:19; 뵤후 3:14)
- 라. 이 개념을 갖는 많은 히브리어와 헬리어 단어들은 이 개념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채우셨고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이 되도록 부르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하여 신자들은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옳은,” “바른,” “흠없는” 자라고 선언받았다. 이제 신자들은 자기의 신분을 갖도록 되어 있다. “그가 빛에 거하시듯이 빛 안에서 행하라”(참조, 요일 1:7).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참조, 엡 4:1,17; 5:2,15).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다. 친밀한 교제가 이제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그러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라. 우리는 거룩함 이외의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참조, 마 5:20,48; 엡 1:4; 뵤전 1:13-16). 하나님의 거룩함은 법적인 것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실제적 삶을 위한 것이다!

17:2 “내가...두어” 야웨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약속하신다

1.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신다” - BDB 678, KB 733, **칼 청유형**; 이 단어는 자주 쓰인 동사로서 여러 의미를 나타낸다. 야웨께서 아브람의 후손에게 땅을 “주신다”는 약속(12:7; 13:15; 15:7,18) 및 야웨께서 자신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신다”고 아브람이 야웨께 불평할 때(15:3)에도 이 동사가 사용되었다. 이 단어가 17장에서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를 보라.

**NASB**

- ㄱ. 세우다, 2 절
- ㄴ. 만들다, 5 절
- ㄷ. 만들다, 6 절
- ㄹ. 주다, 8 절
- ㅁ. 주다 16 절
- ㅂ. 만들다, 20 절

**NIV**

- 확인하다, 2 절
- 만들다, 5 절
- 만들다, 6 절
- 주다, 8 절
- 주다, 16 절
- 만들다, 20 절

2. “크게 번성하게 하다” - BDB 915, KB 1176, **히필 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됨(즉, 많은 자손)
3. 8 절에서는 땅을 언급하고 있다

▣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은 구약의 중심 주제이다. 야웨께서는 아브람에게 은혜로 다가 오셨지만 그는 최초의 믿음으로만 아니라 삶의 양식으로 나타나는 믿음으로써 반드시 응답해야만 했다. 친밀함에 따르는 특권과 더불어 책임이 있다. 구약의 언약은 동등한 사람들 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단지 주전 2000 년에 속하는 히타이트/봉신 조약에 있는 문화적 틀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 언약은 7 절에서 더 자세히 언급된다.

▣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은 아기를 못갖는 아내를 가진 아브람의 노년기에 야웨께서 하신 약속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주제이다(참조, 창 12:2; 15:2-5; 13:16; 17:6). 이것은 그의 이름이 바뀐 근거가 되었다. 잠시 상고하자면, 이것은 모든 형태의 생명체에 대해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신 계획이었다(참조, 창 1 장과 사 60 장의 설명을 보라).

17:3 “아브람이 없으셨더니”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경외함의 표였다(참조, 18:2). 또한 17:17 의 설명을 보라.

▣ “하나님” 엘로힘은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엘이라는 어근에 기초한 이름이다. 랍비들은 이 이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자연에 대한 지배를 나타내며 야웨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을 강조한다고 말한다. 이 견해는 자료비평(JEDP)의 이론보다 더욱 적합한 설명이라고 여겨진다. 12:1 의 특별주제를 보라.

17:4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스라엘 뿐 아니라 더 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계보에 포함될 것을 이 절이 나타냄을 주목하라(참조, 35:11; 48:4,19). 이 내용은 신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가진 모든 이의 아버지로 제시하는 배경이 된다(참조, 롬 2:28-29; 갈 3:1 이하).

17:5 “아브람” 그의 이름은 “많은 이의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것은 과학적인 의미를 뜻하는 어원이 아니라 창세기의 앞쪽에 있는 장들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바 대중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원이다. 많은 이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12:2 에서 주신 약속에 기초하는 이름이라고 말한다.

17:7 “내가 ... 세워서” 이 동사(BDB 877, KB 1086, *히필 완료형*)는 그 성취를 확신시키는 맹세의 형식으로 사용된 것이다(참조, 6:18; 17:19; 출 6:4; 레 26:9; 겔 16:62). 야웨께서는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헌신하신다.

▣ “영원한 언약을” 히브리어 용어인 “올람”(BDB 761)의 어근은 “감추이다”를 뜻한다. 이것은 “영원토록”(즉, 8,13,19 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 단어는 그 문맥에서 그렇게 해석되어야만 한다. 13:14 의 특별주제를 보라.

17:8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이것은 야웨께서 처음에 주신 약속이며(참조, 12:7; 13:15,17; 15:18) 또한 후에 야곱에게 48:4 에서 주신 약속이다.

▣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특별한 언약적 언어이다(즉, 출 6:7; 29:45; 레 26:12,25; 민 15:41; 램 7:23; 11:4; 24:7; 30:22; 31:1,33). 야웨께서는 독특하게 또 배타적 의미에서 아브람과 그의 후손을 택하시 열방에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셨다(참조, 신 7:6; 14:2; 29:12-13). 야웨는 그를 통해 열방을 사랑하셨다.

개역개정 17:9-14

<sup>9</sup>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리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sup>10</sup>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sup>11</sup>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sup>12</sup>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sup>13</sup>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sup>14</sup>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17:9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이 동사(BDB 1036, KB 1581, *칼 미완료형*)는 17:10 에서 반복된다. 언약이 조건적인 내용으로서 처음에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날 응답이었음을 기억하라. 이 진리는 다음 본문에서 명확히 드러난다—26:5; 출 12:24; 13:10; 15:26; 19:5; 20:6; 23:17; 레 18:4,5,26,30; 10:19,37; 20:8,22; 22:31; 25:18; 26:3; 신 4:2,6,9,23,40; 5:1,29; 6:2,3,12,17,25; 7:9,12; 8:1,2,6,11; 10:13; 11:1,8,22 등. 순종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이다!

17:10 “할례를 받으라” 할례(BDB 557 II)는 고대 동양에서 알려진 의식이었다. 주위의 모든 민족은 그들의 자손이 사춘기에 이르렀을 때에 할례를 행했다. 즉 앗시리아인, 바벨론인, 히위족 혹은 팔레스타인 중앙의 호리족 및 주전 1200 년 경에 팔레스타인의 남쪽 해안 지대를 침략해 온 블레셋(에게 민족, 참조, 렘 9:25-26)을 제외하고는 다 할례를 행했다. 한편 할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종교적 의미를 가졌다. 이것은 항상 내적인 믿음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표였다(참조, 신 10:16; 렘 4:4; 9:26; 롬 2:28-29; 골 2:11-13).

17:12-14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인종 및 민족에 속한 사람들도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언약에 포함되었다(참조, 출 12:44; 20:10). 이것은 신약에 나타난 바 가족 전체가 믿게 되는 일의 구약적 선례이다(참조, 행 10:2; 11:14; 16:15,31-34; 18:8).

17:12 “할례”(BDB 557 II)라는 이 단어는 이 장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다.

1. 10 절 - *니팔 부정사 절대형*
2. 11 절 - *니팔 완료형*
3. 12 절 - *니팔 미완료형*
4. 13 절 - *니팔 부정사 절대형 (미완료형 동사와 부정사 절대형이 함께 사용되어 행동의 강조를 나타낸다. “네가 반드시 할례받아야 한다”)*
5. 24 절 - *니팔 부정사 연계형*
6. 25 절 - *니팔 부정사 연계형*
7. 26 절 - *니팔 완료형*
8. 27 절 - *니팔 완료형*

야웨께서는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하나의 문화적 관습을 취하사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이 된 것과 또 그 일이 시작된 때를 나타내게 하셨다. 이것은 위생상의 목적이 아니라 종교적인 목적을 가졌다.

17:14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것은 “언약을 세우다”(칼 형, 참조, 15:10)에서 사용된 동사와 같은 단어이다. *니팔* 형에서 이 단어는 사형 선고로 나타낸다(참조, 출 12:15,19; 30:33,38; 31:14; 레 7:20,21,25,27; 17:4,9,14; 18:29; 19:8; 20:17,18; 22:2; 23:29; 민 9:13; 15:30,31; 19:13,20; NIDOTTE 제 3 권 431 쪽의 설명을 보라). 불순종에는 심각한 결과가 따른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을 개인에게 적용시킴에 영향을 미친다.

일부 학자들이 이 동사가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고 공동체에서 배제됨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있어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역개정 17:15-21

<sup>15</sup>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sup>16</sup>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sup>17</sup>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sup>18</sup>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sup>19</sup>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sup>20</sup>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sup>21</sup>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17:15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두 이름이 같은 뜻을 가졌지만 하나는 더 오래된 형태의 이름이다. 어떤 이들은 이 단어의 어근이 “다스리다”라는 동사에서 온 “공주”(BDB 971 I, KB 1354 I, 사라 - KB 1354 II)를 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단어의 어근으로서 “다투다”가 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어근은 “이스라엘”(참조, 32:28, BDB 975 I)과도 관련이 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다투다”(KB 1354 I)의 어근에서 왔다.

사라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브라함의 아내였다
2.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다, 창 11:29-30
3. 아브라함의 이복동생이었다, 창 20:12
4. 매우 예뻐다, 창 12:10-13; 20:1-7 에서 이 점을 암시한다
5. 시기심이 많은 부인이었다. 창 16 장; 21:8-21
6.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랬듯이(창 17:17) 웃었다, 창 18:12-15
7. 127 세에 죽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 창 23:2-20
8. 그녀의 삶은 하갈과 더불어 우화적으로 말해진다, 갈 4:21-31
9. 그녀의 삶은 여인들에게 본이 되었다, 뱀전 3:1-6

17:16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이 일은 약속을 주신지 13 년 후에 일어났다.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는 언약을 성취하는 약속의 씨가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15:6 에서 하나님을 믿었지만(참조, 롬 4:3), 여러 해가 지난 후에야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

▣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70 인역, 폐쉬타, 벌게이트역은 모두 이삭을 가리키는 남성형으로 되었었지만, 이 내용은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과 평행을 이루는 말씀이다.

▣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강조점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있음을 다시금 주목하라(참조, 6 장).

17:17 야웨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시험하시고 계신다. 여러 해가 지난 후(즉, 13 년) 그는 자신이 아이(아들, 상속자)를 갖게 될 것을 여전히 믿고 있는가(참조, 15:6)? 아브라함이 “웃었고”(17:17), 사라도 “웃었다”(18:12,13,15). 이 사실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1. 약속의 성취를 인한 기쁨(참조, 21:6)
2. 의심의 태도(참조, 19:14)

바울은 롬 4:19 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것은 하갈을 취하여 예언의 성취를 도우려 했던 초기의 믿음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시험을 거친 후에 나온 성장한 믿음을 가리키는가? 완전한 사람은 없었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창세기에서의 초점은 아브람이나 사라의 신실함이 아니라 야웨의 신실하심에 있다!

아브라함의 외적 행동인 “땅에 얼굴을 대다”와 그의 내적 반응인 “웃었다” 사이의 거리를 주목하라! 하나님만 양 쪽을 다 보실 수 있으시다.

17:18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하갈의 경우에서와 같이)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을 “도우려는” 또 하나의 시도이거나 이스마엘에 대한 아브라함의 진실된 사랑의 표현일 것이다. 칼빈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이 일을 행한 것으로 이해하여 이 절을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인다.

▣ “이스마엘” 이스마엘(BDB 1035)은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의 아들이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를 뜻하며 하갈과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언어유희일 것이다.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의 조상이다(참조, 16:10-12).

17:19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족장의 이름은 그들이 야웨와 관계를 가졌을 때에 바뀌었다. 이삭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름을 받았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삭”(BDB 850)은 “웃음”(BDB 850)과 언어유희를 이룬다. 이 이름은 21:6 에서 설명되고 있다. 사라의 불신은 “웃음”과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 “영원한 언약이” 이것은 *올림*이라는 히브리 단어와 같은 말이다(참조, 6,8 절). 이 표현은 “영원에서 영원히”가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미래로”를 뜻한다. 13:14 의 특별주제를 보라.

17:20 이스마엘의 계보를 다룬 창 25:12-18 을 보라.

17:21 이것은 창세기 12 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의 성취이다.

#### 개역개정 17:22-27

<sup>22</sup>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sup>23</sup>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sup>24</sup>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베 때는 구십구 세였고 <sup>25</sup>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베 때는 십삼 세였더라 <sup>26</sup>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sup>27</sup>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17:22 “하나님이 . . .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방법으로 행하셨다(참조, 11:5; 35:13). 오늘날의 서구인들은 이 표현이 승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지만 사실 이것은 “갑자기 떠나셨다”를 뜻하는 관용적 표현일 것이다.

17:23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나타낸다(참조, 12:4; 22:3).

17:25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베 때는 십삼 세였더라” 할례는 아랍인들에게 있어서 사춘기의 예식으로서 그들은 13 세 때에 이 일을 행한다. 이 일은 아마도 이 성경 본문에서 왔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인적인 믿음의 표(오늘날의 교단들은 이것이 유아세례와 유사하다고 여긴다)가 아니라 언약적 관계의 표로서 생후 8 일째에 할례를 행하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언약이 각 개인에게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고 또 각자가 믿음으로 살아야만 한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창세기 17 장은 창세기 12 장 및 15 장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2. 왜 족장들의 이름이 바뀌었는가?
3. 구약의 언약은 조건적인 것인가 아니면 무조건적인 것인가?
4. 언약과 언약에 따른 책임에 대해 설명하라.
5. 할례는 주위의 나라들과 어떻게 관련이 있으며 어떻게 관련이 없는가?

# 창세기 18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맛소라본문을 따름)
약속된 이삭의 출생	약속의 아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하시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다	마므레에서의 출현
18:1-8	18:1-8	18:1-8	18:1-5a 18:5b 18:6-8	18:1-5 18:6-8
18:9-15	18:9-15	18:9-15	18:9a 18:9b 18:10a 18:10b-12 18:13-14 18:15a 18:15b	18:9-15
18:16-21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중보하다 18:16-21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 18:16-21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간구하다 18:16-21 18:20-21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중보하다 18:16-21
18:22-33	18:22-33	18:22-33	18:22-25 18:26 18:27- 18:28b 18:29a 18:29b 18:30a 18:30b 18:31a 18:31b 18:32a 18:32b-33 18:33	18:22-26 18:27-29 18:30-32 18:33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이것은 매우 신인동형적 단락(하나님을 인간의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문학 형태는 항상 유대인 주석가들로 하여금 매우 예민하게 했다. 한편 우리를 포함하여 교회에 속한 많은 수의 사람들은 이것이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본다(참조, 12:7의 “여호와와의 천사”).
- 나. 창세기 18-19 장은 하나님의 두 성품인 사랑과 심판을 생생한 실재로 드러내고 있다. 이 두 성품은 하나님 안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1)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2) 악한 자의 성품을 반영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하는 소돔의 백성들에게로 전해지고 있다.
- 다. 아브라함이 18 장의 어느 시점에서 세 방문객이 초자연적 인물임을 인식했는가는 알 수 없다. 기록된 내용은 많은 부분이 단순히 동양적인 관습을 나타낸다.
1. 그는 땅에 엎드려 절했다(참조, 창 23:7; 33:6-7; 42:6; 43:26)
  2. 그는 그들의 발을 씻었다(참조, 창 19:2; 24:32; 43:24)
  3. 그는 음식을 대접했다(참조, 5 절)
  4. 그는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서 있었다(참조, 8 절)
  5. 그는 그들을 아도나이로 불렀는데 이것은 “~님”의 의미가 아니었다(참조, 3 절)
- 이 일의 또 다른 면을 살펴보면 그가 매우 일찌기 그들이 초자연적 인물이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1. 그가 급히 달려갔는데(참조, 2,6,7 절) 이러한 행동은 족장이 더운 한 낮에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었다
  2. 그가 준비한 음식의 양이 대단했다(참조, 6 절)
  3. 그 자신이 자신의 짐승 떼로 가서 짐승을 취하여 왔는데 이는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었다(참조, 7 절)

9 절에서 볼 때 그는 세 방문자의 한 사람이 야웨이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8:1-8

<sup>1</sup>여호와께서 마르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sup>2</sup>눈을 들어 본즉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sup>3</sup>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sup>4</sup>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sup>5</sup>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sup>6</sup>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sup>7</sup>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sup>8</sup>아브라함이 영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18:1 “여호와께서 . . .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나타났다”라는 동사(BDB 906, KB 1157, 니팔 미완료형)는 창세기에서 7 번 사용되었다(참조, 12:7[2 회]; 17:1; 18:1; 26:2,24; 35:1,9). 이 단어는 개인적이고 신체적인 현현을 의미한다. 야웨께서 영원토록 영이시기에 이렇게 육체를 갖고 나타나신 일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랍비들이 말하는 바 18 장이 17 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야웨께서 아브라함이 할레에서 회복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아시고자 방문하신 것이라고 설명하는 점은 나에게 흥미롭다. 사실상 랍비들은 세 방문자가 모두 천사들로서 야웨를 대표하고 있을 뿐이라고 본다. 그들은 (1) 한 천사는 사라의 임신을 돕기 위해서 왔고 (2) 한 천사는 아브라함의 회복을 위해서 왔으며 (3) 또 다른 천사는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주장한다.

특별주제: 인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신인동형적 언어)

I. 이러한 용법은 구약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종류의 표현이다(일부만 예로 들었음)

가. 신체의 일부

1. 눈 - 창 1:4,31; 6:8; 출 33:17; 민 14:14; 신 11:12; 속 4:10
2. 손 - 출 15:17; 민 11:23; 신 2:15
3. 팔 - 출 6:6; 15:16; 신 4:34; 5:15; 26:8
4. 귀 - 민 11:18; 삼상 8:21; 왕하 19:16; 시 5:1; 10:17; 18:6
5. 얼굴 - 출 33:11; 민 6:25; 12:8; 신 34:10
6. 손가락 - 출 8:19; 31:18; 신 9:10; 시 8:3
7. 소리 - 창 3:8,10; 출 15:26; 19:19; 신 26:17; 27:10
8. 발 - 출 24:10; 젤 43:7
9. 인간의 모양 - 출 24:9-11; 시 47 편; 사 6:1; 젤 1:26
10. 하나님의 천사 - 창 16:7-13; 22:11-15; 31:11,13; 48:15-16; 출 3:4,13-21; 14:19; 삿 2:1; 6:22-23; 13:3-22

나. 신체적 행동

1. 창조의 방편으로 말씀하심 - 출 1:3,6,9,11,14,20,24,26
2. 에덴에서 걸으심(즉, 소리) - 창 3:8; 레 26:12; 신 23:14

3. 노아의 방주 문을 닫으심 - 창 7:16
4. 번제를 흠향하심 - 창 8:21; 출 29:18,25; 레 26:31
5. 내려 오심 - 창 11:5; 18:21; 출 3:8; 19:11,18,20
6. 모세를 묻으심 - 신 34:6

다. 인간의 감정

1. 후회하심/회개하심 - 창 6:6,7; 출 32:14; 사 2:18; 삼상 15:29,35; 암 7:3,6
2. 화내심 - 출 4:14; 15:7; 민 11:10; 12:9; 22:22; 25:3,4; 32:10,13,14; 신 6:15; 7:4; 29:20
3. 시기하심 - 출 20:5; 34:14; 신 4:24; 5:9; 6:15; 32:16,21; 수 24:19
4. 싫어하심/혐오하심 - 레 20:23; 26:30; 신 32:19

라. 가족적 용어

1. 아버지
  - ㄱ. 이스라엘의 - 출 4:22; 신 14:1; 사 1:2; 63:16; 64:8
  - ㄴ. 왕의 - 삼하 7:11-16; 시 2:7
  - ㄷ. 아버지의 행동을 은유적으로 - 신 1:31; 8:5; 시 27:10; 잠 3:12; 렘 3:4,12; 31:20; 호 11:1-4; 말 3:17
2. 부모 - 호 11:1-4
3. 어머니 - 시 27:10(젓먹이는 어머니에 대한 유추); 사 49:15; 66:9-13
4. 신실한 젊은 연인 - 호 1-3 장

II. 이러한 종류의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

- 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을 남성으로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 표현은 신인동형적 표현이다!
- 나. 타락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있는 관계를 취하여 말씀하신다(아버지, 어머니, 부모, 연인)
- 다. 비록 그것이 필요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육체적 형태로 제한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참조, 출애굽기 20 장; 신명기 5 장)
- 라. 궁극적인 신인동형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나타난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만진 바 되셨다(참조, 요일 1:1-3).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다(참조, 요 1:1-18).

▣ “마르래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똑 같은 지명이 13:18 과 14:13 에서 언급되고 있다. 반건조 기후 지역에서 나무가 갖는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함이 매우 중요하다. 나무들은 거룩한 모습을 갖는 것으로 대개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나무가 지하수의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이었다. 또한 나무는 이 지역에서 30 도 이상의 차이를 내는 그늘을 제공하였다. 사실상 이 나무는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테레빈 나무였을 것이다(참조, UBS, 번역가들을 위한 도움서, 성경의 동식물, 154-155 쪽). 랍비들은 이것이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과수원을 뜻한다고 말한다.

▣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이것은 당시의 문화에 잘 들어 맞는데 그 이유는 천막의 입구의 덮개를 하루 중 더운 때에 거두어 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일사병을 피하기 위해 한 낮에는 편안히 쉬면서 잠잠히 있었을 것이다.

18:2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우리는 19:1 에서 두 명은 천사였음을 알게 된다(참조, 히 13:2).

▣ “몸을 땅에 굽혀” 이 행위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1. 동양에서의 인사법(즉, 23:7; 33:6-7; 43:28)
2. 존경의 표시(신적 존재의 방문, 즉, 19:1; 또는 야웨 자신, 24:26,48,52)
3. 두려움에 따른 행동(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객으로 있었다, 문맥적 통찰, 다 항을 보라)

18:3 “내 주여” 이 단어는 *야도나이*(BDB 10)라는 단어를 구성하는 자음으로 되어 있다. 이 단어에 있는 점 표시는 이 이름이 무엇을 나타낸다고 맛소라 학자들이 이해했는가를 보여준다(즉, 아래의 3항). 이 호칭은 세 가지 방법으로 점이 표시되었다: (1) “님” 혹은 “씨”를 뜻하는 표시방법 (2) 이 호칭의 복수형, 주로 왕이나 주를 나타냄 (3)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즉, 이곳에서 그러함)인 *하야도나이*. 12:1의 특별주제를 보라.

▣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것은 동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이다(참조, 30:27).

▣ 3-5 절은 예의있으면서도 긴급한 간청의 연속이다.

1. 머물러 잠시 쉬라는 간청(BDB 716, KB 778,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3 절
2. 물을 가져 와서(BDB 542, KB 534, *호플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그들의 발을 씻을 수(BDB 934, KB 1220, *칼 명령*) 있게 해달라는 간청, 4 절
3. 영예로운 장소에 있는 큰 나무에 와서 쉬라는 간청(“기대다,” BDB 1043, KB 1612, *니팔 명령*), 4 절
4. 아브라함이 음식을 준비하여 가져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간청(BDB 542, KB 534, *칼 청유형*), 5 절
5. 그들 자신의 힘이 생기게/필요한 것을 드시라는 간청(BDB 703, KB 761, *칼 명령*), 5 절

18:4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그 당시에 “쉬다”라는 용어는 먹을 것을 준비하라는 뜻이었다. 대개의 경우 교제는 식사 시간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식사는 사립과 동의함을 공고히하는 방법이었다.

18:5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사라가 6 절에서 만든 빵의 크기가 약 30 리터의 반죽으로 만든 것임을 고려할 때 이 표현은 절제된 표현이다.

▣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 시점에서 조차’를 암시하는 관용적 표현이다. 아브라함은 이들의 방문이 우연한 일이거나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님을 안 것으로 보인다. 9 절에서 볼 때 이 방문이 사라의 믿음을 굳게 하고 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족장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역이었던 중보자로서의 그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18:6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 손님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하기 위해 달려 나간다 (6,7 절에서 *동사*가 세 번 사용되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1. 빨리 준비하라, BDB 554, KB 553, *피엘 명령*
2. 그것을 반죽하라, BDB 534, KB 525, *칼 명령*
3. 떡을 만들라, BDB 793, KB 889, *칼 명령*

▣ “세 스아” 이것은 *세아*(BDB 684)라는 용어로서 한 *세아*는 1/3 에바에 해당하는 부피였다.

**특별주제: 고대 근동에서의 무게와 부피(도량형)**

상업적으로 사용한 무게와 양은 고대 농업경제에 있어서 중요했다. 성경은 유대인이 서로 공정하게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참조, 레 19:35-36; 신 25:13-16; 잠 11:1; 16:11; 20:1). 실제적인 문제는 정직성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된 표준화 되지 않은 용어와 체계였다.

두 개의 저울 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양에 대한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성경 해석자의 사전 제 4 권 831 쪽을 보라). 또한 이집트의 10 진법(10 을 기초로 하는)은 메소포타미아의 60 진법(6 을 기초로 하는)과 결합되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용된 “크기”와 “양”은 어느 것도 규격화되지 않았다. 그것은 신체의 일부분이나 동물에 실을 수 있는 적재량, 혹은 농부의 용기를 기초로 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오직 어림짐작이었고 임시적이었다. 무게와 양을 나타내는 가장 이른 시기의 방법은 상호관계를 도식화함으로써 이다.

I. 자주 사용된 부피와 관련된 용어

가. 마른 것의 양

1. 호멜(BDB 330, 아마도 “한 마리의 나귀에 실을 수 있는 양,” BDB 331), 예, 레 27:16; 호 3:2
2. 레텔(또는 레텍, BDB 547, 아마도 호 3:2 에서 암시됨)
3. 에바(BDB 35), 예, 출 16:36; 레 19:36; 겔 45:10-11,13,24
4. 스아(BDB 684), 예, 창 18:6; 삼상 25:18; 왕상 18:32; 왕하 7:1,16,18
5. 오멜(BDB 771 II, 아마도 “곡물 한 단” [벤 곡식 한 단], BDB 771 I), 예, 출 16:16,22,36; 레 23:10-15
6. 잇사론(BDB 798, 에바의 “십분의 일”), 예, 출 29:40; 레 14:21; 민 15:4; 28:5,13
7. 카브(또는 캡, BDB 866), 참조, 왕하 6:25

나. 액체의 양

1. 고르(BDB 499), 예, 겔 45:14(이는 또한 마른 것의 부피를 재는 것이었다, 참조, 대하 2:10; 27:5)
2. 바트(BDB 144 II), 예, 왕상 7:26; 대하 2:10; 4:5; 사 5:10; 겔 45:10-11,14
3. 힌(BDB 228), 예, 출 29:40; 레 19:36; 겔 45:24
4. 록(BDB 528), 참조, 레 14:10,12,15,21,24

다. 도표(로랜드 드보의 *고대 이스라엘* 제 1 권 201 쪽과 *유대 백과사전* 제 16 권 379 쪽에서)

호멜(마른 것) = 고르(액체)	1						
에바(마른 것) = 바트(액체)	10	1					
스아(마른 것)	30	3	1				
힌(액체)	60	6	2	1			
오멜/잇사론(마른 것)	100	10	-	-	1		
카브/캡(마른 것)	180	18	6	3	-	1	
록(액체)	720	72	24	12	-	4	1

II. 자주 사용된 무게의 용어

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세 가지 무게 단위는 달란트, 세겔, 게라였다.

1. 구약에서 가장 큰 무게의 단위는 달란트이다. 출 38:25-26 에서 1 달란트는 3,000 세겔에 해당한다(즉, “대략적인 무게,” BDB 503).
2. 세겔(BDB 1053, “무게”)은 아주 많이 사용되었다. 본문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것이 진술되지 않았다. 구약은 세겔의 여러 가치를 언급한다.
  - ㄱ. “상업적 표준”(NASB 참조, 창 23:16)

- ㄴ. “성소의 세겔”(NASB 참조, 출 30:13)
- ㄷ. “왕의 저울에 의해” (NASB 참조, 삼하 14:26), 또한 엘리판틴 파피루스에서도 “왕의 저울”이라고 불림.
- 3. 게라(BDB 176 II)는 1/20 세겔의 가치를 가졌다(참조, 출 30:13). 이 비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비율을 따랐다 (우가릿).
- 4. 미나(BDB 584)는 50 혹은 60 세겔의 가치이다. 이 용어는 주로 후기에 기록된 구약성경의 본문에 나타난다(예, 켈 45:12; 스 2:69; 느 7:70-71). 가나안에서는 50:1의 비율을 사용한 반면 에스겔서는 60:1의 비율을 사용했다.
- 5. 베카(BDB 132, “반 세겔,” 참조, 창 24:22)는 구약에서 오직 두 번 사용되었고(참조, 창 24:22; 출 38:26) 1/2 세겔의 가치를 가졌다. 이것의 이름은 “나누다”란 의미이다.

나. 도표

1. 출애굽기에 기초하여					
달란트	1				
미나	60	1			
세겔	3,000	50	1		
베카	6,000	100	2	1	
게라	6,000	1,000	20	10	1
2. 에스겔서에 기초하여					
달란트	1				
미나	60	1			
세겔	3,600	60	1		
베카	7,200	120	2	1	
게라	72,000	1,200	20	10	1

18:7-8 6-8 절은 값비싸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타낸다. 아브라함은 이 손님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대접하였다! 이들은 중요한 방문객들이었다!

18:8 “아브라함이 . . . 나무 아래 모셔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필로, 요세푸스, 요나단의 탈굼은 이 내용을 “그들은 식사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신약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우리로서는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이후에 식사하셨음(참조, 눅 24:41-43)을 본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음식을 드시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유대인 저자들은 이러한 신인동형적 진술을 상당히 불편하게 여겼다.

개역개정 18:9-15

<sup>9</sup>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sup>10</sup>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sup>11</sup>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sup>12</sup>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sup>13</sup>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sup>14</sup>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sup>15</sup>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18:9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그녀의 이름을 알았다! 이 문화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그의 아내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은 매우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었다. 이 질문은 이 방문자들이 아브라함에게 대해 가진 친밀감을 보여준다.

18:10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이것은 같은 히브리 단어(BDB 996, KB 1427)가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으로서 함께 사용된 경우로서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 “내년 이맘때 . . .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7:15-21 에서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이다. 그런데 이 문맥에서는 이 말씀을 사라에게도 주시고 계신다.

NASB 의 “내년 이맘때”는 “소생의 때”(BDB 311 I, 3, 즉, 봄)라고 되어 있는 맛소라 본문의 문자적 이해가 아니다. 이 말씀이 14 절에서 반복되는데 그곳에서는 “기한이 이를 때에”(BDB 417)라는 표현이 추가되었다. 이 표현이 추가된 것은 그 기간이 만 일년이 아니라 9 개월 후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참조, 왕하 4:16-17).

18:11 이것은 이야기하는 사람(즉, 저자)의 설명이거나 후기에 속하는 영감받은 편집자의 글이다. 영감은 믿음과 관련된 주제이다. 신자들은 모든 정경적 성경의 참된 저자는 성령이심을 확신한다. 성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와 그 최종의 시기에 대하여는 알려져 있지 않다.

18:12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아브라함은 17:17 에서 웃었다. 사라가 웃은 이유는 아브라함과 자기 자신이 모두 다 늙었기에 이제 아기를 낳는 일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녀가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녀가 한 말은 뱀전 3:6 의 저자에 의해 사용되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존경을 그녀가 나타냈음을 보여준다. 분명히 그녀의 월경은 그쳤고 때로는 성생활 조차도 갖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듯이,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심을 인해 사라가 임신을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도 여러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18:1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세 명의 방문자 가운데 한 명은 야웨 자신으로 밝혀진다. 야웨께서는 그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믿음을 대하심에 따른 진리는 히 11:11 에서 볼 수 있다. 자신이 웃지않았다고 사ارا가 부인한 일을 통해 사라의 인간적인 모습을 어느 정도 보게 된다(참조, 15 절). 21:3,6,7 에서 우리가 보게 되듯이, 하나님은 후에 이 약속된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 12 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이후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25 년이 걸렸음을 주목하라.

▣ “이르기를” 야웨께서는 사ارا가 가진 생각을 인용하여 말씀하사 자신의 전지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자신의 약속이 확실함을 보이신다.

18:14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야웨의 전지하심은 그의 전능하심과 짝을 이룬다(참조, 렘 32:17,27; 마 19:26). 야웨께서는 아브라함과 사ارا가 자신을 믿고/신뢰함을 돕고 또 이를 확인해 주시고자 하신다! 야웨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에 진실되시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한다! 그분은 말씀하시며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능하지 못한(어려운)”이라는 단어(BDB 810, KB 928)는 “극도의,”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를 뜻한다. 이 단어가 출 15:11; 시 77:14; 78:12; 88:10; 119:129; 139:6; 사 9:6; 25:1; 29:14; 단 12:6 에서 사용됨을 주목하라.

족장들의 큰 부인들의 경우 하나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자녀를 가질 수 없었던 사실은 흥미롭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목적과 영원하신 계획을 보이시는 한 가지 길이였다. 이

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을 예시한다. 영원한 구속 계획과 인물과 계보를 가지고 계신 야웨께서 이 일을 발전시키시며 보호하실 것이다!

▣ “기한이 이를 때에” 10 절의 설명을 보라.

18:15 아브라함과 사라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들은 둘 다 타락된 모습(즉, 창 3 장)을 보여준다. 그들은 둘 다 믿음과 의심을 함께 갖고 있었다!

**개역개정 18:16-21**

<sup>16</sup>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sup>17</sup>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sup>18</sup>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sup>19</sup>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sup>20</sup>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sup>21</sup>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18:16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제롬은사해 지역을 평지에 있는 도시들까지 내려다볼 수 있는 장소가 헤브론 근처에 한 곳 있었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현대 고고학자들은 평지의 도시가 사해 남단에 위치했다고 추정한다.

18:17-19 이것은 야웨의 독백 혹은 아브라함이 들을 수 있게 야웨께서 나지막이 하신 말씀으로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야웨께 가지는 독특한 관계를 깨닫게하시기 위한 내용으로 보인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불린 배경을 이룬다(참조, 대하 20:7; 사 41:8; 약 2:23). 이러한 종류의 진리가 요 15:15 에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의 말씀에 나타난다.

야웨께서는 자신이 곧 행하시려는 일을 드러내사(즉, 평지에 있는 성읍들에 대한 심판, 참조, 19 장) 사를 통해 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격려받기를 원하셨다. 아브라함의 계보는 열방을 하나님 자신께로 이끌어 오고 또 에덴에서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시킴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말해진다(참조, 20:7). 야웨께서는 독특하면서도 예언적 방법으로 선지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즉, 암 3:7).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사건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대변인임을 보여준다.

18 절은 12:1-3 에서 처음에 주신 약속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다.

18:18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것은 같은 히브리 어근의 단어(BDB 224, KB 243)가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으로서 함께 사용된 경우로서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확실한 약속을 나타낸다.

▣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수동태로 번역할 것인가 혹은 재귀형(즉, 니팔형)으로 번역할 것인가에 대해 약간의 논란이 있다. 창세기의 이 단락에서 이 단어가 두 가지 형태로 다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내용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갖는 보편적인 특성을 확신시켜주고 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우리 자신을 축복하게 되는 것이든 혹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를 직접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든(즉, 메시아의 계보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의롭게 되는 개념, 참조, 15:6) 그것 자체가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참조, 12:3; 22:18; 28:14; 행 3:25; 갈 3:8).

이 절과 25 절이 전세계적인 의미를 가짐을 주목하라. 아브라함은 야웨께서 한 지역, 한 민족, 한 가족 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이러한 신학적 이해를 아브라함이 언제 갖기 시작했는지에 대해 우리는 궁금하다. 처음에는(즉, 13 장) 그 비전의 모든 의미가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고, 단지 어떤 면에 있어서만 그러했다(즉, 초기의 유일신 사상).

18:19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이것은 “알다”(BDB 393, KB 390, **칼 완료형**)라는 히브리 단어로서, 창 4:1; 19:5,8; 민 31:13 에서는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단어를 예정의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돌보았다”를 뜻할 것이다(참조, 출 2:25; 신 2:7; 33:9; 호 13:5).

**특별주제: 알다(대부분의 예를 신명기에서 들음)**

히브리어 단어 “알다”(BDB 393)는 **칼 동사형**에서 여러 의미를 가진다(의미론적인 분야).

1. 선과 악을 이해하는 것 - 창 3:22; 신 1:39; 사 7:14-15; 수 4:11
2. 이해를 통해 아는 것 - 신 9:2,3,6; 18:21
3. 경험을 통해 아는 것 - 신 3:19; 4:35; 8:2,3,5; 11:2; 20:20; 31:13; 수 23:14
4. 숙고하는 것 - 신 4:39; 11:2; 29:16
5. 개인적으로 아는 것
  - ㄱ. 사람 - 창 29:5; 출 1:8; 신 22:2; 33:9
  - ㄴ. 신(god) - 신 11:28; 18:2,6,13; 28:64; 29:26; 32:17
  - ㄷ. 야웨 - 신 4:35,39; 7:9; 29:6; 사 1:3; 56:10-11
  - ㄹ. 성(sexual) - 창 4:1,17,25; 24:16; 38:26
6. 기술이나 지식을 익히는 것 - 사 29:11,12; 암 5:16
7. 지혜롭게 되는 것 - 신 29:4; 잠 1:2; 4:1; 사 29:24
8. 하나님을 아는 지식
  - ㄱ. 모세의 - 신 34:10
  - ㄴ. 이스라엘의 - 신 31:21,27,29

▣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자식을 갖게 될 일과 그의 믿음이 그의 씨에게로 전해질 것에 대한 언급을 주목하라(참조, 신 4:9; 6:7). 또한 언약에 따른 의무 조항인 순종(참조, 17:1)이 조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주목하라. 순종은 아브라함에게 뿐 아니라 뒤 따르는 모든 믿음의 세대에게 주신 조건이다. 야웨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열방에 드러내는 백성을 원하셨다. “여호와의 도”라는 표현이 흥미로운데 이는 이것이 믿음의 삶의 양식을 뜻하기 때문이다(참조, 삿 2:22; 시 119:1). 이것은 초대교회가 가진 최초의 명칭이었다(참조, 행 9:2; 18:25-26; 19:9,23; 22:4; 24:14,22; 요 14:6).

▣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 두 단어(BDB 842 와 1048)는 종종 함께 사용된다. 이 두 단어는 하나님, 이웃,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삶을 말하는데, 출 20 장과 신 5 장에 기록된 십계명에서 분명히 명시되고 있다.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사는 삶으로 규정된 조건에 주목하라(참조, 17:1).

18:20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부르짖음”(BDB 277)이 이와 매우 비슷한 히브리 단어인 “격노”(BDB 277)와 언어 유희를 이룬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창 19 장과 유다서 7 절에 기록되어 있다.

소돔의 죄악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주목하라.

1. 크고 - BDB 912 I, KB 1174, **칼 완료형**
2. 심히(BDB 547) 무겁다 - BDB 457, KB 455, **칼 완료형**

그들의 죄가 야웨께 심판해 달라고 “부르짖었다”! 롯과 그의 가정이 기도하는 사람들(참조, 23 절)이었거나, 그들을 위한 수호천사였거나 혹은 죄악 자체를 나타내는 은유이었을 것이다.

야웨께서는 깊숙한 곳에 있는 인간의 죄도 아신다(참조, 6:5-6,11-12,13b; 15:16; 시 14:1-3).

**18:21 “내가 이제 내려가서”** 이것은 야웨의 직접적인 임재하심이 다음 사항을 위한 것임을 말한다

1. 심판, 이곳과 창 11:5,7
2. 도움, 출 3:8

이 본문이 야웨께서 현재 및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아시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즉, “열린 신학” Open Theism) 반드시 조심하여야 한다. 이것은 동양에서 사용한 은유적 표현이다.

야웨께서 두 천사(“사람들”)와 함께 직접 임재하신 방법을 또한 주목하라.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아시는데 이는 (1) 주께서 하나님이기 때문이며 (2) 천사가 직접 목도하는 내용을 인하여서 이다. 이 세 “사람”과 관련하여 사용된 **단수형**과 **복수형** 사이에 유동성이 있다(참조, 18:1-2).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비록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행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조사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가져야 할 성품이라고 랍비들은 이 절을 들어 말했다(참조, 창 11:5; 출 3:8).

▣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신인동형적 표현이다(참조, 출 2:25).

이 절에는 야웨와 관련된 여러 개의 청유형이 나온다

1. 내가 내려 가려고 한다 - BDB 432, KB 434, **칼 청유형**
2. 내가 보려고 한다 - BDB 906, KB 1157, **칼 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됨
3. 내가 알려고 한다 - BDB 393, KB 390, **칼 청유형**

**개역개정 18:22-33**

<sup>22</sup>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sup>23</sup>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sup>24</sup>그 성 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sup>25</sup>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sup>26</sup>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sup>27</sup>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sup>28</sup>오십 의인 중에 오 명이 부족하다면 그 오 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사십오 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sup>29</sup>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사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사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sup>30</sup>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sup>31</sup>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이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십 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sup>32</sup>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sup>33</sup>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18:22 “그 사람들이” 영적 영역의 대표자들로서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난 세 명의 손님이 있었다: (1) 여기서 언급된 두 천사(참조, 19:1) (2) 아직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야웨.

▣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 본문은 맛소라 학자들이 현 상태에서 볼 때 히브리 본문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바꾸어 놓은 몇 안되는 경우 가운데 하나이다. 원래 이 본문은 “야웨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다”이다. 70 인역은 맛소라 본문을 따르고 있다.

18:23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도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자세이다. 요나단 탈군은 이것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도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 구(또한 문맥)는 아브라함과 야웨 사이의 놀라운 교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

▣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해한 야웨의 성품과 특징을 말해 준다(즉, “온 땅의 심판자에게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25 절). 야웨께서는 그 상황을 분명하게 아셨으면서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과 갖는 독특한 관계에 있음을 이해하며 또 다른 이를 대신하여 중보기도할 필요를 그가 느끼게 되기를 원하셨다. 이러한 중보기도는 20:7,17 에서 보게 되듯이 아비멜렉을 위해 그가 사용하게 된다. 이 때에 또한 18 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소돔에 사는 뜻과 그의 가족에 대해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다고 나는 이해한다!

18:26 이 절은 히브리 문화에 나타난 공동체적 성격을 잘 드러내는 예이다.

1. 부정적으로
  - ㄱ.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받았다.
  - ㄴ. 아간이 범죄함으로써(참조, 수 7 장)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에서 패했다(어떤 이는 죽임을 당했다).
2. 긍정적으로
  - ㄱ. 의로운 백성은 소돔 전 도시(또한 평지에 있던 도시들)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 ㄴ. 한 명의 의인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참조, 렘 5:1).
  - ㄷ. 아담의 죄는 모든 피조물에 영향을 주었다. 예수의 삶과 죽음은 모든 피조물에 영향을 미친다(참조, 롬 5:12-21).

이 개념은 이사야서 53 장에 기록된 바 대리적이고 대속적인 속죄의 신학적인 근거를 이룬다. 무흠하신 한 분의 죽으심은 용서를 가져올 수 있다(참조, 롬 1-7 장; 요 1:29; 고후 5:21).

18:27 “주께” 이 용어는 *아도나이*로서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다. 12:1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이것은 창세기 3 장에 대한 분명한 암시로서 사람이 티끌에서 와서 티끌로 돌아감을 말한다. 아브라함은 창조의 전통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한편 이 표현은 그 당시 셈족이 사용하던 관용어였을 가능성 또한 있다(즉, 읍, 그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으로서 읍 30:19; 42:6 에서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8:32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왜 10 명을 언급하고 멈추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것은 (1) 롯과 그의 가족을 가리키는 수이거나 (2) 아브라함이 단순히 롯과 그의 가족에 근거하여 심판을 제한시키기 원치 않았음을 나타낼 수 있다.

# 창세기 19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소돔의 파멸	소돔의 부패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돔의 최악성	소돔의 멸망
19:1-11	19:1-3	19:1-11	19:1-2a 19:2b 19:3	19:1-3
	19:4-11		19:4-5 19:6-8 19:9-11	19:4-5 19:6-11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		롯이 소돔을 떠나다	
19:12-14	19:12-14	19:12-14	19:12-13 19:14	19:12-14
19:15-22	19:15-22	19:15-23	19:15-17 19:18-20 19:21-22a 19:22b	19:15-16 19:17-22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19:23-26	19:23-26	19:24-26	19:23-26	19:23-26
19:27-28	19:27-28	19:27-28	19:27-29	19:27-28
19:29	19:29	19:29		19:29
롯이 부끄럽게 되다	롯의 자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기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기원
19:30-38	19:30-35	19:30-38	19:30-33 19:34-38	19:30 19:31-38
	19:36-38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19:1-11

<sup>1</sup>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sup>2</sup>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sup>3</sup>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sup>4</sup>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sup>5</sup>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sup>6</sup>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sup>7</sup>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sup>8</sup>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에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sup>9</sup>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sup>10</sup>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sup>11</sup>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19:1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들은 산에서 사해를 내려다 보시는 야웨와 아브라함을 떠나 저녁 때에 60 km 정도 떨어진 곳에 몇 분 만에 이르렀다—그들은 천사들이다!!! 그들은 18:2,22; 19:10,12,16 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모습, 말씨, 옷으로 볼 때 사람이었다. 아마도 슥 5:9 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들은 항상 남자로 나타났다.

▣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우리는 롯이 점점 더 사악하게 되었음을 다음의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1. 13:11 에서는 그가 소돔과 고모라의 평지로 이동했다고 말한다

2. 유목민인 목자가 도시로 들어가 살았다. 그가 “성문에” 있었다는 표현은 그가 도시의 장로들 가운데 한 명이 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3. 3 절에서 볼 때 그는 분명히 거주자들의 동성애 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이러한 일을 여러 번 목도했을 것이다
4. 7 절에서 그는 그들을 “형제들”로 부르기까지 한다
5. 후에 그는 그 성읍과 자신의 물질적 소유를 버리고 떠나기를 내키지 않아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다—룯은 그들을 바꿔 보려고 시도했으나(9 절), 아주 자주 그러하듯이 그들의 악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아브라함이 했듯이 그도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절을 했다. 이 행동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관습에 따른 것이었는지(이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그들이 누구인지를 그가 알아보았기에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른다.

**19:1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룯은 이 방문객들이 천사인지를 모른채 그들을 이 도시의 거주민들로부터 보호하기를 위해 그들에게 말했던 유일한 사람으로 보인다. 그가 3 절에서 강하게 강권하는 내용을 통해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두 천사들의 반응은 셈족 문화에서 “네”를 뜻하는 관용적 형태의 답이었지만, 강권해야만 응하겠다는 형태의 대답이었다.

세 개의 **명령형**(룯의 간절함을 나타냄)이 동양의 관용적 자세를 보여준다.

1. 돌이켜 - BDB 693, KB 747, **칼 명령**
2. 밤을 보내고(문자적으로, 숙박하고) - BDB 533, KB 529, **칼 명령**
3. 씻으라 - BDB 934, KB 1220, **칼 명령**

이에 더하여 그는 그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였다(참조, 3 절). 이 천사들 및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야웨(아마도 주의 천사)께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신 것처럼(참조, 요 21 장) 음식을 잡수실 수 있으셨고 또 음식을 드셨다.

▣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것은 모든 방문객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룯은 그렇게 할 때 일어날 일을 알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전에 보았을 것이다!

**19:3 “룯이 간청하매”** 이 동사(BDB 823, KB 954, **칼 미완료형**)는 이 절에서 두 번 사용되었다.

1. 이 단어는 9 절에서 소돔 남자들이 글자 그대로 밀고 잡아 당기는 것을 나타낸다.
2. 여기서는 “간청하다”를 뜻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참조, 사 19:7; 왕하 2:17; 5:23). “강하게”라는 **부사**(BDB 547)는 이 간청을 더욱 강화하여 나타낸다.

▣ **“무교병을 구우니”** 랍비들은 이 표현이 이 때가 유월절임을 시사하며, 따라서 이삭이 유월절(그 다음 해)에 태어났다고 설명한다. 한편 이러한 이해는 “무교병”이란 표현에서 너무 많은 사실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는 부풀리지 않은 반죽으로 빵을 구웠다. 룯의 종이나 가족들이 음식을 급히 준비하였음이 분명하다(참조, 사 6:19).

**19:4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이것은 이 도시의 젊은 이와 노인을 포함하여 모든 남자가 동성애자(적어도 양성애자)가 되었음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할 것을 18:19 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소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악하게 가르친 부정적 측면을 보게 된다. 이 본문은 아버지의 죄가 그들의 자녀에게로 전해짐에 대한 좋은 예이다(참조, 신 5:9-10).

“원근에서 다 모여”라는 표현(참조, NASB 와 NKJV)은 문자적으로는 “마지막 사람까지”(BDB 892)이다. 이 용어는 어떤 것 사이에 들어 있는 물건을 가리킨다(예, 47:21). 소돔의 악에 대해 천사(즉, 야웨)가 18:20-21 에서 말한 내용이 사실이었다. 의로운 사람이 열 명도 안되었다(참조, 18:32).



**특별주제: 동성애**

동성애를 또 하나의 적절한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는 현대 문화의 압력이 상당하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뜻을 거스리는 파괴적인 삶의 양식으로 비난한다.

1.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 1 장의 명령을 위반한다
2. 이것은 이교도의 예배와 문화에 나타나는 특징이다(참조, 레 18:22; 20:13; 롬 1:26-27; 유 7 절)
3.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의 자기 중심적 독립을 드러낸다(참조, 고전 6:9-10)

한편, 이 문제에서 떠나기 전에 나는 모든 반역적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 특별한 죄에 대해 미움과 거만함으로 행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분명히 죄를 범하는 점에서 그렇다. 이 영역에 관한 격렬한 정죄보다 기도와 관심, 간증과 동정이 더 바람직하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그들을 정죄하실 것이다.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성적 범죄는 하나님께 역겨운 것이고 따라서 심판을 가져온다. 성생활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고, 기쁘고, 안정된 사회를 이루도록 주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강력한 충동은 종종 반역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쾌락을 구하고,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오직 나만을 위한” 삶으로 바꾼다(참조, 롬 8:1-8; 갈 6:7-8).

**19:5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그들을 이끌어 내라 - BDB 422, KB 425, *히필 명령*
2.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갖게 하라 - BDB 393, KB 390, *칼 청유형*

요세푸스는 그의 책 *유대 고대사* 1.11.3 에서 말하기를 천사들이 아름다운 모습이었기에 소돔 남자들의 욕망을 부추겼다고 말한다. 성경은 종종 동성애의 죄에 대하여 말한다. 이 죄는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행해졌다(참조, 레 18:22; 20:13). 동성애는 바울 시대에 로마 제국에서도 많이 행해졌다(참조, 롬 1:26,27; 고전 6:9; 딤후전 1:10).

“그들을 상관하리라”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글자 그대로 “알다”(BDB 393, KB 390)로서 “깊은 개인적 관계”를 의미한다. 동성애를 하는 쌍패들에게 당하는 성행위는 그 방문객들을 죽일 수도 있었다. 9 절에 의하면 이러한 일이 롯의 딸들을 포함하여 롯 자신에게까지 일어나려는 것이 명확했다. 어떤 주석가들은 롯이 자기 딸들을 폭도들에게 내어 주려한 일을 통해 자기 딸들로부터 존경심을 잃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19:7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 동사(BDB 949, KB 1269, *히필 미완료형*이 여기서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는 *히필형*에서 다음의 내용을 의미할 수 있다

1. 해하지 말라 - 즉, 43:6; 출 5:22-23; 수 24:20; 사 11:9
2. 악을 행하지 말라, 즉, 삼상 12:25; 랍 4:22; 13:23

롯이 사람들의 음란한 의도를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9 절). 그는 그들이 의도하는 바 두 가지 악으로 둘러싸인 성적 폭력에 대하여 윤리적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다.

1. 호의를 베풀지 않음
2. 성적 변태

**19:8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롯은 폭도들에게 세 가지 제안을 말하고 있다.

1. 나로 그들(자기의 두 딸)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게 하라 - BDB 422, KB 425, *히필 청유형*
2. 그들에게 너희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라 - BDB 793, KB 889, *칼 명령*
3.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 BDB 793, KB 889,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임

이 낯선 사람들이 “내 집”(문자적으로, “그들,” BDB 853)에 들어 왔다. 똑 같은 용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에 나오는데 이는 보호와 돌봄을 뜻하는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민 14:9; 시 17:8; 36:7; 57:1; 63:7). 롯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의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되었는데, 롯의 동기에 대하여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1. 그의 제안은 자기의 손님들을 보호하려는 그의 궁극적인 바람이었다(동양적 호의)
2. 그는 이 폭도들이 여자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알았다
3. 그는 무리 가운데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자기의 사위될 사람이 이 시점에서 폭도들을 만류하기를 기대했다. 이 사건은 샏 19:24의 사건과 매우 비슷하다.

19:9 “너는 물러나라” 이 동사(BDB 620, KB 670, 칼 명령)는 보통 “가까이 오라”로 번역되었다(즉, 레 21:21; 왕하 4:27). 여기서는 그들이 앞으로 물러 오면서 “우리의 길에서 비켜라”를 독특하게 의미한다.

▣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것은 강조형 구문이다(즉, 같은 어근의 히브리 단어가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 동사로서 함께 사용되었다). 이 사람들의 행동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참조, 13 절). 이것은 18:20-24에 암시된 사항이다. 이것은 롯을 의롭다고 칭한 벵후 2:7-8의 자료일 것이다.

▣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그들은 롯의 손님들은 물론 롯과 그의 가족을 성추행(이것은 7 절에 있는 것과 같은 동사임)하겠다고 말했다.

19:11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이 히브리 단어(BDB 645, KB 697, *히필* 완료형)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장님이 되는 것 이상을 뜻한다(동사로서는 구약에서 단 두 번만 사용됨, 참조, 왕하 6:18). 이븐 에스라는 이것은 “눈과 마음의 소경 상태”를 뜻한다고 설명하였다. 그의 설명은 이 절의 후반부와 잘 맞는다. 즉 그들은 혼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문을 찾아 더듬고 다녔다(예, 출 3:20). 여기에 나오는 소경됨(BDB 703)은 레 22:22; 신 28:28(BDB 734)에 나오는 단어와 다르다. 이곳에서 사용된 단어는 “밝은 빛에 의해 눈이 먼 것”을 가리킨다.

**개역개정 19:12-14**

<sup>12</sup>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sup>13</sup>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 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sup>14</sup>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19:12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롯은 천사들의 말이 있기 전에 자신과 소돔이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았다!

19:13-14 “여호와께서 이 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멸망시키는 천사의 임재는 이집트의 열 재앙 사건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천사들의 활동 이면에는 야웨께서 절대적인 권위자로 계신다.

이 두 절에는 “멸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세 가지 시간으로 표현되었다.

1. 13 절 - “멸하다” - *히필* 분사
2. 14 절 - “멸하다” - *히필* 부정사 연계형(참조, 29 절)
3. 14 절 - “멸하다” - *히필* 분사(참조, 18:28)

이 용어는 기본적으로 “멸망시키다”를 뜻하며 파괴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참조, 6:17; 9:15; 13:10;

삼하 24:16). 이것은 출 12:23 에서 “죽음”의 천사를 나타내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진다(대상 21:15; 사 54:16; 렘 22:7 의 설명을 보라).

19:14 “룻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어떤 이는 룻의 딸들이 이미 결혼했다고 추정한다(BDB 542, KB 534, *칼 능동 분사*, 참조, 70 인역과 탈군).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그들이 단지 약혼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참조, 요세푸스, 벌게이트, 라쉬, TEV 역). 문맥에서 볼 때 룻은 결혼하지 않은 두 딸만 있어 그의 집에서 살았던 것으로 나는 이해한다. 한편 그에게 결혼한 다른 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소돔의 삶에 완전히 잠겨 있어 그곳을 떠나려 하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있다.

룻은 이 젊은 이들로 하여금 떠나게 할 의도로 말한다.

1. 일어나라(문자적으로는, 일어서라) - BDB 877, KB 1086, *칼 명령*
2. 떠나라(문자적으로는, 가라) - BDB 422, KB 425, *칼 명령*

▣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동사(BDB 850, KB 1019, *피엘 분사*)는 여러 의미를 나타낸다.

1. 성적 행위 - 창 26:8
2. 조롱 - 창 21:9
3. 놀리다(1 항과 관련이 있다) - 창 39:14,17
4. 장난치다(1 항과 관련이 있다) - 출 32:6
5. 즐기다 - 샏 16:25

야웨께서 아들을 이듬 해 봄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은 일에 대해 같은 어근이 사용되었다(참조, 17:17; 18:12).

**개역개정 19:15-22**

<sup>15</sup>동틀 때에 천사가 룻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sup>16</sup>그러나 룻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룻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였더라 <sup>17</sup>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sup>18</sup>룻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sup>19</sup>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sup>20</sup>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 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sup>21</sup>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sup>22</sup>그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19:15 동틀 때에 천사들이 강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한다.

1. 일어나라(문자적으로, 일어서라) - 14 절에 있는 형태와 일치함
2. 데리고 가라 - BDB 542, KB 534, *칼 명령*

16-22 절에서 천사들의 배려와 보호가 계속된다.

▣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참조, 18:23,24; 19:15,17; 민 16:26; 삼상 12:25).

19:16 “룻이 지체하매” 이 동사(BDB 554, KB 552, *히트피엘 미완료형*)는 구약에서 여러 번 “지체하다” 또는 “지연하다”를 나타낸다. 룻이 지체한 이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 우리가 추측한다면 천사가 한 말에 대한 신뢰의 부족 때문이었을 것이다. 17 절의 경고는 룻이

소돔에서의 삶 아마도 그의 물질적 소유(즉, 가재도구, 종, 값나가는 물건, 가축) 때문에 망서리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롯이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초지를 선택했음을 기억하라(참조, 13:10).

▣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히브리 명사(BDB 328)는 이곳과 사 63:9 에서만 나오며, 야웨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 가지신 언약적 사랑, 동정, 자비, 은혜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은 족장들(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이 있다. 이 단어의 동사(비록 시편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지만)는 야웨의 특별한 언약적 사랑을 나타낸다(참조, 대하 36:15; 율 2:18; 말 3:17[2 회]; 한편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나타나는 이와 대조되는 내용을 대하 36:17; 겔 5:11; 7:4,9; 8:18; 9:5,10 에서 보라)!

19:17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하다”라는 동사(마라트, BDB 572, KB 589, 니팔 명령)는 이 문맥에서 5 번 나온다(참조, 19:17[2 회], 19,20,22). 이것은 “롯”(롯, BDB 532)의 이름과 소리유희를 이룬다.

▣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천사들은 롯에게 여러 사항을 강조형의 문장으로 말한다.

1.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 BDB 572, KB 589, 니팔 명령
2. 돌아보지 말라 - BDB 613, KB 661, 히필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26 절의 비극을 주목하라. 롯과 그의 가족은 소돔에서의 삶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3. 들에 머물지 말라 - BDB 763, KB 840, 칼 미완료형 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4. 산으로 도망하라 - 1 항과 같은 형태임

“들에 머물지 말라”는 문자적으로 “다섯 도시”를 뜻한다. 이것은 요단 평지에 있던 5 개의 주요 도시인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을 일컫는다. 소알은 벨라로도 불렸다(참조, 창 14:2).

19:19 이 절은 롯의 인성을 나타낸다. 그가 왜 산을 두려워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그곳까지의 먼 거리가 이유가 아니라면). 한편 이 절은 야웨의 계속적인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그가 믿지 못했음을 나타낸다(문자적으로, “당신 눈에 있는 호의,” 참조, 6:8; 32:5; 34:11).



NASB  
NKJV  
NRSV

“인자하심”

“자비”

“큰 친절”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특별한 언약적 명사인 헤세드(BDB 338)를 뜻한다.

**특별주제: 인자한 사랑(헤세드)**

이 용어는 넓은 범주의 의미를 갖는다. BDB 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나눈다(338-339 쪽).

가. 인간과 관련된 용법

1. 동료 인간에 대한 친절(예, 삼상 20:14; 대하 24:22)
2.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에 대한 친절(예, 미 6:8)
3. 동정(참조, 렘 2:2; 호 6:4)
4. 모습(참조, 사 40:6)

나. 하나님과 관련된 용법

1. 언약적 충성과 사랑
  - 가. “원수로부터 혹은 어려움에서 구속하심”(예, 렘 31:3; 스 7:28; 9:9)
  - 나.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지키심”(예, 율 10:12; 시 86:13)
  - 다. “영적 생명을 활기차게 하심”(예, 시 119:41,76,88,124,149,150)
  - 르. “죄에서 구하심”(참조, 시 25:7; 51:3)

- . “언약을 지키심”(예, 대하 6:14; 느 1:5; 9:32)
- 2.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함(예, 출 34:6; 미 7:20)
- 3. 하나님의 친절
  - ㄱ. “풍성하심”(예, 느 9:17; 시 103:8)
  - ㄴ. “범위가 넓음”(예, 출 20:6; 신 5:10; 7:9)
  - ㄷ. “영원하심”(예, 대상 16:34,41; 대하 5:13; 7:3,6; 20:21; 스 3:11)
- 4. 친절하신 행동(예, 대하 6:42; 시 89:2; 사 55:3; 63:7; 애 3:22)

19:21 “나를 그 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것은 **청유형**(BDB 572, KB 589, *니팔 청유형*)으로서 NASB의 번역인 “제발, 나로 하여금 ~하게”를 설명한다.

다음에 나오는 **동사**(BDB 310, KB 309)인 “도망하다”(문자적으로, “살다”)는 **칼 지시형**이다.

19:21 “내가 ~ 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문자적으로 “얼굴을 들다”라는 관용어(**칼 완료형 동사**[BDB 669, KB 724]가 “얼굴”[BDB 815]과 함께 사용됨)이다. 이것은 재판의 영역에서 사용되었다.

재판관이 고소받은 자의 “얼굴을 들게 해” 자기가 누구인지 고소받는 자가 보게 하는 일은 공정성을 위태롭게 하였다(참조, 레 19:15; 시 82:2; 잠 18:5). 재판관은 사람의 낮을 존중해서는 안되었다.

롯은 산에 이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벨라(소알, BDB 858, 어근의 의미는 “중요치 않음”을 뜻함)에 있게 하기를 간청했다. 벨라는 “작은”(BDB 859 I), “살려둔”을 뜻한다. 천사들은 놀랍게도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다(어떤 면에서 세 천사는 모두 야웨의 직접적 임재를 나타낸다). 이 성읍은 14:2에 기록되어 있듯이 따로 왕이 있을만큼 컸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중보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이다(즉, 18:22-33에서 아브라함이 드린 기도).

19:22 천사가 롯에게 다시금 명령한다.

- 1. 속히 - BDB 554, KB 553, *피엘 명령*(16a 절의 반대임)
- 2. 도망하라 - BDB 572, KB 589, *니팔 명령*(참조, 19:17[2 회], 19,20).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서만 나옴.

▣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멸망시키는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두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사실은 다음의 내용을 나타낸다

- 1. 야웨의 은혜
- 2. 중보기도의 능력(즉, 18:22 이하)

개역개정 19:23-26

<sup>23</sup>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sup>24</sup>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향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sup>25</sup>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엮어 멸하셨더라 <sup>26</sup>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19:24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향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야웨”라는 용어가 두 번 이곳에 사용된 것은 특별하게 보인다. 유대인 주석가들은 이것을 위엄의 복수형으로 부른 반면에 기독교 주석가들은 여기서 삼위일체의 어떤 모습을 보았다. 사실 실미움 회의에서는 이 절을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비를 가져다 내리셨다”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14:10에서 이 지역에 역청 구덩이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번개나 불의 비(참조, 젠 38:22; 눅 17:29; 계 14:10; 19:20; 20:10)같은 방법으로 이 지역 전체를 불태우고 폭발시켜 버리셨음을 본다(참조, 유 7 절).

초자연적으로 소알을 보존하셨음을 다시금 주목하라. 이 일은 고센이 10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은 일과 비슷하다.

불은 항상 야웨께서 정하게 하시는 심판과 관련을 가진다. 15:17의 특별주제를 보라.

19:25 “다 덮어 멸하셨더라” 이 히브리 용어(BDB 245, KB 253, **칼 미완료형**)는 뒤집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멸망시킴을 나타낸다. 소돔의 멸망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낸다(참조, 신 29:23; 사 13:19; 렘 49:18; 50:40; 암 4:11). 이 멸망은 야웨의 직접적 심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시 여호수아가 직면했던 가나안 문화에 대해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다.

19:26 독자들은 여기서 정확히 일어난 일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롯의 아내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있었기에 자신의 몫을 거둔 것이다(참조, 눅 17:32). 그녀는 불순종의 기념비가 되었다! 롯의 아내 뿐 아니라 그의 딸들도 소돔에 머문 일을 인해 영향 받았다. 30-38 절은 그의 딸들이 받은 영향을 분명히 보여준다.

**개역개정 19:27-28**

<sup>27</sup>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sup>28</sup>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웅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19:27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관용어이다(참조, 18:22; 레 9:5; 신 10:8).

**개역개정 19:29**

<sup>29</sup>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덮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덮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19:29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덮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언약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중보를 인해 롯이 살리심을 받은 것을 주목하라(참조, 출 2:24). 이 절은 아브라함의 뛰어난 것을 강조한다.

**개역개정 19:30-38**

<sup>30</sup>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sup>31</sup>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sup>32</sup>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sup>33</sup>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sup>34</sup>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sup>35</sup>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sup>36</sup>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sup>37</sup>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sup>38</sup>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19:30-38 이 단락은 모압과 암몬의 기원을 설명한다.

19:30 “**룻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이 절과 관련하여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1) 21 절에서 천사가 특별히 준 약속을 그가 무시했다 (2) 그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악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도 분명히 내릴 것을 인해 두려워 했다. 19 절에서 그가 가기를 두려워 했던 바로 그 장소로 그가 갔다!

19:31 그의 딸들도 아버지처럼 야웨께서 공급하심에 대해 신뢰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다음의 내용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1. 하나님께서 14 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구해 주신 일
2. 하나님께서 19 장에서 천사들을 통해 구해 주신 일

19:32 그 딸들이 자기들의 가계를 이어가기 위한 계획을 짰다.

1. 오라 - BDB 229, KB 246, **칼 명령**(참조, 34 절)
2.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자 - BDB 1052, KB 1639, **히필 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됨(참조, 34 절)
3. 우리가 그와 함께 동침하자 - BDB 1011, KB 1486, **칼 청유형**(34 절, **명령**)

34 절에는 이 근친상간의 행동이 반복되어 나온다.

19:36 그들 둘 다 단번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반복적인 일을 통해 임신하였는지는 모른다.

19:37 “**모압**” 잘 알려진 단어로서 비슷한 소리에 기초한 의미이지 전문적인 의미가 아닌 “아버지로부터”(BDB 555)는 근친상간적 관계를 나타낸다. 이 아이는 후에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준 민족이지만 친척관계에 있었다(참조, 신 2:9).

19:38 “**벤암미 . . . 암몬 자손**” 벤암미는 “나의 백성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70 인역, 제롬, 어거스틴). 암몬 자손(BDB 769)은 후에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어려움을 가져다 준 민족이지만 친척관계에 있었다(참조, 신 2:19). 30-38 절의 비하는 (1) 도덕적 실패를 나타내거나 (2) 그들이 가족의 혈통적 순수성을 지켰다는 공지를 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이름 다 비꼴을 나타낸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무엇이 18 장과 19 장이 나타내는 중요한 진리인가?
2. 야웨께서는 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셨는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목적(혹은 목적들)인가?
3. *아돈*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뜻은 무엇인가?
4. 이 장들에 나타난 바 룻이 점차적으로 타락한 내용을 말하라.

# 창세기 20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아브라함의 배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그랄에 간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그랄에 간 아브라함
20:1-7	20:1-7	20:1-7	20:1-3 20:4-5 20:6-7	20:1-7
20:8-18	20:8-13 20:14-16 20:17-18	20:8-18	20:8-1 20:11-13 20:14-16 20:17-18	20:8-13 20:14-18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18 장에서 주신 약속에 비추어 볼 때 아브라함이 일찌기 12 장에서 행했듯이 자기만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두려움에 빠지는 점은 이상하다. 이 내용은 약속이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별한 문학적 방법이다. 아들과 자손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잠시 살펴보자.



1.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내
2. 아내를 바로가 취하여 감(창 12 장)
3. 아비멜렉이 아내를 취하여 감(창 20 장)
4. 이삭을 제물로 드림(창 22 장)

아브라함은 인생의 불가항력적 환경 가운데서 야웨의 약속을 붙들어야만 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창 15:6)!

나. 이 장은 우리에게 아브라함 당시에 가나안에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1. 살렘 성의 멜기세덱
2.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

이 장은 창 15:13-16 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에서 왜 아모리 사람(가나안에 사는 사람 전체를 통털어 일컫는 용어)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고 하였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 장에서 볼 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보다도 영적으로 뛰어났다!

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대신하여 야웨께 중보기도를 드려야 하는 필요성은 야웨께서 선택하신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갖는 독특하면서도 특권적 위치를 드러낸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20:1-7

<sup>1</sup>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sup>2</sup>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sup>3</sup>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sup>4</sup>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sup>5</sup>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sup>6</sup>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sup>7</sup>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20:1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앞(참조, 18:1) 혹은 헤브론(참조, 13:18)에 있던 자기 장막을 옮겼다. 아브라함은 읍처럼 유목민의 삶을 살았다(동시대적 배경).

▣ “네게브 땅” 이곳은 반건조 지역인 “남쪽 지역”(BDB 616)을 의미하며 남쪽으로 브엘세바를 포함했다. 13:1 에 같은 지명이 나온다. 족장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은 생애의 대부분을 이 넓은 지역에서 보냈다.

▣ “가데스” 이 오아시스는 브엘세바에서 남쪽으로 80 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가데스바네아로도 알려졌다(참조, 14:7; 16:14). 가데스(BDB 873 II, “거룩한”을 의미함)라는 용어가 “거룩한”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인 카도쉬(BDB 871)와 관련을 갖는 점은 흥미롭다.

▣ “술” 이 용어(BDB 1004 III)는 “벽”을 의미하는데 아마도 이집트의 성채가 줄지어 있는 것을

가리킬 것이다(참조, 삼상 15:7; 27:8). 이 이름은 16:7 에서 주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씀하신 장소를 가리킨다. 우리는 이곳의 지리적 위치를 모른다. 이곳은 브엘세바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의 남쪽에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참조, 18:25).

▣ **“그랄에 거류하며”** 그랄이 가데스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두 단계의 이주가 분명히 나타난다. 1 절의 첫 동사인 “옮겨가”(BDB 652, KB 704)는 문자적으로 “천막 말뚝을 뽑다”이고, “거류하며”(BDB 157, KB 184)는 보다 긴 기간 동안 머문 것을 나타낸다(참조, 12:10; 21:23-24; 26:3; 32:6; 35:27; 47:4). 이 지역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요새로 삼은 곳이다(참조, 10:19). 우리는 후기 역사에서 이곳이 성벽이 있는 블레셋의 5 도시의 하나인 가자 근처에 있었음을 안다.

**20:2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이 일은 이집트에서 바로와 있었던 12:17-18 의 사건과 같은 일이다. 이 일은 26:1 이하에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온 후에 이 일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상적인 과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 13 절의 설명이다. 그들은 정말로 이복 형제와 누이였을 것이다(참조, 12 절). 한편 후리 족속의 관습을 말하는 누지 서판에 비추어 볼 때 아브라함은 단순히 의식상 그녀를 입양한 것일 가능성 또한 있다.

▣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것은 사라가 아직도 육체적으로 매력이 있었음을 뜻하는가? 12:14 에 비추어 볼 때 아주 가능한 일이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가 임신할 수 있도록 그녀의 몸이 다시 젊어지게 하셨고 따라서 그녀가 다시 예쁘게 되었다고 말한다. 다른 주석가들은 그녀의 나이가 90 세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은 문화적으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의 우호적 언약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추정한다.

**20:3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오”** 아비멜렉(BDB 4)은 바로, 시저, 황제 같이 나라의 지도자를 칭하는 호칭이다. 이것은 “아버지가 왕이시다” 혹은 “왕이 나의 아버지시다”를 분명히 의미했다. 우리는 시 34 편에서 블레셋의 왕들의 이 일반적 이름이 있음을 본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신 사실은 31:34 에 있는 라반의 경우와 같이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관계를 나타낸다. 이 관계는 그가 하나님을 아도나이(4 절)로 부르는 점에서 잘 드러나며, 또한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던 멜기세덱(창 14 장)의 경우와 같이 그가 언약의 하나님(야웨)께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0:4-6** 우리는 하나님과 아비멜렉이 나눈 대화에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함, 곧 그가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고 행했음을 상기시켜 드림을 본다. 5 절의 은유인 “깨끗한 손”(BDB 667 과 BDB 496 의 연계)이 손을 폈다는 히브리 관용어 즉 “감춘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가리킨다. 이것은 “온전한 마음”(BDB 1070 과 BDB 523 의 연계, 참조, 왕상 9:4; 시 7:8; 101:2)과 평행을 이룬다. 6 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그를 범죄하지 않게 막았다고 말씀하셨다(참조, 삼상 25:39; 욥 33:18; 또한 시 19:13 의 설명을 보라).

이것은 분명히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에게 내리신 어떤 질병을 가리킨다(참조, 17-18 절; 12:17). 나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돌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활동적으로 하나님의 세상에 관여하심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일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대하심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큰 격려가 된다(참조, 겔 18:23,32; 요 3:16; 롬 11:32; 딤후 2:4; 4:10; 딤후 2:11; 벧후 3:9; 요일 2:1; 4:14).

**20:4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18:23 에서 가졌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해와 맥을 같이 한다. 분명히 왕은 자신의 죽음이 전 부족의 죽음을 예고한다고 보았다(전염병, 참조, 17 절). 그는 자신이 사라에 대해 어떠한 성적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알지 못하고 행하여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비난할 것 없는” 혹은 “의로운” BDB 843 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주장하고 있다. 이 절에서 볼 때 이러한 초기 역사에서 조차 간음이 심각하게 하나님의

규정을 범하는 것으로 명백히 말해진다(참조, 창 12:17-19; 26:7-11). 그 이유는 이 일이 상속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었다.

**특별주제: 인간의 성생활**

I. 들어가는 말

가.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의 금욕주의의 영향을 지나치게 받았다. 그 사상은 인간의 몸과 몸의 정상적 활동을 악한 것으로 만들었다.

성경은 물질의 창조가 선함을 주장하지만(참조, 창 1:26-27), 인간이 반역한 결과를 인식하고 있다(참조, 창 3 장). 어느 날 이 저주는 제거될 것이다(참조, 롬 8:18-12).

나.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인간의 성생활은 하나님의 창조 및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에 대한 계획에서 한 부분을 이룬다.

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이루는 어떤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은 우리가 가진 문화에 따라 해석이 되는 성적 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II. 성경적 통찰(몇 가지 예)

가. 창세기에서

1. 원래적인 친밀성이 있었다(참조, 1:26-27).
2. 성적 관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즉, 1:28).
3. 모든 피조물에 대해 창 1:31 에서 “매우 좋았더라”로 확인해 주셨는데 이것은 인간의 성적 활동도 포함하는 것이다.
4. 여자는 남자의 적수가 아니라 보완 관계에 있는 것이다(즉, 2:18).
5. 하와와 아담의 고의적인 반역은 성생활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와 우리의 모든 세상에 영향을 미쳤다(참조, 3:7,16).

나. 성경은 타락 이후에서 조차도 육체적 사랑을 지지한다.

1. 잠 5:15-23 은 평생 지속되는 일부일처제와 정규적인 성생활을 지지한다.
2. 전 9:7-9 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면에서 삶을 즐기라고 말한다.
  - ㄱ. 창 1:2,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다
  - ㄴ. 창 17:1, *엘 샤다이*는 아마도 여성적 의미를 가진다(즉, 아랍어 어근)
  - ㄷ. 신 32:18, 하나님은 어미 새 같으심
  - ㄹ. 출 19:4,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 같으심
  - ㅁ. 사 49:14-15; 66:9-13, 하나님을 유모에 비유함
3. 하나님은 몸이 없으신 영원한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묘사하기 위해 인간의 성과 관련이 있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신다.

III. 인간의 성생활을 표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

가. 결혼

1. 구약과 신약에서 규범에 속함
2.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예로서 사용됨, 엡 5:15-6:9
3. 아가서는 성적 행위를 지지함(일부일처제를 암시함)
4. 고전 7:3-5 에서 성은 자식을 낳는 것 이상임
  - ㄱ. 몸이 하나님께 속함, 고전 6:19-20
  - ㄴ. 몸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속함, 고전 7:4

나. 인간의 성생활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예시하기 위해 사용됨

1. 갈 3:28 은 새 시대와 복음의 요약으로서 그 안에서 모든 구분을 뛰어 넘으며 동등함을 누림에 대해 말함

2. 엡 5:21-31 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본보기가 됨(호 1-3 장에서 호세아의 결혼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과 같음)

다. 하나님 자신이 남성과 여성으로 묘사된다

1. 남성, 매우 일반적 형태임
  - ㄱ. 아버지, 신 1:31; 32:5; 시 103:13; 사 63:16; 64:8; 렘 3:4,19; 31:9; 호 11:1; 말 3:17
  - ㄴ. 남편, 호 11:3-4
2. 여성
3. 개요
  - ㄱ. “성령 충만한 삶”을 명령받음, 엡 5:18(현재 수동 명령[골 3:18-25 를 또한 참고하라])
  - ㄴ. 5 개의 **현재 분사**로 이어짐(엡 5:19-24)
    - (1) 노래하기
    - (2) 찬송하기
    - (3) 마음으로 노래하기
    - (4) 항상 감사하기
    - (5) 서로 복종하기
  - ㄷ. 한 가지 예(그리스도인의 가정)
    - (1) 남편과 아내(엡 5:22-33)
    - (2) 부모와 자녀(엡 6:1-4)
    - (3) 집에 있는 종의 주인과 종(엡 6:5-9)
4. 자녀를 낳기 위한 것 이상의 목적을 위해 성생활을 주셨다
  - ㄱ. 즐거움
  - ㄴ. 서로 자신을 줌
  - ㄷ. 정서적인 행복
  - ㄹ. 육체적 필요

라. 독신

1. 이것은 영적 은사요 부르심에 속한다, 마 19:12; 고전 7:7-8,32,34
2. 강제에 의함이나 더 영적인 사람이 되려는 목적이 아닌 자원함으로, 딤후 4:1-5
3. 주목할 만한 몇 사람
  - ㄱ. 예레미야
  - ㄴ. 침례(세례)요한
  - ㄷ. 예수님
  - ㄹ. 바울
  - ㅁ. 바나바
  - ㅂ. 빌립의 네 딸(행 21:8-9)

IV.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성행위를 인간이 왜곡시킴

가. 결혼 이전(사통)과 결혼 이후의 왜곡(간음)

나. 몇 가지 선택적 본문

1. 고전 6:15-20
2. 갈 5:19-21
3. 히 13:4

다. 성(생각과 행동을 다 포함한)은 개인적 만족을 위해 사람을 사용하도록 하는 허가증이 될 수 있다

라. 이혼

1. 이혼은 항상 차선에 속한다
2. 구약에서 허용되었지만(신 24:1-4) 예수께서는 이를 제한하셨다(마 5:27-32; 29:3-12)

마. 동성애.

1.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ㄱ. 레 20:13  
ㄴ. 롬 1:26-27  
ㄷ. 고전 6:9-11
2. 이것은 생활양식과 관련된 죄이기에 심각하지만, 생활양식과 관련된 다른 종류의 죄(사통, 간음, 음욕)보다 더 악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니다(불신앙이 그러한 죄이다).
3. 범죄한 모든 인간은 성생활과 씨름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힘 세고 집요하며 충만한 욕망이자 본능적인 이 욕구를 만드시 매일 매일 처리해 나가야 한다!
4. 많은 신자들이 이교 신전에서 동성애의 동반자로 살았지만 그들이 구원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이것의 종이 되지 않았다, 고전 6:9,11

V. 끝맺는 말

가. 성생활은 사람이 지구에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

나. 성생활은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지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다, 마 22:30; 막 12:25; 눅 20:34-36.

다. 성생활은 범죄함을 인해 영향을 받았다.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라. 성생활은 구속받은 백성인 우리가 더 자신을 조절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갈 5:23 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으뜸인 것). 성은 이기적인 인간에게 좋은 스승이다.

마. 그리스도인 부부는 가족과 공동체와 국가가 강력하고 만연한 이 주제를 다루도록 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 이것은 힘들게 끌려가는 일이든지 혹은 사다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델이다. 가장 좋은 성교육은 부부가 서로를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바. 성은 좋은 것이며 경이로운 것이다. 이것은 원래 다음의 내용을 의미했다

1. 지구를 충만하게 채우기
2. 두 사람을 하나로 묶기
3. 가정을 형성하기
4. 즐겁게 하기

20:7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동사 형태는 강력하다.

1.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BDB 996, KB 1427, *히필 명령*,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구약에서 “회개하다”의 의미로 자주 사용된 단어이다.
2.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BDB 813, KB 933, *칼 미완료형*(아마도 *칭유형*의 의미로 사용됨). 하나님의 용서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달려있음을 주목하라(욥 42:8 도 이와 같음). 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특별한 지위를 강조한다!
3. “네가 살려니와,” BDB 310, KB 309, *칼 명령*
4.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히필 분사*(1 항을 보라)
5. “알지니라,” BDB 393, KB 390, *칼 명령*
6. “다 만드시 죽을 줄,” 같은 어근(BDB 559, KB 562)의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이 강조를 나타낸다. 죄는 “죽음과 관련이 있다”(2:17; 출 10:17; 민 18:22).

▣ “그는 선지자라” 이것은 성경에서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곳이며 창세기에서는 이곳에서만 이 단어가 나온다. “선지자”(BDB 611)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주는 사람을 가리킨다(참조, 민 12:6). 한편, 이 문맥에서는 중보기도와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7,17 절). 성경의 다른 본문을 참조할 때 이것은 가능한 해석이다(참조, 삼상 7:5; 12:19,23; 욥 42:8; 렘 7:16; 11:14; 14:11; 27:18). 어떤 이는 이것이 그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참조, 18:19).

**특별주제: 구약의 예언**

I. 서론

가. 들어가는 말

1. 어떻게 예언을 해석할 것인가에 있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일치하지 않는다. 예언 이외의 진리는 수 세기를 거치면서 정통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다.

2. 구약 예언의 여러 단계가 잘 정의되었다:

ㄱ. 왕정 이전:

(1) 선지자로 불린 사람들

(ㄱ) 아브라함 - 창 20:7

(ㄴ) 모세 - 민 12:6-8; 신 18:15; 34:10

(ㄷ) 아론 - 출 7:1(모세의 대언자)

(ㄹ) 미리암 - 출 15:20

(ㅁ) 메닷과 엘닷 - 민 11:24-30

(ㅂ) 드보라 - 삿 4:4

(ㅅ) 무명 - 삿 6:7-10

(ㅇ) 사무엘 - 삼상 3:20

(2) 무리로서의 선지자 - 신 13:1-5; 18:20-22

(3) 선지자의 무리나 조합 - 삼상 10:5-13; 19:20; 왕상 20:35,41; 22:6, 10-13; 왕하 2:3,7; 4:1,38; 5:22; 6:1 등

(4) 선지자로 불린 메시아 - 신 18:15-18

ㄴ. 책을 기록하지 않은 왕정시대의 선지자들(그들은 왕에게 말했다):

(1) 갓 - 삼상 22:5; 삼하 24:11; 대상 29:29

(2) 나단 - 삼하 7:2; 12:25; 왕상 1:22

(3) 아히야 - 왕상 11:29

(4) 예후 - 왕상 16:1,7,12

(5) 무명 - 왕상 18:4,13; 20:13,22

(6) 엘리야 - 왕상 18 장-왕하 2 장

(7) 미가야 - 왕상 22 장

(8) 엘리사 - 왕하 2:8,13

ㄷ. 책을 남긴 전통적 선지자들(그들은 왕은 물론 나라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사야-말라기(다니엘은 예외)

나. 성경의 용어

1. *로예*= “예언자,” 삼상 9:9. 이 용어는 *나비*로 바뀌어 사용되었다. *로예*는 “보다”를 뜻하는 일반적 용어에서 왔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이해했고,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를 찾아 갔다.

2. *호제*= “예언자,” 삼하 24:11. 이것은 기본적으로 *로예*의 동의어이다. 이것은 “보다”를 뜻하는 말로서 드물게 사용된 용어에서 왔다. 선지자를 가리키는데 이 단어의 *분사형*이 자주 사용되었다(즉, “보는 자”).

3. *나비*= “선지자,”는 아카디아어의 동사 *나부* = “부르다”와 아라비아어 *나바아* = “알리다”와 같은 어근을 가진다. 이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를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이다. 이것은 300 번 이상 사용되었다. 이것의 정확한 어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부르다”가 가장 좋은 선택으로 보여진다. 아마 이 단어의 가장 적절한 이해는 아론을 통한 모세와 바로의 관계에 대하여 야웨께서 하신 설명일 것이다(참조, 출 4:10-16; 7:1; 신 5:5.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다(암 3:8; 렘 1:7,17; 겔 3:4).
4. 대상 29:29 에서 선지자직을 뜻하는 세 가지 용어가 모두 사용되었다; 사무엘 - 로애; 나단 - *나비*; 갓 - 호제.
5. *이스 하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이란 구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광의의 표현이다. 이것은 “선지자”라는 의미로서 구약에서 76 번 사용되었다.
6. “선지자”라는 영어 단어는 헬라어에서 유래되었다. 이것은: (1) 프로 = “앞에” 또는 “위해서” (2) 웨미 = “말하다”에서 왔다.

## II. 예언의 정의

- 가. “예언”이란 용어는 영어보다 히브리어에서 더 넓은 의미의 범위를 가진다. 유대인들은 여호수아에서 열왕기 상하에 이르는 역사서를 “전기 예언서”로 부른다. 아브라함(창 20:7; 시 105:5)과 모세(신 18:18)는 선지자로서 불린다(또한 미리암, 출 15:20). 그러므로 영어에서 가정되는 정의를 조심하라!
- 나. “선지주의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참여의 관점에서 역사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주의로 정의할 수 있다,” *해석가의 성경사전* 제 3 권 896 쪽.
- 다. “선지자는 철학자나 조직 신학자가 아니라 언약의 중재자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전하여 그들의 현재 삶을 개혁하여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도왔다,” “선지자와 예언,” *유대 백과* 제 13 권 1152 쪽.

## III. 예언의 목적

- 가.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으로서, 그의 백성이 처한 상황에의 안내 및 그들의 삶과 세상의 사건에 하나님이 주장하심에 대한 희망을 공급한다. 그들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이다. 그것은 꾸짖고, 격려하고, 믿음과 회개를 야기시키며, 하나님 자신과 그의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언약에 충실하도록 유지시켰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대변자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예언이 종종 사용된 점도 함께 기억해야만 한다(신 13:1-3; 18:20-22). 궁극적으로 이 사람은 메시아를 가리킬 것이다.
- 나. 선지자는 자주 자신의 시대의 역사적 신학적 위기에 대한 메시지를 종말론적 상황으로 나타냈다. 이스라엘에서 역사에 대한 마지막 때의 관점은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적 약속과 더불어 독특하다.
- 다. 선지자직은 하나님의 뜻을 앞에 있어서 대체사장직과 균형을 이루고(렘 18:18) 그의 역할을 대신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림과 둠림은 하나님의 대변인이 전하는 구두 메시지로 대체되었다. 또한 선지자직은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400 년 후의 침례(세례)요한이 있기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신약에서의 “예언”의 은사가 구약에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신약의 예언자들(행 11:27-28; 13:1; 14:29,32,37; 15:32; 고전 12:10,28-29; 엡 4:11)은 새로운 계시나 성경을 계시한 자들은 아니지만, 언약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거나 예언하는 사람이었다.

- 라. 예언은 본질상 전적 혹은 우선적으로 예견하는 것은 아니다. 예견은 그의 직분과 메시지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구약에서 예언의 2%도 안되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다. 새 언약의 시대를 특별히 묘사하는 것이 5%도 안된다. 아직 오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관계된 것이 1%도 안된다”는 것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피와 스투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66 쪽).
- 마.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대해 하나님을 대표한다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대해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진술이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하박국은 예외이다.
- 바. 선지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의 책이 어떤 구조를 갖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책들은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 책들이 주제별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상하는 것처럼 항상 그렇지 않다. 종종 거기에는 역사적 배경과 시간의 틀이 분명하지 않으며 예언 사이의 분명한 구분도 없다. 이러한 책들은 (1) 단번에 전체를 읽는 일 (2) 주제를 따라 개요를 말하기 (3) 각 예언의 중심 진리나 저자의 의도를 알아내기가 어렵다.

#### IV. 예언의 특징들

- 가. 구약에서 “선지자”와 “예언”의 개념이 발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선지자들의 교체는 이스라엘의 초기에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영향력이 강한 지도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때때로 “선지자의 아들들”이란 구절이 이런 무리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왕하 2 장). 선지자들은 황홀상태로 특징지어졌다(삼상 10:10-13; 19:18-24).
- 나. 그러나 이런 시대는 개인 선지자들의 시대로 빠르게 바뀌었다. 왕에게 인정받고 왕궁에서 살았던 선지자들(참 또는 거짓의)이 있었다(갓, 나단). 또한 독립적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때때로 이스라엘인의 사회와는 전혀 관계 없이 지낸 선지자도 있었다(아모스). 선지자들은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다(왕하 22:14).
- 다. 선지자는 종종 사람의 즉각적인 응답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래를 드러내는 자였다. 선지자의 임무는 종종 인간의 반응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 우주적 종말론적 계획은 고대 근동의 예언에서 독특한 것이다. 선지적 메시지의 두 가지 초점은 예견과 언약에 대한 충성이다(참조, 피와 스투어트, 150 쪽). 이것은 선지자가 우선적으로 공동체에 초점을 두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그들은 대개 배타적이지 않게 나라들에 대해 말했다.
- 라. 대부분의 예언은 구술로 표현되었다. 예언은 후에 주제, 연대기, 혹은 현재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고대 근동의 다른 문학과 결합되었다. 그것이 구두로 되었기 때문에 기록된 글의 구조를 갖지는 않고 있다. 이 점은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알지 않고 예언서를 죽 읽거나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 마. 선지자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1. 법정 장면 -야웨께서 그의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가신다. 이곳은 야웨께서 종종 그 아내(이스라엘)의 불성실함 때문에(호 4 장; 미 6 장) 이혼소송을 하는 장소이다.
  2. 장례식 애가 - 이런 종류의 메시지와 그 메시지의 특징인 “슬프도다”와 같은 특별한 운율은 이 애가들을 특별한 형태로 분리시킨다(사 5 장; 합 2 장).
  3. 언약적 축복의 선언 - 언약의 조건적 본질이 강조되었고, 미래에 나타날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가 자세하게 설명되었다(신 27-28 장).

#### V. 예언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들

- 가. 역사적 배경과 각 예언에 대한 문학적 문맥을 주의해 보면서 원 선지자(편집자)의 의도를 발견하라. 보통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모세의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에 대해 말할 것이다.



- 나. 부분이 아닌 전체 예언을 읽고 해석하라; 내용에 따른 개요를 말하라. 그것이 다른 예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라. 전체 책의 개요를 만들어 보라.
- 다. 그 본문 자체에서 어떤 것이 비유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명확해지기 전에는 그 구절에 대하여 문자적 해석을 하라; 그 다음에는 비유적인 표현을 산문으로 나타내라.
- 라. 역사적 배경과 평행 구절에 비추어 상징적인 활동을 분석하라. 고대 근동의 문학은 서양문학이나 현대문학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라.
- 마. 조심스럽게 예언을 다루라:
  1. 그것이 저자의 시대에만 국한된 것인가?
  2.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실제로 성취되었는가?
  3.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인가?
  4. 그것이 그 시대에 성취되었지만 미래에도 성취될 것인가?
  5. 현대 저자가 아닌 성경의 저자가 당신의 답을 이끌게 하라.
- 바. 특별한 고려점들
  1. 어떤 조건에서만 그 예언은 적합한가?
  2. 누구에 대한 예언인지(그리고 왜 이 예언을 주는지) 확실한가?
  3. 이 성취가 성경과/또는 역사에서 여러 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4. 영감받은 신약의 저자들은 우리에게는 분명하지 않지만 구약의 여러 곳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모험론이나 언어유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영감받지 않았으므로 예언에 대해 이러한 방법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VI. 도움이 되는 책들

- 가. *성경적 예언의 안내*, 칼 E. 아멘딩과 W. 와드 바스큐
- 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
- 다. *나의 종인 선지자*, 에드워드 J. 영
- 라. *보습과 낮: 성경적 예언과 계시에 대한 표현의 재고찰*, D. 브랜트 샌디
- 마. *새 국제 구약신학과 석의사전*, 제 4 권 1067-1078 쪽

▣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우리는 다시금 공동체에 둔 강조점을 본다. 이점은 구약에서 매우 자주 나타난다(참조, 17:27; 19:12). 우리는 새 언약을 특징짓는 겔 18 장과 렘 31:31-34 에 이르러서야 정말로 개인적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

개역개정 20:8-18

<sup>8</sup>아비멜렉이 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 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sup>9</sup>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sup>10</sup>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sup>11</sup>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sup>12</sup>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sup>13</sup>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sup>14</sup>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sup>15</sup>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sup>16</sup>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 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sup>17</sup>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sup>18</sup>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20:8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에 대해 다급함과 즉각성을 가지고 응답함을 나타내는 히브리 관용어이다(참조, 21:14; 22:3).

▣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4-6 절은 아비멜렉의 믿음 뿐 아니라 그의 전 가족의 가진 믿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11 절 상반절에서 아브라함이 진술한 내용을 아이러니하게 만든다.

20:9-10 바로가 12 장에서 이전에 했듯이 지금 아비멜렉이 연속해서 하는 3 가지 질문은 참으로 아브라함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보여준다.

20:10 “이렇게 하였느냐” 어떤 이는 이것을 예언적 환상으로 보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것이 “네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기에 네가 이런 방식으로 행하였느냐?”를 의미한다고 본다.

20:11-12 아브라함은 왜 그가 그렇게 행동했는가에 대해 세 가지 설명을 한다. 세 가지 모두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인다. 12:12 에서도 두려움 혹은 죽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26:7 에서는 이삭도 그러했다.

20:13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영어의 표현에서 볼 때 이런 방식으로 행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아브라함이 말하듯이 보인다. 이 점은 우리로 하여금 아담이 하나님을 어떻게 비난했는지를 기억나게 한다(참조, 창 3:12). 한편, 우리가 이러한 뜻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가는 불확실하다. 여기서는 **엘로힘이 복수형 동사**(BDB 1073, KB 1766, *히* **완료 복수형**)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유일신을 일컫기 위해 이러한 용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속한다. 어떤 이는 그가 아비멜렉의 다신교적 수준에 맞추어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S. R. 드라이버). 한편 아비멜렉도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랍비들은 이 **복수형**이 비록 드물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가리키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말한다(참조, 1:26; 11:7; 35:7; 삼하 7:23). 교회는 종종 구약의 **복수형**이 삼위일체 교리의 초기적 형태라고 해석한다.

### 특별주제: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한 문맥적 상황에서 각각 하시는 일을 주목하라.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터툴리안이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 개념은 설득력이 있다.

- 가. 복음서
  - 1. 마태복음 3:16-17; 28:19(또한 이와 평행을 이루는 구절에서)
  - 2. 요한복음 14:26
- 나. 사도행전 - 행 2:32-33, 38-39
- 다. 바울
  - 1. 롬 1:4-5; 5:1,5; 8:1-4, 8-10
  - 2. 고전 2:8-10; 12:4-6
  - 3. 고후 1:21; 13:14

4. 갈 4:4-6
5. 엡 1:3-14,17; 2:18; 3:14-17; 4:4-6
6. 살전 1:2-5
7. 살후 2:13
8. 딤후 3:4-6

라. 베드로 - 벧전 1:2

마. 유다 - 20-21 절

하나님의 복수성을 구약에서 암시하고 있다

가. 하나님의 이름의 **복수형**

1. 엘로힘이란 이름은 **복수형**이지만 하나님께 사용될 때 항상 **단수형 동사**를 가진다.
2. “우리” 창세기 1:26-27; 3:22; 11:7

나. 하나님의 천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나타남

1. 창세기 16:7-13; 22:11-15; 31:11,13; 48:15-16
2. 출애굽기 3:2,4; 13:21; 14:19
3. 사사기 2:1; 6:22-23; 13:3-22
4. 스가랴 3:1-2

다. 하나님과 성령은 서로 구별됨, 창 1:1-2; 시 104:30; 사 63:9-11; 겔 37:13-14

라. 하나님(야웨)과 메시아(*아돈*)는 서로 구별됨, 시 45:6-7; 110:1; 스가랴 2:8-11; 10:9-12

마. 메시아와 성령은 서로 구별됨, 스가랴 12:10

바. 사 48:16; 61:1 에서는 3 위가 모두 언급됨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위격은 경직된 유일신을 믿는 초기의 신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져왔다.

1. 터틀리안 - 성자를 성부께 종속시킴
2. 오리겐 - 성자와 성령의 신적 속성을 종속시킴
3. 아리우스 -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함
4. 모나키안 주의 \_ 한 하나님께서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연속해서 나타나셨다고 믿음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의 자료에 기초한 사항을 역사적으로 발전시켜 나간 내용이다.
  1. 주후 325 년의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의 완전한 신성과 그가 성부와 동등하심을 확인함
  2. 콘스탄티노플 회의(주후 381 년)에서는 완전한 위격과 신성을 가지신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에 동등하심을 확인함
  3. 삼위일체의 교리는 어거스틴의 *데 트리니타테*에서 잘 설명된다.

여기에 커다란 신비가 있다. 한편 신약은 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 위격으로 나타나셨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이 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푸는 은혜라”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때 부터 자기들이 오라비와 누이라는 이 책략을 사용하기로 동의하였음을 보여준다.

20:14 이 절은 바로가 12:16 에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일을 정확히 반복하여 나타낸다.

이러한 중복은 오늘날 서구의 학자들로 하여금 모세오경이 한 사람의 저자가 기록한 것에 의문을 갖게 하였다.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된 사실과 이 중복은 그들로 하여금 여러 저자/편집자설을 주장하게 하였다(어틀리 박사가 창 1-11 장에 대하여 쓴 주석의 서론[저자]에서 이 문제를 다룬 내용을 참고하라. 그 주석은 [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 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성경의 어려운 말들(118-120 쪽)에 나온 간략하면서도 좋은 설명을 참고하라.

20:16 “은 천 개” 대부분의 번역본은 이 용어가 “세겔”을 뜻한다고 추정한다. 그 이유는 고대 근동에서 이 단어는 “값 있는 금속의 무게”를 가리키는 용어였기 때문이다(18:6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곳 이외에도 이 단어가 세겔을 명백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암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 본문이 있다(참조, 창 37:28; 삿 17:2,3,4,10).

▣

NASB, NKJV	“너의 변호”
NRSV	“무죄”
TEV	“네가 무죄함”
NJB	“네가 완전히 변호되었다”

이것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14 절)과 사라(16 절)에게 각각 준 두 개의 선물을 말하는지 아니면 이 절에 기록된 액수의 돈인 한 가지 선물을 말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두 개의 선물을 준 것이라고 믿는다.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다”는 표현은 글자대로는 “너를 위해 눈을 가리는 덮개”(BDB 492 와 744 의 합성)를 뜻한다. 이것은 사라가 완전히 무죄이며 당혹스럽게 된 일에 대해 보상을 받았다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다.

20:17 “하나님이 . . . 치료하사” 우리는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에게 일어난 질병이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를 모른다. 이 질병은 그들에게 아기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와 성관계를 갖지 못하게 막으셨다. 또한 17 절과 18 절에서 볼 때, 우리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의 저주임을 본다. 이 사실은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보여준다.

20:18 “여호와께서 . . .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것은 같은 어근(BDB 783 과 870)의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이 함께 사용된 경우로서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절은 창 20 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야웨가 나오는 유일한 곳이다. 이 문맥(17 절)에서 이 이름은 엘로힘과 평행을 이룬다. 사마리아 오경과 70 인역의 일부 사본에서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아브라함은 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나타냈는가?
2. 당신은 사라에게 두 번 일어 났고 또 리브가에게도 한 번 일어난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3. 사라를 보호하는 일이 신학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 창세기 21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이삭이 태어나다 21:1-7	이삭이 태어나다 21:1-7	이삭과 이스마엘 21:1-7	이삭의 출생 21:1-7	이삭의 출생 21:1-7 (6-7)
사라가 하갈을 적대함 21:9-14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나다 21:8-14	21:8-14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냄 21:8	하갈과 이스마엘의 떠남 21:8-14a
21:15-19	21:15-21	21:15-19	21:9-13 21:14-16	21:14b-16
21:20-21	21:20-21	21:20-21	21:17-21	21:17-19 21:20-21
아비멜렉과의 언약 21:22-26	아비멜렉과의 언약 21:22-34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분쟁함 21:22-24 21:25-34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동의 21:22-23 21:24 21:25-29	브엘세바에서 만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21:22-24 21:25-31
21:27-34			21:30-31 21:32-34	21:32-34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21:1-7

<sup>1</sup>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들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sup>2</sup>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sup>3</sup>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sup>4</sup>그 아들 이삭이 난 지 팔 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sup>5</sup>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 세라 <sup>6</sup>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우리로다 <sup>7</sup>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 21:1

NASB “그 때에 여호와께서 사라를 주목하셨고”  
 NKJV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라를 방문하셨고”  
 NRSV “여호와께서 사라를 다루셨고”  
 TEV “여호와께서 사라를 축복하셨고”  
 NJB “야웨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야웨의 이름이 강조를 위해 두 번 반복되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가능케하심을 인하여 태어났다! 이 동사는 문자적으로 “방문하다”(BDB 823, KB 955, **칼 완료형**)이다. 이 단어는 종종 야웨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거나 심판하시기 위해 그에게 가까이 가심을 나타낸다. 창 15:24-25 과 출 13:19 에서 우리는 이 일의 긍정적 면을 본다. 한편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심판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창 18:10-15 을 특별히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사라가 이 특별한 약속의 아들을 낳은 사실은(2 절; 히 11:11) 창 12 장, 15 장, 17 장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암시한다.

21:2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것은 특별히 17:21 과 18:10-15 의 내용을 가리킨다. 나는 이것이 9 개월 간의 임신 기간을 뜻한다고 믿는다.

21:3 “이삭” 그의 이름은 17:19,21 에서 주신 이름이다. 이것은 “웃음”(BDB 850)을 뜻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아브라함이 17:17 에 웃고 사라가 18:15 에서 웃은 일과 관련이 있다.

21:4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팔 일 만에 그가...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것은 야웨께서 명하신 언약의 표였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대로 생후 팔 일 쯤에 할례를 행했다(참조, 17:9-14). 창 17:25 에서 볼 때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시기와 관련지어 13 살 때에 그들의 자손에게 할례하는 것으로 발전시켰다. 고대 근동 사람들이 모두 자기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지만 다른 연령의 때에 다른 목적으로 행했다. 블레셋 사람들과 히위 사람들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즉, 34 장).

21:5 아브라함의 나이(참조, 17:17)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이지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보여준다.

21:6 여기에 언어 유희가 나타난다

1. 아브라함과 사라는 야웨께서 17:17 과 18:12 에서 계시하신 일에 대해 웃음으로서 의심을 나타냈다
2. 아기의 이름을 “웃음”으로 지었다
3. 웃음은 마침내 사라의 기쁨이 외적으로 나타난 모습이였다. 그녀 자신의 아기를 낳았고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웃으며 축하해 주었다
4. 웃음은 이삭에 대한 하갈의 태도가 부정적이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9 절에서 사용되었다

21:7 “사라가 자식들을 짓먹이겠다고” “자식들”이라는 용어는 복수형이다. 히브리어에는 예상하지 못한 복수형이 자주 나온다. 이 형태는 (1) 짝(눈, 귀, 손)으로 있는 일 (2) 강조(즉, 장엄의 복수형)를 나타낸다.

개역개정 21:8-14

<sup>8</sup>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sup>9</sup>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sup>10</sup>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sup>11</sup>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sup>12</sup>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sup>13</sup>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sup>14</sup>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21:8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우리는 당시의 자료를 통해 아이가 젖을 떼 때(즉, 생존을 확신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에 일반적으로 큰 잔치를 배설했다. 젖을 떼는 것은 두 살이나 세 살 때 이루어졌다(참조, 마카비하 7:27).

21:9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NKJV 는 “비웃다”로, NRSV 와 TEV 는 “놀리다”로 번역하였다. 70 인역은 “그녀의 아들과 놀았다”를 추가하였다. 이 히브리 단어는 “웃음” (BDB 850)을 의미하지만 *피엘*형(KB 1019)에서는 “놀리거나 희롱하다”를 뜻할 수 있다(참조, 19:14; 출 32:6; 사 16:23). 그러나 갈 4:29 과 창 16:4 에서 하갈이 조롱한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조롱하다” 혹은 “비난하다”를 의미할 것이다. 랍비들은 삼하 2:14 과 잠 26:19 을 인용하여 이 용어가 부정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한다.

21:10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동사(BDB 176, KB 204)는 명령형이다(참조, 갈 4:30). 누지 서판에 따르면 이것은 불법적인 행동이었다. 한편 “리핏-이스탈”이라고 불리는 더 이른 시기의 법 문서에서는 첩의 자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든지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든지 둘 다 합법적인 행위였다.

21:11 아브라함은 야웨께서 이스마엘을 사랑하시듯이(참조, 17:20; 21:3,18,20) 그를 사랑했다(참조 17:18). 아브라함은 사라가 요구하는 일이 부적절하며 잘못된 것이라고까지 생각했다(참조, 민 11:10; 삼상 1:8).



21:12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신다.

1. “근심하지 말라,” BDB 949, KB 1269,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동사는 사라의 요청(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 11 절에서 사용되었다.
2. “그녀의 말을 들어라,” BDB 1033, KB 570, **칼 명령, “들어라”**).

▣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있어서 사라가 평가하는 것을 받아주셨음을 함축하여 나타낸다. 이 말은 사라의 태도가 적합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볼 때,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그녀는 리브가의 경우처럼 (나중에 27 장에서 보듯이) 언약의 약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일 수도 있다.

21:13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인해 그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의 삶에 대하여는 16:11-12 에서 예언으로 설명되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갖는 관계는 그가 받는 축복의 원천이 되었다.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19:29).

21:14 “물 한 가죽부대” 이 용어(BDB 332 와 565 의 **합성**)는 구약에서 이 장에서만 사용되었다 (참조, 14,15,19 절). 이 용어는 양가죽이나 양의 위로 된 부대로서 물을 담을 수 있는 형태로 케멘 것이다.

▣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70 인역과 시리아역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그녀의 등에 메워 주는 것으로 이 부분을 번역하였다. 이 문맥에서 볼 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5 세에서 17 세가 되었을 것이기에 그의 어머니가 메고 가기에 너무 무거웠다. 따라서 이 표현은 여행을 준비함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일 것이다.

▣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31 절을 보라.

**개역개정 21:15-19**

<sup>15</sup>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sup>16</sup>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sup>17</sup>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sup>18</sup>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sup>19</sup>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21:15

- |           |       |
|-----------|-------|
| NASB, TEV | “남기고” |
| NKJV      | “두고”  |
| NRSV      | “던지고” |
| NJB       | “버리고” |

이 용어(BDB 1020)는 죽어가는 것을 버리는 것을 나타낸다(출 1:22; 시 71:9; 렘 38:6,9; 겔 16:5).

21:16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드물게 사용된 이 동사(BDB 377, KB 373, **플렐 분사**)는 구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 “소리 내어 우니” 이곳에서 약간의 혼동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가 우는 것을 들으셨다고 말하는데 엄마가 우는 소리에 대해서만 본문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는 이 본문이 그 상황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간략한 요점만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한다. 이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16:6 이하에서 하갈에게 말했듯이 이번에 또 다시 하갈에게 말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변두리에 속한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

21:17-18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1. “무슨 일이냐,” (동사가 사용되지 않았음)
2. “두려워 하지 말라,” BDB 431, KB 432,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으로 사용되었음, 참조, 같은 어근이 15:1; 26:24; 46:3 에 나옴
3. “일어나라,” BDB 877, KB 1086, **칼 명령**
4. “아이를 일으켜,” BDB 669, KB 724, **칼 명령**
5. “네 손으로 그를 붙들라,” BDB 304, KB 302, **히필 명령**, 이것은 그를 돌보고 양육함을 뜻한다.

21:17 **엘로힘**이 야웨의 천사와 동일시 되면서도(즉, 그들은 하늘에서 말했다) 또한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지를 주목하여 보라(참조, 출 3:2; 4 장). 12:7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천사를 보라.

▣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것은 이스마엘의 이름과 관련이 있는 언어유희이다(참조, 16:11). “듣다”라는 **동사**(BDB 1033)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이스마엘(BDB 1035)은 명백히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이다.

21:18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동사**(BDB 962, KB 1321, **칼 미완료형**)는 “두다” 혹은 “놓다”를 뜻한다(참조, 21:13; 46:3). 이 단어는 12:2 이나 18:18 에 있는 바 야웨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에서 사용된 단어(BDB 224, KB 243, **칼 부정사 절대형**)와 똑 같은 **동사**(BDB 793, KB 889, **칼 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임**)가 아니다.

21:19 만일 19 절이 기적적으로 보는 것을 뜻하는지 혹은 이전에는 있지 않던 물의 근원을 공급하시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와 같은 용어가 창 3:5 과 왕하 6:15-19 에서 사용되었다.

**개역개정 21:20-21**

<sup>20</sup>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sup>21</sup>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21:20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라는 은유적 표현은 야곱(창 28:15) 및 요셉(창 39:2,3, 21)에 대하여도 사용되었다. 이것은 야웨의 직접적인 돌보심과 함께 하심을 나타낸다(21:22 의 설명을 보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어 받았다!

21:21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 일은 아버지가 하는 일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해 그녀의 동족에게서 아내를 구해 주었다.

**개역개정 20:22-26**

<sup>22</sup>그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도다 <sup>23</sup>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sup>24</sup>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sup>25</sup>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sup>26</sup>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21:22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같은 두 이름이 이삭 및 브엘세바에 있는 바로 이 우물의 문제와 관련하여 창 26:26 에서 언급된다. 왕과 군대 장관의 이 이름이 일반적인 이름이었고 이들이 매우 긴 세월을 살았거나 아니면 창세기의 히브리 본문(즉, 편집자)에 혼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 뿐 아니라 이삭에게 대하여도 사용되었다(참조, 창 26:28).

21:25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 곳에 있는 단어는 “나무랐다”(BDB 406, KB 410, *히팔 완료형*)를 가리킨다. 이 반건조 지역에서 우물과 관련한 분쟁은 흔한 일이었다. 아비멜렉의 답변은 그가 그 문제에 대해 몰랐으며 아브라함과 언약을 여전히 유지하기 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맹세하다,” BDB 989, KB 1396, *니팔 명령*, 23 절).

#### 개역개정 21:27-34

<sup>27</sup>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sup>28</sup>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sup>29</sup>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이나 <sup>30</sup>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sup>31</sup>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sup>32</sup>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sup>33</sup>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으며 <sup>34</sup>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21:27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27 절에 나오는 짐승들의 몸은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분명히 두 쪽으로 나뉘어졌을 것이다(13:14 의 특별주제: 언약을 보라).

21:28 “일곱 암양 새끼를” 이 짐승들이 27 절에 나오는 것과 구별됨이 분명하다. 이 짐승들은 브엘세바에 있던 우물과 분명한 관련을 갖는다. “브엘세바”라는 이름에 대하여는 두 가지 유래가 있다: (1) “일곱의 우물,” 21:28 혹은 (2) “맹세의 우물,” 26:33(“일곱” [BDB 987]과 “맹세” [BDB 989]는 히브리어에서 서로 비슷한 단어이다).

21:32 “블레셋 사람” 많은 주석가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많은 수가 아직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비록 이러한 설명이 사실일지라도 에게 사람들의 용병적인 특성은 그들이 이집트에 침입하는 일이 좌절되어 이곳에 그들이 정착한 시기인 주전 12 세기 이전에도 적은 규모로나마 그들이 이 지역에서 살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기록이 시대착오적 내용일 가능성도 있다.

21:33 “에셀 나무를 심고” 이 나무는 두 가지를 상징하였다.

1. 지하수의 존재. 이것은 종종 성스러운 장소와 관련을 가졌다(하나님께서서는 하갈, 이스마엘, 아브라함에게 물을 공급하신다).
2. 유목민인 아브라함은 여기서 오래 머물기 위해 나무를 심었다.

▣ “영원하신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야웨(BDB 42)이다. 이 본문은 예배를 드린 모습을 나타낸다(참조, 4:26; 12:8). 이것은 노아가 창 8:20 에서 한 일과 비슷하다.

▣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사용된 이 이름은 이곳에서만 나온다. 이 이름은 엘(BDB 42)과 올람(BDB 761)이라는 두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엘이라는 용어는 창세기의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 다른 여러 이름과 함께 사용되었다: (1) 엘 샤폰(BDB 42 와 994), 17:1; 43:1; 출 3 장 (2) 엘 엘론(BDB 42 와 751 II), 14:18-24 (3) 엘 로이(BDB 42 와 909), 16:13 (4) 엘 벵엘(BDB 42 와 110), 31:13; 35:7. 엘은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 호칭이었다 (12:1 의 특별주제를 보라).

올람(BDB 761)이라는 이름은 “감추인 것”을 뜻하는 말로써 과거 혹은 미래를 나타낸다. 이 단어는 “영원한”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그 의미는 반드시 문맥을 통해 확인되어야만 한다(13:14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창 21 장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가?
2. 아비멜렉도 아도나이를 알았는가?
3.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녀도 자기 자신이 “노쇠하였다”(참조, 18:12)라고 말했는데 아비멜렉은 왜 사 را를 자기의 아내로 취했는가?
4. “선지자”라는 용어는 무엇을 뜻하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러한 호칭에 적합한 사람인가?
5. 아비멜렉을 속인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11-13 절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하여 보라.
6. 사라는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기를 요구했는가?

# 창세기 22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이삭을 제물로 드림 22:1-8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됨 22:1-2  22:3-8	아브라함의 시험 22:1-8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릴 것을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다 22:1  22:2  22:3-5  22:6-7a  22:7b  22:7c  22:8	아브라함의 제물 22:1-2  22:3-5  22:6-8
22:9-14	22:9-14	22:9-14	22:9-11a  22:11b  22:12  22:13-14	22:9-10  22:11-14
22:15-19	22:15-19  나훔의 후손	22:15-19	22:15-19	22:15-18  22:19
22:20-24	22:20-24	22:20-24	22:20-24	22:20-24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개역개정 22:1-8

<sup>1</sup>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sup>2</sup>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sup>3</sup>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sup>4</sup>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sup>5</sup>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sup>6</sup>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sup>7</sup>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sup>8</sup>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22:1 “하나님” 히브리어로 이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이다. 이것은 창세기의 앞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자주 사용된 이름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는 이 이름의 어원에 대해 잘 모른다. 하지만 창 31:29 에서 나타나는 언어 유희를 통해 볼 때 이 이름은 “강하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 세기와 19 세기의 비평적 학자들은 창세기의 서로 다른 장에서 발견되는 이름인 *엘로힘*과 *야웨*에 기초하여 문서설의 여러 자료에 대한 가설을 제시했다. 한편 랍비들은 이러한 이름의 차이는 그 이름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주이신 측면을 나타내며, *야웨*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공휟하심을 나타낸다. 나는 랍비들의 설명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특별주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시험하시다

“시험하다”(BDB 650, KB 702, *피엘 완료형*)라는 용어는 “시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어떤 이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우선순위를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함을 나타내는 장소로 그를 데려옴을 뜻한다. 창세기 12 장에서 22 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상황(랍비들은 10 가지라고 말함)을 통해 나타나셔서 오직 하나님께 그의 믿음과 신뢰의 초점을 두도록 이끄심이 분명하다.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있는 일이며,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기 위해 가족, 집, 친구, 유산, 전통, 미래(그가 약속으로 받은 아들)까지 포기하도록 요청받았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그들이 우선순위를 갖는 영역에 대해 시험하신다(참조, 마 4:1 이하; 히 5:8; 12:5-13).

하나님께서서는 알아 보시려고(BDB 393) 시험하신다(BDB 650). 이스라엘은 종종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써 시험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참됨을 입증하셨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말로써 고백한 믿음과 충성을 입증할 기회를 주실 것이다.

1.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공동체적으로 시험하셨다
  - ㄱ. 출 15:25; 16:4; 20:20
  - ㄴ. 신 8:2,16; 13:3
  - ㄷ. 사 2:22; 3:1,4

2.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개인적으로 시험하셨다
  - ㄱ. 아브라함, 창 12:1-12
  - ㄴ. 히스기야, 대하 32:31
3. 시편의 저자들은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사 숨겨진 잘못을 제거시켜 달라고 부르짖는다(참조, 26:2; 139:23)
4. 하나님의 신약 백성들도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과 같이 똑같이 시험받는다(마 4 장; 눅 4 장; 히 5:8).

▣ “부르시되... 하시니” 이 장에는 일련의 대화가 나온다. “말씀하시다/말씀하셨다”(BDB 55, KB 65)가 여러번 사용되었고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있음을 주목하라.

- |             |               |
|-------------|---------------|
| 1. 1 절, 두 번 | 7. 9 절, 한 번   |
| 2. 2 절, 두 번 | 8. 11 절, 두 번  |
| 3. 3 절, 한 번 | 9. 12 절, 한 번  |
| 4. 5 절, 한 번 | 10. 14 절, 한 번 |
| 5. 7 절, 네 번 | 11. 16 절, 한 번 |
| 6. 8 절, 한 번 | 12. 20 절, 한 번 |

▣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다. 아브람은 “높임을 받은 아버지”이며 아브라함은 “무리의 아버지”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새 이름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하시려 하신다! 70 인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복하여 부르시는 것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히브리 사본은 1 절에서는 “아브라함아”라고 한 번만 부르시고 11 절에서는 두 번 부르신 것으로 나타낸다.

▣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준비되어 있음을 뜻하는 관용적 표현이다(참조, 11 절; 출 3:4; 삼상 3:4; 사 6:8).

22:2 이삭에 관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일련의 명령을 주목하라.

1. “네 아들을 데리고,” BDB 542, KB 534, **칼 명령**
2. “모리아 땅으로 가라,” BDB 229, KB 246, **칼 명령**(이 형태로 사용된 이 동사가 이곳과 창 12:1 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이 두 본문은 이 두 가지 시험을 약속과 성취의 관점에서 묶고 있다[또한 18 절과 창 12:3 의 설명을 보라])
3.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BDB 748, KB 828, **히꼐 명령**

▣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것은 특별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특별하게 일컫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구의 연속으로 보인다. 또한 그가 “독자”(BDB 402)임을 주목하라(참조, 2,12,16 절).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으며 아브라함이 그를 내 보냈다! 자손에 대한 아브라함의 모든 희망은 바로 이 소년에게 걸려 있는데, 야웨께서는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신다!

▣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 용어(BDB 599)는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다.

1. 벌개이트역과 사마리아 오경에서는 “환상”으로 되어 있다
2. 탈군은 이 단어를 “예배”로 번역하였다
3. 70 인역은 “높은”으로 번역하였다
4. 페쉬타에서는 “암몬 사람들의”로 되어 있다
5.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야웨께서 보이심”으로 번역한다

6. 다른 이는 “선택한”으로 말한다

7. 또 어떤 이는 “나타나는 땅”으로 번역한다

이 단어가 사용된 대하 3:1 에 비추어 볼 때 “나타나는 땅”이라는 번역이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여겨진다. 그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모리아 산에 성전이 건축되었음을 언급한다. 이것은 삼하 24:16 이나 대상 21:18-30 을 가리킬 수 있다. 그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림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이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이거나 혹은 역대상의 저자에게 이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모리아는 멜기세덱의 성읍인 살렘(14:18)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성읍은 후에 여부스로 불리다가 예루살렘으로 불렸다.

▣ “번제” 이것은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뜻하는 “번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이다(BDB 750). 이 제사는 그의 목을 베는 의식은 물론 그를 도살하는 의식을 포함하는 일이었다. 이것이 그에게 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얼마나 충격적인 명령인가! 아브라함은 요 3:14 에서 암시하고 있는 바 민 21 장의 사건과 같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하여야 했다.

22:3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의 편에서 어떤 주저함이나 질문을 제기한 기록이 없음을 주목하라. 하지만 이것은 매우 힘든 밤이 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이것이 생략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란 표였는지는 잘 모른다. 아브라함은 온전한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다. 하지만 이 기록에서 그가 하나님께 가진 가장 커다란 신뢰를 분명히 볼 수 있다. 이것은 신뢰함에 대한 시험에 있어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

22:4 “제삼일에”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대략 이틀 반의 여정이었다. 하지만 나귀 위에 필요한 물품을 싣고 가려면 좀 더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22:5 그가 종들에게 명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말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라.

1. “여기서 기다리라,” BDB 442, KB 444, **칼 명령**
2.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BDB 229, KB 246, **칼 청유형**
3. “예배하고, BDB 1005, KB 295,” **히스타펠 청유형**
4.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BDB 996, KB 1427, **칼 청유형**

▣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매우 분명하였기에 히 11:17-19 에서는 필요하다면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 아브라함과 함께 그들의 집으로 올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자손을 가진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1:12 절에서 이미 하신 약속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비록 아브라함이 그 일이 어떻게 혹은 왜 일어날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았고 또 이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22:6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과 나중에 예수께 일어날 일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신약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은 우화적 해석이나 모형론의 사용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그러한 해석이 교회 역사상 주석가들에 의해 줄곧 남용되었기 때문이다. 이삭과 예수님의 경우에는 분명히 암시적 관계가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행하지 않게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아들에게 행하셨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랑과 믿음에 공감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 “**불과 칼을**” 이 불이 전날 밤 야영지에 있던 숯불을 가르키는 것인지 아니면 부싯돌과 불쏘시개가 담긴 작은 가방을 의미하는지는 불확실하다. 이 칼은 “**짐승을 잡을 때 쓰는 칼**”(BDB 38)로서 음식을 요리할 때 사용한 커다란 칼이었다(참조, 삿 19:29; 잠 30:14).

22:7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의 질문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가슴에 꽂혔을 것이다. 그는 8 절에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매우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이삭이 번제를 드림에 대해 익숙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형태의 제사제도가 모세의 율법 이전에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 제도는 (1) 가인과 아벨(창 4 장) (2) 노아(창 8:20) (3) 욥(욥 1:5)에게서 볼 수 있다.

22:8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표현은 후에 14 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다(“야웨” [BDB 217]와 “**보다**” [BDB 906]).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나타내는 새로운 이름이 되는 것을 자주 보았다. “**준비하시리라**”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실제로는 “~하도록 조치하시리라”(BDB 9906, KB 1157, **칼 미완료형**)를 뜻하는데, 이 본문에서와 같은 특별한 뜻을 갖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보시는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

**개역개정 22:9-14**

<sup>9</sup>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sup>10</sup>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sup>11</sup>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sup>12</sup>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sup>13</sup>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sup>14</sup>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22:9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뿐 아니라 이삭의 위대한 믿음도 보게 된다. 이삭은 산 위까지 나무를 짊어지고 갈 만큼 나이가 들었으며 그는 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묶는 일을 제지시킬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나이의 아들이었다. 이 일을 앞에 두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몇 시간에 걸쳐서 종교적 토론을 가진 후에 이 일을 행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결박하다**”라는 **동사**(BDB 785, KB 873, **칼 미완료형**)는 구약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같은 어근의 단어(BDB 785)는 구부리다 혹은 비틀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단어는 희생제물의 다리를 비틀어 함께 묶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22: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것은 희생제물의 목을 베는 의식적 행동을 가리킴이 분명하다.

22:11 “**여호와와 사자가**” 11 절과 12 절을 통해서 볼 때 이 “**여호와와 사자**”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나타나신 것을 의미한다(참조, 창 16:7-13; 18:1; 19:1; 21:17,19; 22:11-15; 31:11,13; 32:24,30; 48:15-16; 출 3:2,4; 13:21; 14:19; 삿 6:12,14; 숙 3:1,2). 한편 12 절에서 그 천사가 “**하나님**”께 대해 어떻게 언급하는가를 주목하라. 창세기에서 언급된 다른 모든 영적 실재를 통하여 볼 때 확일적으로 유일신 사상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즉, 창 1:2 의 “**영**”; 창 1:26; 3:22; 11:7 의 “**우리가**”; 바로 앞에서 언급한 “**여호와와 사자**”; 시 110:1 의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을 또한 살펴보자). 이 모든 내용이 서로 어떻게 내적 관계를 갖는지는 신비스럽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함께 신 6:4 에 나타난 유일신 주의를 믿는다. 20:13 의 특별주제: 삼위일체를 보라.

22:12 이 곳에 두 가지의 부정적 명령이 나온다.

1.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BDB 1018, KB 1511, **칼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2.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BDB 793, KB 889, **칼지시형**

다음에 나오는 **완료형**은 야웨께서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완전히 만족하시고 계심을 나타낸다.

1. “내가 이제야 . . . 아노라,” BDB 393, KB 390, **칼 완료형**

2.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BDB 362, KB 359, **칼 완료형**

2 절에서 이삭에게 대해 사용된 반복적인 표현이 12 절에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참조, 16 절).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는 말은 야웨께서 미리 아심에 대해 의문을 갖게하는 말인가 아니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인정을 나타내는 문학적 방법인가? 나는 이 문장을 두 번째의 의미로 이해한다. 나는 열린 신론(Open Theism, 첫 번째 의견을 주장함)에 대해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

NASB, NKJV,

NRSV, NJB

“두려움”

TEV

“높임”

페쉬타

“존경하다”

REB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용어(BDB 431)는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두려움”을 뜻할 수 있지만 (참조, 창 3:10; 18:15; 20:8; 28:17; 32:7; 42:35; 43:18),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자세를 말하는 어떤 문맥에서는 “경외심,” “존중,” “존경” 등으로 번역되었다. 다음의 본문을 참고하라: 창 42:18; 출 1:17; 9:30; 18:21; 레 19:14,32; 25:17,36,43; 신 6:2,24; 10:12,20; 14:23; 17:19; 25:18; 28:58; 31:12-13; 시 33:8. 이 “두려움”은 예배와 순종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삶과 관련이 있는 모습이지, 어떤 사건, 장소, 신조, 규칙 등 일상생활과 분리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순종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무서움에서가 아니라 존경과 사랑에서 흘러 나오는 것이다. 불순종은 법을 거스리는 일임은 물론이지만, 이는 우선적으로 사랑에 거스리는 일이다! 우리가 갖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창 15:6)은 그의 삶에서 드러났다!

22:13

NASB, RSV

“그의 뒤에 한 숫양이”

NKJV

“그리고 그의 뒤에 한 숫양이 있는데”

NRSV, TEV

“한 수양”

이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 사본 사이에 변이가 나타난다. 맞소라 본문에는 부사인 “뒤에”(אחֲרַי, BDB 29)가 있으나 어떤 히브리 사본, 사마리아 오경, 70 인역, 페쉬타에는 “한” 양으로 번역된 “하나”(אֶחָד, BDB 25)로 되어 있다.

▣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수양을 번제로 드릴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그곳은 후일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바로 그 산이었다. 이 일은 대신하여 드리는 제사의 초기 형태로서 후에 모세의 율법규정으로는 물론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지고한 제사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발전되었다 (참조, 사 53 장과 요 1:29; 히브리서; 뵤전 1:18-19; 계 5:11-14).

22:14 “오늘날까지” 이것은 후의 편집자가 사용한 문학적 표현일 것이다. 이 사람은 모세 자신이거나 혹은 모세를 돕는 제사장인 서기관이었을 것이다. 요셉의 시대까지 포함하는 창세기는 대부분이 족장들의 구전이나 기록으로 전해진 전통에서 왔을 것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8 절에서 대답한 말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거하게 하시는 장소”라는 표현과 관련이 있는 지명을 예시하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신 12:5,11,21; 14:23,24; 16:2,6,11 등. 원래 이 표현은 회막을 뜻하였지만 모리아 산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개역개정 22:15-19

<sup>15</sup>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sup>16</sup>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sup>17</sup>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sup>18</sup>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sup>19</sup>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22:16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것은 창세기에서 언약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유일한 본문이다. 이것은 히 6:13-18 에서 주요한 신학적 요점을 갖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무조건적인 약속이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위대한 행동(즉, 18 절에서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을 주목하라. 성경의 언약이 갖는 무조건적/조건적 특성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간의 조건적인 응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이 절에는 강조를 나타내는 두 가지 문법 구문이 나온다.

1. “축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근(BDB 138, KB 159)이 *피엘 부정사 절대형*과 *피엘 미완료형*으로서 함께 사용되었다. 따라서 “내가 너를 크게 축복하리라”로 번역된다.
2. “증가하다” 혹은 “많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근(BDB, KB)이 *히필 부정사 절대형*과 *히필 미완료형*으로서 함께 사용되었다. 따라서 “내가 너의 씨를 굉장히 번성하게 하겠다”로 번역된다.

이 내용은 창 12 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씨와 땅에 대한 약속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러한 면은 처음의 창조에서도 그러하다). 신약은 씨의 약속을 강조하는 한편 땅에 대한 약속은 강조하지 않고 있다.

▣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수가 많음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여러 은유적 표현 가운데 두 가지이다(참조, 먼지, 창 13:16; 28:14; 민 23:10; 별들, 창 15:5; 26:4; 모래, 창 32:12).

▣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문은 고대 사회에서 안전을 상징한 것으로서 성벽이 있는 도시를 나타낸다. 어떤 사람의 문을 확보한다는 표현은 그의 성을 빼앗는 일을 뜻한다. 따라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들에게 대항하여 일어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 군사적 승리를 얻을 것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다. 이와 같은 은유적 표현이 마 16 장에서 “음부의 권세(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에서 사용되었다.

우리는 예언서를 통해서 이 약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순종함이란 조건을 가진 것이었듯이(참조, 15:6; 22:16,18) 이스라엘에 대하여도 그들의 순종 여하에 달린 조건적인 약속임을 알게 된다. 야웨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인해 폐지되었다. 우리는 성경의 초점이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한편, 하나님의 소원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않는 세상(즉, 전 세계)에 드러내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게 하는 일임을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한다!

22:18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절과 관련된 문법적 신학적 쟁점은 “축복하다”라는 동사(BDB 138, KB 159)의 *니팔 완료형*과 *히트파엘 완료형*을 어떻게 번역하는가와 관련이 있는데 이 단어는 다음의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1. 창 12:3, *니팔 완료형*
2. 창 18:18, *니팔 완료형*
3. 창 22:18, *히트파엘 완료형*
4. 창 26:4, *히트파엘 완료형*
5. 창 28:14, *니팔 완료형*

*니팔 동사형*은 대개 수동태(이 동사는 창세기에서만 수동태로 번역되어 나타난다)를 나타내는데 **재귀적** 혹은 **상호적** 기능을 가진다. *히트파엘 동사형*은 **재귀적** 혹은 **상호적** 기능을 나타낸다(참조, 신 29:19; 시 72:17; 사 65:16[2 회]; 렘 4:2).

신약은 이 중요한 약속을 수동태로서 인용한다. 행 3:25 과 갈 3:8 을 보라. 이스라엘이 열방에 대해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참조, 출 19:5-6) 선교적 사명과 관련하여 질문이 생긴다. 비록 이것이 8 세기의 선지자들에 이르러서야 명확하게 진술되고 있지만, 이 사명은 창세기에 있는 이러한 본문을 전제로 하며 또 이를 암시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하였다(모세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나타내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민족들은 야웨께 응답하고 야웨의 신실하심을 의뢰해야만 되었다(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참조, 창 15:6; 롬 4:3; 갈 3:6; 약 2:23). 그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해 또 이스라엘에게 나아오음으로써 야웨께서 주신 계시를 인식하며 이에 응답해야만 한다. 만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한다면, 모든 열방은 이스라엘의 부요함과 안정된 사회가 제시하는 증거 대신에 야웨의 심판만을 바라보아야만 되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실패했고, 이 사명을 교회에 넘겨주었다(즉, “대 위임,” 마 28:19-20; 눅 24:47; 행 1:8)!

#### 개역개정 22:1

<sup>20</sup>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sup>21</sup>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므엘과 <sup>22</sup>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브두엘이라 <sup>23</sup>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브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sup>24</sup>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22:20-24 이 계보가 이 곳에 있는 것은 평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이 단락이 이삭의 장래 아내가 될 리브가를 23 절에서 언급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기초를 놓고 있는 것이다.

22:23 “브두엘” 이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BDB 143 I)을 뜻한다.

▣ “리브가” 이 히브리 이름(BDB 918)의 어원론적 의미는 “짐승을 묶다”를 뜻하여 “묶는 장소”를 나타내거나, 여자에게 대하여 사용되어 “유혹하는 여자”를 뜻한다. 랍비들은 리브가의 아름다움이 이삭을 유혹하였고 그의 사랑을 “붙들어 매었다”라고 이 의미를 설명한다.

22:24 “르우마” 이 단어(BDB 910)의 의미로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 (1) “높이 들리운,” 이것은 그녀가 종에서 첩으로 높임을 받았기에 적절한 의미로 보인다 (2) “진주” 혹은 “진주의,” 이것은 히브리 단어에서 가까운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자기 자녀를 시험하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모리아”라는 용어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곳은 어디에 위치하였는가?
3.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셨는가?
4. 20-24 절은 왜 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가?

# 창세기 23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사라의 죽음과 장사	사라의 죽음과 장사	아브라함이 가족 장지를 구입함	사라의 죽고 아브라함이 장지를 사다	족장들의 무덤
23:1-16	23:1-16	23:1-16	23:1-2 23:3-4 23:5-6 23:7-9 23:10-11 23:12-13 23:14-16	23:1-2 23:3-6 23:7-11 23:12-16
23:17-20	23:17-20	23:17-20	23:17-18 23:19-20	23:17-20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23:1-16

<sup>1</sup>사라가 백이십칠 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sup>2</sup>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랴아르바에서 죽으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sup>3</sup>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sup>4</sup>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sup>5</sup>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sup>6</sup>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sup>7</sup>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sup>8</sup>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sup>9</sup>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sup>10</sup>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sup>11</sup>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sup>12</sup>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sup>13</sup>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sup>14</sup>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sup>15</sup>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사백 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sup>16</sup>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사백 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23:1 아브라함이 집에 돌아와 사라에게 자신이 행한 일을 말했을 때 사라는 크게 일곱 번 부르짖은 후 죽었다고 랍비들은 말한다. 그녀의 죽음은 23 장에 기록되어 있다. 랍비들의 설명이 맞는지 틀리든지 우리는 그들이 어디서 그러한 해석을 위한 자료를 얻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23:2 “기랏아르바” 이 이름(BDB 900)은 다음의 말로 구성되어 있다

1. “기랏”은 “도시”를 뜻함
2. “아르바”
  - ㄱ. 대개 “4 의 도시”(즉, 아낙과 그의 세 아들 혹은 네 마을이 함께)
  - ㄴ. 같은 어근이 매복(BDB 70)을 가리킴
  - ㄷ. 아낙 자손의 한 사람의 이름, 수 14:15; 15:13; 21:11

14:5 의 특별주제: 거인들을 보라.

▣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우리는 이러한 애곡 및 그 지방 사람들과의 흥정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모른다. 사라의 몸은 이러한 기후 조건에서 급속히 부패했을 것이다(로렌드 드보의 *고대 이스라엘: 사회적 제도*, 제 1 권 56-61 쪽에 있는 죽음과 장례 의식이라는 장을 보라).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지금도 방부처리를 하지 않음) 죽은 자를 24 시간 이내에 매장해야만 한다.

23:3-13 이 장의 남은 부분은 헤브론 근처에 사는 지역 주민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형식을 갖추었으며 동양의 표준적 관습에 따른)에 대한 기록이다. 명령형을 통해 나타난 형식에 주목하라(TEV 의 문단 구분을 주목하라).

1. “내게 주어,” 4 절, BDB 678, KB 733, *칼 명령*이 요청의 의미로 사용됨
2. “매장지를,” 4 절(문자적으로는 매장하기 위한 소유), BDB 868, KB 1064, *칼 청유형*
3. “들으소서,” 6 절, BDB 1033, KB 1570, *칼 명령*(헷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사용함)
4.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6 절, BDB 868, KB 1064, *칼 명령*(이 일 즉 그들이 가진 땅에 사라를 묻는 일은 아브라함이 원하던 내용이 아니었다)
5. “듣고,” 8 절, 3 항과 같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한 말임
6. “~에게 구하여(또는 다가가),” 8 절, BDB 803, KB 910, *칼 명령*(요청으로서)

7. “내게 주어,” 9 절, BDB 678, KB 733

ㄱ. 칼 지시형

ㄴ. 칼 명령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에브론은 11 절[세 개의 칼 완료형]에서 응답하고 있는데, 그의 말은 땅을 거저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흥정을 기대하는 말이다; 그의 말은 기본적으로 그가 이에 대해 아직 누구하고도 흥정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8. “들으소서,” 11 절, 3 항 및 5 항과 같은 단어임(에브론은 아브라함에 말하고 굴과 그 앞의 밭을 제시함)

9. “장사하소서,” 11 절, 4 항과 같음

10. “들으시오”(문자적으로는 “들어라”), 13 절, 3 항, 5 항, 8 항과 같은 단어임(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말함)

11. “들으소서,” 15 절, 3 항, 5 항, 8 항, 10 항과 같은 단어임(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밭의 가격에 대한 더 이상 흥정의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가격을 말한다. 이 값은 분명히 비싼 가격이었다)

이 대화는 형식적이며 반복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여겨지지만 주전 2000 년 이후의 가나안 사회에서는 예견된 절차였다.

**23:3 “헛 족속에게”** 헛(헛, BDB 366)이라는 이름은 히타이트 족속(히티, BDB 366, 참조, 창 10:15; 대상 1:13)의 조상이었다. 12:6 의 특별주제: 이스라엘 이전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을 보라.

**23:4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 두 가지 용어는 서로 다른 뜻을 가진 단어이지만, 여기서는 두 단어가 한 가지 뜻(hendiadys)을 가진다.

1. “나그네”(BDB 158)는 이방인 거주자를 뜻한다, 참조, 창 15:13; 출 22:21; 23:9; 레 19:34; 신 10:19; 23:8

2. “거류하는 자”(BDB 444)는 아무런 법적 권리를 갖지 못하고 거쳐가는 이방인이다, 레 22:10; 25:40

아마도 함께 사용된 두 단어는 아직 사람이 정착하지 않은 곳으로 이주해 들어 온 사람들로서 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뜻할 것이다. 로렌드 드보의 *고대 이스라엘: 사회적 제도*, 제 1 권 74-76 쪽에 있는 글인 “거주하는 이방인들”을 보라.

**23:6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하나님께서 세우신”이라고 번역된 단어인 *엘로힘*(BDB 43)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다

1. 하나님
2. 재판관
3. 천사들
4. 여기서는 힘있는 지역민으로서 가족의 우두머리

“하나님께서 세우신”으로 번역된 단어는 *엘*(BDB 42, 참조, 대상 12:22; 시 68:15; 요 3:3)에서 왔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방백”으로 번역하기 원한다.

“지도자”로 번역된 단어(BDB 672)는 “높이 들린 사람”(그 어근은, BDB 669 에서 음)을 뜻한다. NASB 역은 다음과 같이 이 단어를 번역하였다

1. “왕자” 창 17:20; 25:16; 34:2 에서
2. “지도자” 출 16:22; 민 1:16,44; 2:3; 수 22:32 에서
3. “통치자” 출 22:28; 34:31; 35:27; 왕상 11:34 에서
4. “두목” 수 13:21 에서

매우 격식을 갖춘 협상에서 이 단어는 존경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헛 족속은 종교적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23:9 “**막벨라 굴**” 이것은 막벨라로 불리는 지역에 위치한 굴(일반적으로 매장지로 사용됨)을 가리킬 것이다. 막벨라는 헤브론에서 마므레를 향해 있는 외진 지역이었다(참조, 13:18; 14:13; 18:1).

아브라함의 가족 가운데 여러 사람이 이 곳에 장사되었다.

1. 사라, 23:19
2. 아브라함, 25:9
3. 이삭, 35:29
4. 리브가와 레아, 49:31
5. 야곱, 50:13

23:10 “**성문에**” 이 장소는 지역의 지도자들이 교제와 사업과 사법적 일을 의논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었다.

▣ “**헛 족속**” 12:6 의 특별주제를 보라.

23:15 “**세겔**” 18:6 의 특별주제: 고대 근동에서의 도량형을 보라.

개역개정 23:17-20

<sup>17</sup>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러 모든 나무가 <sup>18</sup>성 문에 들어온 모든 헛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sup>19</sup>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sup>20</sup>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헛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23:18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 동사(BDB 877, KB 1086, **칼미완료형**)는 들어 올리다 혹은 일어서다를 뜻한다. 이 단어는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표현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이제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가나안에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그네나 거류민이 아니었다.

# 창세기 24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이삭의 신부	이삭의 신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이삭의 아내	이삭의 결혼
24:1-9	24:1-9	24:1-9	24:1-4 24:5 24:6-9	24:1-9
24:10-14	24:10-14	24:10-14	24:10-14	24:10-14
리브가가 선택되다				
24:15-21	24:15-21	24:15-21	24:15-17 24:18-21	24:15-21
24:22-27	24:22-28	24:22-27	24:22-23 24:24-25 24:26-27	24:22-27
24:28-41	24:29-31 24:32-41	24:28-33	24:28-31 24:32-33a 24:33b	24:28-32 24:33-49
24:42-44	24:42-44	24:42-44	24:34-41 24:42-49	
24:45-49	24:45-49	24:45-49		
24:50-51	24:50-51	24:50-51	24:50-53	24:50-53
24:52-61 (60)	24:52-60 (60)	24:52-61 (60)	24:54 24:55 24:56 24:57-58a 24:58b 24:59-61 (60)	24:54-61 (60)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다	24:61-67			
24:62-67		24:62-67	24:62-65a	24:62-67
			24:65b	
			24:66-67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24:1  
<sup>1</sup>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sup>2</sup>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놓으라 <sup>3</sup>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sup>4</sup>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sup>5</sup>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sup>6</sup>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sup>7</sup>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sup>8</sup>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sup>9</sup>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24:1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의 나이가 40 세라고 말하는 창 25:20 의 본문을 아브라함이 100 세에 이삭을 낳았음을 말하는 창 21:5 의 본문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24 장의 시작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 세에 이른 것을 알게 된다. 그는 175 세를 살았다(참조, 창 25:7).

▣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35 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의 내용을 보라.

24:2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늙은”이라는 이 형용사(BDB 278, “수염”이라는 명사에서 음)는 권세를 가진 자를 뜻하지만 반드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참조, 창 50:7; 사 3:2). 많은 주석가들은 이 신실한 종이 창 15:2 에서 언급된 다메섹 사람인 엘리에셀이라고 본다. 그가 이삭의 아내를 찾음에 있어서, 유산을 상속받는 일과 관련하여 그가 이기적이지 않은 성품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사실상 그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조연들 가운데 가장 경건하며 멋지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넣으라”(BDB 962, KB 1321, 칼 명령)는 동사는 당시의 문화에서 3 절에 나오는 서약과 관련을 가지는 매우 중요한 명령이었다(“맹세하다,” BDB 989, KB 1396, *히필 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됨).

당시의 문화에서 이러한 특별한 행동은 이곳과 창 47:29 에서만 언급되고 있다. 이 행동의 정확한 목적에 대하여 여러 이론이 제시되었다.

1. 허벅지가 남자의 후손에 대한 상징이기에(BDB 437, 1,b, 참조, 창 46:26; 출 1:5; 삿 8:30), 이 단어는 생식기관을 가리킬 것이다. 만일 이러한 해석이 맞다면, 이것은 야웨의 언약의 표인 할례를 가리킬 것이다(3 절). 이것은 요나단의 탈굽과 라쉬가 이 절을 해석한 방법이다.
2. 이것은 후손을 가리키는 말로써 제롬, 어거스틴, 루터는 아브라함의 궁극적 후손인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3. 어떤 이는 이것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막중한 일을 감당하는 이 특별한 관리자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주인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본다(참조, 아벤 에즈라와 칼빈).
4. 이것은 만일 위반하는 경우에 불임이 있을 것을 문화적으로 말하는 저주의 서약을 나타낼 것이다.

24:3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주석가들은 아브라함이 참된 유일신론자였는지 아니면 단일신교주의자(그 자신은 한 하나님만 섬기지만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였는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을 했다. 바로 이 절의 표현에 근거하여 나는 아브라함이 유일신론자였다고 믿는다. 많은 학자들은 철학적으로 완전히 완성된 유일신주의는 8 세기의 선지자들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것은 아마도 창 15:13-16 혹은 창 9:25-27 에 있는 예언을 인함이었을 것이다(또한 출 34:15-16 과 신 7:3-6 을 참고하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으로서 경건한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났다.

1. 아모리 사람, 14:13 에서 언급됨
2. 벨기세텍, 14:18 에서 언급됨
3. 아비멜렉, 20 장에서 언급됨

이러한 사실은 아모리 사람들의 궁극적 타락은 이 시대에는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4:4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것은 갈대아 우르에 사는 나훔의 가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 가족에 대한 언급은 11:27-31 에 나온다.

24:5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그 종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제시한 특별한 규정에 마음이 쓰였음이 분명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1) 믿음으로 자기

가족을 기꺼이 떠나려 하고(아브라함이 자기 가족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또한 (2) 그들의 하나님인 야웨를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다.

▣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5 절은 강조형의 질문(같은 어근을 갖는 *히필 부정사 절대형*과 *히필 미완료형*이 함께 사용됨, BDB 996, KB 1427)을 종이 묻는 것이며 6 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에 데리고 돌아가지 말 것에 대한 강조형의 명령이다(“너는 반드시 그를 데리고 가서는 안된다,” *니팔 명령*[BDB 1036, KB 1581]을 5 절에서 사용된 *동사*와 같은 어근의 *히필 미완료형*[BDB 996, KB 1427]이 따르는 구문임). 아브라함의 답변의 배경으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 그들은 여전히 다신교를 믿었으며 (2) 하나님의 약속은 특별히 가나안과 관련이 있었다(참조, 7 절; 히 11:15; 창 12:7; 13:15; 15:18).

24:7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야웨의 천사는 종종 야웨의 뜻을 알려 주었고 또 그것을 실행했다. 야웨의 천사는 창세기에서 여러 번 언급된다(참조, 16:7; 21:17; 22:11; 또한 출 23:20,23 을 참고하라). 12:7 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개역개정 24:10-14**

<sup>10</sup>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 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sup>11</sup>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꿰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으러 나올 때였더라 <sup>12</sup>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sup>13</sup>성 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으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sup>14</sup>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24:10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 필을 끌고” 역사가들 사이에는 언제 낙타가 가축화되었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낙타가 주전 1200 년 이전에는 상업적 목적(즉,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았음이 사실이다. 하지만 낙타는 그 시기보다 훨씬 전부터 개인적 용도를 위해 가축화 된 것으로 보인다.

▣ “메소보다미아” 이것은 “아람-나하라임”(BDB 74 와 625, 참조, 신 23:4)이라는 히브리어로서 “두 강의 아람”을 뜻할 것이다. 이 표현은 메소포타미아의 중부지방의 북쪽 편을 가리킨다.

▣ “나홀의 성” 나홀(BDB 637, 그 의미는 불분명함)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로서, 데라의 아버지였다(참조, 창 11:22,23,24,25; 대상 1:26). 이 이름은 데라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했다(창 11:26,27,29). 아브라함이 종에게 자기의 형제 나홀이 사는 성읍으로 갈 것을 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창 22:20-24). 이 지명은 다른 이름으로도 알려졌을 것이다: 즉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 혹은 그의 가족 가운데 여러 명이 이주한 곳인 하란(참조, 창 11:31)이다. NIV 연구성경은 나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읍이 마리 서판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41 쪽). 이 점에서 볼 때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의 중앙 북쪽 편에 있던 성 뿐이 아니라 한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24:12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것은 종의 믿음을 알아보는 설명이 아니라 그가 “언약적 약속의 원천이신 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참조, 26 절). 그의 기도는 두 가지 간구를 담고 있다.

1. “허락하소서”(문자적으로는 “일이 일어나게 하다”이다), BDB 899, KB 1137, *히필 명령*

2. “보이소서,” BDB 793, KB 889, **칼 명령**

“은혜”라는 용어는 강력한 언약적 **명사**인 **헤세드**이다(참조, 19:19; 20:13; 21:23; 14:12,14,27,49; 32:10; 39:21; 40:14; 47:29). 19:19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종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하나님께 참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24:12,16 리브가의 여러 특징이 강조되고 있다.

1. 기꺼이 도우려는 마음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었다, 12 절(아브라함의 종이 드린 기도)
2. 매우 아름다웠다, 16 절
3. 처녀였다, 16 절
4. 호의적이었다, 18-25 절

**개역개정 24:15-21**

<sup>15</sup>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sup>16</sup>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뭇하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sup>17</sup>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sup>18</sup>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sup>19</sup>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sup>20</sup>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으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는지라 <sup>21</sup>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24:15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이 가족은 창 22:20-24에서 언급되었다. 그녀의 아버지인 브두엘은 “하나님의 사람”(BDB 143 I)이라는 뜻으로서 아마도 이 가족의 영적 측면을 나타낼 것이다. 이 가족의 족보가 나홀의 첩인 르우마가 아니라 본 부인인 밀가를 통해 나온 점은 중요한 내용이다.

▣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것은 이 사건의 역사성을 나타내는 한 가지 면이다. 이집트 여인들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다녔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물동이를 허리나 어깨에 메고 다녔다.

24:17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것은 **히필 명령**(BDB 167, KB 196)이다. 이 내용은 14 절에 있는 그의 기도 내용과 일치한다.

24:18 “마시소서” 이것은 **칼 명령**(BDB 1059, KB 1667)으로서 그가 구했던 바로 그러한 여자를 기도의 응답으로써 만났음을 나타낸다.

24:19-20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 내용도 14 절에서 종이 드렸던 기도의 한 부분이다. 야웨께서는 리브가에게 특별한 **이끄심**을 주셨다. 리브가 편에서 볼 때 열 마리의 목마른 낙타를 위해 물을 길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힘을 요구하는 행동이었다!

**개역개정 24:22-27**

<sup>22</sup>낙타가 마시기를 다할 때 그가 반 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열 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sup>23</sup>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나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sup>24</sup>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브두엘의 딸이니이다 <sup>26</sup>또 이르되 우리에게 짚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sup>26</sup>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sup>27</sup>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시라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24:22 “그가 반 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열 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 금 고리는 코걸이를 가리킨다(참조, 47 절과 사마리아 오경). 나는 반 세겔 무게의 코걸이가 그녀의 코를 아래로 늘어지게 했다고 생각한다(참조, 잠 11:22; 사 3:21; 겔 16:12).

24:27  
 NASB “인자”  
 NKJV “자비”  
 NRSV “변함없는 사랑”  
 폐쉬타 “은혜”

이것은 *헤세드*(BDB 338, 19:19의 특별주제를 보라)라는 히브리 용어로서 “친절” 혹은 “언약적 성실함”을 뜻한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되어 아주 자주 언급된다.

이 단어는 다음의 내용을 나타낸다

1. 그들의 적으로부터 구함
2. 죽음으로부터 구함
3.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을 돌이키게 함(참조, 시 109:26; 119:41,76,88,124,149, 159)
4. 죄를 용서함(참조, 시 25:7; 51:1)
5. 언약을 지킴(참조, 신 7:9,12; 왕상 8:23; 느 1:5; 9:32; 단 9:4)
6. 종종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완전하며 영원함을 말함(참조, 대상 16:34,41; 대하 5:13; 7:3,6; 20:21; 스 3:11; 시 100:5; 103:17; 106:1; 107:1; 118:1,2,3,4,29; 136:1 이하; 138:8)

■ NASB, NKJV,  
 폐쉬타 “진리”  
 NRSV “성실함”  
 NJB “신실한 사랑”

이것은 또 다른 중요한 단어인 “진리,” *에뻬*(BDB 54)으로서 종종 “인자”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었다. 이것은 어원적으로 “확실하게 하다” 혹은 “확실하다”를 뜻하는 말로서 “성실함”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사용되었다. 합 2:4의 인용인 롬 4장과 갈 3장에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칭의를 설명하기 위해 바울이 이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였다(신약의 저자들은 히브리인의 사고를 가진 자들로서 코이네 헬라어로서 글을 쓴 것임을 기억하라. 15:6의 특별주제: 믿음을 보라). 이 용어들은 종종 함께 사용되었다(참조, 시 25:10; 40:11; 57:3; 61:7; 85:10; 89:14; 115:1).

■ “여호와께서 . . . 나를 인도하시라” 이 동사(BDB 634, KB 685, *칼 완료형*)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 대한 그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낸다(참조, 시 5:8; 27:11; 139:24; 사 58:11).

■ “길에서” 이 용어(BDB 202)는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참조, 삿 2:22; 시 119:1). 이 구약의 관용적 표현은 기독교 교회가 처음으로 가진 명칭이 되었다(즉, “도,” 참조, 행 9:2; 18:25,26; 19:9,23; 22:4; 24:14,22; 또한 요 14:6도 포함할 것이다).

개역개정 24:28-41

<sup>28</sup>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sup>29</sup>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sup>30</sup>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 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sup>31</sup>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sup>32</sup>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짚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sup>33</sup>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sup>34</sup>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sup>35</sup>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sup>36</sup>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sup>37</sup>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sup>38</sup>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sup>39</sup>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쭙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sup>40</sup>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sup>41</sup>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 없이 있으리라 만일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 없이 있으리라 하시기로

24:29 “라반” 랍비들의 글은 라반에 대해 부정적이다. 따라서 그들은 30 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종이 자기 누이에게 준 금을 그가 보고서는 그 종을 만나기 위해 달려 갔다. 한편 30 절은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라반이 관심을 가진 또 하나의 이유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반은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에 속한다. 왜냐하면 그는 31 절에서 “야웨”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창 31:53 에서는 그가 우상숭배자이며 다신교를 믿는 자로 보이고, 또한 나홀이 섬기던 또 다른 신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4:32-33 그 당시의 문화에서 기대되는 여러 가지 일을 라반/라반의 종이 아브라함의 종을 위해 하였다.

1. 낙타의 짐을 내렸다
2. 낙타에게 사료를 주었다
3. “그 종”을 수행한 종들에게 발을 씻을 물을 주었다
4. 그들 모두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24:34-41 이 내용은 이 장의 앞 부분에서 일찌기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한 말을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다.

24:36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이 정보는 가족들이 이삭의 나이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덜어주기 위해 한 말이 분명하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리브가는 나홀의 손녀였다.

24:41 “맹세” 이 장의 앞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맹세(BDB 46)하기를 요구했다. 이곳 41 절에서 사용된 이 단어의 형태는 “저주”도 의미한다.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요구를 매우 강조된 모습으로 드러낸다.



개역개정 24:42-44

<sup>42</sup>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sup>43</sup>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으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sup>44</sup>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길으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24:43 “젊은 여자” 리브가가 16 절에서는 처녀를 뜻하는 “베툴라”(BDB 143)로 불리고 43 절에서는 젊은 여자를 뜻하는 “알마”(BDB 761)로 불리는 점은 흥미롭다. 70 인역의 번역자는 이 용어를 사 7:14 과 이 절에서 “처녀”에 대해 “알마”를 사용하였다. 비록 “베툴라”는 특별히 “처녀”를 뜻하고 “알마”는 “결혼 적령기의 젊은 여자”로서 처녀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문화적으로 볼 때 두 용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24:42-48 이것은 11-27 절의 반복으로서 이미 다른 내용이다.

개역개정 24:45-49

<sup>45</sup>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길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sup>46</sup>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sup>47</sup>내가 그에게 물기를 내가 낚 딸이나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브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sup>48</sup>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sup>49</sup>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24:49 그 중은 라반의 대답을 구하고 있다. 그가 아브라함처럼 인자와 진리로 행동할 것인가? 만일 그가 결혼에 대한 협상의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중은 떠나(“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라는 은유적 표현) 다른 곳에서 다시 알아 볼 것이다.

1. “내게 알게 해 주시고,” BDB 616, KB 665, *히필 명령*
2. “내게 알게 해 주셔서,” 같은 동사가 반복되어 사용된 것임
3.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BDB 815, KB 937, *칼 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됨

개역개정 24:50-51

<sup>50</sup>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sup>51</sup>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내가 되게 하라

24:50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반의 이름이 아버지 브두엘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면이다. 우리는 누지 서판에서 형제가 종종 결혼에 대한 협상을 이끌어 감을 본다. 이 절의 마지막 부분은 많은 주석가들이 크게 오해한 부분이다. 이것은 “야웨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말할수 있겠는가?”를 뜻하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으로 보인다(참조, 51c 절).

브두엘이 50 절에서 언급되지만 53 절과 55 절에서는 그렇지 않은 점은 이상스럽다. 바로 그 때에 그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많은 이가 생각한다. 아마도 50 절에서 라반이 한 대답은 아버지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자신과 브두엘의 의견을 대표하여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형제가 자기 누이의 결혼에 관한 일을 협상할 수 있었다.

**24:51** 종이 자기가 온 이유를 자세히 말하면서 즉각적인 답을 요구함에 있어서 사용한 여러 명령이 있다(49 절).

1. “데리고,” BDB 542, KB 534, **칼 명령**
2. “가서,” BDB 229, KB 246, **칼 명령**
3. “아내가 되게 하라,” BDB 224, KB 243, **칼 지시형**

리브가에게 그녀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28 절에서 묻지 않고 57-58 절에서 묻고 있음을 주목하라. 이것은 53 절에서 결혼 예물을 받았기에 예의있게 행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성경이 그들이 나눈 말과 일어난 일의 요점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하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이러한 요약의 제시에 있어서도 이를 인도하셨음을 믿는다.

**개역개정 24:52-61**

<sup>52</sup>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sup>53</sup>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sup>54</sup>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sup>55</sup>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sup>56</sup>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sup>57</sup>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sup>58</sup>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sup>59</sup>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sup>60</sup>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 문을 얻게 할지어다

<sup>61</sup>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24:52**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 부분은 이 종이 공공적인 곳에서 주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과 감사를 나타내는 기도를 세 번째로 하는 곳이다. 이 사람은 참으로 놀라운 성경의 인물이다.

**24:53** 고대 세계에서는 재산을 다음의 항목으로 모았다

1. 귀금속의 무게
2. 보석
3. 값나가는 옷
4. 음식의 재료
5. 땅
6. 가축

그 종이 가져온 여러 물품은 운반하기에 쉬운 것이었음을 주목하라.

1. 은 장신구
2. 금 장신구

3. 의복

4. 값 나가는 물건들

아브라함은 부유한 사람이었다. 어떤 가족에 속한 사람을 자신의 가족의 일원(즉, 이삭의 아내)으로 삼는 것은 큰 영예였다.

**24:54** 협상의 결론으로서 혹은 친분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함이 갖는 중요성을 주목하라. 이 식사는 축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을 것이다.

**24:55** “며칠 또는 열흘을” 사마리아 오경은 “한 달”로 말한다.

**24:56** 그 종은 즉시 떠나기를 원했다. 그는 자신의 과제를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완수하기를 원했다.

1.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54 절, BDB 1018, KB 1511, *피엘 명령*
2.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56 절, BDB 29, KB 34, *피엘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3. “나를 보내어,” 1 항과 같음
4.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BDB 229, KB 246, *칼 청유형*

**24:58**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우리는 누지 서판에서 소녀의 승락을 요구하는 것을 본다. “내가 가겠나이다”는 *칼 청유형*이다(BDB 981, KB 1371).

**24:59** “그의 유모” 우리는 창 35:8 에서 그 유모의 이름이 “드보라”임을 알게 된다. 그녀는 오랫동안 살면서 리브가를 섬겼다. “유모”(BDB 413, KB 416, *히 팔 분사*)라는 용어는 “빨다”(BDB 413)라는 동사에서 왔다. 따라서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또는 비유적 표현으로 개인적인 조력자를 뜻한다. 61 절에서 우리는 다른 종들도 함께 있었음을 안다.

**24:60** 이 작별시는 창 22:17 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매우 유사하다. 그들은 그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많은 자손과 전쟁에서의 승리를 간구했다.

**24:61** 낙타는 리브가에 대한 결혼지참금과 선물을 주로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리브가와 그녀의 종들과 그들의 소유물을 운반했다.

**개역개정 24:62-67**

<sup>62</sup>그 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sup>63</sup>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목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sup>64</sup>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sup>65</sup>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sup>66</sup>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sup>67</sup>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24:62** “브엘라헤로이” 이것은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BDB 97 과 BDB 91 이 함께 사용된 구문)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창 16:14 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여 지은 우물의 이름이었다.

24:63

NASB, NKJV “묵상하다”

NRSV, TEV,  
NJB, JPSOA “걷다”

이것은 드물게 사용된 히브리 단어(BDB 1001 I 혹은 BDB 962)로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한 몇 가지 다양한 이론은 다음과 같다:

1. 70 인역과 벌게이트역은 이것은 “묵상하다”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묵상하다”(BDB 967, 참조, 시 105:2; 119:15,23)와 매우 비슷한 단어로 되어 있다.
2. 이 단어는 “무거운 마음으로 혼자 중얼거리며 거니는 것”을 뜻할 수 있는데, 하갈은 바로 이곳에서 그렇게 했다(16 장)
3. 온켈로스의 탈굼은 이 용어를 “기도하다”로 번역한다. 이 세 번째 방법을 사마리아 오경, 킵히, 라쉬, 루터가 따랐다.

24:64 “낙타에서 내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떨어지다”(BDB 656, KB 709, **칼 미완료형**)이다. 여자가 남자의 앞에서 자기가 탄 짐승의 위에서 내려오는 일은 문화적으로 적절하면서도 기대되는 일이었다.

24:65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이것은 (1) 이삭에 대한 존경 (2) 이삭과의 약혼 혹은 (3) 자신이 결혼하지 않은 자임을 드러내는 표시였을 것이다.

24:67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사라가 3 년 전에 죽었는데도 이삭이 여전히 그 일을 인해 슬퍼하는 모습은 중요하게 보인다. 사라의 아름다움과 명예를 기리는 장막의 사용은 이삭이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을 환영하는 훌륭한 방법이었다.

▣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절은 자신의 어머니가 죽은 일로 인해 이삭이 아직도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우리가 63 절에 있는 단어를 “묵상하다”로 해석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아브라함은 왜 이삭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치 않았는가?
2. 이 장에서 보여지거나 또는 보여지지 않은 이 종의 믿음은 어떠했는가?
3. 29 절 이하에서 우리는 라반의 인격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4. 16 절에서 리브라를 처녀로 부르고 43 절에서는 젊은 여자로 부르는 것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5. 61-67 절에 나타난 바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만났을 때 그들의 감정은 어떻게 들떠 있었는가?

# 창세기 25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아브라함의 죽음 25:1-6	아브라함과 그두라 25:1-6	아브라함의 죽음 25:1-6	아브라함의 다른 자손들 25:1-6 25:5-6	그두라의 자손 25:1-6 25:5-6
25:7-11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사 25:7-11	25:7-11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사 25:7-11	아브라함의 죽음 25:7-11
이스마엘의 자손 25:12-18	이스마엘과 이삭의 가족 25:12-18	25:12-18	이스마엘의 자손 25:12-18	이스마엘의 자손 25:12-16 25:17 25:18
이삭의 아들들 25:19-26 (23)	25:19-26 (23)	야곱(이스라엘)과 에서(에돔)의 반목 25:19-26 (23)	에서와 야곱의 출생 25:19-23 (23) 25:24-26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팔다	에서와 야곱의 출생 25:19a 25:19b-23 (23) 25:24-28
25:27-34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팔다 25:27-28 25:29-34	25:27-28 25:29-34	25:27-28 25:29-34 25:31 25:32 25:33a 25:33b-34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포기하다 25:29-34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25:1

<sup>1</sup>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sup>2</sup>그가 시므란과 욱산과 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sup>3</sup>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앓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sup>4</sup>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sup>5</sup>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sup>6</sup>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25:1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이것은 하갈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이름이었다(참조, 12 절). 그러나 6 절에서 사용된 “첩”(BDB 811)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점은 그러한 견해를 반박한다. 루터는 아브라함이 창 17:4 의 내용을 성취하기 위하여 바로 이러한 일을 한 것으로 본다.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결혼한 것이 사라의 죽음 이전에 한 일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한 일인지에 대하여는 불확실하다. 연대기는 동양 곧 성경의 역사 기록보다는 서양의 역사 기록에 더 가깝다. 그두라(BDB 882)라는 이름은 “향수를 뿌린 사람” 혹은 “향의 연기로 감싼”을 의미한다!

25:2 “그가... 를 낳고” 이것은 아랍 부족에 대한 일련의 언급이다. 그 중 미디안에 대한 언급이 매우 중요하다(참조, 창 36:35; 37:28; 출 2:15,16; 3:1; 18:1; 민 25:15; 31:3,8,9; 사 6-8 장). 이들 아랍 부족에 대한 자세한 도표는 류폴드의 창세기 주석 제 2 권 690 쪽에 나온다.

25:4 “미디안의 아들은” 4 절은 아주 중요한 이 부족의 이름을 열거한다. 우리는 후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에 대해 듣게 되는데, 그는 겐 족속 혹은 미디안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다.

25:6 “자기 서자들에게도” 대상 1:32 도 그두라를 첩으로 언급한다.

▣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이전에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멀리 보냈듯이(이집트로) 이제 그두라의 아들들도 보내고 있다(가나안의 동쪽으로). 우리는 후리족속의 문화를 나타내는 누지 서판으로부터 아버지가 유산을 누구에게 남겨줄 것인가를 정하는 일과 또 첩이 나온 서자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합한 것이었음을 발견한다.

개역개정 25:7-11

<sup>7</sup>아브라함의 향년이 백칠십오 세라 <sup>8</sup>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sup>9</sup>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헛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sup>10</sup>이것은 아브라함이 헛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sup>11</sup>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25:7 “아브라함의 향년이” 아브라함의 향년은 175 세였다. 이것은 이상적인 수명으로 여겨진 나이였다.

25:8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이와 같은 표현이 이스마엘(25:17), 이삭(35:29), 야곱(49:33)에 대해 사용되었다. 이것은 야웨께서 15:15 에서 하신 약속의 성취였다. 죽음은 두려운 것으로가 아니라 긴 수명의 마지막에 있는 것으로서 기대된 일이었다(참조, 욥 42:17; 대상 23:1; 29:28; 대하 24:15).

▣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사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상들 곁에 묻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사후의 삶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나타내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반복되는 표현이다(참조, 25:8,17; 35:29; 49:29,33). 그들은 사후에 친구들 및 가족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한편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약의 특별계시의 내용이 약간 희미하게 드러난다(시 16:9-11; 욥 19:25-27; 사 26:19; 단 12:2-3). 성경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127-129 쪽)을 보라. 우리는 히 11:13-16 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시는 도성을 아브라함이 바라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15:15 의 특별주제: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

25:9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 . . 장사하였으니”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들의 부친의 장례에 함께 재연합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 이스마엘은 21:14 에서 다른 곳으로 보냈지만 그가 갖는 관계는 그들이 아버지를 장사지낼 때에 다시 형성되었다. 이삭을 장사지낼 때에도 에서와 야곱에게 같은 일이 일어났다(참조, 창 35:29).

▣ “막벨라 굴” 우리는 이것이 사라를 위해 아브라함이 구입한 매장지였음을 안다(참조, 창 23:17-18). 이곳은 족장의 다른 구성원을 위하여도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25:11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 장소(BDB 91)는 하갈이 도망한 곳과 관련되어 이전에 언급되었던 곳이다(참조, 창 16:14; 24:62). 이곳은 분명히 이집트로 가는 중요한 도로에 위치하였으며 브엘세바 바로 남쪽에 있었다.

개역개정 25:12-18

<sup>12</sup>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sup>13</sup>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웃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앓브엘과 밍삼과 <sup>14</sup>미스마와 두마와 맞사와 <sup>15</sup>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sup>16</sup>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sup>17</sup>이스마엘은 향년이 백삼십칠 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sup>18</sup>그 자손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앓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숲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25:12 “~의 족보는 이리하고”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으로서, 각 사람의 생애에 따라 책을 구분하여 놓기 위해 여러 번 사용되었다. 언약에 있어서 주변에 있던 사람(예,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오실 메시아의 약속된 씨와 독특하게 관련이 있는 사람들(참조, 창 5:1; 6:9; 10:1; 11:10,27; 25:12,19; 36:1,9; 37:2)보다 훨씬 적은 분량이 할당되었다.

25:13 “게달” 이들은 이스마엘의 가장 우세한 지파였다(BDB 871, 참조, 사 21:16-17; 42:11; 렘 2:10; 49:28; 시 120:5). 이스마엘의 지파들은 그두라의 자손들의 동편과 서편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25:15 “데마” 이것은 아라비아의 북동쪽에 있는 오아시스로서, 후에는 달신인 신을 섬기는 중심지가 되었다. 12:4의 특별주제를 보라. “데마”라는 용어는 “사막”을 뜻한다(BDB 1066).

25:16 “열두 지도자들” 이것은 창 17:20의 성취로 보인다. 이 히브리어는 지도자들에 대해 사용된 존칭으로서 오늘날 아랍 부족들이 사용하는 셰익(Sheikh)과 비슷하다. “열둘”은 자녀의 이상적인 수로 보인다. 그 이유는 나홀에게 열두 아들이 있었고(참조, 창 22:20-24), 이스마엘에게 열두 지도자가 있었고(참조, 창 17:20; 25:16), 에서에게 열두 지파가 있었고(참조, 창 36:15-19), 여기에 열두 아들이 나오며, 또한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창 35:22). 아마도 이것은 이상적인 조직을 상징하는 숫자였다.

**특별주제: 열 둘**

열 둘은 항상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조직을 나타내었다

가. 성경 이외에서

1. 황도의 십이궁도
2. 일 년의 열두 달

나. 구약에서(BDB 1040 과 797)

1. 야곱의 아들들(유대인의 지파)
2. 그 반영
  - ㄱ. 제단의 열두 기둥, 출 24:4
  - ㄴ. 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열두 보석(각각 지파를 나타냄), 출 28:21
  - ㄷ. 회막에 있는 성소에 둔 떡 열두 덩이, 레 24:5
  - ㄹ. 가나안에 보낸 열두 명의 스파이(한 지파에서 한 명씩), 민 13 장
  - ㅁ. 고라의 반역 때 있는 열두 지팡이(각각 지파를 대표함), 민 17:2
  - ㅂ. 여호수아의 열두 돌, 수 4:3,9,20
  - ㅅ. 솔로몬의 열두 행정 구역, 왕상 4:7
  - ㅇ. 엘리야가 야웨께 쌓은 열두 돌, 왕상 18:31

다. 신약에서

1. 선택된 열두 사도
2. 열두 바구니의 떡(각각 사도를 나타냄), 마 14:20
3. 신약의 제자들이 앉을 열두 보좌(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가리킴), 마 19:28
4. 예수를 구출할 천사의 열두 부대, 마 26:53
5.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한 상징
  - ㄱ.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 4:4
  - ㄴ. 144,000(12 x 12), 7:4; 14:1,3



- ㄷ. 여자의 면류관에 있는 열두 별, 12:1
- ㄹ. 열두 문, 열두 천사는 열두 지파를 나타냄, 21:12
- ㅁ. 새 예루살렘의 열두 기초석, 그 위에 열두 사도의 이름이 기록됨, 21:14
- ㅂ. 12,000 스타디온(새 도시인 새 예루살렘의 크기), 21:16
- ㅅ. 벽이 144 규빗임, 21:7
- ㅇ. 열두 진주 문, 21:21
- ㅈ. 새 예루살렘에 있는 열두 과실을 맺는 나무(매달 한 종류 씩), 22:2

25:17 “기운이 다하여” “숨을 쉬다”라는 이 용어(문자적으로, “숨을 거두다,” *가바*, BDB 157, KB 184, *칼 미완료형*, 참조, 창 6:17; 7:21; 25:8,17; 35:29)는 주로 창세기와 민수기 및 시로된 본문에서 사용되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비어있는 것을 의미한다(즉, 몸의 호흡을 비우다).

25:18 이 지역은 이집트에서 앗시리아/바벨론으로 가는 대상들의 통행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였다. 이 지역은 유목민이며 천막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했다.

▣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맞은편”(BDB 815-819)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표현이다. 이 단어의 기본적 의미는 “앞,” “존재”이며, 혹은 은유적으로 사용되어 “~앞에서”를 나타낸다. 이 단어는 지리적으로 “~에 마주하여” 혹은 “반대쪽”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으나, 이 절에서는 다른 민족들에 대해 대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창 16:12의 성취로서,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이 관용적이지 않으며 유목민적 생활을 함을 나타낸다. 이 표현은 여러 곳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다. 이 단어는 그들과 이웃한 친척들을 군대를 동원하여 침입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 개역개정 25:19-26

<sup>19</sup>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sup>20</sup>이삭은 사십 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sup>21</sup>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sup>22</sup>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sup>23</sup>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sup>24</sup>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sup>25</sup>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sup>26</sup>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육십 세였더라

25:19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것은 12 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특징을 갖는 표현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언약과 관련이 있는 사람의 내용으로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 진다.

▣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것은 일상적이지 않은 반복적 표현이다. 라쉬는 이삭이 아비멜렉(에 의해 사라가 낳은)의 아들이라는 소문을 떨쳐버리기 위한 중복이라고 설명한다. 랍비들은 창 20:1-18 에 있는 사건으로 인한 이러한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삭이 아브라함과 얼굴이 똑같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5:20 “이삭은 사십 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26 절의 내용을 창 25:20 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이삭이 야곱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60 세였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

▣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 “아람”이라는 이 단어는 종종 “아르메니아 사람”(BDB 74)으로 종종 번역되었다. 이것은 하란 도시를 둘러싼 지역을 의미할 것이다. 밧단 아람(BDB 804 와 BDB 74)은 “아람의 평원”이라는 뜻으로서 24:10 에 있는 “아람 나하라임”과 같은 지역을 말할 것이다.

25:21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족장들이 임신하지 못하는(BDB 785) 아내들을 가진 것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다: (1)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나타내는 것과 (2) 이 일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랍비들은 이 본문을 통해 중보기도의 능력을 강조했다.

25:22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것은 다툼을 나타내는 동사(BDB 954, KB 1285, *히트폴렐 미완료형*)이다.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NIDOTTE 제 3 권 1191 쪽)

1. 칼에서 부딪히다, 매치다, 학대하다
2. 니팔에서 부서지다, 부러지다
3. 히필과 피엘에서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다
4. 폴렐에서 압제하다
5. 히트폴렐에서 서로 부딪히다

이것은 23 절과 관련이 있는 예언적 내용이다.

▣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이 애매한 관용적 표현(문자적으로는, “왜 이것이, 내가?”)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현재 주장되는 이론은 다음과 같다:

1. 왜 자신을 임신하게 하셨는지 그녀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내용으로서 아주 어려움이 있음을 뜻한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자신이 쌍둥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몰랐다.
2. 그녀의 임신은 많은 통증을 가져왔기에 그녀는 왜 이러한지를 계속 알고자 했다.
3. 그녀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임신의 상태에서 자신의 생명에 대한 걱정을 실제로 하였다.
4. 그녀는 이러한 소동이 출산 후에도 계속될까봐 두려웠다. 걱정스러운 임신은 앞으로 올 걱정거리의 표(예시)였다.

▣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것도 주석가들에게 많은 논란을 가져온 내용이다. 그들은 어디로 그녀가 갔으며 누구에게 묻고 있는지를 질문했다! 본문은 이 점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어떤 이는 주장하기를 족장들이 예배하던 장소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녀가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추정이 있다.

1. 루터는 그녀가 셈에게 말한 것이라고 말한다
2. 랍비들은 그녀가 멜기세덱에게 말한 것이라고 말한다
3. 다른 이들은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이라고 말한다

4. 또 다른 이들은 그녀가 이삭에게 말한 것이라고 본다
5. 아마도 이것은 가족의 제단(아마도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 그녀가 개인적으로 기도한 내용일 것이다

이 본문과 28:22의 본문은 성스러운 장소에 있던 거룩한 수종자들(즉, 제사장, 로랜드 드보, 고대 이스라엘 제 2권 345쪽)을 뜻할 가능성이 있다.

**25: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야웨께서 리브가에게 시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신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미 자녀를 주실 것에 대해 약속하셨다(참조, 창 17:19; 21:12). 이 예언은 자식들 가운데 누가 가계를 이을 것인지를 아주 분명히 말한다. 이것은 롬 9:10-12에서 인용되었다. 왜 이삭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았는지 어떤 이는 의아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가 26장과 27장에서 에서를 상속자로 삼으려 할 때 리브가가 그에게 이 내용을 분명히 말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족장들의 아내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이 일도 셈족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속권을 갖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약속의 씨에게 이루어 질 것임을 시사한다(참조, 롬 9:10-12).

**25:25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이 용어(*알모니*, BDB 10, “붉은”)는 창세기에서 “티끌”(BDB 9)을 뜻하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참조, 창 2:7) 재료인 “아다마”는 “붉은”(BDB 10)과 같은 어근에서 왔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단어유희가 30절에서 계속된다. 그 곳에서는 붉은 단지(BDB 10)가 “에돔”(BDB 10)이라는 이름과 관련되고 있다. 이것은 에서에게서 나온 민족의 이름이 되었다.

▣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털이 많은”(BDB 972)이라는 용어는 “세일”(BDB 973)과 그 소리가 매우 비슷하다. 후자는 에돔을 뜻하는 초기의 이름이었다. “붉은”과 “털이 많은” 및 “에서”와 “에돔” 사이에 이중적인 언어유희가 사용되었다.

아기가 붉고 털이 많이 있었다는 히브리적 묘사는 오늘날의 독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 전혀 아니다. “털이 많은”(BDB 972)은 아름답고 감명을 주는 옷(예, 수 7:21,24)이나 선지자의 겹옷(참조, 왕상 19:13,19; 왕하 2:8,13, 14)을 뜻한다.

**25:26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의 이름(BDB 784)은 “발꿈치”(BDB 784)와 관련이 있다. 호 12:3과 에서가 말한 창 27:36의 내용에서 볼 때 우리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대신하는 자” 혹은 “탈취자”(비슷한 **동사와 형용사에서 볼 때**, BDB 784)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가 여러 해 후에 압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까지(참조, 창 32:28) 이 이름은 그의 성품을 나타내었다.

▣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육십 세였더라”** 이삭이 이 약속된 아들을 낳게 되기까지 믿음으로 20년을 기다렸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삭을 시험하셨다.

**개역개정 25:27-34**

<sup>27</sup>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sup>28</sup>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sup>29</sup> 야곱이 죽을 썩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sup>30</sup>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sup>31</sup>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sup>32</sup>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sup>33</sup>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sup>34</sup>야곱이 떡과 팔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라

25:27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본문의 초점은 두 사람의 매우 다른 성격에 놓여져 있다. 에서는 집 밖에 머물기를 좋아했고 야곱은 집에 있기를 좋아했다. 야곱은 족장들이 일반적으로 가진 유목민적 모습을 지닌 사람이었다.

“조용한”(NKJV “온화한”; NRSV 와 TEV “조용한”)이라는 용어는 실제적으로는 “완벽한”(BDB 1020)을 뜻한다. 여기서 이 단어는 완벽하고 일상적이며 정상적인 유목민의 지도자를 뜻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같은 어근에서 온 **형용사**가 읍의 순전함을 일컫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1:1,8; 2:3; 8:20; 9:20,21,22 또한 시 37:37; 잠 29:10 의 설명을 보라).

25:28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삭은 조용하고 평화적인 사람이었기에 그의 아들 에서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가 창 25:23 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에서를 좋아한 것은 의외이다.

▣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러한 편애가 항상 가족 간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를 만들듯이 여기서도 그러한 문제를 야기를 일으키게 된다. 한편 리브가의 경우는 23 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25:29 이 일이 미리 계획한 것으로서 반복적으로 행한 일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야곱이 이런 경우를 찾고 있었는가? 죽을 “썩었다”(문자적으로는 “끓었다,” BDB 267, KB 268, *히* **미완료형**)는 용어의 사용이 어떤 실마리를 줄 것이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원래 그들의 일이 아닌 것을 행하는 경우를 나타내었다(NIDOTTE 제 1 권 1094 쪽).

이 음식을 주된 야영지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요리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 음식은 다음과 같이 불린다

1. “죽,” 29 절, BDB 268, 팔을 끓이는 단지, 참조, 왕하 4:38
2. “붉은 것,” 30 절, BDB 10
3. “렌즈콩(lentil) 죽,” 34 절, BDB 727, 참조, 삼하 17:28; 23:11; 겔 4:9

25:30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것은 “먹다”를 뜻하는 매우 강력한 용어이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급히 먹다”(BDB 542, KB 533, *히* **명령**)이다. 에서가 굶주려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분명히 지쳐있었다(BDB 746, 참조, 신 25:18; 삿 8:4-5). 이것은 에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단지 세상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나타내는 여러 단서 가운데 하나이다(*성경의 어려운 표현*[347-348 쪽]을 보라). 믿음의 일과 가정 생활에 대한 책임에 대해 그는 그다지 마음을 두지 않았다.

25:31,33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오늘 내게 맹세하라”고 말했다

1. “팔다,” BDB 569, KB 581, *칼* **명령**
2. “맹세하다,” BDB 989, KB 1396, *니* **명령**

야곱이 에서의 약점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1) 예언(참조, 25:23)의 내용을 인함인가 (2) 가족의 행복을 위함인가 아니면 (3) 개인의 이기적 욕심을 나타내는 것인가?

25:32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이해되었다: (1) 과장 (2) 그가 젊은 나이에 정말로 죽음(BDB 559, KB 562, 칼 부정사)을 눈 앞에 두고 있음 (3) 그가 영적인 것에 대해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로서 각각 이해되었다. 같은 시대에 속하는 누지 서판에 의하면 장자권을 넘겨 주는 일이 법적으로 가능했음을 본다. 이 일이 신 21:15-17 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이기에, 우리는 이것이 흔히 행해지던 일이었음을 또한 알게 된다. 후에 르우벤은 유다에 의해 대치될 것이다. 야곱이 23 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에 있어서 부적절하게 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가 진실되지만 자기 생각대로 남을 조정하는 사람으로서 종종 나타나기에, 이 사건에 있어서 야곱의 마음을 알아채기는 쉽지 않다.

25:34 이 절에 드러난 에서의 행동은 그가 고립적이고 사회적이지 않은 성격을 가졌음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1. “먹으며,” BDB 37, KB 46, 칼 미완료형
2. “마시고,” BDB 1059, KB 1667, 칼 미완료형
3. “일어나,” BDB 877, KB 1086, 칼 미완료형
4. “갔으니,” BDB 229, KB 246, 칼 미완료형
5.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BDB 102, KB 117, 칼 미완료형

▣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동사(BDB 102, KB 117, 칼 미완료형)는 “가치없게 여기다” 혹은 “경멸히 여기다”를 의미한다. 랍비들은 에서가 매우 악한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히 12:16 은 그가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자신의 영적 삶과 가족적인 환경을 경홀히 여겼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8 절은 죽음에 대한 고대인의 관점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2. 여러 족장의 아내가 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가?
3. 23 절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4. 25 절에 나타난 잘 알려진 어원론적 설명은 무엇인가?
5.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성품 및 심리적 동기에 대해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6. 히브리서 11 장과 12 장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말하라.

# 창세기 26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이삭이 그랄에 정착하다	이삭과 아비멜렉	이삭에 대한 이야기	이삭이 그랄에 살다	그랄에 있는 이삭
26:1-5	26:1-5	26:1-5	26:1-5	26:1-6
26:6-11	26:6-11	26:6-11	26:6-9b 26:9b	26:7-11
26:12-17	26:12-16	26:12-16	26:12-15 26:16-18	26:12-14 그랄과 브엘세바 사이에 있는 우물들 26:15-18
우물에 대한 다툼	26:17-22	26:17-22	26:19-20 26:21-22	26:19-22
26:18-22				
26:23-25 (24)	26:23-25	26:23-25	26:23-25	26:23-24 (24) 26:25
아비멜렉과의 언약			이삭과 아비멜렉의 동의	아비멜렉과의 언약
26:26-33	26:26-33	26:26-33	26:26-27 26:28-31 26:32-33	26:26-30 26:31-33
26:34-35	26:34-35	26:34-35	에서의 이방인 아내들 26:34-35	에서의 헷 족속 아내들 26:34-35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1. 이것은 창세기에서 이삭이 주인공으로 나온 유일한 장이다.
2. 이삭은 이 장에서 매우 조용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등장한다. 그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역동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지만 야웨를 신실히 따르는 자였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26:1-5

<sup>1</sup>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sup>2</sup>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sup>3</sup>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sup>4</sup>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sup>5</sup>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26:1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것은 창 12:10 있는 사건 곧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했던 일과 매우 흡사한 경우이다.

▣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에게해에 있는 섬에서 온 용병이었다. 그들이 이집트를 침입하였으나 격퇴를 당해 주전 1200년 경에 팔레스타인의 남서쪽 해안 지대에 정착했다. 창 21:22에서 일찌기 아비멜렉의 이름을 언급하였기에 이 이름을 블레셋의 모든 왕을 일컫는 일반적 칭호로 보아야만 할 것이다. 이것은 시리아의 하닷 및 이집트의 바로와 같은 칭호이다.

이 사실은 분명히 다음 내용을 뜻할 것이다

1. 가나안에 일찌기 블레셋 상인들이 있었다
2. 한 가나안 종족이 블레셋과 합해졌으며 이 명칭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 창 10:6-20 에 언급된 블레셋은 함과 가나안 족속에서 온 것이지 야벳(에게해의 섬)에서 온 것이 아니다. 이 이름은 팔레스타인/가나안과 관련을 가진 여러 그룹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일 것이다(NIDOTTE 제 4 권 1049 쪽).

26:2-3 야웨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일을 지시하시며 약속하신다.

-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2 절, BDB 432, KB 434, **칼 명령**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 “이 땅에 거류하면,” 2 절, BDB 1014, KB 1496, **칼 명령**
-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 절, BDB 157, KB 184, **칼 명령**
- “내가 너와 함께 있어,” 3 절, BDB 224, KB 243, **칼 명령**이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됨
- “네게 복을 주고,” 3 절, BDB 138, KB 159, **피엘 명령**이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됨
-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3 절, BDB 678, KB 733, **칼 명령**이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됨

26:2 “야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던 일 혹은 이삭이 약속의 땅에 머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해야 할 필요 때문일 것이다.

26:3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뿐 아니라(참조, 28:15; 31:3)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내용이다.

▣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 곧 창 12 장, 15 장, 17 장, 22 장에 있는 약속을 가리키고 있다.

“맹세한”이란 **동사**(BDB 877, KB 1086, **히필 완료형**)는 창세기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

- 언약을 세우거나 이를 비준하기 위해, 참조, 6:18; 9:9,11; 17:7,19,21
- 언약의 효력을 주거나 이를 확증하기 위해, 26:3(레 26:9; 신 8:18 의 설명을 보라)

26:4 세 가지 특별한 약속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많은 자손 (2) 땅(참조, 12:7; 15:18-19; 17:7-8; 26:1-5; 28:10-15; 35:12) (3) 땅의 모든 족속이 이삭과 그의 자손을 통하여 축복을 받는 일.

▣ “하늘의 별과 같이” 이것은 일찌기 창 15:5 과 22:17 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이 많을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신 다른 두 은유적 표현은 바닷가의 모래와 땅의 티끌이다.

▣ “이 모든 땅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일부였다(참조, 12:7; 13:15; 15:18; 17:8).

▣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축복할 것이다”이다. 이 약속에 있어서 두 가지 독특한 **동사형**이 나타난다. **니팔**이 창 12:3; 18:18; 28:14 에서 사용되었다. 이것은 신약의 행 3:25; 갈 3:8 에서도 인용되었다. 창 26:4 은 **히트피엘**로서 이곳과 창 22:16-18 에서만 나오는데, 이 단어를 “그들이 자기 자신을 축복할 것이다”로 번역함이 적합하다. 사실상 “그들이 자기 자신을 축복하다”와 “그들이 자기 자신을 축복할 것이다”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밖에 없다. 사실 70 인역은 이 동사형에 대해 전혀 차이점을 주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하여 온 세계의 사람들을 이 분명하고 커다란 축복으로 축복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택하시기 위해 한 민족을 택하셨고 한 민족을 택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셨다. 유대인이 선택을 받은 것은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축복을 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을 구속적 축복을 위한 통로로서 선택받은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항상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했다(참조, 출 19:5-6). 1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26:5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 절에 있는 두 동사가 언약에 있어서 인간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참조, 12:1; 17:1,9-14; 22:16; 26:3-5).

1. “순종하고” (문자적으로는 “들은대로 행하기 위해 들었다”), BDB 1033, KB 1570, **칼미완료형**

2. “지켰다,” BDB 1036, KB 1581, **칼미완료형**

두 가지 다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모든 민족을 부르시기 위해 한 사람/민족을 부르신 거저로 주신 은혜(참조, 창 15:12-21 에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행하심)와 순종에 대한 계속적인 언급(즉 하나님의 약속이 지닌 조건적 특징) 사이에 진정으로(목적이 있는) 긴장이 나타난다. 두 가지 다 사실이다! 인간의 행함은 범죄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할 수 없다. 한편,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다면 우리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없다(참조, 엡 1:4; 2:8-9,10). 하나님의 목적은 의로운 백성이 민족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는 일이다. 거저로 누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방종함으로 살거나 혹은 많은 규율을 행함으로써 은혜를 누리려 함에 위험이 따른다. 렘 31:31-34 과 겔 36:22-28 에 있는 새 언약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준다—새 심장, 새 마음, 새 영.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요구하시는 내용이 내적인 사항으로 바뀌었다.

창세기에서 민수기에 이르는 초기의 책에서는 “명령” (BDB 1038), “계명” (BDB 846), “율례” (BDB 349), “법도” (BDB 435)라는 항목이 이곳에서만 사용되었으나 신명기에서는 자주 사용되었다. 다음 문단에 나오는 특별주제: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는 용어를 보라.

이것은 창 15:6 에 대한 암시로 보인다. 이 기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임을 그가 믿은 믿음에 대해 말하며,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말한다. 구약의 이 중요한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의롭다하심을 받는 교리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학적 토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롬 4 장과 갈 2-3 장에 있다. 여기에 있는 “법도”라는 단어는 “가르침”이나 “지침”을 뜻하는 단어인 “율법” (BDB 435)이 제일 처음으로 사용된 곳이다. 이 용어는 모세가 쓴 다섯 권의 책을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다.

**인칭대명사(나의)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하라!**

**특별주제: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는 용어(신명기와 시편에서)**

I. “규례” BDB 349, “법령, 명령, 혹은 규정”

가. 남성형, **후** - 신 4:1,5,6,8,14,40,45; 5:1; 6:1,24,25; 7:11; 11:32; 16:12; 17:19; 26:17; 27:10; 시 2:7; 50:16; 81:4; 99:7; 105:10,45; 148:6

나. 여성형, **후카** - 신 6:2; 8:11; 10:13; 11:1; 28:15,45; 30:10,16; 시 89:31; 119:5,8, 12,16,23,26,33,48,54,64,71,80,83,112,124,135,145,155,171

II. “율법” BDB 435, “가르침”

- 신 1:5; 4:44; 17:11,18,19; 27:3,8,26; 28:58,61; 29:21,29; 30:10; 31:9; 시 1:2; 19:7; 78:10; 94:12; 105:45; 119:1,18,29,34,44,51, 53,55,61,70,72,77,85,92,97,109,113,126,136,142,150,153,163, 165,174

III. “증거” BDB 730, “하나님의 법”

가. 복수형, **에다** - 신 4:45; 6:17,20; 시 25:10; 78:56; 93:5; 99:7; 119:22,24,46,59, 79,95,119,125,138,146,152,167,168

나. **에뒷/에다** - 시 19:7; 78:5; 81:5; 119:2,14,31,36,88,99,111,129,144,157

IV. “규칙” BDB 824, “명령”

- 시 19:8; 103:18; 111:7; 119:4,15,27,40,45,56,63,69,78,87,93,94,100,104,110,128,134,141,159,168,173

V. “명령” BDB 846

- 신 4:2,40; 5:29; 6:1,2,17,25; 8:1,2,11; 10:13; 11:13; 15:5; 26:13,17; 30:11,16; 시 19:8; 119:6,10,19,21,32,35,47,48,60,66,73,86,96,98,115,127,131,143,151,166,176

VI. “심판/규례” BDB 1048, “지배” 혹은 “정의”

- 신 1:17; 4:1,5,8,14,45; 7:12; 16:18; 30:16; 33:10,21; 시 10:5; 18:22; 19:19; 48:11; 89:30; 97:8; 105:5,7; 119:7,13,20,30,39,43,52,62,75,84,102,106,120,137,149,156,160,164; 147:19; 149:9

VII. “그의 길” BDB 202, 야웨께서 자기 백성에게 삶의 양식으로 주시는 지침

- 신 8:6; 10:12; 11:22,28; 19:9; 26:17; 28:9; 30:16; 32:4; 시 119:3,4,37,59

VIII. “그의 말씀” BDB, “”

가. BDB 202 - 신 4:10,12,36; 9:10; 10:4; 시 119:9,16,17,25,28,42,43,49,57,65,74,81,89,101,105,107,114,130,130,147,160,161,169

나. BDB 57

1. “말씀” - 신 17:19; 18:19; 33:9; 시 119:11,67,103,162,170,172
2. “약속” - 시 119:38,41,50,58,76,82,116,133,140,148,154
3. “명령” - 시 119:158

개역개정 26:6-11

<sup>6</sup>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sup>7</sup>그 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우므로 그 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sup>8</sup>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sup>9</sup>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으로라 <sup>10</sup>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sup>11</sup>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26:7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어떤 이는 이것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입양하는 것에 대한 누지 서판의 문화적 요소와 관련을 가진다고 본다. 만일 그런 경우라면 이삭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단순히 자기 아버지가 행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창 12:13; 20:2,12).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의 말은 절반은 맞는 말이었지만 이삭의 경우에는 이 절(과 9 절)에 비추어 볼 때 그가 가진 무서움 때문에 한 말로 보인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때 이 일은 이삭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삭이 믿음이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 그러셨듯이 이삭에게 신실하셨다.

▣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껴안다”라는 이 용어(BDB 850, KB 1019, *피엘* 분사)은 “웃다” 혹은 “놀다”를 뜻하는 이삭의 이름과 같은 어근에서 왔다(BDB 850, 참조, 창 17:17,19;

18:12; 21:6,9). 여기에서 이 단어는 창 39:17 과 출 32:6 에서와 같이 성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어떤 번역본은 “애무하는 것”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6:10 “아비멜렉이 이르되” 아브라함 시대의 아비멜렉과 이삭 시대의 아비멜렉이 족장들 보다는 더 도덕적 윤리적으로 예민한 사람들로 나타난다. 이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가진 높은 정도의 영성을 알려준다.

26:11 야웨께서는 이 명령을 사용해서서 이삭을 보호하셨다!

“죽이리라”는 표현은 같은 어근(BDB 559, KB 562)을 가진 칼 부정사 절대형과 호팔 미완료형이 함께 사용되어 문법적으로 강조를 타나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개역개정 26:12-17**

<sup>12</sup>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sup>13</sup>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sup>14</sup>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sup>15</sup>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sup>16</sup>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sup>17</sup>이삭이 그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26:12-14 축복의 내용을 주목하라.

1. 백 배나 얻었고, 12 절
2.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3 절
3.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14 절
4. 종이 심히 많으므로, 14 절

제 2 항의 두 번째 사항은 같은 어근(BDB 229, KB 246)을 가진 칼 부정사 절대형과 칼 미완료형이 함께 사용되어 강조를 타나내는 구조이다.

제 2 항의 세 번째 내용은 같은 어근(BDB 152, KB 178, 칼 완료형)의 형용사와 동사가 함께 사용된 경우이다.

26:12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이것은 축복의 원천이 이삭의 근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신학적 인식이다.

26:14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것은 “시기하다”라는 동사(BDB 888, KB 1109, 피엘 미완료형)이다.

1. 그들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꾸었다, 15 절
2. 그들은 이삭을 내보냈다, 16 절

이삭이 번성하는 일은 블레셋 사람들을 야웨께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 일은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시기하고 화나게 했다.

26:15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에게 속한 사람과 부가 증가하자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이삭의 우물을 메움으로써 그들의 괴로움과 두려움을 나타냈다. 이삭이 짐승 떼를 가진 점을 고려할 때, 물의 부족은 그를 내몰았을 것이다. 창 26 장의 이 단락은 우리에게 이삭의 인내와 믿음을 보여준다. 물에 대한 권리로 인한 이러한 긴장을 그가 다루어 나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그의 개인적 성격을 많이 알려 준다.

개역개정 26:18-22

<sup>18</sup>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찢던 우물들을 다시 찢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sup>19</sup>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sup>20</sup>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sup>21</sup>또 다른 우물을 찢더니 그들이 또 다투므로 그 이름을 싯나라 하였으며 <sup>22</sup>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찢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26:18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것은 단순히 그가 가족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의 아버지에게 주신 언약과 관련이 있는 종교적 행위를 나타낼 것이다.

26:20-22 “에섹... 싯나... 르호봇” 이것은 이삭과 그의 이웃과의 관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일로서 세 가지 우물에 대한 것이다.

1. 첫 번째 우물의 뜻은 “다툼” (BDB 796)이다
2. 두 번째 우물의 뜻은 “적대감” (BDB 966 II)이다
3. 세 번째 우물의 뜻은 “넓은 장소” (BDB 932)로서 쉼과 평화와 행복을 뜻하는 관용적인 히브리어의 표현이다

26:22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많은 수의 사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써 기다리는 편을 택했다. 세 번째 우물의 이름과 “방”은 같은 단어이다(BDB 932).

개역개정 26:23-25

<sup>23</sup>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sup>24</sup>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sup>25</sup>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찢더라

26:23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곳은 유대 광야 남쪽에 있는 장소로서 아브라함이 방랑하며 천막을 쳤던 중요한 장소이다(참조, 창 22:19).

26:24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것은 야웨께서 이삭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이다(참조, 2 절). 여기서는 밤의 꿈에 나타나셨다(참조, 15:5,12; 21:12,14; 22:1-3; 26:24). 창세기에 있는 많은 계시는 시로써 기록되었는데, 24 절도 시로 되어 있다(참조, 12:1-3; 15:1,18; 17:1-2,4-5; 35:10,11-12).

▣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야웨라는 이름과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평행으로 나타남을 주목하라(참조, 창 2:4). 이것은 2 절에서보다 더욱 격식을 가진 완전한 계시의 형태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또한 15:1; 21:17; 46:3의 설명을 보라)!

▣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것은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에게 대해 사용된 매우 특별한 존칭이었다. 바울이 사용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표현은 여기서 왔을 것이다.

26:25 야웨께서 직접 나타나신 장소들은 거룩한 곳이 되었다. 그곳에 제단이 세워졌고 예배와 기도와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되었다(참조, 8:20; 12:7,8; 13:4,18; 22:9).

▣ “우물을 팠더라” 물은 이러한 반 건조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필수품이었다. 이삭은 야웨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렸다. 이렇게 여러 우물을 성공적으로 판 일을 언급하는 이 문맥은 야웨의 임재하심과 축복하심을 보여준다.

#### 개역개정 26:26-33

<sup>26</sup>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sup>27</sup>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sup>28</sup>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sup>29</sup>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sup>30</sup>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sup>31</sup>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sup>32</sup>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sup>33</sup>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26:26 “아비멜렉... 비골” 비록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창 21:22에 나오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만 그 일은 75-80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 시 34편의 서론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직함이었음이 분명하다.

26:27 이삭은 아직도 쫓겨난 아픔과 당혹감을 명백히 갖고 있었다!

26:28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절에는 여러 문법적 특징이 나타난다.

1.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것은 같은 어근(BDB 906, KB 1157)의 **칼 부정사 절대형**과 **칼 완료형**으로서 “그것이 매우 분명했다”라는 뜻을 가진다
2. “우리과 너 사이에 맹세하여,” BDB 224, KB 243, **칼 지시형**; “맹세”라는 단어(BDB 46)는 이곳과 24:41(2회)에서만 나온다. 31절에서는 다른 단어(BDB 989)가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맹세 혹은 저주를 뜻한다(예, 민 5:21,23,27; 신 29:12,14,19,20,21). 이것은 “만일 어느 누가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주받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이다.
3. “계약을 맺으리라,” BDB 503, KB 500, **칼 청유형**

이것은 족장들에 대한 축복을 나타내는 신학적 목적을 가진다. 이것은 그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더 많이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이들로 하여금 야웨와 그들이 갖는 독특한 관계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참조, 29c 절).

26:30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언약을 맺거나 이를 견고히 하는 일반적 절차는 우정의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었다.

26:1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 . .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 . . 세바” 이 우물들은 분명히 물질적 영적 의미를 가졌다. 우물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축복하심에 대한 표였다. 33 절은 창 21:31 에 나오는 브엘세바라는 이름과 맞수를 이루는 어원(즉, “이것을 주시기를,” BDB 988)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브엘세바라는 이름은 “맹세의 우물” 혹은 “일곱의 우물”로 설명되었다. 세바는 “맹세”를 가리킬 것이다. 히브리어에서 “일곱”과 “맹세”는 매우 비슷한 단어로 되어 있다. 구약에서는 종종 전문적인 것보다 대중적인 어원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이 둘은 대중적인 어원에서 온 단어일 것이다.

**개역개정 26:34-35**

<sup>34</sup>에서가 사십 세에 헛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헛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sup>35</sup>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26:34-35 이 두 절(특별히 46 절)은 사실상 27 장의 배경을 이룬다. 저자는 후일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즉,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어 아내를 찾게 한 일)를 갖는 내용을 이 사건의 내용과 함께 엮고 있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창세기 21 장에 나오는 아비멜렉과 창세기 26 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같은 사람인가?
2.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3. 아브라함과 이삭은 왜 자기 아내가 자매라고 주장했는가?
4. 이 장에서 여러 우물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이유는 어떤 목적에서 인가?
5. 언약을 맺을 때에 식사를 하는 고대의 의식에 대해 설명하고 이것이 성경의 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말하라.

# 창세기 27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야곱이 속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다	야곱이 에서를 속여 그의 축복을 가로채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다	야곱이 거짓된 방법으로 이삭의 축복을 받다
27:1-4	27:1-4	27:1-4	27:1a 27:1b 27:2-4	27:1-4
27:5-17	27:5-17	27:5-17	27:5-10 27:11-12 27:13-17	27:5-10 27:11-17
27:18-29 (27b-29)	27:18-29 (27-29)	27:18-29 (27-29)	27:18a 27:18b 27:19 27:20a 27:20b 27:21-24a 27:24b 27:25-29	27:18-29 (27b-29)
도적맞은 축복	에서가 소망을 잃음		에서가 이삭에게 축복을 간구하다	
27:30-38	27:30-38	27:30-38	27:30-31 27:32 27:33 27:34 27:35 27:36 27:37 27:38-40 (39-40)	27:30-40 (39-40a)
27:39-40 (39-40)	27:39-40 (39-40)	27:39-40 (39-40)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함 (27:41-28:5)			
27:41-45	27:41-46	27:41-45	27:41	27:41-45
			27:42-45	
		야곱이 아람을 향해 떠나고 벧엘에서 꿈을 꿈 (27:46-28:22)	이삭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다 (27:46-28:22)	이삭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다 (27:46-28:22)
27:46		27:46-28:5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아주 종종 주석가들은 리브가와 야곱을 폄하하는 것으로 이 장을 이해했다. 한편 창 25:23 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쪽은 이삭과 에서였음을 알 수 있다.
- 나. 에서는 자기 자신의 장자권에 대해 관심이 없었으며 그 권리를 야곱에게 이미 팔았다(참조, 창 25:27-34).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 12:16-17 에서 에서의 동기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준다. 장자권은 족장들이 하는 축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즉, 4 절, 19 절, 25 절, 31 절에 있는 관용적 표현인 “그래서 내 영혼이 너를 축복하기를...”). 에서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나 창 25 장에서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긴 일에 대해 마음을 쓰지 않는 듯이 보인다. 리브가가 자신에게 주신 이 계시의 내용을 이삭에게 말했지만 그가 이를 잊어버린 것인지 혹은 이를 무시하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한편 야곱은 종종 “속이는 사람”으로 묘사되지만 이것은 사실상 그렇지 않다. 이 말은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장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그에게로 돌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뜻이다.



다. 이 장에는 이삭이 족장으로서는 주려는 축복(에서에게 주려는 것이었음)을 행하기에 앞서 자신이 먹으려는 특별한 음식과 관련하여 내리는 여러 가지 독특한 명령이 나온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27:1-4

<sup>1</sup>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이야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sup>2</sup>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sup>3</sup>그러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sup>4</sup>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27:1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눈과 관련된 문제는 고대 근동에서 중대한 질병이었다(참조, 창 48:10의 야곱; 삼상 3:2의 엘리; 후에 갈 4:13-15; 6:11; 고후 12:7에서의 바울).

▣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것은 (1) 이 장의 내용이 전개될수록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에서에 대한 이삭의 편애(참조, 창 25:28) 혹은 (2) 문화적으로 장자(즉, 문자적으로는 “커다란,” BDB 152, 즉, 나이가, 참조, 10:21; 44:12)가 가족 내에서 갖는 특별한 위치를 나타낸다.

27:2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삭이 대략 137 세인 때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 불안해하는 모습은 주목할만한 흥미로운 일이다. 우리는 창 35:28에서 그가 180 세를 살았음을 안다. 그의 우려는 그 형제 이스마엘이 137 세에 죽은 사실(창 25:17에 기록됨) 때문에 가진 것일 수 있다. 만일 마틴 루터가 이삭의 당시 나이가 137 세라고 말한 것이 맞다면, 이삭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 불구에 반응하여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누지 서판에서 볼 때 같은 지역과 시대에서 사용한 “내가 이제 늙어”라는 표현은 상속권을 공적으로 아들에게 넘기는 것을 가리키는 법적 관용어였다.

27:3,4 족장이 축복하기에 앞서 음식을 준비하라는 이삭의 요구와 관련하여 일련의 명령이 사용되었다. 이삭이 한 명령/요구는 다음과 같다.

1.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화살통,” BDB 1068, 구약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됨; “활,” BDB 905), 3 절, BDB 669, KB 724, **칼 명령**
2. “들에 가서,” 3 절, BDB 422, KB 425, **칼 명령**
3.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3 절, BDB 844, KB 1010, **칼 명령**
4.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4 절, BDB 793, KB 889, **칼 명령**
5. “내게로 가져와서, 4 절, BDB 97, KB 112, **히핍 명령**
6. “먹게 하여, 4 절, BDB 37, KB 46, **칼 청유형**

27:4 “내 마음껏” 이것은 *네페스*(BDB 659, KB 711, 참조, 25 절)라는 용어로서 숨을 쉬거나 생명을 가진 존재를 가리킨다. 이 단어는 가축(참조, 창 1:24; 2:19)이나 사람(참조, 창 2:7)에 대해 사용되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헬라적 사상)이 아니라 바로 영혼이다. 그들의 신체는 몸/혼/영혼으로 이루어진 통일체의 외적 영역이다.

▣ “내가 죽기 전에 . . .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 식사를 하는 목적은 가정의 지도력을 이양하기 위함이었음을 주목하라(즉, 족장의 축복). 히브리인들은 일단 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다(참조, 33-38 절; 사 55:11).

이삭은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참조, 2 절), 그는 그 이후에도 긴 생애를 살았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수혜자였다. 그럼에도 그는 장님이 되었고 또 자신이 곧 죽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육체의 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표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을 사는 결과이다(고든 피의 소책자, “건강함과 부함을 말하는 복음의 질병”을 보라).

**개역개정 27:5-17**

<sup>5</sup>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sup>6</sup>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sup>7</sup>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떡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였으니 <sup>8</sup>그런즉 내 아들이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sup>9</sup>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sup>10</sup>내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sup>11</sup>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यो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sup>12</sup>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sup>13</sup>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sup>14</sup>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sup>15</sup>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만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sup>16</sup>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sup>17</sup>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27:5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이 가족 안에는 서로 시기하는 문제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우리는 리브가와 이삭 및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있는 갈등과 긴장을 보게 된다. 구약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는 이 사람들 사이에도 물질과 가정적 문제가 있었음을 성경이 종종 기록하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리브가가 천막 덮개 뒤에서 그들의 말을 들은 점은 그녀가 사사건건 참견하기 좋아하였거나 혹은 자신에게 창 25:23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성취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이 구절을 이해함에 있어서 야곱과 리브가의 편을 들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삭과 에서가 하나님께서 예언으로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27:7 이 명령어들은 3 절과 4 절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된 사실(이삭이 아닌 리브가와 관련이 있는 본문에서, 참조, 4 절)은 죽장이 하는 축복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 일은 개인적으로 행사하는 능력으로서 한 번 축복한 후에는 그 내용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 야곱, 또 그의 열두 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점에서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27:8-9 리브가는 이삭을 속여 그의 의도한 바를 막으려고 결심했다. 그래서 그녀는 야곱에게 명한다

1. 들어라, 8 절, BDB 1033, KB 1570, **칼 명령**
2. 염소 떼에 가라, 9 절, BDB 229, KB 246, **칼 명령**
3.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9 절, BDB 542, KB 534, **칼 명령**
4. 내가 그것으로 . . . 별미를 만들리니, 9 절, BDB 793, KB 889, **칼 명령이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됨**

27:9 “그가 즐기시는” 리브가는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어떻게 요리할 지를 알았다. 그녀가 이 음식을 자주 만들지 않았거나 혹은 이삭이 이것을 에서에게 요구하지도 않았음이 분명하다.

27:11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창 25:25 의 설명을 보라.

27:12

NASB, NKJV	“속이는 자”
NASB(난외주)	“조롱하는 자”
NRSV	“조롱”
TEV	“속임”
NJB	“거짓”
70 인역	“나쁜 의도”

이 히브리 동사(BDB 1073, KB 1770, *꺄꺄 분사*)는 이 동사형태(*꺄꺄*)에서 “조롱하다” 혹은 “속이다”를 뜻하고, *히트꺄꺄*(참조, 대하 36:16)에서는 “조롱” 혹은 “남용”(NIDOTTE 제 4 권 320 쪽)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구약에서는 단 두 곳에서만 사용되었다. NIV 역은 “계교를 쓰기”와 “비웃다”로 번역했다.

이 단어의 어근은 25:26(BDB 784)에 나오는 야곱의 이름과 관련이 없다.

27:13-17 이것은 리브가와 야곱이 함께 공모하여 세우는 계획에 대해 자세히 말한다.

27:13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맛소라 본문에는 여기에 동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리브가는 그 일에 따른 커다란 결과가 있을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위해 행동을 취하라고 야곱에게 명한다.

1. 순종하라(문자적으로 들어라), BDB 1033, KB 1570, *칼 명령*, 참조, 5(2 회),6,8,13,34, 43 절
2. 가라, BDB 229, KB 246, *칼 명령*, 참조, 5,9,13,14
3. 가져오라, BDB 542, KB 534, *칼 명령*, 참조, 9,13,14,15,35,36(2 회),45,46 절

27:15-17 중복되어 나타나는 행동을 주목하라.

1. 에서의 좋은 의복(BDB 326)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15 절
2.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16 절(아마도 두 새끼로는 음식을 준비하였을 것이다)
3.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17 절

**개역개정 27:18-29**

<sup>18</sup>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이 네가 누구냐 <sup>19</sup>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sup>20</sup>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sup>21</sup>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sup>22</sup>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sup>23</sup>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sup>24</sup>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sup>25</sup>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sup>26</sup>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sup>27</sup>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sup>28</sup>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sup>29</sup>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27:18-24 이것은 여러 거짓말의 시작이다.

1. 네가 누구냐, 18 절,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19 절
2.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20 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20 절
3.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이냐, 24 절, 그렇습니다, 24 절
4. 이삭이 의심하는 모습은 21,24,27 절에서 보여진다

27:19 야곱은 이삭에게 다음의 내용을 요구한다

1. 일어나, BDB 877, KB 1086, **칼 명령**
2. 앉아서, BDB 442, KB 444, **칼 명령**
3. 잠수시고, BDB 37, KB 46, **칼 명령**

27:20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많은 주석가들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거짓말을 하였기에 이 일이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통해 주신 예언의 사실을 야곱이 언급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그는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샀기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즉, 큰 그림)!

27:22-23 리브가는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아주 꼼꼼히 손(손가락)에 입혔음이 틀림없다. 그녀가 어떻게 그것을 입혔는지는 알 수 없다. “손”은 실제로는 야곱의 팔을 가리킬 것이다.

27:25 가장을 통해 전해지는 이러한 특별한 종류의 공식적 축복은 분명히 언약과 같은 일로서 이에 따른 식사가 수반되었음이 분명하다. 어떤 사람과 함께 식사한 후 그를 배반하는 것은 그에 대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여겨졌다.

27:26-27 이것은 또 하나의 시험이었다. 일반적으로 입맞춤은 환영과 작별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삭이 야곱을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하고 그와 그가 입은 옷의 냄새를 맡기 위한 기회를 주었다. 에서는 사냥 활동과 관련이 있는 독특한 냄새를 풍겼음이 틀림없다.

27:27-29 이삭이 에서에게 족장의 축복을 주려고 의도했지만 그 축복은 야곱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자녀에 대한 축복은 물론 농업의 축복(참조, 신 33:28)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라. 당신은 일부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관련이 있음도 보게 될 것이다(즉, 29 절).

27:28 “하늘의 이슬” 비는 팔레스타인에서 특정한 계절에만 내렸다(이른 비, 참조, 신 11:14; 율 2:23; 늦은 비, 참조, 신 11:14; 율 2:23). 식물이 자라는 기간에는 수분이 이슬을 통해 공급되었다. 따라서 “이슬”(BDB 378)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공급하심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 되었다(참조, 신 33:13,28).

28 절과 29 절에는 명령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나온다.

1. “하나님은 . . .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8 절, BDB 678, KB 733, **칼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2. “만민이 너를 섬기고” 29 절, BDB 712, KB 733, **칼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3.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29 절, BDB 1005, KB 295, **히스타켈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4.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29 절, BDB 217, KB 241, **칼미완료형**
5.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29 절, 3 항과 같음

27:29 이것은 평행적 균형을 이루는 히브리 시이다. 이것은 창 25:23 에 있는 지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창 12:1-3 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내용을 암시한다.

“축복하다”(BDB 138, KB 159)와 “저주하다”(BDB 76, KB 91)는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는 공급하심이 있음 혹은 없음을 나타낸다(참조, 민 24:9; 신 27:15-28:19).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언약적 약속이다.

▣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이것은 의도적으로 야곱을 염두에 두고 말한 내용으로 보인다(이삭은 자신이 에서에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개역개정 27:30-38**

<sup>30</sup>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sup>31</sup>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sup>32</sup>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sup>33</sup>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sup>34</sup>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sup>35</sup>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sup>36</sup>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sup>37</sup>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sup>38</sup>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 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27:30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이 구는 같은 어근(BDB 422, KB 425)의 **칼 부정사 절대형**과 **칼미완료형**이 함께 사용된 경우이다. 이것은 야곱의 떠남과 에서의 도착 사이에 아주 약간의 시간적 차이만 있었음을 강조하는 구조이다.

27:31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에서가 한 말이 19 절에서 야곱이 한 말과 정확히 일치함이 흥미롭다. 아마도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자기 형제가 사용하는 특징적인 표현까지 흉내내었을 것이다. 한편 이 표현은 일상적인 관용적 표현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27:32 에서는 갑작스럽게 자신을 “맏아들”(BDB 114)로 말한다. 그는 이전에는 이것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25:29-34 의 설명을 보라).

27:33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히브리어에서 **동사**와 같은 어근을 가진 **형용사**(BDB 353, KB 350, 참조, 단 10:7)가 함께 사용된 것은 “아주 커다란 떨림으로 그가 떨었다”로 해석해야 한다. 이

본문에서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 한 일이 야곱에 대해 화를내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운 것임을 그가 마침내 깨달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보통 맏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약속의 축복을 받는데, 창세기의 앞부분에서 보듯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자신의 주권을 갖고 계심을 나타내는 또 다른 경우가 됨이 흥미롭다. 이것은 둘째 혹은 더 나중에 태어난 아들이 족장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경우 가운데 하나이다.

▣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표현은 (1) 말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단 말한 것은 되돌릴 수 없음을 뜻하든지 혹은 (2) 자신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웠음을 이삭이 인식함을 나타내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앞의 설명을 보라).

27:34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내어 울며” 강조를 나타내는 항목들을 주목하라.

1. 같은 어근에서 온 두 단어(BDB 858, KB 1052), “그가 울음을 터트림으로써 울었다)
2. “크게,” 형용사(BDB 152)
3. “슬프게,” 형용사(BDB 600 I)

▣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것은 두 *피엘 동사*(BDB 138, KB 159, 참조, 38 절)가 처음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히 12:17 은 에서가 물질적 축복을 받지 못함을 인해 슬펐고 또한 잘못된 동기를 인해 슬퍼했음을 보여준다.

27:35-36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야곱을 “바꿔치는 사람,” “속이는 사람”(BDB 784)과 “기만자” (BDB 941)로 보는 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1)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고(참조, 36 절과 창 25:27-34) (2) 이삭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계시를 무시했기 때문이었다. 야곱의 이름은 창 25:26 에서 “속이는 자” 혹은 “바꿔치는 사람”(BDB 139)으로 정의된다.

27:36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이것은 창 25:27-31 과 27:18-29 을 가리킴이 분명하다.

▣ “장자의 명분 . . . 복” 비슷한 두 히브리 단어의 소리로 인한 언어유희가 사용되었다: “장자의 권리”는 *베코라*(BDB 114)이며 “복”은 *베라카*(BDB 139)이다.

▣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족장으로부터 받는 축복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축복이었다. 가정에서의 지도력과 언약에 따른 약속(참조, 37 절)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졌다. 비록 이삭이 속임을 당해 이 축복을 준 것이긴 하지만 야웨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기에 되돌릴 수 없는 내용이 되었다!

27:37 에서가 가난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이삭의 재산 가운데 1/3 을 차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가정의 일에 대한 권리 및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다.

27:38 “소리를 높여 우니” 이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히브리 관용어로서 감성적인 구이다(참조, 창 21:16).

개역개정 27:39-40

<sup>39</sup>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sup>40</sup>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멩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27:39-40 이것은 창 49 장의 내용과 매우 비슷한 시적 예언으로서 족장의 축복은 아니다. 40 절의 3 행과 4 행에는 독립에 대한 어스름한 빛이 나타난다.

27:40 이것은 에서로부터 시작되는 에돔 국가의 역사에 대한 설명일 것이다(참조, 창 36 장). 그들은 아주 오랜 기간동안 유대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다(즉, 멩에, BDB 760, 참조, 레 26:13; 왕상 12:4). 류폴트라는 주석가는 “그들은 항상 유대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썼다”라고 이 절을 해석하였다. 한편 다른 이들은 이 내용이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헤롯(에돔 출신임)에 대한 언급으로서 그들이 마침내 성공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루터).

▣

NASB, NKJV,  
NRSV, 70 인역 “부수다”  
NASB(난외주) “찢다”  
TEV “흔들어 벗다”  
NJB “부수어 버리다”

이 용어(BDB 923, KB 1194)는 드물게 사용된 단어이다. **칼형**(즉, 렘 2:31)에서는 자유로이 떠돌아 다님을 나타내지만 **히팔형**에서는 자신이 풀려나게 찢는 것을 의미한다(오직 이곳과 아마도 시 55:2 에서).

**특별주제: 에돔과 이스라엘**

- 가. 에돔은 사해 동편에 있는 나라로서 야곱의 형제인 에서에게서 출발했다(참조, 창 25-28 장; 32-33 장). 에돔은 “붉은”을 뜻하고 에서는 “털이 많은”을 뜻한다(참조, 창 25:25,30).
- 나. 이스라엘은 에돔을 존중할 것에 대해 명령을 받았다(참조, 신 23:7)
- 다.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 1. 민 20:14-21
  - 2. 삿 11:16-17
  - 3. 삼상 14:47-48
  - 4. 삼하 8:14
  - 5. 왕상 11:14-22
  - 6. 왕하 14:22; 16:5-6
  - 7. 대하 20:10-30; 21:8 이하
  - 8. 암 1:6,9
- 라. 에돔에 대항하여 선포된 예언들
  - 1. 사 34:5 이하; 63:1 이하
  - 2. 렘 49:7-22
  - 3. 애 4:21-22
  - 4. 겔 25:12-14; 35:1-15; 36:2-6
  - 5. 암 1:11-12

- 마. 오바다서에서 에돔이 정죄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1. 그들의 교만함을 인해, 3-4 절
    - ㄱ. 지정학적 안전함
    - ㄴ. 정치적 유대와 군사력
    - ㄷ. 상업적으로 부요함
    - ㄹ. 전통적으로 지혜로움
  2. 그들이 자신의 친족인 유다에 대한 범죄를 인해, 10-14 절
    - ㄱ.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했음(애 2:15-17; 4:21)
    - ㄴ. 도와주기를 거부했음(15 절)
    - ㄷ. 적을 적극적으로 지원함(14 절)
    - ㄹ. 유다의 재산을 취함(렘 13:19)
  3. 그들이 야웨를 거부하고 업신여김(16 절)
- 바. 에돔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해 반역하는 모든 나라를 상징(모형)하였을 것이다, 15-21 절(참조, 시 2 편).
- 사. 이 예언의 역사적 성취는 다음과 같다
1. 예루살렘이 멸망한지 5년 후에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 에돔이 멸망함, 주전 580년
  2. 에돔이 나바티안 아랍에 의해 주전 550-449년 경에 페트라에서 쫓겨남(참조, 말 1:2-5). 느헤미야가 말한 주위의 적들에서 에돔은 언급되지 않았고 아랍 족속으로 대치되었다. 에돔은 네겝지방으로 이주했다
  3. 에돔이 알렉산더의 장군인 아티고누스에 의해 주전 312년에 패함(디오도루스 셀쿠루스에 기록됨)
  4. 에돔이 유대 마카비에 의해 주전 175년 경에 네게브에서 패함(참조, 마카비상 5:3,15; 마카비하 10:15;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12:8:1; 13:9:1)
  5. 에돔이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 주전 125년에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당함. 그들은 이제 이두메인으로 불린다
  6.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가 주후 70년에 이두매의 영향을 근절시켰다

#### 개역개정 27:41-45

<sup>41</sup>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고향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sup>42</sup>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sup>43</sup> 내 아들이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sup>44</sup>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sup>45</sup>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27:41 70 인역은 이 절을 이삭이 죽기를 바라는 이스마엘의 기원으로 이해한다(즉, 이삭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여겼다; 이 때문에 그는 족장의 축복을 주었다, 참조, 2 절).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문맥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에서가 이삭을 참으로 사랑한 것으로 보인다.



27:43 리브가가 야곱에게 복수하려는 에서의 계획을 들은 후에 그녀는 야곱에게 행할 일을 지시한다.

1. “순종하라”(문자적으로는 “행할 수 있도록 들어라”), BDB 1033, KB 1570, **칼 명령**
2. “일어나라,” BDB 877, KB 1086, **칼 명령**
3. “피신하라”(문자적으로는 “가라”), BDB 137, KB 156, **칼 명령**

그녀는 그를 하란에 있는 자신의 가족에게로 보낸다. 이 여행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1. 그로 하여금 에서에게서 떠나 에서의 분노가 잠잠하게 하기 위함이었다(참조, 44-45 절)
2. 에서가 하였듯이 가나안 사람이 아닌(참조, 창 26:34-35; 27:46), 그녀의 가족 가운데서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참조, 46 절)

27:44-45 여기에는 리브가가 매우 신속히 야곱을 집으로 불러들일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온다. 사실상 야곱은 20년 이상 떠나 있어야 했으며, 자기의 어머니를 다시는 보지 못했을 것이다. 비록 야곱이 장자권과 유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가야 했고 에서가 20년 이상 이 모두를 가지고 있었음은 아이러니하다. 자신이 속였던 늙고 장애를 가진 남자 및 자신이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큰 아들과 함께 있어야만 했던 리브가에게 대해 나는 안타까움을 갖는다.

27:45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91) 에서가 야곱을 죽인 후에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고엘로서 에서를 죽이는 것(참조, 창 9:6) 혹은 (2) 야곱이 비록 가정적인 사람이었지만 라반의 양을 치는 일(참조, 창 31:38-42)과 그 후에 천사와 씨름한 일(참조, 창 32:24-32)에서 보듯이 그도 매우 힘센 사람으로서 두 형제가 서로 싸우다가 서로 죽게 되는 일을 말할 것이다.

**개역개정 27:46**

<sup>46</sup>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헛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헛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27:46 다시금 리브가의 민감성을 보게 된다. 야곱을 보냄에 있어서 그녀가 예상되는 변명을 하는 한편, 에서로 인한 삶의 무미로움(BDB 880 I)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삭이 그것을 존중한 점을 볼 때 그녀가 말한 이유는 합당했음이 분명하다(참조, 28:1-2). 우리는 창 26:34,35 에서 에서가 두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음을 안다(헛, BDB 366, 참조, 23:3,10; 12:6 의 특별주제: 이스라엘 이전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사람들을 보라).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누가 이 장을 불순한 동기와 방법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여기는가?
2. 창 25:23 은 이 장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3. 족장의 축복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가?
4. 왜 리브가는 자기 아들이 친척과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 창세기 28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야곱이 보냄을 받다	야곱이 에서로부터 도망하다 (27:46-28:5)	야곱이 아람을 향해 떠남과 그가 벧엘에서 꾸 꿈 (27:46-28:22)	이삭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다 (27:46-28:5)	이삭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다 (27:46-28:5)
28:1-5	28:1-5 (3-4)			
	에서가 마할랏과 결혼하다		에서가 또 다른 아내를 갖다	에서의 또 다른 결혼
28:6-9	28:6-9	28:6-9	28:6-9	28:6-9
야곱의 꿈	벧엘에서 한 야곱의 서원		벧엘에서 꾸 야곱의 꿈	야곱의 꿈
28:10-17	28:10-17	28:10-17	28:10-15 28:16-17	28:10-19
28:18-22	28:18-22	28:18-22	28:18-22	28:20-22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개역개정 28:1-5

<sup>1</sup>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sup>2</sup>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sup>3</sup>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sup>4</sup>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sup>5</sup>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28:1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이 장의 해석은 리브가가 에서의 계획을 들었고 27:46 에서 말한 바 그녀의 대책에 기초하여 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삭이 속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으로 야곱을 축복하는 점이 중요하다. 아마도 이삭은 자기가 에서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려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거스려 싸웠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한편 문맥상 여기에 나오는 “축복함”은 단순히 만난 것을 가리키는 표현을 나타낸다(즉, 47:7,10 과 룻 2:4).

▣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창 24:3-4 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자기 종을 보내면서 했던 바로 그 말이다. 이것은 야웨만을 섬기는 것과 관계된 것임이 틀림없다. 비록 브두엘의 아들인 라반이 야웨를 진정으로 섬기는 자는 아니었지만(즉, *드라빔*, 참조, 31:19,34,35) 그 가족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학적 이해를 갖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28:2 이삭은 야곱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주고 있다.

1. “일어나,” BDB 877, KB 1086, *칼 명령*
2. “가서,” BDB 229, KB 246, *칼 명령*
3. “맞이하라,” BDB 542, KB 534, *칼 명령*

▣ “밧단아람으로 가서” 이 용어(BDB 804 와 74)는 후에 시리아 제국을 나타내는 말이었다(참조, 25:20). 하지만 여기서 이 단어는 하란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즉, 도시나 한 지역).

▣ “네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창 22:20-24; 24:15 을 참조하라.

28:3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이것은 *엘 샤폃다이*(BDB 42 와 994, 17:1 의 설명을 보라)라는 호칭이다. 이것은 족장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사용한 이름이었다(참조, 17:1; 28:3; 35:11; 43:14; 48:3; 또한 49:25 도 이에 해당됨). 우리는 출 6:2-3 에서 족장들이 이 호칭을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했음을 알게 된다. 12:1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 “여러 족속을” 이것은 *카할*(BDB 874, 참조, 신 5:22; 9:10; 10:4; 23:2-9; 31:30)이라는 히브리 용어로서 이곳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70 인역에서 에클레시아로 번역되었다. 신약의 신자들은 이 용어를 사용하여 자기들이 가진 언약에 따른 신자들의 새로운 공동체를 설명했다. 이 용어를 사용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됨을 나타냈다.

28:3-4 이 두 절에서 여러 명령이 지시형의 의미로서 사용되었다.

1. 복을 주시어, 3 절, BDB 138, KB 159, *피엘 미완료형*
2. 생육하고, 3 절, BDB 826, KB 963, *히필 미완료형*
3. 번성하게 하여, 3 절, BDB 915, KB 1176, *히필 미완료형*
4.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4 절, BDB 678, KB 733, *칼 미완료형*, 참조, 15:7,8

28:4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칭하는 표준적인 표현이 되었다(참조, 13 절; 12:7; 13:15,17; 15:7,8; 17:8; 26:3,4; 출 6:4).

**개역개정 28:6-9**

<sup>6</sup>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sup>7</sup>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아람으로 갔으며 <sup>8</sup>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sup>9</sup>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웃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28:6 “에서가 본즉” 우리는 6-9 절을 통하여 에서의 성품에 대한 또 다른 이해를 하게 된다. 그는 여전히 책임지기를 원치 않았고 축복만을 원했다. 그는 다시 한 번 더 세속적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에게는 이미 아내로 취한 가나안 여인들의 딸들이 있었다(참조, 창 26:34-35; 27:46; 28:8; 36:2). 지금 그는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릴 목적으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려고 한다. 이 소녀의 이름은 “마할랏”으로 9 절에서 나오는데 창 36:3 에서는 “바세맛”으로 불린다. 그는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여전히 시도하고 있는 듯이 여겨진다.

**개역개정 28:10-17**

<sup>10</sup>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sup>11</sup>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sup>12</sup>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sup>13</sup>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sup>14</sup>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sup>15</sup>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sup>16</sup>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sup>17</sup>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며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28:10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호 12:12 은 그가 그의 형제로부터 도망하였다고 말한다(참조, 창 27:41-45).

28:11  
 NASB, NKJV,  
 NRSV, NJB,  
 70 인역 “그리고 그가 어떤 장소에 왔다”  
 TEV “거룩한 장소에”  
 REB “어떤 성소에”

이것은 특정 장소가 아닌 어떤 곳을 임으로 가리키는 말로써 어느 정도 특별한 구의 형태 (문자적으로 “그 장소,” BDB 879)로 되어 있다. 이것은 에브리임의 산악 지대로서 루스 성 가까이 위치한 어떤 곳을 가리킨다. 이 지역은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곳이었다(참조, 창 12:8; 13:3-4).

28:12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사닥다리(구약에서는 이곳에서만 나옴)라는 용어는 “어떤 것을 쌓아 놓기”(BDB 700, KB 757)라는 의미를 갖는 어근에서 왔다. 이것은 오늘날 사용하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커다란 돌들을 계단 모양으로 쌓아 올린 것이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요 1:51 에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기 위해 이 계단에 대해 말씀하셨다.

▣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단어의 순서가 여기서 반대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순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미 야곱과 함께 있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미 그의 매일의 삶을 인도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특별한 방법이었다.

28:13  
 NASB, NKJV,  
 RSV, 페쉬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NRSV, TEV,  
 JPSOA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 서서”  
 NJB,  
 NASB(난외주) “여호와께서 그 옆에 서서”  
 NIV “그 위에 여호와께서 서서”  
 70 인역 “여호와께서 그것 위에 서서”

이 동사(BDB 662, KB 714, *니팔 분사*)는 “서다”를 의미한다. 문맥 또는 함께 쓰인 전치사를 통해 특별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여기의 *알은* “옆” 혹은 “위”를 뜻한다. 이것은 언약의 갱신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써 야곱에게 있어서 처음 공식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라는 구는 족장들이 사용했던 하나님의 이름이었다(즉, 26:24; 28:13; 31:5,29,42,53; 출 3:6,15).

▣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것은 먼저 아브라함(창 12:7; 13:15,17; 15:7,9; 17:8)에게 그 후에 이삭(창 26:3)에게 주신 말씀으로써 이제 야곱에게 주시는 내용이다.

28:14 “땅의 티끌 같이 되어” 야웨께서는 족장들에게 그들의 후손이 아주 많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다(참조, 12:2; 13:16; 15:5; 16:10; 17:2,4-5).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한 명의 상속자에 대한 약속의 성취였지만 사실 그 이상이다—많은 상속자에 대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이 사실을 갈 3:14; 롬 2:28-29; 8:15-17 에서 본다! 창 3:15 은 실재이다.

▣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온 세상의 구속임을 밝히는 중요한 내용이다(H. H. 로리, *구약의 선교적 메시지*를 보라). 이 특별한 히브리 단어의 동사형은 *니팔*로서 “복을 받게 되리라”로 번역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형태가 12:3; 18:18; 행 3:25; 갈 3:8 에 나타난다. *히트파엘*형은 창 26:4 과 22:16-18 에서 사용되었는데 “그들

자신을 축복하게 된다”로 해석해야 한다. 같은 축복에 대하여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심으로 다른 이들이 이를 보고 이를 소원하도록 하실 것이다. 한편 이 일은 족장의 하나님(즉, 야웨)과의 관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게 된다.

28: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스스로 계신” 하나님(참조, 13 절)께서 야곱과 개인적으로 함께 계시다. 이것은 가장 커다란 하나님의 축복이다(참조, 창 26:3).

▣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웨께서는 그의 약속/그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에 대해 약속하신다(즉, 신 31:6,8; 수 1:5; 히 13:5).

▣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웨께서 주신 약속의 확실함을 주목하라. 신 7:9 과 사 55:11 을 보라.

28:16

NASB, NKJV,

NRSV, REB “여호와께서 과연 이곳에 계시거늘”

TEV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JPSOA “과연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거늘”

“과연,” “진실로”라는 부사(BDB 38, 참조, 출 2:14; 삼상 15:32; 사 40:7; 45:15; 렘 3:23[2 회]; 4:10)는 강조를 나타낸다.

▣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그가 성소를 범했음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곳이 다르게 보이거나 특별하게 보이지 않았기에 거룩한 곳을 몰랐다. 내 견해로는 이러한 사실은 이곳이 가나안 사람들의 성소였다고 말한 옛 주석가들의 이론을 반박한다.

28:17 “이에 두려워하여” 야곱이 이 꿈에 대해 가진 자세는 “두려워 함”(BDB 431, KB 432, *칼 미완료형*)으로 묘사되었다. 그는 그 장소를 “놀라움”(BDB 431, KB 432, *니팔 분사*)으로 묘사한다.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거나 임재하심 앞에서 혹은 영적 영역(즉, 천사들)에 속한 일을 보면서 두려워하였고/두려워 한다. 출 3:5 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는 떨기나무로부터 모세에게 있었고 출 19 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을 보라.

▣ “이 곳이며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어떤 주석가들은 “하늘의 문”(BDB 1044 와 1029 의 *합성*)이란 구와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의 개념이 바벨론 사람들이 가진 여러 종교적 요소(즉, 지구랏)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라고 느낀다. 비록 이러한 주제들이 바벨론 신화에 나오지만 그 요소들이 야곱이 가진 생각의 원천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개념이 추가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특히 언약적 가족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심을 나타낸다.

개역개정 28:18-22

<sup>18</sup>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sup>19</sup>그 곳 이름을 벤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sup>20</sup>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sup>21</sup>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sup>22</sup>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8:18 “**둘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기둥은 히브리어로 **꺄세바**(BDB 663)로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기념하는 것이었다(참조, 35:14). 이것은 후에 모세의 율법에서 정죄한 풍요의 신을 섬기는 일과 관련이 되었다(즉, 출 23:24; 34:13; 신 16:22).

28:19 “**그 곳 이름을 벤엘이라 하였더라**” 이 이름은 집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인 **בֵּן**(BDB 108)과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일반적 칭호인 **אל**(BDB 41)에서 왔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곳을 “알몬드 나무”(BDB 531 II, 참조, 35:6; 48:3)를 뜻하는 루스로 불렀는데, 유대인들은 이후부터 이곳을 벤엘(즉, 하나님의 집)로 불렀다.

28:20 “**만일**”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 적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여 약속드리는 모습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헬라어에 있는 **조건절의 제 1 유형**과 비슷한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참임을 그가 받아들이고 또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서 이를 확인하고 이를 꼭 붙잡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이유 때문에 나는 야곱이 다음과 같이 말한 애매한 표현을 인해 그가 믿음이 없었다고 보지 않는다.

그가 언급한 조건들을 주목하라.

1.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2.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BDB 1036, KB 1581)
3. 먹을 떡과
4. 입을 옷을 주시어
5.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곱이 약속드린 일을 주목하라.

1.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2. 십일조를 드리겠나이다(“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같은 어근 [BDB 797, KB 894]의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이 함께 사용되어 뜻을 강조함)

야곱이 부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자신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임재하시며 보호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 있다.

28:22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십일조는 할례와 번제의 경우처럼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오래된 것이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훨씬 전에 이 십일조의 개념을 창 14:20 과 이곳과 28:22 에서 본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 하여야 할 일을 나타내는 상징이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로 여겨진다.

야곱이 누구에게 이 십일조를 드렸는가가 궁금하다. 그가 야웨를 만난 이 외딴 곳에는 제사장도 없었고 어떤 건물도 없었다. 아마도 이것은 번제를 의미할 것이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이삭이 생각을 바꾸어 야곱이 약속에 따른 참된 상속자라고 보았는가?
2. 족장들은 어떤 호칭으로써 하나님을 알았는가?
3.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는 야곱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고 후에 예수께는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4. 돌 기둥은 무엇이며, 그것은 왜 정죄되었는가?
5. 22 절은 십일조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 창세기 29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야곱이 라헬을 만나다	야곱이 라헬을 만나다	야곱이 하란에서 성공함 (29:1-31:55)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다
29:1-3	29:1-3	29:1-3	29:1-3	29:1-8
29:4-8	29:4-8	29:4-8	29:4a 29:4b 29:5a 29:5b 29:6a 29:6b 29:7 29:8	
29:9-12	29:9-12	29:9-12	29:9-12a 29:12b-14	29:9-14a
29:13-14	29:13-14 야곱이 레아 및 라헬과 결혼하다	29:13-14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위해 라반을 섬기다	야곱이 두 번 결혼함 29:14b-19
29:15-20	29:15-20	29:15-20	29:15-17 29:18 29:19-20	
라반의 계약				29:20-30
29:21-30	29:21-30	29:21-30	29:21-25 29:26-27 29:28-30	
	야곱의 자녀 (29:31-30:24)		야곱에게서 난 자녀 (29:31-30:24)	야곱의 자녀 (29:31-30:24)
29:31-35	29:31-30:8	29:31-30:8	29:31-35	29:31-30:8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29:1-3

<sup>1</sup>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sup>2</sup>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sup>3</sup>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29:1 “야곱이 길을 떠나” 이 구는 문자적으로는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BDB 669 와 919)이다. 이 절은 구약에서 이 독특한 관용어가 사용된 유일한 곳이다. 이 표현은 야곱이 벰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그가 가진 흥분과 목적을 일부 보여준다.

▣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사 6:3 과 33 절에서 이것은 아라비아 족속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참조, 욥 1:3; 사 11:14; 겔 25:4,10). 한편 이것은 여기서 하란의 주민을 가리킨다(참조, 렘 49:28). 아마도 이들은 벰엘과 하란 사이에 거주하던 아라비아의 북부 족속으로서 야곱이 만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이다.

29:2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이 여행의 과정이 완전히 생략되었다. 2 절에서 야곱은 자신이 하란에 가까이 있음을 알지만 자기가 있는 정확한 위치에 대하여는 모르고 있다. 우물은 그 지역의 짐승 떼가 모이는 장소였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렇게 “우연히” 일어난 일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하란은 29-31 장의 배경이 되는 장소이다.

▣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이것은 이 지역의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일로서 (1) 물의 증발을 막고 (2)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3) 안전(허락없이 사용하는 일을 막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을 것이다.

개역개정 29:4-8

<sup>4</sup>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sup>5</sup>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sup>6</sup>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나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sup>7</sup>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sup>8</sup>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떼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29:4 “내 형제여” 이것(BDB 26)은 인사를 나타내는 말로서 어떤 가족적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은 아니다. 오늘날 미국 남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같은 인사법을 서로 사용하고 있다.

12 절과 15 절에서 같은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문자적으로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에 대한 인식은 14 절에서 사용된 “내 혈육”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었다(참조, 창 2:23).

29:5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여기서 사용된 “아들”(BDB 119)은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가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뜻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브두엘은 라반의 아버지였고 나홀은 그의 할아버지였다(참조, 창 24:24,29).

29:6 “그가 평안하나 이르되 평안하니라” 이것은 *샬룸*(BDB 1022)이라는 용어이다. 15:15의 특별주제를 보라.

▣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삶에 있어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참조, 24:15; 출 2:16, 한나 윗홀 스미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비밀*을 보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기에 나타난다. 창 37:15-17에서 요셉에게도 그러했다(또한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29:7 “해가 아직 높은즉” 야곱은 목자였기에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일을 알고 있었다(이러한 지식은 라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이 일은 그로 하여금 라헬을 위해 그의 근육있는 몸(참조, 10 절)을 과시하게 했다! 분명히 이것은 효과가 있었다! 라헬이 이 이방인과 입을 맞추면서(참조, 11 절) 놀랐지만 그가 왜 그 그곳으로 왔는지 말한 후에는 큰 기쁨으로 가득차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분명히 확신한다. 야곱이 운 일은 동양 남자가 서양 남자들보다 자신의 감성을 잘 드러내는 문화적 경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참조, 13 절).

야곱은 다른 목자들에게 수사적 질문을 뜻하는 관용적 명령형을 사용하여 말하였다.

1. 물을 먹이고, BDB 1052, KB 1639, *히필 명령*
2. 가서, BDB 229, KB 246, *칼 명령*
3. 풀을 뜯게 하라, BDB 944, KB 1258, *칼 명령*

개역개정 29:9-12

<sup>9</sup>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sup>10</sup>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sup>11</sup>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 <sup>12</sup>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됄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개역개정 29:13-14

<sup>13</sup>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sup>14</sup>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29:13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랍비들은 그가 달려 온 이유는 엘리에셀이 선물을 가져왔듯이(창 24:10) 야곱도 선물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 시점에서 그가 가진 동기를 비난할 마음이 없다. 라반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으로서 드러내놓고 야곱에게 임의대로 행하려고 하였지만 이 일은 야곱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인다.

29:14 “한 달” 이 용어(BDB 294)는 “달”(BDB 294)과 관련이 있다. 히브리인들은 달의 변화로 나타나는 음력을 사용하였다(즉, 새 달, 새로운 한 달).

개역개정 29:15-20

<sup>15</sup>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삷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sup>16</sup>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sup>17</sup>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sup>18</sup>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칠 년을 섬기리이다 <sup>19</sup>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sup>20</sup>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 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29:15 이것은 매우 미묘한 일이지만, 야곱이 라헬에 반한 것을 라반이 이미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야곱이 결혼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기에 그가 라반을 위해 일해야 함을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라반은 야곱의 목양적 능력도 주목했을 것이다.

29:16 “레아” 그녀의 이름(BDB 521, KB 513)이 갖는 어원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1) 아카디아어 어근에서 “암소” (2) 아랍어 어근에서 “들 암소” (3) “피로한”(동사에서, KB 512). 17 절에서 볼 때 그녀는 라헬처럼 신체적으로 끌리는 몸매는 아니었다.

▣ “라헬” 그녀의 이름은 “암양”(BDB 932, KB 1216)을 뜻한다. 유목민들은 종종 짐승의 이름을 따라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다.

29:17

NASB, RSV,  
JPSOA, NIV,

70 인역

“시력이 약했다”

NKJV

“눈이 연약했다”

NRSV

“눈이 사랑스러웠다”

TEV, NJB

“사랑스러운 눈”

REB

“희미한 눈”

페쉬타

“매력있는 눈”

이 형용사(BDB 940, KB 1230)는 다음을 뜻한다

1. 히브리어 어근—부드러운, 연한, 가는
2. 아랍어 어근—약한, 얇은, 나쁜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은 이 문맥에서 그녀가 가진 이름의 어근을 인해 아랍어의 의미를 따라 번역하였다. 하지만 이 절은 두 소녀를 칭찬하기 위한 의도로 여겨진다.

▣ “곱고 아리따우니” 이 형용사(BDB 421)는 다른 두 단어와 함께 두 번 사용되었다.

1. BDB 421 과 1061 이 몸매가 멋있고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2. BDB 421 과 909 가 모습이 멋있고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죽장들의 본 부인들은 모두 아름답고 매력있는(그러나 아기를 못낳는) 여인들이었다.

29:18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칠년을 섬기리이다” 이것은 라반이 요구했을 조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는 매우 관대한 제안이었다. 그럼에도 라반은 오싹하도록 대우를 했고 최대한의 이득을 취했다. 19-20 절과 30 절에서는 이 둘 사이에 있는 참된 사랑의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

29:19 “나와 함께 있으라” 이것은 명령(BDB 442, KB 444, 칼 명령)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문맥에서 이것은 야곱이 라반에 대한 결혼지참금으로서 7년을 섬기겠다고 제안한 것을 받아드림을 뜻하는 관용적 표현을 나타낸다.

#### 개역개정 29:21-30

<sup>21</sup>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sup>22</sup>라반이 그 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sup>23</sup>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sup>24</sup>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sup>25</sup>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sup>26</sup>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sup>27</sup>이를 위하여 칠 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칠 년 동안 섬길지니라 <sup>28</sup>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칠 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sup>29</sup>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sup>30</sup>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29:21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은 7년이 다 차도록 야곱에게 딸을 주는 일을 서두르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이 절들을 통해서 라반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그가 가진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자기에게 직접 속한 가족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29:23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이 모든 일이 진행되도록 그가 레아였음을 알지 못했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한 일부 이론은 다음과 같다: (1) 어두운 시각이었다(즉, 23 절, “저녁에”) (2) 그녀가 베일로 얼굴을 가렸다(참조, 24:65) (3) 그가 술취했다(22 절에서 사용된 “연회”[BDB 1059]라는 용어는 “술 취하다”[BDB 1059]라는 용어에서 왔다, 흥청망청한 파티를 암시한다)! 나는 사회적 문맥을 고려할 때 3 항의 설명이 가장 적합한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29:24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우리는 누지 서판에서 같은 시기에 속하는(주전 이 천년 이후) 후리족의 문화에서 이러한 일이 일반적으로 행해진 것임을 알게 된다. 딸이 아기를 못낳는 경우에는 그 여종이 그녀를 대신하여 아기를 가질 수 있었다(참조, 28-29; 30:3). 24 절과 29 절은 30 장의 내용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려는 해설자의 도움말이다.

29:24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의 성품을 볼 때 이러한 종류의 행동이 예상되는 일이었지만 레아나

라헬이 이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놀랍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문화가 아닌 그들의 문화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한다. 본문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짐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9:27 “이를 위하여 칠 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칠 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 신혼의 주간은 이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진 일이었다(참조, 삿 14:12,17). 이러한 일은 정경이 아닌 토빗트 11:18 에서도 나타난다. 한 달을 주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은 성경에만 있는 개념이다(참조, 창 2:1,2). 라반이 야곱에게 7 년을 더 섬기도록 요구하는 점은 그가 가진 탐욕스러운 태도를 드러낸다. 야곱은 자신의 적수를 만나 이제 속임을 당하는 것이 어떠한 맞인지를 알게 되었다(참조, 27:35).

**개역개정 29:31-35**

<sup>31</sup>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sup>32</sup>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sup>33</sup>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sup>34</sup>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sup>35</sup>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29:31 “사랑 받지 못함을” 이것은 문자적으로 “미워하는”(BDB 971, KB 1338, *칼수동 분사*, 참조, 33 절)이라는 관용적 히브리어이다. 이 단어가 신 21:15; 말 1:2-3; 요 12:25; 눅 14:26 에서 사용되었기에 우리는 이것이 “미움을 받는”이 아니라 단순히 “사랑받지 못하는”을 뜻하는 비교적인 표현임을 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이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29:32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르우벤(BDB 910, “보라 아들이다”는 “보다”라는 동사, BDB 909 에서 음)은 “본”(BDB 906, KB 1157, *칼 완료형*, “보다”)을 뜻하는 일반적 어원을 가리킨다.

▣ 아들을 낳는 것은 대단히 영예로운 일이었다. 레아는 야곱이 자신을 기뻐하고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했다.

29:33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BDB 1035)이란 단어는 “들었다” 혹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BDB 1033, KB 1570, *칼 완료형*)를 뜻하는 일반적 어원을 나타낸다.

29:34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레위라 하였으며” 그의 이름(BDB 532 I)은 “연합한”(BDB 530 I, KB 522, *니꼴 미완료형*)이란 일반적 어원을 나타낸다. 레아는 야곱과의 더 깊이있는 감정적 유대를 원했다.

29:35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유다라 하였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택하신 아들이다. 그의 이름은 “찬송”(BDB 397)을 뜻하며, “내가 야웨를 찬양할 것입니다(BDB 392, KB 389, *히꼴 미완료형*)”라는 말과 관련을 가진다. 그의 이름은 후에 한 지파와 한 나라 및 모든 유대인들을 나타내는 이름이 되었다. 그의 세 형은 그들이 행한 부적절한 일을 인해 거부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덜 사랑받던 여자를 선택하셨으므로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시는 것이 다시금 흥미롭다. 예상을 뒤엎는 일이 창세기에서 계속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주권을 나타낸다.

# 창세기 30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자녀들 (29-31-30:24)	야곱이 하란에서 성공함 (29-31-31:55)	야곱에게 태어난 자녀들 (29-31-30:24)	야곱의 자녀들 (29-31-30:24)
30:1-13			30:1 30:2 30:3-8	29-31-30:8
	30:9-13	30:9-13	30:9-13	30:9-13
30:14-21	30:14-21	30:14-21	30:14 30:15a 30:15b 30:16 30:17-21	30:14-21
30:22-24	30:22-24	30:22-24	30:22-24	30:22-24
야곱의 변영	야곱이 라반과 동의하다		야곱과 라반의 흥정	야곱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30:25-36	30:25-36	30:25-36	30:25-26 30:27-28 30:29-30 30:31a 30:31b-33	30:25-31 30:32-36
30:37-43	30:37-43	30:37-43	30:37-39 30:40 30:41-43	30:37-43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30:1-8

<sup>1</sup>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sup>2</sup>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sup>3</sup>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sup>4</sup>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sup>5</sup>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sup>6</sup>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sup>7</sup>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sup>8</sup>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30:1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이것은 문자적으로 “꼴이 나서 얼굴이 새빨개진”(아랍어 어근에서, BDB 888, KB 1109, *피엘 미완료형*)이다. 그녀는 그것을 조금도 반기지 않은 야곱에게 자신의 시기심을 풀었음이 분명하다(“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BDB 396, KB 393, *칼 명령*, 참조, 2 절)!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족장들의 아내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로 보인다. 라헬이 참지 못하는 모습이 1 절에 나타나는데, 리브가는 이 일을 인해 20 년 간을 위하여 기도했다. 레아가 네 자녀를 낳게 되지 라헬은 시기하고, 화내고, 못견뎠다.

30:3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이것은 양자를 삼는 일을 나타내는 문화적 관용어이다(참조, 창 48:12). 우리는 리핏-이스탈 법전, 함무라비 법전, 누지 서판, 마리 서판, 알랄락 서판을 통하여 문화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음을 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문화적 기준에 비추어 이 문화를 판단할 수 없다.

라헬이 당황하는 모습은 그녀가 말한 일련의 명령문에서 볼 수 있다.

1.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BDB 97, KB 112, *칼 명령*(강력한 요구)
2. 그가 아들을 낳아, BDB 408, KB 411,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3.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문자적으로는, 나로 지어지게 하라), BDB 124, KB 139, *니팔 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됨

30:5-6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 . . 단이라” “단”이란 이름은 “심판하다”(BDB 192)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이다. 21 절에서 태어난 딸의 이름은 같은 이름의 여성형이다(디나, BDB 192).

30:8  
 NASB, NRSV “힘있게 싸워”  
 NKJV “크게 싸워”  
 TEV “힘든 싸움”  
 NJB “운명을 건 전쟁”  
 70 인역 “경쟁하여”

맛소라 본문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 문제를 가져 온다. 이것은 라헬이 하나님과 씨름하였음을 뜻할 수 있다. 혹은 이 단어를 설명적으로 번역하여 “강한/큰/어려운” 즉 레아와의 경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아마도 그녀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과 관련하여 영적(하나님과)으로 육체적(그녀의 언니와)으로 다툰 것을 나타낸다(참조, 페쉬타).

▣ “납달리” 이 용어는 “씨름하다”(문자적으로, “뒤틀린,” BDB 836)와 관련이 있다. 그녀는 적수인 자기 언니와 씨름했으며 기도로써 하나님과 씨름했다.

개역개정 30:1  
<sup>9</sup>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sup>10</sup>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sup>11</sup>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갖이라 하였으며 <sup>12</sup>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sup>13</sup>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30:9 이 자매/부인들 사이에 커다란 경쟁이 있었다!

30:10-11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 갖” 갖(BDB 151 III)이란 단어는 “운” 혹은 “행운”(BDB 151 II)을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왔다.

맛소라 본문에는 “행운으로”로 되어 있는데, 맛소라 본문의 난외주에는 “행운이 왔다”로 기록되어 있다. 갖(갓, BDB 151 III)이 다음의 단어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

1. 군대, 그릇, BDB 151 I, NKJV(NIV 각주)
2. 행운, 갓, BDB 151 II, 70 인역, NASB, NRSV, TEV, JPSOA, NJB, REB, 페쉬타
3. 행복, 70 인역

30:12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 아셀” 이 이름은 “행복한”(BDB 81)이란 히브리어와 관련이 있다.

30:13 “아셀” 이 이름(BDB 81)은 “행복하다”라는 동사(BDB 80, KB 97 II, *피엘 완료형*)에서 왔으며 “행복하다고 여기다” 혹은 “복있다”라는 뜻을 가진다.

개역개정 30:14-21  
<sup>14</sup>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환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를 청구하노라 <sup>15</sup>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나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환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sup>16</sup>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sup>17</sup>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sup>18</sup>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잇사갈이라 하였으며 <sup>19</sup>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sup>20</sup>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블론이라 하였으며 <sup>21</sup>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30:14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환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합환채(BDB 188)는 고대에 최음제로서 사용되었다(참조, 아 7:13). 이것의 노란색 열매 혹은 남자의 모습처럼 생긴 뿌리가 이러한 전통의 기원이 되었다. 라헬은 이것을 갖기 원했고 그것으로 자신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기대했다(다시금 언약의 가족이 하나님을 도우려 든다). 이 경우에 있어서 두 자매의 긴장은 매우 커졌다. 이 두 여자의 다툼에 의해 야곱이 아주 쉽게 조종되고 있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놀라게 한다(참조, 15-16 절).

30:16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로 당신을 샀노라” 이것은 같은 어근(BDB 968, KB 1330)에서 온 부정사 절대형과 완료형 동사가 함께 사용되어 의미를 강조하는 구조이다. 야곱은 자기의 처음 두 부인에 의해 기꺼이 성적으로 조종당했다. 잇사갈의 이름(아래의 내용을 참조)은 이러한 슬픈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30:18 “잇사갈” 잇사갈(잇삿쿨, BDB 441)이란 이름은 “샀” 혹은 “보상”(사쿨, BDB 969)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와 관련이 있다. 레아는 르우벤이 가져 온 합환채로 야곱의 사랑을 샀다!

30:19-20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 스블론” 스블론(BDB 259)이라는 용어는 “선물” 또는 “지참금”(BDB 256)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 및 “거하다”, 혹은 “존중하다”(BDB 269)와 언어유희를 이룬다. 그의 아내들은 그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 계속 다투었다.

30:21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이 가족에게 딸이 한 명만 태어난 것으로 여겨진다. 이름이 말해진 한 명의 딸이란 사실은 그녀가 유일한 딸이었음을 뜻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37:35의 설명을 보라. 즉 이후에 있는 사건에 대한 기록에서 디나가 갖는 역할을 인해 오직 이 딸의 이름만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역개정 30:22-24

<sup>22</sup>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sup>23</sup>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sup>24</sup>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30:22-24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요셉”(BDB 415)이란 이름은 두 히브리 동사 가운데 하나와 관련이 있다.

1. “그녀의 부끄러움을 가져가심”(BDB 62, KB 74, 칼 완료형, 참조, 23 절) 혹은
2. “더하심”(BDB 414, KB 418, 히필 지시형), 하나님께 또 다른 아들을 구함(참조, 35:17)

개역개정 30:25-36

<sup>25</sup>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sup>26</sup>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sup>27</sup>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sup>28</sup>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sup>29</sup>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sup>30</sup>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떼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sup>31</sup>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 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sup>32</sup>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 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sup>33</sup>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은 것이나 양 중에 검은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sup>34</sup>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sup>35</sup>그 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30:25-26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당시의 문화적 규범은 야곱이 떠나는 것으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라반이 야곱을 보내주어야만 되었음이 분명하다. 분명히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떠나려는 시도를 했음에도 번번히 거절당했다. 라반은 야곱이 머물러 있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여 그로 하여금 머물러 있게 했다(참조, 27 절).

25 절과 26 절에는 강조를 나타내는 여러 표현이 나온다.

1. “나를 보내어,” 25 절, BDB 1018, KB 1511, *피엘 명령*
2.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25 절, BDB 229, KB 246, *칼 청유형*
3. “처자를 내게 주시어,” 26 절, BDB 678, KB 733, *칼 미완료형*
4. “나로 가게 하소서,” 26 절, BDB 229, KB 246, *칼 청유형*

“섬기다” 라는 동사(BDB 712, KB 773)를 두 번(참조, 29 절) 사용하여 라반에게 빚진 모든 것(그 이상으로, 30 절)을 갚았음을 야곱이 나타내고 있다!

30:27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깨닫다”라는 단어는 “속삭이다” 혹은 “낮은 목소리로 말하다”(BDB 638 II)이다. 이러한 행위는 야웨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적 방법으로 미래에 대해 알려고 하거나 이를 조종하려는 시도이다. 이 일은 레 19:26; 민 23:23-24; 신 18:10 에서 정죄 되었다.

창세기에서 이렇게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후에 모세의 율법이 정죄한 일을 왜 행하였는지를 알기는 어렵다.

1. 돌을 세워 놓기
2. 점을 치기, 이곳과 44:5,15(요셉)
3. 마술을 흉내냄(즉, 나무 가지의 껍질을 벗겨 줄있는 새끼를 낳게 하는 일)
4. 다산을 위해 합환채를 사용함
5.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드라빔*)
6. 이교도의 할례(무기로서)

초기에 속하는 야웨를 섬기는 자들은 그들의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그들이 더 순수하고 더 완전한 유일신 신앙을 향해 나아갔음이 분명하지만, 이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

30:28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은 자신의 변영이 야곱에 근거함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그로 머물러 있게 하기를 원했다.

“정하라”라는 동사(BDB 666, KB 718, *칼 명령*)는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 단어이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찌르다” 혹은 “뚫다”를 뜻한다. 여기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라반과 함께 있는 조건으로 그가 요구하는 것을 말하라는 뜻이다.

“주다”라는 두 번째 동사(BDB 678, KB 733, 칼 청유형)는 야곱이 함께 있어 자신을 도와 주어야 한다는 필요에 대해 라반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독자에게 알려준다(참조, 30 절). 라반은 줄곧 요구하는 장인이었음이 틀림없다(참조, 31:11-12). 본문은 야곱이 고용된 종으로 여겨졌고 그러한 대우를 받았음을 나타낸다(참조, 31:14-16).

30:30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은 라반이 누리는 축복의 원천이 야곱 자신 및 야곱과 야웨의 관계에 기인함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30 절에서 계속 나타나듯이 야곱은 자신의 집을 세워야 하는 필요에 대하여도 인식하고 있었다.

30:31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야곱은 축복의 근원이 라반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다.

30:32 야곱은 양과 염소 가운데 좋지 않은 색을 가진(BDB 378, KB 375, 32-35 절에서 5 회 사용됨) 짐승을 가지려고 했다.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과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이에 해당 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색을 가진 경우는 드물게 있었다. 야곱이 이렇게 제안한 것은 이 시점에서 야곱은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았고, 또한 앞으로 어느 것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 어떤 문제라도 생기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음이 분명하다(참조, 33 절).

30:35-36 “그 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 이 절과 36 절에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 두 가지 나온다. “그가”라는 말로 35 절이 시작되는데 이는 분명히 라반을 가리킨다. 이곳은 처음으로 그의 아들에 대해 언급하는 곳이다. 분명히 라반은 떼를 나누어 야곱의 짐승을 자기(라반의) 아들들에게 맡겼다. 우리는 36 절에서 라반이 야곱의 짐승 떼를 삼일 길이 떨어지게 하여 그 떼가 자기의 떼와 번식하지 못하게 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야곱이 라반의 짐승을 돌봄에 있어서 축복이 따르도록 야곱을 강압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비록 라반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계셨다. 나는 37 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는 야곱이 행한 계교가 얼룩무늬와 점이 있고 또 아롱진 것들이 급속히 많아지게 한 방법이 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35 절에 기록된 일에 대해 NIV 연구성경의 각주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점과 색이 있는 모든 종류의 일상적이지 않은 짐승을 제거하거나 그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만일 그렇다면 야곱이 요구한 것은 앞으로 태어날 것에만 대한 것이 된다. 내가 35 절을 읽을 때에 나는 이 절이 그러한 의미를 암시하지 않는다고 본다. 한편 라반이 이렇게 마음껏 수를 쓰는 모습이 내게는 전혀 놀랍지 않게 여겨진다.

#### 개역개정 30:37-43

<sup>37</sup>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평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sup>38</sup>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 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 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배니 <sup>39</sup>가지 앞에서 새끼를 배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sup>40</sup>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sup>41</sup>튼튼한 양이 새끼 났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 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배게 하고 <sup>42</sup>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sup>43</sup>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 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30:37-43**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심에 있어서 족장의 가족이 하나님을 도와서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러한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즉, 나무에 있는 어떤 화학적 성분) 아닌지는 신학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속이는 자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따랐다. 야웨의 약속은 야곱의 행동에 의존적인가?

**30:43** 야곱의 떼와 무리는 여러 해에 걸쳐 그 수가 커졌다(아마도 요구된 14년 보다 6년이 더 늘어난 기간, 참조, 31:41).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하나님께서는 왜 라반과 같이 계교를 꾸미는 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인 야곱을 자기 마음대로 대하도록 허락하셨는가?
2. 야곱은 다중혼을 하기 원했는가?
3.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과 그 이름이 각기 가진 어원적 의미에 대해 말하라.

# 창세기 31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야곱이 비밀히 가나안을 향해 떠나다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치다	야곱이 하란에서 거둔 성공 (29:1-31:55)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도망치다	야곱의 도망
31:1-16	31:1-16	31:1-9	31:1-3 31:4-9	31:1-13
		31:10-16	31:10-13 31:14-16	31:14-16
31:17-21	31:17-21	31:17-18	31:17-21	31:17-21
라반이 야곱을 뒤쫓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다	31:19-21	라반이 야곱을 뒤쫓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다
31:22-24	31:22-24	31:22-24	31:22-25	31:22-25
31:25-32	31:25-32	31:25-32	31:26-30 31:31-32	31:26-30 31:31-35
31:33-35	31:33-35	31:33-35	31:33-35	
31:36-42	31:36-42	31:36-42	31:36-42	31:36-42
미스바에서의 언약	야곱과 맺은 라반의 언약		야곱과 라반의 동의	야곱과 라반의 조약 (31:43-32:3)
31:43-55	31:43-50 31:51-55	31:43-50 31:51-54	31:43-44 31:45-55	31:43-44 31:45-55
		31:55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31:1-16

<sup>1</sup>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sup>2</sup>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sup>3</sup>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sup>4</sup>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 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sup>5</sup>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sup>6</sup>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sup>7</sup>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삷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sup>8</sup>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샅이 되리라 하면 온 양 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샅이 되리라 하면 온 양 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sup>9</sup>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sup>10</sup>그 양 떼가 새끼 뱌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 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sup>11</sup>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sup>12</sup>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 보라 양 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sup>13</sup>나는 벨엘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sup>14</sup>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sup>15</sup>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sup>16</sup>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31:1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그의 아들들이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스스로 양떼를 돌볼 수 있는 만큼 컸다(참조, 30:35). 창 30 장 이후로 여러 해가 지났음이 틀림없다. 그들이 자기들이 집에서 들은 내용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말을 공개적으로도 하였는데 그 말을 야곱이 듣게 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그들이 하는 비난의 내용을 이해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참조, 30:30). 야곱이 오기 전에는 라반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다. 야웨께서 야곱과 함께 계셨다; 라반이 누린 축복은 이러한 관련을 인한 것이었다.

▣ “재물” 이것은 문자적으로 “영광”(BDB 459, 참조, KJV)이다. “영광”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무거움” 혹은 “무게”를 뜻한다. 이것은 또한 “영예”를 뜻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 단어는 “물질적 풍요”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NKJV).

31:2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라반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비록 그가 야곱을 거칠게 대하였어도 항상 그에게 미소를 띠우며 말했었는데, 지금은 안색을 바꾸어 말하고 있다.

31:3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웨께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지금이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알려 주셨다(“돌아가라,” BDB 996, KB 1427, **칼 명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벤엘의 사건을 그에게 상기시키셨다. 그 일은 20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참조, 창 28:10-22, 특히 15 절).

31:4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 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라헬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데 이는 그녀가 사랑을 더 받는 아내였기 때문이다. 그들을 은밀히 들로 불러 내어 비밀스런 만남을 가졌다. 야곱이 자기 아내들과 더불어 이 일을 이전에 논의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31:5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이것은 창 31 장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이다. 이것은 여러 세대에 걸친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역사적인 연속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31:6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의 아내들은 야곱이 자기들의 아버지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힘든 노동 조건에서 고생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14 년간 두 아내를 위해서 일했고 자기 자신의 짐승 떼를 갖기 위해 6 년을 더 일했다.

31:7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삷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속여”라는 용어(BDB 1068, KB 1739, **히필 완료형**)는 “조롱하다” “속이다” 혹은 “우습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어근에서 왔다.

“변경하였다”라는 용어(BDB 322, KB 321)는 41 절에서도 암시되고 있다. 라반이 어떻게 그의 품삷을 속였는가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문맥에서 볼 때 야곱이 자기의 몫으로 생각했던 새끼와 짐승의 떼가 더 많은 새끼를 낳을 때 라반은 그 가운데 어떤 종류의 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가져갔음이 분명하다. 그는 항상 규정을 바꾸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진 남아 있는 떼가 얼룩이 있는 것이든 혹은 점이 나 줄이 있는 것이든 그것에 복을 주셨다(참조, 8 절).

▣ “열 번이나” 이것은 정확히 열 번이 아니라 과정법적인 숫자일 것이다(서구의 문자주의적 해석방법을 조심하라).

▣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위치를 깨달았다. 그것은 25:23 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뿐 아니라 28:10-22 에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말씀은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일을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라반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참조, 29 절).

31:8 이 절은 라반이 어떻게 그들이 서로 동의한 일을 바꾸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그가 수시로 그 계약 조건을 바꾸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염소와 양이 새끼를 배는 습관을 바꾸셔서 야곱에게 유리하게 되게 하셨다(참조, 9 절).

31:9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이 **히필형**은 “남아 채다”라는 뜻을 갖는 매우 강한 뜻의 동사(BDB 664, KB 717, **히필 미완료형**)이다, 참조, 9 절과 16 절. 이 단어는 공격해오는 들짐승으로부터 먹이감이 된 짐승을 구해내는 것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삼상 17:34-35; 겔 34:10; 암 3:12). 야곱이 정당히 받아야 할 품삷을 라반이 빼앗아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짐승 떼를 빼앗아 이를 야곱에게 주셨다. 이렇게 그에게 전해 주신 과정에 대한 설명이 12 절에 나온다.

31:10 “그 양 떼가 새끼 벨 때에” 이것은 야곱이 자신에게 속하게 되는 짐승에 대하여 본 환상의 연속이다. 이것은 야곱이 사용한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수가 아니라(즉, 30:37-43),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뿔이 되는 때가 번성하게 하셨다(참조, 9 절, 특히 12 절).

31:11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금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을 나타낸다(즉, 창 16:7-13; 18:1; 19:1; 21:17,19; 22:11-15; 31:11,13; 32:24,30; 48:15,16; 출 3:2,4; 13:21; 14:19; 사 6:12,14; 숙 3:1-2). 그는 야웨를 위해 말씀한다. 12:7의 특별주제를 보라.

31:13 “나는 벤엘의 하나님이라” 이것은 창 28:10-22에 기록된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비전을 가리킨다. 야곱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참조, 5 절)은 새 명령을 하신다.

1. “일어나,” BDB 877, KB 1086, **칼 명령**
2. “떠나서”(문자적으로, “가라”), BDB 422, KB 425, **칼 명령**
3. “돌아가라,” BDB 996, KB 1427, **칼 명령**

31:14 야곱의 아내들은 전폭적으로 그의 편이었다!

31:15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라반의 두 딸이 당시에 문화적으로 기대되는 기준(후리 족속의 문화)에 비추어 볼 때 자기들의 아버지가 신실하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후리 족속의 자료에서 “모할” 또는 “아내가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것의 일부는 딸들을 위해 남겨 놓아야 했다. 한편, 라반은 야곱의 품삷을 받아 그 전체를 자기가 가졌다. 15 절은 그 딸들이 라반이 행한 이러한 탐욕과 형제를 저버린 사실을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다 먹어버렸으니”라는 표현은 같은 어근(BDB 37, KB 46)에서 온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이 함께 사용되어 강조를 나타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

#### 개역개정 31:17-21

<sup>17</sup>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sup>18</sup>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밭단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sup>19</sup>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sup>20</sup>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sup>21</sup>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1:17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서둘러서 도망가야 했으나 그의 가족들이 너무 어렸기에, 낙타에 태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여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31:18 “모은 가축을 이끌고” “이끌다”라는 용어(BDB 624, KB 675)는 가축을 급히 모는 것을 나타낸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분명히 저녁과 밤 시간에 여행했다.

31:19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양털을 깎는 시기에는 큰 축제가 있었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였다(참조, 창 38:12; 삼상 25:4; 삼하 13:23). 야곱이 빠져있는 점은 특별해 보인다. 아마도 그들과의 어긋난 관계를 나타낸다.

▣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가족의 우상”을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는 *드라빔* (BDB 1076)이다. 이러한 가족의 우상은 매우 크거나(참조, 삼상 19:13) 라헬이 낙타의 안장에 넣을만큼 작았다(참조, 34 절). 우리는 누지 서판에서 이러한 가족의 우상이 상속권에 대한 증표임을 알게 된다. 따라서 라헬이 그것을 훔친 것은 그녀의 상속권에 대해 라반이 불법적으로 행하였음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또는 나중에 그녀의 아들이 야곱의 재산을 상속함을 주장하기 위한 상징으로서 그녀가 취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 라반이 점을 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녀가 그 우상들을 훔쳤다고 설명한다(즉, 라쉬, 참조, 30:27). 이 **드라빔**들은 점을 치는 일에 사용되었다(참조, 슄 10:2). 그것들은 종종 “에봇”과 관련되어 나타난다(참조, 사 17:5; 18:14-20; 호 3:4). 그것들은 우상숭배적인 물건이라고 삼상 15:23 에서 정죄 되었다.

**특별주제: 드라빔**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 종합적인 설명을 취하기는 쉽지 않다:

1. 가족의 우상으로서 작고 소지할 수 있는 것, 창 31:19,34,35
2. 사람의 크기만큼 큰 우상, 삼상 19:13,16
3. 가정과 성소에서 사용된 우상들, 삿 17:5; 18:14,17,18
4. 미래에 대해 알거나 신/신들의 뜻을 알기 위해 사용된 우상들
  - ㄱ. 점치는 것과 평행을 이루는 일로서 금지됨, 삼상 15:23
  - ㄴ. 영매, 귀신 들린 자, 우상과 평행을 이루는 일로서 금지됨, 왕하 23:24
  - ㄷ. 점치는 일, 화살을 흔드는 일, 양의 간을 살피는 행위와 평행을 이루는 일로서 금지됨, 겔 21:21
  - ㄹ. 점치는 자 및 거짓 선지자와 평행을 이루는 일로서 금지됨, 슄 10:2

31:20

NASB, TEV,  
NRSV, NIV,  
페쉬타  
NKJV  
RSV, NJB  
REB  
JPSOA  
70 인역

“야곱이 속이니라”  
“훔치니라”  
“선수를 치니라”  
“속이니라”  
“어둠 속에 숨으니라”  
“그 사실을 감추니라”

라헬이 가족의 드라빔을 “훔쳤듯이” 야곱도 라반의 마음을 “늑쇄 했다”(stole the heart, BDB 170, KB 198, **칼미완료형**). 이 표현은 속임을 나타내는 관용어임이 분명하다.

▣ “아람 사람 라반에게” “아람 사람”(BDB 74)이라는 용어는 “시리아 사람”을 가리킨다. 라반과 야곱(신 26:5 에서)이 아람 사람으로 불리는 이유는 잘 모른다. 창 10 장에 있는 족보에서 그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족속이었는데 후에 상호 간의 결혼을 통해 함께 또는 아브라함이 원래 유랑했던 지역의 명칭(즉, 하란)을 따라서 불리게 되었을 것이다.

**개역개정 31:22-24**

<sup>22</sup>삼 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sup>23</sup>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칠 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sup>24</sup>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31:22 “삼 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우리는 창 30:36 에서 라반의 떼와 야곱의 떼가 삼 일의 거리를 두었음을 안다. 따라서 어떤 종이 야곱이 떠나는 것을 보고 즉시 라반에게 가서 알렸을 것이다(BDB 616, KB 665, **호팔미완료형**).

31:23 “길르앗 산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만큼의 거리를 여행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한편, 우리는 10 일 동안 힘껏 달려왔음을 안다. 그 거리가 정확히 얼마나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 400~560 킬로미터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1) 야곱의 때가 시리아의 어떤 지점에 있었는지를 모르며 (2) 길르앗의 동편 경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반은 무장한 대규모의 파견대를 이끌고 왔다(참조, 29 절). “급히 추격했다”(BDB 196, KB 223, 칼 완료형)라고 36 절에서 그의 추격에 대해 말한다.

31:24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것(“너는 삼가 야곱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어떤 말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은 “그를 완전히 놓아 두라”를 의미하는 히브리 관용법이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분명히 나타나 족장의 가족을 어려움에서 계속적으로 건져주시고 계심을 알 수 있다.

#### 개역개정 31:25-32

<sup>25</sup>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sup>26</sup>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sup>27</sup>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sup>28</sup>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sup>29</sup>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sup>30</sup>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sup>31</sup>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sup>32</sup>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31:25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이것은 야곱이 텐트를 친 것에 대한 최초의 언급으로서, 그가 쉬지 않고 이동을 강행했음을 나타낸다. 야곱은 이제 그들로부터 많이 떨어진 곳에 있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31:26-30 나는 사람을 마음껏 이용해 먹는 자인 라반이 야곱에 대해 정직하지 않은 비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을 해석한다. 그가 비난한 많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라반은 자신의 말을 듣고 있으며 이 일에 대해 궁극적으로 재판장 역할을 할 자기(또한 야곱)의 친척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을 진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31:27 라반은 야곱을 위해 잔치를 베풀려 했다고 말한다. 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위해 베푼 마지막 잔치를 기억하고 있었다(즉, 레아와의 결혼식 밤)! 그는 자기의 장인이 배설하는 어떤 잔치도 더 이상 원하지 않았다.

31:28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 용어(BDB 698, KB 754, *히필 완료형*)는 성경에서는 매우 드물게 죄나 잘못을 행하는 일과 관련이 되어 사용되었다(참조, 삼상 13:13에서는 사울과 관련하여, 삼하 24:10에서는 다윗과 관련하여).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일을 그 성격상 범죄로 여겨 비난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31:29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으나”(BDB 42)라는 표현은 어원적으로 *엘*(BDB 42) 혹은 *엘로힘*(BDB 43)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엘*이란 단어의 기본적 어원이 “강하다”를 뜻함을 암시해주는 유일한 절이다. 하나님께서는

꿈에 라반에게 경고를 주셨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바로(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재앙과 어떤 추가적 계시를 통해, 참조, 12:17)에게 또한 아비멜렉(참조, 20:3)에게 주셨던 경고와 같은 맥락이다. 야웨께서는 언약의 가족이 위협에 처하고/공격받지 않도록 지켜 보시며 돌보신다.

**31:30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이 절에서 라반이 한 말에는 두 가지의 강조적 문형이 사용되었다.

1. “돌아가려는 것,” 같은 히브리 어근(BDB 229, KB 246, “가다”)의 **부정사 절대형과 완료형**

2. “사모하여,” 같은 히브리 어근(BDB 493, KB 490)의 **부정사 절대형과 완료형**

“사모하여”(BDB 493)라는 용어는 “창백해지다”라는 히브리 어근에서 왔다. 이 단어는 종종 급속인 은(BDB 494)을 나타내는 단어였다. 이것은 매우 강하게 “원하다”를 뜻한다. 라반이 야곱을 비난함에 있어서 자신이 그를 이용해 먹고 속이고 나쁜 수를 쓰고 나쁜 태도로 대해서 떠나게 한 참 이유가 아니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떠난 것이라고 그를 비난하고 있다.

▣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것은 31:19 을 가리킨다. 이것은 분명히 유산과 번영을 약속하는 미신과 관련이 있는 가족의 우상들이었다. 야곱이 떠나는 일을 라반이 번영의 손실로 보았으며, 이 가족의 우상들(즉, *드라빔*)이 없어진 일을 이것들로부터 받는 영적 안내와 유산의 손실로 이해했음이 분명하다.

**31:31-32** 야곱은 27 절에 있는 라반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지 30 절 후반절에 있는 그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몰랐다(19 절).

**31:32** 야곱은 라헬이 이 우상들을 훔친 것을 몰랐음이 분명하다. 32 절은 성전이나 개인의 가족이 섬기는 우상을 훔치는 것에 대해 다룬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랍비들은(참조, *Gen. Rab.* 74.4)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일(창 35:16-18 에 기록됨)은 이 절에서 야곱이 한 말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분명히 법적 진술(즉, “내 친족 앞에서”)이다. 두 **명령형**이 사용되었다.

1. 발견되거든(문자적으로는 “검사하다,” 참조, 37:32; 38:25), BDB 647 I, KB 699, *히필* 명령

2. 가져가소서(“당신에게로 그것을 되돌리소서”라는 의미임), BDB 542, KB 534, *칼* 명령

**개역개정 31:33-35**

<sup>33</sup>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sup>34</sup>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sup>35</sup>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31:33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이것은 여자들이 서로 다른 장막에 거하였음을 말함으로써 이 기록의 역사성을 드러낸다.

**31:34 “낙타 안장”** 이 용어(BDB 468)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아마도 이것은 안장에 있는 주머니나 안장에 연결된 가방을 뜻할 것이다(TEV, REB).

▣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다가”는 “손으로 주의깊게 느끼다”(BDB 606, KB 653, *피엘 미완료형*)를 뜻한다. 이것은 소경이 어둠 속에서 더듬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종종 사용되었다(참조, 신 28:29; 욥 5:14; 12:25).

31:35 “마침 생리가 있어” 이것은 그녀의 월경에 대한 말이다(BDB 202 와 BDB 61 이 함께 사용됨). 레 15:19 에서 볼 때 이것과 관련하여 어떤 문화적 금기사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레위기에 기록된 이러한 법을 얼마만큼 라반과 야곱이 살았던 시대의 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할 것이가에 대하여는 불확실한 점이 있다. 하지만 그가 라헬에게 일어나라고 요구하지 않은 점은 이러한 연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공한다.

**개역개정 31:36-42**

<sup>36</sup>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sup>37</sup>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sup>38</sup>내가 이 이십 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 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sup>39</sup>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sup>40</sup>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sup>41</sup>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이십 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십사 년, 외삼촌의 양 떼를 위하여 육 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셨으며 <sup>42</sup>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31:36 “야곱이 노하여” 이 동사(BDB 354, KB 351, *칼 미완료형*)는 “태우다”라는 뜻을 가지며, 사람이 화내는 것을 나타낸다(참조, 4:5,6; 30:2; 34:7; 39:19).

▣ “라반을 책망할새” 이 동사(BDB 936, KB 1224, *칼 미완료형*)는 법적 의미를 가진다(참조, 37 절). 라반이 친척들 앞에서 야곱을 정죄했는데 이제는 야곱이 수사적인 질문을 사용하여 반격하고 있다.

-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1.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36 절)
  2.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36 절)
  3.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37 절)

실제로 유목민 사회의 법정은 친척들로 구성 되었다. 그들이 갈등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37 절).

31:38-42 야곱은 자신의 목양적 기술과 부지런함에 대해 변론했다(친지들 앞에서).

1.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2.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3.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다

이 모든 내용은 함무라비 법전(제 266 문단)에 기록된 당시의 문화와 정확히 일치한다.

31:42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이삭이 경외하는 이”라는 표현은 이 장에서 매우 독특하게 나온 내용으로서 두 번(참조, 53 절) 사용되었다. 이것은 이삭이 존경하고 경외한 하나님을 가리킬 것이다. 미국의 고고학 학자인 알브라이트는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동족어군(아랍어, 아랍어, 우가릿어)에서 “친족”과 관련이 있는 말로서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것은 불확실한 설명이다.

▣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야곱은 라반의 탐욕스러움도 알고 있었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알고 있었다. 이것은 42 절의 뒷부분에 나타난다. 즉 야곱은 24 절과 29 절에서 말한 라반의 꿈에 대한 암시를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판결을 내리셨다!

**개역개정 31:43-55**

<sup>43</sup>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 떼는 내 양 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sup>44</sup>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sup>45</sup>이에 야곱이 들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sup>46</sup>또 그 형제들에게 들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들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sup>47</sup>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sup>48</sup>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sup>49</sup>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sup>50</sup>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sup>51</sup>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sup>52</sup>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sup>53</sup>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sup>54</sup>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sup>55</sup>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31:43 라반이 야곱의 비난에 대해 답하려 한다.

31:44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반이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였을 때 기둥을 세우고(45 절[28:18 을 보라], 비록 라반이 51 절에서 이것을 했다고 말하지만) 친척들의 무리를 주위로 불러 모은 사람은 바로 야곱이었다(46 절). 그곳에서 그들은 언약의 음식을 먹었다. 음식은 구약에서 종종 언약을 맺는 일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이 절에서 사용된 문법적인 면은 다음과 같다.

1. “오라,” BDB 229, KB 246, **칼 명령**
2. “나와 네가 언약을 맺자,” BDB 503, KB 500, **칼 청유형**, (문자적으로는, “자르다,” 13: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3. “증거를 삼자,” BDB 224, KB 243, **칼 완료형**, 불침략의 영원한 증거를 뜻함(참조, 52 절)

31:37 여기에 두 이름이 나온다. 처음 이름은 아랍어(BDB 1094 와 BDB 1113 의 **합성**)이고 두 번째 이름은 히브리어(BDB 165)이다. 두 이름은 서로 평행을 이루며 돌의 무더기를 가리킨다. 야곱은 그 장소를 “길르앗”(BDB 165, “증거의 무더기”)으로 불렀는데 그곳은 그들이 진친 곳과 관련을 가진다(즉, “길르앗,” BDB 166, “돌의 원” 혹은 “산들의 원”).

족장들이 사용한 언어가 아랍어였는가 아니면 히브리어였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아랍어를 사용했으나 가나안으로 이주해 오면서 아랍어의 한 방언에 속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옛날로 돌아가 이 언어들을 이해하게 한다.

**31:49 “미스바”** 49 절에 나오는 “미스바”라는 용어(BDB 859)도 히브리어로서 “망대”를 뜻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직접적으로 서 계심(BDB 859, KB 1044, **칼 지시형**, 어근이 미스바와 관련됨)을 나타낸다. 라반이 실제로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의 친척들 앞에서 야곱에게 지운 모든 규정(완전히 맞지않는 것으로 보이는)으로서 야곱을 맹렬히 비난하고자 한 점이 나에게 흥미롭게 여겨진다. 다른 여자들과의 결혼을 금지한 것도 이러한 의도를 나타내는 예이다. 31 절에서 보듯이 레아와 라헬을 진정으로 위한 사람은 라반이 아니라 바로 야곱이었다.

**31:53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이곳에 사용된 동사는 **복수형**(BDB 1047, KB 1622,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복수형**)으로서 라반이 다신론적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0 인역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맞소리 본문을 따르지 않고 있다(**단수형 동사**로 되어 있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야웨를 믿는 자가 되었지만 나홀은 그렇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부분은 가족이 섬기는 여러 우상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곱은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인 야웨(“이삭이 경외하는 이”)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음을 주목하라.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이 장에서는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으로서 제시되는가?
2. 라반이 야곱에게 부당하게 행한 일을 열거하라.
3. 야곱이 진실되게 행한 내용을 열거하라.
4. *드라빔*(19 절)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5. 라반이 26-30 절에서 한 비난의 내용을 열거하라. 또 그의 말이 진실이었는지 아니면 거짓된 말이었는지를 설명하라.
6. 라헬은 왜 라반이 섬기는 가족의 우상들을 흠꼴는가?

## 창 32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 함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다	야곱이 에서와 화해함 (31:1-33:20)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다	야곱이 에서와 만나는 일을 위해 준비하다
32:1-2	32:1-8	32:1-2	32:1-2	
32:3-5		32:3-5	32:3-5	32:4-7
32:6-8		32:6-8	32:6-8	32:8-14a
32:9-12	32:9-12	32:9-12	32:9-12	
32:13-21	32:13-21	32:13-21	32:13-21	32:14b-22
	하나님과 씨름함		야곱이 브니엘에서 씨름하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
32:22-23	32:22-32	32:22-32	32:22-24a	32:23-25a
야곱이 씨름하다				
32:24-32			32:24b-26a	32:25b-30
			32:26b	
			32:27a	
			32:27b	
			32:28	
			32:29a	
			32:29b	
			32:30-32	
				32:31-32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32:1-2

<sup>1</sup>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sup>2</sup>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 32:1

NASB, NKJV,

NRSV, TEV “만나다”

NJB, JPSOA “조우하다”

이 동사(BDB 803, KB 910, **칼미완료형**)는 우연히 조우함을 나타낸다(참조, NIDOTTE, 제 3 권 575 쪽, 예, 출 23:4; 민 35:19,21; 수 2:16; 삼상 10:5; 암 5:19).

이 간략하면서도 애매모호한 절이 어떻게 22-32 절에 나오는 씨름하는 자와 어떤 관련을 갖는지가 궁금하다. 그 씨름하는 자는 천사 혹은 영적 존재(야웨께로부터 온)로서 야곱을 축복하고 또 그의 이름을 바꾸게 하기 위하여 어떤 능력을 가진 자였음이 분명하다. 문제는 다음의 사실에 있다

1. 이 절이 애매모호하게 시작되는 점
2. 그 씨름하는 자가 신체적으로 오래 끈 경기에서 야곱을 이길 수 없었던 점

▣ “하나님의 사자들” 그가 가나안을 떠날 때(참조, 28:12) 천사들을 보았고, 지금 돌아오는 길에서 그들이 나타남을 다시 보고 있다(참조, 왕하 6:16-17; 시 34:7).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을 나타내었다. 이 일은 창 28 장에서 자신이 말한 조건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상기시켰을 것이다. 이 장은 두려움과 신뢰가 겹쳐서 나온다. 야곱은 이 두 가지 제시에 만족했다!

▣ “만난지라” 이 동사(BDB 803, KB 910, **칼미완료형**)는 “만남” 혹은 “조우함”을 나타낸다. 앵커 성경 주석(254 쪽)은 이 천사들을 24-32 절에 나오는 자와 연결시킨다. 이러한 이해는 독자로 하여금 이 장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되고 그러한 만남으로 마쳐짐을 보게 할 것이다.

32:2 “하나님의 군대” “진”(BDB 334)이라는 용어는 여행에서 장막을 치는 장소나 쉬는 장소를 뜻한다. 이것은 무장한 군대의 진지(참조, 수 6:11,14; 삼상 4:3,6,7; 17:53; 왕하 7:16) 혹은 군대(참조, 출 14:24)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만군”으로 번역된 군사적 용어 가운데 하나이다.

▣ “마하나임”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두 장막” 혹은 “두 무리”(BDB 334, 둘을 나타내는 형태)이다. 이 두 장막은 다음을 뜻할 것이다



1. 라반과 야곱
2. 천사들과 야곱
3. 에서와 야곱
4. 나누어진 야곱의 가족

직접적인 문맥상 2 항의 설명이 가장 적합하다. 큰 문맥에서 볼 때는 4 항이 맞는데, 야곱이 가진 바 자기 자신의 지략을 신뢰하려는 경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개역개정 32:3-5**

<sup>3</sup>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sup>4</sup>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sup>5</sup>내게 소와 나귀와 양 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32:3 “사자들”** 이것은 히브리어(BDB 521)와 헬라어에서 “전령들”(같은 어근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으로 사용됨)이란 뜻을 가지며 “천사들”을 가리킨다. 랍비들은 그가 자신에 앞서서 에서를 만나도록 천사들을 보냈다고 말한다. 1 절에서 “천사들”로 번역된 히브리어와 3 절 및 6 절에서 “사자들”로 번역된 단어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다.

**32:4 “내 주 에서”** 여기서 야곱의 사자는 에서에게 “주”라는 존칭(아돈)을 사용하고 있다.

▣ **“주의 종”** 이 사자들은 에서를 “주”(BDB 10)라고 일컬으며 야곱을 “종” 혹은 “노예”(BDB 713)로 일컫는다. 야곱은 아직까지 에서가 원한을 갖고 있을 것을 인해(그가 창 27 장에서 가족의 축복을 훔친 일을 인해) 두려워하고 있었다(참조, 7,11 절).

**32:5** 이 전언의 내용은 이중의 목적을 담고 있었다.

1. 야곱이 번창하게 되었다
2. 그가 에서에게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선물로서 드리기를 원한다(참조, 13-21 절)

**개역개정 32:6-8**

<sup>6</sup>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sup>7</sup>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sup>8</sup>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32:6 “그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여기서 야곱이 전한 말에 대답하지 않았고 사백 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이 일은 참으로 야곱을 두렵게 했다(참조, 7 절).

**32:7**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가진 정서적 반응을 보라.

1. “심히 두렵고”
  - ㄱ. 두려워, BDB 431, KB 432, **칼 미완료형**, 참조, 3:10; 18:15; 43:18
  - ㄴ. 심히, **부사**, BDB 547
2. “답답하여” BDB 864 I, KB 1058, **칼 미완료형**,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다”를 뜻한다, 참조, 욥 20:22; 사 49:19, 하지만 이 단어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어 “답답한 심령”(즉, 낙담함)을 가리킨다, 참조, 삿 2:15; 10:19; 삼하 13:2

**32:7-8** 야곱은 가장 악한 경우를 위해 계획을 세웠다. 1 절의 문맥에서 볼 때 이 일은 믿음의 적음을

다시금 나타낸다. 그는 9-12 절에서 기도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주관하려는 시도를 했다.

**개역개정 32:9-12**  
<sup>9</sup>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sup>10</sup>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sup>11</sup>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sup>12</sup>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32:9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러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주목하라.

1.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엘로헤이, BDB 43)
2.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위의 것과 같음)
3. “여호와여”(야웨, BDB 217)

12:1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이 모든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며(참조, 12:1; 28:3-4) 28:13-17에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낸다.

▣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이것은 31:13,29 및 궁극적으로 28:15을 가리키는 말이다.

1. “돌아가라,” BDB 996, KB 1427, 칼 명령, 참조, 31:13
2. “내가 너로 창대케 하리라,” BDB 405, KB 408, 히필 청유형, 참조, 10,13 절; 28:14

32:10 “나는 ...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것은 야곱을 받아주신 중요한 일을 가리킨다(BDB 881, KB 1092, 칼 완료형, 이것은 자격이 없음을 나타낸다, 참조, 삼하 7:19; 대상 17:17). 강조점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공급하심에 있는 말이다!

▣	
NASB	“은총”
NKJV	“자비하심”
NRSV, REB	“건고한 사랑”
TEV	“친절하심”
NJB	“신실하신 사랑”
70 인역	“정의” 혹은 “의”
페쉬타	“호의”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헤세드*(BDB 338 I)로서 언약에 기초한 충실함을 나타낸다. 19:19의 특별주제를 보라.

▣	
NASB, NRSV, TEV	“신실함”
NRSV, 70 인역, 페쉬타	“진리”
NJB	“불변함”
REB	“진실한”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에뻬트*(BDB 54)으로서 충실함을 나타낸다. 구약에서 *헤세드*와 *에뻬트*가 종종 함께 사용되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묘사한다. 15:6의 특별주제를 보라.

32:11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 용어(BDB 664, KB 717, *히필 명령*)는 *히필형*에서 “남아채다” 혹은 은유적 표현으로서 “건져내다”를 뜻한다.

▣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공격하다”(BDB 645, KB 697, *히필 완료형*)라는 용어는 *히필형*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무리 전체에게 주다라는 뜻을 가진다(참조, 34:30). 야곱은 에서가 자기 가족의 모든 상속자들을 죽일까 봐 두려워했다.

32:12 야곱은 하나님께서 28:14 과 22:17 에서 주신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있다. 이것은 족장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약속으로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내용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한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요약된다.

▣ “많게 하리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내가 너에게 좋게 해주겠다”를 뜻한다. 이 구는 같은 어근(BDB 405, KB 408)을 갖는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이 함께 사용된 경우로서 강조를 나타낸다.

개역개정 32:13-21

<sup>13</sup>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sup>14</sup>암염소가 이백이요 숫염소가 이십이요 암양이 이백이요 숫양이 이십이요 <sup>15</sup>젓 나는 낙타 삼십과 그 새끼요 암소가 사십이요 황소가 열이요 암나귀가 이십이요 그 새끼 나귀가 열이라 <sup>16</sup>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sup>17</sup>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물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sup>18</sup>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sup>19</sup>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sup>20</sup>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sup>21</sup>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32:20

NASB, NKJV,

NRSV, REB, 폐쉬타 “내가 그를 달랠 것이다”

TEV “내가 그를 내편으로 만들 것이다”

NJB “내가 그를 회유할 것이다”

JPSOA, 70 인역 “내가 그를 진정시킬 것이다”

이 동사(BDB 497, KB 493, *피엘 청유형*)는 피를 깨끗게하는 제사를 나타내는 동사이다(참조, 레위기 4 장과 16 장). 이것의 기본적 의미는 “덜다” 혹은 “속죄하다”이다.

▣

NASB, NKJV,

NRSV, 70 인역 “나를 받아 주리라”

TEV “나를 용서하리라”

NJB “나에게 친근히 하리라”

JPSOA “내게 호의를 베풀리라”

REB “나를 친절하게 맞이하리라”

이 동사(BDB 669, KB 724, *칼 미완료형*)는 “올리다”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얼굴을 들어 올리다”를 뜻하는 히브리 관용어이다(참조, 욕 42:8,9; 시 82:2; 잠 18:5; 애 4:16). 이 단어는 법정에서 재판관이 고소받은 자의 얼굴을 들게 하고 그를 편듬으로써 자신을 위태하게 함을 나타낸다.

개역개정 32:22-32

<sup>22</sup>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압복 나무를 건널새 <sup>23</sup>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sup>24</sup>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sup>25</sup>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sup>26</sup>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sup>27</sup>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sup>28</sup>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sup>29</sup>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sup>30</sup>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sup>31</sup>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sup>32</sup>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32:22 “압복 나무를 건널새” “건너다”라는 히브리어의 어근(BDB 716, KB 778, *칼 미완료형*)은 “나루”(BDB 721, 참조, 수 2:7; 사 3:28; 사 16:2)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는다. 이 단어는 낮은 지점에서 물을 헤치며 건너감을 뜻한다.

▣ “압복” 이 단어의 어근은 “흐르는”(BDB 132)이다. 이곳에서 매우 깊은 협곡을 건널 수 있었다.

32:24 “어떤 사람이 . . . 씨름하다가” 여기의 “씨름하다”(BDB 7, KB 9, *니팔 미완료형*), “압복”(BDB 132)은 “야곱”(BDB 784)과 더불어 비슷한 발음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그 남자는 어떤 “사람”(BDB 35, *이스*, 참조, 6 절)으로 불리지만, 문맥에서는 그를 사람의 육체의 모습을 갖고 현현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참조, 28,30 절; 18:1-2). 한편, 26 절은 그가 천사와 같은 존재임을 나타낸다.

이 부분은 서구의 문자주의적 해석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것은 육체적 면과 상징적 면을 가졌다. 이 씨름은 야곱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본문은 “씨름하기”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야웨께서는 야곱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다(참조, 28:10-22; 32:22-31; 35:9-13; 46:2-4). 각 경우에 있어서 그 일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강조하여 말한다. 핵심이 되는 것은 야곱(또는 그의 행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주신 약속에 있다!

32:25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유대인의 연구성경(67 쪽)은 흥미로운 유대인의 전통을 소개한다(Gen. Rab. 77.3). 즉 그가 에서를 지키는 천사였고 이러한 조우는 언약의 백성을 적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왜 천사적 존재가 단지 인간에 지나지 않는 자를 이길 수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에서의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꿀 수 있었겠는가?! 이 사건은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일”을 나타낸다.

▣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랍비들은 이것이 허벅지에 있는 정맥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유대교에서는 동물의 사체에서 이 부분을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참조, 32 절).

32:26 “날이 새려하니” 하루 중 이 시간대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참조, NIDOTTE, 제 4 권 85 쪽). 이 시간은 고대의 민속에서 종종 언급되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참조, 16:13; 32:30; 출 33:20), 이 새벽에는 야곱의 상대방이 신적 존재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것이다.

▣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야곱이 이러한 상을 받게 된 것은 그의 씨름 실력을 인하여서가 아니라 그가 불굴의 자세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32:27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그 천사/함께 씨름한 신적 상대자가 그것을 몰라서 한 말이 아니라, 야곱에게 그의 교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남을 이용하려는 성품을 상기시키기 위한 말이었다.

32:28 “이스라엘” 이름을 바꾼 이 일은 전체 이야기를 해석함에 있어서 열쇠가 된다. 이스라엘은 “엘께서 보전하시기를 바랍니다”(BDB 975) 또는 **지시형**으로서 “엘께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참조, 호 12:3-4)이다. 이것은 야곱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낸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이름은 또한 그의 성품을 나타내었다.

“이스라엘”(이스라엘, BDB 975)이라는 이름이 가진 가능한 의미는 “바른 사람”을 뜻하는 “예수룬”(“여수룬,” BDB 449, 참조, 신 32:15; 33:5,26; 사 44:2)이다.

### 특별주제: 이스라엘(이름)

#### I. 이름의 뜻이 불확실하다(BDB 975).

- 가. 엘이 끝까지 해내신다
- 나. 엘이 끝까지 해내십시오(지시형)
- 다. 엘이 보존하신다
- 라. 엘이 싸우십시오
- 마. 엘이다투신다
- 바. 하나님과 다투는 자(창 32:28)

#### II. 구약에서의 용법

- 가. 야곱의 이름(남의 자리를 빼앗는 사람, 뒤꿈치를 붙잡는 사람, BDB 784, 참조 창 25:26)은 그가 압박강 가에서 영적 인물과 씨름을 한 후에 바뀌었다(참조, 창 32:22-32; 출 32:13). 종종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어원적이기보다 소리에 의한 효과를 가진다(참조, 32:28). 이스라엘은 그의 이름이 되었다(예, 창 35:10; 32:13).
- 나. 이것은 야곱의 12 아들을 모두 일컫는 명칭이 되었다(예, 창 32:32; 49:16; 출 1:7; 4:22; 28:11; 신 3:18; 10:6).
- 다. 이것은 출애굽 이전(참조, 창 47:27; 출 4:22; 5:2)과 출애굽 이후(참조, 신 1:1; 18:6; 33:10)에 12 지파로 이루어진 국가를 나타내는 명칭이 되었다.
- 라. 사울, 다윗, 솔로몬의 통일왕국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 여러 지파들이 이 왕국을 세웠다(참조, 왕상 12 장).
  - 1. 공식적으로 나누워지기 이전에 이러한 구분이 시작되었다(예, 삼하 3:10; 5:5; 20:1; 24:9; 왕상 1:35; 4:20)
  - 2. 이 명칭은 앗시리아에 의해 사마리아가 주전 722년에 멸망할 때까지 북왕국에 속한 지파들에게 사용되었다(참조, 왕하 17 장).
- 마. 어떤 경우에는 유다에 대해 사용되었다(예, 사 1 장; 미 1:15-16).
- 바. 앗시리아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야곱의 후손을 가리키는 통칭적인 명칭으로 다시 사용되었다(예, 사 17:7,9; 렘 2:4; 50:17,19).
- 사. 제사장들과 구분되는 일반 백성을 일컫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대상 9:2; 스 10:25; 느 11:3).

▣ “네가 하나님과” 비록 야곱이 30 절에서 자신이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을 깨닫게 되지만, 이 씨름하는 자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2:29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고대 근동에서 어떤 신적 존재의 이름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이름으로 저주하고 맹세하고 의식을 행할 가능성을 인해 매우 신중한 태도로 임했다. 성경의 본문에서 이러한 점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참조, 삿 13:17-18). 성경의 본문에서 볼 때 야웨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자기 백성에게 드러내셨다(참조, 출 3:13-15). 한편, 그 이름의 뜻을 그들이 항상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출 6:3 과 창 4:26 을 비교하라). 삿 13:18 에서 언급하듯이 그 이름은 “인간이 이해하기에 너무 “놀라운” 것이었다.

**32:30 “브니엘”**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BDB 819)을 뜻한다. “브니엘”의 철자는 아마도 옛 지명의 또 다른 형태였을 것이다.

이 이름은 야곱이 자신의 상대를 야웨로 생각했음을 분명히 나타낸다. 그 분은 인간을 쉽게 이길 수 있는 분이심에도 자신이 야곱을 위해 기꺼이 일하시며 또 그의 편이 되시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축약되는 상황을 만드신다. 그 분은 야곱의 적이 아니라 현재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건은 진실로 출 4:24-26 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측면을 가진 이상스러운 고대의 기록이다. 이렇듯 모호한 본문에 기초하여 교리를 만들거나 어떤 적용을 찾는 것은 매우 지혜롭지 못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본문은 신비로 남아 있기에 이러한 본문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은 단순히 현대인의 추측에 불과한 일이다!

**32:31 “절었더라”** 그가 절은 것이 영구적(후기의 유대인 전통)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었는가는 확실하지 않다.

**32:32 “지금까지”** 이 구는 후기의 편집자에 대한 본문적 증거이다. 짐승의 이 부분을 먹지 않게 한 금지는 랍비들이 취한 것이지 성경에서 금한 내용이 아니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누가 그 씨름하는 자였는가?
  - ㄱ. 한 남자(참조, 24 절)
  - ㄴ. 한 천사(참조, 26 절, 호 12:3-4)
  - ㄷ.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참조, 30 절)
  - ㄹ. 예수님(마틴 루터, 저스틴의 견해를 따라서)
2. 1 절에 나오는 천사들은 이 장의 모든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3. 왜 이 만남의 사건(즉, 천사 및 에서와 만남)이 야곱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4. 왜 이름을 바꾸게 하셨는가?

# 창세기 33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야곱이 에서를 만나다	야곱과 에서가 만나다	야곱이 에서와 화해함 (32:1-33:20)	야곱이 에서를 만나다	에서와의 만남
33:1-3	33:1-3	33:1-3	33:1-5a	33:1-7
33:4-11	33:4-11	33:4-11	33:5b-7 33:8a 33:8b 33:9 33:10-11	33:8-11 야곱이 에서에게 일부를 주다
33:12-14	33:12-14	33:12-14	33:12 33:13-14	33:12-17
33:15-17	33:15-17	33:15-17	33:15a	
야곱이 세겔에 정착하다	야곱이 가나안에 오다		33:15b-17	야곱이 세겔에 도착하다
33:18-20	33:18-20	33:18-20	33:18-20	33:18-20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이 장은 대부분이 대화로 이루어졌다(TEV 역의 설명을 보라). “말하다”(BDB 55, KB 65)라는 용어가 열 번 사용되었다.  
이 대화의 형식은 여러 **명령어**/요구로 구성된다.
1. “네 소유는 네게 두라,” 9 절, BDB 224, KB 243, **칼 지시형**
  2.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11 절, BDB 542, KB 534, **칼 명령**
  3. “우리가 떠나자,” 12 절, BDB 652, KB 704, **칼 청유형**
  - 4-5 “가자”(2 회), 12 절, BDB 229, KB 246, **칼 청유형**
  6.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14 절, BDB 716, KB 778,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7.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14 절, BDB 624, KB 675, **히필 청유형**
  8.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15 절, BDB 426, KB 427, **히필 청유형**
  9.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15 절, BDB , KB , **칼 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됨**
- 나. 야곱이 그가 두려워 했던 일에 직면했다
1. 라반
  2. 싸우는 천사
  3. 에서
- 다. 야곱이 약속의 땅(가나안)으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벳엘에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따른 약속과 그의 씨에 대한 약속은 계속되고 있다(즉, 영원한 구속의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33:1-3

<sup>1</sup>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sup>2</sup>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sup>3</sup>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33:2** 가족 간에 나타나는 구별을 보라. 작은 부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앞서고 그가 사랑하는 자들(즉,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서 갔다. 야곱의 마음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에 앞서서 가고 있다(참조, 3 절). 그들이 죽게 되어 있다면 그가 가장 먼저 죽게 되었다. 그가 여전히 책략을 사용하고 있지만, 야웨의 임재하심과 약속하신 보호하심을 신뢰했다.

**33:3**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이 동사(BDB 1005, KB 295, **히스타펠 미완료형**)가 네 번 반복되어 나타난다.



1. 야곱이 에서에게 절을 했다, 3 절
2. 하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에서에게 절을 했다, 6 절
3. 레아와 그녀의 자녀들이 에서에게 절을 했다, 7 절
4. 라헬과 그녀의 아들이 에서에게 절을 했다, 7 절

▣ “일곱 번” 이것은 복종의 태도이다(즉, 엘 아마르나 서신, 주전 14 세기).

**개역개정 33:4-11**

<sup>4</sup>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sup>5</sup>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sup>6</sup>그 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sup>7</sup>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sup>8</sup>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나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sup>9</sup>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sup>10</sup>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은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sup>11</sup>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받으니라

33:4 “에서가 달려와서 . . .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행위는 모두 반겨 맞이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1. “달려와서,” BDB 930, KB 1207, *칼 미완료형*
2. “안고,” BDB 287, KB 287, *피엘 미완료형*
3. “목을 어긋맞추고,” BDB 656, KB 709, *칼 미완료형*, 참조, 45:14; 46:29
4. “입맞추고,” BDB 676, KB 730, *칼 미완료형*(이것은 70 인역에 빠져 있으며 맞소리 본문에서는 추가된 내용으로 나타난다), 참조, 45:15; 48:10; 50:1
5. “서로 우니라,” BDB 13, KB 129, *칼 미완료형*(70 인역과 TEV, REB 에서는 “그들이 둘 다 울었다”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가 울었다”였을 것이다, 참조, NJB, AB, 258 쪽)

33:5 에서는 야곱과 동행하고 있는 여자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무리에 대해 물어 보았다. 한 남자에게 두 아내와 두 첩이 있었고 그들에게 각기 딸린 자녀가 있었던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에 속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에서는 이에 대해 묻지 않았을 것이다. 에서의 반응은 기록되지 않았다.

33:8 에서는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 앞서서 보낸 그의 모든 선물(즉, 가족들)에 대해 물었다(참조, 32:13-21).

33:9 “내 동생아” NASB 연구성경(51 쪽)은 에서가 야곱을 “내 동생아”라고 부른 반면 야곱은 에서를 “내 주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좋은 설명을 하고 있다. 야곱은 (1) 기지를 발휘하고 있거나 (2) 그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에 선물을 주었다. 이 문화에서 선물을 거절하는 것은 꺾끄러운 관계를 뜻한다(즉, 제임스 M. 프리먼, 성경에 나오는 태도와 관습, 41 쪽). 에서가 선물을 거절하는 일은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에서는 이러한 선물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자기 형제를 받아줌의 표로서 그것들을 받았다.

33:10 야곱은 에서로 하여금 억지로 선물을 받아들이게 했는데 그 이유는 에서가 야곱을 받아 주는 일(참조, 14 절)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옵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25:23 에 대한 은밀한 암시이다.

33:11 야곱은 자신이 누리는 물질적 부의 원천이 언약의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다(즉, “은혜롭게,” BDB 335, KB 334, 칼 완료형, 참조, 5 절; 43:29).

▣ “예물” 이것(BDB 139)은 문자적으로는 “축복”이다. 이 용어는 27 장에서 야곱이 에서로부터 속여 취한 바로 그 용어이다. 야곱이 선물(문자적으로, 축복)을 줌으로써 자기 형제를 축복하기 원하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 그는 자신이 이전에 자신의 마음대로 행한 일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해 주기 원했던 것이다.

#### 개역개정 33:12-14

<sup>12</sup>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sup>13</sup>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 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sup>14</sup>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33:13 이 말이 에서로 하여금 자신이 더 뛰어남을 느끼게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와 함께 즉시 세일로 돌아가지 않음에 대한 변명이 되는 가에 대해 어떤 이는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의 자녀들은 “약하지” 않았으며 그의 가축 떼는 이미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 왔다. 야곱은 여전히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짓말쟁이인가?

#### 개역개정 33:15-17

<sup>15</sup>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sup>16</sup>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sup>17</sup>야곱은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숙곳이라 부르더라

33:15 “사람” 이것은 고이(BDB 766 I)라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이방인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다. 하지만 출 33:13 과 여기서 이 단어는 에서의 사람들을 일컬으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사용되었다. 문맥, 문맥, 문맥이 단어의 뜻을 결정짓는 것이지 사전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단어들은 오직 문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문장은 오직 단락/연 혹은 큰 단락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이들은 오직 더 큰 문학적 단락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획일적”이거나 “기계적”인 정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주의하라!

33:17 “숙곳” 이 용어는 “초막”을 뜻한다. 야곱은 자신을 위해 머물 곳을 지었고 그것을 “집”(BDB 108)으로 부른다. 한편, 19 절의 설명을 보라. 그는 또한 “우릿간”(BDB 697, 즉 나뭇가지로 지은 집)을 자기가 가진 짐승을 위해 만들었다.

야곱이 이곳에 장막을 치기 전에 이 지역에 마을이 있었는지는 잘 모른다. 이 이름은 후에 이 성읍의 이름이 되었다(참조, 사 8:5).

이것은 이집트 삼각주 지역에 있는 숙곳이 아니다(참조, 출 12:7; 민 33:5). 이것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성읍이었다(즉, 맥밀란 성경 지도, 22 쪽).

한 가지를 더 말한다면, 야곱은 세일 산에 있는 에서를 향해 간 것이 아니라 세일/에돔으로 가는 길에 있지 않은 숙곳으로 여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집도 지었다! 이 본문은 (1)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2) 단순히 야곱이 세일을 방문한 것을 생략하고 있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나는 2 항의 설명이 더 맞다고 여긴다. 나는 야곱이 진정으로 바뀌었으며 이제는 속이는 자, 자기 이득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자,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믿는다.

**개역개정 33:18-20**

<sup>18</sup>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sup>19</sup>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sup>20</sup>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33:18 “세겜”** 이것은 다음을 가리킬 것이다

1. 사람의 이름, 18,19 절; 34:2; 민 26:31; 수 17:2; 24:32; 삿 9:28
2. 에발 산과 그리심 산 사이에 있는 지역. 이 어근(BDB 1014 I)은 “어깨” 혹은 “견갑골”을 뜻한다
3. 성읍, 수 20:7; 21:21; 24:1; 삿 8:31

이 지명은 창 12:6 에서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처음 언급되었고 지금은 야곱과 관련하여 나온다(참조, 37:14).

17 절과 18 절 사이에 분명한 연결점이 없다. 야곱이 숙곳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두 가지 분리된 사건이며 시기에 속한 기록으로서 서로 분명한 연결점을 갖고 있지 않다. 집을 짓는 것에서 땅을 사는 일까지 간 것은 일시적인 거주에서 지속적인 거주 형태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한 가지 문제점은 18 절의 내용이 야곱이 밧단아람(하란에 있는 지역)에서 돌아온 직후에 땅을 산 것으로 암시하는 점이다.

그가 베엘로 돌아온 것에 대해 언급이 있지만 그는 잠시 멈추었고 머물렀다. 왜 이것이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는가?

**33:19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밭을 사는 행위는 거주함을 뜻하거나 적어도 합법적으로 거주함을 나타낸다.

▣ **“하몰”** 이 이름은 “나귀”(BDB 331 II)를 뜻한다. 고대 세계에서 나귀는 거룩한 동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마리 서판을 통해서 뿐 아니라 다음의 사실 (1) 부유한 자가 타는 나귀(참조, 삿 5:10)와 (2) 이스라엘의 왕이 즉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나귀를 탄 일(즉, 왕상 1:33)을 통해서 안다.

▣ **“백 크시타”** 이것은 드물게 사용된 히브리 용어(*크시타*, BDB 903)이다. 이것의 무게는 알려지지 않았다(참조, 수 24:32; 욥 42:11). 아마도 (1) 양 한 마리에 해당하는 금액(70 인역) 혹은 (2) 양의 모양(또는 그 모습을 새긴) 형태의 금속이 가진 무게(미나)였을 것이다.

**33:20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것은 한 장소, 시간, 예배의 자세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일은 야웨께 기도하고 제물을 드리는 일을 가능하게 했다(참조, 8:20; 12:7-8; 13:18; 22:9; 26:25). 이 일은 야웨께서 28:15 을 통하여 하신 약속의 성취이다!

▣ **“엘엘로헤이스라엘”** 이것은 다음의 단어들이 함께 사용된 형태이다

1. 엘, BDB 42, 참조, 출 34:6; 12:1 의 특별주제를 보라
2. 엘로헤이, BDB 43, 참조, 신 32:15,17; 시 18:32
3. 이스라엘, 32:28 의 특별주제를 보라

70 인역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번역하였다. 유대인 연구 성경은 JPSOA 의 본문 각주에 있는 번역을 사용하여 “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번역하였다(69 쪽).

# 창세기 34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야곱의 아들들의 계략	디나의 사건	세겜에서 디나가 받은 침해	디나가 강간당함	디나의 강간
34:1-7	34:1-7	34:1-4 34:5-7	34:1-4 34:5-10	34:1-5 세겜 사람들과 결혼 관계로 동맹함 34:6-12
34:8-12	34:8-12	34:8-12	34:11-12	
34:13-17	34:13-17	34:13-17	34:13-17	34:13-17
34:18-24	34:18-24	34:18-24	34:18-24	34:20-24 시므온과 레위의 기만적인 보복
34:25-31	34:25-31	34:25-31	34:25-29 34:30 34:31	34:25-29 34:30-31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야곱은 그의 두려움과 유혹을 직면해야만 했다.
1. 라반
  2. 에서
  3. 가나안 사람과의 통혼
  4. 가나안 사람들의 공격적 자세
- 나.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었다.
1. 에서에게 거짓으로 말하고 세일로 그를 따라가지 않았다
  2. 벵엘로 가지 않았다(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
  3.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 땅의 사람들과 통혼함의 유혹에 빠졌다
  4.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했다
- 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장에서 나오지 않는다(아마도 의도적인 것이다)!
- 라. 이 장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음이 분명하다
1. 창 17의 배경을 이룬다
  2. 유다의 세 형이 아니라 유다가 왜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는지를 나타낸다. 34장은 시므온과 레위가 합당하지 않음을 제시한다(참조, 창 49:5-7)  
“역사적인 내용”은 반드시 커다란 문맥에서 해석해야만 함을 기억하라(서론의 xvii 쪽에 있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체에 관한 글을 보라)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34:1-7

<sup>1</sup>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sup>2</sup>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이어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sup>3</sup>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sup>4</sup>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sup>5</sup>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sup>6</sup>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sup>7</sup>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라

34:1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창 33장과 34장 사이에 시간적으로 긴 간격이 있다. 아이들이 이제 자랐다. 디나는 야곱의 족보에서 언급된 유일한 딸이다(참조, 30:21). 다른 딸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만(참조, 37:35), 디나가 언급된 이유는 이 장에서 그녀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 때문이다. 그녀의 이름은 “재판” 혹은 “변호”(BDB 192)를 뜻하는 단어의 여성형이다. 단이라는 단어는 야곱의 한 아들의 이름이었는데(참조, 30:6) 후에 단 지파의 이름이 되었다.



NASB, NRSV,                   “방문하다”  
 TEV, NJB  
 NKJV, 70 인역, 페쉬타   “보다”

“보다”라는 동사(BDB 906, KB 1157, 칼 부정사 연계형)는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분명히 그녀가 혼자서 자기 집/장막에서 떠나갔을 것이다).

1. 그들이 사는 모습을 관찰하고 그들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
2. 그녀의 친구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야곱은 그 지역에 여러 해 살았다
3. 2 절에 근거하여, “세겔이 그녀를 보았다”(같은 동사)

34:2 “세겔” 이 사람은 그 지역에 있는 족속의 추장의 아들이었다. 하몰은 당시의 추장 혹은 부족의 지도자였다. 추장 아들의 이름이 중요한 이 도시의 이름을 따라 불렸다. 그 이름의 뜻에 대하여는 33:18 을 보라.

“높이 들린 사람”을 뜻하는 “왕자”(BDB 672 I)가 문법적으로 하몰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 있다 (레이번과 프라이의 *창세기 핸드북*, USB, 786 쪽을 보라).

▣ “히위 족속” 70 인역은 이것을 호리 족속으로 번역하였다(참조, 창 34:2; 수 9:7).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비 셈족 계통의 민족으로서 후르 족속으로 보아야함이 분명하다. 고대에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민족으로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유일한 두 민족은 에게 지역에서 온 용병이었던 블레셋과 이 절에 나오는 후르 유민 뿐이었다. 모든 가나안 족속은 할례를 행했다. 12:6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그를 보고 끌어들이 강간하여 욱되게 하고” 이것은 이사일의(두 개의 동사가 한 가지 행동을 나타냄)에 속한다.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고대 근동의 왕자들은 그러한 권리를 가졌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아내를 찾는 일은 오늘날 남녀가 교제하는 방법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즉, 출 22:16-17; 신 21:10-14; 22:28-29). 족장 시대의 문화는 모두 남자 쪽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여자 쪽의 자유나 감정에 대하여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성적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여러 가지 있다.

1. 함께 눕다, BDB 1011, KB 1486, 참조, 창 19:32; 26:10; 30:15; 39:7; 레 18:22
2. 다가가다, BDB 897, KB 1132, 참조, 창 20:4; 레 18:6,14,19; 20:16
3. 들어가다, BDB 97, KB 112, 참조, 창 19:31; 29:21,23,30; 30:3,4,16; 38:8,9,16; 39:14
4. 알다, BDB 393, KB 390, 참조, 창 4:1,17,25; 19:5,8; 24:16; 38:26; 민 31:17,18,35; 삿 19:22,25; 21:12



NASB, NRSV, JPSOA   “강제로”  
 NKJV, REB           “그녀를 범했다”  
 TEV                   “강간했다”  
 NJB                   “그녀로 하여금 강제로 그와 자게 했다”  
 70 인역               “그녀를 낮아지게 했다”  
 페쉬타               “그녀를 더럽혔다”

이 동사(BDB 776, KB 853, *피엘 미완료형*)는 *피엘형*에서 거칠게 성적인 공격을 하여 “검손하게 함”을 뜻한다(즉, 강간하다, 참조, 신 21:14; 22:24,29; 삿 19:24; 20:5; 삼하 13:12,14,22, 32; 겔 22:10,11).

34:3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비록 이 젊은이가 자기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음에도(참조, 19 절) 디나에게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 행위는 분명히 한 유랑자 및 그녀의 가족에게 행한 폭력이었다.

세겜의 감정이 디나에게 향했음을 세 가지 방법으로 반복하여 나타내고 있다.

1.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문자적으로, “그의 영혼이 그녀에게 붙어 있었다”) BDB 179, KB 209, **칼 미완료형**, 참조, 왕상 11:2
2. “그 소녀를 사랑하여,” BDB 12, KB 17, **칼 미완료형**; “소녀”(BDB 655)는 결혼할 연령에 있는 젊은 여자를 나타냄
3.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문자적으로, “그 소녀의 마음에 말하고”), BDB 180, KB 210, **피엘 미완료형**, 참조, 50:21; 사 19:3; 룻 2:13
4.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8 절, BDB 365 I, KB 362, **칼 완료형**, 참조, 신 21:11
5.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19 절, BDB 342, KB 339, **칼 완료형**

▣ “소녀” 이 장에서는 디나에 대하여 여러 용어를 사용한다.

1. 딸, 1 절, BDB 123 I(여러 번)
2. 소녀, 3 절, BDB 655, 참조, 12 절
3. 젊은 소녀, 4 절, BDB 409, 참조, 율 3:3; 숙 8:5(세 경우 모두 젊은 여자를 가리킴, 이 단어는 “낳다” “출생하다”라는 어근에서 음)
4. 누이, 13 절, BDB 27, 참조, 14,27,31 절

34:4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 내용은 부모가 자기 자녀의 결혼을 주관하는 문화적 양상에 들어 맞는다. 그러나 아들이 그 요청을 먼저 하고 있음을 주목하라(BDB 542, KB 534, **칼 명령**). 세겜이 충동적으로 시작한 성적 공격이 문제였다(참조, 7 절).

34:5

NASB, NKJV, NRSV,

70 인역, JPSOA “더럽혔다”

TEV “창피하게 했다”

NJB, REB “불명예스럽게 했다”

이 동사(BDB 379, KB 375, **피엘 완료형**)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깨끗하지 않음을 나타낸다(참조, 레 18:24-30). 여기서 이 단어는 성적으로 더럽혀짐을 뜻한다(참조, 겔 18:6,11,15; 22:11; 23:17; 33:26). 디나는 할례받지 않은 가나안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다.

▣ “야곱이 ... 잠잠하였고” 그의 동기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다.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1. 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하려는 유혹(참조, 6,30 절)
2. 자기 아들들과 종들이 무장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함
3. 디나의 형제들이 그 일에 대해 “말해야” 함을 나타냄

34:7 디나의 형제들은 매우 분노했다.

1.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BDB 780, KB 864, **히트피엘 미완료형**, 참조, 창 6:6
2. “심히 노하였으니,” BDB 354, KB 351, **칼 미완료형**, 참조, 창 4:5,6; 31:36; 39:19
3.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BDB 615, 즉, 야곱과 그의 종교적 전통에 따른 도덕적 기준을 무감각하게 무시하는 일, 참조, 신 22:21; 사 19:23; 20:6; 삼하 13:12(**명사**는 “어리석음”을 뜻함)

▣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후기에 속하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이다. 이 절에서 이 단어는 이스라엘 국가의 법을 가리킨다. 이것은 본문에서 후기의 편집자, 편찬자, 서기관을 나타내는 표시이다(참조, 신 22:21; 수 7:15; 사 19:23; 20:10).

어떤 주석가들은 이 전치사(BDB 88-91)가 “~에게,”를 가리킨다고 설명하는데, 이 단어는 “~안에서”를 의미한다.

**개역개정 34:8-12**

<sup>8</sup>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sup>9</sup>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sup>10</sup>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sup>11</sup>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sup>12</sup>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34:8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디나의 모든 형제와 이복 형제를 가리킨다. 세겜의 아버지는 그들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폭력의 느낌을 제거시키려 노력했다.

11 절은 그들이 야곱에게도 요청을 했음을 보여준다.

34:9 “우리과 통혼하여” 이것은 아브라함(참조, 창 24:3)이나 이삭(참조, 창 28:1,8)이 행했던 가족적 전통이 아니었다. 야곱은 이제 시험을 받고 있다.

34:10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이것은 그 지역에서 자유롭게 왕래하고 여행함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다(참조, 창 13:9; 20:15).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 결혼에 동의하기로 한다면 그들에게 준다고 약속한 여러 가지 내용을 주목하라.

1.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10 절
2.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10 절
3.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10 절(“매매하다”는 아마도 이 문맥에서는 “자유로이 통행하다”를 뜻할 것이다, 참조, 42:34; NJB, 한편, 같은 어근이 “무역하는 자”를 뜻할 수 있다, 참조, 23:16; 왕상 10:28-29)
4.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10 절
5.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11 절
6.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12 절

어떤 면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자이다! 야곱은 벨엘로 가야 했었다. 그가 세겜(도시) 근처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폭력과 아픔은 순종을 더디함으로 인해 이제 그가 지불해야 하는 값이었다.

34:12 “혼수와 예물” 이것은 결혼지참금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인 모할(BDB 555)이다. 이것은 신부를 사는 값이라기 보다는 도움을 주던 자를 잃게 됨에 대한 보상이었다(참조, 출 22:16-17; 삼상 18:25). 대개의 경우 이 결혼지참금을 아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남편의 죽음 혹은 나중에 생길 필요에 대비하도록 했다(참조, 창 31:15에서는 라반의 딸들이 자기들의 돈인 결혼지참금을 라반이 써버린 일에 대해 불평하는 내용이 나온다).

**개역개정 34:13-17**

<sup>13</sup>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sup>14</sup>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sup>15</sup>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sup>16</sup>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sup>17</sup>너희가 만일 우리 딸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34:13

NASB

“거짓으로”

NKJV

“거짓으로 말하여”

NRSV, 페쉬타

“거짓으로 대답하여”

TEV

“거짓된 방법으로”

NJB

“술수를 쓴 대답으로”

70 인역

“술수로써”

JPSOA

“간교한 속임수로서”

“속임”(BDB 941)이라는 명사는 배반을 뜻한다. 이 단어는 창 27:35 에서 야곱이 이삭을 속인 것에 대해 사용되었다. 창 29:25 에서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을 말하기 위해 같은 어근을 사용하였다.

34:14-17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할례는 야웨의 언약의 표였다(참조, 창 17:9-14). 여기서 디나의 형제들은 할례를 영적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닌 육체의 표로서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숨은 동기를 갖고 있었다. 세겜이 행한 난폭한 공격은 그의 전 부족을 난폭하게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 삼았다! 이러한 종류의 보복은 “눈에는 눈”(참조, 출 21:24; 레 24:20)이라는 히브리 법률이 그쳐져야 함을 뜻했다.

개역개정 34:18-24

<sup>18</sup>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sup>19</sup>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sup>20</sup>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sup>21</sup>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sup>22</sup>그러나 우리 중의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sup>23</sup>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sup>24</sup>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34:19 이 절에는 세겜이 야곱의 가족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 행한 세 가지 일에 대해 말한다: (1) 그는 지체하지 않았다 (2) 그가 야곱의 딸을 좋아했다 (3) 그가 자신의 존귀함을 위태롭게 했다.

34:20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이 문은 공동체 안에서의 행정적, 사회적, 법적 삶이 일어나는 곳이었다. 그는 이득을 얻게 되리라고 이 남자들(즉, 싸움에 나갈만한 자들)을 설득하고 있다(참조, 23 절).

34:21 이 절에 있는 네 동사 모두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된 **칼 미완료형**이다(즉, 우리가 ~하자).

34:23 세겜사람들은 이러한 흉내(즉, 할례)를 자기 부족의 힘과 부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이해했다. 언약의 백성이 느는 일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만 늘게 되어 있었다!

34:24 우와! 이것은 중요한 동의였다. 어른에게 있어서 할례는 고통스럽고도 위험(즉, 감염에 따른)이 따르는 일이었다. 이 모든 일은 자기들의 왕자로 하여금 그가 원하는 외국인과 결혼하게 하기 위함이었다(즉, 추장의 족보가 더 이상 순결하지 않음). 동양의 부족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도자들에게 나타낸 충성과 존경을 오늘날의 서구인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개역개정 34:25-31**

<sup>25</sup>제삼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sup>26</sup>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sup>27</sup>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sup>28</sup>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sup>29</sup>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sup>30</sup>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sup>31</sup>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34:25 “제삼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성인 남자의 경우 할례 후 제삼일에 통증이 제일 심했다. 레아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들의 여자와 아이들과 모든 소유를 취하려 했다. 이 사건은 후에 창 49:5-7 에서 야곱이 가족의 지도자들에 대해 한 예언에서 이 두 지파에게 한 불리한 내용의 근거가 되었다. 이 사건은 레위 지파가 왜 다른 지파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되며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 살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된다.

34:26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이것은 족장들의 문화였다. 독자들은 디나의 느낌이나 그녀의 선택에 대해 아무 것도 듣지 못한다. 우리는 다음의 사실 즉

1. 그녀가 세겜의 집에 자원하여 있었는지 혹은 강요에 의해 있었는지에 대해
2. 그녀가 집에 돌아와 자기의 이야기를 말하였는지 아니면 1 절에 나오는 가족들과 동행을 하였는지에 대해
3. 그녀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일이 언약적 관계에 미칠 결과에 대해서 그녀가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모른다

**34:27**

NASB “야곱의 아들들이”  
 70 인역, 페쉬타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TEV, NJB, REB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NASB 는 맛소라 본문을 따르지만, 고대 번역본들은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살륙이 아닌 약탈에 참여한 것으로 번역하고 있다. 단지 두 아들이 모아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의 노략품이 있었을 것이다.

34:28-29 고대의 전쟁은 그 폭력성이나 전리품을 취하는 면에 있어서 현대인들로 놀라게 한다. 여인들과 아이들은 소유할 수 있는 재산으로 여겨졌고 새 공동체 안으로 병합되었다(이것은 디나가 취급받은 바로 그 방법이었다).

34:30-31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서라기 보다는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며 그와 함께 계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그는 약속이 아닌 자기 편의 수에 근거하여 이 말씀을 의심했던 것으로 보인다(참조, 28:15).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를 이루도록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에게 강요하였듯이(참조, 창 25:23),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으로 하여금 바른 일을 행하도록 그에게 강요하고 있다(즉, 가나안 사람들과의 결혼 및 베엘로 여행할 것). 이러한 경향은 사 8:33-35 에서 거듭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선 자신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대해 가지신 목적을 이루심에 있어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신다!!!

34:30

NASB, NRSV,

JPSOA

“혐오스러운”

NKJV

“아주 불쾌한”

NJB, REB

“나쁜 냄새”

70 인역

“악”

페쉬타

“내 명성을 해하였다”

이 *히필* 부정사 연계형(BDB 92, KB 107)은 냄새나게 하다를 뜻한다(참조, 출 16:24; 시 38:5). 이 단어는 출 5:21; 삼상 27:12 과 이곳에서 은유적으로 사용되어 사람들에게 의해 거부받음을 나타낸다.

▣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12:6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창세기 35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야곱이 벧엘로 옮기다	야곱이 벧엘로 돌아감	야곱이 세겔에서 마므레로 여행함	하나님께서 야곱을 벧엘에서 축복하시다	벧엘에 있는 야곱
35:1-4	35:1-4	35:1-4	35:1 35:2-4	35:1 35:2-5
35:5-8	35:5-8	35:5-8	35:5-8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리다	35:8			35:6-8
35:9-15 (10) (11-12)	35:9-15	35:9-15	35:9-15	35:9-10  35:11-13 35:14-15
	라헬의 죽음		라헬의 죽음	베냐민의 출생과 라헬의 죽음
35:16-21	35:16-20	35:16-21	35:16-18 35:19-21	35:16-20 르우벤의 음행
	35:21-22		야곱의 아들들	35:21-22a
35:22a		35:22a	35:22a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열 두 아들
35:22b-26	야곱의 열 두 아들 35:23-26	35:22b-26	35:22b-26	35:22b-26
	이삭의 죽음		이삭의 죽음	이삭의 죽음
35:27	35:27-29	35:27-29	35:27-29	35:27-29
35:28-29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하셨다
1. 일어나라, BDB 877, KB 1086, **칼 명령**
  2. 가라, BDB 748, KB 828, **칼 명령**
  3. 살아가(문자적으로, 거하라), BDB 442, KB 444, **칼 명령**
  4. 제단을 만들라, BDB 793, KB 889, **칼 명령** 및 나중에 11 절에서
  5. 생육하라, BDB 826, KB 963, **칼 명령**
  6. 번성하라, BDB 915, KB 1176, **칼 명령**; 이 명령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반영한다
    - ㄱ. 동물들에게, 창 1:28
    - ㄴ. 암시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 ㄷ. 노아에게, 창 9:1,7
    - ㄹ. 다른 용어로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 ㅁ. 여기서 야곱에게
- 나. 야곱이 자기 가족에게 준비할 것을 명하였다
1. 이방 신상을 제하라, BDB 693, KB 747, **히필 명령**
  2. 저희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 BDB 372, KB 369, **히필 명령**
  3. 너희 옷을 갈아 입으라, BDB 322, KB 321, **히필 명령**
  4. 일어나자, BDB 877, KB 1086, **칼 청유형**, 참조, 1 절
  5. 가자, BDB 748, KB 828, **칼 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됨, 참조, 1 절
- 다. 최종적으로 야곱이 순종하여 벧엘로 왔을 때에, 야웨께서는 그에게 또 다시 말씀하신다, 9-15 절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35:1-4

<sup>1</sup>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sup>2</sup>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sup>3</sup>우리가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sup>4</sup>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35:1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서” 야곱은 처음 이곳에서 야웨를 만났다, 참조, 창 28:18-22; 35:14. 야웨께서는 창 31:13 에서 자신을 “벧엘의 하나님”으로 부르시며 야곱에게 가나안으로 갈 것을 말씀하셨다.

“올라가다”라는 동사(BDB 748, KB 828, 칼 명령)를 두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벧엘이 남쪽에 있었지만 세겜보다 지형적으로 더 높은 곳에 있었다.
2. 이 동사는 종종 성전(즉, 성소)에 가는 것을 위해 사용되었다. 벧엘은 아마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나타내었다.

▣ “제단을 쌓으라” “제단”(BDB 258)은 짐승을 죽이는 곳을 말한다. 족장들은 여러 제단을 쌓았다.

1. 노아가 아라랏 산에서, 창 8:20
2. 아브라함이
  - ㄱ. 세겜에서, 창 12:7
  - ㄴ. 벧엘에서, 창 12:8
  - ㄷ. 헤브론에서, 창 13:18
  - ㄹ. 모리아에서, 창 22:9
3.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창 26:25
4. 야곱이
  - ㄱ. 세겜에서, 창 33:20
  - ㄴ. 벧엘에서, 창 35:7

짐승을 잡아 제사드리는 일은 모세의 언약이 세워지기 이전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35:2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신상”이라는 용어(소문자체이며 복수형, gods)는 1 절에서 사용된 엘로힘(대문자체로 된 “하나님”[God])과 똑같은 단어이다. 문맥이 이 단어의 뜻을 규정지어야 한다. 12:1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절은 영적 준비가 언약에 따른 약속을 갱신함에 있어서 필요함을 나타내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방 신상들은 (1) 드라빔, 창 31:19,30 (2) 그의 가족 구성원들이 하란에서 가져온 다른 신상이나 (3)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신상으로서 세겜에서 취한 물건(경제적 면)인 공예품(금속적 면)일 것이다. 이 일은 수 24:14,23 에 있는 언약의 갱신과 비슷하다(참조, 삼상 7:3).

영적 준비(이 동사[BDB 372, KB 369]는 *히필* 명령임; 이것은 선택적 사항이 아니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이 동사가 유일하게 사용된 경우이지만 레위기에서는 여러 번 사용되었다)에 대해서 또 목욕과 옷을 갈아 입는 것으로서 영적준비를 나타내는 점이 흥미롭다(참조, 출 19:10; 민 8:7,21; 19:19). 따라서 외적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일은 야곱과 함께 있는 확장된 개념의 가족이 행할 내적인 영적 준비를 상징했다. 세겜 사람들을 살육한 오점이 그들에게 컸다.

35:3 “우리가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자 . . .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이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참조, 창 28:18-22).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그가 유일신론자(오직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음)였는지 아니면 단일신론자(나와 내 가족에 있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였는지 궁금하다.

35:4 “모든 이방 신상들” 이것은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들”(드라빔, 참조, 31:19,30,34; 삿 17:5; 삼상 19:13; 호 3:4, 참조 31:19 의 특별주제를 보라)을 뜻하는 것으로서 조상숭배를 나타낸다. 야곱에게 속한 사람들(즉, 종들, 참조, 6b 절)이 다신교도였으며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상징하는 상징이나 그러한 물건들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이것은 우상숭배와 관련을 가진 어떤 마술적 면이 있는 종류의 물건이었음이 분명하다(참조, 호 2:13).

■

NASB, NKJV, NRSV “숨겼다”  
 TEV, NJB, JPSOA, REB “묻었다”

이 동사(BDB 380, KB 377, 칼미완료형)는 “숨기다,” 감추다,” “묻다”의 의미를 가진다(참조, 욥 40:13). 그가 누구로부터 이 물건들을 숨기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하란에서 온 그의 새로운 대가족이 이전에 행하던 종교적 행습과 완전한 단절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상수리나무”라는 번역은 70 인역에서 온 것이다(참조, 페쉬타; UBS 에 있는 설명, 성경의 동식물 154-155 쪽을 보라). 이 히브리어는 *테레빈*(BDB 18)으로 되어 있다. 나무는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특히 성소와 관련하여서 더욱 그러하다(참조, 창 12:6; 13:18; 14:13; 18:1; 신 11:30; 수 24:26; 사 9:6,37).

개역개정 35:1

<sup>5</sup>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sup>6</sup>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벤엘에 이르고 <sup>7</sup>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벤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sup>8</sup>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매 그를 벤엘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더라

35:5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두려움”을 뜻하는 단어의 기본 어근은 *할*(BDB 369, KB 363, 참조, 9:2; 욥 41:25)이며 또한 욥 6:21 에서는 *하탈*이다. 두 자음으로 이루어진 앞의 어근은 “산산히 부서진”(참조, 삼상 2:4) 혹은 “겁먹은”(참조, 램 10:2; 46:5)을 뜻할 수 있다. 이 절에서 사용된 어근은 *하탈*으로서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비록 이 단어가 정복에 대한 본문에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거룩한 전쟁”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두려움,” 참조, 출 15:16; 23:27; 수 10:10). 고대 근동에서 군사적 행동은 국가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이 절의 가까운 문맥을 고려할 때 이것은 세겜 사람들을 죽인 일을 가리킨다(참조, 창 34 장). 하나님은 야곱과 특별한 방법으로 또 그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함께 하셨다!

*엘로힘*이 23:6 에서와 같이 서술적인 의미를 가져 “커다란 두려움”을 뜻할 수 있다(참조, NASB, REB).

35:6 “루스” 우리는 창 28:19 에서 야곱이 바로 이 가나안 성읍 바깥쪽에서 야웨를 만났으며 이 장소를 그가 “벤엘”로 부른 것을 안다. 이 시대에 이 가나안 도시는 “루스”로 불렸다(BDB 531 II, “알몬드 나무”라는 뜻). 유대인들은 야곱이 처음 야웨를 만난 곳에 대해 사용한 이름인 “벤엘”로 이 장소를 일컬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집”(BDB 110)이라는 뜻을 가진다.

35:7 26:25 의 설명을 보라.

■

NASB, NRSV “엘벤엘”  
 NKJV, NJB, JPSOA “엘 벤엘”  
 TEV “벤엘의 하나님”

족장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곳의 이름을 지었다. 루스 근처에 있는 이곳은 야웨께서 야곱에게 처음 나타나신 곳이었다. 그는 이곳을 기억했다! 따라서 그는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야웨께서 사다리 위/옆에 서심(참조, 욥 1:6; 시 8:5 혹은 천사의 모임을 뜻함, 참조, 창 1:26; 왕상 22:19)을 인해 이곳을 “엘의 집(벤엘)의 엘”로 불렀다.

▣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는 *엘로힘*으로서 **복수형**으로 되어있다. 이 이름이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 사용된 경우에는 대개 **단수형 동사**와 함께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복수형**(BDB 162, KB 191, *니팔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아마도(ABD, 제 1 권 270 쪽) 창 28:12 에서 *엘로힘*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관련을 갖기 때문일 것이다. *엘로힘*이 **복수형 동사**와 함께 사용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완료형**과 **복수형 동사**가 함께 사용되어 완료된 계시를 나타낼 가능성 또한 있다.

35:8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매**” 이러한 상세한 내용은 이것이 목격자적/당시의 자료임을 나타낸다! 드보라는 창 24:59 에서부터 줄곧 매우 신실한 종으로 섬겼다. 그녀는 꽤 나이가 많은 여자였을 것이다. 그녀가 상수리나무 밑에(BDB 1065) 문힘을 주목하라. 이곳은 또 하나의 성스러운 장소를 가리킨다. 그 곳은 “**울음의 상수리나무**”로 불렸다(BDB 47 과 113).

▣ “**아래에 있는 ... 밑에**” 이 용어들(BDB 1065)이 영어에서 갖는 애매성을 인해 설명을 요한다.

1. **벤엘** 아래에, 제단보다 더 낮은 높이를 나타냄
2. **밑에**, 나무 기둥의 아래가 아니라 가지들로 덮인 아래쪽을 뜻함

개역개정 35:9-15

<sup>9</sup>야곱이 **बाटा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sup>10</sup>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sup>11</sup>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sup>12</sup>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sup>13</sup>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sup>14</sup>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sup>15</sup>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벤엘**이라 불렀더라

35:9-12 이 언약 갱신과 헌신은 창 28:13-15 에 있는 내용과 매우 비슷하다. 이 사건의 시간적 배경은 자세히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 일은 32:28-32 에 대한 회상 혹은 야웨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재확인해주시는 모습이다.

35:10 “**야곱 ... 이스라엘**” NASB 역은 10 절과 11-12 절을 시로서 번역한다. 이러한 번역은 10 절에 나오는 반복적인 행을 잘 드러내며 창 12:1-3; 15:1; 17:1-5 에 나타난 신의 현현과 관련있는 시와 어울린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어원적)에 대해 잘 모르는 사실은 놀랍다. 32:28 의 특별주제를 보라.



**35:11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것은 히브리 합성어인 *엘 샤텔*(BDB 42 와 994)이다. 우리는 출 6:2-3 에서 이 이름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주로 사용한 이름임을 안다(참조, 17:1; 28:3; 35:11; 43:14; 48:3).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일반적 이름인 *엘*(BDB 42)로서 “강함” 혹은 “능함”을 나타내는 요소와 여인의 유방과 관련이 있는 요소(BDB 994, 참조, 창 49:25)인 *샤텔*(*샬타이*, BDB 994)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가능한 또 하나의 번역은 “항상 충족되시는 분” 혹은 “랍비들이 말한바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이다. 민 24:4,16 에 있는 이 이름을 NASB 에서 “전능자”로 번역하였다. 이 이름은 종종 읍이나 발람과 같이 이스라엘의 것이 아닌 자료에 나온다. 이 호칭은 종종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이 있다(참조, 창 17:1; 28:3; 35:11; 48:3-4). 12:1 의 특별주제를 보라.

신 32:17 에서는 같은 어근(숄, BDB 993)이 “귀신”으로 번역되었다(앗시리아에서 온 외래어).

▣ **“생육하며 번성하라”** 17:1 과 28:3 의 설명을 보라. 이것은 창세기 1 장 이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다(동물에게, 사람에게, 여기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가족에게).

▣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 이것은 분명히 야곱의 자손을 가리킨다(참조, 48:4). 하지만 더 큰 범주의 사람들도 의미한다(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입은 자들,” 창 1:26-27).

1. 하나님의 언약, 창 3:15
2.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에 내포되어 있는 자, 창 12:3
3.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호칭과 이스라엘에 대한 목적, 출 19:5-6
4. 이사야가 “열방”이라고 말함에 있어서 이에 포함된 전 세계
5. 예수께서 교회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마 28:19-20(눅 24:47 과 행 1:8 에서 반복됨)
6.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에 있는 설교
7. 갈 3 장과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목적에 대해 분명히 한 언급

이 구는 커다란 신학적 중요성을 가진 내용을 의도적으로 절제하여 표현한 내용이다.

▣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백성들”과 문자적인 평행을 이루는 내용으로서
2.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참조, 17:6,16)

야곱은 “지파”들의 근원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왕들”의 근원이 되었다.

**35:12**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주신 약속을 재확인하시는 말씀이다(참조, 13:15;26:3; 28:13). 야웨의 약속은 가족 및 자손의 계보에 대한 것이었다! 어떤 이는 다른 이보다 더 강하고 더 영적일 것이다. 이것은 “편애”를 뜻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에 가지신 영원한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이다(참조, 창 1:26-27)! 이것은 범죄한 인류를 구속하심에 대한 약속이다! 하나님은 모두를 택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셨다!

**35:13 “하나님이 . . .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 동사(BDB 748, KB 828)는 넓은 범위의 의미를 갖는다(“올라가다,” “오르다,” “기어 오르다,” “꽃피다,” “제물을 드리다,” “돌아오다,” “동행하다” 등). 여기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떠나 가심을 특별히 나타낸다(참조, 17:22). 고대인들은 하나님과 하늘이 “위”에 있고 심판은 “내려온다”고 믿었다.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 갔다(참조, 8:20; 22:2,13). 하나님께서는 산/하늘에서 말씀하셨다(참조, 출 19-20 장). 하나님의 천사들이 28:12 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현대인들이 창조된 물질세계의 광대함에 대해 알게 되면서 많은 주석가들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나타내는 더 적절한 방법은 공간적이 개념이 아니라 초차원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늘은 장소를 뜻하는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영역을 뜻한다.

▣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이와 똑같은 표현이 14 절에서 사용되었다. 이것은 서기관들이 일반적으로 행한 실수에 의한 반복으로 보인다(중복 오사).

35:14 “야곱이 . . . 기둥 곧 들 기둥을 세우고” 이 일은 벤엘에서 이미 했던 일이다(참조, 창 28:18,19,22). 또한 이 장의 20 절에서 그가 라헬의 묘에 비를 세우게 됨을 주목하라. 이러한 기둥들은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곳임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 “붓고 . . . 붓고” 두 개의 다른 동사가 사용되었다.

1. 처음 것, BDB 650, KB 703, *히필 미완료형*, 술을 부음을 나타냄(BDB 651)
2. 다음 것, BDB 427, KB 428, *칼 미완료형*, 올리브 기름을 부음을 나타내며(BDB 1032, 참조, 28:18) 특별한 종류의 거룩한 기름부음임, 출 29:7; 레 8:12

35:15 야곱이 이 계시의 장소를 이름짓는 일이 세 번 기록되었다. 어떤 이는 이것이 다른 저자들(J.E. D.P.)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사도행전에 바울의 회심 기록이 세 번 기록된 것과 같은 성격이라고 본다. 이것은 중요한 신학적 사건이었다. 야웨께서는 자신을 야곱/이스라엘에게 계시하셨다!

**개역개정 35:16-21**

<sup>16</sup> 그들이 벤엘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sup>17</sup>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득남하느니라 하며 <sup>18</sup>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나민이라 불렀더라 <sup>19</sup> 라헬이 죽으매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sup>20</sup>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sup>21</sup>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텔 땅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35:16 “에브랏” 이것은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다(참조, 미 5:2). 이 외에도 또 다른 베들레헴이 있었지만, 에브랏은 예루살렘 근처에 위치한 곳으로서 후에 다윗의 동네가 되었고 메시아가 난 특정한 장소를 가리킨다.

▣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이 동사(BDB 904, KB 1151)는 *피엘형*으로서 구약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범죄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듯이 선택받은 가족도 고통을 경험했으며 질병을 가졌다(참조, 27:1). 하나님은 그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생존할 것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관여하신다(고든 피의 *건강과 부를 외치는 복음의 질병*을 보라).

35:17 “두려워하지 말라” 이 동사(BDB 431, KB 432,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는 약간 놀랍다. 우리는 그녀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문맥에서는 건강한 아들의 출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참조, 삼상 4:20). 이것은 30:24 에서 그녀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35:18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스*(BDB 659)라는 단어이다. 우리는 헬라 철학과 히브리 성경을 혼합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구약은 우리가 혼을 가진 것이 아니라 혼이라고 말한다(참조, 창 2:7). “혼”은 아카디아어의 *나피스투*에서 온 말이며 호흡을 하는 곳 혹은 목구멍을 뜻한다(참조, 시 69:2). 인간의 독특성은 그들이 *네페스*를 가진 것에 있지 않다. 창세기의 앞 부분에서 동물도 *네페스*를 가졌다고 말하기 때문이다(참조, 창 1:21,34; 2:19; 레 11:46; 24:18). 이것은 단순히 호흡이 떠날 때에 땅 위에서의 육신의 생명이 그쳐짐을 뜻하는 히브리 관용어이다.

▣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나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부른 이름은 “내 슬픔의 아들”(BDB 122)이었다. 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내 오른손의 아들”(BDB 122)로

바꾸었다. 오른손은 기술, 명예, 도움을 나타낸다. 우리는 마리 서판에서 이 용어가 “남쪽의 아들”(즉, 그의 출생지인 가나안)을 뜻할 수 있음을 안다.

**35:19 “곧 베들레헬”** 이것은 후에 편집자가 삽입한 내용일 것이다(지명 35:6,27; 36:1, “오늘날”이라는 표현, 35:20). 나는 모세 오경의 대부분에 있어서 모세가 저자임을 믿고 있지만 또한 여러 편집자의 손질이 있었음도 믿고 있다. 나는 또 모세가 구전으로 전해진 내용과 문서로 전해진 내용도 사용했다고 본다. 편집자들은 다음의 사람을 포함했을 것이다: 여호수아, 사무엘, 열왕기서의 저자, 에스라, 예레미야, 혹은 제사장들.

**35:21 “에델 땅대”** 이것은 “믹달 에델”이라는 이름이다. 믹달(BDB 153)은 땅대를 뜻하는 단어로서 여러 지명과 함께 사용되었다(즉, 수 15:37; 19:38). 이것은 베들레헬 근처에 위치했다(참조, 미 4:8). 에델(BDB 727)은 짐승의 떼나 무리를 뜻한다. 이 장소는 그 위에서 양떼를 돌볼 수 있도록 돌을 쌓아 올려놓은 곳이다.

**개역개정 35:22a**

<sup>22</sup>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35:22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 꼴사나운 행동은 상속권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즉, 왕상 2:13-25). 르우벤은 자기를 부족의 우두머리로 임명할 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강압하려 하고 있었다. 나중에 밝혀진 것처럼 그는 이 사건을 인해 정죄를 받았고 거부당했다(참조, 창 49:3-4; 대상 5:1).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는 족장의 아내들을 통해 자신의 독특한 뜻을 이루셨듯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레아의 넷째 아들(즉, 유다)을 메시아의 계보로 삼으심으로써 자신의 독특한 뜻을 이루신다.

▣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70 인역은 “그 일이 그의 앞에 슬픔으로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있다(참조, TEV, NAB). 이것은 맛소라 본문에는 없다. 우리는 70 인역이 그 내용을 추가시킨 것인지 아니면 이른 시기에 속하는 한 히브리 사본에 있던 내용이었는지를 모른다.

**개역개정 35:22b-26**

<sup>22b</sup>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sup>23</sup>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스블론이요 <sup>24</sup>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sup>25</sup>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sup>26</sup>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이 이름들과 관련된 통속적인 어원도 창 49 장에 있는 예언의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약간의 유동성을 두게 한다.

**개역개정 35:27**

<sup>27</sup>야곱이 기랏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35:27 “야곱이 기랏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이곳도 특별한 상수리 나무가 있던 장소였다(참조, 창 13:18; 14:13; 18:1). 그 시기는 알 수 없다. 야곱은 가나안에 돌아와서 이 때가 되기까지 자기 아버지를 방문하지 않았는가?! 이것도 또 다른 역사적 회고일 것이다.

개역개정 35:28-29

<sup>28</sup>이삭의 나이가 백팔십 세라 <sup>29</sup>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35:29 “이삭이 . . . 기운이 다하매 죽어” 이삭은 매우 오랫동안 노쇠한 상태로 지냈음이 틀림없다 (참조, 27:1). 야곱은 20년 이상을 떠나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곧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점은 비록 족장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신체적 불편함과 질병을 오랜 기간 동안 경험했음을 말한다.

▣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스마엘과 이삭이 돌아와 아브라함을 장사했듯이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문화적으로 중요한 일이었다.

▣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이 동사(BDB 62, KB 74, *니팔 미완료형*)는 “모이다” 혹은 “제거하다”를 뜻한다. 이것은 사후에 자신의 가족과 연합됨을 가리키는 관용어이다(즉, 25:8,17; 35:29; 49:29,33; 민 20:24,26; 27:13; 31:2; 신 32:50). 사후 세계에 대한 구약의 계시는 매우 간단하며 애매하다(읍기와 시편에서 부활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것은 다음의 내용을 뜻할 것이다

1. 평화로운 죽음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
2. 가족의 무덤에 장사됨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
3. 이미 죽은 사랑하던 자들과의 재연합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즉, 사후에 개인이 존재함을 뒷받침함). *성경의 어려운 말* 127-29 쪽을 보라.
4.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기까지 사랑하던 죽은 자들과 기다림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참조, 읍 14:14-15; 19:25-27; 시 16:10; 49:15; 86:13; 겔 37 장; 단 12:2-3; 호 13:14). 이에 대한 신약의 가장 자세한 내용은 고전 15 장일 것이다.

35:29 “나이가 많고 늙어” 이것은 장수함을 나타내는 관용어이다. 죽음은 모든 인간의 삶의 자연스러운 끝으로 여겨졌다. 장수는 축복으로 간주되었다. 죽음은 나이든 신자들의 친구이다(또한 지금도 그러하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야곱은 왜 세겜까지만 가고 벧엘에는 가지 않았는가?
2. 헛 족속은 어떤 사람들인가?
3. 간음은 항상 끔찍한 범죄로 여겨졌는가 아니면 모세의 율법과 더불어 그렇게 여겨졌는가?
4. 왜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가족의 지도력을 가진 족장의 자리에서 배제되었는가?
5. 35:2 에서 야곱이 말하는 이방 신상은 무엇인가?
6. 35:4 에 나오는 귀걸이는 무엇을 상징하는 물건인가?
7. 건조한 지역에 거주하는 이 유목민들은 왜 나무를 신성한 장소로 여겼는가?
8. 왜 야곱은 그의 생애에 걸쳐 특별한 곳에 기둥을 세웠는가? 이 일은 후에 왜 정죄받았는가?
9. 우리는 혼을 가진 존재인가 혼(생령)인가? 왜 그러한가?

# 창세기 36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에서가 이주하다	에서의 가족	에돔의 족보	에서의 후손	에서가 가나안에서 가진 아내들과 자녀들
36:1	36:1-8	36:1-5	36:1-5	36:1-5
36:2-5				에서의 이주
36:6-8		36:6-8	36:6-8	36:6-8
에서의 후손				세일에 있는 에서의 후손
36:9-14	36:9-14	36:9-14	36:9-13a	36:9
				36:10
				36:11-12
			36:13b	36:13
			36:14	36:14
	에돔의 족장들			에돔의 족장들
36:15-19	36:15-16	36:15-19	36:15-16	36:15-16
	36:17		36:17	36:17
	36:18-19		36:18-19	36:18
				36:19
	세일의 후손		세일의 후손	세일의 후손, 호리 족속
36:20-30	36:20-30	36:20-30	36:20-21	36:20-28
			36:22	
			36:23	
			36:24-26	
			36:27	
			36:28	
			36:29-30	36:29-30
	에돔의 왕들		에돔의 왕들	에돔의 왕들
36:31-39	36:31-39	36:31-39	36:31-39	36:31-39
	에돔의 우두머리			에돔의 우두머리
36:40-43	36:40-43	36:40-43	36:40-43	36:40-37:1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이스라엘과 에서(즉, 에돔)의 자손과의 관계

가. 이스라엘은 에돔과 친척 관계이었기에 그들에 대해 특별한 우의로 행할 것에 대해 요구받았다.

1. 민수기 20:14
2. 신명기 23:7,8

나.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 오랜 기간을 거쳐 여러 문제를 갖고 있었다.

1. 민수기 20:14-21
2. 사사기 11:16-17
3. 사무엘상 14:47-48
4. 사무엘하 8:14
5. 열왕기상 11:14-25
6. 열왕기하 14:22; 16:5,6
7. 역대하 20:10-30; 21:8-15
8. 아모스 1:6,9

다. 에돔에 대항하여 여러 예언이 있었다.

1. 이사야 34:5 이하; 63:1 이하
2. 예레미야 49:7-22; 예레미야 애가 4:21,22
3. 에스겔 25:12 이하; 35:1 이하; 36:2-6
4. 아모스 1:11,12
5. 오바다

라. 36 장은 창 27:39-40 에 있는 예언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에서의 계보이다. 이것은 36:1 에 있는 반복적 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의 사용에서 분명해진다. 모세는 히브리 백성의 시작을 다룬 그의 기록(즉, 창세기)을 이 특징적 표현으로서 구분하였다(참조, 2:4;

5:1; 6:9; 10:1; 11:10,27; 25:12,19; 36:1,9; 37:2).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더 많은 내용을 할애했고 더 큰 관심을 두었다.

마. 이 장의 간략한 개요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2-9 절은 가나안에 있는 에서의 자녀들에 대한 것이다
2. 10-14 절은 세일에 있는 에서의 손자들에 대한 것이다
3. 15-19 절과 40-43 절은 에돔 국가의 족장들에 대한 것이다
4. 20-30 절은 이 지역에 있는 원주민 지도자들의 이름을 열거한다
5. 31-39 절은 후에 있던 에돔 왕들에 대한 것이다(이와 비슷한 이름의 목록이 대상 1:35:54 에 나온다)
6. 40-43 절은 에서에게서 나온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말한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36:1

<sup>1</sup>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36:1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반복적인 구(아마도 속표지)는 창세기의 구분을 나타낸다(2:4; 5:1; 6:9; 10:1; 11:10,27; 25:12,19; 36:1,9; 37:2). 이 구에는 **동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 “에서 곧 에돔” 에돔사람들의 기원을 야곱의 형제인 에서에게 관련시키는 이러한 강조는 이 장 전체에 걸쳐 반복되는 주제이다(참조, 8,9,19,42 절. 에서가 에돔과 갖는 관련성은 특히 창 25:25,30 에서 나타난다).

#### 개역개정 36:2-5

<sup>2</sup>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헛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sup>3</sup>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웃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sup>4</sup>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sup>5</sup>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36:2 “에서가 가나안 여인 ...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에서의 가나안 아내들의 이름은 세 곳에서 서로 다르게 기록되었다: 창 26:34,35; 28:8; 36:2 이하. 한편, 이 세 기록에서 그 아내들의 이름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점이 문제로 떠오른다. 이러한 상이점은 여러 가지로 설명되었다: (1) 세 아내가 아니라 네 명의 아내가 있었다 (2) 이 여인들은 한 가지 이상의 이름을 가졌다. 본문에서 볼 때 에서에게 적어도 두 명의 가나안인 아내가 있었고 이스마엘의 한 딸이 그의 아내였음이 분명하다.

▣ “헛 족속 엘론의 딸 아다” 창 26:34 에서 헛 족속 엘론의 딸은 바스맛으로 불린다(BDB 142). 같은 이름이 창 36:3 에서 이스마엘의 딸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상하게 여겨진다. 라시는 이 이름이 향기 혹은 향(BDB 141)과 관련이 있는 단어로서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었다고 말한다. 유대인의 전통은 에서에 대해 많은 편견을 나타내어 그녀의 이름이 우상에게 향을 피우는 일과 관련이 있다고 보며 그녀가 우상숭배자였다고 설명한다.

“헛 족속”(BDB 366)은 구약에서 3 개의 독특한 그룹을 가리킨다.

1. 주전 3000 년 이후에 소아시아 중앙에 거주하던 주민들인 헛 족속(즉, 그들은 헛어를 사용했음)을 가리킨다. 그들은 셈족이나 유로-유럽인이 아니었다.

2. 주전 2000 년 이후에 있던 유로-유럽의 침략자들(즉, 그들은 네시어를 사용함)로서 그들은 강력한 대제국을 형성하였다.
3. 헷의 자손들(창 10:15; 23:3,5,7,10,16,20; 25:10; 27:46; 49:32). 그들은 가나안에 원래 거주하던 10 족속 가운데 하나로 나온다.

서로 구별되는 세 민족이 같은 이름으로 불린 사실은 커다란 혼동을 야기한다.

▣ “오홀리바마” 이 이름은 “높은 곳의 장막”(BDB 14)을 뜻한다. 한편, 이 이름들의 어원적 관련성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같은 어근이 “나무,” “알로에,” “빛나다,” “깨끗하다”를 의미할 수 있다. 창 26:34-35 에서 이 소녀가 유딧으로 불리고 있음이 분명하다(만일 에서에게 세 아내만 있었다면). 라시는 에서가 그녀의 이름을 “유대인의”(형용사, BDB 397 I)라는 뜻을 갖는 유딧(BDB 397 II)으로 바꾸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녀가 우상숭배를 버림으로써 자기 시아버지(즉, 이삭)에게 감명을 주었음을 암시한다. 이 이름이 41 절에서 남자를 뜻하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점은 특이하다. 이 이름이 여성형으로 되어 있는 점은 이 장의 히브리 본문에 어떤 혼란이 생겼음을 나타낸다. 성경에서 계보에 나타나는 차이는 일반적으로 (1) 철자를 틀리지 않고 많은 이름을 기록하는 일이 어려움과 (2) 다른 언어로 이름들을 바꾸어 나타내는 것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대상 1:35-54 에서 얼마나 많은 이름이 바뀌어졌는지를 주목하라.

▣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 맛소라 본문은 단순히 “~의 딸”로 말하지만 사마리아 오경, 70 인역, 시리아역은 “아들”로 나타낸다. 이것은 24 절에서 볼 때 손녀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다.

시브온은 히위 족속으로 불린다. 이것이 맞다면 이 소녀는 26 장에서 언급된 소녀 가운데 한 명으로서 헷 족속일 것이다. 구약에서 헷 족속(BDB 366), 히위 족속(BDB 295), 호리 족속(BDB 360 II, 참조, 20 절; 14:6)으로 번역된 그룹에 있어서 많은 혼동이 있었다. 대개 “호리 족속”(참조, 20 절)은 비셈족인 후르 족속을 나타낸다(ZPBE 제 3 권 228-229 쪽). 한편, 이 용어는 광부 혹은 굴에 거주하던 셈족의 사람들(BDB 359, KB 339, “구멍”)을 가리키는 용어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해석의 증거는 이 모든 이름이 셈족의 이름이지 후르 족속의 이름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36:3 “바스맛” 이 소녀는 “용서”(BDB 142)를 뜻하는 “마할랏”으로 창 28:9 에서 불린다. 사마리아 오경에서 그녀의 이름을 바스맛에서 마할랏으로 바꾼 점이 흥미롭다(창 36:3,4,10). 이 사실은 이 이름들과 관련된 어려움을 학자들이 일찌기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즉, 한 사람이 별명과 바뀐 이름을 가짐). 에서가 자기 부모를 기쁘게하려고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느바웃의 누이” 이스마엘이 당시에 죽었기에 그녀의 형제가 그를 대신해서 그녀를 주었기에 그의 이름이 본문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한 일이 종종 있었고 또 그러한 일이 고대 근동의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견해이다(즉, 형제가 가족의 대표자로서 결혼에 관여했다, 라반, 시므온/레위, 아브람도 사라의 형제라고 주장함). 어떤 이는 이 계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우세하게 나타나기에 이들 아랍 부족들이 모계사회의 경향을 가졌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역사적 자료는 불확실하다.

36:4-5 이것은 에서의 주된 종족의 일부 목록이다. 이들의 이름은 나중에 이 장에서 우두머리들의 명단으로서 제시될 것이다. 이 장은 이러한 계보의 내용에 기초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2-9 절은 가나안에서 낳은 에서의 자녀들에 대한 것이다
2. 10-14 절은 세일에서 낳은 에서의 손자들에 대한 것이다
3. 15-19 절과 40-43 절은 에돔 국가의 족장들에 대한 것이다
4. 20-30 절은 이 지역에 있는 원주민 지도자들의 이름을 열거한다
5. 31-39 절은 후에 있었던 에돔 왕들에 대한 것이다
6. 40-43 절은 에서에게서 나온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말한다

매우 비슷한 목록이 대상 1:35-54 에 나온다.



36:5 “고라” 나는 이 계보의 상세한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따르는 어려움을 제시할 목적으로 두 번 사용된 여러 이름 가운데서 이 이름을 임으로 고른 것이다. 어떤 이는 두 “고라”의 목록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이곳 5 절에 있는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16 절에 있는 이름이다. 한편, 라시는 같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면에서 두 경우가 관련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에서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을 나타낸다. 이 장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은 매우 부정적이며 에서의 족보에 몹시 충격적인 근친상간과 가족적 문제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단지 편견에 따른 전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개역개정 36:6-8**

<sup>6</sup>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sup>7</sup>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sup>8</sup>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 산에 거주하니라

**36:6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 . .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36 장에서 언급된 이 분리는 더 많은 목초지에 대한 필요 때문이었다(참조, 7 절). 한편, 이 일은 신학적으로 야곱이 참된 팔레스타인 땅의 상속자(즉, 이삭의 축복)로서, 그가 돌아왔을 때 그가 아버지 이삭의 양떼와 자기 자신의 양떼를 유산으로 가졌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36:8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 산에 거주하니라” 야곱이 떠나 있는 동안 에서가 자기의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에서 세일로 옮겼으며, 이 기록은 단순히 그가 세일에 거주하였음을 언급하는 것일 수 있다(참조, 32:3). 한편, 이 점은 불확실하다. 세일 산은 에돔 국가를 뜻하는 전통적인 이름이 되었다.

**개역개정 36:9-14**

<sup>9</sup>세일 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sup>10</sup>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sup>11</sup>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sup>12</sup>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딤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sup>13</sup>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합과 세라와 삼파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sup>14</sup>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36:10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 장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계보와 관련된 여러 자료에 따른 구분임이 분명하다(36:4-5의 설명을 보라).

36:11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이 사람이 읍기에 나오는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한 견해는 28 절에서 언급된 우스(즉, 우스라는 이름의 아들) 땅을 인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에돔의 지혜자들 특히 데만의 지혜자들은 유명했다. 이 두가지 증거는 에돔이 읍의 고향임을 나타낸다. 엘리바스가 그의 “친구”였는지는 알 수 없다.

36:12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딤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그녀가 이스라엘의 강력한 적인 “아말렉”의 어머니였기에 첩으로써 지목되고 있다(참조, 출 17 장; 신 25:17,19; 삼상 15 장). 이 계보에서 그가 유일하게 첩의 아들로 나타나기에 이것은 비하적인 진술로 보인다.

36:14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 아내의 아들들이 왜 손자들과 함께 언급되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어떤 이는 이것이 아들들을 손자들의 족보로 내려보내는, 즉 이 여인의 자녀에 대한 경멸적인 언급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아마 상속권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개역개정 36:15-19**

<sup>15</sup>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데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sup>16</sup>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sup>17</sup>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sup>18</sup>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sup>19</sup>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 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36:15-19 이것은 에서에게서 나온 부족 지도자들의 명단이다. “족장(BDB 49 II)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천”(BDB 48 II)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다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1. 가족 혹은 씨족의 단위, 수 22:14; 삿 6:15; 삼상 23:23; 슥 9:7
2. 군대 단위, 출 18:21,25; 신 1:15
3. 천 개/명, 창 20:16; 출 32:28
4. 상징, 창 24:60; 출 20:6(신 7:9; 렘 32:18)
5. 우가릿어(같은 어족에 속하는 셈어)에서 똑같은 자음으로 된 알루프는 “족장”을 의미함(참조, 창 36:15). 이것은 민 1:39 에서 60 명의 족장과 62,700 명의 사람이 단 지파에서 왔음을 뜻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어떤 지파에서 사람들의 수에 비해 너무 많은 족장이 있다는 문제를 가진다.

구약에 나타나는 숫자와 관련된 문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히브리 단어들을 적절하게 해석할 수 없음에 기인한다. 에서의 많은 아들들이 이 목록에서 두목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 점은 그의 가족이 이 지역에서 지도력을 차지했음을 나타낸다.

**개역개정 36:20-30**

<sup>20</sup>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sup>21</sup>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sup>22</sup>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덤나요 <sup>23</sup>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sup>24</sup>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sup>25</sup>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sup>26</sup>디손의 자녀는 험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sup>27</sup>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아완과 아간이요 <sup>28</sup>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sup>29</sup>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sup>30</sup>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36:20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신 2:12 에서 우리는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의 거민을 쫓아낸 것처럼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의 주민들을 내쫓았음을 알게 된다. 한편, 우리는 그들 사이에 통혼이 어느 정도 있었음도 안다. 이러한 통혼이 그 족속들과 융합됨의 결과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승리를 거두어 그 족속들에 속한 여인들을 전리품으로 취한 결과인지는 불확실하다.

36:24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온천”(BDB 411)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그 의미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나는 우리가 구약의 어떤 부분 특히 그 부분이 드물게 사용된 용어로 설명된 경우에 이를 이해함에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예로서 이 단어를 언급하고자 한다.

1. 이 용어는 히브리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2. 70 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번역을 하지 않고 음역하였다

3. 벌게이트역에서는 이 지역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온천”(참조, REB)으로 이 단어를 번역하였다
4. 어떤 번역본들은 이 단어가 “독사들”을 가리킨다고 번역하였다. 이것들도 이 지역에 있다
5. 페쉬타역은 자음을 “ymm”(야맘)에서 “물”을 뜻하는 “mym”(마임)으로 바꾸었다(참조, NKJV)
6. 랍비들은 이와 매우 비슷한 용어가 “노새들”(참조, KJV, ASV, NEB)을 가리키는데 바로 여기서 이 단어가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노새가 번식할 수 없듯이 이 족속들 자체가 헛되어졌다는 이유에서이다.
7. 사마리아 오경은 이 단어를 *예뵘*으로 바꾸었는데 그 단어는 신 2:10 에서 거인들을 가리킨다

이렇듯 광범위한 번역상의 차이는 드물게 사용된 이러한 단어들의 의미를 이해함에 어려움이 따름을 보여준다. 한편, 이 문학적 단락의 중요 진리(들)를 이해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미미한 종류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끌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러한 내용은 흥미롭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36:25** 에서의 한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이름이 이곳에서 아다의 딸과 관련하여 다시 언급됨을 주목하라(참조, 2 절). 이 점은 주석가들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풀핏 주석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즉 에서의 장인의 사촌이었다고 설명한다. 같은 가족과 지역과 지방과 시대에서 같은 이름이 종종 사용되었다. 때로 여러 사람이 같은 이름을 갖기도 했다. 그들을 서로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 아버지의 이름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36:26 “디손”** 히브리 본문은 “디산”으로 되어있지만 대하 1:41 을 인해 많은 번역본들이 이 이름을 바꾸어 놓았다. 3 절에는 “디손”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자손이 나온다(대상 1:42 에서는 “디산”임).

#### 개역개정 36:31-39

<sup>31</sup>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sup>32</sup>브울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sup>33</sup>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sup>34</sup>요밥이 죽고 데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sup>35</sup>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sup>36</sup>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sup>37</sup>삼라가 죽고 유브라테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sup>38</sup>사울이 죽고 악불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sup>39</sup>악불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므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36:31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 절은 구약 주석가들로 하여금 상당한 논란을 하게 한 본문이다.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언급이 있기에 이 부분은 이스라엘에 왕이 있는 후기에 기록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문서 가설(후기에 속하는 네 저자인 J, E, D, P)을 믿는 자들은 모세가 모세오경의 원저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서 이 절을 사용한다. 모세가 저자임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 절이 앞으로 왕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창 49:10; 민 24:7,17; 신 17:14-20 에서 이스라엘에 왕이 있을 것에 대하여 예언하였음을 반드시 인정해야만 한다. 나로서는 이것이 모세의 기록을 편집한 사람(그가 예레미야, 에스라, 혹은 어떤 선지자 학파에 속한 사람인지는 확실치 않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지만, 이같이 짧은 편집자의 설명이 모세가 오경의 저자라는 사실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 창 1-11 의 주석(제 1 권 A)에서 저자에 대한 서론인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를 보라.

36:32 “브올의 아들 벨라” 이 이름의 자음은 벨라(BDB 118)로서 브올(BDB 129)의 아들로 불린 발람과 비슷하다. 이것은 이 두 사람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함께 사용된 독특한 경우이다(참조, 민 22-24 장). 이 두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이 족보에서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다.

36:7 “유브라데 강변” “강”(BDB 625)을 나타내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대개의 경우 유프라테스 강을 지칭한다(즉, 31:21). 한편, 문맥에서 볼 때 이것은 에돔 지역에 있는 강을 뜻함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에돔의 어떤 왕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린 것에 대해 아무런 역사적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36:39 39 절에서 여러 여인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기에 올브라이트(저명한 미국 고고학자)는 에돔에서는 모계쪽으로 왕위가 계승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왕들의 경우 아무도 선왕의 아들이 아니었고 또 그 아내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음이 분명하기에, 비록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역사적 증거가 없지만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은 있다.

▣ “하달” 맛소라 본문에서는 “하달”(BDB 214)로 되어 있다. 한편, 대상 1:50 에서 이것은 “하단”으로 나타난다. 하단(BDB 212, 참조, 왕상 11:14,17,21,25)은 시리아 왕의 일반적 칭호였지만, 이곳에서는 시리아와 관련을 갖지 않는다.

#### 개역개정 36:40-43

<sup>40</sup>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딘나 족장, 알와 족장, 여덫 족장, <sup>41</sup>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sup>42</sup>그나스 족장, 데만 족장, 뎃살 족장, <sup>43</sup>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36:40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이것은 앞에서 언급된 족장들의 이름과 매우 비슷하게 보인다. 한편, 이 명단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이 장 전체를 에서의 후손에게 할애하였는가?
2. 왜 그 아내들의 이름 목록에 혼동이 생기는가?
3. 왜 다섯 개나 되는 서로 다른 명단이 이 장에 있는가?
4. 에서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의 관계를 간략히 설명하라
5. 헛 족속, 히위 족속, 호리 족속의 관계를 설명하라.

# 창세기 37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요셉의 꿈	위대하게 됨에 대한 요셉의 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37:1-2a	37:1-4	37:1-2a	37:1-2a	요셉과 그의 형제들
37:2b-4		37:2b-4	37:2b 37:3-4	37:2 37:3-4
37:5-8	37:5-8	37:5-8	37:5-7 37:8	37:5-11
37:9-11	37:9-11	37:9-11	37:9 37:10-11	
	형들이 요셉을 팔다		요셉이 팔려 이집트로 가다	형들이 요셉을 팔다
37:12-14	37:12-17	37:12-14a	37:12-13a 37:13b 37:14a	37:12-14
		37:14b-24	37:14b-15	
37:15-17				37:15-17
			37:16	37:16
요셉에 대한 음모			37:17	
37:18-24	37:18-22		37:18-20 37:21-24	37:18-20 37:21-25a
	37:23-28			
37:25-28		37:25-28	37:25-28	37:25b-27 37:28-30
37:29-36				
	37:29-36	37:29-30	37:29-30	
		37:31-32	37:31-32	37:31-35
		37:33-35	37:33-35	
		37:36	37:36	37:36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이것은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37-50 장의 내용인 야곱과 그의 가족(요셉이 강조된)이 이집트로 간 이야기의 시작으로 그 안에는 단지 두 개의 간략한 삽입 내용만 담고 있다.
1. 유다와 다말에 관하여(참조, 창 38 장)
  2. 각 지파에 대한 야곱의 축복에 대하여(참조, 창 49 장)
- 나. 이집트로 이주한 이 일과 그 결과는 창 15:13-16 에서 예언된 일이었다.
- 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다른 역사적 이야기와 다르다.
1. 야웨께서 요셉에게 직접적으로(천사로도) 나타나지 않으셨다
  2. 이 이야기는 긴 내용으로서 여러 장에 걸쳐 이어지는 구성을 갖는다
  3. 야웨께서는 비밀스럽고 감추어진 신학적 방법으로 일하신다(즉, 3:15-17 에 있는 “그 사람”)
  4. 지리적 배경이 우르에서 하란과 가나안과 이집트로 바뀐다

###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37:1-2a

<sup>1</sup>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sup>2</sup>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37:1 2a 절에 있는 내용 즉 창세기의 저자가 그의 책을 구분짓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구로 말미암아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1 절이 36 장과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1 절은 야곱의 정착 대에서의 정착 사이의 지리적인 대조를 나타낸다.

▣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한 부분이다(창 12, 15, 17 장; 28:4). 유목민적 삶과 약속의 땅에 거함은 믿음의 행동이었다.

37:2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것은 모세가 책을 구분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한 구이다 (참조, 2:4; 5:1; 6:9; 10:1; 11:10,27; 25:12,19; 36:1,9; 37:2). 이 구(혹은 삽입구)가 앞 부분을 가리키는지 혹은 뒷 부분을 가리키는지는 불확실하다.

**개역개정 37:2b-4**

<sup>2b</sup>요셉이 십칠 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sup>3</sup>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sup>4</sup>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 “요셉이 십칠 세의” 요셉을 그의 형제들이 종으로 팔 때 그의 나이가 중요하다. 창 41:46 에서 말하는 그가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30 세)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나이는 50:26 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된다(110 세).

▣ “소년으로서” 이 용어(BDB 654 II)는 “수련을 받는 자” 혹은 “도제”와 관련을 갖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참조, 출 33:11, 그곳에서는 여호수아와 모세의 관계를 나타낸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도 도제였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들에 있었고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들이 양떼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지는 않았다.

▣ “빌하” 이 여인은 라헬의 하녀이다. 라헬이 죽은 후에도 그녀가 계속해서 그를 양육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는 요셉이 빌하의 아들이라고 간주되었다고 본다. 창 30:5-7 에서 우리는 빌하의 두 아들의 이름이 단과 납달리임을 안다.

▣ “실바의 아들들” 이 여인은 레아의 하녀였으며 그녀의 아들들의 이름은 창 30:9-13 에 나온다. 그들은 갓과 아셀이었다.

▣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무슨 내용을 또 누구의 잘못을 말한 것인가는 알 수 없지만(같은 단어가 민 14:37 에 있는 열 정탐군의 말에 나온다), 요셉의 천진난만함은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자신을 미워하게 행한 여러 가지 일이 나온다.

1. 2 절에 있는 잘못을 보고한 일
2. 3-4 절에 나오는 특별한 외투를 야곱이 그에게 준 것
3. 5-10 절에서 언급된 그의 과시하는 꿈

37:3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야곱의 이름은 그가 압복 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이스라엘”로 바뀌었다(참조, 창 32:22-32). 이 이름과 관련하여 여러 어원을 고려할 수 있다. 나는 창 32 장의 문맥과 적합한 내용은 “엘이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한다. 32:28 의 특별주제를 보라.

야곱이 자기의 자녀에 대해 갖고 있는 편애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했어야 했지만 그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그의 편애는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거부하는 단계에 이르게 했다.

▣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베냐민이 라헬이 낳은 가장 어린 아들이었기에 이것은 약간 이상한 표현이다. 이 문장은 그가 여러 아들들을 낳은 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구의

문자적 해석은 고대 셈족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된다. 랍비들과 탈군은 이러한 상이점을 “나이가 들면서 지혜롭게 되는 아들”로 해석한다. 바로 다음 문맥은 이러한 해석이 적절한 것이 아님을 드러낸다.

■	
NASB	“여러 색의 옷옷”
NKJV	“여러 색이 있는 옷옷”
NRSV, REB	“소매가 있는 긴 겹옷”
TEV	“긴 소매가 달린 긴 겹옷”
NJB	“장식있는 옷옷”
70 인역	“여러 색이 있는 외투”
페쉬타	“긴 소매가 있는 비싼 겹옷”
JPSOA	“장식이 있는 옷옷”

이 히브리 단어(BDB 509 와 821 의 합성)의 어원은 불확실하다. 대개 일할 때 입는 짧은 소매의 옷옷으로서 남녀의 무릅까지 이르렀다. 이 특별한 옷옷이 손바닥과 발목을 다 덮는 긴 옷(BDB 821) 혹은 여러 색의 옷(70 인역)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이 옷은 작업복이 아니었다. 이러한 옷옷에 대한 언급은 삼하 13:18 에서만 나온다. 다말이 이러한 종류의 겹옷을 입었는데, 왕의 처녀 딸에게 적합한 옷이었다. 즉 이 옷은 왕을 암시하는 종류의 옷이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약속된 자로서 이해했다고 느꼈을 것이다. 왜냐하면 르우벤은 야곱의 첩과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살육했기 때문에 실격되었기 때문이다(창 34 장, 참조, 창 35:22).

IVP 성경 배경 주석(68 쪽)에서:

“이 시기에 속하는 이집트의 그림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성장은 긴 소매로 된 옷에 스카프 모양의 띠를 허리에서 무릅까지 대각선으로 수 놓은 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37:4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이 일은 요셉의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을 거부하는 상황을 가져왔다.

■ “미워하여” 이 동사(BDB 971, KB 1338, 칼 부정사 연계형)는 4,5,8 절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출 18:21; 20:5; 23:5; 레 19:17; 26:17; 26:17; 신 5:9; 7:10,15; 12:31; 16:22; 19:11; 30:7; 32:41 을 보라.

■	
NASB	“우호적인 어투로”
NKJV, NRSV, 70 인역	“평화롭게”
TEV	“우호적 자세로”
NJB	“정중한 말”
REB	“거친 말들”
JPSOA	“우호적인 말”

이것은 살롬(BDB 1022)이라는 히브리 명사이다. 그의 형제들은 문화적으로 평소 쓰는 인사조차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가 안락하고 건강하며 번영하기를 원치 않았다!

개역개정 37:5-8

<sup>5</sup>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sup>6</sup>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꾸은 꿈을 들으시오 <sup>7</sup>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 <sup>8</sup>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37:5 “요셉이 꿈을 꾸고” 창세기에서 이 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꿈과 환상을 통해 나타내셨음(참조, 20:3; 18:12; 31:11,24)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꿈이 신들의 계시를 나타내는 유효한 도구라고 인식했다. 요셉의 꿈은 그의 형제들이 느끼고 있는 마음의 상처에 소금을 뿌려 비벼대는 일로 여겨졌다(참조, 19-20 절).

37:7-8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것은 요셉의 걸음이 정확히 의미한 내용이었다. 이 일은 창 42:6; 43:26; 44:14 에서 성취되었다.

8 절에 두 가지 문법적 특징(같은 어근을 갖는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이 함께 사용됨)이 강조를 나타낸다.

1. 다스리다, BDB 573, KB 590
2. 지배하다, BDB 605, KB 647

같은 종류의 문법적 특징이 10 절에서도 나타난다

3. 참으로 가서 (땅에 앞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BDB 97, KB 112

**개역개정 37:9-11**

<sup>9</sup>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꾀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sup>10</sup>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꾀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앞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sup>11</sup>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37:9 이 꿈은 야웨께서 그의 가족의 공급자와 구원자가 되사 요셉이 장차 지도력을 갖게 됨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그의 어머니(즉, 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꿈을 문자적으로 생각하게 하지 않는다.

1.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예언적으로 미리 나타낸다
2. 요셉의 천진난만한 면을 나타낸다
3. 형제들이 그를 해함으로써 이집트를 그들의 피할 곳/노예 생활/출애굽의 장소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

문맥은 이러한 여러 해석 가운데 한 가지를 지지할 것이다. 요셉은 이 이야기에서 핵심 인물이 아니다. 바로 야웨께서 주인공이시다. 야웨께서 자신의 영원한 구속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이다. 요셉은 도덕적 사람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순진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은 요셉의 장점 때문이 아니라 야웨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이다.

37:10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이것은 매우 강한 히브리 용어(BDB 172, KB 199, *칼 미완료형*)로서 원래 “큰 소리로 외치다”를 뜻한다(참조, 램 29:27). 이 단어는 종종 열방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심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즉, 사 17:13). 야웨께서 사탄을 숙 3:2 에서 꾸짖으실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 “나와 네 어머니와” 우리는 이 당시 라헬이 이미 죽었음을 안다(참조, 창 35:19). 어떤 이는 야곱이 아직도 그녀를 옆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이것이 라헬의 언니인 레아 또는 요셉을 양육한 빌하를 가리킨다고 본다.

37:11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이 동사(BDB 888, KB 1109, *피엘 미완료형*)는 “미워하다”와 평행을 이룬다(참조, 4,5,8 절).

11 절의 이 부분은 28 절과 39:21 및 45:4 과 결합되어 스테반이 행 7:9 에서 행한 설교에 나온다.

■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께 관한 모든 일을 그 마음에 간직한 사실을 기억나게 한다(참조, 눅 2:19,51). 야곱은 하나님께서 족장의 축복을 받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계시하신 것을 깨달았다. 야곱이 이렇게 믿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전개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언약에 따른 가족의 약속된 지도자가 요셉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보였다. 한편, 우리는 이어지는 장들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셨지만 요셉에게는 그렇지 않으셨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또한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감을 알게 된다.

**개역개정 37:12-14**

<sup>12</sup>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 떼를 칠 때에 <sup>13</sup>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sup>14</sup>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 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37:13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요셉의 아버지가 그 형제들의 어떤 상태를 알려고 요셉을 보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어떤 이는 (1) 요셉이 그 형제들과 하나되게 하기 위하여 보낸 것이다 혹은 (2) 요셉이 이전에(참조, 2 절) 정확하게 해냈듯이 이번에도 그 형제들과 양떼의 안부와 관련된 모든 일을 요셉으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한다.

여기서부터 이 장의 끝까지 야곱과 요셉이 나눈 일련의 대화가 나온다.

1. “오라,” BDB 229, KB 246, **칼 명령**
2. “보낸다,” BDB 1018, KB 1511, **칼 미완료형이 청유형** 의 의미로 사용됨
3. “내가 가리라,” 여기에 **동사**가 없고 일반적 구약의 표현인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로 되어 있다. NASB 는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해석하였다
4. “가라,” BDB 229, KB 246, **칼 명령**
5. “보라,” BDB 906, KB 1157, **칼 명령**
6. “내게 말하라,” BDB 996, KB 1427, **히필 명령**

37:14 “돌아와 내게 말하라” 요셉은 이러한 일을 이전에 2 절에서 했었다.

**개역개정 37:15-17**

<sup>15</sup>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sup>16</sup>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sup>17</sup>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37:15-17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이 무명의 남자는 이 전체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낸다(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 일은 정확하게 그 목적을 위해 기록되었다! 창세기의 다른 곳에서 천사들이 “그 남자”(즉, 18 장)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남자도 천사였을 것이다.

37:17 “도단” 이 지명은 “두 우물”(BDB 206)을 뜻한다. 도단은 시리아에서 이집트로 가는 주요 무역로에 위치했다. 지도에서 헤브론과 세겜과 도단이 이 무역로에 위치한 주요 성읍임을 확인하라. 하나님께서는 후기의 성경 역사에서 자신의 임재하심을 이곳에서 다시금 나타내신다(참조, 왕하 6 장).

개역개정 37:18-24

<sup>18</sup>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sup>19</sup> 서로 이르되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sup>20</sup>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sup>21</sup>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sup>22</sup>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sup>23</sup>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끈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sup>24</sup>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37:18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이것은 그가 항상 입고 다녔을 아버지가 준 비싼 겂옷을 가리킬 것이다.

▣ “죽이기를 꾀하여” 이 드물게 사용된 동사(BDB 647, KB 699, *히트파엘 미완료형*)는 시 105:25 에 있는 미워하다와 평행을 이룬다. 야웨께서 미디안 사람들에 대해 하시는 말씀인 민 25:18 에서 이 동사는 *파엘형*으로 사용되었다. 이 단어의 *칼 분사형*이 “속이는 자”라는 의미로서 말 1:14 에서 사용되었다.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범죄(창 4 장)는 다시금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확인해 준다. 이기적인 생각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37:20 “우리가 말하기를” 32 절을 보라. 그들은 그를 어떻게 죽일지 그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 자기들의 행동을 자기 아버지에게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의논했다.

▣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것은 유산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 욕망을 나타내는 암시일 것이다. 그들은 요셉이 이것을 차지하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

37:21-22 “르우벤” 우리는 르우벤이 정확히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모르지만, 22 절의 마지막 부분에 근거하여 볼 때 그는 장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자기의 어린 동생을 보호할 마음을 가졌음을 보게 된다. 창 35:22 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그는 야곱과의 관계가 그가 행하는 일로서 회복되기를 바랐을 것으로 보인다. 나는 그가 요셉을 진심으로 구하기 원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29 절과 30 절에 나타난 그의 반응 때문이다. 이 사건은 그가 형제들로부터 영향력과 지도력을 상실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르우벤의 말을 주목하라.

1.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21 절, BDB 645, KB 697, *히필 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됨
2. “피를 흘리지 말라,” 22 절, BDB 1049, KB 1629,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3. “그 구덩이에 던지고,” 22 절, BDB 1020, KB 1527, *히필 명령*
4.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22 절, BDB 1018, KB 1511,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르우벤의 궁극적 동기가 표현되었다.

1.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BDB 664, KB 717, *히필 부정사 연계형*
2.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BDB 996, KB 1427, *히필 부정사 연계형*

37:24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우리는 이 십대 소년이 경험한 비극의 일부를 창 42:21 에 기록된 내용인 그가 살려달라고 간청한 점에서 엿볼 수 있다.

▣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것이 팔레스타인에 흔하게 있는 마른 물 구덩이(우물이 아니라 물을 모아두는 장소)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랍비들은 그곳에는 뱀과 전갈이 가득했다고 설명하지만 그것은 추측에 불과하다.

**개역개정 37:25-28**

<sup>25</sup>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sup>26</sup>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sup>27</sup>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칭송하였더라 <sup>28</sup> 그 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37:25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것은 이 형제들이 냉담함으로 그를 무시함을 보여준다.

▣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이들 대상을 설명하는 용어에 융통성이 있다(자료비평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여러 자료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했다).

1. 25 절에서 그들은 이스마엘 사람들로 불린다
2. 28 절에서 그들은 미디안 상인들로 불린다
3. 28 절에서 그들은 다시금 이스마엘 사람들로 불린다
4. 36 절에서 그들은 메단 사람들로 불린다(맛소라 본문)

삿 8:22,24 에서 보듯이 똑같은 그룹을 일컬음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명칭이 사용되었다. 또한 미디안 사람들과 메단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었다(참조, 창 25:2). 한편 메단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서기관들의 문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메단 사람들, *메다남*; 미디안 사람들, *미디남*). 이 대상이 여러 종족으로 구성되었거나 아니면 같은 종족의 구성된 이 대상이 여러 이름으로 불린 경우일 것이다.

▣ “그 낙타들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 향품과 향유는 이집트에서 (1) 방부처리를 위해 (2) 향의 사용을 위해 (3) 약의 용도로서 수입하는 중요한 물품이었다. 길르앗(그들이 출발한)은 이 향유로 유명했다.

37:26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르우벤의 참된 동기를 모르듯이 유다의 참된 동기를 모른다. 비록 그가 (1) 수익을 챙기고 (2) 그들의 손에 무죄한 자의 피를 대지 말자(즉, 살인)고 제안하였지만, 사실은 죽임을 당하는 일로부터 자기 형제의 목숨을 살려주려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리의 형제라,” 27 절).

만일 유다가 자기의 이복 동생을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라면, 이 일은 예수의 가계를 이루게 되는 그 아들을 긍정적으로 드러내는 일일 것이다. 만일 유다가 자신이 언급한 이유에서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일은 하나님의 목적이 한 인간의 공로나 가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참조, 창 38 장) 모든 인류에 대한 야웨의 영원하신 구속 계획에 기초하는 것임을 나타낸다(참조, 창 3:15; 12:3; 출 19:5; 12:3 에 있는 특별주제: 밥의 복음적 편향을 보라).

37:28 “은 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세겔”이라는 용어가 영어 성경에서 이탤릭체로 되어있음을 주목하라. 즉 이 단어는 히브리어 본문에 없지만 이를 가정하여 삽입한 것이다(참조, 20:16; 삿 17:2-4,10). 이 단어는 돈의 무게를 나타낸다. 우리는 레 27:5 에서 어린 종이 25 세겔에 팔렸고 나이 많은 종은 30 세겔(참조, 출 21:32) 혹은 “50 세겔”(참조, 레 27:3)에 팔렸음을 안다. 우리는 또한 노예를 매매하는 일이 이집트 역사의 전 기간에 걸쳐서 문화적으로 있었던 일이었음을 안다.

어떤 주석가들은 “그들”을 미디안 상인들로 해석하여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25 절에 나오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그를 판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야곱의 아들이 알지 못했기에 이 일은 29-30 절에 나오는 내용(요셉이 구덩이에 없음을 르우벤이 보고 반응한 일)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한편, 이러한 시나리오는 27 절을 설명하지 못한다! 현대 비평가들이 사용하는 기교는 종종 본문이 말하지 않는 더 많은 내용을 말하며 고대 히브리인들의 역사적 기록이 뜻하고 있지 않는 내용을 나타내는 문학적 전제를 가지고 있다.

▣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들이 택한 길이 요셉의 아버지가 있는 장막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길이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한편, 요셉이 이집트로 가게 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개역개정 37:29-36**

<sup>29</sup>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sup>30</sup>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sup>31</sup>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sup>32</sup>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sup>33</sup>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sup>34</sup>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sup>35</sup>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sup>36</sup>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37:29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 . . 옷을 찢고” 이것은 전통적으로 슬픔을 나타내는 표였다 (참조, 44:13). 또다른 슬픔의 의식이 34 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야곱이 요셉을 잃게 됨으로 말미암아 취한 행동이었다. 르우벤은 그들이 요셉을 팔려는 계획에 대해 말할 때에 그곳에 없었음이 분명하다.

**특별주제: 슬픔의 의식**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는 자신의 회개와 관련하여 혹은 공동체의 범죄를 인한 슬픔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표현했다.

1. 겹옷을 찢음, 창 37:29,34; 44:13; 사 11:35; 삼하 1:11; 3:31; 왕상 21:27; 욥 1:20
2. 베로 동임, 창 37:34; 삼하 3:31; 왕상 21:27; 렘 48:37
3. 신발을 벗음, 삼하 15:30; 사 20:3
4. 손을 머리에 얹음; 삼하 13:9; 렘 2:37
5. 재를 머리에 뿌림, 수 7:6; 삼상 4:12; 느 9:1
6. 땅에 앉음, 애 2:10; 겔 26:16(땅에 누움, 삼하 12:16); 사 47:1
7. 가슴을 찢, 삼상 25:1; 삼하 11:26; 나 2:7
8. 몸을 뺨, 신 14:1; 렘 16:6; 48:37
9. 금식함, 삼하 1:16,22; 왕상 21:27
10. 애가를 부름, 삼하 1:17; 3:31; 대하 35:25
11. 머리를 밟(머리카락을 잡아 뽑거나 면도함), 렘 48:37
12. 수염을 짧게 깎음, 렘 48:37
13. 머리나 얼굴을 가림, 삼하 15:30; 19:4

37:30 “나는 어디로 갈까” 이 질문을 르우벤이 무슨 뜻으로 하는 것일까?

1. 내가 어디가야 그를 찾을 수 있을까
2. 나는 그 없이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3.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나타내는 문학적 표현

37:35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요셉을 판 바로 그 자들이 지금 자기 아버지가 입은 손해에 대해 그를 위로하려 드는 점이 얼마나 아이러니가 아닌지 알 수 없다. “그의 딸들”에 대하여 약간의 추측이 있다. 이 단어는 디나 및 후에 태어난 자들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의 며느리들을 뜻하는 단어인가?

▣ “스울” 이것은 “무덤” 혹은 “사후 세계”를 가리키는 단어(BDB 982)이다. 이 히브리 단어의 두 어원을 생각할 수 있다: (1) “내려가다”와 (2) “묻다.” 후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묻는 것 혹은 많은 이들이 스울에 대해 묻는 일과 관련이 있다. 나는 구약의 스울과 신약의 *하테스*를 동의어로서 이해한다. 랍비들의 문학과 신약에 나오는 일부 증거에 의하면 의인과 악인이 서로 구별되는 두 장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15의 특별주제: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

37:35 “보디발” 이것은 “그(태양신인 레를 의미함)가 준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 이름이다(BDB 806). 이 이름의 긴 형태는 창 41:45에서 제사장 온의 이름에서 발견된다.

▣ “바로 의 신하” “신하”라는 이 용어는 문자적으로 “내시”(BDB 710, 참조, 스 1:10; 2:3)이다. 하지만 그가 결혼한 사람이었기에 이 용어는 거세된 사람이 아니라 “전령” 혹은 “신하”를 뜻한다 (참조, 왕상 22:9; 왕하 8:6; 24:12).

▣ “친위대장”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 “살륙 대장”(BDB 978 과 371의 **합성**)을 의미하기에 이 단어의 뜻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이는 삼상 9:23-24에 근거하여 이 칭호가 “우두머리 요리사”(BDB 371, 즉 백정)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창 37:36; 39:1; 40:3,4; 41:10,12; 왕하 25:8에 근거하여 이 단어가 “친위대장”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왕과 가까이 있던 사람(왕의 요리사처럼)이 친위병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 생긴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야곱이 요셉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 준 겹옷에 대해 설명하라. 이 옷은 무엇을 상징하였는가?
3. 왜 성경 저자는 15-17 절을 포함시키고 있는가?
4. 29 절과 34 절 및 구약의 다른 곳에서 슬픔을 나타내는 표로서 사용한 것을 열거해 보라.
5. 스울에 대한 당신 자신의 관점을 말하라. 또한 이 용어가 신약의 용어인 *하테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라.

# 창세기 38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 MT를 따름)
유다와 다말	유다와 다말	유다와 다말	유다와 다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38:1-5	38:1-11	38:1-11	38:1-5	38:1-5
38:6-11			38:6-11	38:6-11
38:12-19	38:12-23	38:12-19	38:12-14 38:15-16a 38:16b 38:17a 38:17b 38:18a 38:18b-19	38:12-14 38:15-19
38:20-23		38:20-23	38:20-21a 38:21b 38:22 38:23	38:20-23
38:24-26	38:24-26	38:24-26	38:24a 38:24b 38:25 38:26	38:24-26
38:27-30	38:27-30	38:27-30	38:27-30	38:27-30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38 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속한 문맥과 분명히 구분된다. 어떤 이는 이 장이 여기에 포함된 이유는 이 장이 마 1:3 과 눅 3:33 에서 인용하고 있는 바 유다 지파의 계보 즉 메시아의 계보를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장이 유대인의 배타주의와 민족적 긍지와 맞지 않음은 분명하다. 다말과 같이 가나안 여인이 이 족보에 들어있는 사실은 메시아의 혼합적 계보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예이다(참조, 라합과 롯).
- 나. 어떤 이는 38 장이 여기에 포함된 이유가 요셉의 형제들이 가진 도덕적 쇠락과 39 장에 기록된 바 요셉의 모본적 행동을 대조시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 다. 창세기는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서로 다름을 계속하여 보여준다. 이렇게 불명예가 영예로운 일로 뒤바뀌는 일은 구약 및 창세기의 특징이 된다. 신학적으로 이러한 특성은 야웨의 주권과 그의 우주적인 구속 계획을 드러낸다(즉, 창 3:15; 12:3c; 출 19:5c). 야웨께서는 창세기 3 장 이후로 자신이 창조하신 고집스런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특히 15 절에서, 이 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입은 모든 인간에 대한 약속을 나타낸다, 참조, 1:26-27). 어떤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38:1-5

<sup>1</sup>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들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sup>2</sup>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sup>3</sup>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sup>4</sup>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sup>5</sup>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

38:1 “그 후에” 여기서 사용한 히브리 구는 매우 모호하여 37 장과 38 장을 시간적으로 정확히 연결시키는 일이 확실하지 않다. 이것은 37 장 직후 혹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때를 가리킨다. 시간적 연결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을 주목하라.

1. 야곱이 그 땅에 거하였으니, 37:1
2. 그 후에, 38:1
3. 얼마 후에, 38:12
4. 석달쯤 후에, 38:24
5. 임신하여 보니, 38:27
6. 그 후에, 40:1
7. 만 이년 후에, 41:1

저자가 시간 의식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했지만 이것이 서구인의 순차적 역사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유다가 떠난 이유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었다. 어떤 이는 그 형제들의 도덕적 퇴보 혹은 요셉을 그들이 다른 방법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한다.

▣ “가까이 하니라” 이 동사는 문자적으로 “돌아서다”(BDB 639, KB 692, **칼 미완료형**)이다. 이 단어는 그가 형제들로부터 오랜 기간 떠나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지역은 후에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지역에 들어간다(참조, 수 15:35). 아둘람 굴은 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있던 곳과 관련이 있게 된다(참조, 삼상 22:1). 이곳은 분명히 유다 지방의 산간 지역으로서 해안 평야에서 가까이 있었다.

38:2 “수아” 이 이름(히라와 같이, 1 절, BDB 301)은 구약에서는 이곳에서만 나온다. 같은 어근의 자음(BDB 447)이 “독립적인” 혹은 “고상한”을 의미한다. 같은 세 자음으로 이루어진 단어가 “구원”(BDB 447)을 이룬다. 그러나 이 단어들 사이에 어떤 신학적 연결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이 소녀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그녀가 대상 2:3 에서 “밧수아”로 나오지만,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설명하는 말이다—“수아의 딸”).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유다가 사랑에 빠졌음이 분명하다. 가나안 사람과의 이 특별한 결혼은 이 직접적 문맥에서 따로 정죄되지 않고 있다. 유다가 이 한 명의 아내에게 대하여 충실한 남편이었음이 분명하다(참조, 12 절).

38:5 “거십” 랍비들은 이 지명(BDB 469)이 퇴보적인 의미를 가지며(이 지명은 “거짓,” 거짓됨,” “속이는 물건”을 뜻하는 어근과 비슷하다, BDB 469), 이 여인이 낳을 자녀가 어떠할지를 말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랍비들은 그들의 모든 문학에서 주위의 나라들에 대한 편견을 명백히 나타내었다. 이것은 단지 지명일 뿐이다. 수 15:44 에 나오는 악십(BDB 469)도 마찬가지로이다.

#### 개역개정 38:6-11

<sup>6</sup>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sup>7</sup>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sup>8</sup>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 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sup>9</sup>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sup>10</sup>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sup>11</sup>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38:6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유다는 자기 아버지가 자신의 신부를 정하도록 하지 않았지만, 문화적 전통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위해 아내를 선택해 주었다. 그가 야웨를 믿는 신앙적 배경을 고려할 때 유다가 고결한 여인을 선택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녀의 이름은 다말로서 “종려 나무”(BDB 1071 II)를 뜻한다. 성경에는 그녀와 같은 이름을 가진 여러 여인이 나온다.

38:7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구약에서 종종 나온다(참조, 32:13; 신 4:25; 31:29; 사 2:11; 3:7,12; 4:1; 6:1; 10:6; 13:1; 삼상 15:19; 왕상 11:6; 14:22; 15:26,34; 16:19,25,30; 21:20,25; 22:52; 왕하 3:2; 8:18,27; 13:2,11; 14:24; 15:9,18,24,28; 17:2,17; 21:2,6,15,16,20; 23:32,37; 24:9,19). 범죄함의 결과가 만연하여 있으며 파괴적으로 나타난다. 엘과 오난의 평행을 이루는 것 같이 보이는 행위가 8-10 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랍비들은 이에 대해 그들이 똑 같은 죄를 지었다(즉, “자신의 씨를 땅에 낭비한 것”)고 주장하지만 문맥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주장은 불명확하다. 엘은 자기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 일이 그녀로 하여금 자기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하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들은 설명한다.

그들이 알려진 기준을 범함으로써 부적절하게 행동하였음이 분명하다. 야웨께서 일시적인 심판을 사용하셨음도 분명하다(참조, 욥 22:15-16; 잠 10:27).

**38:8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 된 본분을 행하여”** 이것은 후기에 속하는 문화적 개념인 역연혼(참조, 신 25:5 이하)을 말한다. 우리는 성경에서 단 두 가지 예를 본다: 이곳과 룻기에서. 상속권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

유다는 그의 둘 째 아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다.

1.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BDB 97, KB 112, **칼 명령**
2. 남편의 아우 된 본분을 행하여, BDB 386, KB 383, **피엘 명령**
3.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BDB 877, KB 1086, **히필 명령**

역연혼(라틴어에서 “형제”를 뜻하는 levirate)에 대한 간략하면서도 훌륭한 설명이 있는 NIDOTTE 제 4 권 902-905 쪽 및 ABD 제 4 권 296-297 쪽을 보라.

**38:9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오난은 자기 형제와 함께 나누는 유산 보다 더 큰 유산을 자신이 누리게 됨에 관심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유일한 산아제한의 언급이다. 자기 형이 장자이기에 그의 자손에게 더 큰 몫이 돌아가게 되어 있었다. 이 장은 유다의 큰 두 아들의 악함을 분명히 드러낸다.

▣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히브리 동사는 그가 그녀에게 단 한 번만 들어갔음을 암시한다(두 개의 완료형 동사).

**38:11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 . .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지만 두 명이 다말과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유다는 자기 막내 아들도 죽게 되어 자신에게 아무 후손도 없게 될 것을 두려워 했다. 이 사건은 모든 족장들이 자기들의 씨를 통해 오실 약속된 메시아와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조절하려 했는가를 보여주려고 기록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 일은 다말로 인한 저주에 관련되는 것을 두려워 함을 나타낼 뿐이다. 유다가 자기 며느리에게 자기 막내 아들을 줄 의향이 전혀 없으면서도 그렇게 말한 일은 법적 요구 사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죄에 속한다. 다말이 친절로 돌아간 일(즉, 유다가 한 명령, BDB 442, **칼 명령**)은 문화적 규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참조, 레 22:13 및 룻 1:8).

**개역개정 38:12-19**

<sup>12</sup>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sup>13</sup>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덤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sup>14</sup>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덤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sup>15</sup>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sup>16</sup>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sup>17</sup>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sup>18</sup>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sup>19</sup>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38:12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그녀의 이름이 여전히 언급되지 않고 있다. 유다는 일부일처제를 행했고 이 가나안 여인을 매우 잘 돌보았다.

▣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 . . 담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양털깎는 시기는 축제의 기간이었다(참조, 삼상 25:4,36). 이곳은 후에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었다(참조, 수 15:57). 이 지역은 삼손과 관련이 있는 유명한 장소이다.

38:13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다말이 이 본문에 나타난 것보다 더 경건하게 행했다고 나는 생각한다(참조, 26 절). 리브가와 야곱의 경우에(참조, 25:23) 우리가 그들이 행한 방법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들의 행동의 배경에는 믿음과 신뢰의 요소가 있었다. 아브라함과 모든 족장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려 시도했듯이, 유다의 만며느리인 다말도 자손을 낳아야 함에 대한 특별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녀는 유다에게 아들을 낳는 일에 따르는 죽음의 위험을 기꺼이 직면하려 했고 자신이 받게 될 창피함을 무릅쓰고 행했다.

38:14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이 행위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유다의 가족에 관련이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유다가 한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참조, 11 절). 유다가 한 약속에 대해 그녀가 의문을 갖게 되기까지는 긴 기간이 흘렀음이 틀림없다(참조, 14 절).

▣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담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두 종류의 너울 혹은 “쇼울”(BDB 858, KB 1041)이 구약에서 언급된다. 이것의 사용은 이슬람 시대 이전에는 일반적이지 않았다. 리브가가 이삭을 만날 때에 사용했고(참조, 24:65) 여기서는 다말이 너울을 사용하고 있다. 모세도 시내 산에서 내려온 후에 자기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덮개를 사용했다(“베일,” BDB 691, 참조, 출 34:33,34,35).

우리는 시리아의 문서로부터 베일이 결혼한 성전 창녀의 상징이었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또한 베일이 이스탈 여신의 상징이 됨을 안다. 이 행위는 분명히 성전에서 일하는 창녀를 특징짓는 표식이었다. 비록 유다가 15 절에서 한 말이 아주 흔히 사용되는 히브리 단어였지만(“간음을 행하는 자,” BDB 275, KB 275, *칼 능동 분사*), 아둘람 사람 히람이 21-22 절에서 사용한 용어는 성소에 있는 창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BDB 873 I, 참조, 신 23:17-18; 호 4:14).

38:16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오늘날의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요소가 여기에 나온다: (1) 유다가 행한 정당한 행동과 다말이 행한 부적절한 행동 사이에 이중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2) 유다가 자신이 하는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었으며 또 창녀에게 값을 지불하는 절차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던 점을 인해 주석가들이 씨름한다. 우리의 동기를 가지고 고대 세계에 일어난 일을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또한 유다 지파에 있어서조차 도덕적인 해이가 있었음도 잘 인식해야 한다.

38:17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삿 15:1 에 기록된 삼손의 행동을 고려할 때 이것은 성적 대면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값이었을 것이다. 한편, 염소가 사랑의 여신을 상징하는 짐승이었음을 말하는 고대의 자료가 있다. 따라서 이 행위는 이러한 풍습을 배경으로한 일일 수 있다.

37:18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다말은 매우 상세히 계획을 세워 놓았다. 도장과 지팡이는 고대 근동에서 부유한 사람의 상징물로서 각 사람마다 독특한 형태로 된 것을 사용했다. 도장은 인장 반지(BDB 368, KB 364, 참조, 41:42) 혹은 원통형으로 된 도장으로서 목에 둘러 지니는 형태였다. 고대 바벨론에서는 싸인의 용도를 위해 누구라도 이러한 원통형 도장을 갖고 있었다(참조, 스트라보 16,1,20).

“끈”(BDB 836, KB 990)은 탈굽에서 “외투”로 번역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반지나 인장을 목에 두르기 위해 사용한 도구였음이 확실하다.

“지팡이”(BDB 641, KB 573)는 독특한 형태의 손잡이를 새겨 넣은 것으로서 걸을 때 사용하는 막대기였을 것이다. 유다가 살던 시대에 지팡이를 갖지 않고 걷는 일은 옷을 벗고 다니는 일과 같이

느껴졌을 것이다. 그는 이 창녀에게 치를 값의 보증으로서 자신이 가진 특별하면서도 소중한 물건을 기꺼이 넘기고 있다! 다말은 유다가 자신이 낳게 되는 아이의 아버지 됨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서 이를 사용하기 원했다!

**38:19** 다말이 즉시 집으로 돌아간 사실은 창녀의 삶이 그녀의 목적이거나 생활 양식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개역개정 38:20-23**

<sup>20</sup>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sup>21</sup>그가 그 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결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sup>22</sup>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 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sup>23</sup>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38:20**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히라가 여러 질문이 아니라 한 두 가지 질문(참조, 21 절)만을 하였다! 이 사실은 그 당시에도 창녀와 관계를 갖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음을 암시한다.

**38:23** 유다는 자신이 행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에 대해 걱정하였다. 당시의 문화에서는 창녀를 찾아가는 일이 어떤 도덕적이거나 영적(성전의 창녀일 경우에도, 21,22 절)문제와 결부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진다.

**개역개정 38:24-26**

<sup>24</sup>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sup>25</sup>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sup>26</sup>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도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38:24**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여기서 복수형을 사용하여, 다말이 반복적으로 성행위를 한 것이 분명함을 암시하고 있다. 단 한 번 성행위를 함으로써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녀가 한 잘못이 갖는 이러한 특징을 인해 그녀의 인격에 비난이 가해진다.

▣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지파의 우두머리인 유다는 자기 며느리를 처벌할 법적 책임이 있었다. 그녀를 불사르는 것은 신실하지 않은 아내를 벌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진 일이었다(참조,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의 딸들인 경우에만 불사르는 처형을 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돌로 쳐죽이는 방법을 취하였다(참조, 신 22:20-24; 레 21:9).

유다는 매우 강력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

1. 그를 끌어내라, BDB 422, KB 425, *히짚 명령*(즉, 그녀의 집에서 끌어내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2. 그를 불사르라, BDB 976, KB 1358, *니꼴 명령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이것은 공동체가 행하는 일이었다)

38:25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자신의 결정을 재고하기를 바라는 기대로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고 어떤 이는 설명한다. 또 어떤 이는 유다가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될 결정적 순간까지 그녀가 기다린 것이라고 설명한다. 구약의 모든 경우에서 그렇듯이(또 이러한 면에 있어서 신약에서도 그렇듯이) 우리는 심리적 동기에 대해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

▣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다말은 유다에게 “이 물건들을 “자세히 검사하라”(BDB 647, KB 699, *히꼴 명령*)고 말한다. 유다는 26 절에서 그렇게 했다(BDB 647, KB 699, *히꼴 미완료형*). 똑같은 *동사*가 여기서 사용되었고 37:32,33 및 42:7,8(2 회)에서도 사용되었다.

유다는 즉시 자신의 물건을 알아보았고, 당시의 법적 종교적 환경에 비추어 볼 때 미심쩍은 부분이 있음에도 다말의 행위가 적절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여기서 사용된 “*옴도다*”(BDB 842, 15:6의 특별주제를 보라)라는 용어는 그녀가 한 일이 죄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유다보다 더 적합하게 행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용례는 “의”가 신학적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에 속한다(참조, 30:33). 그녀는 이 가족의 상속자(들)를 낳기 위해 많은 점에 있어서 위험을 감수 했다! 그녀와 유다는 그 이상의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 욕정의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 믿음의 행위였다(13 절의 설명을 보라). 내 견해로는 이 전체 사건에서 다말이 참여장부로서 제시된다(이전에 리브가가 그러했다).

**개역개정 38:27-30**

<sup>27</sup>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sup>28</sup>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매었더니 <sup>29</sup>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sup>30</sup>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38:27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창세기에서 족장들의 아내가 종종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던 점과 또 그들이 종종 쌍둥이를 낳은 점은 의아하게 여겨진다.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신다! 계보는 하나님께 속했다!

38:28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매었더니” 이 실을 맨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이 일은 아마도 즉석에서 행할 수 있는 일로서 매우 보편적으로 행하던 일이었거나 혹은 그 당시의 문화적 관습이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구약 전체에 걸쳐 나오는 구속의 상징이나 표라고 설명한다(즉, 수 2:18,21). 나는 이러한 종류의 우화적 해석에 대해 개인적으로 불편함이 있다. 분명히 이것은 그 일을 목도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상세한 내역에 속한다.

38:29 “베레스” 이 이름(BDB 829 II)은 “뜸” 혹은 “갑자기 나오다”(BDB 829 I)를 뜻한다.

38:30 “세라” 이 이름(BDB 280 II)은 그 *동사형*이 “일어나다” 혹은 “나오다”(BDB 280)를 뜻한다. AB의 각주(297 쪽)는 이 이름의 뜻이 “빛나는”(BDB 280, 사 60:3에서만 사용됨)과 같은 자음으로 이루어진 어근에서 온 것으로서 밝은 색이 있는 실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또한 유대인의 연구 성경, 78 쪽을 보라).

장자를 구분하는 일은 상속권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이었다. 한편, 족장의 계보의 특별한 족보(즉, 메시아의 계보)에 있어서 이것은 사람의 선택을 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 안에서 행해질 우주적이며 구속적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참조, 3:15; 12:3c; 출 19:5c; 이사야서, 미가서, 요나서).

문자적 의미에서 이 장은 유다의 족보에 관한 사항을 제공한다. 즉 나중에 다윗의 아버지가 될 이새의 족보에 대한 사항을 제공하는 룻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다윗 왕의 족보에 가나안 여인을 포함한 이방인들이 나온다(참조, 룻)!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남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지역으로 간 일이 왜 중요한가?
2.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일을 성경이 정죄하고 있는가?
3. 유다는 왜 다말을 자기의 셋째 아들에게 주기를 두려워했는가?
4. 우리는 다말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무엇이 그 여자의 동기였는가?
5. 28 절에서 언급한 홍색 실에 어떤 중요성이 담겨 있는가?

# 창세기 39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 MT를 따름)
요셉이 이집트에서 성공함	요셉이 이집트에서 중이 됨	요셉의 성공, 유혹과 옥살이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요셉이 이집트에서 가진 초기 생활
39:1-6a	39:1-6	39:1-6a	39:1-6a	39:1-6a 요셉을 유혹하려는 시도
39:6b-18	39:7-18	39:6b-18	39:6b-10 39:11-15	39:6b-10 39:11-15
요셉이 갇힘			39:16-18	39:16-20a
39:19-23	39:19-20 39:21-23	39:19-23	39:19-23	감옥에 있는 요셉 39:20b-23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개역개정 39:1-6a

<sup>1</sup>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sup>2</sup>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sup>3</sup>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sup>4</sup>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sup>5</sup>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지라 <sup>6</sup>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39:1 “보디발” 이 이집트 이름은 “태양신이 주신 자”를 뜻한다(BDB 806). 그는 창 37:36 에서 이름이 언급되었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여성형 이름(즉, 보디베라, BDB 806)이 후에 창 41:45,50; 46:20 에 나온다.

▣ “애굽 사람” 요셉을 임명한 바로가 힉소스 사람 혹은 목자였던 지배자(주전 1720-1550 년, 역사를 다룬 비디오: 출애굽의 암호 풀이를 보라)였을 것이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추정한다. 이들 셈족 침략자들은 이집트를 수 백년간 지배했다. 그들은 이 이집트 사람(참조, 2 절)으로 불리는 관리가 셈족인 힉소스 통치자와 대비를 이룬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주장한다.

▣ “신하”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환관”을 뜻한다(37:36 의 설명을 보라). 한편, 40:2 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디발이 결혼하였음을 안다. 신체에 거세를 행한 어떤 사람들이 결혼을 했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이 용어는 단순히 왕궁에서 사용되는 공적 호칭을 이 본문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바로” 이것은 이집트의 모든 왕을 일컫는 호칭이다(BDB 829, 문자적으로 “큰 집”). 이집트 왕들은 태양신인 레의 아들로 여겨졌다. “큰 집”은 왕궁 혹은 이집트 신들이 지상에서 거주하는 신전 지역을 나타낸다.

▣ “시위대장” 이것은 문자적으로 “살육자” 혹은 “도살자”(37:36 의 설명을 보라). 어떤 이는 이 용어가 사형집행자를 뜻하는 말과 매우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성경에서와 성경 이외의 자료에서 이 직책은 왕을 호위하는 군사적 임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보디발은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서 영향력이 있고 또 부유한 사람이었음을 말한다.

▣ “이스마엘 사람” 이 유목민인 대상들의 신원을 확인함에 있어서 많은 질문이 있었다. 창 37:36 에서 그들은 미디안 사람 혹은 메덴 사람들로 불린다(37:35 의 설명을 보라). 이 그룹의 사람들은 창 37:28 및 사 8:22,24 에서 같은 사람들로 제시된다. 이스마엘 및 그의 후손과 이들과의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다.

39: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창세기의 이 부분에서 야웨라는 이름이 드물게 사용되었기에 이 내용은 신학적으로 중요성을 나타낸다. 사실상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 이 내용은 유일하게 나오고 있다. 이 일이 또한 가나안 밖에서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음을 주목하라. 야웨의 활동은 약속의 땅 안에서만 나타나도록 제한받지 않는다(참조, 스테반이 행 7 장에서 행한 설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은 이 장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며, 이 일로 인해 그가 축복을 받는 것이 이 이야기의 주요 줄거리를 이룬다.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공이다!



▣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형통한”(BDB 852 II, KB 1026, *히필 분사*) 사람이었고 그 주위에 사람들도 더불어 형통하였고 번영하였다. 이 일은 야곱이 있음으로서 라반에게 일어났던 바로 그 일이었다. 보디발은 요셉이 있음으로 인해 임하는 특별한 축복을 주목하여 보았다(참조, 3 절).

이 동사의 *히필형*과 *칼형*은 어떠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성취함을 나타낸다(이는 외적 축복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1. 창 24:21,40(*히필*)
2. 삿 18:5(*칼*)
3. 대하 26:5(*히필*)
4. 느 1:11; 2:20(*히필*)
5. 사 53:10; 55:11(*칼*)
6. 단 8:12,24; 11:36(*칼*)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를 연구함에 있어서 영어 단어가 갖는 직접적 혹은 함축적 의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것은 그가 밭에서 일하는 자였거나 혹은 종의 구역이 아니라 주인의 집에서 살았다고 하는 말과 대비를 이룬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다.

39:3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맡긴 것은 단순히 그의 행정적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독특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 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었다. 보디발이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종교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소득이 많아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39:4 요셉의 봉사가 두 가지로 표현된다.

1. “가정 총무,” BDB 1058, KB 1661, *피엘 미완료형*, 높은 지위의 관리인, 참조, 삼하 13:17,18; 왕상 10:5; 왕하 4:43; 6:17
2. “돌보다,” BDB 823, KB 955, *히필 미완료형*, 참조, 왕하 25:23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그를 “부원장” 혹은 “비서실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시의 이집트의 문학에서는 “가정 총무”였다.

39:5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이 일은 구약 시대 전체에 걸쳐서 진리로 나타난다. 언약 백성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물질적 축복을 누리게 된다(참조, 창 12:3; 30:27).

39:6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역사가들은 이집트인들과 다른 모든 외국인 사이에 종교적 규정에 따른 엄격한 식사 규정이 그들을 구별지었다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유대인과 다른 모든 외국인 사이에 있는 다른 식사 규정이 있음과 같다. 이것이 이러한 예외의 이유가 되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차이점이 이집트 사회에 있었음은 분명하다(참조, 창 43:32).

**개역개정 39:6b-18**

<sup>6b</sup>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sup>7</sup>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sup>8</sup>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sup>9</sup>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sup>10</sup>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sup>11</sup>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sup>12</sup>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sup>13</sup>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sup>14</sup>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sup>15</sup>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sup>16</sup>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sup>17</sup>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sup>18</sup>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것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참조, 창 29:17)에 대해 사용된 바로 그 표현이다(“빼어나고,” BDB 421, “용모,” BDB 1061, “아름다움,” BDB 909). 구약에는 메시아의 계보와 관련하여 용모가 빼어난 사람이 여러 명 언급된다. 이 구는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도 사용되었다. 사울은 키가 컸음에도 용모가 빼어난 사람이었다. 아름다움/용모가 빼어난은 문화에 따라 또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라. 요셉의 육체적 용모는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이 되었다.

39:7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우리는 이집트 여인들이 그 사회에서 사회적 관련을 갖는 것이 가능함을 본다. 또한 그 문화에서는 이집트 여인들의 음탕함과 관련하여 잠언이 말해졌다. 보디발의 아내는 매우 교활하게 요셉에게 접근했다. 그녀의 계획은 시간을 두고 발전 되었으며 여러 단계에 걸쳐 성적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참조, 10 절).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여인이 매일 매일 다가와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일은 이 젊은 히브리 청년에게 있어서 매우 커다란 압력이 되었음이 틀림없다. 38 장에서의 유다의 행동과 이 장에서의 요셉의 행동 사이에 커다란 대조가 나타난다!

39:8-9 이 두 절에서 요셉이 매우 논리적이며 합당한 대답을 그녀에게 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 내용은 보디발이 자신에게 보인 친절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이는 함축적으로 범하지 말아야 할 그녀의 독특한 지위에 대해 말한다. 또한 요셉은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과 관련지어 볼 뿐 아니라 자신의 성적 생활도 하나님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다. 그가 난잡한 성생활을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 대한 죄로서 이해함은 물론 이 일을 *엘로힘*께 대한 죄로 인식하고 있음은 매우 중요하다. 그가 하나님의 일반적 이름을 사용함을 주목하라(즉, *엘로힘*).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종교적으로 무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야웨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12:1의 특별주제를 보라).

39:10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것은 그에게 계속적으로 가해진 성적 압력이었으며 또한 주인의 아내가 내리는 성적 명령이었다. 요셉은 노예였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지 못했다!

39:11 이 본문이 나타내는 함축적 의미는 요셉이 정기적으로 집의 일을 보러 올 때에 맞추어 그녀가 다른 하인들을 나가게 계획하였음을 뜻한다. 랍비들은 이 때가 이집트의 축제 날이었는데 그녀는 아프다는 핑계로 집에 머물러 있어 요셉을 유혹하려 했다고 설명한다.

39:12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어떤 이는 요셉이 바보같이 자기 의복(BDB 93,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는 모름, UBS *창세기 핸드북*, 895 쪽은 당시 이집트의 종들은 겹옷을 입지 않았고 짧은 옷옷만 입었다라고 주장한다)을 두고 나갔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던 말인가?! 이것은 분명히 성욕으로 인한 유혹에 대한 적절하면서도 영적 답이 된다(참조, 딤후 2:22; 뱀후 1:4).

39:13-18 이 절들은 보디발의 아내가 다른 이집트인 종들에게와 자기 남편에게 그를 고소하는 내용이다.

39:14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집 가까이 있었지만 집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녀의 진술 가운데 몇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1. 그녀는 이 히브리 종을 집 안으로 데려 온 일에 대해 남편을 비난한다(참조, 19 절)
2. 그녀는 그가 히브리 사람이었기에 인종적 비방을 하고 있다

이집트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외국 사람들 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다.

▣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BDB 720)이라는 용어는 다음 두 가지 가운데 한 기원과 관련을 가진다: (1) 아브라함의 가족이 유래한 조상인 에벨에서 왔다(참조, 창 11:16, 이 단어는 아브라함 [14:13]과 그의 후손에 대해 사용됨[참조, 39:14,17; 40:15; 41:12; 43:32]) 혹은 (2) 텔 엘 알마르나 서판에서 하비리(이주자)를 칭하는 용어로서 강 건너 편에서 온 유목민을 통칭하는 용어임

▣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우리를 놀리다”(BDB 850, KB 1019, *피엘 부정사 연계형*)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이 절에서 “우리를 성적으로 괴롭히려는 것”을 뜻하는 문화적 관용어로 사용되었다(참조, 26:8). 이 말은 요셉이 이러한 행위를 그녀와 보디발의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했다는 뜻을 내포한다.

#### 개역개정 39:19-23

<sup>19</sup>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sup>20</sup>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던지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sup>21</sup>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라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sup>22</sup>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sup>23</sup>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39:20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이러한 종류의 범죄에 대한 벌은 일반적으로 사형이었다(IVP 성경 배경 주석, 71 쪽). 이 결과는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에 대하여 진실성을 의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나는 요셉이 비록 하나님께 커다란 믿음을 가졌지만 이 시점에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그가 많이 놀랐을 것이라 생각한다(참조, 창 40:15)!

▣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던지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것은 감옥을 뜻하는 독특한 용어이다. 그 어근은 “둥글다”(아가 7:2 에서) 또는 “갇힌”(BDB 690, 39:20-23 및 40:3,5 에서만 나옴)이다. 어떤 주석가는 이곳이 둥근 모양의 감옥이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곳이 시위대장(즉, 보디발)의 집에 있는 특별한 건물이었다라고 생각한다. 이 설명이 맞다면 우리는 요셉이 주인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주인의 감옥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음 단계의 일을 시작하신다. 요셉은 37 장 이후에 야웨께 대한 믿음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변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

39:21-23 여전히 독특하고 분명하면서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것은 그가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꿰뚫어 보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심이 분명하게 그와 함께 있었음을 말한다.

39:23 이 구는 6 절과 비슷하다. 요셉은 모든 일을 맡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행정가였으며, 후에는 우리가 보게 되듯이 꿈을 해몽하는 자가 된다.

# 창세기 40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요셉이 꿈을 해몽하다	죄수들의 꿈	꿈 해몽자 요셉	요셉이 죄수들의 꿈을 해몽하다	요셉이 바로의 관리들이 꿈 꿈을 해몽하다
40:1-8	40:1-8	40:1-8	40:1-4 40:5-7 40:8a 40:8b	40:1-4 40:5-8
40:9-15	40:9-15	40:9-15	40:9-11 40:12-15	40:9-15
40:16-19	40:16-19	40:16-19	40:16-17 40:18-19	40:16-19
40:20-23	40:20-23	40:20-23	40:20-23	40:20-23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개역개정 40:1

<sup>1</sup>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sup>2</sup>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sup>3</sup>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sup>4</sup>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sup>5</sup>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sup>6</sup>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sup>7</sup>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sup>8</sup>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40:1 “애굽 왕의 술 맡은 자” 이 단어는 “마시다”라는 동사(BDB 1052)에서 왔다. 이 단어는 종종 “집사”로 번역되었다. 아람어 역은 이 단어를 “술 맡은 장관”으로 번역하였다. 이 직책에 대한 언급으로서 두 단어가 성경에 더 있다: (1) 느 1:11(BDB 1052 I)과 (2) “랍사게”(BDB 913 II, 참조, 왕하 18:17,19,26,27,28,37; 19:4,8; 사 36:2,4,11,12,13,22; 37:4,8)라는 용어가 있다. 분명히 이 사람은 고위 궁정 관리였으며 매우 신임받는 사람이었다. 그는 왕의 식사를 맛보고 또 그것을 가져올 뿐 아니라 개인적인 자문도 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왕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려는 음모에 대해 늘 경계를 하였을 것이다. 그는 요리를 담당하는 호위관이었다!

▣ “떡 굽는 자” 떡 굽는 자(BDB 66, KB 78, *칼 능동 분사*)도 매우 중요한 관리로서 고대 동양의 궁정에서 신임받는 자였다. 57 가지의 빵과 더불어 38 가지의 케익을 정기적으로 만든 이집트에서 그의 중요성은 더욱 특별하다. 어떤 종류의 빵에는 색소를 사용하여 물을 들였고, 여러 종류의 곡류를 사용하였으며, 또 이집트의 특징적인 물건들과 어떤 짐승의 모양을 흉내낸 여러 형태의 빵을 만들었다.

▣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이 어떻게 범죄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언급되지 않았다. 아마도 (1) 음식이나 술의 품질과 관련되었거나 (2) 그들의 자문, 혹은 자문을 주지 못한 일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범죄했다”라는 동사(BDB 306, KB 305, *칼 완료형*)는 광범위한 의미의 영역을 가진다(“목표를 빗나가다,” “죄짓다,” “잘못되다,” 참조, 39:9; 42:22; 43:9). 라쉬(중세의 유대인 주석가)는 그 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그들이 왕의 포도주에서 파리를 발견했고 (2) 그들이 왕의 빵에서 돌조각을 찾아냈다. 한편, 이러한 해석은 단지 추측에 지나거나 혹은 구전에 의존한 해석일 뿐이다.

40:2 “바로가 ... 노하여” 이 동사(BDB 893, KB 1124, *칼 미완료형*)는 종종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

1. 하나님께서 노하심, 레 10:6; 민 16:22; 신 1:34; 9:19
2. 사람의 노함
  - ㄱ. 모세, 출 16:20; 레 10:16; 민 31:14
  - ㄴ. 블레셋 대장, 삼상 29:4
  - ㄷ. 나아만, 왕하 5:11
  - ㄹ. 하나님의 사람, 왕하 13:19
  - ㅁ. 아하수어로, 예 1:12
  - ㅂ. 왕의 호위병, 예 2:21

이 단어는 강렬한 진노를 뜻하는 용어로서 이에 따른 행동을 수반한다. 이것은 39:19 에 있는 “그가 심히 노했다”(BDB 354, KB 351)와는 다른 용어이다.

40:3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친위대장”이라는 호칭은 보디발을 가리킨다(참조, 37:36; 39:1). 보디발의 간수장(BDB 978)은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 일을 돌보게 했다. 이 두 죄수가 복직될 경우 왕궁의 강력한 적이 될 수 있기에 이들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죄수였음이 분명하다.

▣ “간힌 곳이라” “간힌”은 “문자적으로 “묶인”(BDB 63, KB 75)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셨지만, 요셉은 아마도 어느 기간 동안 착고에 묶여 있었을 것이다(참조, 시 105:18). 이것은 힘들고 참혹스러운 삶이었다. 우리는 요셉이 얼마 동안 감옥에 있었는지를 모른다—어떤 주석가들은 그 기간이 10 년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즉, 4 절의 “여러 날”).

40:4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이 사람은 이 고위 관리들을 잘 대우하려고 했는데, 요셉이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우리는 “친위대장”이 누구를 말하는가에 대해 의아할 것이다

1. 보디발, 37:36; 39:1
2. 간수장, 39:21-23

이곳은 보디발의 관리 아래있는 특별한 감옥으로서, 보디발은 “간수장”에게 일을 위임했고 간수장은 요셉에게 일을 위임했을 것이다.

40:5 이 절은 요셉이 받은 두 번째 은사를 잘 드러내기 위한 문학적 단계를 제공한다(즉, 꿈 해몽). 야웨께서는 종종 자기 백성에게 환상을 통해 자신(또는 야웨의 천사)을 계시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백성에게는 종종 꿈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다(참조, 20:3; 31:24; 41:1; 단 2 장).

40:6-7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 시점에서 볼 때 요셉은 감옥에서 묶여 지내지 않았으며 또 이 두 사람의 신체적 정서적(“근심의 빛,” BDB 277 II, KB 277, *칼 능동 분사*) 상태를 면밀히 돌보고 있었음도 분명히 알게 된다.

40:8 요셉은 다시금 삶에 대한 그의 기본적 견해를 나타낸다(즉, 하나님께서 꿈을 포함하여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 참조, 41:16,25,28; 단 2:27-28,45). 요셉이 어린 아이였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사(참조, 창 37 장) 그 꿈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었지만, 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이르다”라는 동사(문자적으로 “자세히 이야기하다,” BDB 707, KB 765, *피엘 명령*)는 다음 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되었다(“말하여,” *피엘 미완료형*, 참조, 37:10).

#### 개역개정 40:9-15

<sup>9</sup>술 말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sup>10</sup>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sup>11</sup>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sup>12</sup>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sup>13</sup>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말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sup>14</sup>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sup>15</sup>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40:9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많은 주석가들이 이 내용을 역사화된 꿈으로 말하는데 그 이유는 이집트에서는 발효된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점에 있어서 고대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의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집트에서 발효시킨 포도주를 일반인의

음료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종류의 포도주를 제사장들과 왕족들이 사용했다. 따라서 이 포도주는 왕이 마시는 음료의 독특한 상징이 된다(제임스 M. 프리먼, *성경에 나오는 풍습과 태도*, 45 쪽을 보라).

40:11 “**즙을 짜서**” 놀랍게도 이 동사(BDB 965, KB 1315, **칼 미완료형**)는 구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40:13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신임을 받아 복직이 되었다.

“당신의 전직”으로 해석된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판단”(BDB 1048)을 뜻한다. 이 단어는 아주 드문 경우에만 신학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대개의 경우 이 단어는 “재판” 혹은 “정의”로 번역되었다.

40:14-15 봉사와 친절로 그들을 섬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 호의를 구한다. 그는 자신의 처한 상태가 부당함에 대해 설명하고 또 바로에게 자신을 구출해 달라는 요청을 부탁한다. 요셉은 자신이 잡혀 온 종이기 때문에 바로의 감옥에 죄수로서 있지 않아야 했다.

40:15 요셉의 생각에서 “끌려왔다”(문자적으로는 “흠침을 당했다”)라는 표현은 그가 자기 형제들에 의해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표현은 같은 어근(BDB 170, KB 198)을 갖는 부정사 **절대형**과 **완료형 동사**가 함께 사용된 경우로서 그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낸다.

▣ “**히브리 땅에서**” 이것은 다음의 내용과 관련을 가질 것이다

1. 후기에 속하는 편집자/서기관이 이 내용을 삽입한 것
2. 족장들이 살던 땅을 의미하는 용법(만일 이 설명이 맞다면,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된 것임)

▣ “**옥에**” 이 단어(BDB 92)는 그의 형제들이 그를 던져 넣었던 마른 우물과 같은 단어로 되어 있다(참조, 37:24). 그는 한 구덩이를 사용하여 다른 장소를 표현하고 있다!

죄수라는 이 용어는 이곳과 출 12:29; 렘 37:16 에서만 사용된다.

#### 개역개정 40:16-19

<sup>16</sup>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sup>17</sup>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sup>18</sup>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sup>19</sup>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40:16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흰 떡”(BDB 301 I)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매우 드물게 사용된 용어로서 “흰 색”(NIDOTTE 제 2 권 54 쪽)을 뜻하는 아랍어 어근과 아랍어 어근에서 왔다. 이것은 흰 색의 고리버들로 만든 바구니를 의미할 것이다. 그 위에 새들이 앉아 윗 쪽과 옆 쪽에 있는 빵을 먹었을 것이다(참조, 17 절).

가나안에서는 여인이 무거운 빵 덩어리를 머리 위에 이고 가지만 이집트에서는 남자들만 자기 머리 위에 무거운 빵 덩어리를 이고 다니고 여인들은 빵 덩어리를 어깨 위에 메고 다닌 점은 흥미롭다. 이러한 내용은 이 기록의 독특한 역사성을 나타낸다.

40:1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이집트 문서들에서 확인하는 바로서 이 기록이 역사적으로 매우 정확한 것임을 나타낸다. 즉 이집트에는 38 종류의 케이크와 57 종류의 빵이 있었다(1 절의 설명을 보라).

40:19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13-19 절에서 볼 때 이곳에 있는 “당신의 머리를 들고”(BDB 669, KB 724, **칼미완료형**)라는 표현은 앞의 표현을 완전히 재해석한 내용이다. 13 절에서 이 표현의 의미는 단순히 “그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 사람의 머리를 들다”를 뜻한다(참조, 민 6:26). 이것은 “놓아주다”를 뜻한다(참조, 왕하 25:27). 19 절에서 이 단어는 “목을 자르려고 사람의 머리를 들다”를 뜻한다(BDB 671, 3,b).

19 절은 교수형을 뜻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을 베어낸 후에 교수형을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 머리를 단다는 표현은 그가 이미 죽은 후에 공개적으로 목을 매달거나 찌르는 행위를 나타냄이 분명하다(참조, 수 8:29; 삼상 31:9-10; 삼하 4:12). 죽은 이의 몸을 보존하기 위해 방부처리를 매우 강조하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들이 그의 몸을 쪼아먹게 된다는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의 사항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다

1. “감옥”(문자적으로 “둥근”), 39:20-23; 40:3,5
2. “옥”(문자적으로 “구덩이”), 40:15
3. “들어 올리다”

이 감옥이 땅 속에 있는 둥근 형태의 커다란 구덩이가 아니었을까?

**개역개정 40:20-23**

<sup>20</sup>제삼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sup>21</sup>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sup>22</sup>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sup>23</sup>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0:20-23 이 일이 요셉이 해몽한대로 성취되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BDB 269, KB 269, **칼 완료형**). 오직 하나님께서만 요셉을 도우실 수 있으심을 또 다시 말한다. 하나님은 그가 가진 유일한 재원이다!

다시 말하지만, “머리를 들게 하다”라는 동사가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약간의 모호함이 나타난다, 참조, 20 절).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보디발은 왜 요셉을 승진시켰는가?
2. 이 장에서의 요셉은 앞 장에 나오는 유다와 어떻게 대비되고 있는가?
3. 요셉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인식했는가?
4. 하나님께서는 항상 꿈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구약에서 볼 때에 꿈을 해몽하는 능력은 모든 이에게 주시는 영적 은사인가 아니면 제한된 사람에게만 주시는 영적 은사인가?

# 창세기 41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바로의 꿈	바로의 꿈	요셉의 승진	요셉이 왕의 꿈을 해몽하다	바로의 꿈
41:1-8	41:1-8	41:1-8	41:1-8	41:1-4 41:5-7 41:8-13
41:9-13	41:9-13	41:9-13	41:9-13	
요셉이 해몽하다				
41:14-24	41:14-24	41:14-21	41:14-15 41:16 41:17-24	41:14-16 41:17-24
41:25-36	41:25-36	41:25-36	41:25-32 41:33-36	41:25-32 41:33-36
	요셉이 권세를 갖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다	요셉의 진급
41:37	41:37-45	41:37-45	41:37-46a	41:37-43
요셉이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다				
41:38-45				41:44-45
41:46-49	41:46-49	41:46-49	41:46b-49	41:46-49
요셉의 아들들				요셉의 아들들
41:50-52	41:50-52	41:50-52	41:50-52	41:50-52
41:53-57	41:53-57	41:53-57	41:53-57	41:53-57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41:1

<sup>1</sup>만 이 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꾀즉 자기가 나일 강 가에 서 있는데 <sup>2</sup>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 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sup>3</sup>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 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 가에 서 있더니 <sup>4</sup>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sup>5</sup>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sup>6</sup>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sup>7</sup>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깰즉 꿈이라 <sup>8</sup>아침에 그의 마음이 변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41:1 “만 이 년 후에” 이 내용이 40 장의 내용과 연결이 됨은 물론이다. 앞 장에서 요셉은 두 죄수의 꿈을 해몽해 주었다. 둘 다 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대하였지만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 날 한 관리는 복직되었고 다른 한 관리는 처형되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자/편집자가 줄곧 시기를 알려 주는 점이 흥미롭다: (1) 그가 종으로 팔린 때는 17 살 되었을 때였다(참조, 창 37:2) (2) 그가 삼십세에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가 되었다(참조, 창 41:46). 이 내용을 고려할 때 요셉이 감옥에 머물러 있던 기간은 13년 미만이 될 것이다. 보디발의 아내가 사건을 일으키기 이전에 그가 얼마동안 보디발을 섬겼는가에 따라서 감옥에서 지낸 기간이 달라지게 된다.

▣ “바로” 바로는 이집트 왕에 대한 총괄적인 칭호로서 시리아의 하닷, 로마의 시저, 러시아의 차르와 같은 호칭이다. 이 용어의 어원은 불확실하지만 대부분의 이집트학 학자들은 이 단어가 “큰 집”(BDB 829, 즉 신들의 집)을 가리키는 구로 추정한다. 요셉이 이집트 전국의 두 번째 치리자가 된 때가 언제였는가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지만, 많은 이들은 이 시기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셈족이 “목자인 왕”으로 불렸던 히소스 시대에 일어난 것이라고 상정한다(AB 316 쪽을 보라). 그들은 주전 1730 부터 1570 년까지 다스렸다. 한편, 분명히 나일 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강”이라는 용어가 1 절에서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가 제 18 왕조나 주전 1546-1085 년 사이에만 사용된 형태의 단어로 되어 있는 점은 흥미롭다. 이집트의 자료를 보면 앞서 언급한 두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더 많은 셈족의 사람이 이집트에서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음을 알게 된다.

▣ “꿈”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꿈과 그 해석에 관한 많은 자료가 있다. 두 히브리 사람이 이방 왕을 위해 각각 꿈을 해몽한 점이 흥미롭다: 다니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했고 요셉은 이집트에서 꿈을 해몽했다.

NIDOTTE 제 2 권 154 쪽은 세 종류의 꿈에 대하여 흥미로운 설명을 한다.

1. 자연적인 잠, 시 126:1; 사 29:7-8; 전 5:7
2. 거짓 계시, 렘 23:25,27,32; 27:9-10; 29:8; 숙 10:2
3. 참된 계시, 창 20:3; 28:12; 민 12:6; 왕상 3:5; 단 2:28; 마 1:20

환상은 종종 밤에 나타났지만 꿈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고 있다. 야웨께서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상징이나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그가 잠재의식에 있는 상태에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 “나일 강” 이것(BDB 384)은 연속해서 언급되는 순 이집트 용어의 처음 단어이다. 용어들 뿐 아니라 그 문맥 자체가 문화적으로 이집트의 문화를 나타낸다. 이 강은 해마다 범람하여 이집트의 생명과 풍요의 원천이 되었다. 그들은 기쁘게 헤드려야 할 신으로서 이 강을 여겼다(참조, 출 1:22).

41:2 “일곱 암소” 우리는 로마의 역사가인 플루타르크 및 초대 교회의 교부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로부터 “암소”(BDB 831)가 이집트의 땅이 비옥함을 상징하는 것임을 안다. 이집트에서는 암소가 중요한 가축이었고 팔레스타인에서는 양이 중요한 가축이었다. 이집트 사람의 꿈에서 암소는 농업적 풍요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음이 분명하다(즉, “윤기나는,” BDB 421[문자적으로 “아름다운”], “살찐,” BDB 135).

▣ “강 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이것은 이집트 용어를 차용하여 사용한 또 다른 경우에 속한다. 우리는 이집트의 자료를 통해 가축이 여러 이유에서 나일 강을 따라 물에 들어갔다 나옴을 안다: (1) 몸을 시원하게 하고 (2) 벌레들을 떼어내며 (3) 습지의 싱싱한 풀을 먹기 위함(BDB 28)이었다.

41:3-4 이 암소들은 2 절에 나오는 건강한 암소들과 큰 차이가 난다.

1. 흉하고(문자적으로, “보기에 나쁘고”), BDB 948 I 과 BDB 909 의 **합성**
2. 파리하고(문자적으로, “살이 여위고”), BDB 201 과 BDB 142 의 **합성**

그 암소들이 건강한 암소들을 먹어버렸다(BDB 37, KB 46, **칼 미완료형**, 4 절).

41:5 두 번째 꿈은 암소가 곡식의 이삭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앞의 꿈과 같다(BDB 987 II).

4:6 “동풍”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BDB 870)은 땅의 작물을 말라 죽게하는 잘 알려진 바람으로서 팔레스타인에서는 “실로코”(아람어)로 불렸다. 이 바람은 남동쪽이었다. 이집트에서는 이 바람을 “감심”으로 불렀는데 주로 남쪽과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다. 이 바람이 겔 17:10 과 호 13:15 에서도 언급되었다. 가축이 먹을 모든 풀(따라서 사람들도)이 죽게 되었다.

41:8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마음”으로 번역된 이 용어는 루아흐(BDB 924)로서 이 지구에 있는 동물과 인간의 생명력을 나타낸다. 이 단어는 “바람,” 숨,” “영”으로 번역될 수 있다.

“번민하여”라는 **동사**(BDB 821, KB 952, **니팔 미완료형**)는 드물게 사용된 단어이다. 이 단어의 **니팔형**은 시 77:4; 단 2:1,3 에서 사용되었고, **칼형**은 삿 13:25 에서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이 “휘저음”을 나타낸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찌르다” 혹은 “~하게 하다”이다.

▣ “애굽의 점술가” 이것은 “새기다”(BDB 355)라는 어근에서 온 또 다른 이집트 차용어로 보인다. 이 단어는 항상 제사와 관련된 지식을 나타낸다(참조, 출 7:11,22; 8:7,18,19; 9:11). 왜 바벨론의 점치는 사제(참조, 단 1:20; 2:2,10,27; 4:7,9)들을 가리키기 위해 이집트의 용어를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점 및 그 해석과 관련된 고대의 책들을 읽고 이를 실행하고 기록하는 자였을 것이다. 그들은 이집트에서는 물론 바벨론(참조, 사 44:25; 렘 50:35; 51:57) 및

페르시아(참조, 에 1:13; 6:13)에도 있었다. 다니엘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른 단어이지만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점을 하고 꿈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A. L. 오펜하임의 *고대 근동에서의 꿈 해석*, 184-307 쪽에 있다.

▣ “현인들을 모두” 이들은 왕궁에 있던 고문관(BDB 481 과 BDB 314 의 **합성**, 참조, 출 7:11; 사 19:11,12)들을 뜻하지만, 앞에서 사용된 용어가 말하는 제사장 계층의 점치는 자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에게는 느부갓네살보다 정직한 현인들이 더 많았음이 분명하다. 느부갓네살은 지혜자들을 신뢰하지 않아 그들에게 자기가 꾸는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꿈에 대한 해석을 꾸밀 여지를 주지 않았다(참조, 단 2 장)!

개역개정 41:9-13

<sup>9</sup>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sup>10</sup>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굶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sup>11</sup>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꾸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sup>12</sup>그 곳에 친위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sup>13</sup>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41:9-12 “내 죄를” 이 문단은 창 40 장에 기록된 사건을 가리킨다. 그가 새로운 바로에게 말하고 있음이 거의 확실하다.

41:12 “히브리 청년이” 40:15 의 설명을 보라.

개역개정 41:14-24

<sup>14</sup>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 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 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sup>15</sup>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풀다 하더라 <sup>16</sup>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sup>17</sup>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 가에 서서 <sup>18</sup>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 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sup>19</sup>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sup>20</sup>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의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sup>21</sup>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sup>22</sup>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sup>23</sup>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sup>24</sup>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41:14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 놓은지라” 우리는 다시금 “감옥”이라는 이집트에서 온 외래어를 본다(40:15 의 설명을 보라). 이 단어는 “이집트의 성채에 감금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셉은 분명히 정치범들과 함께 있었다.

▣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 입고” 여기에 이집트의 관습이 또 나온다. 이것은 바로에게 나아가기 위해 수염 뿐 아니라 온 몸의 털을 깎고 몸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관습이었다.

41:16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대답은 단 2:27-30 에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 요셉은 꿈과 관련한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음을 알았다. 곧 점을 치는 능력이나 고대 문서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임을 알았다(참조, 40:8). 요셉은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을 가졌다(참조, 25,28,32 절).

“편안하게”라고 번역된 단어는 *shalom*(BDB 1022)으로서 “평화,” “안녕,” “호의”를 나타낸다. 15: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41 장의 문맥에서 볼 때 *shalom*은 41:8 에서 언급한 바 바로의 영(“그의 마음이 번민하여”)을 가리킨다.

41:17-24 이것은 앞서 41 장에 나오는 바로의 꿈 내용과 약간 다르다. 이러한 사실은 이 상황에 잘 들어맞는다. 누구라도 어떤 부분을 더 설명하거나 생략함이 없이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다시 말할 수는 없다. 나에게서는 이 점이 이 이야기의 역사성을 나타내는 표가 된다.

41:18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은 “아름다운”(BDB 421)과 “형태”(BDB 1061)라는 히브리 단어의 합성어이다. 이 합성어는 다음의 경우에 사용되었다

1. 암소들, 이 곳
2. 여자들, 창 29:17; 신 21:11; 삼상 25:3; 예 2:7
3. 남자, 창 39:6
4. 나무, 렘 11:16

#### 개역개정 41:25-36

<sup>25</sup>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sup>26</sup>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sup>27</sup>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칠 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sup>28</sup>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sup>29</sup>은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sup>30</sup>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sup>31</sup>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sup>32</sup>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sup>33</sup>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sup>34</sup>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sup>35</sup>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sup>36</sup>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41:25 요셉이 야웨를 모르는 이집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적 칭호인 *엘로힘*을 사용하고 있다. 12:1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시려는 일을 이방인의 한 왕인 바로에게 알리시되 그 일에 대해 그에게 기꺼이 알려주시려고 하신다(참조, 25,28,32 절). “열방”은 항상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 계획의 초점이 되었다(참조, 3:15; 12:3; 출 19:5-6; 이사야서; 요나서; 마 28:19-20; 눅 24:47; 행 1:8)!

41:26-32 요셉은 바로에게 꿈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24 절에서 바로의 어떤 점술가도 그 일을 할 수 없었음을 주목하라.

41:26 “칠 년” 고대 근동의 문학에서 7년의 주기는 매우 일반적으로 나타난다(참조, ANET 31 쪽).

41:27  
 NASB “얇은 이삭”  
 NKJV “빈 낱알”  
 NRSV, JPSOA “빈 이삭”  
 TEV “곡식의 얇은 낱알”  
 NJB “말라 비틀어진 곡식의 이삭”  
 70 인역 “말라죽은 얇은 이삭”

이것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는

1. 얇은, *하닥콜*
2. 빈, *하락콜*

자음 *d*(d)과 *r*(r)이 종종 혼동되었다. UBS의 구약 히브리 본문에 대한 예비 보고 및 중간 보고 프로젝트(1979, 62 쪽)는 “얇은”에 B 등급(약간 의심스러움)을 주고 있다.

**41:32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은 이집트에 일어날 일과 관련하여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지를 주장한다. 이집트의 술법사들(참조, 출 7-8 장)과 그들이 드러내는 이집트의 신들은 이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또 그 일을 멈추게 할 수도 없었다. 야웨께서는 후에 출애굽과 관련하여 내리신 재앙으로써 이집트 만신전의 가치를 약화시키셨다. 야웨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41:33-36** 이 부분에서 요셉은 다가오는 풍요의 시기 및 심각한 기근에 대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자신의 지혜로운 대책을 제시한다.

사용된 여러 동사에 주목하라.

1.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33 절, BDB 906, KB 1157, *칼 지시형*
2.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33 절, BDB 1011, KB 1483,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3.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34 절, BDB 793, KB 889,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4.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34 절, BDB 823, KB 955, *히필 지시형*
5.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34 절, BDB 332, KB 331, *피엘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NASB)
6.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34 절, BDB 867, KB 1062,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7. “쌓아 두게 하소서,” 33 절, BDB 840, KB 999,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8.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36 절, BDB 1036, KB 1581, *칼 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NASB)
9. “흉년에 대비하시면,” 36 절, BDB 224, KB 242, *칼 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이 문맥에서 세 개의 *칼 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10. 31 절에 있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라는 표현도 함께 주목하라

**41:33** 야웨께서 칠 년에 걸친 풍년과 칠 년에 걸친 기근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데(아무도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 기후의 주기를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일에 대해 인간이 계획을 갖고 잘 준비해야만 극복할 수 있음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이렇듯 하나님의 주권/지식 및 인간의 활동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을 이룬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참조, 출 3 장, 7-9 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심/행하심, 그런데 모세는 10-12 절에서 이에 응답해야 했다).

### 특별주제: 선택/예정 및 신학적 균형의 필요성

선택은 놀라운 교리이다. 그러나 이것은 편애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다른 이의 구속을 위한 통로가 되거나 혹은 방편이 되라는 부르심이다! 구약에서 이 용어는 우선적으로 섬김을 위한 것이었고, 신약에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섬김을 낳는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있는 표면상의 모순을 화해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 둘을 다 인정하고 있다! 로마서 9 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로마서 10 장에 있는 인간이 해야 할 반응(참조, 10:11,13) 사이의 긴장은 성경에 있는 이러한 긴장의 좋은 예이다.

이러한 신학적 긴장에 대한 열쇠는 엡 1:4 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는 그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칼 바르트). 예수는 타락한 인간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예”가 되신다(칼 바르트). 에베소서 1:4 도 예정의 목적이 천국이 아니라 거룩함(그리스도를 닮음)이라고 밝힘으로써 이 주제를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종종 복음이 가져다 주는 유익에 끌리지만 이에 따른 책임은 소홀히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선택)은 영원한 삶을 위한 것임은 물론 현재의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교리는 다른 진리와의 관계에서 이해해야지 따로 떨어진 하나의 진리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좋은 유추는 성운 대 한 개의 별이다. 하나님은 진리를 서양이 아닌 동양의 장르로 나타내신다. 우리는 교리적 진리들의 변증법적(역설적) 쌍이 형성하는 긴장을 제거해서는 결코 안된다:

1. 예정 대 인간의 자유의지
2. 신자의 안전 대 인내의 필요
3. 원죄 대 의지적 죄
4. 죄없음(완전함) 대 죄를 적게 지음
5. 최초의 즉각적인 칭의와 성화 대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6.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 그리스도인의 책임감
7. 하나님의 초월성 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
8. 궁극적으로 알수 없는 하나님 대 성경에서 알려진 하나님
9. 현재의 하나님의 왕국 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
10. 하나님의 선물인 회개 대 인간이 언약을 따라 가져야 하는 응답으로서의 회개
11. 하나님이신 예수 대 인간이신 예수
12. 예수께서 성부와 동등하심 대 예수께서 성부께 복종하심

“언약”이라는 신학적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항상 주도권을 가지시고 일을 정하시는 분으로서)을 인간에게 요청되는 최초의 회개와 믿음 및 계속적인 회개와 믿음과 하나로 묶는다. 역설적 진리의 어느 한 쪽을 지지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느라 다른 한 쪽을 약화시키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직 당신이 좋아하는 교리나 조직신학의 내용만을 주장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41:34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소출의”라는 구가 이탤릭체로 되어 있어 히브리 본문에 이 표현이 없음을 나타냄을 주목하라. 따라서 “오분의 일을 거두되”라는 **동사**(BDB 332, KB 331, **피엘 완료형**)는 20%의 세금을 거둠을 뜻한다. 우리는 이집트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세율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비율이었거나, 혹은 이집트 땅이 다섯 개의 행정 구역으로 나누어졌음을 이것이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AB 313 쪽).

어떤 주석가들은 이 **동사**가 **호메스**(BDB 332)라는 **분사 수동태**에서 온 것으로서 “무장한” 혹은 “준비된”을 뜻한다고 생각한다(참조, 수 1:14; 4:12; 사 7:11, AB 313 쪽). JPSOA 가 이러한 해석을 취해 “이집트 땅을 관리하다”로 번역하고 있다.

41:36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땅”이라는 용어(BDB 75)는 이집트 사람과 이집트 정부를 뜻하는 은유적 표현의 기능을 갖는다.



개역개정 41:37-45

<sup>37</sup>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sup>38</sup>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sup>39</sup>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sup>40</sup>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sup>41</sup>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sup>42</sup>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sup>43</sup>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엮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sup>44</sup>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늘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sup>45</sup>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1:38 “하나님의 영” 이것은 루아흐 엘로힘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번역한 내용이다(BDB 924 와 BDB 43). 요셉이 사용한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가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이 표현은 히브리인이 아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인다(참조, 단 4:8,9,18; 5:11,14).

- 41:40
- NASB “경의를 표하다”
- NKJV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 NRSV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다”
- TEV “너의 명령을 순종할 것이다”
- NJB “너의 명령을 존중할 것이다”
- 70 인역 “너의 말에 순종할 것이다”
- JPSOA “지시를 받아”
- REB “너의 모든 말을 존중할 것이다”

이 단어의 어원은 불확실하다. 한편 이 단어는 “입맞춤하다”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BDB 676, KB 30, 칼 미완료형). 이 단어는 (1) “순종하다”(KB) 혹은 (2) “땅에 입맞추어 경의를 표하다”(참조, 시 2:12)를 뜻한다. 이집트인들이 바로의 말을 존경해야 했듯이 요셉의 말(문자적으로는 입)을 존경해야만 했다(참조, 42,43,44). 그는 바로의 “총리”가 되었다.

41:42 “자기의 인장 반지” 이것은 “가라앉다”라는 동사(BDB 371)와 같은 어근에서 왔다. 어떤 서류를 공식적으로 만들기 위해 점토나 왁스 위에 인장 반지를 찍어 누름을 가리킨다(참조, 예 3:10,12; 8:8,10).

▣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이것은 또 다른 이집트에서 온 외래어(BDB 1058 III)로서 이집트의 상류사회의 사람들이 입던 흰 색의 세마포 옷을 가리킨다.

▣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이것은 이집트의 전체 역사(특히 제 12 왕조)에서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다(참조, 단 5:7,16,29). 이 모든 상세한 내용은 그 당시 이집트 문화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이 모두가 목격자가 전하는 상세한 내용이다!

41:43 “총리” 이것은 요셉이 이집트의 두 번째로 높은 치리자였음을 나타낸다(즉, 수상). “두 번째”라는 용어(BDB 1041)는 종종 정치관료 혹은 행정관료를 나타낸다(참조, 삼상 23:17; 왕하 23:4; 25:18; 대상 5:12; 15:18; 대하 28:7; 31:12; 느 11:17; 예 10:3; 렘 52:24).

▣ “**없드리라**” 이 이집트 용어의 뜻(“아브랙,” 참조, JPSOA)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 단어의 소리가 “무릎을 꿇다”라는 히브리 단어의 소리와 비슷하다. 이 단어에 대한 다른 여러 번역을 브라운, 드라이버, 브릭스(BDB 7)가 제시한다. 한편, 벨게이트역, 아퀼라의 히브리 번역,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 유대인 주석가 킵히는 이 단어를 고대 히브리어 어근(BDB 7)에서 온 뜻인 “굴복하다”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이 문맥상 가장 잘 맞는다고 여겨진다.

41:44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일을 하거나 일을 하려고 시도하거나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다”를 뜻하는 관용적 표현이다. 이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한 권위를 나타낸다.

41:45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넛바네아라 하고**” 이것은 바로 자신의 공식적 호칭(BDB 861)과 관련이 있다(참조, 창 45:8).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지어준 일은 요셉에게 대한 자신의 권위를 문화적으로 드러내는 표였을 것이다. 이 이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원이 제시되었다.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은 “신께서 말씀하시며 그가 살아 있다”로서 바로를 태양신인 레의 아들로 나타내거나 혹은 요셉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서 이집트를 구하신다를 뜻할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사물을 아는 그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요셉을 꿈 해몽가로 가리키는 의미일 것이다.

▣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이것은 “네이트에게 속한”을 뜻하는 이집트 이름이다(BDB 62, 참조, 41:45,40; 46:20). 이집트 사람들은 네이트을 사랑의 여신으로서 섬겼다.

▣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이것은 창 37:36; 39:1 에 나오는 보디발이라는 이름을 길게 발음한 형태의 이집트 이름이다. 이 이름은 “(레)가 준 사람”(BDB 806)을 뜻한다. 영향력있는 제사장(BDB 463)의 딸을 그에게 주어 결혼하게 함으로써 바로는 요셉을 이집트 상류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고 있다.

▣ “**온**” “온”(BDB 58)은 태양신의 도시였다. 이 도시는 헬라어로는 헬리오폴리스이며 히브리어로는 벤 쉘메스로 불린다(참조, 램 43:13). 이 도시는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10 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으며 고센 지방과의 경계에 있었다.

▣	
NASB, NKJV	“그리고 요셉이 나가 애굽 땅 위로 다니니라”
NRSV	“그래서 요셉이 애굽 온 땅에 대한 권세를 얻으니라”
TEV	“온 땅을 여행하니라”
NJB, 70 인역	“그리고 요셉이 애굽 온 땅을 다니기를 시작하니라”
REB	“요셉의 권세가 애굽 온 땅에 미치니라”
JPSOA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을 맡아 출현하였느니라”

NASB 와 NKJV 는 이 구를 문자적으로 번역하였다. 한편, 이 구의 의미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1. 45 절과 46 절이 평행을 이루어 “전국을 다니니라”(TEV, NJB, 70 인역, NIV).
2. 매우 흔하게 사용된 “가다” 혹은 “오다”라는 이 동사(BDB 422, KB 425, **칼미완료형**)는 에스더 1:17 에서 어떤 것을 전파하다라는 의미로서 **칼미완료형**이 사용되었다(즉, 와스디가 명을 거역한 소식). 따라서 여기서는 요셉의 명성과 권세가 온 땅에 퍼졌음을 말한다(NRSV, REB).
3. 33 절, 41 절, 43 절에서 “온 땅 위에”라는 구가 동사에 이어 사용되어 요셉이 총리로서 갖는 권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곳에서도 이 동사가 같은 의미를 가짐이 틀림없다(JPSOA).

개역개정 41:46-49

<sup>46</sup>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삼십 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sup>47</sup>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sup>48</sup>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칠 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 두매 <sup>49</sup>쌓아 둔 곡식이 바다 모래  
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다

41:46 “삼십 세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삼십 세의 아들”로서 하나의 관용적 표현이다(참조, 레 27:5; 왕하 8:26; 렘 52:1).

41:47-49 요셉의 꿈 해몽은 아주 정확했다. 여러 가지로 풍요로움이 강조되었다.

1. 일곱 해 풍년, 47 절
2.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47 절
3. 그 칠 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47, 47 절
4. 바다 모래 같이 심히 많아, 49 절
5.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다, 49 절

개역개정 41:50-52

<sup>50</sup>홍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sup>51</sup>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sup>52</sup>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다

41:51 “므낫세” 이 이름(BDB 586)의 소리는 “잊어 버리다”라는 히브리 동사(BDB 674, KB 728, *피엘 분사*)와 관계가 있다. 이 이름은 요셉의 형제들이 행한 일로 인한 상처와 특별히 관련을 가진다. 창세기에서 후에 일어난 사건은 자신을 미워한 형제들의 배신을 요셉이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음을 나타낸다.

41:52 “에브라임” 이 이름(BDB 68)은 자주 사용된 언어 유희로서 “열매를 많이 맺음” 혹은 “두 배의 열매”(BDB 826, 참조 49:22)를 나타낸다.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 어머니인가 아닌가에 의해 결정됨을 볼 때 이것은 흥미롭다. 사실상 이 두 소년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후에 요셉이 받은 두 몫을 상속하는 반 지파가 되며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즉, 열 세 지파)를 이룬다. 레위 지파는 땅을 유산으로 받는 의미에서는 한 지파로 여김을 받지 못했다(참조, 여호수아서).

개역개정 41:53-57

<sup>53</sup>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sup>54</sup>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홍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sup>55</sup>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sup>56</sup>은 지면에 기근이 있매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새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sup>57</sup>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41:53-57 이것은 역사적으로 바로가 어떻게 이집트의 온 땅을 소유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참조, 47:20-26). 이집트 사람들은 곡식을 사서 자신과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기 땅을 왕에게 팔았다.

이집트의 종교(즉, 태양신, 풍요의 신, 또한 나일 강 그 자체)가 이집트를 구원함에 있어서 실패하였지만 야웨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기근이 드러내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41:56

NASB, NKJV, NRSV,

TEV, 벌게이트

“모든 창고를”

NJB, 70 인역, REB

“모든 곡식 창고를”

JPSOA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히브리 본문은 JPSOA 역의 내용과 문자적으로 일치한다. 이 내용은 다음을 나타낼 것이다

1. 요셉이 곡식을 저장한 모든 장소
2. 이집트 사람들이 곡식을 살 수 있도록 한 전국에 있는 모든 장소

41:57 이 절은 고대 근동 전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일어난 심각한 한재와 기근을 설명한다.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이집트로 왔다. 요셉은 다음의 사람들을 구했다

1. 이집트
2.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민족들
3. 특히, 선택받은 사람들인 야곱의 가족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여러 면에서 나타난다!

“온 세상”이라는 과장법적 표현을 주목하라. 이 표현은 창 6-7 장에서 홍수의 범위를 말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참조, 7:19, *에레즈*, *'eres*, BDB 75).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이 장에 나오는 모든 이집트 외래어 및 이집트의 독특한 관습을 열거하라.
2. 고대 근동에서 점술자들이 누구를 말하며 또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설명하라.
3. 41-44 절에서 요셉의 새 지위를 설명하는 모든 표현을 말해보라.
4.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이 가진 뜻은 무엇이며 그 이름은 왜 중요한가(50-52 절)?

## 창세기 42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 MT를 따름)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로 보냄을 받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로 가다	요셉의 형제들이 기근의 때에 이집트로 여행하다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가다	요셉과 그 형제들의 첫 번째 만남
43:1-5	43:1-5	43:1-5	43:1-4 43:5-7a	43:1-4 43:5-7
43:6-7	43:6-17	43:6-17	43:7b 43:8-9 43:10-11 43:12 43:13 43:14-17	43:8-17
43:18-25	43:18-24	43:18-25	43:18-20a 43:20b-21 43:22-24	43:18-24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다 43:25-28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다 43:25-28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다 43:25-28
43:26-28		43:26-28		
시므온이 불모로 갇히다				
43:29-34	43:29-34	43:29-34	43:29-34	43:29-34
43:35-38	43:35-38	43:35-38	43:35-36 43:37 43:38	43:35-36 43:37-38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42:1-5

<sup>1</sup>그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sup>2</sup>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sup>3</sup>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sup>4</sup>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sup>5</sup>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42:1 “그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보다”라는 이 동사는 1 절에서 두 번 사용되었다.

1. “야곱이 보고,” BDB 906, KB 1157, **칼 미완료형**
2.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히트파엘 미완료형**

같은 단어가 바로의 꿈에 대해 사용되었고(참조, 41:19,22,28), 또 요셉이 바로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찾으라고 말할 때에 사용되었다(참조, 41:33). 자주 사용되는 이 동사가 이 장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즉, 1[2 회],7,9,12,21,27,35 절). 라쉬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야곱이 본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야곱은 아마도 가나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바로에게서 곡식을 사는 것을 보았음을 뜻할 것이다(참조, 47:14).

42:2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가족이 생존할 수 있도록(즉, “살고 죽지 않도록”) 이집트에 가라고 명한다.

1. 그리로 가서, BDB 432, KB 434, **칼 명령**
2.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라, BDB 991, KB 1404, **칼 명령**
3.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BDB 310, KB 309, **칼 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됨. 심각한 기근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했다!

42:3-4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이 요셉의 죽음에 어쨌든 책임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라헬이 남긴 유일한 아들인 베냐민을 맡겨 그에게 똑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었다.

42:4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재난”이라는 용어(BDB 62)는 드물게 사용된 용어이다(참조, 44:29; 출 21:22,23). 이 단어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뜻한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였고 이제 죽은 라헬이 남긴 유일한 아들(즉, 베냐민, 요셉과 어머니가 같은 친형제)이 죽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 베냐민이 가족의 가장이 될 것을 야곱이 생각했다고 어떤 사람은 주장한다.

이 동사(BDB 896 II, KB 1131, **칼 완료형**)는 이곳 및 레 10:19; 신 31:29; 욕 4:14; 사 51:19; 렘 13:22; 44:23 에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임하다”로 번역되었다.

42:5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어떤 이는 야곱이 자신의 모든 아들을 보낸 점을 궁금해 한다(그는 이전에 안전을 위해 자기 가족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었다, 참조, 32:22-32).

아마도 (1) 각 사람이 구입할 수 있는 양식의 양이 제한되었거나 (2) 여럿이 함께 가는 것이 안전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기근이 이 지역에 주기적으로 있었음을 안다. 기근의 원인으로서는 (1) 적절한 시기에 비가 적게 옴 (2) 너무 많은 강수량이나 추위 (3) 해충 (4) 작물의 고사, 노균병 등이 있었을 것이다. 가나안의 농업은 자연의 규칙적인 주기에 의존하였지만 이집트의 경우는 나일 강(즉, 범람)에 의존했다.

개역개정 42:6-7  
<sup>6</sup>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sup>7</sup>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42:6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 절은 요셉이 창 37:6-9 에서 꾸 꿈 뿐 아니라 43:28 과 44:14 의 내용도 성취하고 있다.

42:7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고려하다,” “인식하다”라는 이 동사(BDB 647, KB 699)는 7 절에서 두 번 사용되었고(*히필 미완료형*, *히트파엘 미완료형*), 8 절에서도 두 번 사용되었다(*히필 미완료형*, *히필 완료형*). 그들은 여전히 유목민의 전통적 복장을 입었고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한편, 요셉은 수염을 깨끗이 깎았고, 고운 옷을 입었으며, 권세있는 자의 자리에 있었고 이집트어를 사용했다. 이 모든 점들은 그의 형들로 하여금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

▣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이 두 동사는 다 같은 어근인 *나카르*에서 왔다.

1. 알아보고, BDB 647, KB 699, *히필 미완료형*, 참조, 27:23; 37:33; 38:25,26; 42:7,8(2 회); 신 33:9
2. 모르는 체하고(문자적으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다”), BDB 649, KB699, *히트파엘 미완료형*, 참조, 왕상 14:5,6

두 단어가 서로 다른 히브리어근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  
 NASB, NRSV,  
 TEV, NJB “매물차게”  
 NKJV “거칠게”  
 70 인역 “상스러운 말”  
 AB “엄격히”

이 형용사(BDB 904)는 “단단한” 혹은 “엄격한”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나발의 인성을 나타내기 위해 삼상 25:3 에서 사용되었다. 여기서 이 단어는 요셉의 말투에 나타난 억양(참조, 삼상 20:10) 및 그가 비난하는 내용(즉, 그들은 스파이다)을 나타낸다.

개역개정 42:8-17  
<sup>8</sup>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sup>9</sup>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꾸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sup>10</sup>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sup>11</sup>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sup>12</sup>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sup>13</sup>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sup>14</sup>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sup>15</sup>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sup>16</sup>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sup>17</sup>그들을 다 함께 삼 일을 가두었더라

42:9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꾀 꿈을 생각하고” 이 내용은 37 장을 가리킨다. 요셉은 자기의 맏아들을 므낫세(“잇게 함”)라고 이름지었지만 자기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 넘긴 일에 대한 기억이 물밑듯이 물려왔다.

▣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랍비들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다른 문으로 성에 들어갈 것을 말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본 요셉이 그들을 정탐꾼들(BDB 920, KB 1183, *피엘 분사*, 참조, 수 2:1; 6:22-23; 삼상 26:4)로 비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그들의 동기와 인격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  
 NASB “땅의 방어가 없는 부분”  
 NKJV, NRSV, JPSOA “땅의 벌거벗음”  
 TEV “나라의 약한 곳”  
 NJB “나라의 약점”  
 70 인역 “땅의 표시(즉, 길을 면밀히 조사하다)”  
 REB “우리의 방어가 약한 곳”

이 용어(BDB 788)는 문자적으로 “벌거벗은”(참조, 9:22-23) 혹은 “벗은”을 뜻한다. 이곳에서의 의미는 이집트에서 성채가 없는 곳이나 군대의 초병이 없는 지역을 뜻한다(문맥에 의해 살펴 볼 때).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을 시험해보기 위한 거짓 정죄였다.

42:11 “우리는 . . . 확실한 자들이니” “확실하다”(BDB 467 II, 참조, 42:11, 19, 31, 34)는 그들이 요셉에게 전에 행한 일과 역설적인 면을 이룬다. 그들은 올바르게 정직한 자들로 보였지만 악하게 행했었다(참조, 창 34, 37 장).

42:13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말의 마지막 부분은 분명히 요셉을 지칭하는 내용이다. 그가 누구인지를 그들이 모른 채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모습은 역설적인 일로 보인다.

42:15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많은 주석가들은 요셉이 이러한 맹세를 두 번 사용한 것을 놓고 그를 비난한다. 이것은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분명히 그가 이 말은 어떤 신학적 의미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말은 바로가 태양신인 레의 아들이었다고 말하는 이집트의 전통을 가리킨다. 이와 똑같은 맹세가 이집트의 기념비에서 발견된다.

42:16 요셉은 몇 가지 명령과 요청을 하고 있다.

1.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BDB 1018, KB 1511, *칼 명령*
2.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BDB 542, KB 534,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3. 너희는 갇혀 있으라, BDB 63, KB 75, *니팔 미완료형*
4.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BDB 103, KB 119, *니팔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42:17 “그들을 다 함께 삼 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은 분명히 그들을 인해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일부를 그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기를 원했다.

**개역개정 42:18-25**

<sup>18</sup>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sup>19</sup>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sup>20</sup>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sup>21</sup>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sup>22</sup>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sup>23</sup>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sup>24</sup>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sup>25</sup>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42:18-20 요셉의 명령과 요구가 계속된다.

1. 이같이 하여, 18 절, BDB 793, KB 889, **칼 명령**
2. 생명을 보전하라, 18 절, BDB 310, KB 309, **칼 명령**
3.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19 절, BDB 63, KB 75, **니팔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4. 가서, 19 절, BDB 229, KB 246, **칼 명령**
5. 곡식을 가지고, 19 절, BDB 97, KB 112, **히필 명령**
6.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20 절, BDB 97, KB 112, **히필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7.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20 절, BDB 52, KB 63, **니팔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42:18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 구는 요셉이 바로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과 관련이 있거나(참조, 15,16 절) 혹은 그가 이 열 사람에게 명한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 의미에서 신을 경외함을 나타내는 말일 것이다. 요셉은 돌려서 자신의 진실함과 영성을 주장하고 있다(참조, 20:11). 그는 참으로 **엘로힘**을 경외하였고/섬겼다.

42:20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15:6(II. 가 항)의 특별주제를 보라.

42:21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죄를 인해 자기들을 벌하시는 것이라고 느꼈다. 이러한 점은 21,22,28 절 및 44:16 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우리가 뿌린 것을 우리가 거두는 개념이 나타난다(참조, 욕 34:11; 시 28:4; 62:12; 잠 24:12; 전 12:14; 램 17:10; 32:19; 마 16:27; 25:31-46; 롬 2:6; 14:12; 고전 3:8; 고후 5:10; 갈 6:6-7; 딤후 4:14; 벧전 1:17; 계 2:23; 20:12; 22:12).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는 내용도 성경에 있다(참조, 시 103:10). 우리가 행한 모든 죄에 대한 즉각적 형벌을 우리는 받지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셔야 할 일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42:22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셉은 아마도 르우벤이 자신을 지켜주려 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들었을 것이다(참조, 창 37:22-24). 이제 이 형제들은 창 4 장에서 아벨의 피가 자기 형제에게 대해 신원하여 주기를 요청했듯이 요셉의 무죄한 피가 신원하여 주기를 외치고 있다고 믿었다.

42:23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였고 요셉은 통역을 세워 이집트어만을 말했을 것이다. 이 일은 다시금 그들이 20 여 년 전에 그에게 죄를 범하게 했던 선입견이 해결되었음을 확신하게 되기까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의도임을 보여준다.

이 히브리 동사는 “통역이 있었다”(BDB 539, KB 529, *히필 분사*)로 번역되었는데, 대개의 경우 경멸이나 조롱을 함축하고 있다. 이 단어는 *히필*형에서 다음의 의미를 나타낸다

1. 조롱, 욕 16:20; 시 119:51
2. 통역자, 여기서는 칙사, 대하 32:31

구약에 나타난 이 동사의 모든 용법은 부정적 문맥에서 나타나고 있다(참조, NIDOTTE 제 2 권 799 쪽).

42:24 “울고” 요셉은 분명히 매우 감성적인 사람이었다(참조, 43:30; 45:14,15).

▣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장남인 르우벤이 그들의 지도자였지만 그가 이전에 요셉을 도우려 했음이 분명했기에, 차선으로 시므온을 선택했음이 분명하다. 그는 둘째 아들이었다. 그가 세겜 사람들을 죽임에 있어서 격렬한 분노(참조, 창 34 장)를 나타내었듯이 요셉을 해하려는 최초의 계획에 있어서도 그가 관련이 있다고 많은 주석가들이 말한다.

#### 개역개정 42:26-28

<sup>26</sup>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 곳을 떠났더니 <sup>27</sup>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sup>28</sup>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42:25-29 아홉 명의 형제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시므온이 풀려나는 일에 어려움이 따르게 될까봐 염려했다. 그들이 근심하는 단계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

1. 그들이 혼이 나가서, 28 절(문자적으로 “그들의 심장이 몸 밖으로 나가서”), BDB 422, KB 425, *칼 미완료형*
2. 그들이 떨며 서로 돌아보며, 28 절, BDB 353, KB 350, *칼 미완료형*, 참조, 27:33; 삼상 16:4; 21:1; 왕상 1:49

42:27 “자루” 이 절에서 두 종류의 히브리 단어가 “자루”로 번역되었다.

1. “자루”(BDB 974), 이것은 보통 “베옷”을 뜻하는 단어임(이곳에서 사용됨)
2. “자루”(BDB607), 이것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이 이야기에서만 나오는 단어임. 이 용어는 곡식을 담은 자루를 가리킨다.

여기서 두 종류의 히브리 단어가 사용된 이유에 대한 답은 이렇다. 하나는 돈 자루를 가리키고(참조, NIDOTTE, 제 3 권 843 쪽) 또 하나는 곡식을 담은 자루를 가리킨다(참조, 제임스 W. 프리먼, *성경의 관습과 풍습* 49 쪽).

42:28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다고 그들은 여전히 느끼고 있었다.

**개역개정 42:29-34**

<sup>29</sup>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sup>30</sup>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sup>31</sup>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sup>32</sup>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sup>33</sup>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의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sup>34</sup>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 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42:29-34 아홉 형제는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집트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한다.

42:34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이 동사(BDB 695, KB 749, 칼 미완료형)는 “무역하다”로 번역되었지만(참조, 창 23:16), 창 34:10 에서 이 단어는 “자유로이 여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 말은 그들이 양식을 더 사야 할 일이 생길 때에 이집트에 돌아옴을 특별히 가리킬 것이다(참조, 43:2).

**개역개정 42:35-38**

<sup>35</sup>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sup>36</sup>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sup>37</sup>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sup>38</sup>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42:35-38 가족이 모여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들은 당분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2:35 27 절과 35 절에 차이가 나타난다. 즉 27 절에서는 그들 중 “한 사람”이 자루를 쏟았고 35 절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했다. 이것은 같은 일에 대한 기록의 중복이 아니라, 이전에 그들을 놀라게 했던 문제에 대한 강조를 나타낸다(참조, 28 절).

42:36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이 모든 일들을 자신에 대한 상처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주목하라. 그 형제들이 어떻게든 요셉을 잃게 된 일에 관련되었음을 암시하며 이에 대해 비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42:37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것은 사실상 실속없는 제안에 불과하다! 야곱이 왜 자신의 아들들을 잃어버리게 된 까닭에 자신의 손자들을 죽여야 된다는 말인가?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려고 시도했지만, 일은 정반대 방향으로 되었다. 야곱은 (1) 유다가

43:8-9 에서 제안할 때까지 (2) 더 이상 버틸 양식이 없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가도록 최종적으로 허락하게 되기까지 기다렸다.

**42:38 “스울”** 이 단어는 죽은 자가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구약의 용어이다. 사후의 삶에 대한 교리는 구약에서 베일에 감추어져 있지만, 사후에 가족이 함께 모여 있게 된다고 그들이 믿었음이 분명하다.

이곳은 그늘진 곳으로서 기쁨이 없는 상태의 장소였지만, 그들이 의식이 있는 상태로 있는 장소였음이 분명하다. 스울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하데스*로 번역되었다. 죽은 자를 수용하는 이곳에 모든 사람이 가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랍비들은 *하데스*에 의로운 사람이 있는 곳과 악한 사람이 있는 곳이 있다고 보았다. 15: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요셉은 왜 자신의 정체를 숨겼는가?
2. 요셉은 왜 자기 형제들에게 거칠게 말하고 또 그들을 정탐꾼들로 몰았는가?
3. 이 장의 어떤 내용이 야곱으로 하여금 요셉의 죽음에 대해 의혹을 갖게 하였는가?

# 창세기 43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 MT를 따름)
이집트로 돌아감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감	이집트로의 두 번째 여행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감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떠나다
43:1-10	43:1-7	43:1-10	43:1-2 43:3-5 43:6 43:7	43:1-10
	43:8-14		43:8-10	
43:11-15		43:11-15	43:11-14	43:11-14 요셉과의 만남
요셉이 베냐민을 보다	43:15-17		43:15-17	43:15-17
43:16-25		43:16-25	43:18-22 43:23	43:18-23
			43:24-27	43:24-25
43:26-34	43:26-34	43:26-34	43:28 43:29-34	43:26-34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개역개정 43:1-10

<sup>1</sup>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sup>2</sup>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sup>3</sup>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sup>4</sup>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sup>5</sup>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sup>6</sup>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sup>7</sup>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sup>8</sup>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sup>9</sup>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sup>10</sup>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43:2 처음 가져온 양식으로 얼마만큼 지냈는지에 대해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기간 내내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야곱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양식이 다 떨어지자 마침내 야곱이 행동을 취한다.

1. 다시 가서, BDB 996, KB 1427, **칼 명령**
2. 양식을 조금 사오라, BDB 991, KB 1404, **칼 명령**

43:3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때에 이르러서는 유다가 중요한 아들로 여겨졌다. 르우벤의 지도력은 쇠락했다.

▣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이것은 강조된 형태의 문법 구조로 되어 있다(즉, 같은 어근을 갖는 부정사 절대형과 완료형 동사가 함께 사용되었는데 이 어근은 7 절[2 회]과 20 절에서도 사용되었다). 이 동사(BDB 996, KB 1427, **히필 완료형**)는 증인을 서는 것을 뜻하거나(참조, 출 9:21; 신 32:46) 경고를 주는 것을 나타낸다(참조, 출 21:29; 왕상 2:42; 느 13:15,21).

▣ “내 얼굴을 보지” 이것은 요셉을 만나게 됨을 뜻하는 관용적 표현이다(참조, 삼하 14:24). 그는 양식을 파는 일을 관리했다. 그들이 그를 만날 수 없게 된다면 양식을 살 방법이 그들에게는 없었다(참조, 5 절).

43:4-5 유다는 자기 아버지 야곱/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한다.

1. 우리가 내려가서, BDB 432, KB 434, **칼 청유형**
2.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BDB 991, KB 1404, **칼 청유형**

유다(와 그 형제들)의 행동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하는 여부에 달려 있었다.

43:6 야곱은 그들이 가족에 대한 내용을 너무 많이 알렸다고 그들을 책망한다.

야곱이 강한 의미를 갖는 동사(BDB 949, KB 1269, **히필 완료형**)를 사용하였다. **히필형**에서 이 단어의 기본적 의미는 “해롭게 하다”이다(참조, 창 19:9; 31:7; 출 5:22-23; 민 11:11; 20:15; 수 24:20).

43:7 그 형제들이 강력히 자신들을 변호한다.

1.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BDB 981, KB 1371, 같은 어근의 **칼 부정사 절대형과 칼 완료형**
2.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BDB 393, KB 390, 같은 어근의 **칼 부정사 절대형과 칼 미완료형**
3.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BDB 432, KB 434, **히필 명령**

43:8-10 유다(넷째 아들이며 레아가 낳은 아들, 참조, 29:35)는 나이가 많은 9 명의 형제의 대변인이 되었다(참조, 44:14-34; 46:25-34).

1.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BDB 1018, KB 1511, **칼 명령**
2. 우리가 일어나, BDB 877, KB 1086, **칼 청유형**
3. 우리가 가리니, BDB 229, KB 246, **칼 청유형**
4. 우리가 다 살고, BDB 310, KB 309, **칼 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됨**
5.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BDB 559, KB 562,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참조, 42:2)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면서 결심을 해야 되었다. 유다는 실용적 관점에서 말한다(참조, 10 절). 만일 그들에게 양식이 없다면 베냐민과 야곱을 포함하여 모두가 죽게 된다. 이 논리가 강력했다. 그들은 양식을 사러 또 이집트로 가야했지만 그 일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가능했다. 유다는 9 절에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 일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려고 다시금 노력한다. 그것은 사후의 삶에 대한 믿음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여겨진다.

43:9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담보”라는 용어(BDB 786 II, KB 876, **칼 미완료형**, 참조, 44:32)는 이 장과 38 장을 연결시킨다(참조, 17 절). 유다는 점점 더 중요한 인물이 되고 있다(참조, 49:8-12).

**개역개정 43:11-15**

<sup>11</sup>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풀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송아이니라 <sup>12</sup>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sup>13</sup>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sup>14</sup>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sup>15</sup>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43:11-14 야곱/이스라엘은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요셉의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린다.

1. 이렇게 하라, 11 절, BDB 793, KB 889, **칼 명령**
2.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11 절, BDB 542, KB 534, **칼 명령**
3.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11 절, BDB 432, KB 434, **히필 명령**
4. 갑절의 돈을 가지고, 12 절, BDB 542, KB 534, **칼 명령**
5.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12 절, BDB 996, KB 1427, **히필 명령**(이곳은 이 문맥에서 이 **동사**가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사용된 곳임)
6. 네 아우도 데리고, 13 절, BDB 542, KB 534, **칼 명령**
7. 일어나, 13 절, BDB 877, KB 1086, **칼 명령**
8.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3 절, BDB 996, KB 1427, **칼 명령**

9.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14 절, BDB 678, KB 733,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10.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4 절, BDB 1018, KB 1511, **피엘 완료형**

43:11

NASB “이 땅의 가장 좋은 소산을”  
 NKJV “이 땅의 가장 좋은 열매를”  
 NRSV “이 땅의 값진 열매를”  
 TEV “이 땅의 가장 좋은 생산품을”  
 NJB “이 땅의 가장 좋은 생산품으로”  
 REB “이 땅의 생산품으로서 잘 알려진 것 가운데 일부를”

구약에서 이 단어(BDB 275 II)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이집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이 문맥과 관련된 함축적 의미가 이 어근과 관련있는 단어들이 가질 수 있다. NIDOTTE, 제 1 권 119 쪽은 이것이 “힘”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지만 그러한 설명은 이 문맥에 맞지 않는다.

여기서 열거한 물품의 이름은 대상들이 일상적으로 취급하던 물건이다(참조, 37:25). 요셉이 대상들과 함께(노예로서) 이집트로 여행을 했기에 그는 이 산물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4:12

NASB, TEV, NJB,  
 70 인역, JPSOA “잘못하여”  
 NKJV, NRSV “실수하여”

이 용어(BDB 993)는 이곳에서만 사용된 단어이다. 이 단어의 어근은 “잘못 가다” 혹은 “잘못을 하다”라는 뜻이다. 욥 12:16 에서 이 단어는 “잘못 인도하다”로 번역되었다. NIDOTTE, 제 4 권 44 쪽은 이 어근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다”를 뜻한다고 설명한다(참조, 레 4:13; 삼상 26:21; 시 119:21,118; 겔 45:20).

43:14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야곱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에 의탁하여 그들을 보냈다. 이 이름은 *엘 샤다이*로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사용한 하나님의 이름이었다(참조, 창 17:1; 28:3; 35:11; 43:14; 48:3). *엘*이라는 용어는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이었는데 “강하다”라는 어근에서 왔을 것이다. *샤다이*라는 용어는 여인의 가슴을 나타내는 말로서 “모든 이를 충족시키시는 분”을 암시할 것이다. 출 6:3 에 비추어 볼 때 *엘 샤다이*는 족장들이 하나님께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한 호칭으로 보인다.

43:15 선물을 가져 오는 일은 문화적으로 볼 때 매우 합당하고 적절한 모습이였다. 이 물건들이 가나안의 특산품이었고 또 이 물품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찾았지만, 이 물건들은 한 가족과 그들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는 부족했다. “선물”(BDB 585)을 주는 이 모습은 야곱이 에서에게 창 32 장에서 선물을 준 일과 비슷한 점이 있다.

**개역개정 43:16-25**

<sup>16</sup>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들이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sup>17</sup>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sup>18</sup>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sup>19</sup>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sup>20</sup>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sup>21</sup>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sup>22</sup>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sup>23</sup>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sup>24</sup>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sup>25</sup>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43:16 요셉이 베나민을 보게 되자 특별한 점심 식사를 준비시켰다.

1.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들이고, BDB 97, KB 112, *히필 명령*
2. 짐승을 잡고, BDB 370, KB 368, *칼 명령*
3. 준비하라, BDB 465, KB 464, *히필 명령*

이집트 사람들은 주로 생선과 가금류를 채소 및 많은 양의 빵과 더불어 먹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큰 짐승을 집에서 잡았다(참조, 제임스 W. 프리먼, *성경의 관습과 풍습* 50 쪽).

43:18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것은 아주 드물게 사용된 관용적 표현이다. 이 동사(BDB 164 II, KB 193, *히트포엘 부정사 연계형*)은 “굴리다” 혹은 “말아 버리다”를 뜻한다. 여기서 이 단어는 “해치려고 어떤 사람을 감다”를 뜻한다. 이 어형이 사용된 또 다른 예가 삼하 20:12에 있는데 그곳에서는 어떤 사람을 그 자신의 피에 굴리는 것을 나타낸다.

▣ “달려들어” 이 동사(BDB 656, KB 709, *히트포엘 부정사 연계형*)는 *칼형*에서 공격을 받거나(참조, 수 11:7; 욕 1:15) 적의 손(권세)에 떨어지는 것을 뜻한다(참조, 삿 15:18). 이 단어가 이 동사형으로 사용된 점은 이 문맥에서 독특한 사항을 이룬다.

이 형제들은 왜 자신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었는지를 몰랐기에 매우 두려워했다. 그들은 이 일이 처음 방문 때 그들의 자루에 있었던 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참조, 20-22 절).

43:19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 사람은 매우 자세히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요셉의 계획 뿐 아니라 요셉의 믿음에 대해 알려 주듯이 신학적 내용에 대해서도 그러했다. 나는 요셉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자신이 믿고 있음을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 및 자신과 관계를 갖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이해한다. 18 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의 광채에 압도되어 마치 유목민들이 자기의 짐승을 도적질하려는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내용은 흥미롭다. 이러한 모습은 “대도시에 온 시골 촌부들”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

43:20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이 구는 같은 어근(BDB 432, KB 434, 둘 다 *칼형임*)을 갖는 부정사 *절대형*과 *완료형*이 함께 사용되어 의미를 강조한다.

43:23 “너희는 안심하라” 이 문장에는 동사가 없고 명사인 *살롬*과 한 *전치사*로만 되어 있다. 이 문장은 명령법을 암시한다.

▣ “너희는 안심하라” 이 동사(BDB 431, KB 432)는 *칼 미완료형*으로서 지시형의 의미를 갖는다.

개역개정 43:26-34

<sup>26</sup>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sup>27</sup>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sup>28</sup>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sup>29</sup>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sup>30</sup>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sup>31</sup>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sup>32</sup>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不淨)을 입음이었더라 <sup>33</sup>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sup>34</sup>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43:27,29** 요셉은 그들의 가족에 대해 일련의 질문을 한다. 그들은 이러한 내용을 밝히는 것에 대해 아버지가 심각하게 경고한 점을 잘 기억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참조, 6 절).

1.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아무런 동사도 사용되지 않았다, *살롬*에 대해서는 29:6 을 보라)
2.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아무런 동사도 사용되지 않았다)
3.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아무런 동사도 사용되지 않았다)

**43:29 “소자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은 베냐민에게만 특별한 인사를 한다(“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BDB 335, KB 334,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요셉이 자신의 신학적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음을 주목하라.

**43:30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문자적으로는 “그의 동정심이 따뜻하게 되었다”(BDB 485, KB 481, *니팔 완료형*)이다. “동정”(BDB 933)이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같은 자궁에서 난 사람들을 향해 갖는 느낌”(즉, 형제의 사랑)을 뜻한다.

**43:31 “음식을 차리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빵을 차려라”(BDB 962, KB 1321, *칼 명령*)이다. 31-33 절에 비추어 볼 때 이집트 사람들은 식탁을 중심으로 의자에 앉았고 가나안에서 온 히브리 사람들은 왼편 팔꿈치에 기대어 있었음은 흥미롭다. 32 절에는 이집트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여기서는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있었다. 이점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들어 맞으며 또한 이 이야기의 역사성을 입증한다(참조, 제임스 M. 프리먼, *성경의 관습과 풍습* 52 쪽).

**43:32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베냐민에게 특석 뿐 아니라 추가적인 음식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참조, 34 절). 요셉은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형제들이 시기심을 갖게 하려 했음이 분명하다. 그는 자신이 20년 전에 직접 겪었던 그들의 성품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 아니면 세월의 흐름을 통해 그러한 성품이 누그러졌는지를 알고자 했을 것이다.

▣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不淨)을 입음이었더라**” 이것은 보디발이 자신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신경을 썼던 창 39:6 의 내용에 대한 좋은 설명이 될 것이다. 어떤 이는 헤로도투스(2:41)의 말을 인용하여 이러한 견해가 역사적으로 사실임을 확증한다. 이집트 사람들이 소를 먹는 사람들을 경멸했는데 이는 오늘날의 힌두교도들이 소를 신성시하듯이 그들도 소가 신성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은 창 46:34 와 출 8:26 을 잘 설명해 준다.

**43:3** 이집트 하인들이 그 형제들을 태어난 순서에 따라 그들을 앉혔음이 분명하다. 그들이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 요셉은 자신의 정체(身份)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

**43:34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다섯”이라는 숫자는 이집트에서 매우 중요한 수였을 것이다. 이 사건 전반에 걸쳐 “다섯”이라는 수가 계속하여 나타난다(참조, 43:34; 45:6,11,22; 47:2,24). 요셉이 자기 자신의 상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고 또 베냐민에게는 그렇게 많이 주었을 때 그 형제들이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 한다?!

▣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두 동사(“마시다,” BDB 1059, KB 1667 와 “취하다,” BDB 1016, KB 1500)의 소리가 매우 비슷하다(참조, 창 9:21). 그들이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창세기 44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형제들이 다시 불러 옴	요셉의 잔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다	없어진 잔	요셉의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 있다
44:1-5	44:1-5	44:1-5	44:1-5	44:1-2 44:3-5
44:6-13	44:6-13	44:6-13	44:6-9 44:10-13	44:6-13
44:14-17	44:14-17	44:14-17	44:14-15 44:16 44:17	44:14-17
44:18-34	44:18-34	44:18-34	44:18-23 44:24-29 44:30-34	44:18-34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개역개정 44:1-5

<sup>1</sup>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sup>2</sup>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sup>3</sup>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sup>4</sup>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sup>5</sup>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44:1 이것은 요셉이 이 일을 두 번째 행한 경우에 속한다(참조, 42:25).

- 1. 채우라, BDB 569, KB 538, **피엘 명령**
- 2. 넣어라, BDB 962, KB 1321, **칼 명령**

44:2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넣은 일(참조, 5 절)이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요셉은 자신의 어머니가 낳은 자신의 친형제(라헬의 자식)를 자기 형제들이 시기하거나 그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여전히 그들을 시험하고 있다.

“잔”(BDB 149)으로 번역된 용어가 매우 커다란 용기로서 큰 대접 혹은 주전자를 뜻함을 주목하라(참조, 렘 35:5). “잔”을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는 BDB 468 I 에 나온다(참조, 40:11,13,21; 삼하 12:3; 시 16:5; 23:5; 잠 23:31).

44:4 “성읍” 이 성읍이 어떤 성읍인가의 여부는 바로가 누구인가에 따라 구분이 된다. 창세기의 뒷부분에서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고센에서 말하고 같은 날 수도에서 바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성읍은 삼각주 지역에 있는 수도를 뜻할 것이다. 히소스 왕조의 수도는 이 지역에 위치했다. 후에 이 지역으로 수도를 옮긴 바로는 세티 I 세였다. 그는 라암세스 II 세 시대에 일어난 것으로 여겨지는 출애굽 사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혹독하게 다루었던 바로였다.

출애굽기의 서론을 다룬 요약 개요를 [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 에서 참조하라.

▣ 요셉은 자기의 종들에게 다음의 일들을 명한다.

- 1. 일어나, BDB 877, KB 1086, **칼 명령**
- 2.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가서, BDB 922, KB 1191, **칼 명령**
- 3. 그들을 따라 잡아, BDB 673, KB 727, **히필 완료형**이 시간을 나타내는 요소와 더불어 사용되어 **명령**의 의미를 가짐. 이것은 사냥감을 뒤쫓음을 뜻하는 용어이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음을 나타내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참조, 31:25).
- 4. 그들의 도둑질을 비난하라(질문을 사용하여)!

▣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70 인역(NRSV, TEV 역도 이를 따름)은 이 문장에 이어 “왜 너희가 내 은잔을 훔쳤느냐?”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페쉬타역에는 이 추가적인 문장이 없다.

44:5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이 세 장에 걸쳐서 요셉은 자기 형제들의 인격을 시험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켰다. 한편 요셉이 점치는 일(같은 어근[BDB 638, KB 690]을 갖는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 동사**를 사용한 강조형 구문, 참조, 15 절)을 언급하는 것은 놀랍게 여겨진다. 이 표현은 그가 이집트인으로 자신을 위장하려는 의도에서 한 말로 여겨진다. 당시 대부분의 이집트 자도자들은 점치는 자였거나 점을 보러 다니는 자였다. 이 용어는 원래 “속삭이다” 혹은 “쉬익 소리를 내다”를 의미한다(참조, 레 19:26 및 신 18:10, 후에 이

일은 정죄되었다). 70 인역에서 이것은 “전조”라는 단어로 번역되었는데, 이 단어는 새들이 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가리켰다.

예루살렘 성경은 각주(67 쪽)에서 점치는 일이 다음의 내용으로 행해졌다고 언급한다

1. 물이 잔으로 떨어지는 모습(물로 점치기)
2. 물이 잔에 떨어질 때 내는 소리
3. 기름을 잔에 부을 때 기름 방울이 나타내는 형태

이 모든 방법들은 고대 근동에서 사용된 방법이었다. S. R. 드라이버는 한 가지 내용을 더 말한다.

4. 금, 은, 혹은 보석 조각들을 잔에 떨어뜨려 그것이 흩어지거나 이루는 형태를 관찰하기(참조, UBS, *창세기 핸드북* 989 쪽).

우리가 점을 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많은 내용은 전조를 다룬 고대 바벨론의 본문을 통하여서이다(또한 겔 21:21 에 있는 후기의 기술을 참조하라). 우리는 요셉 당시의 이집트 역사에서 행한 점치는 방법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다(제임스 M. 프리먼, *성경의 태도와 관습* 52-54 쪽을 보라).

#### 개역개정 44:6-13

<sup>6</sup>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가서 그대로 말하니 <sup>7</sup>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sup>8</sup>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sup>9</sup>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sup>10</sup>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sup>11</sup>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sup>12</sup>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니라 <sup>13</sup>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집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44:6-13 이 단락은 요셉의 청지기(또한 43:16-25 의 설명을 보라)와 열 형제 사이의 대화 내용이다.

44:9 이들의 반응은 야곱이 자신을 뒤따라온 라반에게 한 내용과 비슷하다(참조, 31:32). 이들의 응답은 정직한 것이었지만,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발견될 때에 그들은 이러한 종류의 진술을 하였음을 후회하게 된다.

44:10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 일은 그들이 베냐민을 내버리는지 아니면 한 가족으로서 그들이 서로 뭉치는지를 알기 위하여 계획한 일이었다. 그들이 목숨을 위해(그들이 시므온을 감옥에 남겨 두고 떠났듯이) 베냐민을 뒤에 남겨 둔 채 줄행랑을 치는 일이 매우 용이했을 것이다(참조, 17 절).

“죄가 없는”(BDB 667)으로 번역된 단어는 종종 “흠 없는”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 용어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다.

1. 사법적 의미, 출 23:7
2. 맹세를 가리키는 말, 창 24:41; 수 2:17,20
3. 사람을 가리키는 말, 욥 4:7; 9:23; 17:8; 22:19,30; 27:17; 시 10:8; 15:5; 잠 1:11

청지기가 한 이 진술은 17 절에서 요셉이 한 말을 드러낸다.

44:12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형제들의 나이 순서를 그가 알고 있었던 점은 이전에 그들로 하여금 놀라게 했다(참조, 43:33). 이제 청지기도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이 청지기는 요셉이 매우 신뢰하는 신복이었다. 그가 요셉의 삶과 믿음에 대해 상당히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한다.

44:13 “그들이 옷을 찢고” 그들이 받은 충격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 이 행위는 유대 문화에서 슬픔을 나타내는 여러 표식 가운데 하나였다. 37:29의 특별주제: 슬픔의 의식을 보라.

**개역개정 44:14-17**

<sup>14</sup>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 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sup>15</sup>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sup>16</sup>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sup>17</sup>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44:15 이것은 거짓 진술이다. 이 말은 상황을 긴장으로 몰아 넣는다. 그들의 도둑질을 요셉이 짐쳐서 안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이 상황을 직접 기획했다!

44:16 유다는 그룹의 대변인이었다. 그는 요셉에게 여러 가지 수사적인 질문을 하였다.

1.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2.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3.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BDB 842, KB 1003, *히트파엘 미완료형*)?
4. 18 절도 질문이다
5. 19 절도 질문이다
6. 34 절도 질문이다

▣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다시금 여기서 요셉을 배신하여 판 일에 대한 신학적 관점으로 인해 형제들이 그 모든 기간 동안 죄책감(BDB 730, 참조, 4:13; 15:16; 19:15)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참조, 42:21-22,28). 한편, 형제들이 하나되어 베냐민을 감싸주고 또 유다가 대신 벌을 받으려 함에서 보듯이 그들은 아주 바빠져 있었다(참조, 18-34 절, 특히 32-33 절). 이 기도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바울이 드린 중보기도와 같은 정도의 것이다.

**특별주제: 중보기도**

I. 서론

- 가. 예수님께서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
  1. 개인 기도, 막 1:35; 눅 3:21; 6:12; 9:29; 22:29-46
  2. 성전청결, 마 21:13; 막 11:17; 눅 19:46
  3. 주기도문, 마 6:5-13; 눅 11:2-4
- 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기꺼이 우리를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하실 수 있으신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돌보심에 우리의 믿음을 명백하게 두는 행동이다.
- 다. 자기 자녀들의 기도 응답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많은 영역에서 자신을 개인적으로 제한하고 계신다(참조, 약 4:2).
- 라. 기도의 주된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및 그 분과 함께 시간을 갖기 위함이다.
- 마. 기도의 범위는 신자와 관계된 일이나 사람을 포함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단 한 번 구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생각이나 염려가 생길 때마다 거듭해서 계속 기도할 수도 있다.
- 바. 기도는 여러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1.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함
2. 하나님의 임재, 교제, 공급하심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림
3. 과거와 현재 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함
4. 우리가 갖고 있는 필요나 원하는 것을 위해 간구함
5.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이의 필요에 대해 성부 앞에 중보함

사. 중보기도는 신비하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이 그를 사랑하신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종종 우리 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변화, 응답, 혹은 필요에 영향을 미친다.

## II. 성경의 자료

### 가. 구약

1. 중보기도의 몇 가지 예
  - ㄱ.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간구함, 창 18:22 이하
  - ㄴ.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기도
    - (1) 출애굽기 5:22-23
    - (2) 출애굽기 32:31 이하
    - (3) 신명기 5:5
    - (4) 신명기 9:18,25 이하
  - ㄷ.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함
    - (1) 사무엘상 7:5-6,8-9
    - (2) 사무엘상 12:16-23
    - (3) 사무엘상 15:11
  - ㄹ. 다윗이 자기 아기를 위해 기도함, 사무엘하 12:16-18
2.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자를 찾으신다, 이사야 59:16
3. 알고 있으면서 자백하지 않은 죄나 혹은 회개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의 기도에 영향을 미친다
  - ㄱ. 시편 66:18
  - ㄴ. 잠언 28:9
  - ㄷ. 이사야 59:1-2; 64:7

### 나. 신약

1. 성부와 성령의 중보기도 사역
  - ㄱ. 예수님
    - (1) 로마서 8:34
    - (2) 히브리서 7:25
    - (3) 요한일서 2:1
  - ㄴ. 성령님, 로마서 8:26-27
2. 바울의 중보기도 사역
  - ㄱ. 유대인을 위한 기도
    - (1) 로마서 9:1 이하
    - (2) 로마서 10:1
  - ㄴ. 교회들을 위한 기도
    - (1) 로마서 1:9
    - (2) 에베소서 1:16
    - (3) 빌립보서 1:3-4,9



- (4) 골로새서 1:3, 9
- (5) 데살로니가전서 1:2-3
- (6) 데살로니가후서 1:11
- (7) 디모데후서 1:3
- (8) 빌레몬서 4 절
- ㄷ. 바울이 교회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요청함
  - (1) 로마서 15:30
  - (2) 고린도후서 1:11
  - (3) 에베소서 6:19
  - (4) 골로새서 4:3
  - (5) 데살로니가전서 5:25
  - (6) 데살로니가후서 3:1
- 2. 교회의 증보기도 사역
  - ㄱ. 서로를 위한 기도
    - (1) 에베소서 6:18
    - (2) 디모데전서 2:1
    - (3) 야고보서 5:16
  - ㄴ. 특별한 그룹을 위한 기도
    - (1) 우리의 원수들, 마태복음 5:44
    - (2) 크리스천 사역자들, 히브리서 13:18
    - (3) 다스리는 자, 디모데전서 2:2
    - (4) 병자, 약 5:13-16
    - (5) 신앙적으로 타락한 자, 요한일서 5:16
  - ㄷ.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디모데전서 2:1
- III.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 가. 그리스도와 성령께 대한 우리의 관계
    - 1. 그 안에 거함, 요한복음 15:7
    - 2. 그의 이름으로, 요 14:13,14; 15:16; 16:23-24
    - 3.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6:18; 유다서 20 절
    - 4.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태복음 6:10; 요한일서 3:22; 5:14-15
  - 나. 동기
    - 1. 흔들리지 않음, 마태복음 21:22; 야고보서 1:6-7
    - 2. 겸손함과 회개, 누가복음 18:9-14
    - 3. 잘못 구함, 야고보서 4:3
    - 4. 이기적임, 야고보서 4:2-3
  - 다. 다른 측면
    - 1. 인내
      - ㄱ. 눅 18:1-8
      - ㄴ. 골로새서 4:2
    - 2. 계속 구함
      - ㄱ. 마태복음 7:7-8
      - ㄴ. 누가복음 11:5-13
      - ㄷ. 야고보서 1:5
    - 3. 가정에서의 불화, 베드로전서 3:7

4. 알고 있는 죄로부터의 자유
  - ㄱ. 시편 66:18
  - ㄴ. 잠언 28:9
  - ㄷ. 이사야 59:1-2
  - ㄹ. 이사야 64:7

IV. 신학적 결론

- 가. 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가! 이 얼마나 중대한 의무요 책임인가!
- 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시다. 성부는 간절히 기다리신다.
- 다. 기도는 당신과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친구들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44:17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어떤 종교적 요구사항을 범하는 일 혹은 공평하지 않은 일을 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하는 관용적 표현이다(참조, 창 18:25; 수 22:29; 24:16; 삼상 2:30; 20:2,9; 22:15; 삼하 20:20; 23:17).

▣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 명령(BDB 748, KB 828, 칼 명령)은 상황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형제들은 베냐민과 함께 돌아가지 못할 경우 야곱이 죽게 될 것을 우려하여 집에 갈 수 없는 입장이었다(참조, 30-31 절). 평안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형국이였다!

개역개정 44:18-34

<sup>18</sup>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sup>19</sup>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sup>20</sup>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sup>21</sup>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sup>22</sup>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sup>23</sup>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sup>24</sup>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sup>25</sup>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sup>26</sup>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sup>27</sup>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sup>28</sup>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sup>29</sup>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 가려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sup>30</sup>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sup>31</sup>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sup>32</sup>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sup>33</sup>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sup>34</sup>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44:18-34 유다는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이집트에 두 번 온 일과 또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두 번째 여정을 인해 집안에 생긴 갈등에 대해 다시금 이야기한다.

44:18 “내 주의 귀에” 이것은 “내가 내 주께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를 뜻하는 관용적 표현이다(참조, 20:8; 23:10,13,16; 50:4; 신 5:1; 31:11,28,30).

▣ “노하지 마소서” 유다가 요셉에게 더 이상 노하지 말기를(참조, 30:2; 39:19) 요청하는 것(BDB 354, KB 351, **칼지시형**)이 아니라 이 막내 동생과 관련하여 자기들의 가족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요청이다.

44:28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이것은 강조를 나타내는 문법 구문으로 되어 있다(같은 어근[BDB 382, 380]을 갖는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이 함께 사용됨). 이 구문은 37:33 에서도 나타난다.

44:30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것은 야곱이 베냐민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개념(BDB 905, KB 1153, **칼수동 분사**)은 삼상 18:1 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나눈 커다란 사랑과 우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야곱이 요셉을 잃게 된 이후에 우울하게 되었지만 자신이 사랑하였던 라헬이 남긴 유일한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함으로써 위로를 얻었다.

44:33 이 절에는 두 **지시형**이 사용되었다. 유다는 베냐민을 풀어주어 보내주기를 간청하고 있다.

1. 주의 종으로(즉, 유다)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문자적으로 “**앓다**”), BDB 442, KB 444, **칼지시형**
2.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BDB 748, KB 828, **칼지시형**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요셉은 왜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렇듯 잔혹한 태도를 취하였는가?
2. 이 장에서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왜 이러한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
3. 요셉은 왜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오게 하기를 원했는가?
4. 고의로 범한 죄가 사람의 운명에 미치는 신학적 영향을 열거하라.

# 창세기 45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친절히 대하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리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다	요셉이 자기를 알리다
45:1-3	45:1-15	45:1-3	45:1-8	45:1-2 45:3-8
45:4-15		45:4-15	45:9-11 45:12-13 45:14-15	45:9-13 45:14-15 바로의 초대
45:16-20	45:16-20	45:16-20	45:16-20	45:16-20 가나안으로 돌아감
45:21-23	45:21-24	45:21-24	45:21-24	45:21-24
45:24-28	45:25-28	45:25-28	45:25-26 45:27-28	45:25-28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42-44 장에서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가진 바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하려는 자세(특별히 라헬의 자손에 대하여)가 바뀌었는지를 알고자 그들을 시험했다. 이 점은 베냐민에 대한 그들의 행동을 통해 알아 볼 수 있었다.
- 나. 45 장과 46 장은 요셉이 매우 높은 지위에 오른 일의 마무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7 년 간의 기근 동안 야곱과 언약의 가족에게 육신의 구원을 주시고자 하신 계획을 성취하심을 나타낸다.
- 다. 45 장(5-9 절)은 비극적인 환경으로 여겨지는 요셉의 삶 가운데 명확히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놀랍게 제시한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된다면 이 일은 매우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한나 윌트홀 스미스의 책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비밀*을 보라).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45:1-3

<sup>1</sup>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 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sup>2</sup>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sup>3</sup>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45:1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것은 동사(BDB 407, KB 410, *칼 완료형과 히트파엘 부정사 연계형*[BDB 67, KB 80]의 부정)으로서 43:31 에서 요셉에게 대해 사용되었다. 거기서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기에 (참조, 2 절) 모든 사람이 그가 우는 것을 들었다!

▣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이것(BDB 422, KB 425, *히필 명령*)은 요셉의 모든 종들(심지어 그의 특별한 심복까지)에게 내린 명령으로서 아마도 이집트어로 말한 내용일 것이다. 오직 그와 그의 열 한 형제만 남게 되었다.

▣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것이 얼마나 좋은 상황이었는지! 요셉의 감정이 고조되었고 그들의 감정도 고조되었다(참조, 3 절).

45:2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그 장소에서 자신의 모든 이집트 종들을 내보냈다. 이 조치는 (1) 자기의 형제들을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거나 (2) 개인적 일과 관련하여 자신의 깊은 정서를 이집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함이었다. 한편 요셉이 자신들을 부를 경우에 대비하여 이에 응답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던 종들은 동양에서 큰 소리로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매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의 종들은 개인적으로 그를 위해 걱정하였기에 또 전문적인 재능을 지닌 그가 정부를 운영하는 일을 그만두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들은 것을 바로에게 보고했다.

45:3 “나는 요셉이라” 이것은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말한 감탄사이다. 그가 히브리어로 말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추정에 속한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이 이집트어로 말할 수 없었고 통역사가 그

자리에 없었기에 이것은 분명하게 여겨진다. 요셉이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말함으로써 그들은 매우 놀랐고 또 그가 한 이 말은 매우 극적인 말이 되었을 것이다(참조, 4 절).

▣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어떤 주석가들은 요셉이 같은 질문을 43:27 에서 하고 있음에 근거하여 이 절의 진실성을 의심한다. 한편 이 용어(BDB 311, 참조, 삼상 25:6)는 단순한 육체의 생명 이상의 것을 뜻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행복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점이다. 우리가 이전의 내용에서 보듯이 요셉이 죽었다고 여겨서 아버지의 삶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이다(참조, 27 절).

▣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것은 강한 의미를 가진 동사이다(BDB 96, KB 111, *니팔 완료형*, 참조, 사 20:41; 삼상 28:21; 삼하 4:1; 욥 21:6; 23:15; 시 6:3; 30:8; 48:6; 83:17; 90:7; 104:29; 사 13:8; 21:3; 겔 7:27).

개역개정 45:4-15

<sup>4</sup>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sup>5</sup>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sup>6</sup>이 땅에 이 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 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sup>7</sup>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sup>8</sup>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sup>9</sup>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sup>10</sup>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sup>11</sup>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sup>12</sup>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sup>13</sup>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sup>14</sup>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sup>15</sup>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45:5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다”라는 용어(BDB 780, KB 864, *니팔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는 *니팔형*으로는 삼상 20:3,34; 삼하 19:2; 느 8:10,11 에서 사용되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해치다,” “아프게 하다,” 또는 “슬퍼하다”이다.

“한탄하다”라는 용어는 “불태우다”(BDB 354, KB 351, *칼 지시형*, 참조, 창 31:36; 39:19; 출 32:11)를 뜻한다.

요셉은 성경 전체에 걸쳐 나오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가장 놀라운 진술을 하려 하고 있다. 이 절은 요셉 이야기의 신학적 목적을 제시한다! 그가 배신을 당하고 팔리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엘로힘)의 손을 볼 수 있게 되었다. 5-9 절은 갈등과 어려움으로 가득 찬 삶의 한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임재하심을 누리게 됨을 강하게 확인해 주는 내용이다.

이 강력하고 놀라운 본문에 대해 한 가지 내용을 더 말하고자 한다. 내가 항상 묻는 질문은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언약에 속한 가족들을 위해서만 일하시는가?”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심이 분명하지만(참조, 롬 9-11 장), 일반 신자들에 대하여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즉, 구속)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같은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 세상은 악한

반역의 장소이다(웬함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라). 신자들이 고통을 받는다; 신자들이 박해를 받는다/ 신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 신약에서 볼 때 비록 형언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심은 사실로 나타난다(한나 휘트홀 스미스의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비밀*을 보라). 신자들이 하나님께 보배로운 존재라는 점은 바로 믿음에 기초한 전제이며 성경의 계시에 근거한 내용이다! 인생이 신비롭다. 한편, 보이지 않는(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이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가 가진 평화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에 기초해야지 환경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참조, 고전 10:13; 13:8-13).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족이다(참조, 롬 2:28-29)!

45:6 “이 땅에 이 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 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것은 바로의 꿈을 통해 계시하신 바 칠 년의 기근이 있을 것에 기초한다.

45:7 7 절에 있는 요셉의 진술은 남은 자(BDB 984)가 보전되는 일이 그의 활동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남은 자”라는 이 용어는 나중에 히브리 민족 가운데 믿음을 가진 신실한 자들을 가리키는 신학적 의미로서 사용되었다.

**특별주제: 남은 자의 세 의미**

“신실한 남은 자”라는 구약의 개념은 예언서(주로 8 세기의 선지자들과 예레미야)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이다. 이것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1. 포로 생활에서 생존한 사람들(예, 사 10:20-23; 17:4-6; 37:31-32; 렘 42:15,19; 44:12,14,28; 암 1:8)
2. 야웨께 계속 신실한 자들(예, 사 4:1-5; 11:11,16; 28:5; 율 2:32; 암 5:14-15; 미 2:12-13; 4:6-7; 5:7-9; 7:18-20)
3. 종말에 있을 새롭게 됨과 새 창조에 참여할 자들(예, 암 9:11-15)

포로로 잡혀가는 문맥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포로로 잡혀가 생존한 자들) 가운데 오직 일부(신실한 열심을 가진 자들)만 유다로 돌아오게 선택하신다. 우리가 앞 장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과거와 관련이 있는 주제가 반복되어 나타난다(6 절). 하나님은 사람의 수를 줄이셔서 자신의 능력과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드러내신다(예, 기드온, 샏 6-7 장).

■	NASB, NKJV, NJB	“큰 구원으로”
	NRSV	“많은 생존자들”
	TEV	“후손들이 생존하여”
	70 인역	“큰 남은 자들(후손)”
	JPSOA	“매우 큰 구원”

이것은 문자적으로 “도망”(BDB 812, 참조, 렘 25:35)과 **형용사**인 “위대한”(BDB 152)으로 되어 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 자기의 가족을 돕는 일이 야웨께서 이끄신 커다란 구원으로 설명되고 있다(참조, 5,8 절; 50:20).

45:8 “하나님이 나를 ... 삼으셨나이다” 예정의 교리와 관련된 신학적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동(또한 물리적 사건들)을 아시고 이에 영향을 미치신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있어서 어느 만큼 책임(불성실하심)이 있으신가에 대한 점이다. 신학자들(스트롱, 조직신학, 제 2 판 423-425 쪽; 에릭슨, 기독교인의 신학, 제 2 판 424-426 쪽)은 하나님께서 최악된 행동에 대하여 얼마만큼 개입하시는가(최악된 행동의 시작이 아님)에 관해 여러 이론을 제시하였다(참조, 약 1:14; 요일 2:16).

1.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막으신다(참조, 창 20:16)
2.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허용하신다(참조, 시 81:12-13; 롬 1:24,26,28)
3.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이끄신다(참조, 창 37:21-22; 45:5,7,8; 50:20)
4.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제한하신다(참조, 고전 10:13)

**특별주제: 예정(칼빈주의) 대 인간의 자유의지(알미니안주의)**

- I. 로마서 8:29 - 바울은 “예지하다”(프로기노스코, “미리 알다”)라는 단어를 이곳과 11:2 에서 사용하였다. 11:2 에서 이 단어는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가리킨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용어가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 그와의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함을 기억하라(참조, 창 4:1; 렘 1:5). 여기서 이 단어는 일련의 영원한 사건들을 포함한다(참조, 롬 8:29-30). 이 용어는 예정과 관련을 가진다. 한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은 선택의 기초가 되지 않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만일 범죄한 사람이 미래에 행할 반응에 기초한 선택이라면 이는 인간의 행위를 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용어는 행 26:5; 벧전 1:2,20; 벧후 3:17 에서도 나온다.
- 가. “예지하다”(프로기노스코, “미리 알다”)

“미리 알다”와 “예정하다”라는 용어는 “미리”라는 전치사와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이것을 “미리 알다”, “미리 범위를 정하다” 또는 “미리 표시하다”로 번역해야 한다. 신약에서 예정을 다룬 중요한 본문은 롬 8:28-30; 엡 1:13-14; 롬 9 장이다. 이 본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시간에 맞추어 이미 설정하신 계획이 있다. 한편 이 계획은 임의적이거나 취사선택적이지 않다. 이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지하심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하심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왜곡시키는 우리의 서구적(미국인의) 개인주의 혹은 복음적 열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어거스틴 대 펠라기우스 혹은 칼빈주의 대 알미니안주의 사이에 있는 역사적 신학적 갈등으로 양극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 나. “예정하다”(프로오리조, “미리 한계를 설정하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하심을 제한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을 복음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교리가 아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세계관을 형성하여 그들을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돕기 원하신다(참조, 딤후 2:4; 벧후 3:9).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누가 혹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단 말인가(참조, 롬 8:31-39)?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현재로 보신다; 인간은 시간에 묶인 존재이다. 우리의 관점과 지적 능력은 제한적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어떤 갈등도 없다. 이것은 언약적 구조를 갖는다. 이것은 변증법적 긴장으로 제시된 진리의 한 예이다. 성경의 교리는 다른 종류의 관점에서 제시되었다. 그것은 종종 역설적으로 나타난다. 서로 반대를 이루는 쌍으로 보이는 것 사이에 진리가 위치한다. 우리는 이 진리들의 어느 한 쪽을 취함으로써 그 긴장을 제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의 어떤 진리라도 그것을 따로 격리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택의 목적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갈 천국 뿐 아니라 현재 가질 그리스도를 닮은 삶에 있음도 강조되어야 한다(참조, 롬 8:29; 엡 1:4; 2:10).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게 살도록” 선택을 받았다. 우리의 바뀐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들도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예정하심은 우리의 개인적 특권이 아니라 언약적 책임을 나타낸다. 이것이 이 본문의 주요 진리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목적이다. 거룩함은 모든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특별한 지위를 뜻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의미한다(참조, 엡 1:4). 창조 때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참조, 창 1:26; 5:1,3; 9:6)은 회복되어야 한다.

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따르다”—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형상의 회복에 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닮도록 미리 정해졌다(참조, 엡 1:4).

## II. 로마서 9 장

가. 로마서 9 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신약의 가장 강력한 본문 가운데 하나이다(다른 본문으로는 엡 1:3-14 이 있음). 한편, 10 장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명확하게 또 반복하여 언급한다(참조, “모든 사람” 4 절; “누구든지” 11,13 절; “모든” 12 절 [2 회]). 바울은 결코 이러한 신학적 긴장을 조화시키려 하지 않았다. 이것은 양쪽 다 진리이다! 대부분의 성경적 교리는 역설적 혹은 변증적 쌍으로 제시된다. 대부분의 신학적 체계는 논리적으로 절반의 진리를 나타낸다.

어거스틴주의와 칼빈주의 대 반펠라기우스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진리와 오류의 요소를 갖고 있다. 기존의 해석적 틀을 가지고 성경에 변형을 가하는 성경 인용주의적, 교리적, 이성적, 신학적 체계는 교리 사이에 나타나는 성경의 긴장을 선호한다.

나. 이와 같은 진리(롬 9:23 에서 발견됨)가 롬 8:29-30 및 엡 1:4,11 에서 언급된다. 이 장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내용을 제시한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을 완전히 주관하고 계심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없다.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한 강조는 결코 약화되거나 감소되어서는 안된다. 한편 이 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선택과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 구약의 어떠한 언약(창 15 장의 경우처럼)은 무조건적 특성을 가지고 또한 모든 사람들의 응답과 관련을 갖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언약은 인간의 응답에 의해 조건지어짐(예, 에덴, 노아, 모세, 다윗)이 확실하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세계의 구속을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다; 어떤 사람도 이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기를 선택하셨다. 이 참여의 기회는 주권(롬 9 장)과 인간의 자유의지(롬 10 장) 사이의 신학적 긴장을 낳는다.

성경의 어떤 강조점을 택하여 다른 강조점을 놓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동양 사람들이 진리를 변증법적 혹은 긴장으로 가득찬 쌍으로 제시하고 있기에 교리에 긴장이 나타난다. 반드시 다른 교리와의 관계에서 교리들을 이해해야 한다. 모자이크 형태로 진리가 이루어져 있다.

## III. 에베소서 1 장

가. 선택은 놀라운 교리이다. 한편, 이것은 편애를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속을 돕기 위한 통로, 도구, 방법으로의 부르심이다! 구약에서 이 용어는 우선적으로 섬김을 나타낸다; 신약에서 이 용어는 섬김을 가져 오는 구원을 뜻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나타나는 모순을 결코 화해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둘을 모두 확증한다! 성경에 나타난 긴장에 대한 좋은 예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로마서 9 장과 인간이 해야 할 응답에 대한 로마서 10 장의 경우일 것이다(참조, 10:11,13).

이 신학적 긴장에 대한 열쇠가 1:4 에 나타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시며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선택받을 가능성을 가진다(칼 바르트). 예수께서는 범죄한 인간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예”(yes)이시다(칼 바르트). 엡 1:4 은 또한 예정의 목적이 오직 천국만이 아니라 거룩함(그리스도를 닮은 삶)에 있음을 확증함으로써 이 주제를 명확하게 해준다. 우리는 종종 복음의 혜택에 의해 끌림을 받지만 책임있는 삶은 무시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선택)은 영원은 물론

일시적인 삶을 위한 것이다!

교리는 따로 떨어진 별개의 진리로서가 아니라 다른 진리들과의 관계성에 비추어서 형성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는 성운 대 한 개의 별이다. 하나님께서는 서구의 장르가 아니라 동양의 장르를 취하여 진리를 나타내신다. 우리는 변증적(역설적) 쌍을 이룬 교리적 진리들로 인한 긴장을 제거해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초월적인 하나님 대 내재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안전함 대 인내함; 성부와 동등하신 예수 대 성부께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 언약의 형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 기타).

“언약”이라는 신학적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항상 주도권을 갖고 일을 시작하시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시는 분)을 인간이 취하여야 하는 믿음의 처음 응답 및 지속적인 회개의 믿음과 하나로 엮는다. 역설적 진리의 한 쪽을 성경 구절로써 입증함으로써 다른 쪽을 무시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당신이 좋아하는 교리나 조직신학만을 주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 엡 1:4 에서 “그가 우리를 택하셨다”는 표현은 주어를 강조하는 **부정과거 중간태 직설법**으로 되어 있다. 만세 전에 성부께서 하신 선택에 초점이 놓여 있다. 하나님의 선택을 이슬람의 결정론적 의미 혹은 극단적 칼빈주의에서 보듯이 어떤 사람 대 다른 사람의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되고 언약적 의미로 이해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구속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참조, 창 3:15).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택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셨다(참조, 창 12:3; 출 19:5-6).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을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주도권을 가지신다(참조, 요 6:44,65). 이 본문과 롬 9 장은 어거스틴과 칼빈이 강조한 예정의 교리에 대한 성경의 기초를 이룬다.

하나님은 구원(칭의) 뿐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도 신자들을 택하셨다(참조, 골 1:12). 이것은 (1)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참조, 고후 5:21) 혹은 (2)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자기 자녀들에게서 재생산하고자 하시는 바람(참조, 2:10; 롬 8:28-29; 갈 4:19)과 관련을 가진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대해 갖고 계신 뜻은 어느 날 천국에서의 삶과 현재의 그리스도를 닮은 삶에 대한 것이다!

엡 1:4 에서는 “그 분 안에서”가 핵심 개념이다. 성부의 축복, 은혜,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흐른다(참조, 요 14:6). 이 문법적 형태(**공간**을 말하는 **위치격**)가 반복되어 나타남을 주목하라—3 절, “그리스도 안에서”; 4 절, “그 분 안에서”; 7 절, “그 분 안에서”; 9 절, “그 분 안에서”; 10 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분 안에서”; 12 절, “그리스도 안에서”; 13 절, “그 분 안에서”(2 회). 예수님은 범죄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예”였다(칼 바르트). 예수께서는 선택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은 그 분 안에서 선택의 가능성을 가진다. 성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 온다.

“세상이 형성되기 전에”라는 구는 마 25:34; 요 17:24; 뱀전 1:19-20; 계 13:8 에서도 나온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적 행동이 창 1:1 이전에 속함을 나타낸다. 인간은 시간적으로 제한을 갖는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과거, 현재, 미래로 인식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예정하심의 목적은 거룩함에 있지 특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담의 자녀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부르심이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의도하신 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참조, 창 1:26-27) 하나님을 닮도록(참조, 살전 5:23; 살후 2:13) 하기 위함이다. 예정하심을 거룩한 삶이 아닌 신학적 교리로 바꾸는 일은 비극이다. 종종 우리의 신학이 성경 말씀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낸다.

“흠없는”(아모모스) 혹은 “책망할 것 없는”이라는 용어가 (1) 예수님(참조, 히

9:14; 뱀전 1:19) (2) 스가랴와 엘리사벳(참조, 눅 1:6) (3) 바울(참조, 빌 3:6) (4)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참조, 빌 2:15; 살전 3:13; 5:23)에 대해 사용되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 천국에서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다(참조, 롬 8:29-30; 갈 4:19; 뱀전 1:2). 신자들은 복음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잃어버려진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

문법적으로 볼 때 이 절에 있는 “사랑 안에서”라는 구는 4 절과 5 절과 함께 사용된다. 한편, 에베소서에서는 이 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을 나타낸다(참조, 3:17; 4:2,15,16).

- 다. 엡 1:5 에서 “그가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문장은 **부정과거 능동 분사**로 되어 있다. 이 헬라어 용어는 “미리”와 “표시하다”의 합성어이다.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구속적 계획을 나타낸다(참조, 눅 22:22; 행 2:23; 4:28; 17:31; 롬 8:29-30). 예정은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여러 진리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일련의 진리나 신학적 형태의 하나를 이룬다. 이것은 결코 따로 떼어져서 강조되어서는 안된다! 성경의 진리는 긴장이 가득찬 역설적 쌍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진리로 제시되었다. 교파주의는 변증적 진리의 한 쪽만을 강조함으로써 그 긴장을 제거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예정 대 인간의 자유의지; 신자의 구원의 안정성 대 성도의 인내; 원죄 대 고의적인 죄; 죄 없음 대 죄가 적음; 즉각적으로 선포되는 성화 대 점진적인 성화; 믿음 대 행함;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 그리스도인의 책임; 초월하심 대 내재하심).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행할 일에 대한 미리 아심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에 기초한다(참조, 9 절과 11 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영지주의자들 혹은 오늘날의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과 같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참조, 겔 18:21-23,32; 요 3:16-17; 뱀전 2:4; 4:10; 딤후 2:11; 뱀후 3:9). 예정하심을 다룬 또 다른 본문인 롬 9-11 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열쇠가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하나님의 성품)는 이 본문에 있어서 신학적 열쇠가 된다(참조, 6a, 7c, 9b 절).

범죄한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있다(참조, 사 53:6 및 롬 3:9-18 에서 인용한 구약의 여러 본문).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앞부분의 장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바울이 인간의 행함과 완전히 상관없는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예정하심(1 장), 은혜(2 장),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신비, 2:11-3:13). 이것은 인간의 공로와 자랑을 강조하는 거짓교사들의 강조점을 반박하기 위함이었다.

▣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요셉이 가진 세 종류의 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1. 그는 바로와 특별한 관계를 가졌다. 이것은 주전 3000 년으로 거슬러 가는 호칭으로서 고고학적 자료에 나온다. 이것은 수상의 지위를 가리킨다.
2. “그 온 집의 주”는 바로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창 41:40; 47:20-26).
3. “애굽 온 땅의 통치자”는 그가 행정부에 대해 갖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창 41:41,48-49,55-56; 42:6-7).

로랜드 드보(*고대 이스라엘*, 제 1 권 49 쪽)는 “아버지”라는 용어가 바로의 수석 고문관으로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음을 말한다. 자녀가 자라서 어떤 연령에 이른 후에는 아버지가 그들의 중요한 선생이 되었다. 그 이전에는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쳤다. 영적 영역에 있어서 제사장들은 자신들에 대해 “아버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히브리인의 지혜 선생은 잠언에서 이 호칭을 사용하였으며, 제사장들은 삿 17:10; 18:19 에서 그렇게 하였다).

45:9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여러 명령을 하고 있다.

1. 속히, BDB 554, KB 553, **피엘 명령**, 참조, 13 절
2. 올라가서, BDB 748, KB 828, **칼 명령**
3. 내려오사, BDB 432, KB 434, **칼 명령**
4. 지체 말고, BDB 763, KB 840,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45:10 “고센 땅에 머물며” 이 내용이 요셉 자신의 제시인지(참조, 46:31) 아니면 그곳이 목자들이 살아야 하는 장소라는 논리에 의한 것인지는 이후의 절들에서 불확실하다. 고센 땅(BDB 177)은 나일 강의 동편 하류에 위치한 땅으로서 가나안 땅에 가까운 곳이었다. 이곳은 후에 라암세스의 땅으로 불렸다(참조, 창 47:6,11). 이곳은 이집트에서 목축업을 행하는 장소였다(참조, 창 46:32-34).

▣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 절은 종종 요셉이 섬긴 바로가 “목자 왕” 혹은 힉소스 왕조의 한 왕이었다는 증거로 사용된다. 힉소스는 활(compound bow)과 말이 끄는 전차를 사용하여 이집트를 정복했다. 그들은 주전 1720-1580 년에 이집트를 다스렸다. 우리는 그들이 셈족 출신임을 안다. 따라서 그들이 요셉과 같은 또 다른 셈족 사람을 높은 지위에 앉히는 일이 쉬었을 것이다. 이집트 역사에 걸쳐서 셈족 사람들이 정부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힉소스 왕조의 수도는 타니스 혹은 소안에 있었다(참조, 시 78:12,43). 이곳은 고센 땅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했다. 한편 이집트 토착민인 후기의 바로들은 수도를 600 여 km 떨어진 곳에 있는 테베스로 옮겼다. 요셉이 이집트의 행정부에서 다스리던 정확한 시기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으며, 이 절의 내용도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45:12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는 약간 불확실하지만(아마도 그는 통역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 전체적 의미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요셉과 함께 라헬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베냐민은 요셉에게 각별했다. “내 입”이라는 구는 권위를 뜻하는 관용어로 보인다(참조, 21 절 및 라쉬의 해석).

▣ “베냐민” 라헬은 출산의 과정에서 죽으면서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참조, 창 35:18). 한편, 야곱은 그의 이름을 “내 오른손의 아들”로 바꾸었다. 라헬에 대한 야곱의 각별한 사랑을 인해 요셉과 베냐민은 그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45:13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 이것은 **카보드**(BDB 458)라는 히브리 단어이다. 이 단어의 기본 의미(BDB 458 II)는 “무거운”(참조, 41:31, NASB, “심한”; 출 4:10, “무거운 혀”)이다.

이 단어는 값이 나가는 물건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다. 다음의 용법을 참고하라.

1. 부, 창 31:1; 사 10:3; 61:6
2. 영화/성공, 창 45:13
3. 아름다움, 사 35:2
4. 심한 기근, 창 12:10; 41:13; 43:1; 47:4,13
5. 영예, 민 24:11
6. 많은, 창 50:10,11(즉, 애곡)

#### 특별주제: 영광

구약에서 “영광”(카보드)을 뜻하는 가장 일반적인 히브리어는 원래 저울(“무겁다”)과 관련된 상업 용어였다. 무게가 나가는 것은 가치가 있거나 내재적인 가치를 가졌다. 종종 밝음의 개념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여기에 첨가되었다(참조, 출 19:16-18; 24:17; 사 60:1-2). 하나님은 홀로 귀하시며 영예로우시다. 그는 매우 빛나시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그를 볼 수 없다(참조, 출 33:17-23; 사 6:5).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야웨를 알 수 있다(참조, 요 14:8-11; 골 1:15; 히 1:3).

“영광”이란 단어는 애매 모호한 부분이 있다:

1.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평행을 이룬다
2.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혹은 “온전하심”을 가리킨다
3.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일컬을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참조, 창 1:26-27; 5:1; 9:6) 후에 반역 때문에 그것이 망가졌다(참조, 창 3:1-22). 이 용어는 광야 방랑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출 16:7,10; 레 9:23; 민 14:10 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45:14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라쉬와 같은 뛰어난 주석가들조차도 이절의 해석에 있어서 과도한 유대적 해석을 나타낸다. 그들은 요셉이 운 것은 요셉 족속이 후에 분배받은 땅인 실로에 있는 회막이 파괴됨을 인함이었다고 설명한다(참조, 여호수아서). 베냐민이 운 것은 베냐민 지파가 할당받은 곳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인함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해석은 이절의 역사적 배경을 완전히 제거한 후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어떤 사건을 적용시키려는 유대인의 석의 방법이 지닌 경향을 드러낸다.

#### 개역개정 45:16-20

<sup>16</sup>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sup>17</sup>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sup>18</sup>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급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sup>19</sup>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급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 오라 <sup>20</sup>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급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45:16 형제들이 (1) 요셉이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냄으로 인한 충격에서 (2)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을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함에서 (3) 요셉에게 대한 두려움에서 회복되었다.

45:17-20 이것은 바로가 요셉의 가족과 관련하여 요셉에게 말한 내용이다.

1.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17 절, BDB 55, KB 65, **칼 명령**
2. 이렇게 하여, 17 절, BDB 793 I, KB 889, **칼 명령**
3. 너희 양식을 싣고, 17 절, BDB 381, KB 378, **칼 명령**(이 동사는 구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4.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17 절, BDB 229, KB 246, **칼 명령**
5. 오라(NASB 에는 없음), 17 절, BDB 97, KB 112, **칼 명령**
6.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18 절, BDB 542, KB 534, **칼 명령**
7. 내게로 오라, 18 절, BDB 97, KB 112, **칼 명령**
8. 내가 너희에게 애급의 좋은 땅을 주리니, 18 절, BDB 678, KB 733, **칼 청유형**
9.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18 절, BDB 37, KB 46, **칼 명령**
10. 이렇게 하라, 19 절, BDB 793 I, KB 889, **칼 명령**
11. 수레를 가져다가, 19 절, 6 항과 같은 **동사임**
12. 너희 아버지를 모셔(문자적으로, 들어서), 19 절, BDB 669, KB 724, **칼 완료형이 명령의 의미로 사용됨**
13. 오라, 19 절, 5 항 및 7 항과 같은 **동사임**, 그러나 한 **칼 완료형이 명령의 의미로 사용됨**
14.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문자적으로, “아까워하여 너희 그릇에게 너희 눈을 두지 말라”), 20 절, BDB 299, KB 298, **칼 지시형**; 같은 관용적 표현이 신 7:16; 13:8; 19:13,31; 25:12 에 나옴

**개역개정 45:21-23**

<sup>21</sup>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sup>22</sup>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sup>23</sup>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열 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열 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45:21 “수레” 이것은 “소가 끄는 두 바퀴 달린 수레”라는 의미를 가진 이집트 외래어로서(BDB 722, 참조, 삼상 6:7) 이집트의 전차(BDB 939, 참조, 41:43)를 의미하지 않는다. 수레는 이집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그 땅이 평지에 속하기 때문이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수레가 드물게 혹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는 그 땅이 거칠고 산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블레셋이 해안가 세펠라 지역을 지배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철병거를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스라엘은 초기에 산악지대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곳에서는 병거가 쓸모없었다. 가나안 땅에서는 수레를 매우 드물게 볼 수 있었음이 틀림없다.

45:22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이것은 아마도 예식용 의복을 가리킬 것이다(즉, 출 3:22; 12:35). 이러한 의복은 고대 세계에서 부의 상징이었다. 이것은 자신의 형제들로 하여금 그들의 새로운 문화적 환경(이집트의 상류사회, 참조, 41:14)에 적합하게 차려입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한편, 이 옷은 새 옷을 의미하지 어떤 비싼 옷을 뜻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즉, 룻 3:3).

▣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요셉은 편애가 가져 올 문제에 대해 알고 있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문화적 상황에서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에게 아낌없는 호의를 베풀고 있다(참조, 43:34).

45:23 야곱이 “43:11 에서 이집트의 “그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보냈는지 기억하라. 이제 요셉도 문화적으로 예상되는 답례를 하고 있다.

1. 수나귀 열 필에 실은 아름다운 물품들(BDB 375 와 BDB 595 의 합성)
2. 암나귀 열 필에 실은 곡식과 떡

와! 이 모든 것이 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개역개정 45:24-28**

<sup>24</sup>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sup>25</sup>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sup>26</sup>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 하더니 <sup>27</sup>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sup>28</sup>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45:24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 동사(BDB 919, KB 1182, 칼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는 이곳에서만 나오고 오경에서는 두 번 더 나옴)는 다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1. 창 37 장에서 요셉에 대한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 비난함(라쉬)
2. 전 가족과 함께 돌아오는 일(참조, 출 15:14; 신 2:25)과 요셉에게 보복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3. 베냐민이 더 많은 음식을 받았고(43:34) 이제는 더 많은 옷과 은을 받은 것에 관한 계속되는 생각(45:22)

요셉은 그들의 악한 행동이 아닌(참조, 42:21,28; 44:16) 하나님께서 가지신 커다란 목적(참조, 5,7,8 절; 50:20; 행 7:9)을 언급하여 하나님 자신이 환경을 주관하신 것임을 미묘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상기시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악조차도 사용하신다(참조, 행 2:23).

**45:26 “어리둥절 하더니”** 이 단어는 원래 “추위로 감각을 잃게 되다”(BDB 806, KB 916, **칼 미완료형**, 참조, 시 77:2; 합 1:4)를 뜻한다. 비록 본문에서 이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자신들이 이전에 한 일을 고백했다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요셉의 꿈이 마침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은 흥미롭다. 야웨께서는 역사를 아시며 이를 주관하신다! 예언적인 꿈과 예언의 말씀은 성경의 독특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이룬다.

▣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이 동사(BDB 52, KB 63)는 **히필 완료형**이다. 야곱은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참조, 37:31-35). 야곱의 아들이 그에게 거짓말을 자주 하였기에 그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15:6의 특별주제를 보라.

**45:27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것은 요셉이 죽었다고 한 이후로 야곱은 침울하게 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은 때때로 부모로 하여금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황폐함에 이르게 한다.

**45:28** 27 절에서는 죽장을 옛 삶을 나타내는 “야곱”으로 부르지만 28 절에서는 그의 새이름인 “이스라엘”로 칭하고 있음은 흥미롭다. 이러한 차이가 적절한 이유는 (1) 야곱이 하나님께 대하여 또 요셉과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에 있어서 새롭게 되었고 (2) 야곱이 언약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해석하기에 항상 쉽지 않다. 창 32:28-29에 기초한 이 이름과 관련된 몇 가지 이론은 다음과 같다:

1. “**엘**께서 지속하시기를”
2. “**엘**께서 보존하시기를”
3. “**엘**과 함께 다스림”
4. “하나님의 왕자”

32:28의 특별주제를 보라. 나는 다른 이름이 다른 자료(즉, J.E.D.P)를 나타낸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 어원이 무엇이든 간에 이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특별한 호칭이 되었다. 주전 922년 이후로 이 이름은 북쪽의 10 지파만 가리켰다. 주전 538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 이 이름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가리키는 호칭이 되었다.

야곱은 네 가지로 반응을 하였다.

1. 죽하도다, **동사가 없음**(BDB 912 I)
2.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동사가 없음**
3. 내가 죽기 전에 가서, BDB 229, KB 246, **칼 청유형**
4. 그를 보리라, BDB 906, KB 1157, **칼 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됨**

# 창세기 46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하다	야곱의 이집트 여행	야곱의 이집트 이주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집트로 가다	야곱이 이집트로 떠나다
46:1-4	46:1-7	46:1-4	46:1-2a	46:1-5
46:5-7		46:5-7	46:2b-4	46:6-7
이집트로 온 자들				야곱의 가족
46:8-27	46:8-15	46:8-27	46:8-15	46:8a
				46:8b-15
	46:16-18		46:16-18	46:16-18
	46:19-22		46:19-22	46:19-22
	46:23-25		46:23-25	46:23-25
	46:26-27		46:26-27	46:26-27
	야곱이 고센에 정착하다 (46:28-47:12)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정착하다 (46:28-47:12)	이집트에 있는야곱과 그의 가족 (46:28-47:12)	요셉이 그들을 영접하다
46:28-34	46:28-34	46:28-34	46:28-30	46:28-30
			46:31-34	46:31-34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야곱은 이집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원한다. 이것은 아마도 다음의 이유를 그 배경으로 한다
  - 1. 그는 하나님께서 창 15:13-16 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될 것이라는 가족의 전승을 기억했다
  - 2. 이삭이 이집트로 가는 것을 금지 당했기에 이 일을 두려워 했다
  - 3.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나기를 내키지 않아 했다.
- 나. NKJV(벨슨, 1982)의 각주는 이 본문과 민수기 26 장 및 역대상 4 장과 7 장에 있는 차이를 제시한다.

이곳	민수기/역대상
1. 여무엘, 10 절, 출 6:15	느무엘, 민 26:12; 대상 4:24
2. 오핫, 10 절(다른 명단에는 없음)	
3. 야긴, 10 절	야립, 대상 4:24
4. 스할, 10 절	세라, 대상 4:24
5. 부와, 3 절, 민 26:33	부아, 대상 7:1
6. 욥(Iob/Job), 13 절	야솅, 민 26:24; 대상 7:1
7. 시본, 16 절	스본, 민 26:15, 70 인역
8. 에스본, 16 절	오스니, 민 26:16
9. 아로디, 16 절	아롯, 민 26:17
10. 홉빔, 21 절	후빔, 민 26:39
11. 후심, 23 절	수함, 민 26:42
12. 야스엘, 24 절	야시엘, 대상 7:13
13. 실렘, 24 절	살룸, 대상 7:13

- 다. 야웨께서 자신을 계시하심에 있어서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방법에 대해 NIDOTTE 제 4 권, 354 쪽은 흥미로운 요약을 제시한다.
  - 1. 말로써, 12:1-3; 13:14-17; 21:12-13; 22:1-2
  - 2. 환상으로써, 15:1-6; 46:2-4
  - 3. 꿈으로써, 20:3-7; 28:12-15; 31:10-13,24; 37:5,9
  - 4. 나타나심/현현으로써, 12:7; 16:7-14; 17:1; 18:1; 26:2,24; 35:1,9; 48:3
  - 5. 주의 천사로써, 16:7-13; 18:2,16,17-33; 21:17-19; 22:11-12,15-18; 31:11,13; 48:15-16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사용하시는 이 특별한 가족에게 말씀하심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점이 나에게 감명적이다. 하나님은 의사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46:1-4  
<sup>1</sup>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sup>2</sup>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sup>3</sup>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sup>4</sup>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46:1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창 37:14 에서 볼 때 그는 모든 기간 동안 헤브론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성읍에서 멈추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곳은 특별한 우물이 있는 곳이었다. 창 21:22-31 과 26:33 은 “브엘세바”(BDB 92)와 관련된 두 가지의 어원을 말한다. 이곳은 특별히 족장 아브라함(참조, 창 21:31-33; 22:19) 및 이삭(참조, 창 26:24-25; 28:13)과 관련을 갖는 장소였다.

야곱은 자신이 모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길을 떠났다(참조, 5-7 절). 그가 이집트로 행하는 길은 그에게 있어서 지속적인 재정착을 위한 것이었다.

▣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보통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족장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서는 야곱이 이집트로 떠나는 일을 놓고 이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의 확인을 받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점이 흥미롭다. 이것은 아마도 다음의 이유에서 행한 일일 것이다

1. 그는 하나님께서 창 15:13-16 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될 것이라는 가족의 전승을 기억했다
2. 이삭이 이집트로 가는 것을 금지 당했기에 이 일을 두려워 했다
3.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나기를 내키지 않아 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야곱에게 부족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 내시고 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자손을 주신 언약의 하나님께 대한 강조를 나타낸다.

**46:2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창세기의 후반부에서 비록 요셉이 중요한 인물임에도 하나님께서 족장 야곱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신 것처럼 그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따라서 창세기의 마지막 장들 가운데 야곱의 삶과 관련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절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을 통해 족장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경우에 속한다.

▣ **“야곱아 야곱아”** 이것은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표였다(참조, 22:11).

▣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말씀하실 때 이에 응답함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다(참조, 22:1,7,11,18; 27:1,18; 31:11; 37:13; 46:2).

**46:3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것은 언약적 이름이다(참조, 26:24; 28:13; 43:23).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 엘(BDB 42)은 고대 근동에서 사용한 하나님의 일반적 이름으로서 “강하다”라는 어근에서 유래했다. 이 이름의 복수형(엘로힘, BDB 43)은 창세기의 앞 부분에서 자주 사용되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낸다. 12:1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이는 그가 가진 두려움(BDB 431, KB 432, 칼 미완료형 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이 다음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1. 하나님께서 창 15:13-16 에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주신 바 가족의 전승
2. 이삭이 이집트로 가는 것을 금지 하신 일(26:2)
3.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 본문이 이 구를 포함하고 있다—15:1; 21:17; 26:24; 46:3.

▣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전에 말씀하지 않으신 새로운 내용이다. 이 말씀은 12:2; 17:4,6,20; 18:18 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준다.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또 땅의 먼지같이 많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과 함께 계심은 그들로 하여금 수가 급속히 많아지게 하실 것이다(참조, 출 1 장).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점 있고 아롱진 무늬를 가진 야곱의 때가 급격히 많아지게 하셨다. 숫적 증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의 한 가지 표였다. 이러한 급격한 숫적 증가는 나중에 이집트 정부와의 문제를 촉발시켰다(즉 세티 I; 라암세스 II).

46:4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심은 매우 커다란 약속이다. 이것은 구속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다(참조, 창 26:3,24; 28:15; 31:3; 시 23:4; 139:7-12). 이 히브리 문장의 문법 구조(절)는 강조형으로 되어 있다(다음 문장도 그러하다)! 이 사실은 야웨께서 가나안에만 제한되지 않으심을 나타낸다. 그는 우주적인 하나님이다(즉, 신 32:8).

▣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야곱은 이집트에서 지속적으로 자리잡아야 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돌아 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다(참조, 15:16; 28:15).

▣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이것은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임종함을 나타내는 관용적 히브리 표현이다(참조, 창 50:1). 이 일은 종종 임종시 손으로 눈꺼풀을 덮어주는 행위와 관련이 있었다.

**개역개정 46:5-7**

<sup>5</sup>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sup>6</sup>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sup>7</sup>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46:7 “딸들과 손녀들” 학자들은 이들이 디나 외에 또 다른 딸들이 있었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의 며느리들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

**개역개정 46:8-27**

<sup>8</sup>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sup>9</sup>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sup>10</sup>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sup>11</sup>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sup>12</sup>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sup>13</sup>잇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와와 율과 시므론이요 <sup>14</sup>스블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알르엘이니 <sup>15</sup>이들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삼십삼 명이며 <sup>16</sup>갓의 아들은 시분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sup>17</sup>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sup>18</sup>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십육 명이라 <sup>19</sup>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sup>20</sup>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sup>21</sup>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뭍빔과 흠빔(후뭍빔)과 아룻이니 <sup>22</sup>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십사 명이요 <sup>23</sup>단의 아들 후심이요 <sup>24</sup>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sup>25</sup>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칠 명이라 <sup>26</sup>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육십육 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sup>27</sup>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칠십 명이었던라

46:10-24 이 부분은 민수기 26 장과 역대상 4-7 장에 나오는 목록과 매우 비슷하다. 민수기와 역대상의 목록은 다른 철자(어떤 경우는 다른 이름)로 된 이름을 제시한다. 문맥적 통찰의 나함을 보라. 나는 이러한 차이점이 구전을 반영하거나 혹은 그 당시 종종 두 가지 이름으로 말해진 것에서 온 것이라고 믿는다.

46:10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왜 이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이 없다. 라시는 이 이름이 디나가 세겔에 의해 낳은 아들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참조, 창세기 R. 80).

46:12 10-27 절은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간 모든 사람의 명단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유다의 두 아들은 이미 죽었기에(즉, 엘과 오난, 참조, 창 38:7,10) 이 명단은 다른 시기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 명단이 부정확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문맥에 속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46:13 “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 이름의 철자가 “요”(יֹאֵשֶׁת)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상 7:1 과 민 26:24 에서는 그의 이름을 야솨(יֹאֵשֶׁת)으로 제시한다.

46:15 “남자와 여자가 삼십삼 명이며” 15,18,22,25 절은 모두 야곱의 가족의 구분을 따라 각각의 소계를 제시한다.

1. 15 절에서는 레아에게서 나온 자손의 아들과 딸의 수를 말한다
2. 18 절에서는 레아의 하녀 실바에게서 나온 자손의 아들과 딸의 수를 말한다
3. 22 절에서는 라헬에게서 나온 자손의 아들과 딸의 수를 말한다
4. 25 절에서는 라헬의 하녀 빌하에게서 나온 자손의 아들과 딸의 수를 말한다

전체의 수가 26 절에서는 “66 명”으로 27 절에서는 “70 명”으로 나타난다.

이 명단과 관련된 두 숫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70 명에 15 절에 있는 딸 디나를 더하여 “71”이 된 수에서 12 절에 있는 엘과 오난의 수를 뺀 후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27 절)를 뺀 수라고 설명한다. 다른 이는 26 절에 나오는 “66 명”에 야곱, 요셉, 요셉의 두 아들을 더하면 “70”이 된다고 주장한다. 행 7:14 에서 스테반이 75 명으로 말한 점이 흥미롭다. 한편 이 숫자는 요셉의 5 손자를 포함시킨 70 인역에서 취한 숫자임이 분명하다. 글리슨 알처, *성경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백과*(378-379 쪽); *성경의 이해하기 어려운 말*(521-522 쪽)을 보라.

46:17 “그들의 누이 세라며” 이 딸을 포함시킨 것은 이 목록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가족에게는 딸들보다 아들이 더 많이 태어났을 것이다.

46:20 요셉은 이집트 여인으로부터 두 아들을 낳았다. 이 두 아들을 야곱이 자신의 자녀로 삼았기에 그는 열세 명의 아들을 가지게 되었다.

요셉이 두 몫을 받았는데 이는 보통 장자가 받는 분량이었다. 하지만 그는 가족의 우두머리는 아니었다. 이것은 레아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돌아갔다. 이러한 특별한 결정은 언약의 가족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행하셨음을 나타낸다!

에브라함이 가나안 북쪽에 있는 지파 가운데 가장 크고 힘 있는 지파로 될 것이고 유다는 남쪽에서 가장 크고 힘 있는 지파가 될 것이다.

70 인역에는 이 절과 관련이 있는 후손의 이름이 들어 있는 확대된 명단을 제시한다.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이 신 32:8 을 인해 맞소리 본문에서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UBS, *히브리 구약 본문 프로젝트의 초기 및 중간 보고*, 70 쪽).

46:21 “베냐민의 아들” 베냐민의 아들들 이름이 이곳에서 열거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명단을 대상 7:6 에 있는 명단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다. 후자에서는 세 아들의 이름만 언급되고 있다. 어떤 주석가들은 세 사람 이외의 사람들은 손자들이라고 주장한다(참조, 민 26:38-40; 대상 7:6 이하; 8:1 이하).

46:26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이 명단은 약간 혼동을 일으키는데 그 이유는

1. 이 명단에는 일찌기 죽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며
2. 어떤 이름은 복수형이어서 후에 씨족의 이름으로 된 경우로 보이며
3. 21 절에 나오는 베냐민에게 보다 더 전통적으로 언급되는 세 아들이 아닌 10 명의 아들이 있다고 나오기 때문이다

**개역개정 46:28-34**

<sup>28</sup>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sup>29</sup>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때 <sup>30</sup>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sup>31</sup>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sup>32</sup>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sup>33</sup>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나 묻거든 <sup>34</sup>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46:28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맞소라 본문에 약간의 혼동이 나타난다. 개역 표준역(RSV)은 70 인역을 따라서 “고센에서 그 앞에 나타나도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다음을 의미할 것이다

1. 유다가 고센에 있는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요셉을 안내하도록 했다
2. 유다가 고센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도록 했다

이 일은 유다로 하여금 가족 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게 했다.

46:29 “그의 수레” 적어도 세 종류의 두 바퀴 있는 “수레”를 짐승이 끌었다.

1. 소가 끄는 수레, 참조, 45:21
2. 금속으로 일부 무장한 전차. 어떤 것은 혼자 타는 전차였고, 어떤 것은 좀 더 커서 두 명이 탈 수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말이 끌었다(속도를 내기 위해), 참조, 출 14:7
3. 의식용 수레로서 이집트의 벽화에서 볼 수 있으며 잘 장식된 수레로서 말이 끌었다. 이것은 신분의 상징이었다(마치 팔레스타인에서 흰 나귀가 신분의 상징이었듯이), 참조, 46:29

46:34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어떤 이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1. 도시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은 반 유목민인 목자들에게 대해 적대적이었다
2. 히소스 혹은 “목자 왕들”에 대한 이집트인의 반감을 나타낸다. 히소스 왕조는 기본적으로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셈족으로서 제 17 왕조를 지배했다. 요세푸스는 이 내용을 *유대 고대사* 11.7.5 에서 언급하고 있다(헝스텐베르그는 이집트 사람들이 취한 배타적 자세와 목자들에 대한 혐오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국가적 정체성을 갖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3. 이집트 사람들은 숫소를 예배했다. 따라서 그들은 소고기를 먹는 사람은 누구라도 혐오했다(참조, 43:32; 출 8:26; 이것은 오늘날의 힌두교도들의 관습과 같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창 45:1 에서 요셉은 왜 이집트 하인들로 하여금 물러가게 했는가?
2. 창 45:5-9 에서 요셉이 말한 원리의 신학적 중요성을 설명하라.
3.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 용어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설명하라.
4.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이상으로 나타나셨지만 요셉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는가?
5. 민수기 26 장과 역대상 4-6 장에 나오는 이름은 창 46:8-27 에서 언급된 자손의 이름과 왜 다른가?
6. 창 46:27 에 나오는 “칠십 인”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어려움은 무엇인가?
7.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이 목자들을 싫어하는 점을 그곳에 체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대해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 창세기 47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야곱의 가족이 고센에 정착하다	야곱이 고센에 정착하다 (46:38-47:12)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정착하다 (46:28-47:12)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집트에 정착하다 (46:28-47:12)	바로가 알현을 허락하다
47:1-6	47:1-6	47:1-6	47:1-3a 47:3b-6	47:1-5a,6b  47:5b,6a-11
47:7-12	47:7-12	47:7-12	47:7-8 47:9-12	47:12
47:13-19	요셉이 기근을 해결하다 47:13-19	47:13-19	기근 47:13-15 47:16-17	요셉의 농업 정책 47:13-14 47:15-17
기근의 결과			47:18-19	47:18-19
47:20-26	47:20-26	47:20-26	47:20-24 47:25-26	47:20-22 47:23-26
47:27-28	요셉이 야곱에게 맹세하다 47:27-31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임양하고 축복하다 (47:27-48:22) 47:27-28	야곱의 마지막 요청 47:27-30a	야곱의 마지막 바램 47:27-31
47:29-31		47:29-31	47:30b 47:31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47:1-6

<sup>1</sup>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sup>2</sup>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sup>3</sup>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나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sup>4</sup>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 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sup>5</sup>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sup>6</sup>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47:1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이것은 바로가 요셉의 가족을 만나기로 한 약속으로 보인다(참조, 창 46:33). 이 일을 행 7:13 에서 인용하고 있다.

▣ “그들이 고센 땅에 있나이다” 창 46 장과 47 장은 서로 독특하게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요셉의 가족이 고센 땅에 살도록 왕의 허가를 받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를 요셉이 그들에게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땅은 비옥한 목초지로 알려져 있었다. 이곳은 또한 6 절과 11 절에서 “가장 좋은 땅”으로 불린다(참조, 45:18).

47:2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왜 그가 다섯 명만 택하였는가에 대해 추측이 항상 있었다. 랍비들은 요셉이 가장 약하고 못생긴 사람을 택함으로써 바로가 자기 형제들을 군대로 차출하지 않게 했다고 말하지만 이 설명에 의구심이 간다. 앵커 성경주석은 “그가 가장 잘생긴 사람들을 택했다”라고 이와 정반대되는 내용을 주장한다(350 쪽). 이집트인들에게 “다섯”이라는 수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장들에서 이 수가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이다(참조, 41:34; 43:34; 45:22).

47:3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그들이 한 목자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점의 중요성을 주목하여야 한다(참조, 13:7,9; 26:20; 46:32,34). 따라서 그들은 모두 어떻게 가축을 치는지 알았다.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가는 일이 아들들에게 기대되었다. 목자들(소를 치는)은 이집트에서 무시를 받았다(참조, 43:32; 46:34; 출 8:26). 이것은 (1) 이집트 사람들의 인종적 거만함 (2) 목자에 대한 문화적 혐오, 따라서 야곱의 자손이 상당히 따로 있게 됨을 뜻한다. 창 38 장에서 볼 때 그들이 가나안 문화에 명백히 융합되고 있었음은 매우 중요한 면을 제시한다. 곧 그들이 이집트에



거주하는 일은 그들로 하여금 민족적 및 종교적으로 구별된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47:4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가 그들에 대해 가진 우려를 경감시킬 4 가지 요소를 그들의 대답에서 찾을 수 있다: (1) 그들은 목자였다 (2) 그들은 나그네였다 (3) 그들은 이집트로 와야만 되었다 (4)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하도록(분명히 제한된 기간 동안) 허락해 주기를 요청했다.

47:5-6 고대 번역본과 비교해 볼 때 맞소라 본문에 약간의 문제가 나타난다. 요셉에게가 아니라 다섯 형제에게 바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47:6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는 또한 고센 지역에 가축을 가지고 있었다. 이 내용은 요셉을 인해 바로가 그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되어 그가 물질적 번영을 누리기를 원함을 나타내는 표현일 수 있다(참조, 30:27; 39:5).

#### 개역개정 47:7-12

<sup>7</sup>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sup>8</sup>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나 <sup>9</sup>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sup>10</sup>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sup>11</sup>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sup>12</sup>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47:7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를 두 번 축복한 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참조, 10 절). 어떤 이는 이것이 단순히 동양의 일상적인 처음 인사와 작별 인사일 뿐이다라고 말한다(참조, 31:55; 룻 2:4; NJB). 한편 이 행위가 여기서 두 번 언급되는 점은 특별해 보인다. 항상 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였다(참조, 히 7:7). 마틴 루터는 야곱이 바로에게 복음을 전해 그의 그의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개종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시 105:22 을 이러한 개종의 증거로 말한다. 아브라함의 가족 및 그들과 관련이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인하여, 그들을 지원하고 있는 이 바로에 대한 축복은 합당하다고 여겨진다(참조, NRSV, TEV, NIV). 유대인의 연구성경(93 쪽)은 언약의 가족과 접촉함으로써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에 이 절들을 포함시키고 있다(참조, 12:3; 22:18; 26:4; 28:14; 30:27-30; 39:5,23, 93 쪽).

47:9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야곱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울함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그가 우울하게 느끼는 감정(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인해 생긴)이 이 절에서 드러난다.

47:11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여기서 “라암셋 땅”(참조, 출 1:11; 12:37; 민 33:3)과 고센 땅이 같은 지역임이 분명하다. 라암셋에 대한 언급은 (1) 후기에 서기관이 추가한 내용이거나 (2) 이곳에 라암세스 II 세를 기념하여 히브리인들이 성을 재건축하기 이전에 여기에 성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라암세스 II 세가 출애굽 당시의 바로로 여겨지며 그 시기는 주전 1290 년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히소스 왕조 때에 이집트의 수도가 고센 땅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점과 주전 1250 년을 전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한 고고학적 증거는 이 설을 뒷받침한다.

47:12  
 NASB “그들의 어린 자들을 따라”  
 NKJV “그들 가족의 수를 따라”  
 NRSV “그들의 부양가족 수를 따라”  
 TEV “매우 어린 자들을 포함하여”  
 NJB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까지”  
 JPSOA “작은 자들까지”  
 70 인역 “각 사람을 위해”  
 폐쉬타 “그들의 가족에 따라”

“어린 자들”(BDB 381, KB 378, 참조, 민 14:3,31; 31:17)은 양식을 일정량 공급받는 가족 내의 모든 구성원을 가리킬 것이다(참조, 45:11). 랍비들은 어린 아이들이 음식을 많이 낭비한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요셉이 그들에게 풍족히 양식을 공급했다는 관용적 표현이다. “어린 자들”이라는 용어는 언약적 가족 구성원 모두를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으로서 가정을 배경으로 한 친근한 표현일 것이다(참조, 24 절).

**개역개정 47:13-19**

<sup>13</sup>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sup>14</sup>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sup>15</sup>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sup>16</sup>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진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sup>17</sup>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 떼와 소 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sup>18</sup>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 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sup>19</sup>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47:13-26 많은 주석가들은 요셉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잔혹하게 행했다라고 주장한다. 한편 요셉이 한 일은 태양신 레의 대표자로서 바로가 이집트 땅을 소유한다는 대중들의 신학적 주장을 따라 행하여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한 것이었다.

47:13 “황폐하니” 구약에서 이 동사(BDB 529, KB 520, **칼 미완료형**)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이 단어의 기본적 의미는 “미약하게 되다”이다. 가나안 땅이 소출을 내지 못했다. 이 일은 창 3:17-19(참조, 롬 8:20-22)에 나오는 저주로 영향을 받았다. 불규칙적인 자연계의 순환이 그 요소 가운데 일부를 이루었다. 이런 상황에서 야웨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이러한 현상을 사용하신다(혹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 기후의 조절은 신명기의 “저주와 축복”이라는 부분(참조, 28-29 장)에도 나타난다. 기근의 정도가 심각했다(참조, 12:10; 41:31; 43:1; 47:4,13).

47:16 “너희의 가축을 내라” 양식을 사기 위해 그들은 이미 가진 모든 것을 팔았다(“내다,” BDB 396, KB 393, **칼 명령**, 참조, 15,16 절). 이제 그들의 가축이 위험하게 되었다. 사실상 그들이 더 이상 먹일 수 없어서 곧 죽을 가축을 받는 일은 착취가 아니라 정부가 배푼 온정이었다.

**개역개정 47:20-26**

<sup>20</sup>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sup>21</sup>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읍졌으나 <sup>22</sup>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으므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다라 <sup>23</sup>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sup>24</sup> 추수의 오분의 일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오분의 사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sup>25</sup>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sup>26</sup>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오분의 일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47:20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모든 가족을 판 그들은 제 6 번째 흉년에 땅과 자기 자신을 바로에게 팔았다(BDB 888, KB 1111, 참조, 19,20,22,23 절). 사실상 그들은 농노가 되었다(참조, 23-24 절). 우리는 함무라비 법전 및 우가릿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자료와 누지 서판을 통해서 농노의 삶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처하게 된 상태이었음을 안다. 요셉의 호칭이 41:40 과 45:8 에서 언급되는데 그는 바로에게 개인적으로 관련된 일을 관장하는 자였다. 20-26 절은 그가 이집트의 재정을 관리하면서 얼마나 바로에게 이롭게 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모든 일이 이집트의 역사적 기록에 의해 “다소” 입증되었다.

47:21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읍졌으나”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이 양식의 분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쨌든 기경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70 인역과 사마리아 오경은 “그가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라고 말한다(“성읍으로,” BDB 746, *레아림*, “노예로,” BDB 713, *라아바담*). 이 번역을 개정 표준역(RSV)이 택하고 있는데, 19 절과 25 절 및 씨를 주심에 대한 23 절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이 번역은 적합하게 여겨진다. 그가 사람들을 성읍으로 읍진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라쉬는 설명한다. 페쉬타역과 탈군 온겔로스에는 “그가 성읍에서 성읍으로 그들을 읍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맞소라 본문의 것과 정반대를 이룬다.

47:22 종교 기관의 재산과 종교인들은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참조, 26 절).

47:24 “추수의 오분의 일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함무라비 법전, 우가릿과 누지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통하여 볼 때 우리는 이 비율이 심하게 착취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메소포타미아와 다른 지역에서 나온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우리는 40%내지 60%의 세율이 흔히 적용되었음을 안다. 요셉은 이 백성들을 매우 공정하게 대하고 있었다. 25 절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개역개정 47:27-28**

<sup>27</sup>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sup>28</sup> 야곱이 애굽 땅에 십칠 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백사십칠 세라

47:27 이것은 후의 이집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 하는 배경이 된다.

47:28 “그의 나이가 백사십칠 세라” 이것은 창세기에서 몇 가지 주요 사건들의 연대를 말하는 절에 속한다. 야곱이 자신이 실제로 죽기 훨씬 이전에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점이 흥미롭다. 그의 아버지 이삭도 창 27:2에서 그렇게 생각했었다. 비록 이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노년기와 관련된 신체적 문제 및 정신적인 약함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리가 나이로 말미암아 겪는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않는다.

**개역개정 47:29-31**

<sup>29</sup>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sup>30</sup>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sup>31</sup>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47:29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죽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우연이나 운명이나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저승 사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천사가 있을 뿐이다.

죽음은 원수가 아니라 야웨와의 관계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과 다시 함께 되는 과정이다. 성경에서 볼 때 죽음 자체가 비극이 아니라 세속적인 죽음 혹은 폭력에 의한 죽음이 비극이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타락 이후에(참조, 창 5 장) 죽음은 육신의 삶의 자연스러운 끝이 되었다. 사람이 늙은 후에 죽게 되는 것은 축복이다!

▣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것은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행하던 관용적인 맹세의 방식으로 여겨진다(참조, 24:2). 이 행위는 두 가지 배경과 관련이 된다: (1) 허벅지는 신체에서 가장 큰 근육이다. 따라서 이것은 힘과 관련이 있다 (2) 허벅지는 생식기에 가까이 있어서 “씨”와 관련된 약속을 나타낸다. 이러한 행동의 옷점은 이 맹세를 함에 있어서 참된 대상이 되는 야곱의 후손에게 강조점을 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씨에 대해 주신 약속의 언약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감을 나타낸다(참조, 창 12:1-3).

▣	
NASB	“친절함과 신실함으로”
NKJV	“친절하고 진실되게”
NRSV	“충성되고 진실되게”
NJB	“신실한 사랑으로”
70 인역	“공훈과 진리로”
페쉬타	“은혜롭고 진실되게”
REB	“충성되고 신실하게”
JPSOA	“견실한 충성으로”

이것은 특별한 언약적 용어인 *헤세드*(BDB 388, *헤세드*, 참조, 20:13; 21:23)와 *에멜*(BDB 54, *에멜*)이다. 19:19의 특별주제:인애를 보라.

**특별주제: 구약에서의 믿다, 신뢰하다, 믿음, 충성됨(아멘)**

I. 들어가는 말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이 신학적 개념이 구약에서는 명쾌하게 정의되지 않고 사용됨을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약에 이 개념이 분명히 있지만 몇 핵심 귀절 및 사람들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구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섞여있다

1. 개인과 공동체
2. 개인적 경험과 언약에의 순종

믿음은 개인적 경험이요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양식이다! 이것을 사전적 형태(즉, 단어 연구)보다는 사람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이 더 쉽다. 이러한 개인적 측면은 다음의 경우에서 잘 드러난다

1. 아브라함과 그의 씨
2. 다윗과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남/경험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철저히 바뀌었다(완벽한 삶이 아니라 계속적인 믿음의 면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시험이 그들이 가진 약점과 강점을 드러내지만, 믿음으로 시작된 관계는 생애를 거쳐 지속된다! 그들이 시험을 받고 정화되지만, 그들의 헌신과 헌신된 삶의 양식은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입증한다.

II. 사용한 주요 어근

가. **아멘**(BDB 52)

가. 동사

ㄱ. **칼** 형 - 지지하다, 공급하다(즉, 왕하 10:1,5; 예 2:7, 신학적 용어가 아님)

ㄴ. **니팔** 형 - 분명히 하다 또는 확실히 하다, 달성하다, 확인하다, 신실하다 또는 충성스럽다

(1) 사람, 사 8:2; 53:1; 렘 40:14

(2) 물건, 사 22:23

(3) 하나님, 신 7:9,12; 사 49:7; 렘 42:5

ㄷ. **히필** 형 - 굳게 서다, 믿다, 신뢰하다

(1)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다, 창 15:6

(2)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다, 출 4:31; 14:31(신 1:32 에서 반대의 내용이 사용됨)

(3) 야웨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다, 출 19:9; 시 106:12,24

(4)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사 7:9

(5) 누구든지 그것/그를 믿는 자는, 사 28:16

(6)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믿다, 사 43:10-12

2. **명사(남성형)** - 신실함(즉, 신 32:20; 사 25:1; 26:2)

3. **부사** - 진실로, 참으로, 내가 동의하여, 그렇게 되기를(참조, 출 27:15-26; 왕상 1:36; 대상 16:36; 사 65:16; 렘 11:5; 28:6). 이 용법은 구약과 신약에서 “아멘”이라는 단어의 예식적 용법을 이룬다.

나. **에펠**(BDB 54) **여성형 명사**, 단단함, 신실함, 진리

1. 사람, 사 10:20; 42:3; 48:1

2. 하나님, 출 34:6; 시 117:2; 사 38:18,19; 61:8

3. 진리, 신 32:4; 왕상 22:16; 시 33:4; 98:3; 100:5; 119:30; 렘 9:4; 숙 8:16

다. **에무나**(BDB 53), 굳음, 견실함, 충성됨

1. 손, 출 17:12

2. 시간, 사 33:6

3. 인간, 렘 5:3; 7:28; 9:2
4. 하나님, 시 40:11; 88:12; 89:2,3,6,9; 119:138

III. 바울이 사용한 구약의 이 개념

- 가.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일에 야웨와 구약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이해의 기초를 두고 있다(참조, 행 9 장; 22 장; 26 장).
- 나. 그는 *아빰*이라는 어근이 있는 구약의 두 가지 핵심 본문에 기초하여 자신이 말하려는 새로운 의미를 설명한다.
1. 창 15:6 - 아브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인데 (창 12 장)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가져 왔다(창 12-22 장). 바울은 로마서 4 장과 갈라디아서 3 장에서 이 점을 암시한다.
  2. 사 28:16 - 믿는(즉,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견고히 머릿돌로 세우신 이를) 자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결코 보지 않는다
    - ㄱ. 롬 9:33, “부끄러움을 당한다” 또는 “실망한다”
    - ㄴ. 롬 10:11, 위의 내용과 같음
  3. 합 2:4 -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렘 7:28). 바울은 이 본문을 롬 1:17 과 갈 3:11 에서 사용한다(또한 히 10:38 의 설명을 보라).

IV. 베드로가 사용한 구약의 개념

- 가. 베드로는 단어를 합성하고 있다
1. 사 8:14 - 뱀전 2:8(걸려 넘어지는 돌)
  2. 사 28:16 - 뱀전 2:6(모퉁이돌)
  3. 시 111:22 - 뱀전 2:7(건축가들이 버린 돌)
- 나. 그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독특한 표현인 “선택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을 다음에서 취하였다
1. 신 10:15; 사 43:21
  2. 사 61:6; 66:21
  3. 출 19:6; 신 7:6
- 또한 이것을 그리스도께 대한 교회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다

VI. 요한이 사용한 구약의 개념

- 가. 이 단어의 어원
- “믿다”라는 용어는 헬라어(πιστευω)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믿다,” “믿음,” 혹은 “신뢰하다”로 번역된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 **명사형**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동사형**은 자주 사용한다. 요 2:23-25 에서 군중들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서 진실되게 고백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믿다”라는 용어가 피상적으로 사용되는 또 다른 예는 요 8:31-59 과 행 8:13,18-24 에 나온다. 성경적인 바른 믿음은 초기에 나타내는 반응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제자도의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참조, 마 13:20-22,31-32).

나. 전치사와 함께 사용된 용법

1. *에이스*는 “안으로”를 뜻한다. 이것은 믿는 자가 그들의 신뢰/믿음을 예수님 안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는 독특한 구문이다
  - ㄱ. 그의 이름 안에(요 1:12; 2:23; 3:18; 요일 5:13)
  - ㄴ. 그 안에(요 2:11; 3:15,18; 4:39; 6:40; 7:5,31,39,48; 8:30; 9:36; 10:42; 11:45,48; 17:37,42; 마 18:6; 행 10:43; 빌 1:29; 뱀전 1:8)
  - ㄷ. 내 안에(요 6:35; 7:38; 11:25,26; 12:44,46; 14:1,12; 16:9; 17:20)
  - ㄹ. 아들 안에(요 3:36; 9:35; 요일 5:10)

- ㄱ. 예수 안에(요 12:11; 행 19:4; 갈 2:16)
- ㄴ. 빛 안에(요 12:36)
- ㄷ. 하나님 안에(요 14:1)
- 2. **엔**은 “안”을 뜻한다, 요 3:15; 막 1:15; 행 5:14
- 3. **에피**는 “안” 또는 “위”를 뜻한다, 마 27:42; 행 9:42; 11:17; 16:31; 22:19; 롬 4:5,24; 9:33; 10:11; 딤후전 1:16; 뵤전 2:6
- 4. **전치사 없이 쓰인 여격**, 갈 3:6; 행 18:8; 27:25; 요일 3:23; 5:10
- 5. **호티**는 “믿다”를 뜻하는데, 무엇을 믿는지 밝힌다
  - ㄱ.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다(요 6:69)
  - ㄴ.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요 8:24)
  - ㄷ.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그 안에 계신다(요 10:38)
  - ㄹ. 예수님은 메시아다(요 11:27; 20:31)
  - 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요 11:27; 20:31)
  - ㅂ.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요 11:42; 17:8,21)
  - ㅅ.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다(요 14:10-11)
  - ㅇ.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왔다(요 16:27,30)
  - ㅈ.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의 언약적 이름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동일시 하였다(요 8:24; 13:19)
  - ㅊ. 우리는 그와 함께 살 것이다(롬 6:8)
  - ㅋ.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살전 4:14)

## VI. 결론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약속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 일을 시작하신다(즉, 요 6:44,65). 한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화는 다음과 같은 인간의 응답을 필요로 하고 있다.

1. 신뢰
2. 언약적 순종

성경적인 믿음은 다음을 뜻한다

1. 개인적 관계(최초의 믿음)
2. 성경의 진리를 확인함(하나님의 계시를 믿음)
3. 그 진리에 대한 적합한 순종(매일의 믿음)

성경적인 믿음은 천국행 표나 천국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점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인간(참조, 창 1:26-27)과 창조에 대한 목적이다. “친밀함”이 핵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학적 지위가 아니라 교제를 바라신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자녀들이 “가족”의 특성을 나타내기를 요구한다(즉, 거룩함, 참조, 레 19:2; 마 5:48; 뵤전 1:15-16). 타락(참조, 창세기 3 장)은 적합하게 응답해야 할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다(참조, 겔 36:27-38). 새 마음과 새 영은 우리가 믿음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한다!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 세 가지를 가져야만 한다. 하나님을 알고(히브리어와 헬라어적 의미에서) 또 우리의 삶에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그 목적이다. 믿음의 목적은 앞으로 언젠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인간의 믿음, 인간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신뢰함에 있어서 인간의 진실함은 그 결과이지(신약) 그 기초가 아니다(구약). 구원에 대한 신약적 관점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해 제시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해 인간이 처음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응답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보내셨고 공급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과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한다(참조, 엡 2:8-9,10)!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과 또 믿지 않던 자들이 각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47:30 “너는 나를 애굽에서 떼어다가” 이것은 출애굽을 예시한다. 야곱은 아브라함에게서 전해진 가족의 전통을 통해 이 일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다(참조, 창 15:12-16). 이 일은 창 48:21 에서도 암시되고 있다. 야곱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 오랫동안 있지 않게 됨을 알고 있었다.

47:31 “내게 맹세하라” 야곱은 자신이 이집트에 남게 되기를 원하지 않음에 매우 강한 강조(BDB 989, KB 1396, *니팔 명령*)를 두며 말하고 있다. 야곱은 자기 아들이 손을 그의 허벅지 밑에 넣어 맹세할 뿐 아니라 말로도 맹세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NASB, JPSOA	“그의 침상 머리에서”
NKJV, NRSV	“침상 머리 위에”
70 인역	“그의 지팡이 위에 기대어”
폐쉬타	“그의 지팡이 머리 위에”
REB	“그의 침대 머리 곁에서”

“침대”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밧테*(BDB 641)이고 “지팡이”는 *밧테*(BDB 641)이다. 이것은 자음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모음과 관련된 내용임을 주목하라. 맛소라 본문의 이 내용을 번역함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70 인역(참조, 70 인역을 따르고 있는 히 11:21)은 이 은유적 표현을 “지팡이의 머리”로 바꾸었다. 고대 이집트에서 지팡이가 권력을 상징했기에 이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번역이다. 따라서 이 내용은 야곱이 머리를 숙여 자기 이마가 요셉의 지팡이에 닿도록 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의 내용을 상징할 것이다

1. 창 37:6-9 에 있는 요셉의 꿈을 야곱이 성취함
2. 자신의 가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성취한 것에 대한 야곱의 존경
3. 요셉의 명성을 야곱이 인정하는 모습(참조, 48:2; 왕상 1:47)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요셉은 왜 자기 가족이 고센에 정착하기를 원했는가?
2. 요셉은 왜 자기 형제 가운데 다섯 명만 바로를 만나게 하였는가?
3. 야곱은 왜 9 절에서 그렇게 우울하게 되었는가?
4. 야곱은 왜 바로를 두 번 축복하였는가?
5. 왜 11 절에 나오는 라암세스가 늦은 시기의 출애굽을 지지하는 내용이 되는가?
6. 요셉은 기근의 시기에 이집트 사람들을 거칠게 대했는가?
7. 야곱은 왜 자신의 시신을 이집트 땅에서 취하여 올 것에 대해 두 가지 방법으로 맹세하기를 요셉에게 요구했는가?



# 창세기 48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삼고 그들을 축복하다 (47:27-48:22)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다	야곱이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고 그들을 축복하다
48:1-7	48:1-7	48:1-7	48:1-4 48:5-7	48:1-6 48:7
48:8-16	48:8-16	48:8-16	48:8 48:9a 48:9b-12 48:13-16	48:8-12 48:13-16
(15-16)	(15-16)	(15-16)	(15-16)	(15-16)
48:17-22	48:17-22	48:17-22	48:17-18 48:19 48:20 (20) 48:21-22	48:17-19 48:20 (20) 48:21-22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개역개정 48:1-7

<sup>1</sup>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sup>2</sup>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sup>3</sup>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sup>4</sup>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sup>5</sup>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sup>6</sup>이들 후의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sup>7</sup>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 곳은 에브라임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임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임은 곧 베들레헬이라)

48:1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랍비들은 에브라임이 조부 야곱과 정기적으로 만나 공부하였고 또 요셉에게 이 일을 알린 사람도 에브라임이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문맥이나 본문에서 말하는 것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 근거한 랍비들의 특징적 주석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경의 어디에서 그렇게 말하는지 나에게 말해달라”고 언제라도 요구해야 한다.

▣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 두 소년은 이집트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혈아였다. 하지만 이 내용은 그들이 상속자로서 족장이 주는 축복(즉, 양자됨)을 온전히 받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48:3 “요셉에게 이르되 . . .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은 족장들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었다(참조, 출 6:3). 이 이름은 *엘 샤푸다*이다; *엘*은 “강하다”라는 어근에서 온 하나님의 일반적 이름이고, *샤푸다*는 “여성의 가슴”을 가리키는 어근에서 온 단어로써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이”를 뜻한다. 12:1의 특별주제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루스는 *벤엘*을 가리키는 가나안 이름이다(참조, 창 28:17,19; 35:9-15). 야웨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듯이 야곱이 이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려고 함이 분명하다. 야웨께서 족장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경건한 자였던 요셉에게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신 사실은 흥미롭다(46:2의 설명을 보라). 이점은 요셉에 관련된 내용이 야곱의 생애를 다룬 더 큰 문학적 단락에 속함을 보여준다.

48:4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기에는 창 12:1-3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관련이 있는 세 가지 특별한 축복이 나온다: (1)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3) 내가 너의 자손에게 땅을 줄 것이다.

야곱이 35:11(제 5행)에서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를 언급하지 않는 사실이 흥미롭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유다를 위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참조, 49:10). 후손의 번성에 대한 축복은 가족이 특별하게 될 것을 말하지만, 왕들은 유다에게서 나올 것이다(즉, 메시아, 사 9:6-7; 미 5:2).

▣ “영원한 소유” 이것은 *올람*이라는 히브리 단어이다. 이 단어를 반드시 문맥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 우리가 포로기를 고려에 넣을 때, 이 단어가 영속성을 뜻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13:15의 특별주제를 보라.

48:5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1 절에서는 므낫세를 에브라임보다 먼저 언급하지만 5 절과 14 절에서는 에브라임의 이름이 므낫세보다 먼저 나오는 점이 흥미롭다. 이것은 야곱이 의도한 일로 보인다(참조, 13-14 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빼어난 상속자인 장자로서 시므온과 르우벤을 대신하게 된다(참조, 대상 5:1). 둘 가운데 동생인 에브라임이 더 강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은 가족의 지도자인 유다의 지도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참조, 대상 5:2)! 요셉의 아들들을 포함시킨 일이 다른 이들에게 훈육이 되었듯이 이절의 내용도 르우벤(참조, 35:22; 49:4; 대상 5:1)과 시므온(참조, 34:25; 49:5-7)에게 대한 훈육이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이에 역전이 일어나게 되듯이(에서와 야곱에게 이러한 역전이 일어났다) 요셉과 유다 사이에도 이같은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참조, 49:8-12). 요셉이 가족의 지도자로서 분명히 선택 받았는데 그 선택은 문화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야웨께서 하신 선택이었다(즉, 다윗과 그의 형제들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하라).

48:6 “이들 후의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이것은 요셉이 자식을 더 낳게 됨을 뜻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는다.

48:7 이것은 요셉의 모친에 관한 역사적 요약이다.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 있어서 고통이었고 충격이었다. 그는 라헬의 큰 아들인 요셉의 두 아들이 라헬 자신을 통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라헬의 온전한 “아들들”(유산 상속적 개념에서)로 여김을 받게 된다. 그녀는 이 일을 인해 사후의 세계에서라도 행복해 했을 것이다!

#### 개역개정 48:8-16

<sup>8</sup>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sup>9</sup>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sup>10</sup>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sup>11</sup>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sup>12</sup>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sup>13</sup>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sup>14</sup>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엮바꾸어 앉았더라

<sup>15</sup>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sup>16</sup>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옵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48:8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우리는 10 절에서 그의 시력이 매우 나빴지만 아무 것도 볼 수 없던 것은 아님을 안다. 야곱은(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던 일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축복하려는 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자 했다!

▣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랍비들은 요셉이 자기 아내가 개종자임을 아버지 야곱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결혼증명서를 보여주어야만

했다라고 설명한다. 한편 이절은 요셉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이 자신과 함께 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곳에 있는 두 동사는

1. 데리고 오라, BDB 542, KB 534, 칼 명령
2. 축복하리라, BDB 138, KB 159, *피엘 미완료형* 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축복하다”라는 용어는 여기서 신학적 의미를 깊이 있게 가진다. 이 용어는 두 손자가 야곱 자신의 아들로써 완전한 상속권을 갖는 양자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이제 13 지파가 되었다.

48:10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것은 법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특별한 사랑을 나타낸다(참조, 12 절).

48:12

NASB, NRSV	“그의 무릎에서 그들을 취하고”
NKJV	“그의 무릎 곁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TEV, REB	“야곱의 무릎(lap)에서 그들을 취하고”
70 인역	“그의 무릎 사이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고”
폐쉬타	“그의 무릎 앞에서 그들을 제하고”

이것은 5 절에서 암시하고 있는 바 양자로 삼는 예식이었다. 자녀를 허리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 일은 양자를 삼는 고대의 의식이었다(즉, 여인이 무릎 사이로 출산을 하듯이, 30:3; 욥 3:17. JB 각주 73 쪽).

48:14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이것은 손을 엮바꿈으로써 뛰어난 것을 뜻하는 오른손을 작은 아들에게 얹어서 그로 하여금 자기 형제(야곱이 에서에 대해 그랬듯이)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문화적으로 기대되는 일(참조, 18 절)의 역전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권과 주권을 나타낸다(참조, 19 절). 이것은 성경에서 손을 얹어 축복을 하는 일과 관련된 처음 사례이다. 이 행위는 이후에 정규적인 관습으로서 행해졌다.

**특별주제: 성경에서 손을 얹음**

손을 얹음으로써 개인적 관련이 생기는 이 행위가 성경에서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1. 맹세를 함(즉, 손을 허벅지 아래 넣음[창 24:2,9; 47:29])
2. 가족의 지도력을 전달함(참조, 창 48:14,17,18)
3. 자신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희생동물과 일치시킴
  - ㄱ. 제사장(참조, 출 29:10,15,19; 레 16:21; 민 8:12)
  - ㄴ. 일반 신도(참조, 레 1:4; 3:2,8; 4:4,15,24; 대하 29:23)
4. 특별한 임무나 사역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어떤 사람을 구별함(참조, 민 8:10; 27:18,23; 신 34:9; 행 6:6; 13:3; 딤후 4:14; 5:22; 딤후 1:6)
5. 죄인을 돌로 쳐 죽이는 사법적 일에 참여함(참조, 레 24:14)
6. 슬픔이나 목인을 뜻하기 위해 손을 자신의 입에 댄(참조, 삿 18:19; 욥 21:5; 29:9; 40:4; 미 7:16)
7. 손을 자신의 머리에 얹음은 슬픔/비탄을 뜻함(삼하 13:19)
8. 건강, 행복, 경건함의 축복을 받음(참조, 마 19:13,15; 막 10:16)
9. 육체적 회복과 관련(참조, 마 9:18; 막 5:23; 6:5; 7:32; 8:23; 16:18; 눅 4:40; 13:13; 행 9:17; 28:8)
10. 성령을 받음(참조, 행 8:17-19; 9:17; 19:6)

역사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즉, 안수식)을 지지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온 본문들에 놀랍게도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1. 행 6:6 에서 지역교회에서의 사역을 위해 7 명에게 안수한 사람은 바로 사도들이었다.
2. 행 13:3 에서 선교사역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한 사람들은 바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다.
3. 딤후전 4:14 에서 디모데의 최초의 부르심과 안수에 관련된 사람들은 지역교회의 장로들이었다.
4. 딤후 1:6 에서 디모데에게 안수한 이는 바로 바울이었다.

이러한 다양성과 애매성은 1 세기의 교회에 조직이 없었음을 나타낸다. 초대교회는 훨씬 더 역동적이었고 신자들의 영적 은사를 정기적으로 활용했다(참조, 고전 14 장). 단순히 교회 정치나 안수절차에 관한 어떤 본을 홍보하거나 배제시키기 위해 신약이 기록된 것이 아니다.

**48:15-16** 15-16 절은 창세기 49 장에 기록된 가족의 축복을 보충하는 내용이다. 야곱이 온 가족을 마지막으로 축복할 때에 그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참조, 49:22-26). 이 축복의 내용은 시적 표현으로 되어 있다(20 절도 마찬가지임). 하나님의 이름이 삼중적으로 나타남을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1) 족장의 하나님 (2) 목자 (3) 천사로 불린다. 16 절에 나오는 천사는 몸으로 현현한 주의 천사임이 분명하다(참조, 창 16:7-13; 18:2,16,17-21,22-23; 22:11-15; 31:11,13; 48:15-16. 12:7 의 특별주제를 보라).

**48:15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이 두 소년(16 절)은 분명히 요셉이 받는 족장의 축복을 받았다(15 절). 창세기 49 장에 비추어 볼 때 요셉은 장자가 받는 두 몫의 유산을 받았고(참조, 49:22-26) 유다는 메시아의 계보를 받은 것(참조, 49:8-12)으로 보인다.

▣ **“섬기던” 이 동사(BDB 229, KB 246)**는 종종 믿음으로 행하는 삶의 양식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으로서 사용된다(참조, 5:22,24; 6:9; 24:40; 엡 4:1,17; 5:2,15).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신다(참조, 17:1).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려진 불쌍한 세상(즉, 열방)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하나의 민족을 찾으신다. 족장들은 그들의 불완전함을 가지고 야웨 앞에서 순종과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았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의 삶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죽은 후에만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성경적인 믿음의 목적은 지금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다(즉, 롬 8:28-29; 엡 1:4; 2:10; 4:13)! 성경의 언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한다.

1. 믿음(처음에 갖는 믿음과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2. 회개(처음의 것과 매일의 삶 속에서)
3. 순종(삶의 모습으로서)
4. 인내하는 삶

이 내용이 신 8:6; 19:9; 26:17; 28:9; 30:16 에 요약되어 나타난다!

**48:16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이것은 **고엘(BDB 145 I, KB 169, 칼 분사, 참조, 출 6:6; 15:13)**이라는 용어로서 친족인 구속자(룻 4:6)나 피의 복수자를 가리킨다(참조, 신 19:6; 수 20:3). 이것은 가까운 친족이 원수를 갚는 일 또는 재정적 과탄이나 전쟁 포로로 노예가 된 사람을 구해내는 일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룻 4:6; 민 5:8; 왕상 16:11; 욥 19:25 에서도 나타난다.

## 특별주제: 속량하다/구속하다

### I. 구약

가. 이 개념을 표현하는 중요한 히브리어 법적 용어가 두 가지 있다:

1. *가알*, 기본적으로 값을 지불하여 “자유하게 하다”를 의미한다. 이 단어에서 나온 *고엘*은 일반적으로 가족의 일원인(즉, 친척인 속량자) 개인적 중재자의 개념을 추가한다. 물건, 동물, 땅(참조, 레 25, 27 장)이나 친척(참조, 룻 4:15; 사 29:22)에 대한 권리를 되돌리는 이 문화적 일이 신학적으로 사용되어 야웨께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해 내심을 나타낸다(참조, 출 6:6; 15:13; 시 74:2; 77:15; 램 31:11). 그는 “구속자”가 되신다(참조, 욥 19:25; 시 19:14; 78:35; 잠 23:1; 사 41:14; 43:14; 44:6,24; 47:4; 48:17; 49:7,26; 54:5,8; 59:20; 60:16; 63:16; 램 50:34).
2. *파다*(BDB 804), 기본적으로 “구해내다” 또는 “구출하다”라는 뜻이다.
  - ㄱ. 첫 태생의 속량(출 13:13,14; 민 18:15-17)
  - ㄴ. 신체의 속량은 영적 속량과 대조를 이룬다(시 49:7,8,15)
  - ㄷ. 야웨는 이스라엘을 죄와 반역으로부터 구속하실 것이다(시 130:7-8)

나. 신학적 개념은 다음에 나오는 여러 영역과 관련을 갖는다.

1. 필요, 속박, 상실, 감금의 상태가 있다.
  - ㄱ. 육체적
  - ㄴ. 사회적
  - ㄷ. 영적(참조, 시 130:8)
2. 자유, 해방, 회복을 위해 반드시 값이 지불되어야 한다:
  - ㄱ. 이스라엘 민족의(참조, 신 7:8)
  - ㄴ. 개인의(참조, 욥 19:25-27; 33:28)
3. 반드시 어떤 사람이 중재자로서 또는 후원자로서 행동해야만 한다. *가알*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이 역할을 한다(즉, *고엘*).
4. 야웨는 종종 자신을 가족과 관계된 단어로 묘사하셨다:
  - ㄱ. 아버지
  - ㄴ. 남편
  - ㄷ. 가까운 친척인 구속자/보수자구속은 야웨의 개인적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값이 지불되었고 구속이 성취되었다!

### II. 신약

가. 여러 단어가 이 신학적 개념을 나타낸다:

1. *아고라조*(참조, 고전 6:20; 7:23; 뱀후 2:1; 계 5:9; 14:34). 이것은 어떤 것을 위해 값을 지불함을 의미하는 상업용 용어이다. 피값을 주고 사신 사람들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2. *엑싸고라조*(참조, 갈 3:13; 4:5; 엡 5:16; 골 4:5). 이것 역시 상업용 용어이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성취할 수 없는 일인 행위에 기초한 율법(즉, 모세의 율법, 참조, 엡 2:14-16; 골 2:14)에 의한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해(참조, 막 10:45; 고후 5:21) 저주를 담당하셨다(참조, 신 21:23)!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한 용서, 받아들여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융합된다!
3. *뤼오*, “자유롭게 하다”

- ㄱ. *퀴트론*, “지불된 값”(참조, 마 20:28; 막 10:45). 이 용어는 예수께서 자신이 지지 않은 죄의 빚을 갚으심으로써(참조, 요 1:29)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오신 자신의 목적을 생각하시며,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강력한 단어이다.
  - ㄴ. *퀴트루*, “해방하다”
    - (1) 이스라엘을 구속하심, 눅 24:21
    - (2) 백성을 구속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심, 딤후 2:14
    - (3) 죄 없으신 대속물이 됨, 벰전 1:18-19
  - ㄷ. *퀴트로시스*, “구속, 구출, 해방”
    - (1) 예수님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 눅 1:68
    - (2)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드린 안나의 찬양, 눅 2:38
    - (3) 예수님께서 단 번에 드리신 더 나은 제사, 히 9:12
4. *아포리트로시스*
- ㄱ. 재림 때의 구속(참조, 행 3:19-21)
    - (1) 누가복음 21:28
    - (2) 로마서 8:23
    - (3) 에베소서 1:14; 4:30
    - (4) 히브리서 9:15
  - 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속
    - (1) 로마서 3:24
    - (2) 고린도전서 1:30
    - (3) 에베소서 1:7
    - (4) 골로새서 1:14
5. *안틸퀴트론*(참조, 딤후 2:6). 이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예수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인해 놓임을 받게 됨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본문이다(딤후 2:14 에서와 같이). 예수께서는 “모든 자”를 위해 죽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유일한 제물이시다(참조, 요 1:29; 3:16-17; 4:42; 딤후 2:4; 4:10; 딤후 2:11; 벰후 3:9; 요일 2:2; 4:14).
- 나. 신약이 내포하는 신학적 개념:
1.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다(참조, 요 8:34; 롬 3:10-18; 6:23).
  2. 죄에게 인간이 속박을 받음은 구약의 모세율법(참조, 갈 3 장)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참조, 마 5-7 장)에 의하여 드러났다. 인간의 행위는 사형선언이 되었다(참조, 골 2:14).
  3. 하나님의 죄없는 어린양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참조, 요 1:29; 고후 5:21). 우리를 죄로부터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참조, 롬 6 장).
  4. 함축적으로 말하면 야웨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다. 이것은 가족적 은유의 연속이다(즉, 아버지, 남편, 아들, 형제, 가까운 친척).
  5. 구속은 사탄에게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즉, 중세 신학)하나님의 말씀 및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및 완전한 섭리와 화목을 이룸을 말한다. 십자가에서 평화가 회복되었고, 인간의 반역이 용서받았으며,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친밀한 교제 안에서 다시 완전한 기능을 하게 되었다!

6. 구속의 미래적인 면이 아직 남아 있다(참조, 롬 8:23; 엡 1:14; 4:30). 구속은 우리 몸의 부활 및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육체적 친밀함을 포함한다. 우리의 부활체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게 될 것이다(참조, 요일 3:2). 그는 육체를 가지셨지만 매우 특별한 차원에 속하는 면도 지니셨다. 고전 15:12-19 와 고전 15:35-38 에 나타난 역설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육체에 속한 땅의 몸이 있으며 하늘에 속한 영적 몸이 있다. 예수께서는 둘 다 가지셨다!

▣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살아 남는다는 고대인의 생각을 나타내는 내용이거나(즉, 삼하 18:18; NIDOTTE 제 3 권 677 쪽), 야곱의 언약적 믿음(참조, 16 절 제 3 행)이 이 두 소년에게 전해짐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이다.

16 절에서 사용된 마지막 세 동사는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된 미완료형이다.

1. 축복하다, BDB 138, KB 159, *히 팔 미완료형*
2. 칭하게 되다, BDB 894, KB 1128, *니 팔 미완료형*
3. 자라다, BDB 185, KB 213, *칼 미완료형*

#### 개역개정 48:17-22

<sup>17</sup>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sup>18</sup>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sup>19</sup>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이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sup>20</sup>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sup>21</sup>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sup>22</sup>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겔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48:17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동사는 칼형으로서(BDB 949, KB 1269, 칼 미완료형) 이러한 엇바꿈에 대해 요셉이 가진 느낌을 나타내는 강한 의미의 동사이다. 이 동사는 다음의 내용을 나타낸다

1. 괴로움, 창 21:11,12
2. 불쾌함, 민 11:10; 수 24:15; 삼상 8:6; 18:8; 삼하 11:25; 느 2:10
3. 슬픔, 신 15:10; 삼상 1:8; 느 2:3
4. 적대감, 신 15:9; 28:54,56
5. 악, 창 38:10; 삼하 11:27
6. 좋지 않게 되다, 시 106:32; 삼하 20:6

2 항이 이 문맥에 가장 적합하지만 이것은 강한 의미를 갖는 단어이다. 야곱이 한 일에 대해 요셉이 갖는 느낌은 사소한 정도가 아니었다! 그는 야곱의 손을 옮겨 놓으려고 축복을 하는 도중에 참견한다. 요셉조차도 주님의 뜻을 항상 깨달지는 못했다.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 언약적 가족의 족장이다.



48:19 “나도 안다”라는 동사(BDB 393, KB 390, 두 개의 칼 완료형)가 강조를 나타내기 위해 두 번 사용되었다. 야곱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었다(분명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기대되는 일의 역전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48:20 “이스라엘” 1 행(NASB 에서)에 나오는 “그”는 야곱/이스라엘을 가리킨다. 하지만 2 행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킨다(집합적 의미, 참조, TEV).

▣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용하게 될 축복의 잠언이었다.

48:21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나”는 강조형으로 되어 있다. 야곱은 족장이다. 이 내용은 전 가족이 이집트에서 구출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됨에 대한 또 하나의 암시이다(참조, 창 15:12-16).

48:22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세겜”이라는 히브리어(BDB 1014 I)는 문자적으로 “어깨”를 뜻한다. 이것은 세겜 성읍의 이름이다. 어떤 이들은 22 절의 뒷부분이 세겜 사람들을 살륙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여 이 단어가 세겜 지역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창세기에 비추어 볼 때 이 절이 이같은 부정적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한편 어떤 이들은 “어깨”라는 단어가 높은 지위 즉 더 많은 유산(장자가 받는 두 몫)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다른 이들은 후에 에브라임이 기업으로 받게 될 지역으로서의 세겜을 가리킨다고 이해하고 또 다른 이들은 이 단어가 요셉이 묻히게 되는 장지(참조, 수 24:32)로서의 세겜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므낫세는 요단의 양 편에서 기업을 받았다(그렇게 받은 지파는 그들 뿐이다). 에브라임은 인구와 할당 받은 땅의 크기에 있어서 가장 큰 지파가 될 것이다(유다가 두 번째였다). 유다가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다스리게 되듯이 에브라임은 가나안의 북쪽 지역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와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지도자였다!

▣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것은 역사적 사건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지 못하다. 랍비들은 세겜 사람들을 살륙한 후에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야곱에게 싸우러 왔는데 야곱이 그들과 전투하여 물리쳤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다.

아모리 족속이라는 용어는 가나안 족속을 모두 가리키는 집합적 용어이다(참조, 창 15:16). 12:6 의 특별주제: 이스라엘 이전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주민들을 보라.

# 창세기 49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이스라엘이 자기 아들들에 대해 한 예언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한 마지막 말	야곱이 그의 12 아들들에게 한 축복	야곱의 마지막 말	야곱의 증거
49:1-2	49:1-27	49:1-27	49:1-27	49:1-27
(2)	(2)	(2)	(2)	(2)
49:3-4 (3-4)	(3-4)	(3-4)	(3-4)	(3-4)
49:5-7 (5-7)	(5-7)	(5-7)	(5-7)	(5-7)
49:8-12 (8-12)	(8-12)	(8-12)	(8-12)	(8-12)
49:13 (13)	(13)	(13)	(13)	(13)
49:14-15 (14-15)	(14-15)	(14-15)	(14-15)	(14-15)
49:16-18 (16-18)	(16-18)	(16-18)	(16-17) (18)	(16-17) (18)
49:19 (19)	(19)	(19)	(19)	(19)
49:20 (20)	(20)	(20)	(20)	(20)
49:21 (21)	(21)	(21)	(21)	(21)
49:22-26 (22-26)	(22-26)	(22-26)	(22-26)	(22-26)
49:27 (27)	(27)	(27)	(27)	(27)
49:28-33	49:28  야곱의 죽음과 장사 (49:29-50:14)  49:29-33	49:28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마지막 때 (49:29-50:26)  49:29-33	49:28  야곱의 죽음과 장사 (49:29-50:14)  49:29-33	49:28  야곱의 마지막 때와 죽음  49:29-32  49:33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이것은 해석하기 어려운 시이다. 맛소라 본문과 고대 역본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다.  
히브리어 본문이 어려운 이유는
1. 드물게 사용된 단어들
  2. 시의 평행법
  3. 여러 관용적 표현 때문이다
- 나. 야곱이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자기 아들들에게서 시작되는 지파 곧 시대에 걸쳐 각 아들의 이름과 특징을 나타내는 지파에 대해 말한 이 내용을 신명기 33 장에서 모세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각 지파에게 대해 말한 내용과 비교하는 일이 도움이 된다.
- 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이 제기되고 있지만 나는 10 절을 중요하다고 본다. 해석가는 반드시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교리나 조직신학 혹은 교단적 전통이 어떤 본문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거나 입증하기를 원하는 일에 주의하여야만 한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1. 문맥
  2. 평행을 이루는 본문
  3. 상식에 비추어
- 각자가 이 중요하고 까다로우며 애매한 본문을 다루어야만 한다!
- 라. 아들들의 이름이 그들의 어머니 이름과 관련되어 제시된다
1. 레아(생년 순으로 기록됨)
  2. 실바(레아의 하녀)
  3. 빌하(라헬의 하녀)
  4. 라헬(두 명의 이름이 생년 순으로 기록됨)

개역개정 49:1-2

<sup>1</sup>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sup>2</sup>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49:1-2 이장의 앞부분에 있는 이 두 절에서 여러 명령이 나타난다.

1. 모여라, 1 절, BDB 62, KB 74, *니팔 명령*
2. 들으라, 1 절, BDB 616, KB 665, *히필 청유형*
3. 함께 모여라, 2 절, BDB 867, KB 1062, *니팔 명령*
4. 듣고 잘 들어라, 2 절, 두 단어 다 BDB 1033, KB 1570, *칼 명령*

49:1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이것은 족장인 지도자들을 특징짓는 마지막 축복의 내용이다. 이 내용은 문화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이같은 내용을 이삭은 창세기 27 장에서, 모세는 신명기 33 장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 장에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12 장에서 각각 말하였다. 이 목록은 레아의 아들들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라헬의 아들들에 대하여는 가장 나중에 언급한다.

이 축복의 내용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이 많이 들어 있다. 이것은 시로 되었으며 언어유희에 기초하고 있다(참조, 창 29:30-30:24). 족장이 하는 이 축복은 자신의 열 두 아들 각각에 대한 것이다.

이 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운명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개인의 운명도 주관하고 계심을 암시한다(문자적으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

NASB	“장차 올 날에”
TEV	“미래에”

맛소라 본문에서 이 구(BDB 31 과 398 의 **합성**)는 마지막 때를 나타낸다(참조, 민 24:14; 사 2:2; 겔 38:16). 하지만 그러한 시간적 틀이 이 문맥에는 맞지 않는다. 이 본문은 야곱에게서 나온 열 세 지파(요셉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이룬다)에 대해 말한다. 따라서 이것은 가나안 정복(여호수아)과 정착(사사기, 참조, 신 31:29)과 관련을 가짐이 분명하다. 만일 10 절이 유다에게서 나온 다윗 계보의 왕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초기의 왕정시대(사무엘 상)까지 이르는 내용이다.

49:2 “야곱 . . . 이스라엘” 이 두 단어는 명백하게 평행을 이룬다. 이점은 이 두 이름이 두 명의 구별된 저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추정하는 오늘날의 주석가들에게 그들이 가진 전체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다(그들은 엘로힘과 야웨에 대하여도 그렇게 생각한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의 문학적 형태, 표현, 양식을 가졌다!

개역개정 49:3-4

<sup>3</sup>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sup>4</sup>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도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49:3 3 절은 야곱의 만아들이 될 수 있었던 르우벤에 대하여 대단한 찬사(동사를 사용하지 않았음)를 기록한다. 하지만 4 절은 의기양양함의 가능성에 뒤따르는 놀라운 결과에 대해 말한다.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범하는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참조, 창 35:22). 이것은 넘치는 정열을 보여준다. 어떤 이들이 그가 일찌기 야곱의 재산을 상속받으려 시도했던 일이라고 이절을 이해하지만, 이 내용은 그의 소유욕보다는 그의 성적 열정에 대한 것으로 여겨진다.

49:4

NASB, NJB “조절되지 않는”  
 NKJV, NRSV “불안정한”  
 70 인역 “파산한, 음란한”  
 폐쉬타 “타락한”

이 용어(BDB 808)는 다음을 의미한다

1. 신중하지 못한(아랍어, 참조, 샷 9:4; 렘 23:32)
2. 거만한(아카디아어)
3. 불안정한
4. 음란한(참조, 슥 3:4)

BDB 는 이 용어를 “끓는 물”이 통에서 옆질러 짐으로 설명한다. 이것은 기대되는 정상적 행동을 완전히 벗어버림을 뜻한다. 이것은 어떤 정상적인 규제를 뛰어넘으려는 개인의 욕망을 나타낸다.

▣

NASB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NKJV, 폐쉬타 “너는 뛰어나지 못하리니”  
 NRSV, JPSOA “너는 더 이상 뛰어나지 못하리니”  
 TEV “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지 못하리니”  
 NJB “너는 첫 째가 되지 못하리니”  
 70 인역 “폭력으로 시작하지 말지니”

이 동사(BDB 451, KB 451, *히* *꺾* *지* *시* *형*)는 *히* *꺾* *형*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남겨두다, 떠나다, 출 10:15; 룯 2:14,18; 왕하 4:43; 대하 31:10
2. 남은 자를 남기다, 겔 6:8
3. 절약하다, 시 79:11(이곳에서만)
4. 뛰어나다, 창 49:4(이곳에서만)
5. 충분하게 갖다, 출 36:7; 왕하 4:43; 대하 31:10
6. 풍족하게 하다, 신 28:11; 30:9

3 절에서는 이 명사가 두 번 사용되었다! 이것은 르우벤이 가진 가능성을 드러내지만 2 행과 3 행에 비추어 볼 때 이 모든 뛰어나미 상실되었다. 죄에는 결과가 뒤따르며 지속되는 상처를 남긴다!

개역개정 49:5-7

<sup>5</sup>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sup>6</sup>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으로다  
<sup>7</sup>그 노여움이 흑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흠으리로다

49:5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이 두 형제가 세겜 남자들을 죽이는 일을 계획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하다(참조, 창 34:25-30). 이 본문은 그들이 분노(BDB 60 과 BDB 702)를 인해 그 성읍의 소들의 발목 힘줄을 끊은 사실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 부분은 창 34 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거나 혹은 성읍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일 수 있다.

▣ 원문에서는 5 절에 동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	
NASB, NRSV	“그들의 칼”
NKJV	“거주”
NJB	“계획”
70 인역	“행동의 선택”
REB, JB	“자문”
페쉬타	“성품”

이 히브리 단어(BDB 468)의 의미는 불확실하지만 이 단어(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됨)는 “도구”를 뜻한다. 어떤 이는 그들이 농기구만을 가지고 세겜에 왔으며 그들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그 도구를 휘두르기 이전에는 아무도 그들이 해를 입히는 자일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다고 추정한다.

UBS 히브리 구약 본문 프로젝트의 초기 및 중간 보고는 같은 철자(*mkrtym*)를 사용하는 두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다

1. 그들의 칼들(헬라이어 단어와의 유사성에 근거한 추측, NRSV)
2. 그들의 파괴

이 보고서는 2 항을 선택을 지지하지만 그것에 “C”등급(상당히 의심스러움)을 주고 있다.

제 3 의 선택은 이디오피아어에서 “자문을 주다”라는 단어의 어근을 취하는 방법이다(참조, 제임스 바르, *비교 어원학과 구약 본문* 57 쪽, 참조, JB, REV).

▣	
NASB	“기구”
NKJV	“도구”
NRSV, TEV	“무기”

이 단어(BDB 479)는 기본적으로 “그릇,” “용기”를 뜻한다. 이것은 다음을 뜻할 수 있다

1. 가족의 재산
2. 돈
3. 가방
4. 장식품
5. 사냥무기
6. 전쟁무기
7. 악기
8. 멍에
9. 목자의 가방
10. 요리용 냄비

이 단어는 분명히 광의의 어원적 영역을 갖는다. 이것은 “칼들”과 평행을 이룬다(혹은 BDB 468 이 뜻하는 모든 종류의 의미). 맛소라 본문에서 이 단어(BDB 479)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BDB 468 이 나온다. JPSOA 에는 “무법의 도구가 그들의 무기다”라고 해석한다. 이절과 관련된 혼란스러운 모습은 고대 역본들에 나타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단어가 세겜 사람들을 죽인 두 형제를 가리킴이 분명하다(참조, 창 34 장).

UBS 히브리 구약 본문 프로젝트의 초기 및 중간 보고는 히브리 구를 이해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1. *클레 하마스* = 폭력의 무기들
2. *킬루 하마스* = 그들이 폭력을 결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폭력의 무기들”이라는 가능성도 제시하지만, 2 항에 “B”(약간 의심스러움)등급을 주고 있다.

49:6

NASB	“내 혼아... 내 영광아”
NKJV	“내 혼아... 내 명예야”
NRSV, 페쉬타	“나... 나”
NJB, REV	“내 혼아... 내 심장아”
JPSOA	“내 인격아... 내 존재야”
70 인역	“내 혼아... 내 속사람아”

처음 용어(BDB 659)는 *네페쉬*로서 “사람이나 짐승의 생명력”(즉, 호흡을 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단어는 46 장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는데(46:15,18,22,25,26[2 회],27[2 회])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었다.

두 번째 용어(BDB 458)는 “*카보드*”로서 “풍부함,” “명예,” “영광”을 나타낸다(45:13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어근이 이곳에서와 같은 형태로 사용된 경우는 이곳과 31:1 및 45:13에서만 발견된다. 시 7:5에서는 같은 어근으로 된 두 단어가 함께 나타난다. 한편, 이 문맥에서 이 단어는 야곱 자신을 가리키는데 그는 *네페쉬*와 평행을 이루고 있다. 이 두 용어는 평행을 이루는 **지시형** 구문에서 사용되었다.

6 절의 처음 두 행은 야곱이 나이 많은 두 아들의 계획이나 행동에 관여하지 않기를 바라는 자신의 생각을 관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의 두 아들은 세겔 성읍에 사는 모든 가나안 남자들을 죽이려고 모의했다.

▣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야곱은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 두 아들과 동일시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라도” 이것은 3 행과 평행을 이룬다. 이것은 세겔에서의 살육을 관용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두 형제는 모든 세겔 남자들을 짐승처럼 다루었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이 느려지게 되었음을 뜻하는 암시일 수도 있다(할레한지 3 일 췌에).

49:7 “저주” 이것(BDB 76, KB 91)은 **수동 분사형**으로서 감탄사로서 사용되었다(참조, 3:14,17; 4:11; 9:25; 27:29; 민 24:9; 신 27:15-26; 삿 21:18; 삼상 14:24,28). 이것은 창 12:3 과 27:29 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관련된 특별한 용례를 이룬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아들이 언약의 구성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 저주는 그들이 가족의 지도자(장자 상속권)가 되지 못함과 관련을 가짐이 분명하다. 이 아들들 자신이 아니라 그들의 “분노”(BDB 60)가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한편, 야웨 자신이 이 일을 직접 행하시는 분이심을 주목하라(“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눌 것이다,” BDB 323, KB 322, **피엘 미완료형, 일인칭 단수형**).

7 절에서 1 행과 2 행 및 3 행과 4 행 사이에 종합적 평행법이 명확히 나타남을 주목하라. 이것은 히브리 시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히브리 시에 대한 설명을 보라).

▣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우리는 역사를 통해 시므온 지파가 블레셋과 가까운 지역을 지파의 땅으로 할당받았는데(참조, 수 19:1-9) 매우 신속히 세력이 약화되어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음을 알게 된다. 레위 지파는 장자들의 자리를 대신했고(참조, 출 13 장) 제사장이 되어 땅 전체에 흩어졌다. 그들은 레위인의 성읍으로 불리는 48 개의 성읍으로 분산되었다. 이 축복의 장이

고대에 속함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모세가 신명기 33 장에서 각 지파를 축복할 때 그곳에서는 레위 지파가 흠어짐과 관련된 어떤 축복도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역개정 49:8-12**

<sup>8</sup>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sup>9</sup>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이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sup>10</sup>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sup>11</sup>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땀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sup>12</sup>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49:8-12 “유다” 이 용어(BDB 397)은 “찬송”(BDB 393, 참조, 29:35)을 의미한다. 그는 분명히 매우 강한 군대를 이룬 지파로서(참조, 8-9 절)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왕인 통치자(참조, 10-12 절)로서 묘사된다. 이러한 은유적 표현은 유다를 사자 새끼(BDB 158 과 BDB 71 의 **합성**)로 나타내는 묘사로 이어진다. 이것은 그가 사자의 새끼임을 뜻하기 위함이 아니라 곧바로 힘센 제모습을 갖게 되는 어린 사자임을 나타낸다(참조, 민 24:9).

49:8 “원수” 이 용어(BDB 33, KB 38, **칼 능동 분사**)가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었는데, 특히 왕의 원수를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40 회 이상 사용되었다(참조, NIDOTTE 제 1 권 366 쪽). 왕에 대한 축복을 다룬 이 본문에서 이 단어는 유다가 우월하게 됨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단서이다.

▣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 동사(BDB 1005, KB 295, **히스타펠[구약 분해 안내]** 또는 **히트파엘[오웬, 분석적 열쇠]** **미완료형**은 경의를 나타내는 행동을 말한다)는 37:7.9 에 있는 요셉의 꿈에서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이다. 형제들(유다를 포함하여)이 자기 형제 가운데 한 명에게 절하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그들이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절했듯이 가나안에서 유다에게 절할 것이라고 야곱이 여기서 단언하고 있다. 유다는 왕의 지파가 될 것이다!

49:10 “규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이 두 용어(BDB 986 및 BDB 349, KB 347, **폴렐 분사**)는 평행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연합된 지파의 왕이 유다에서 올 것임을 말한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 있다”라는 구는 고대 근동의 통치자들이 보좌에 앉을 때 자신의 다리 사이에 가진 지위의 상징물(대개 지팡이나 창)이었음을 고대의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이 용어가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상징함을 보여준다(참조, 민 21:18).



▣

NASB, NKJV	“실로가 오시기까지”
NRSV	“공물이 오기까지”
TEV	“나라들이 그에게 공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NJB	“그에게 공물이 오기까지”
70 인역	“물건들이 그를 위해서 쌓이기까지”
페쉬타	“홀이 속하신 분께서 오시기까지”
JPSOA	“그에게 공물이 올 것이다”
REB	“그에게 합당한 것을 그가 받으시기까지”
영의 문자적 해석	“그의 씨께서 오시기까지”

이 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1. 이것은 어떤 이름일 것이다(Sanh 98b)
2. 이것은 지명일 것이다. 하지만 북왕국에 속한 이 작은 성읍에서 어떤 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기에(유다 당시나 다윗의 시대나 메시아의 시대에서도) 이점은 이상하게 보인다
3. 어떤 이는 이 구가 “그의 것이 오기까지”를 속기로 표현한 형태라고 주장한다; 70 인역과 탈군 온켈로스는 이렇게 이 절을 해석한다
4. 어떤 이는 이 구가 겔 21:26-27 에서 인용된 내용으로서 “의로운 다윗 자손/유대인의 왕이 오시기까지”라는 의미를 가지며 그는 메시아를 뜻한다고 주장한다. RSV 는 이렇게 이 절을 해석한다
5. 어떤 탈군역은 이 절을 “메시아께서 자신에게 속한 왕국에 오시기까지”로 번역한다
6. 실로라는 단어가 “왕자”라는 의미를 갖는 바벨론 어근에서 왔을 가능성도 약간 있다

UBS *히브리 본문 프로젝트*는 몇 가지 항목을 제시한다.

1. *야보 실로*, 그가 실로에 오신다 혹은 실로가 오신다
2. *야보 헬로*, 그가 그에게 속한 것에 오신다(모음을 변화시킴)
3. *유바 샤흐 로*, 공물이 그에게 보내진다.

이 프로젝트는 1 항에 “A”등급(가능성이 높음)을 주며 실로를 유다의 아들과 연결시킨다(“셀라”라는 이름, 참조, 38:5,11,14,26; 46:12; 민 26:20; 대상 2:3; 4:21).

이 절은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가리킨다. 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고대 회당과 교회는 이것이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이해했다. 유다는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된다. 그러나 메시아(그의 자손)은 땅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실 것이다(참조, 계 11:15).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이스라엘 왕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되었다.

1. 아브라함 에게 주신 예언, 창 17:6,16
2. 야곱에게 주신 예언, 창 35:11
3. 유다에게 주신 예언, 창 49:8-12
4. 이스라엘에 대한 발람의 예언, 민 24:7
5. 모세가 왕에 대해 준 지침, 신 17:14-20
6. 다윗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 삼하 7 장

▣

NASB, NKJV, NRSV	“백성들의 복종”
TEV	“순종하여 그에게 절한다”
NJB	“백성들이 그에게 순종을 한다”
JPSOA	“백성들의 경의가 그의 것이다”
70 인역	“그가 민족들의 기대이다”
페쉬타	“이방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기다릴 것이다”

맛소라 본문에는 “백성들의 순종이 있을 것이다”(BDB 429 와 766 의 **합성**)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동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70 인역과 페쉬타는 우주적인 메시아를 암시(즉, “나라들,” BDB

766 은 복수형으로서[참조, 27:29]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백성을 뜻하는 “열방”[이방인])하는데 이러한 용례는 시 2:8 과 단 7:13-14 에 나온다!

49:11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11 절과 12 절은 번영을 나타내는 관용어를 이룬다. 그에게 좋은 포도나무가 아주 많이 있기에 그 중 한 그루에 짐승을 매어놓아 그 짐승이 나무를 먹어치우든지 아니면 도망가려고 애쓰다 망쳐놓든지 이에 개의치 않음을 나타낸다.

▣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것은 포도 열매가 많음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평행구문이다. 한편,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대리인으로서의 유다를 뜻할 수 있다(참조, 사 63:1-6; 계 19:13,15).

49:12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것은 포도주(TEV, “충혈된[BDB 314] 눈”)와 우유(즉, 건강한 떼)가 풍부함을 나타내는 또다른 은유적 표현이다.

14:18 의 특별주제: 술과 술취함에 대한 성경의 입장을 보라.

개역개정 49:13  
13 스블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 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49:13-14 “스블론 ... 잇사갈” 시므온과 레위가 서로 연결이 되듯이 스블론과 잇사갈도 그러하다. 스블론은 상업적으로 많이 깐 족속이 될 것이며 잇사갈은 매우 강하지만 야욕이 없는 족속이 될 것이다.

49:13

- NASB “해변에 거주하리니”
- NKJV “바다의 항구에 거주하리니”
- NRSV “바다의 해변에 정착하리니”
- TEV “바다 옆에서 살리니”
- NJB “해변에서 살리니”
- 70 인역 “해변에 거주하니”

이 구는 문자적으로 “해변가에”(BDB 342 와 410 의 **합성**)이다. 이 지파는 결코 바닷가에서 살지 않았는데(참조, 수 19:10-16) 그 이유는 아셀이 그들과 바다 사이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한편, 그들은 두로 및 시돈과의 무역에 관여했다(참조, 13c 절; 신 33:19c 와 d).

개역개정 49:14-15  
14 잇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꿰어얹은  
건장한 나귀로다  
15 그는 설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49:14 “잇사같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꿰어얹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 두 시행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되었다.

1. 어떤 이는 “일일 노동자”를 이 단어의 어근으로 취한다(TEV)
2. 어떤 이는 그들이 게으름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언덕, 안장(TEV), 양의 우리에 누우며 노예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이다(참조, NIDOTTE 제 2 권 994 쪽 4 항)

이 암시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의 활용을 거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70 인역은 이 내용을 긍정적 의미로 번역한다.



NASB, NRSV,

NJB, JPSOA “양의 우리”

NKJV “두 개의 짐”

TEV (NASB 의 난외주) “안장들”

70 인역 “유산들”

폐쉬타 “고속도로 옆에서”

REB “가축 우리 안에서”

함미스페타임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다음을 뜻할 수 있다

1. BDB 1046
  - ㄱ. 다섯 장소
  - ㄴ. 재를 쌓아둔 더미(즉, 마을들)
  - ㄷ. 양의 우리(참조, 삿 5:6)
2. KB 652
  - ㄱ. 나귀에게 지우는 두(히브리어에서는 쌍수임) 개의 자루(아랍어 및 올브라이트)
  - ㄴ. 난로 위에 있는 주전자
  - ㄷ. 나뉘어진 양의 우리(참조, 시 68:13)

그렇다, 현대인들은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려고 할 것이지만 이렇게 모호한 상태에서도 문맥을 통하여 그림을 보여준다. 더 정확한 사전적 혹은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기까지 우리는 보다 큰 그림에 의존해야만 한다.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49:15 이 절을 이해함에 있어서 두 가지 정반대되는 방법이 있다.

1. 잇사같이 게을러서 노예가 되었다.
2. 잇사같은 자신이 유업으로 받은 땅이 기름짐을 알았기에 열심히 일하여 번영을 이루려 했다.

이 모든 내용이 “꿰어 얹은”(lying down)에 걸려 있다. 이 단어는 게으름을 나타내는가 아니면 힘든 수고를 한 후에 쉼을 의미하는가?

개역개정 49:16-18

<sup>16</sup>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sup>17</sup> 단은 길썬의 뱀이요 샅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sup>18</sup>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49:16 “단” 이것은 단(BDB 192)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언어유희이다. 단은 디나(BDB 192)와 더불어 “재판관”(BDB 192)를 뜻하는데 디나는 여성형으로 된 단어로서 “여자 재판관”을 의미한다. 만일 이러한 이해가 사실이라면 단에 대한 구는 작지만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단을 가리킨다.

49:17 “단은 길썬의 뱀이요” 내가 좋아하는 구약 주석가 가운데 한 사람인 류폴드는 17 절과 27 절을 긍정적 의미로 이해한다(18 절의 설명을 보라). 한편, 문맥에서 볼 때 이것은 부정적 의미일 수 있다. 우리는 단 지파의 어떤 사람들이 행한 일의 예를 성경에서 본다(참조, 샷 18 장). 사사기 18 장이 지파들 가운데 행한 우상숭배에 대한 성경의 처음 기록일 뿐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당해준 땅을 그들이 버리고 떠났기에 많은 사람들은 단이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낙인이 찍혔다고 생각한다. 단은 계 7:5-8 에 나오는 지파들의 목록에 들어있지 않다. 이레니우스, 암브로스, 어거스틴, 테오도르 등 많은 초기 교부들은 적그리스도가 단 지파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49:18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문맥에 나오는 갑작스러운 기도의 이유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이 내용은 야곱이 하는 말인가 혹은 단이 하는 말인가? 이것은 17 절에서 언급한 “뱀”(창 3 장의 사건을 가리키는)을 마음에 떠올리며 드리는 하나님(창 49 장에서 유일하게 야웨라는 이름을 사용한 곳임)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인가? 아마도 이것은 단 지파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야웨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신뢰하여 돌아오기를(즉, 원래 단 지파가 할당받은 지역으로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위해 드리는 기도일 것이다.

**특별주제: 구원(예슈아)**

이 용어(BDB 447)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복지, 번영, 욥 30:15
2. 육체적 영적 면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원
  - ㄱ. 창 49:18
  - ㄴ. 신 32:15
  - ㄷ. 시 3:2,8; 22:1; 35:3; 62:2; 69:29; 70:5; 78:22; 80:3; 89:26; 91:16; 106:4; 140:7
  - ㄹ. 사 12:2; 33:2; 51:6,8; 52:7,10; 56:1; 59:11; 60:18; 62:1
3. 육신적 구원이면서 또 영적인 구원의 개념은 욥 2:9-10 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4. “기쁨”은 종종 야웨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 삼상 2:1; 사 25:9; 26:1; 시 9:14; 13:5; 35:9

구원은 야웨께서 원래 의도하신대로 그의 창조물인 인간과의 교제와 교제권을 이루시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가 온전하게 됨을 뜻한다!

**개역개정 49:19**

<sup>19</sup>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49:19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이름(BDB 151)의 어근과 관련을 가진 명백한 언어유희가 이 한 절에 4 번 나타나고 있다. 갓은 주위의 나라들(즉, 요단 동편)로부터 공격을 받기 쉬운 지역을 자기 지파에게 할당된 지역으로 받게 된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을 추격할 것이며 그들로부터 전리품(즉, 행운, 번영함)을 되찾을 것이다.

히브리 본문에는 “발 뒤꿈치”(BDB 784, I, a)가 있는데 BDB 는 그 용어를 *yqbm* 이라고 본다(시의 다음 행인 20 절의 첫 자음인 *m*을 앞으로 가져와서). 만일 그 설명이 맞다면 이 행을 “발 뒤꿈치”가 아니라 “그들의 뒤를 공격할 것이다”(BDB 784, I, c)로 읽어야 한다.

**개역개정 49:20**

<sup>20</sup>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49:20 “아셀” 아셀의 기본적인 의미는 “행복한 사람”(BDB 81)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할당받은 그들의 땅을 지나는 무역로를 장악하여 매우 부유하게 된다는 암시이다. 또한 그들의 땅이 기름지다라는 의미는 그들이 왕의 식탁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공급하게 됨을 의미한다(참조, 신 33:24-25).

**개역개정 49:21**

<sup>21</sup>납달리는 놓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49:21

NASB, NRSV	“놓인 암사슴”
NKJV, JPSOA	“놓인 사슴”
TEV	“자유롭게 달리는 사슴”
NJB	“빠른 암사슴”
70 인역	“뺨어가는 즐기”
페쉬타	“빠른 전령”
REB	“뺨어가는 테레빈 나무”

이 동사(BDB 1018, KB 1511, *칼수동 분사*)는 다음을 의미할 수 있다

1. 보내다
  - ㄱ. 사람
  - ㄴ. 물건
  - ㄷ. 소식
2. 던지다
3. 뺨치다(즉, 뺨어가는, 참조, 70 인역, REB)
4. 쫓아내다(참조, 창 3:23)
5. 풀어주다(참조, 시 50:19)

■

NASB	“그가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NKJV, 페쉬타	“그가 훌륭한 소리를 발하는도다”
NRSV, TEV, NJB, JPSOA	“귀여운 새끼 사슴을 뺨”
70 인역	“그 열매에 아름다움을 주는”
REB	“사랑스러운 가지들을 내는”

“아름다운” 혹은 “사랑스러운”으로 번역된 단어(BDB 1051 I, *쉐페르*, 참조, 시 16:6)를 같은 세 자음으로 이루어진 “뺨”(쇼페르)로 번역할 수 있다(참조, 로델함의 강조된 성경).

UBS의 창세기 핸드북은 도움이 되는 설명을 한다: “‘암사슴’을 ‘테레빈’으로 또 ‘새끼 사슴’을 ‘소리’로 바꾸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모음을 나타내는 점들을 바꾸어줌으로써 가능하다” (1094 쪽).

식물과 관련된 은유와 달리 동물과 관련된 은유가 창세기 49장에 자주 나오는 점과 21절의 시행에 나타난 평행법을 고려할 때 “아름다운 사슴 새끼들” 혹은 “어여쁨의 사슴 새끼들”이 더 적합하게 여겨진다.

**개역개정 49:22-26**

<sup>22</sup>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sup>23</sup>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sup>24</sup>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콥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sup>25</sup>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sup>26</sup>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49:22-26 “요셉” 유다가 레아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족의 지도자(즉, 메시아의 계보)로 선발되었듯이 요셉은 두 몫의 유산(즉, 에브라임과 므낫세)을 받도록 라헬의 아들들 가운데서 선발되었다. 이것은 요셉의 뛰어난 점을 매우 시적으로 또 강조적인 진술로 표현한 내용이다.

49:22 이절에 언어유희와 은유적 표현이 각각 나타난다.

1. 칼 능동 분사(BDB 826, KB 963)가 두 번 반복 되었다

2. 1 행에 있는 “가지”는 문자적으로는 “아들”을 말하지만 3 행에 있는 “가지”는 “딸”을 뜻한다

힘있게 자라며 열매를 맺는 가지와 관련된 농업적인 은유적 표현이 여러 개 있다(참조, 신 33:13-16).

어떤 주석가들은 동물과 관련이 있는 은유적 표현(참조, 9,14,17,21,27 절 및 신 33:17 에 있는 평행)에서 전환됨을 의심하여 이것을 언덕에 있는 들나귀에 대한 비유적 묘사로 바꾸어 제시한다(참조, JPSOA, TEV). 고대 언어의 시에서 사용한 드물게 나오는 단어들은 다루기 힘들다!

22 절의 히브리 본문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이 있다!

49:23-25 이 절들은 은유적 표현으로써 다음의 내용과 관련을 갖는다

1. 요셉이 자기 형제들, 보디발, 감옥에서의 삶을 통해 가진 경험

2. 요셉의 아들들(즉,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서 나온 지파가 가나안에서 할당받은 땅을 정복함(여호수아서)

하나님께 대해 사용한 여러 호칭을 주목하라.

1. 야곱의 전능자, 24 절, BDB 7 과 784 의 **합성**, 참조, 시 132:2,5; 사 49:26(이스라엘의 전능자, 사 1:24)
2. 목자, 24 절, BDB 944, KB 1258, **칼 능동 분사**, 참조, 시 23:1; 80:1(이와 비슷한 관용어가 시 78:52 에 나옴)
3. 이스라엘의 반석(또는 바위), 24 절, BDB 6 과 975 의 **합성**, 참조, 사 30:29; 아마도 시 118:22; 사 28:16 에 나오는 “모퉁이돌”이라는 메시아의 칭호와 연관이 있을 것임(아래에 있는 특별주제를 보라)
4. 네 아버지의 하나님, 25 절, 참조, 창 26:3,24; 28:13;32:9(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 강조를 나타냄을 주목하라)
5. 전능자(문자적으로는 *샤다이*, 참조, JPSOA), 25 절, BDB 994, 참조, 17:1; 12:1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 특별주제: 모퉁이 돌

#### I. 구약의 용법

- 가. 단단하고 내구성이 있어 좋은 기초를 이루는 물질인 돌이라는 개념이 야웨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시 18:1).
- 나. 이것은 메시아의 칭호로서 발전되었다(참조, 창 49:24; 시 118:22; 사 28:16).
- 다. 이것은 메시아에 의한 야웨의 심판을 나타내었다(참조, 사 8:14; 단 2:34-35; 44-45).
- 라. 이것은 건물에 대한 은유로 발전했다.
  1. 처음에 놓는 기초석으로서 그 위에 놓이는 건물의 안전과 각도를 유지시키며 “모퉁이 돌”로 불렸다
  2. 이것은 또한 벽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얹은 돌을 가리킬 수도 있다(참조, 숙 4:7; 엡 2:20,21). 이것은 히브리어의 *로쉬*(즉, 머리)에서 온 단어로서 “머릿돌”로 불린다
  3. 이것은 “췌기돌”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아치형 문의 중앙에 위치하며 벽 전체의 무게를 견딘다

#### II. 신약의 용법

- 가.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내용을 시 118 편에서 여러 번 인용하여 말씀했다(참조, 마 21:41-46; 막 12:10-11; 눅 20:17)
- 나. 바울은 시 118 편을 야웨께서 믿음이 없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거부하심과 연결시킨다(참조, 롬 9:33)
- 다. 바울은 엡 2:20-22 에서 “머릿돌”의 개념을 그리스도께 대해 사용한다
- 라. 베드로는 벰전 2:1-10 에서 이 개념을 예수께 대해 사용한다. 예수는 모퉁이 돌이시고 신자들은 살아있는 돌들이다(즉, 신자들은 성전(참조, 고전 6:19)으로서 그 분 위에 지어졌다(즉, 예수는 새 성전이시다, 참조, 막 14:58; 마 12:6; 요 2:19-20).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일은 바로 자기들이 가진 소망의 기초가 되신 이를 거부한 것이 된다.

#### III. 신학적 진술

- 가. 야웨께서 성전을 짓도록 다윗/솔로몬에게 허락하셨다. 만일 그들이 언약을 지키다면 그들을 축복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지만(참조, 삼하 7 장), 만일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성전을 파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참조, 왕상 9:1-9)!
- 나. 랍비들의 유대교는 형식과 의식을 강조했지만 믿음의 개인적 측면은 소홀히 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뜻이 아니다; 경건한 랍비들도 있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자들과 매일 인격적이고 경건한 교제를 하기 바라신다(참조, 창 1:26-27). 눅 20:17-18 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증거한다.

- 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에 대해 말씀하기 위해 성전의 개념을 사용하셨다(참조, 요 2:19-22). 이것은 예수께 대해 각자가 믿음을 갖는 개념으로 이어지고 확장된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일은 야웨와의 관계에 있어서 열쇠가 된다.
- 라.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존재에 회복되어(창 1:26-27 과 3 장)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케 됨을 의미한다. 기독교의 목적은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있다. 신자들은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한다.
- 마. 예수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기초이며 믿음의 머릿돌(즉, 알파와 오메가)이다. 그럼에도 그는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신다. 그 분을 놓치는 것은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다. 여기에 중간지대는 없다!

49:25-26 “축복” 이 용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가를 주목하라.

1.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25 절, BDB 138, KB 159, *피엘 미완료형*, 참조, 28:3; 48:3
2. 위로 하늘의 복과, 25 절, BDB 139, 참조, 27:28; 신 33:13
3.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25 절, BDB 139, 참조, 신 33:13
4.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25 절, BDB 139
5. 네 아버지의 축복이, 26 절, BDB 139
6.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26 절(어려운 히브리어 구이며 또 다시 “축복”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축복은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시키고(참조, 창 12:2; 22:17; 24:1; 26:12; 30:30) 또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었다(참조, 창 12:2-3; 22:18; 30:27; 39:5). 이것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신 목적이었다(참조, 1:22,28)!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세상의 모습이 아니다(참조, 창세기 3 장). 요셉의 경건함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에 대해 원래 가지신 계획을 나타내시게 해드렸다.

49:25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이것은 곡식, 때, 인구의 풍성함을 삼중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것이 바로 에덴에서 모든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늘”과 “깊음”은 모든 가능한 축복의 폭과 크기를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다. 둘 다 곡식과 풀이 풍성히 자람에 있어서 필요한 수분과 관련이 있다(참조, 신 33:13).

49:26 2 행과 3 행 사이에 평행법이 나타난다. 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에서 둘 다 어려운 내용을 갖는다.

1. 영원한 산들(*호라이 안*, BDB 249) 혹은 조상들(*호레이 안*, BDB 223 또한 이 단어가 영원한 산과 평행을 이룬다고 추정한다, 70 인역이 이러한 점을 반영하며 신 33:15에 있는 평행도 그러하다; 맞소라 본문에는 “조상들”로 되어 있는데 이 형태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의 축복
2. 영원한 산들의 축복들

평행법의 문맥에서 볼 때 두 행은 아마도 산 및 언덕과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둘은 관용적으로 힘과 영속성을 나타낸다.

▣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 “뛰어난”(BDB 634)은 “나사렛 사람”을 가리키는 어근에서 왔다. 이 어근은 “따로 구별하다”(참조, TEV) 혹은 “성결케 하다”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아마도 왕자나 관리를 뜻할 수 있다(참조, 나 3:17). 이것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가진 자도자의 역할을 가리킨다.



개역개정 49:27

<sup>27</sup>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라  
아침에는 찌얏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49:27 “베냐민” 그는 물어뜯는 이리로 묘사된다(BDB 382, KB 380, **칼 미완료형**). 어떤 이는 그가 자기 앞에 놓인 다섯 몫을 모두 먹었다고 말한다(참조, 창 43:34). 그의 아버지는 그가 먹는 습관에 대해 알고 있었다! 27 절은 부정적인 내용이다. 사사기 19-21 의 설명을 보라.

류폴드는 17 절과 27 절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히브리시는 매우 모호한데 이는 히브리시라는 장르라는 점 및 드물게 사용된 단어들로써 시의 운율(엑센트가 주어진 음절)을 조정하는 점 때문이다.

▣ “**움킨 것**” 이 단어의 어근인 **אָמַק**(BDB 723 I)는 일반적으로 영속성을 나타낸다(즉, 창 49:26; 또한 시편과 이사야서에서 여러 번). 하지만 이 단어는 드물게(참조, 이곳; 사 33:23; 습 3:8) “떡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전쟁의 전리품을 나타낸다.

개역개정 49:28-33

<sup>28</sup>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sup>29</sup>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헛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sup>30</sup>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헛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sup>31</sup>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 곳에 장사하였노라 <sup>32</sup>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헛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sup>33</sup>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49:29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것은 죽음과 장사를 나타내는 관용어이다(참조, 25:8,17; 35:29; 49:33; 민 20:26; 27:13; 31:2; 신 32:50; 삿 2:10; 왕하 22:20). 이것이 스올에서 갖는 가족과의 재회를 뜻하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이것은 가족의 무덤이나 굴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이다. 한편 *테라핌*의 숭배를 인해(참조, 31:19,34,35, 31:19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표현은 아마도 더 커다란 의미를 나타내는 말일 것이다(참조, 마 22:31-32).

사후세계를 암시하는 표현에 관한 간략한 논의에 대하여는 *성경의 어려운 말들* 127-129 쪽을 보라.

▣ “**굴에**” 이것은 족장들의 매장지를 가리킨다. 이 굴은 창 23:1-19 에서 헛 족속인 에브론에게서 산 것이다. 언약의 가족이 사후에 함께 있음이 말해진다.

야곱은 분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가족이 이집트에 머물지 않고 언젠가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임을 말하고 있다(참조, 15:12-21). 요셉도 50:24-25 에서 같은 내용을 예언적 요구를 통해 말하였다. 이집트는 그들의 수가 많아지기까지 머문 임시적인 피난처였다.

49:31 “**리브가... 레아**” 이것은 이 두 사람의 장례에 관한 최초의 진술이다. 요셉의 어머니가 길 옆에 장사되었기에 이 말을 듣고 그가 화를 냈을 것이라고 랍비들은 말한다. 하지만 이 일은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포로로 잡혀갈 시기에 대한 예언적 암시로 여겨진다. 길가에 묻힌 라헬은 그들이 사로잡혀 감을 보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 울을 것이고 그들은 자신이 사로잡혀 가면서 그녀를 취하여 갈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램 31:15).

49:33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만일 야곱이 이 기간 전체에 앉아 있었던 것이라면 이 표현은 단순히 그가 자리에 누웠음을 나타낸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그가 태아처럼 움츠린 자세를 취함을 가리킨다. 그리고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숨을 내쉴 것이다(죽음을 가리키는 관용어임).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야곱은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하였는가?
2. 창 48:15-16 에 나오는 하나님의 3 중적 호칭은 어떠한 중요성을 갖는가?
3. 49 장에 있는 축복은 창 29:30-30:24 에 있는 아들들의 이름과 어떤 관련을 갖는가?
4. 두 아들이 받은 아주 큰 축복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들이 받은 바 축복의 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 창세기 50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 MT 를 따름)
야곱의 죽음과 장사	야곱의 죽음과 장사 (49:29-50:14)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마지막 날들 (49:29-50:14)	야곱의 죽음과 장사 (49:29-50:14)	야곱의 장례
50:1-3	50:1-3	50:1-3	50:1-3	50:1-3a 50:3b-6
50:4-6	50:4-11	50:4-6	50:4-5 50:6	50:7-9
막벨라에서 매장함		50:7-14	50:7-9	50:10-11
50:12-14	50:12-14		50:10-11 50:12-14	50:12-13 50:14
50:15-21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또 다시 안심시키다 50:15-21	50:15-21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또 다시 안심시키다 50:15-17 50:18 50:19-21	야곱의 죽음에서 요셉의 죽음까지 50:15-17 50:18-21
요셉의 죽음	요셉의 죽음		요셉의 죽음	
50:22-26	50:22-26	50:22-23 50:24-26	50:22-26	50:22-25 50:26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50:1-3

<sup>1</sup>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푸려 울며 입맞추고 <sup>2</sup>그 수종 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sup>3</sup>사십 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칠십 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50:1 이 절은 죽음과 관련하여 슬픔을 나타내는 세 가지 표를 보여준다.

1.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푸려, BDB 656, KB 709, **칼 미완료형**, 33:4 와 비슷함
2. 울며, BDB 113, KB 129, **칼 미완료형**
3. 입맞추고, BDB 676, KB 730, **칼 미완료형**

50:2 “의원” 이것은 “고치다”라는 동사(BDB 950, KB 1272, 참조, 대하 16:12)의 **칼능동 분사**이다. 전문적으로 방부처리를 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이집트인의 방부처리 과정에 따르는 종교적 관점을 피하기 위하여 의원들에게 일을 맡겼을 것이다(NASB 연구 성경 73 쪽). 야곱의 시신을 보존하였는데 이는 후에 가나안에 있는 가족 매장지에 장사지내기 위함이었다(참조, 49:29-32).

▣ “향으로 처리하게” 이 동사(BDB 334, KB 333, **칼 부정사 연계형**) 는 “향료를 치다,” “향료를 뿌리다”(참조, 아 2:13) 혹은 “방부처리 하다”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구약에서는 이곳에서만 나오는 용어으로써 이집트 사람들이 행한 독특한 과정이었다. 이것은 오시리스와 관련된 종교적 일로서(주전 2700 년 경에 시작됨) 사후세계에 대한 이집트인의 신앙과 관련이 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내장을 제거하고 그것을 향아리에서 따로 보존한다
2. 후에 뇌를 제거하고 그것을 향아리에 따로 놓는다
3. 수지 가공을 한 린넨 천으로 시신을 감는다

어떻게 향으로 처리하는가에 대한 유일한 기록은 헤로도투스의 *역사* 2:85-90 과 이도도루스 시쿠루스의 *역사* 1.91 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ABD 제 2 권 490-495 쪽과 제임스 M. 프리먼의 *성경의 태도와 풍습* 56-58 쪽을 보라.

이 논의는 오늘날 행하는 방부처리에 대하여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행한 종교적인 관점의 예식을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창 3:19 에 있는 저주의 선언이 아직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육신을 남기는 일(즉, 시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별주제: 화장**

I. 구약

- 가. 화장(불로 태움)은 레위기에서 사형을 하기 위해 사용한 4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참조, 20:14; 21:9, 예, 창 28:24 와 수 7:15,25)
- 나. 사울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그의 시신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가져다가 불로 사른 후에 그들의 뼈를 베냐민에 있는 땅에 묻었다(참조, 삼상 31:12-13, 이와 평행을 이루는 대상 10:12 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되었다)

학자들 사이에 “불사른”과 “기름을 부은”을 놓고 약간의 논란이 있다. 이 본문은 구약에서 화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유일한 내용으로 보인다(참조, *유대 백과* 제 5 권 1074 쪽). 이것은 아마도 향료를 불태움을 가리킬 것이다(참조, 대하 16:14; 21:19; 램 34:5).

- 다. 후에 유대의 한 선지자가 베엘에 와서 말하기를 이곳에 있는 제단에서 제사장들을 불사를 것이라고 예언한다(참조, 왕상 13:2).
- 라. 화장은 때로 잘못된 인식을 주는데 이는 구약에서 심판을 뜻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불이 사용되기 때문이다(참조, 사 30:33). 화장과 관련이 있는 은유적 표현(즉, “화장을 위해 쌓아 놓은 장작더미”)은 종말론적 정죄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 마. 매장은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에서 행한 관습이었다(참조, 로랜드 드보, *고대 이스라엘* 제 1 권 57 쪽). 화장은 죽은 사람을 비하시키는 일로 여겨졌다(참조, 암 2:1).

## II. 그리스와 로마

- 가. 이 두 문명에서 화장을 행했다.
  1. 그리스에서는 정기적으로(소포크레스, *엘렉트라*, 1136-1139)
  2. 로마에서는 가능한 일이었으나 일반적으로 행해지지 않는다고 선택적으로 행해졌다(시세로, *텔레* 2, 22, 56)
- 나. 지중해 문화에서는 화장에 대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와 다르게 생각했다. 타시투스는 유대인들이 화장이 아닌 매장을 한다고 언급하였다(*His.* 5.5).

## III. 랍비적 유대교

- 가. 대부분의 랍비들은 신 21:23 에 의해 매장을 주장했다.
- 나. 탈무드(*Sanh*, 7:2, 24b)와 미쉬나(*ʿAdodiah Zarah* 1.3)에서는 화장을 금하였다.
- 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화장한 유골을 유대인의 묘지에 두도록 허락하고 있다(참조, *유대 백과* 제 5 권 1074 쪽).

## IV. 신약

신약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하거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육신의 몸은 일시적인 피난처로 여겨졌다(참조, 대하 5 장). 옛 몸의 어떤 부분은 재림시 신자와 재결합 될 것이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이 없다(참조, 살전 4:13-18).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제이다. 구약의 유대인들과 같이 신약의 신자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 육체를 갖는 종말이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또 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하여는 자세한 언급이 없다! 육신의 남은 부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혹은 어디에 있는지는 예수님과 신자가 연합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지 육신의 일부가 남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 특별주제: 장례 관습

### I. 메소포타미아

- 가. 행복한 내세를 위해 적절한 장례는 매우 중요했다.
- 나.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사용한 저주의 예는, “땅이 당신의 시신을 받아주지 않기를 . . . ” 이었다.

## II. 구약

- 가. 적절한 장례는 매우 중요했다(참조, 전 6:3).
- 나. 장례가 매우 신속히 진행되었다(참조, 창 23 장의 사라와 창 35:19 의 라헬의 경우. 또한 신 21:23 를 주목하라).
- 다. 부적절한 장례는 거부됨과 죄의 표식이었다.
  - 1. 신명기 28:26
  - 2. 이사야 14:2
  - 3. 예레미야 8:2; 22:19
- 라. 가능하다면 장례는 집 근처에 있는 가족 묘지나 굴에서 행해졌다.
- 마. 이집트에서와 같은 방부처리는 하지 않았다. 사람은 흙에서 왔기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예, 창 3:19; 시 103:14; 104:29).
- 바. 랍비들의 유대교에서는 시신에 대한 적절한 존경 및 취급을 하는 일과 죽은 자의 몸에 접촉됨으로서 의식적인 면에서 부정하게 되는 개념을 조화시키기가 어려웠다.

## III. 신약

- 가. 장례는 임종 후에 신속히 진행되었는데, 대개 24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 유대인들은 종종 무덤을 3 일간 지켰는데, 그 이유는 이 기간에는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 올 수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참조, 요 11:39).
- 나. 장례를 위하여 시신을 씻는 일과 향신료를 사용하여 감싸는 과정을 거쳤다(참조, 요 11:44; 19:39-40).
- 다. 1 세기에 팔레스타인에서 행해진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의 독특한 장례 방법에 차이가 없었고, 무덤 안에 넣어 두는 독특한 물품의 사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었다.

50:3 “사십 일” 사십 (BDB 917)이라는 수는 문자적일 수도 있고 상징적일 수도 있다. 히브리 사람들은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 30 일 동안 슬퍼했다(참조, 민 20:29; 신 34:8). 이것은 존경의 표였다.

▣ “칠십 일” 야곱을 위해 왕에 해당되는 장례가 거행되었다. 바로 자신이 72 일 동안 울었다(헬라의 역사가인 디오도루스[1.72]).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 대한 경의로서 야곱을 위해 애곡했다.

### 특별주제: 성경에서 사용한 상징적 수

- 가. 어떤 숫자는 수와 상징 양쪽을 다 나타낸다:
  - 1. 하나 - 하나님(예, 신 6:4; 엡 4:4-6)
  - 2. 여섯 - 인간의 불완전성(7 에서 하나 적음, 예, 계 13:18)
  - 3. 일곱 - 하나님의 완전성(7 일 간의 창조). 계시록에서의 상징적 용법을 주목하라.
    - ㄱ. 일곱 촛대, 1:13,20; 2:1
    - ㄴ. 일곱 별, 1:16,20; 2:1
    - ㄷ. 일곱 교회, 1:20
    - ㄹ. 하나님의 일곱 영, 3:1; 4:5; 5:6
    - ㅁ. 일곱 등잔, 4:5
    - ㅂ. 일곱 인, 5:1,5
    - ㅅ. 일곱 뿔과 일곱 눈, 5:6

- . 일곱 천사, 8:2,6; 15:1,6,7,8; 16:1; 17:1
  - ㄷ. 일곱 나팔, 8:2,6
  - ㄸ. 일곱 우뢰, 10:3,4
  - ㄹ. 칠천, 11:13
  - ㅅ. 일곱 머리, 13:1; 17:3,7,9
  - ㅇ. 일곱 재앙, 15:1,6,8; 21:9
  - ㅎ. 일곱 접시, 15:7
  - ㄱ. 일곱 왕, 17:10
  - ㄴ. 일곱 병, 21:9
5. 십 - 완전성
- ㄱ. 복음서에서의 용법:
    - (1) 마 20:24; 25:1,28
    - (2) 막 10:41
    - (3) 눅 14:31; 15:8; 17:12,17; 19:13,16,17,24,25
  - ㄴ. 계시록에서의 용법:
    - (1) 2:10, 십일 간의 환란
    - (2) 12:3; 17:3,7,12,16, 열 빨
    - (3) 13:1, 열 면류관
  - ㄷ. 계시록에서의 10의 배수:
    - (1) 144,000 = 12x12x10, 참조, 7:4; 14:1,3
    - (2) 1,000 = 10x10x10, 참조, 20:2,3,6
6. 열 둘 - 인간의 조직
- ㄱ. 야곱의 열 두 아들(즉,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 창 35:22; 49:28)
  - ㄴ. 열 두 기둥, 출 24:4
  - ㄷ. 대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열 두 보석, 출 28:21; 39:14
  - ㄹ. 빵 열 두 덩이, 성소 안에 있는 상에 놓임(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열 두 지파의 필요를 공급하심을 나타냄), 레 24:5; 출 25:30
  - ㅁ. 열 두 정탐군, 신 1:23; 수 3:22; 4:2,3,4,8,9,20
  - ㅂ. 열 두 사도, 마 10:1
  - ㅅ. 계시록에서의 용법:
    - (1) 인침을 받은 만 이천명, 7:5-8
    - (2) 열 두 별, 12:1
    - (3) 열 두 문, 열 두 천사, 열 두 지파, 21:12
    - (4) 열 두 사도의 이름을 딴 열 두 기초석, 21:14
    - (5) 새 예루살렘은 사방이 만 이천 스타디온이었다, 21:16
    - (6) 열 두 진주로 만든 열 두 문, 21:12
    - (7) 열 두 가지 과일을 맺는 생명나무, 22:2
7. 사십 - 시간의 길이를 뜻하는 숫자
- ㄱ. 어떤 때는 문자적으로(출애굽과 광야 방랑시기, 예, 출 16:35); 신 2:7; 8:2
  - ㄴ. 문자적 혹은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우로써

- (1) 홍수, 창 7:4,17; 8:6
- (2) 시내산에서의 모세, 출 24:18; 34:28; 신 9:9,11,18,25
- (3) 모세의 삶의 구분
  - (ㄱ) 이집트에서의 40 년
  - (ㄴ) 광야에서의 40 년
  - (ㄷ) 이스라엘을 인도한 40 년
- (4) 예수께서 40 일을 금식하심, 마 4:2; 막 1:13; 눅 4:2

ㄷ. 성경에서(성구사전에 의하면) 많은 경우 이 수는 시간의 명칭으로 나타남을 주목하라!

7. 칠십 - 사람들에게 대해 사용한 어림 수:

- ㄱ. 이스라엘, 출 1:5
- ㄴ. 칠십 장로, 출 24:1,9
- ㄷ. 종말론적 의미, 단 9:2,24
- ㄹ. 선교 팀, 눅 10:1,17
- ㅁ. 용서함(70x7), 마 18:22

나. 좋은 참고 자료

- 1. 존 J. 데이비스, *성경의 수*
- 2. D. 브렌트 샌디, *보습과 전정용 갈고리*

#### 개역개정 50:4-6

<sup>4</sup>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sup>5</sup>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 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sup>6</sup>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50:4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것은 승인을 요청하는 관용어이다(참조, 18:3; 47:29; 출 33:13). 이 관용어는 항상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요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즉, 룻 2:13). 여기서 요셉은 바로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

50:5-6 5 절에서 요셉은 자신이 아버지 야곱에게 한(1 항과 2 항) 맹세(BDB 989, KB 1396, 두 개의 **히필 완료형**, 5,6 절)로서 그의 시신을 갖고 돌아갈 것(3 항)을 약속한 일에 대해 말한다.

- 1. 나로 올라가서, BDB 748, KB 828, **칼 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됨
- 2.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BDB 868, KB 1064, **칼 청유형**
- 3. 내가 다시 오리이다, BDB 996, KB 1427, **칼 청유형**

6 절에서는 그가 한 맹세와 관련하여 요청한 일에 대해 바로가 지시한다.

- 1. 올라가서, **칼 명령**
- 2. 장사하라, **칼 명령**

50:5 “**파 놓은**” 랍비들의 미드라쉬(페쉬타와 REV)는 이 용어를 “산”으로 바꾸었다(참조, 창 23:17-20; 47:27-31; 49:29-32). 이 두 히브리 단어의 어근은 같다

- 1. 파다, BDB 500 I, 참조, 26:25; 민 21:18
- 2. 사다, BDB 500 II, 참조, 신 2:6



개역개정 50:7-14

<sup>7</sup>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sup>8</sup>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 떼와 소 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sup>9</sup>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떼가 심히 컸더라 <sup>10</sup>그들이 요단 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칠 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sup>11</sup>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 강 건너편이더라 <sup>12</sup>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sup>13</sup>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sup>14</sup>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50:7-8 7-8 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치른 장례에 참석했는가를 보여준다.

1. 요셉
2. 바로의 모든 신하
3. 바로 궁의 원로들
4. 애굽 땅의 모든 원로
5. 요셉의 온 집
6. 요셉의 형제들
7. 요셉의 아버지의 집
8. 병거와 기병, 9 절

9 절은 군대의 호위를 나타낸다. 이것은 바로가 자신의 가장 뛰어난 행정관/자문인 요셉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 취한 확실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50:8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 떼와 소 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이것은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 “고센 땅에” 45:10; 46:28 의 설명을 보라.

50:10 “아닷” 문자적으로 이것은 “가시들”(BDB 31)을 뜻한다. 랍비들은 이것이 생울타리였다고 말한다. 이 장소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제롬은 후에 이곳이 여리고 근처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장소는 애곡을 위한 장소였지 매장지가 아니었다!

▣ 그들의 슬픔의 강도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1. 거기서 그들이 울었다
2. 매우 크게
3. 슬픔으로
4. 애통해 했다
5. 칠 일 동안 애곡하였다
6. 11 절의 설명을 보라

▣ “요단 강 건너편” “~편”(BDB 81 과 BDB 719 I 의 합성어, 참조, 11 절)이라는 구는 이 장소가 요단 강의 동편인지 아니면 서편인지를 결정해 주지 않는다. 이 방향은 말하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50:11 이것은 “아벨”(BDB 5 II)과 관련한 언어유희이다. 이 단어는 “목초지”(문자적으로는, “초록색 풀이 자라다”)와 “슬픔”을 뜻하는 “아벨”(BDB 5 I)을 의미한다(AB는 “물줄기”를 제 3의 의미로서 제시한다, 376 쪽).

50:12-14 이것은 야곱에게 그들이 한 약속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이다.

50:13 “굴” 이 굴은 23:16-20에서 언급된 장소이다.

**개역개정 50:15-21**

<sup>15</sup>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sup>16</sup>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sup>17</sup>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sup>18</sup>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sup>19</sup>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sup>20</sup>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sup>21</sup>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50:15 형제들이 심히 염려하는 정도가 다음의 내용에서 드러나고 있다

1. “원한을 품다”라는 **동사**(BDB 966, KB 1316). 이 단어는 이전에 예서에 대해 사용되었고 (27:41) 49:23에서 암시되고 있다. 이 단어가 욥 16:9; 30:21에서도 사용되었다. 이것은 강한 의미를 갖는 **동사**이다.
2.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라는 구, 이것은 같은 어근(BDB 996, KB 1427)을 갖는 **허필 부정사 절대형**과 **허필 미완료형**이다.

50:16-17 이것은 형제들이 요셉의 호의를 분명히 받기 위해 인용한 야곱의 말로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다.

50:17 이절은 19-20 절에 나오는 요셉의 믿음의 고백의 배경이 된다. 형제들이 두려워한 일과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BDB 609, KB 724, **갈 명령**
2. 내가 너에게 사정한다(NASB가 덧붙인 말)
3.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참조, 37:18-28)
4.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5.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6. 18 절

그들이 이러한 요청을 하는 유일한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1. 야곱의 말씀, 16-17 절
2. 그들이 야곱의 하나님의 종들인 점, 17 절

50:19  
 NASB, NKJV, NRSV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TEV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놓을 수 없습니다”  
 NJB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은 일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70 인역 “나는 하나님의 ~이기에”  
 페쉬타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에”  
 JPSOA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요셉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보여주는 말이다(참조, 45:5-15; 시 105:16-24)! 그는 이 내용을 20 절에서 설명한다, 그는 자신을 재판관으로서 이해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러하시다고 생각했다! 그가 히브리어로 말한 질문은 “아니다”라는 답을 예상한다. 이같은 표현이 30:2 에 나온다.

50: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이 형제들의 죄를 완전히 덮지 않았지만 자신의 삶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았다! 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손”을 인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심에 대한 좋은 글이 밀라드 에릭슨의 그리스도인의 신학 제 2 판 425-426 쪽에 있다. 이를 참고하라.

▣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은 롬 8:28-29 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 예이다.

50:21 요셉은 그들의 가족을 위하여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하고 있다.

1.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BDB 431, KB 432,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19 절도 이와 같음
2. 내가 당신들을 양육하리이다, BDB 465, KB 463, **필필 미완료형**, 참조, 45:11; 47:12
3.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양육하리이다, BDB 465, KB 463, **필필 미완료형**, 참조, 45:11; 47:12
4. 그가 그들을 위로하였더라, BDB 636, KB 688, **피엘 미완료형**
5. 그들에게 간곡한 말로 말했다(문자적으로, “심장에 말했다,” 참조, 34:3; 삿 19:3; 룻 2:13)

**개역개정 50:22-26**

<sup>22</sup>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백십 세를 살며 <sup>23</sup>에브라임의 자손 삼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sup>24</sup>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sup>25</sup>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sup>26</sup>요셉이 백십 세에 죽으매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50:22 “백십 세” 이것은 이집트 문학에서 이상적인 수명으로 제시된다.

50:23 “마길” 수 17:1 과 삿 5:14 를 함께 보라. 이 이름은 아마도 “구매하다” 혹은 “가치”(BDB 569)라는 뜻을 가진 어근과 비슷한 단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이것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되는 내용이다. 이것은 고대 근동 문화의 관용적 표현으로서 양자 삼음(참조, 30:3; 48:12) 혹은 어떤 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임을 나타낸다.

50:24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돌보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했다(참조, 창 15:16)! 요셉은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이제 그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떠나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일으키실 것이다(즉, 모세, 아론, 여호수아 등).

요셉이 한 말은 같은 어근의 **칼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 동사**가 함께 사용된 경우로서 그 의미를 강조하여 나타낸다(BDB 823, KB 955, 문자적으로는 “방문하다”로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하심과 돌보심을 나타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참조, 출 3:16; 4:31; 룻 1:6; 습 2:7)). 이러한 형태가 24 절과 25 절에서 나타나고 있다!

50:25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아버지가 그곳에 묻혔듯이 자신도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다(참조, 출 13:19; 수 24:32).

50:26 “입관” 이 단어(BDB 75)는 다음을 의미할 수 있다

1. **케**(언약케, 즉, 출 25:22; 26:33; 30:6; 민 10:33; 신 10:8; 31:9; 수 3:3), 종교적으로 사용된 성스러운 상자
2. **관**,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됨(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을 사용하지 않았다)
3. **케작**, 돈을 담기 위한(즉, 왕하 12:10; 대하 24:8,10,11)  
영어에서 “케”(BDB 1061)로 번역된 또 다른 단어는
  1. 노아의 방주(즉, 창 6:14)
  2. 모세의 갈대 상자(즉, 출 2:3)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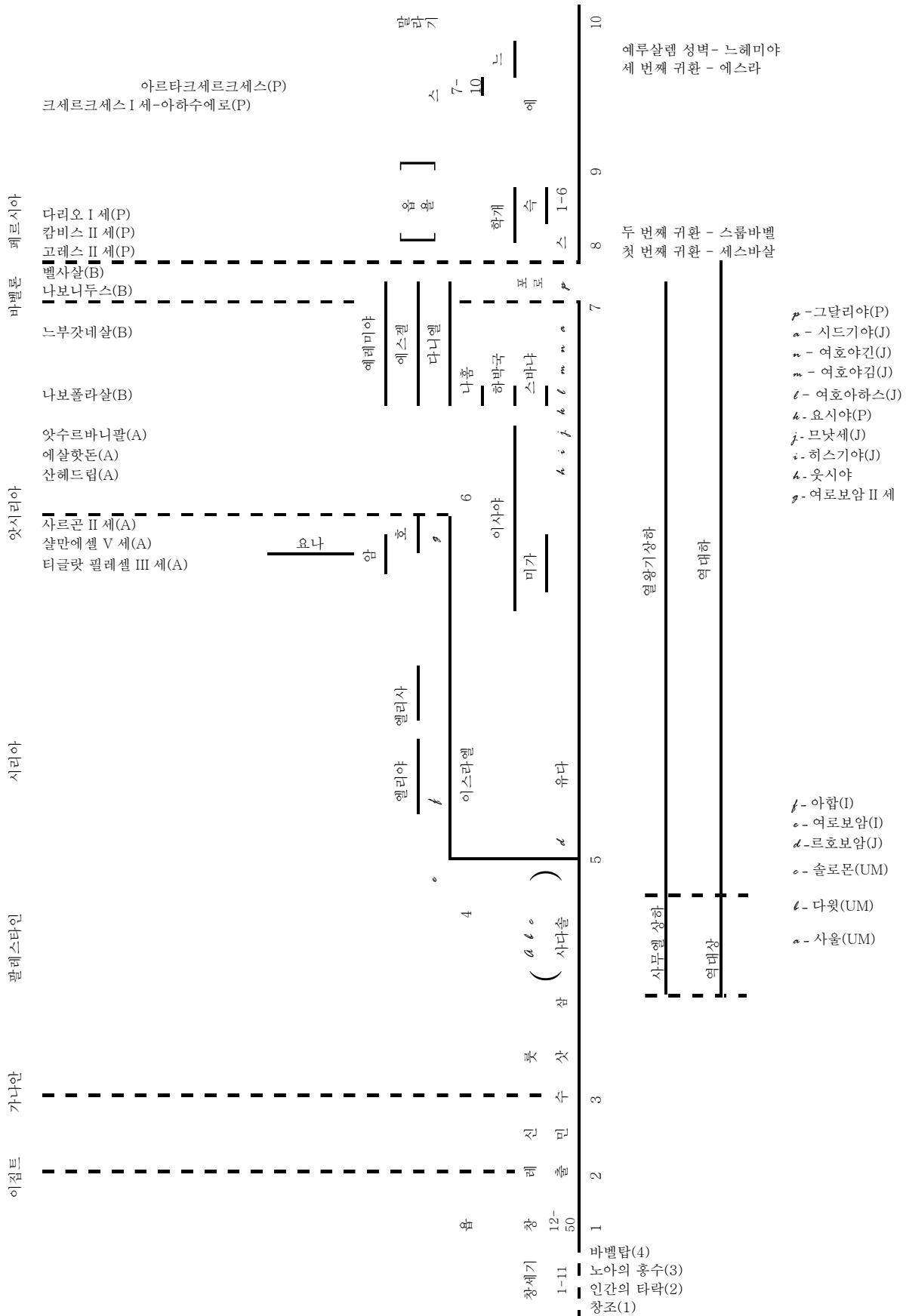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야곱을 위해 이집트 왕족의 장례가 거행되었는가?
2. 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신뢰하지 못했는가?
3. 19-20 절을 45:5-15 과 비교하여 볼 때 어떻게 다른가?

## 부록 I

### 구약 전체의 연대표

(다음 페이지에 있음)



## 시기를 정할 수 없는 사건들(창 1-11 장)

1. 창조(창 1-2 장)
2. 인간의 타락(창 3 장)
3. 노아 시대의 홍수(창 6-9 장)
4. 바벨탑(창 10-11 장)

## 시기를 정할 수 있는 사건들

- |                           |                     |
|---------------------------|---------------------|
| 1. 족장 시대(창 12-50 장과 욥)    | 주전 2000 년           |
| 2. 애굽에서 나옴(출애굽)           | 주전 1445 년 또는 1290 년 |
| 3. 가나안 정복(여호수아)           | 주전 1440 년 또는 1250 년 |
| 4. 통일왕국(사울, 다윗, 솔로몬)      | 주전 1000 년           |
| 5. 분열왕국(르호보암-여로보암 I 세)    | 주전 922 년            |
| 6. 앗시리아에게 사마리아(이스라엘)가 멸망함 | 주전 722 년            |
| 7.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유다)이 멸망함    | 주전 586 년            |
| 8. 돌아가라는 고레스(페르시아)의 칙령    | 주전 538 년            |
| 9. 성전 재건                  | 주전 516 년            |
| 10. 구약시대의 마침(말라기서)        | 주전 430 년            |

## 왕의 계보

- |  |   |
|--|---|
| <p>가. 통일왕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울(a)</li> <li>2. 다윗(b)</li> <li>3. 솔로몬(c)</li> </ol> <p>나. 이스라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로보암 I 세(e)</li> <li>2. 아합(f)</li> <li>3. 여로보암 II 세(g)</li> </ol> <p>다. 유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르호보암(d)</li> <li>2. 웃시야(h)</li> <li>3. 히스기야(i)</li> <li>4. 므낫세(j)</li> <li>5. 요시야(k)</li> <li>6. 여호아하스(l)</li> <li>7. 여호야김(m)</li> <li>8. 여호야긴(n)</li> <li>9. 시드기야(o)</li> <li>10. 그달리야(p)</li> </ol> | <p>라. 앗시리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티글랏 빌레셀 III 세(745-727)</li> <li>2. 살만에살 V 세(727-722)</li> <li>3. 사르곤 II 세(722-705)</li> <li>4. 산헤립(705-681)</li> <li>5. 에살핫돈(681-669)</li> <li>6. 앗수르바니팔(669-663)</li> </ol> <p>마. 바벨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나보폴라살(626-605)</li> <li>2. 느부갓네살(605-562)</li> <li>3. 나보니두스(556-539)</li> <li>4. 벨사살</li> </ol> <p>바. 페르시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레스 II 세(550-530)</li> <li>2. 캄비스 II 세 (530-522)</li> <li>3. 다리우스 I 세(522-486)</li> <li>4. 크세르크세스 I 세(486-465)</li> <li>5. 아르타크세르크세스(465-424)</li> </ol> |
|--|---|

## 부록 2

### 교리적 선언

나는 믿음의 어떤 특별한 선언이나 신조에 관심이 있지 않다. 나는 오히려 성경 자체의 진리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나는 믿음의 진실이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교리적 입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는 수 많은 신학적 오류와 속임을 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나의 신학의 간략한 요약물 제시하려고 한다.

1. 구약과 신약은 모두 영감되었고 오류가 없으며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성경은 초자연적 인도하심아래 사람에게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계시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진리와 그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자료이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과 행함을 위한 유일한 자료이다.
2. 오직 한 분이신 영원하시고 창조주 이시며 구속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다. 그는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면서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는 구별되는 세 인격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진실로 분리되면서도 그 본질에 있어 똑같으시다.
3. 하나님은 그의 세계를 능동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 창조에 대한 그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계획과 더불어,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는 개인에 초점을 둔 계획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지식과 허락없이는 아무것도 일어 나지 않으면서도, 또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선택을 받으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그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미리하시는 것은 인간이 이미 쓰여진 각본을 따라 사는 것으로 전락시키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책임있는 자들이다.
4.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없는 상태로 지음을 입었지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택했다. 비록 초자연적 존재에 의해 유혹을 받았지만,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들의 반역은 인류와 창조에 영향을 미쳤다. 아담과 우리가 함께 처한 상황과 우리 자신이 개인적인 의지로 반역한 일로 인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필요로 한다.
5.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위해 용서와 회복의 길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시고, 죄없는 삶을 사시고,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과 교제를 위한 유일한 길이 되신다. 그가 성취하신 일을 믿음으로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길이 전혀 없다.
6. 우리 각자는 예수님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올바른 관계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제안을 반드시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결심과, 자신이 알고 있는 죄로부터 결심하고 떠남으로써 이루어진다.
7.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둔 우리의 신뢰와 죄의 회개에 기초하여 완전히 용서받고 회복됨을 누린다. 또한 이렇게 새로워진 관계의 증거는 변화되었고 또한 계속 변화를 경험하는 삶으로 드러난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앞으로 언젠가 하늘에서 있을 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진정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비록 때때로 죄를 짓게 될지라도 믿음과 자백을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할 것이다.
8. 성령은 “다른 예수님”이시다. 그는 잃어버려진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일하신다. 성령의 열매는 구원을 받을 때에 주어진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서 예수의 삶과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자세와 동기를 기본적으로 반영하는 은사는 성령의 열매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아야 한다. 성경이 기록되던 때에 성령이 활동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성령이 활동적으로 일하시고 계신다.
9. 성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의 심판자로 세우셨다. 그는 온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를 믿고 자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의 재림 때에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기를 거부한 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질 것이다. 그들은 악마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완전하거나 자세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신학적인 맛을 여러분께 주리라 기대한다. 나는 이 말을 좋아한다:

“본질적인 내용에는—일치를, 그 외의 것에는—자유를, 모든 일에 있어서는—사랑을”